

口訣學會 30周年 記念 國際學術大會

The 3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3)

Writing Systems of Asian Peoples (3)

日字: 2026年 2月 10日 (火)

場所: 서울大學校 14棟 B101號

主管: 口訣學會

■ Program ■

- Date: February 10, 2026 (Tue)
- Venue: B101, 14th Buil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in Topic: Writing Systems of Asian Peoples (3)

Time	Contents	Moderator
Opening Ceremony		
10:10-10:20	Opening Remarks: LEE Yong(President of the Society)	HEO Inyeong (Inha University)
10:20-10:30	Congratulatory Remarks: NAM Pung-hyun(Advisor of the Society, Professor Emeritus at Dankook University, Korea)	
10:30-10:40	Congratulatory Remarks: KOSUKEGAWA Teiji (President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en Language)	
Part 1: Kanbun Kundoku in Japan		
10:40-10:40	Issues in Kunten Research - KOSUKEGAWA Teiji (University of Toyama)	SHIN Woongchul (Hanbat University)
10:40-11:30	The Significance of the Glossed Manuscript in Japanese Linguistic Research: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Kanbun Kundoku on the Japanese Language - Matthew ZISK (Tohoku University)	
11:30-13:00	Lunch	
Part 2: Asian Scripts and their Adaptation (1)		
13:00-13:50	The linear and composite adaptation models of Chinese script in Asia - Zev HANDEL (University of Washington)	KIM Yupum (Korea University)
13:50-14:00	Break	
Part 3: Asian Scripts and their Adaptation (2)		
14:00-14:50	Changes in the Meaning and Creation of Character Types of Kanji in Ancient Japan - SASAHARA Hiroyuki (Waseda University)	YI Jun-hw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4:50-15:40	Methodology for Reconstructing Ancient Phonetic System of Chinese Characters - CHU Chia Ning (National Chengchi University-University of Wales)	
15:40-15:50	Break	
Part 4: Adaptation of Chinese Script in Korea		
15:50-16:40	Patterns and Evolution of Sinographic Adaptation in <i>Chajaphyogi</i> - LEE Yong (University of Seoul)	KIM Ji-oh (Dongguk University)
16:40-17:30	On the Adaptation of Sinograms for Specific Morphemes in Korean Sinographic Writing - MOON Hyunsoo (Korea University)	
Closing Ceremony		
17:30-17:40	Paper Award Ceremony	HEO Inyeong (Inha University)
17:40-17:50	General Assembly	
17:50-18:00	Closing Remarks: LEE Yong (President of the Society)	

■ 일정표 ■

- 일자: 2026년 2월 10일(화)
- 장소: 서울대학교 14동 B101호
- 기획 주제: 아시아 제민족의 문자(3)

일 정	발표 및 내용	사회
개회식		
10:10-10:20	개회사: 이용(李勇, 구결학회장)	허인영 (한국·인하대)
10:20-10:30	축사: 남풍현(南豐鉉, 한국·구결학회 고문, 단국대 명예교수)	
10:30-10:40	축사: 고스케가와 데이지(小助川貞次, 일본·훈점어학회 회장)	
제1부 일본의 한문 훈독		
10:40-10:40	훈점 연구의 과제 - 고스케가와 데이지(小助川貞次, 일본·전 도야마대)	신웅철 (한국·국립 한밭대)
10:40-11:30	일본어학 연구에서 훈점 자료의 의의: 한문 훈독이 일본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매튜 지스크(일본·도호쿠대)	
11:30-13:00	점심식사	
제2부 아시아의 문자와 그 변용(1)		
13:00-13:50	아시아에서 한자 변용에 관한 선형·복합 모델 - 제브 핸델(미국·워싱턴대)	김유범 (한국·고려대)
13:50-14:00	휴식	
제3부 아시아의 문자와 그 변용(2)		
14:00-14:50	고대 일본에서 한자의 자의 변화와 자종 창조 - 사사하라 히로유키(笹原宏之, 일본·와세다대)	이준환 (한국·전남대)
14:50-15:40	한자 고음 재구의 방법론 - 촉가녕(竺家寧, 대만·전 국립정치대, 웨일스대)	
15:40-15:50	휴식	
제4부 한국의 한자 변용 문자		
15:50-16:40	한국 차자표기에 나타난 한자 변용 양상과 변천 - 이용(李勇, 한국·서울시립대)	김지오 (한국·동국대)
16:40-17:30	특정 형태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한국의 차자표기자에 대하여 - 문현수(文玄洙, 한국·고려대)	
폐회식		
17:30-17:40	구결학회 학술논문상 시상	허인영 (한국·인하대)
17:40-17:50	총회	
17:50-18:00	폐회사: 이용(李勇, 구결학회장)	

■ Contents

Part I Kanbun Kundoku in Japan

Issues in Kunten Research (Original text: Japanese) KOSUKEGAWA Teiji 21

The Significance of the Glossed Manuscript in Japanese Linguistic Research: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Kanbun Kundoku on the Japanese Language Matthew ZISK 63

(Original text: English)

Part II Asian Scripts and their Adaptation (1)

The linear and composite adaptation models of Chinese script in Asia Zev HANDEL 107

(Original text: English)

Part III Asian Scripts and their Adaptation (2)

Changes in the Meaning and Creation of Character Types of Kanji

in Ancient Japan (Original text: Japanese) SASAHARA Hiroyuki 129

Methodology for Reconstructing Ancient Phonetic System

of Chinese characters (Original text: English) CHU Chia-Ning 265

Part IV Adaptation of Chinese Script in Korea

Patterns and Evolution

of Sinographic Adaptation in Chajaphyogi (Original text: Korean) LEE Yong 319

On the Adaptation of Sinograms for Specific Morphemes

in Korean Sinographic Writing (Original text: Korean) MOON Hyunsoo 363

■ 목 차

<제1부 일본의 한문 훈독>

훈점 연구의 과제 (원문: 일본어)	고스케가와 데이지	21
일본어학 연구에서 훈점 자료의 의의:		
한문 훈독이 일본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원문: 영어)	매튜 지스크	63

<제2부 아시아의 문자와 그 변용(1)>

아시아에서 한자 변용에 관한 선형·복합 모델 (원문: 영어)	제브 핸델	107

<제3부 아시아의 문자와 그 변용(2)>

고대 일본에서 한자의 자의 변화와 자종 창조 (원문: 일본어)	사사하라 히로유키	129
한자 고음 재구의 방법론 (원문: 영어)	축가녕	265

<제4부 한국의 한자 변용 문자>

한국 차자표기에 나타난 한자 변용 양상과 변천 (원문: 한국어)	이용	319
특정 형태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한국의 차자표기자에 대하여 (원문: 한국어)	문현수	363

Congratulatory Remarks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and honor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it is a privilege to stand before you today.

Thank you sincerely for joining us on this meaningful occasion.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has reached its 30th anniversary. Over the past three decades, numerous researchers have been nurtured, and our collective achievements in the study of borrowed-character writing systems have grown immensely. In the early days, there were few publications I hadn't read; now, the volume of work has grown so vast that it is difficult to keep up, despite my eagerness to do so. This accumulation of research is, I believe, the very testament to the history of our society.

Truthfully, the study of Kugyol is no easy task. The documents are ancient, and the characters are often so small and faint that they are difficult to read without keen eyesight. And what of the jeomto (stylus-marked) materials? I recall the intense, hours-long debates we had in the early days just to determine whether a mark was indeed a jeomto. I cannot help but express my deepest respect for the curiosity and tenacity of the scholars who have overcome these hardships to develop Kugyol studies into a systematic academic discipline over the past 30 years.

Today, we hol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itled "Writing Systems of Asian Peoples III." When the first installment of this series was held, I was a mere graduate student. I remember watching the presentations by foreign scholars with wonder, listening intently even when I could not fully grasp the content. By the time the second conference was held, I had earned my doctorate and felt a deep sense of joy at being able to understand so much more. I wonder what emotions and memories today's conference will leave me with. I hope that by the end of this event, everyone here will have a new, meaningful memory to take home.

I particularly hope this day is significant for our young researchers. Through my own studies, I have realized that true scholarship in borrowed-character systems requires a broader perspective. I hope this conference provides an opportunity to broaden your horizons regarding other writing systems with similar traditions.

I am confident that the next 30 years of the Society will be even brighter. Even in an era where AI can automatically decipher Kugyol, I believe that the final judgment will ultimately rely on our own eyes and intuition.

In closing, I would like to express my profound gratitude to the senior researchers who have sustained this society for 30 years, and I offer my respect and encouragement to the young researchers who will lead us through the next 30.

Once again,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Society of Kugyol.

Thank you.

LEE Yong
President of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축 사

존경하는 구결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결학회가 벌써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연구자가 배출되었고, 차자표기 연구 성과도 상당히 축적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처음에는 읽지 않은 논저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읽지 못한 논저가 더 많아졌습니다. 모두 읽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그 양이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연구 성과야말로 우리 구결학회의 역사를 말해 주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구결 연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문헌은 오래되었고, 글자는 작고 희미하여 시력이 좋지 않으면 읽기조차 어렵습니다. 점토 자료는 또 어떻습니까. 처음 접했을 때는 이것이 과연 점토인지 아닌지를 두고 장시간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난 30년 동안 구결 연구를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시켜 오신 여러 선생님들의 호기심과 집념에 깊은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제민족의 문자(3)’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아시아 제민족의 문자(1)’이 개최되었을 당시 저는 존재감 없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시는 모습을 신기한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무슨 말씀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발표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아시아 제민족의 문자(2)’가 열렸을 때는 어느덧 박사학위를 받은 뒤였고, 그전보다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제게는 또 어떤 감정과 기억으로 남을지 궁금합니다. 학술대회가 끝났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새로운 기억 하나씩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 여러분께 더욱 뜻깊은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차자표기를 연구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유사한 전통을 지닌 다른 문자 체계에 대해서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30년도 우리 구결학회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AI가 구결을 자동으로 판독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결국 마지막 판단은 우리의 눈과 감각에 의지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0년 동안 학회를 지켜 오신 선배 연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30년을 책임질 젊은 연구자 여러분께도 미리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구결학회 30주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만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결학회 회장 이용

祝 辞

尊敬する口訣学会の会員の皆様、そして本日この席を輝かせてくださった内外の貴賓の皆様に、謹んでご挨拶申し上げます。

本日はご多忙の折、お集まり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口訣学会が創立30周年を迎えました。この30年間で多くの研究者が輩出され、借字表記の研究成果も相当な蓄積を見せました。私自身、以前は読んでいない論文を探す方が難しかったのですが、今では読み切れないほど論文が増えました。すべてに目を通したいという気持ちは山々ですが、その膨大な量に圧倒されるばかりです。このように積み上げられた研究成果こそが、我が口訣学会の歴史を物語る証左ではないでしょうか。

実のところ、口訣の研究は決して容易ではありません。文献は古く、文字は小さくかすれており、視力が良くなければ判読することさえ困難です。点吐資料はどうでしょうか。初めて接したときは、それが果たして点吐であるか否かをめぐり、長時間にわたって熾烈な論争を繰り広げたこともありました。そうした困難を克服し、30年間にわたり口訣研究を体系的な学問へと発展させてこられた諸先生方の好奇心と執念に対し、深い敬意を表さずにはられません。

本日は「アジア諸民族の文字(III)」という題で国際学術大会が開催されます。「アジア諸民族の文字(I)」が開催された当時、私はまだ存在感のない大学院生でした。海外から来られた先生方の発表を不思議な気持ちで見つめ、内容を完全に理解できないながらも真剣に耳を傾けていました。「アジア諸民族の文字(II)」が開催されたときは、いつの間にか博士号を取得した後で、以前よりも多くの内容を理解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とが非常に嬉しかったのを覚えています。本日の学術大会が、私にとってどのような感情と記憶として残るのか楽しみです。大会が終わる頃、ここにいらっしゃる皆様の心に、新たな記憶が一つずつ刻まれ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特に、若手研究者の皆様にとって、より意義深い一日となることを祈念いたします。私は借字表記を研究しながら、真の研究のためにはより広い視野が必要であることを痛感いたしました。今回の学術大会が、類似の伝統を持つ他の文字体系についても見聞を広める機会と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これからの30年も、口訣学会の行く手は明るいものと確信しております。AIが口訣を自動で判読する時代が来たとしても、最終的な判断は、結局のところ我々の目と感覚に委ねられることになると思っています。

最後になりますが、この30年間学会を守ってこられた先輩研究者の皆様に深く感謝申し上げるとともに、これからの30年を担う若手研究者の皆様にも、あらかじめ敬意と応援の拍手を送ります。

口訣学会の創立30周年を改めて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祝辞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口訣学会会長 李勇

祝 詞

尊敬的口訣學會各位會員，以及蒞臨現場的各位海內外貴賓，大家好。

衷心感謝各位今天齊聚一堂。

口訣學會已經迎來了創立30週年的里程碑。在過去的30年裡，大批研究人才輩出，借字表記的研究成果也日趨豐碩。對我而言，起初幾乎沒有我沒讀過的論著，而現在，沒讀過的論著已經多得數不勝數。雖然渴望讀完所有作品，但面對如此龐大的數量，確實感到力不從心。而這堆積如山的研究成果，正是見證我們口訣學會歷史的最好證明。

坦白說，口訣研究絕非易事。文獻年代久遠，字跡微小模糊，若視力稍差，甚至連閱讀都十分困難。還有點吐資料，初次接觸時，我們曾為了辨別其是否為點吐而進行了長時間的激烈爭論。即便如此，各位老師依然克服重重困難，在過去30年間將口訣研究發展成為一門系統的學科，對此我向各位展現出的好奇心與執著表示由衷的敬意。

今天，我們以「亞洲諸民族的文字（III）」為題舉辦國際學術研討會。回想起舉辦「亞洲諸民族的文字（I）」時，我還是一名默默無聞的研究生。當時我帶著好奇的心情注視著國外專家的發表，雖然不能完全聽懂，卻聽得異常認真。當「亞洲諸民族的文字（II）」舉辦時，我已獲得博士學位，那種能比以前理解更多內容的感覺讓我倍感欣喜。我不禁在想，今天的學術研討會又將給我留下怎樣的情感與記憶。希望研討會結束時，在座的每一位都能收穫一份嶄新的記憶。

我尤其希望今天能成為年輕研究者們意義非凡的一天。在研究借字表記的過程中，我深切體會到，要做好研究需要更加開闊的視野。希望本次研討會能成為大家拓寬見聞、了解具有相似傳統的其他文字體系的契機。

我堅信，在未來的30年裡，口訣學會的前景依然光明。即便進入AI自動識別口訣的時代，我相信最終的判斷仍需依賴我們的雙眼和敏銳的感官。

最後，向30年來守護學會的前輩研究者們致以深深的謝意，同時也向將擔負起未來30年重任的年輕研究者們預先送上誠摯的敬意與支持。

再次衷心祝賀口訣學會創立30週年。

謝謝大家。

口訣學會會長 李勇

Congratulatory Message

On behalf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en Language,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on the auspicious occasion of your 30th anniversary. The numerous achievements attained over the past three decades are truly illustrious. Of particular note is the discovery of the jeomto-kugyol materials in 2000.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dedicated its full collective expertise to the deciphering and study of these materials.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held at Hokkaido University in the summer of 2001, these findings were presented not only by the leading figures of the Society but also by its promising young researchers. This inclusive and rigorous approach to academic organization is truly remarkable and worthy of special mention. Furthermore, as a fellow researcher, it brings me great joy to observe the continuous and evolving publication of research outcomes in *Kugyol Studies* and at the Society's regular meetings. I believe this success is a testament to the extraordinary dedication and efforts of Professor Nam Pung-hyun, who founded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as well as the many other esteemed professors involved. Additionally, we must not forget the contributions of the young graduate students who, while studying at universities in Japan and actively participating as members of the Society for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en Language, served as vital bridges for exchange between Japan and Korea.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and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en Language have maintained academic exchanges since 2017. Currently, we are moving toward the initiation of even more advanced collaborative projects. I am deeply confident that over the next ten and twenty years, our two societies will continue to flourish through even closer cooperation than before.

Teiji Kosukegawa
Presiden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en Language

축 사

구결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훈점어학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30년 동안 이루어 온 수많은 업적은 눈부신 것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2000년에 발견된 점토구결 자료에 대해 구결학회가 총력을 기울여 해독과 연구에 매진하고, 2001년 여름 홋카이도 대학에서 개최된 국제 워크숍에서 학회의 중진뿐만 아니라 젊은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일찍이 그 성과가 발표된 것은 학회 조직의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특기할 만합니다. 그 후에도 『구결연구』나 월례연구발표회에서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속속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는 것은 같은 연구자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구결연구회·구결학회를 창립하신 남풍현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의 각별한 노고가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더불어 일본 대학에 유학하여 훈점어학회 회원으로 활약하는 한편, 한일 교류의 가교 역할도 해 준 젊은 대학원생들의 공로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구결학회와 훈점어학회는 2017년부터 학술 교류를 이어 오고 있으며, 현재는 한층 더 발전적인 교류 프로젝트의 시작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구결학회와 훈점어학회는 지금보다 더 긴밀히 협력하여 크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훈점어학회 회장 고스케가와 데이지

祝 辞

口訣学会が創立30周年を迎えられましたこと、訓点語学会を代表して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この30年の中で成し遂げられました数々の業績は、輝かしいものに満ち溢れています。とりわけ2000年に発見されました点吐口訣資料は、口訣学会が総力を挙げて解説と研究に取り組み、2001年夏に北海道大学で開催された国際ワークショップでは、すでにその成果が口訣学会の重鎮だけではなく若手研究者によっても発表されたことは、学会組織のあり方として特筆に値することです。その後も『口訣研究』や「口訣学会例会」に継続的かつ発展的に次々と研究成果が発表されていることは、同じ研究者として大変嬉しく感じております。ここに至るまでには、口訣研究会・口訣学会を立ち上げられました南豊鉉先生はじめ諸先生方の並々な御尽力があったものと推察しております。加えて、日本の大学に留学され訓点語学会の会員として活躍するかたわら、日韓交流の橋渡しもしていただいた若き大学院生のことも忘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口訣学会と訓点語学会とは2017年から学術交流を行っていますが、現在はさらなる発展的交流プロジェクトの開始を目指して動き始めています。次の10年、20年、口訣学会と訓点語学会はこれまで以上に緊密に連携しながら大いに発展していくものと確信しております。

訓点語学会会長 小助川貞次

祝 詞

值此口訣學會創立30周年之際，我謹代表訓點語學會表示最衷心的祝賀。在過去的30年裡，貴學會所取得的諸多學術成就可謂燦爛輝煌。特別是2000年發現的點吐口訣資料，口訣學會傾注全力進行解讀與研究。在2001年夏天於北海道大學舉辦的國際研討會上，不僅是口訣學會的元老，連青年學者們也紛紛發表了相關成果，這種學會組織的活力與傳承極其值得稱道。此後，《口訣研究》及「口訣學會例會」持續且深入地發布研究成果，作為同行，我深感欣慰。能夠取得今日之成就，推測是離不開創立口訣研究會及口訣學會的南豐鉉先生以及諸位老師付出的非凡努力。此外，我們也不會忘記那些曾留學日本、作為訓點語學會會員活躍，並為日韓交流發揮橋樑作用的青年研究生們。口訣學會與訓點語學會自2017年起展開學術交流，目前正為了啟動更具發展性的交流項目而積極籌劃。我堅信，在未來的10年、20年裡，口訣學會與訓點語學會將比以往更加緊密地協作，共同邁向更大的繁榮。

訓點語學會會長 小助川貞次

Part I

Issues in Kuntan Research

KOSUKEGAWA Teiji (University of Toyama)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Kuntan research, which involves the study of glossing marks used to read Literary Sinitic in Japanese. The author identifies four major issues: the requirement for extensive interdisciplinary knowledge and high-level reading skills, the linguistic complexity inherent in Sinitic vocabulary and glossing errors, the restricted access to original manuscripts and copyright hurdles, and the declining research infrastructure evidenced by shrinking academic membership. To overcome these, the author proposes integrating Kuntan studies into broader university education, engaging the public through digital media, and repositioning the field within a global comparative framework of vernacular reading practices (e.g., Korean Kugyöl and Medieval Latin glosses) to rediscover its universal significance.

훈점 연구의 과제

고스케가와 데이지 (도야마대학)

본고는 일본어의 한문 훈독을 위한 부호인 훈점(訓点)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글이다. 필자는 주요 과제로 다음의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 철학·사학·불교학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초 지식과 고도의 한문 훈독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 둘째, 한자어의 전의(轉義) 문제와 훈독문이 지닌 비자연적 언어 구조 등의 내재적 문제, 셋째, 원본 열람의 어려움 및 저작권 문제로 인한 연구 성과 공표의 제약, 넷째, 학회 회원 수 감소 등 연구 체제의 쇠퇴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교육 및 일반 시민으로의 연구 저변 확대,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한 공동 연구 방식 도입, 그리고 한국의 구결(口訣)이나 중세 유럽의 라틴어 주석과 같은 세계적 훈독 현상의 관점에서 훈점 연구의 의의를 재발견할 것을 제안하였다.

訓点研究の課題

小助川貞次 (富山大学)

本稿は、訓点研究における現状と解決すべき課題を整理したものである。著者は、訓点研究には哲学・史学・文学・仏教学など多岐にわたる広範な基礎知識と、写本の誤写等をも見抜く高度な漢文訓読スキルが不可欠であることを指摘する。また、漢語の転義や訓読文特有の不自然な言語構造といった資料内在の問題に加え、原本閲覧の困難さや著作権問題による成果公表の制約、さらに学会員の減少に伴う研究態勢の衰退を大きな懸念として挙げている。これらの克服に向けて、大学教育や一般市民への門戸開放、デジタルアーカイブを活用した読者との共同研究手

法の導入を提唱する。さらに、日本の訓点研究を韓国の口訣や欧州の中世ラテン語注釈と比較し、世界の言語文化圏における普遍的な読解現象として再定義することの重要性を強調している。

訓點研究的課題

小助川貞次（富山大學）

本文探討了旨在透過標記符號閱讀漢文的訓點研究所面臨的現狀與課題。作者指出了四個核心問題：首先，研究者需要具備涵蓋哲學、史學、佛學等領域的廣博基礎知識及高水平的漢文訓讀技能；其次，存在漢語詞彙轉義及訓讀文中非自然語言結構等內在問題；第三，原件利用受限及著作權問題阻礙了研究成果的公開發表；第四，學會人數減少導致研究體制衰退。為克服這些困境，作者建議將訓點研究引入大學普及教育，利用社群媒體吸引公眾關注，並將其置於全球比較視角下（如韓國的口訣及中世紀拉丁語注釋現象），重新評估其在世界語言文化圈中的普遍意義。

Issues in Kuntē Research

KOSUKEGAWA Teiji (University of Toyama)

0. Introduction

There are two types of issues in research: issues as original research themes, and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through situational analysis, and these two are closely related. Regarding Kuntē (訓点) research, the respective issues differ depending on where one's basic understanding lies concerning "What are Kanbun Kundoku (漢文訓読) and Kuntē materials?" and "What is the purpose of Kuntē research?" To take it to an extreme, issues are the identity and originality of individual researchers themselves, and it could be said that there are as many issues as there are researchers (though there are also shared issue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paper points out the basic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Kuntē research, problems inherent in Kuntē materials, problems regarding the environment in which Kuntē materials are placed, and problems regarding the research system, and then describes the author's thoughts on how to overcome these issues.¹⁾

1. Basic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Kuntē Research

1.1. Wide-ranging Knowledge is Necessary

Kuntē materials are the records of the results of intensive study and cultivation by those involved in the Daigakuryō (大学寮) or scholar-monks at the time of glossing,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tent of the Kanbun (漢文) text (and the world beyond it); originally, they are materials unrelated to Japanese linguistics. If we are to understand Kuntē materials deeply, we must be required to undergo a "vicarious experience," following the same path as the learners (glossers) of that time. The knowledge required at that time covers a wide range of fields different from Japanese linguistics, such as philosophy, history, literature, Sinology, Buddhist studies, zoology/botany, pharmacology, history of commentary, and history of classical texts. Therefore, even if charts of Kana (仮名) character forms, Okototen (ヲコト点) diagrams, or deciphered texts are prepare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research has been completed with those alone. Rath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utilize those results to describe the history of the Japanese language. In short, "the more one knows about fields other than Japanese linguistics, the more deeply one can understand Kuntē materials." This is a fundamental principle.²⁾

1.2. High Proficiency in Kanbun Kundoku is Required

In Japan's compulsory education, students learn the "rules of Kundoku (訓読)" in first-year junior high school Japanese class. Even after completing compulsory education, they continue to study Kanbun in high school, and Kanbun is included in the Japanese section of the Common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s conduct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accounting for 45 out of 200 points). This process will continue unless there is a major revision to the Curriculum Guidelines. Therefore, those who have received secondary education in Japan (including Japanese schools overseas) have acquired Kanbun Kundoku as a reading skill. While this reading skill is indispensable as a rudimentary ability for Kuntén research, the actual Kanbun texts in Kuntén materials often contain content not covered in school education, and rudimentary Kundoku skills are no match for understanding the vocabulary, grammar, and styles of the Chinese language. In particular, for Chinese texts containing colloquialisms from the Six Dynasties and Tang periods (such as *Yūsenkutsu* 遊仙窟 and *Sesetsu Shinsho* 世説新書) or Buddhist Kanbun (Chinese translations of Buddhist scriptures), which differ from the classical Kanbun taught in schoo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acquire Kundoku skills suited to each specific text.³⁾

Furthermore, the Kanbun texts in Kuntén materials are not in modern Joyo (常用) Kanji forms, but are manuscripts or woodblock prints containing ancient forms (古体字), variant forms (異体字), phonetic loans (仮借字), and abbreviated forms (略字), as well as transcription errors (omissions, miswritings, or redundant characters) and textual variations among different editions. There is a significant barrier at the stage of recognizing the Kanbun text itself, even before deciphering the Kuntén. If the Kanbun text can be recognized, can the Kuntén be read easily? It is not that simple. Kuntén consist of a complex combination of Kana glosses and Okototen, which differ from modern orthography. The mental process of a researcher deciphering these is not about individually deciphering the added Kuntén themselves. Rather, it can be said from experience that the researcher compares and cross-references, semi-unconsciously and instantaneously, the Kundoku sentence generated in their mind (mental Kundoku sentence) based on their own Kundoku skills for the Kanbun text, with the Kuntén actually added. This is a task of rearranging and matching the seemingly disjointed Kana glosses and Okototen into an orderly sequence (a task that could be called craftsmanship). Moreover, in actual Kuntén materials, there are few cases where glosses are added in a complete form; many texts have only partial glosses or no glosses at all, and researchers must supplement these through their own ability. It is impossible to decipher Kuntén by looking at them in isolation; our own advanced reading activity of "reading the Kanbun text" is absolutely necessary.

2. Problems Inherent in Kuntén Materials

2.1. Primary and Derived Meanings of Chinese Words

As stated, the difficulty of Kanbun texts lies in understanding the vocabulary, grammar, and style of the Chinese language. However, when examining this within a specific context, one must also be careful to note that the Chinese words used there are often employed not in their primary sense (本義) but in a derived sense (転義) (extensional meanings or phonetic loans). Yoshio Takeuchi states: "Characters actually used are more often phonetic loans (仮借義) or extensional meanings (転注義) rather than primary meanings. While extensional meanings can generally be inferred through common sense, phonetic loans are often completely unpredictable; the majority of misunderstandings regarding classical meanings stem from failing to identify the original character behind the loan" (支那学研究法, Iwanami Shoten, 1949, p. 131). In the case of Chinese classics, traditional ancient commentaries (古注) integrated as sub-commentary often indicate these derived meanings in the form "A, B也" (the text A means the commentary B). Furthermore, for the Confucian classics, Lu Deming's (d. 630) *Jingdian Shiwen* (經典釈文) indicates whether the relevant text is a derived meaning (or rarely, the primary meaning) through reading pronunciations (using fanqie 反切 or zhiyin 直音). To understand the Kuntan (Japanese readings/wakun 和訓) in Chinese classical materials, it is essential to refer to these ancient commentaries and the *Jingdian Shiwen*. One must be mindful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anbun text and the Japanese readings added to it (may) not be a conventional one. Conversely, if a primary meaning is added as a Japanese reading,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re is some specific intention behind that glossing. These derived meanings are often indicated by the haon-ten (破音点) of the red cinnabar marks (shuten 朱点) in Japanese Kuntan materials (both Chinese and Japanese works), Dunhuang (敦煌) glossed books (Chinese classics and Buddhist scriptures), and Vietnamese glossed books (Chinese classics, Buddhist scriptures, and national works). It can be inferred that Kanbun texts presented common difficulties in reading and comprehension for speakers of any language, including the Chinese themselves.

2.2 Deciphered Texts are Not Natural Japanese

Unlike Kana literature, Kuntan materials are records of the reading language generated during the process of contemporary learners' understanding of Kanbun texts. They reflect not only the differences in linguistic structure between Chinese and Japanese, but also include misreadings or erroneous glosses made by the learners (those who added or transferred glosses), as well as misidentifications or misreadings by the researchers deciphering the materials. Therefore, it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resulting deciphered texts differ from natural Japanese; the vocabulary and syntax, in particular, result in unnatural Japanese tha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ithout imagining the original Kanbun text (restoring the original Kanbun from a deciphered text is difficult). This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act of Kundoku is a special or even forced method of reading, where one attempts to understand the Kanbun text directly in Japanese while visually tracking it, which differs from "polished translation" that does not expose the source language.

3. Problems regarding the Environment in which Kuntan Materials are Placed

3.1. Issues with the Environment for Viewing Original Manuscripts

Regardless of the direction of Kuntan research, the identification of specific glosses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e original manuscript or reproduction materials that precisely replicate the original. However, viewing the original Kuntan materials is by no means easy. This is because, for the owners of the manuscripts, allowing a third party to view them is considered to conflict with various issues regarding preservation (prevention of deterioration due to viewing or aging), management (security against theft), and religious or ideological reasons (the consciousness of possessing cultural artifacts as one's own spiritual foundation). Specific difficulties in viewing original manuscripts include the following:

-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extant Kuntan materials are Buddhist Kuntan materials.
-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view Kuntan materials (whether Buddhist or Chinese classics) held in temple scripture repositories.
- Almost all Chinese classical Kuntan materials are either designated National Treasures or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or are Imperial Properties.
- For materials held by national institutions, information regarding viewing procedures is often unclear.
- For materials held by individuals, the names of the individuals themselves are often not made public in the first place.

This means not only that there are few Kuntan materials that anyone can view, but also that the number of researchers who have viewed them is limited to a small group, and the methods for viewing original manuscripts are not shared or passed down among researchers. Furthermore, even regarding accessible Kuntan materials, it is difficult to conduct joint group surveys except in special cases, resulting in many decipherment tasks and subsequent research being conducted individually. Consequently, deciphered texts and survey reports that cannot be verified by third parties continue to accumulate.

Precise reproductions of ancient manuscripts using collotype printing have

existed since the 1910s, but those published have been biased toward Chinese classical Kunten materials, and until recently, there were few precise reproduction materials available for Buddhist Kunten materials. Moreover, glosses are usually added multiple times using various colors and tools, such as red (shuten 朱点), ink (bokuten 墨点), white (hakuten 白点), and stylus (kaku hitsu-ten 角筆点), and there are limits to identifying these glosses in monochrome reproduction materials. Therefore, researchers who can view the original manuscript typically create a "pseudo-original" for research purposes by copying the glosses onto pre-prepared reproduction materials or a self-created Kanbun text (the process of iten 移点). It also happens that other researchers copy these (re-transfer/sai-iten 再移点). Transferred materials created in this manner are not made public as they are; in most cases, only the deciphered text based on the transferred materials is published. For third parties, this means relying on materials (deciphered texts) that differ from the original at the stage of identifying glosses. For research results published under such circumstances, it becomes difficult for general researchers and even peer reviewers of specialized journals to verify the examples (glosses) against the original, regardless of the validity of the argument.

3.2. Problems regarding the Environment for Reproduc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difficulty of viewing original manuscript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However, over the past 30 years,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archives and the competitive publication of life-sized, full-color, precise reproduction materials by publishers can be seen as a major transformation in the research environment, not only for Kunten research but also for other fields dealing with documentary materials. Furthermore, the fact that reproduction materials, which were previously difficult to obtain, are now being made available through the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leads to a further improvement of the research environment. While it cannot be said that the difficulty of viewing original manuscripts has changed compared to the past, the development of precise reproductions and digital archives is a major step forward, as it has become possible to verify examples—even if only partially—that could not be sufficiently verified before.⁴⁾

As described, it is true that the development of digital archives and the publication of life-sized, full-color, precise reproduction materials have progressed, improving the research environment even while the conditions for viewing originals remain strict.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ignificant problems hidden in relying solely on the environment for reproductions. For example, stylus glosses and Okototen added on top of the strokes of the Kanbun characters are difficult to reproduce even with precise reproduction materials or digital data. Also, when the original binding is a handscroll (kansubon 卷子本), the act of reading by "unrolling"

changes to "flipping" in codex-style reproduction materials (or moving to the next image in digital data), adding a concept of "pages" that did not exist in the original. As a result, at the parts where the text "crosses pages" in a codex, the continuity of the text is lost, making it difficult to reproduce the information that was within the visual field of the scribe or glosser (reading ahead/reading back). In Kanbun texts with many parallelisms, such as the *Moushi* (毛詩), the grasp of the Kuntén added to those parallelisms becomes interrupted in codex-style reproductions where page breaks exist.

4. Problems regarding the Research System

4.1. Declining Research System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lso affect the system of Kuntén research. There are several indicators to measure the state of the Kuntén research system. For example, numerical values such as how often "Kuntén materials," "Kuntén," or "Kundoku" are included in accepted KAKENHI projects or university syllabi (though recent syllabi may lack credibility as they may not reflect the actual state of classes), or research achievement figures searchable in CiNii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or the Database of Japanese Language Studies and Japanese Language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for Japanese Language and Linguistics), allow for specific confirmation of the number of researchers and research achievements. However, this method cannot track the trends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Kuntén research but have no research achievements yet. In contrast, the activitie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én Language (訓点語学会) (changes in the number of members over time and the activity records of how members are involved in research presentations and the academic journal) allow for a grasp of the specific research system as shown below.

[Changes in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Society]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én Language can be confirmed in the report columns of the journal *Kuntén-go to Kuntén Shiryo* (訓点語と訓点資料) or in previously public membership directories. The number of members, which was 124 at the time of founding (1953), gradually increased to 400 in the 1980s, and this state continued until 2014 (the peak was 446 members in 2002). Subsequently, it decreased rapidly, and as of January 2026, it stands at 339 (a decrease of more than 100 members in about 20 years). It is natural to assume that changes in demographics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are in the background, and it is presumed that similar phenomena are occurring in other academic societies. Therefore, a decrease in the number of members cannot be directly equated to a reduction in research activity, but for an academic society

whose main source of revenue is membership fees, a decrease in members undoubtedly leads to a reduction in activities. To maintain the number of members despite demographic changes, measures are needed to stabilize the management status and increase social recognition of the society's activities.

[Activity Records of Members of the Society]

Examining the activity records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an Language based on the number of presentations at research meetings and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⁵⁾ it can be seen that a small number of members (less than 10% of all members) who have presented 10 or more times or published 10 or more papers account for more than 40% of the total presentations and published papers. Conversely, members with only 1 presentation or 1 published paper (40-50% of all members) account for only about 10% of total presentations and published papers. While this might seem like a monopoly of society activities by specific members, it should rather be understood as representing the fact that there are extremely few members who continue their research. Of course, cases where Kuntan research results are published outside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an Language must be analyzed, along with the generation of members and the content of their research, but I believe the trends of researchers involved in "Kuntan materials," "Kuntan," and "Kundoku" will not shift. These trends are a result that heavily reflects the difficulties of the research environment mentioned above.

Based on the above, in order to prevent Kuntan research from becoming an "endangered research species"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current situation that "Kuntan research and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an Language are in decline," and to seek a path to recovery from there (specific measures will be described in Section 5).

4.2. Problems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Research Results

The problem of the declining research system is also rooted in the difficulty of publishing research results. This involves the issue of what format to use for describing decipherment results and copyright issues that arise during the publication process.

4.2.1. Formats for Decipherment Results

Although this may seem like a simple technical issue, there are several ways to describe the decipherment results of Kuntan materials (including citations within papers), and they differ as follow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 For the purpose of utilizing Kuntēn and Kuntēn materials in Japanese linguistics research (Kundoku-bun 訓読文 format)
- For the purpose of general utilization of Kuntēn and Kuntēn materials (Shakubun 釈文 format)
- For the purpose of precisely grasping all textual and glossing information (Precise Description format)

In addition, there is a description method based on the guidelines of the international joint project TEI (Text Encoding Initiative) (the latest version is P5). Whether this can be adopted in Kuntēn research needs to be considered, but as the author's understanding is insufficient, it will not be addressed here.

The Kundoku-bun format has been adopted in many Kuntēn studies since Masaji Kasuga's 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古点の国語学的研究 (1942), and it is still used by most researchers today. In this format, to use Kuntēn materials as Japanese language data, a Japanese sentence (Kundoku-bun) is created by deciphering complex glossing. For texts with partial or no glosses, "supplementary reading" (hodoku 補読) is performed, where the researcher supplements the reading to restore the whole. Furthermore, when multiple different readings are glossed for a single text, a choice must be made when creating the Kundoku-bun; as a result, unselected glosses do not appear in the final text. While the Kundoku-bun format has the constraint that it cannot be used without proficiency in Classical Japanese, its Japanese style makes it easy to create and utilize as a character-based text, similar to Kana literature.

In contrast, the Shakubun format was used in Yoshinori Yoshizawa's "故竹添井井氏所蔵唐鈔漢書楊雄伝加点到就て(上)" (1925) and the "宇多天皇宸翰周易抄" in 宸翰集解説 (1927). This format presents the Kanbun text as is, with deciphered Okototen and Kana glosses arranged in small characters below the respective Kanji. It has been used in a series of studies on *Nihon Shoki* Kuntēn materials by Harumichi Ishizuka,⁶⁾ several decipherments of Chinese classical Kuntēn materials, and the author's own decipherment of Dunhuang glossed books.⁷⁾ Fewer works have been published in this format compared to the Kundoku-bun format. In this format, the Kanbun text is shown with the same line and character spacing as the original; in addition to the decipherment of Okototen and Kana glosses, it shows structural divisions (kadan 科段), punctuation, haon (破音)/tone marks (shōten 声点), and interlinear notes. Unlike the Kundoku-bun format, it does not include supplementary reading by the researcher (though Yoshizawa's version does). To use it as Japanese data, one must create a Kundoku-bun from the Shakubun, and if the text has complex glosses, the same difficulties in notation arise. While versatile because non-Japanese linguists can use the Kanbun text and notes, creating character-based texts in this format is far more difficult than the

Kundoku-bun format or Kana literature due to the complex notation.

The Precise Description format was develop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two formats to be more manageable as character-based text. It precisely describes all textual and glossing information as simple character text and can be called an objective decipherment without supplementary reading (precedents for this format exist in the decipherment of Korean Jeomto Kugyol 点吐口訣 materials). However, this format requires many symbols to represent complex glosses; while convenient for searching and quantitative processing, its drawback is that it cannot be used as-is for Japanese language data because it lacks supplementary reading. It is a format recently used by some researchers, including the author, and the establishment of a standard description format is necessary.

4.2.2. Copyright Issues

In contrast, copyright issues are an extremely serious problem not only for Kuntén research but for any research dealing with documentary materials. The complex glossing state of Kuntén materials often cannot be explained by text alone, so researchers sometimes incorporate plates from reproduction books or public image databases when summarizing results. Unlike the era when manuscripts were typeset by publishers, it has become common to create manuscripts as electronic files, making it very easy to incorporate plates. This is especially true for the journal *Kuntén-go to Kuntén Shiryo*, where manuscripts are submitted as camera-ready copies by the authors. However, while Article 32, Paragraph 1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Act No. 48 of 1970, latest revision Act No. 33 of 2023) states that "Published works may be used by quoting them... in a manner consistent with fair practice and within a scope justified by the purpose of... research," and Article 48 mandates the indication of the source, many reproductions include phrases such as "Reproduction prohibited," "Secondary use prohibit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owner and publisher," or "Unauthorized reproduction or reprinting of all or part of this book is prohibited," which troubles researchers. When inquiring with publishers and owners just in case, publishers often give permission, but owners may state that the use of plates is for a fee, require the donation of the research product (the work), and in some cases, even charge for the publication of deciphered texts (sometimes even refusing permission for full transcription or transliteration). In short, showing examples as plates or publishing deciphered texts becomes quite difficult for researchers without funding. One keenly feels that, except for a few holding institutions, the spirit of Creative Commons has not permeated the field of classical texts.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bout to begin research will prioritize materials that can be used for free and without permission over the material's value or significance in analysis, leading to a loss of the very purpose of research. Compared to overseas

cultural property holding institutions, the poverty of the spirit regarding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is strongly felt. These problems in publishing research results are a combination of internal factors related to the nature of Kunten materials and external factors at the final exit of publication, and are considered a major factor in the decline of Kunten research.

5. How to Overcome These Issues

Among the various problems discussed so far, the "Issues with the Environment for Viewing Original Manuscripts" is something we must resign ourselves to as being currently unavoidable in Japan. However, the "Basic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Kunten Research" and "Problems Inherent in Kunten Materials" can be overcome through effort, and technical issues like the "Problems regarding the Environment for Reproductions" are expected to be resolved eventually by recent innovative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contrast, the "Problems regarding the Research System" are an imminent concern facing researchers and academic organizations; if not addressed promptly, Kunten research will become an "endangered research species." Therefore, I would finally like to suggest several measures that might help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research system.

[Opening Kunten Research to University Education]

Offering university courses specialized in Kunten research is not entirely realistic given the small number of researchers in the field, and unlike popular classical literary works, it would not be easy to spark student interest. On the other hand, since Kundoku skills are abilities acquired in junior high and high school and are even required for university entrance exams, it should be possible to expand and deepen these skills. Furthermore, Kundoku skills are essential in Japanese linguistics, Japanese literature, Chinese linguistics, Chinese literature, Chinese philosophy, Japanese history, Oriental history, and Buddhist studies. Thus, it is possible to introduce them as common foundational subjects (e.g., "Kanbun and Sinology") across these specialized fields.

The biggest problem for such a plan is the near total lack of appropriate teaching materials (in terms of content and price) and model course reports. The traditional teaching method—exemplified by former national universities—where students taking a course on Kunten research were immediately integrated into group projects for the organization and decipherment of materials, learning the basics through "imitation" and "noticing" (the so-called apprenticeship system), is likely impossible in today's university education where the syllabus is treated as an absolute rule. However, it is a fact that this apprenticeship method, which might seem reckless at first glance, functioned well at the time and produced many excellent researchers. While it is difficult to think of an alternative, in recent

years, precise images of classical texts including Kuntēn (訓点) materials, basic data, and corpora have been made public, and many interactive research meetings and study groups using networks are being held. Prominent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are also increasingly releasing videos. It would be entirely possible to develop a course by combining these resources (while receiving support from teaching assistants). The online Kuntēn material workshops conduct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lso serve as a model. Creating opportunities to open Kuntēn research to students i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Opening Kuntēn Research to the General Public]

As mentioned earlier, those who have received secondary education in Japan (including Japanese schools overseas) have acquired Kanbun Kundoku as a reading skill, albeit at different levels. While efforts in university education are effective for increasing social recognition of Kuntēn research, involving the general public who already possess Kundoku skills would be even more effective. Research presentations and workshops held by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ēn Language are open to non-members, providing good opportunities to experience Kuntēn research. However, since the research presentations are highly original and specialized, the threshold for public participation is high. In contrast, the Kuntēn material workshops offer beginner to intermediate content aimed at students and young researchers, often dealing with specific materials, making them more accessible, especially when held online. However, while university education involves choosing from a relatively limited set of courses, participating in society presentations or workshops requires a pre-existing interest and intent to join. To draw in the general public, a "mechanism" is needed—something like a product in a shop window that someone happens to see while passing by on the street. Expecting major discoveries or award articles on the front page of a newspaper, or creating large-scale commercial ads, is unrealistic. In this regard, disseminating information via SNS and video sites is more practical. While commercial ads draw in viewers in 15 to 30 seconds, and YouTube Shorts do so in under 60 seconds, no one has yet attempted to encapsulate the interest and essence of Kuntēn research in such a short format. "Passing-by Kuntēn research" might seem unorthodox, but the very fact that we find it impossible to summarize it within 60 seconds may be the pitfall that keeps Kuntēn research isolated as an "ivory tower." Breaking out of this pitfall will also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Re-evaluating and Rediscovering the Significance of Kuntēn Research and Kundoku Phenomena within Global Trends]

In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ēn Language, there have been reports on Kanbun Kundoku using languages other than Japanese within the Sinosphere since the late 1960s.⁸⁾ In recent years, it has become known that phenomena similar to

Kundoku can also be found in medieval Latin documents in Europe.⁹⁾ Furthermore, interest in the Kundoku phenomenon within the Sinosphere has begun to grow among European researchers, leading to workshops on annotation and decipherment phenomena in global linguistic and cultural spheres, as well as publications resulting from those efforts.¹⁰⁾

However, actively referring to these presentations or inheriting such research is limited to only a few members, and the vast majority of members have extremely low interest. Despite the fact that Japanese Kuntén research has a longer tradition and a greater volume of research results compared to other languages in the Sinosphere,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re has been/is a lack of perspective in positioning Japanese Kuntén research within the languages of the Sinosphere or the linguistic cultures of the world. This is not necessarily because the system of Japanese Kuntén research has declined; rather, a major factor in the background is that from the very beginning of Kuntén research, there has been an effort to limit its significance to the study of Japanese language history, as represented by Masaji Kasuga's "国語資料としての訓点の位置" (Kokugo Kokubun 5(2), 1935). Although regular academic exchanges with the Society for Kugyol Studies (口訣学会) have continued since 2017, the reason the interest of Japanese researchers has not significantly changed is exactly the same.

In the first place, when classical literature that transcends languages and nations spreads widely in a certain region, a phenomenon is thought to occur where people attempt to decipher those classical texts using their own vernacular language. Looking at actual extant documents, various symbols and characters are often written directly onto the documents during the decipherment process; these symbols and characters possess regularity, and some are common within or even across regions. The Kuntén generally understood in Japanese Kundoku are merely a part of the symbols and characters that exist across the world's linguistic and cultural spheres for deciphering classical literature. From this perspective, there are two crucial points regarding Kuntén: in what language is the classical literature written (cosmopolitan language), and what is the native language (vernacular language) used to decipher it? Currently known to global researchers are the glosses (additions) in Japanese, Chinese, Korean, and Vietnamese for Literary Sinitic texts (Chinese classics, Buddhist scriptures), and in Old Irish, Old High German, Old English, etc., for medieval Latin texts (scriptures). (Similar phenomena exist in other linguistic and cultural spheres as well.) Because people who received secondary education in Japan (including Japanese schools overseas) have acquired Kanbun Kundoku as a reading skill—regardless of their level—a misconception has taken root that Japanese Kuntén are unique and that the invention of Kuntén and Kundoku is exclusive to Japan. There is little opportunity for the general public, let alone researchers, to reconsider what kind of linguistic activity Kundoku actually is. Global trends are already progressing while taking

Japanese Kundoku and Kuntēn research into account. By relatively positioning the significance of traditional Kuntēn research and Kundoku phenomena within the linguistic and cultural spheres of the world, I believe there are many things that can be re-evaluated and rediscovered.

[Building Works Jointly with Readers]

The copyright issue is a problem as difficult as the issue of viewing original manuscripts. However, the method of showing examples of Kuntēn through images is a recent development (since the spread of digital images and Windows); in the past, it was standard to show examples through deciphered texts (character strings), so such troubling problems did not exist. Currently, if one attempts to use images in a work, it is common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owner of the original and, if using a reproduction, from the publisher as well. In such cases, the owner of the original often charges a fee (ranging from several thousand to tens of thousands of yen per image). To avoid this through a direct approach, one must either persistently explain the necessity of free image use to the owner and convince them, or file a civil lawsuit based on copyright law and win. (One should not use loopholes such as secretly publishing works in overseas journals where they won't be noticed by the owner, or "pretending" not to know that permission for image publication was required.) To avoid permissions and fees without the time and effort of a direct approach, the following 二 methods are realistic: [1] If a digital archive or precise reproduction material is public, show the example only in character text as before, but add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image, and leave the reconstruction of the complete work with the image to the reader. [2] If no digital archive or precise reproduction exists and one possesses private images or transferred materials (iten-shiryō 移点資料), show the example only in character text as before, and lend the images or transferred materials to readers individually upon request, on the condition that they are not disseminated. The point of leaving the reconstruction of the complete work to the reader is the same as [1], but the images or transferred materials remain effectively private/shared. With such methods, the credibility of examples will improve significantly compared to traditional works consisting only of character text; if the same method can be used for peer-reviewed submissions, the accuracy of peer reviews will undoubtedly improve as well.

6. Conclusion

I have primarily pointed out the difficulties of Kuntēn research, but I believe that no field of study exists where things can be done easily. However, half a century ago, when I first caught a glimpse of Kuntēn research, there were far more researchers and students engaged in it than there are now, and I felt a sense of

momentum. One might think that the various issues of Kunten research have been mostly completed and that it has now passed its period of full maturity. However, as the research situation abroad becomes clearer, it is gradually coming into view that the phenomenon of deciphering classical texts may have commonalities and universalities both within and across linguistic and cultural spheres.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Kunten materials/research and Korean Kugyol (口訣) materials/research is precisely one such example. While it is true that Kunten research has its difficulties as pointed out in this paper, I cannot help but feel that attractive research topics with a grand scale—which might be resolved by looking abroad—lie dormant.

-
- 1) This paper draws heavily on the author's own following works; however, except for citations from other authors' literature, explicit citations from the author's own works are omitted:
 -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Research on Chinese Classical Kunten Materials in Japan (*Kugyol Studies* 18, 2007)
 - A Concept for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Kanbun Kundoku (*Journal of the Faculty of Humanities*, University of Toyama 56, 2012)
 - Problems of Kunten Research in the Facsimile Edition Environment (*Journal of the Faculty of Humanities*, University of Toyama 64, 2016)
 - On the Credibility of Kunten (*Kokugo to Kokubungaku* 96(5), 2019)
 - An "Ultra" Introduction to Kunten Research (*The Challenge of Japanese Character Theory*, Bensei Publishing, 2021)
 -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the Access Environment to Kunten Materials in Japan and Research Results (*Research Report Collection of the 2022 Comprehensive Survey Group of Kozan-ji Documents and Manuscripts*, 2023)
 - Kunten and Kugyol (*Encyclopedia of Kanji Culture*, edited by the Society of Japanese Kanji, Maruzen Publishing, 2023)
 - Significance and Issues of Kunten Research in Japanese Linguistics (International Symposium "Research and Education in Japanese Language—From an Applied Linguistics Approach—"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University of Languages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5)
 - 2) As introductory books for Chinese classics and Buddhist scriptures in general: For Chinese classics, Naoki Kano, *Kanbun Kenkyu-ho* (Misuzu Shobo, 1979 → Toyo Bunko 890, Heibonsha, 2018); Yoshio Takeuchi, *Shina-gaku Kenkyu-ho* (Iwanami Shoten, 1949 → The Complete Works of Yoshio Takeuchi Vol. 9, Kadokawa Shoten, 1979); Shigeru Shimizu, *Chugoku Mokuroku-gaku* (Chikuma Shobo, 1991). For Buddhist scriptures, Yoshimitsu Aitani, "How to Search for Buddhist Scriptures (Kanbun Materials)" (FY2011 Asia Information Training Materials, 2012); Motohiro Yoritomi and Eikei Akao, *Basic Knowledge for the Appreciation of Sutra Manuscripts* (Shibundo, 1994).
 - 3) As introductory books for understanding Chinese vocabulary, grammar, and style: Akiyasu Todo, *Kanbun Nyumon* (Gakuto Bunko, 1962); Tokuji Ushijima, *Kango Bunpo-ron* (Ancient Period) (Taishukan Shoten, 1967); Tokuji Ushijima, *Kango Bunpo-ron* (Middle Ages) (Taishukan Shoten, 1971); Ryuichi Kosatsu, *Lectures on Chinese Annotation—Volume of the Classics* (Hozokan, 2022); Shoko Kanaoka, *How to Read Buddhist Kanbun* (Shunjusha, 1978); Jo Ito, *Introduction to Buddhist Kanbun* (Daizokyo Shuppan, 1995); Tokuji Ushijima, Junichi Kosaka, and Akiyasu Todo (eds.), *Chinese Culture Series 1* (Language) (Taishukan Shoten, 1967). Regarding the history of linguistics in pre-modern China, Shoji Oshima, *History of Chinese Linguistics* (Kyuko Shoin, 1997 → Revised Edition, 2003) is a high-quality introductory book.

- 4) Useful precision image databases for Kunten research include e-Museum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al Heritage), the Imperial Household Agency Archives and Mausolea Department Chinese Classics Collection,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Cabinet Library, the National Institute for Japanese Language and Linguistics Japanese Language History Research Materials, the Kyoto University Rare Materials Digital Archive, and the Waseda University Database of Japanese and Chinese Classics. Precision reproductions in actual size and color include Bensei Publishing's *Toyo Bunko Selected Works Series* (2014-), *Hanshu Yang Xiong Zhuan* (2019), *Saidaiji Manuscript Konkomyo Saishoo-kyo* (2013), Yagi Shoten's *New Tenri Library Selected Works Series* (2015-2021), and *Sonkeikaku Selected Works Facsimile Collection* (1993-). Publications of reproduction materials via the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include *Classics Preservation Society Reproductions* (1924-1941), *Maeda Ikutokukai Sonkeikaku Library Series* (1926-1952), and *Kyoto Imperial University Faculty of Letters Facsimile Old Manuscripts* (1922-1942).
- 5) The number of presentations at research meetings and papers published in the academic journal are as follows:
 - Number of presentations at "Research Meetings": From the 1st (June 1954) to the 130th (May 2024) (Joint presentations are counted as 1 each)
 - ・ Total presentations: 966 (including the canceled 122nd meeting; actual count is 924)
 - ・ Total presenters: 275
 - ・ Classification by number of presentations:
 - ・ 10 or more times: 14 people (0.051) → Total 388 times (0.401)
 - ・ 5 or more times: 43 people (0.156) → Total 585 times (0.601)
 - ・ 2 or fewer times: 189 people (0.687) → Total 239 times (0.247)
 - ・ 1 time: 139 people (0.505) → Total 139 times (0.144)
 - Number of papers in *Kunten-go to Kunten Shiryo*: From the 1st (April 1954) to the 152nd (March 2024) issue (Including greetings and articles other than research papers. Co-authored papers are counted as 1 each)
 - ・ Total papers: 861 (actual count is 802)
 - ・ Total authors: 235
 - ・ Classification by number of publications:
 - ・ 10 or more papers: 23 people (0.098) → Total 384 papers (0.446)
 - ・ 5 or more papers: 47 people (0.2) → Total 525 papers (0.610)
 - ・ 2 or fewer papers: 151 people (0.643) → Total 207 papers (0.240)
 - ・ 1 paper: 95 people (0.404) → Total 95 papers (0.110)
- 6) *Toyo Bunko Iwasaki Manuscript Nihon Shoki Text and Index*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Society, 1978); "The Insei Period Glosses of the Maeda Manuscript Nihon Shoki-Text Volume" (*Journal of the Faculty of Letters*, Hokkaido University 25(2), 1977 → *Sonkeikaku Library Manuscript Nihon Shoki Text and Comprehensive Kunten Index*, Yagi Shoten, 2007); "The Toshoryo Manuscript Nihon Shoki Glosses circa Eiji 2 (Text Volume)" (*Journal of the Faculty of Letters*, Hokkaido University 27(1), 1979 → Toshoryo Manuscript Nihon Shoki Text Volume, Miki Shuppan, 1980).
- 7) "On the Dunhuang Manuscript Chunqiu Jingzhuan Jijie (S.85)" (*Kunten-go to Kunten Shiryo* 142, 2019); "Bibliographic Catalog of Dunhuang Chinese Classics (Stein Collection, Documents)" (*Journal of the Faculty of Humanities*, University of Toyama 73, 2020); "Bibliographic Catalog of Dunhuang Chinese Classics (Pelliot Collection, Documents 1)" (*Journal of the Faculty of Humanities*, University of Toyama 74, 2021).
- 8) Regarding Dunhuang glossed books: Harumichi Ishizuka, "On the Glossed Books of Medieval China" (17th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en Language, 1967 → *Bokubi* 201, 1970; "Glossed Books of Dunhuang" in *Dunhuang Hanbun Literature*, 1992); Ibid., "Kundoku of Kanbun among Peoples Surrounding China" (*Kunten-go to Kunten Shiryo* 90, 1993); Yoshinori Kobayashi, "Kakupitsu Documents of Dunhuang-Glosses in the British Library 'Guanyin Sutra' (S.5556)" (*Kunten-go to Kunten Shiryo* 96, 1995); Ibid., "The Relationship between Kakuhitsu Symbols and Annotations in Dunhuang Documents

- and Ancient Japanese Kunten" (*Kunten-go to Kunten Shiryo* 100, 1997); Teiji Kosukegawa, "On the Glossing Method of the Dunhuang Manuscript Moushi Zhengjian (S.10)" (90th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en Language, 2004 → KAKENHI Report *Philological and Linguistic Study of Korean and Old Japanese Books in the British Library*, 2007); Ibid., "Research Issues Surrounding Dunhuang Glossed Books" (97th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en Language, 2007 → *Journal of the Faculty of Humanities*, University of Toyama 49, 2008); Ibid., "On the Problem of Glossing in Dunhuang Chinese Classics" (*Kunten-go to Kunten Shiryo* 143, 2019); Ibid., "On the Dunhuang Manuscript *Chunqiu Jingzhuan Jijie* (S.85)" (*Kunten-go to Kunten Shiryo* 142, 2019); Ibid., "On the Material Character of the Dunhuang Manuscript Analects" (*Kunten-go to Kunten Shiryo* 153, 2024), etc. Regarding Korean Kugyol materials: Nam Pung-hyun, "On the Kugyol of the Old Korean Translation of the *Inwang-gyeong*" (50th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en Language, 1984); Ibid., "Retrospect and Prospect of Kugyol Research in Korea" (*Kunten-go to Kunten Shiryo* 100, 1997); Nam Pung-hyun, Lee Seung-jae, and Yun Haeng-sun, "On Jeomto Kugyol in Korea" (*Kunten-go to Kunten Shiryo* 107, 2001); Yoshinori Kobayashi and Hiroko Nishimura, "Survey Report on Extant Kakupitsu Documents in Korea" (*Kunten-go to Kunten Shiryo* 107, 2001); Nam Pung-hyun, "On the Types and Transitions of Ancient Korean Kugyol" (*Kunten-go to Kunten Shiryo* 118, 2007); John Whitman, "The Intersection of Kugyol Materials and Kunten Materials—Focusing on Okototen/Jeomto in the Sato Manuscript 'Hwaeom-munui-yogyoeol'" (100th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en Language, 2009); Nam Pung-hyun, "Record of the 100th Commemorative Lecture: On the Contribution of Kugyol Materials to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History" (*Kunten-go to Kunten Shiryo* 123, 2009). Regarding Vietnamese Kanbun literature (Kanbun reading/glossed books): Nguyen Thi Oanh, "On Kanbun Kundoku in Vietnam" (109th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en Language, 2013 → *Kunten-go to Kunten Shiryo* 133, 2014); Teiji Kosukegawa, "On Glossed Materials in Vietnam" (*Kunten-go to Kunten Shiryo* 133, 2014); Nguyen Thi Thu Huyen, "Possibilities of Kundoku from the Punctuation of Vietnamese Glossed Materials" (*Kunten-go to Kunten Shiryo* 145, 2020); Ibid., "On Kanbun Reading in Vietnamese—Focusing on the *Lunyu Yuejie* Wei Ling Gong Chapter in the Han-Nom Institute Collection" (*Kunten-go to Kunten Shiryo* 151, 2023), etc.
- 9) John Whitman, "Is 'Kundoku' Exclusive to the Sinosphere?—The Spread of Popular Relig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Vernacular Reading" (*Nihongogaku* 32(13), 2013); Ibid., "Methods of Reading Latin Scriptures and Buddhist Scriptures" in Tokio Shinkawa (ed.), *The Turn and Expression of Buddhist Civilization*, Bensei Publishing, 2015; Ibid., "On the Annotation Systems of 'Vernacular Reading' in Medieval Europe—In Comparison with Japanese Kunten" (Lecture at the 125th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Kunten Language, 2021).
- 10) [1] Workshop on Comparative Glossing Practices (ICHOLS 14), Aug 28-Sep 1, 2017, Paris → Glossing Practice: Comparative Perspectives, Lexington Books, Feb 2023; [2] Comparative Perspectives on Manuscript Annotation, c. 600-1200 CE, June 21-22, 2018,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3] Handbook of Glossing Workshop, Sep 28-29, 2023,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훈점 연구의 과제

고스케가와 데이지 (훈점어학회 회장)

0. 머리말

과제에는 오리지널 연구 테마로서의 과제와 현상 분석을 통해 보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두 종류가 있으며, 이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훈점 연구에 관해 말하자면, ‘한문 훈독·훈점 자료란 무엇인가’, ‘훈점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각각의 과제도 달라진다. 극언하자면 과제는 개별 연구자의 정체성이나 독창성 그 자체이며, 연구자의 수만큼 과제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다(물론 공유할 수 있는 과제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훈점 연구에 요구되는 기초 지식과 기술, 훈점 자료에 내재하는 문제, 훈점 자료가 놓인 환경의 문제, 연구 체제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아가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¹⁾

1. 훈점 연구에 요구되는 기초 지식과 기술

1.1. 광범위한 지식의 필요성

훈점 자료는 가점 당시의 대학료(大學寮) 관계자나 학습 등이 한문 본문의 내용(나아가 그 너머에 있는 세계)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하고 연마한 결과를 기록한 것이며, 본래는 일본어학과는 무관한 자료이다. 우리가 훈점 자료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당시의 학습자(가점자)와 같은 길을 따라가는 ‘추체험(追体験)’이 요구될 것이다. 이때 필요한 지식은 철학·사학·문학, 한적학·불교학·동식물학·의약학, 주석사·전적사 등 일본어학과는 다른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다. 따라서 가나자체표(假名字體表)·오코토점도(ヲコト點圖), 해독문, 데이터베이스 등이 공표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훈점 자료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훈점 자료·훈점어를 충분히 이용하기 어렵다. 훈점 연구에 많은 시간과 인내력이 필요한 이유는 훈점의 해독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한문 본문의 배경 이해와 후에 서술할 한문 본문 자체의 이해에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²⁾

1.2. 한문 훈독의 높은 기술이 필요

일본의 의무 교육에서는 중학교 1학년 국어 시간에 ‘훈독의 규칙’을 학습하고,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도 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에서 한문을 계속 배우며, 대학입시센터가 실시하는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의 국어 교과에서도 한문이 출제된다(200점 중 45점). 이러한 프로세스는 학습지도요령이 크게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해외의 일본인학교도 포함)에서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독서 기술로서의 한문 훈독을 익히게 된다. 이러한 독서 기술로서의 훈독은 훈점 연구의 초보적인 힘으로서 불가결한 것이지만, 실제 훈점 자료의 한문 본문은 학교 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많으며, 한어의 어휘·어법·문체 등의 이해는 초보적인 훈독 기술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육조·당대의 구어를 포함한 한적(유선굴(遊仙窟), 세설신서(世說新書) 등)이나 불교 한문(한역 불전)은 학교에서 배우는 고전 한문과는 다

르므로, 각각의 텍스트에 맞는 훈독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³⁾

더욱이 훈점 자료의 한문 본문은 현재의 상용 한자체가 아니라 고체자·이체자·가차자·약자 외에도 오사(오타·오기·연자)나 이본에 따른 본문 차이를 포함하는 필사본·판본이며, 훈점 해독 이전에 본문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큰 벽이 있다. 그러면 한문 본문을 인식할 수 있으면 훈점은 간단히 읽을 수 있는가 하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훈점은 현대어 표기와는 다른 가나점과 오코토점의 복잡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을 해독하는 연구자의 심적 과정은, 가점된 훈점 그 자체를 개별로 해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문 본문에 대해 자신의 훈독 기술에 따라 뇌내에 작성되는 훈독문(심적 훈독문)과 실제 가점된 훈점을 하나하나 비교 대조하여 일견 제각각으로 보이는 가나점과 오코토점을 정연하게 정렬하고 매칭시키는 작업을 거의 무의식적이고 순간적으로 수행한다고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다(이 작업은 장인의 기술과도 같다). 게다가 실제 훈점 자료에서는 완전한 형태로 가점된 예가 적으며, 부분적 가점이나 전혀 가점이 없는 본문도 많아 그것들을 연구자의 힘으로 보충해야 한다. 훈점만 개별적으로 보서는 해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연구자 자신의 ‘한문 본문을 읽는다’라는 고도의 독서 활동이 필요하다.

2. 훈점 자료에 내재하는 문제

2.1. 한어의 본의(本義)와 전의(轉義)

한문 본문의 어려움은 한어의 어휘·어법·문체 등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서술했으나, 이를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 그곳에 사용되는 한어는 본의(本義)가 아니라 전의(轉義: 전주·가차)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다케우치 요시오는 “실제로 사용되는 문자는 본의보다는 오히려 가차의(假借義)나 전주의(轉注義)가 많다. 그리고 전주의는 상식으로 판단해도 대략 짐작이 가지만 가차의에 이르러서는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고전의 의미가 오해되는 대부분은 가차자의 본래 글자를 떠올리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지나학 연구법』 이와나미 쇼텐, 1949년, 131쪽)라고 서술했다. 한적의 경우에는 할주(割注)로 편입되는 전통적인 고주(古注)가 이러한 전의를 “A, B也”(본문 A는 주석 B의 의미이다)와 같이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한적 경서에서는 육덕명(630년 사망)의 『경전석문』이 해당 본문에 대해 전의(드물게는 본의)임을 독서음(반절·직음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적 훈점 자료의 훈점(和訓)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주나 경전석문을 참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한문 본문과 그곳에 가점되어 있는 화훈과의 관계는 상용적인 관계가 아닐(수도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본의가 화훈으로 가점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가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전의는 일본의 훈점 자료(한적·국서), 돈황 가점본(한적·불전), 베트남 가점본(한적·불전·국서) 등 어느 자료에서도 주점(朱點)의 파음점(破音點)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한문 본문은 중국어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언어 화자에게나 독해하는 데 공통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2 해독문은 자연스러운 일본어가 아니다

훈점 자료는 가나 문헌과는 달리, 당시의 학습자가 한문 본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독해 언어가 기록된 것이며, 한어와 일본어의 언어 구조 차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점자·이점자)의 독해 과정에서의 오독이나 오점(誤點)에 더해 훈점 자료를 해독하는 연구자

의 오인이나 오독도 존재한다. 따라서 완성된 해독문은 자연스러운 일본어와는 다르며, 특히 어휘와 구문은 한문 본문을 떠올리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운 일본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해독문에서 원래의 한문을 복원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훈독이라는 행위가 원래의 언어를 표출시키지 않는 ‘매끄러운 번역’과는 달리, 한문 본문을 눈으로 보면서 일본어로 직접 이해하려고 하는 특수하거나 강제적인 독해 방법인 것에 기인한다.

3. 훈점 자료가 놓인 환경의 문제

3.1. 원본 열람 환경의 문제

훈점 연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훈점의 인정은 원본 혹은 원본을 정밀하게 재현한 복제 자료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훈점 자료의 원본 열람은 결코 쉽지 않다. 이는 원본 소장자에게 있어 원본을 제3자에게 열람시키는 것이 보존상(열람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열화 방지), 관리상(도난에 대한 보안), 종교·사상상(자신의 근간이 되는 문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의 여러 문제에 저촉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원본 열람의 구체적인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 현존하는 훈점 자료는 압도적 다수가 불서(佛書) 훈점 자료이다.
- 사찰 경장(經藏)의 훈점 자료(불전이든 한적이든) 열람은 극히 어렵다.
- 한적(漢籍) 훈점 자료는 거의 모두가 국보·중요문화재 지정품이거나 황실 재산이다.
- 국립 기관이 소장한 자료도 열람 절차에 관한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 개인이 소장한 자료는 애초에 개인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훈점 자료가 적다는 것뿐만 아니라, 열람해 본 적이 있는 연구자가 소수로 한정되어 원본 열람 방법이 연구자 간에 공유 및 계승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열람 가능한 훈점 자료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룹 공동 조사가 어려워, 해독 작업과 그 이후의 연구도 개인에 의한 것이 많아지게 된다. 그 결과, 제3자가 검증할 수 없는 해독문이나 조사 보고가 축적되기에 이른다.

정밀한 콜로타이프 인쇄에 의한 고사본(古寫本) 복제는 1910년대부터 존재해 왔으나, 공간(公刊)된 것은 한적 훈점 자료에 편중되어 불서 훈점 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밀 복제 자료는 최근까지도 적은 상태였다. 또한 가점(加點)은 주점(朱點), 묵점(墨點), 백점(白點), 각필점(角筆點) 등 다양한 색채와 가점 도구에 의해 여러 차례 가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흑백 복제 자료로는 이러한 훈점들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연구자는 미리 준비한 복제 자료나 스스로 작성한 한문 본문에 훈점을 옮겨 적는 작업(이점 작업)을 수행하여 연구용 유사 원본을 만드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를 다른 연구자가 다시 옮겨 적는(재이점) 일도 일어난다. 이렇게 작성된 이점(移点) 자료는 그대로 공개되는 일이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점 자료에 기초한 해독문만이 공개되는 데 그친다. 제3자 입장에서는 훈점 인정 단계에서 원본과는 다른 자료(해독문)에 의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는 일반 연구자나 전문지의 심사자에게도 논지는 차치하고 용례(훈점)를 원본과 대조하여 검증하기 어렵게 만든다.

3.2. 복제본 환경의 문제

원본 열람이 곤란한 상황은 장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30년 정도 사이에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비가 급속히 진행되고, 또한 출판사들이 경쟁적으로 원본 크기·원색[原寸原色]의 정밀한 복제 자료를 공간(公刊)하게 된 것은 훈점 연구뿐만 아니라 문헌 자료를 다루는 타 분야에 있어서도 연구 환경의 커다란 변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동안 입수하기 어려웠던 복제 자료도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서 공개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연구 환경의 한층 더한 향상으로 이어진다. 원본 열람의 어려움은 종래와 비교해 변화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정밀한 복제 자료나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비에 의해 그동안 충분히 검증할 수 없었던 용례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진전이다.⁴⁾

이처럼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비와 원본 크기·원색의 정밀한 복제 자료 공간이 진전되어, 원본 열람 환경이 어려운 중에서도 연구 환경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복제본 환경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커다란 문제도 잠재해 있다. 예를 들어 각필점(角筆點)이나 한문 본문의 자획 위에 가점된 오코토점(ヲコト點)은 정밀한 복제 자료나 디지털 데이터로도 재현하기 어렵다. 또한 원본의 장정(裝訂)이 권자본(두루마리)인 경우에는 ‘마는’ 독서 행위가 책자 형태의 복제 자료에서는 ‘넘기는’(디지털 데이터에서는 다음 이미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바뀌어, 원본에는 없었던 페이지 개념이 더해지게 된다. 그 결과 책자 형태의 ‘페이지 경계’ 부분에서는 텍스트의 연속성이 상실되어, 서사·가점자의 시각 영역에 들어와 있던 정보(미리 읽기/뒤로 읽기)를 재현하기가 어려워진다. 『모시(毛詩)』처럼 대구(對句)가 많은 한문 본문에서는 ‘페이지 경계’가 존재하는 책자 형태의 복제본의 경우, 대구에 가점된 훈점 파악이 끊기게 되기도 한다.

4. 연구 체제의 문제

4.1. 쇠퇴하는 연구 체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훈점 연구의 체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훈점 연구의 체제를 측정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예를 들어 과학연구비 채택 과제나 대학의 강의계획서 안에 ‘훈점 자료’, ‘훈점’, ‘훈독’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와 같은 수치(최근의 강의계획서는 수업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혹은 CiNii(NII 국립정보학연구소)나 일본어 연구·일본어 교육 문헌 데이터베이스(국립국어연구소)에서 검색할 수 있는 연구 업적 수치 등을 통해 연구자 수와 연구 업적 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으로는 훈점 연구에 관심은 있으나 연구 업적이 없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동향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비해 훈점어학회의 활동 동향(회원 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및 연구 발표회와 기관지에 회원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라는 활동 실적)을 통해서는 아래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연구 체제를 파악할 수 있다.

[훈점어학회 회원 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훈점어학회의 회원 수는 기관지 『훈점어와 훈점 자료』의 휘보란이나 과거에 공개되었던 회원 명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족 당시(1953년) 124명이었던 회원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400명에 달했으며, 이후 이 상태가 2014년까지 지속되었다(가장 많았던 때는 2002년의 446명이다). 그 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6년 1월 시점에는 339명이다(20여 년 사이에 100명 이상 감소). 배경에는 인구 동태의 변화(저출산 고령화)가 있음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학회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회원 수의 감소가 곧바로 연구 활동의 축소라고 할 수는 없으나, 회원의 회비를 주 재원으로 하는 학회에 있어서 회원 수의 감소는 분명 활동의 축소로 이어진다. 인구 동태가 변화하더라도 회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 상태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학회 활동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훈점어학회 회원의 활동 실적]

훈점어학회 회원의 활동 실적을 연구발표회에서의 발표 수와 기관지 게재 논문 수로 조사해 보면,⁵⁾ 연구 발표 10회 이상 및 게재 논문 10편 이상의 실적을 가진 소수의 회원(전체 회원의 10% 미만)이 각각 전체 발표 수와 게재 논문 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발표 1회 및 게재 논문 1편인 회원(전체 회원의 40~50%)은 전체 발표 수와 게재 논문 수의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 회원에 의한 학회 활동의 독점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회원이 극히 적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훈점 연구의 성과를 훈점어학회 이외의 장소에서 공표하는 경우나 회원의 세대 및 연구 내용 등을 포함하여 분석해야 하겠으나, ‘훈점 자료’, ‘훈점’, ‘훈독’에 관련된 연구자의 동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동향이야말로 위에서 언급한 연구 환경의 어려움을 짚게 반영하는 결과인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훈점 연구가 향후 ‘멸종 위기 연구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점 연구나 훈점어학회는 쇠퇴하고 있다’라는 현상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그로부터의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은 5절에서 서술한다).

4.2. 연구 성과 공표의 문제

연구 체제 쇠퇴의 문제는 연구 성과 공표의 어려움에도 그 요인이 있다. 여기에는 해독 결과를 어떤 포맷으로 기술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구 성과 공표 시에 발생하는 저작권상의 문제가 있다.

4.2.1. 해독 결과의 포맷

이는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훈점 자료의 해독 결과 기술 방법(논문 내 인용 포함)에는 연구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훈점 연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훈점이나 훈점 자료를 일본어 연구에서 이용할 목적(훈독문 형식)
- 훈점이나 훈점 자료를 범용적으로 이용할 목적(석문 형식)
- 모든 본문 정보와 가점 정보를 정밀하게 파악할 목적(정밀 기술 형식)

이 밖에도 국제적인 공동 프로젝트인 TEI(Text Encoding Initiative)의 가이드라인(최신판은 P5)에 따른 기술 방법도 있으며, 향후 훈점 연구에서도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필자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훈독문(訓讀文) 형식은 카스가 마사지(春日政治)의 『서대사본 금광명최승왕경 고점의 국어학적 연구』(『斯道文庫紀要第一』, 1942년) 이래 많은 훈점 연구에서 채택되어 온 방식으로, 현재에도 대부분의 연구자가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형식에서는 훈점 자료를 일본어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복잡한 가점 내용을 해독한 일본어 문장(훈독문)을 작성하는데, 부분적인 가점이나 가점이 없는 본문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독해 내용을 보충하여 전체를 복원하는 ‘보독(補讀)’이 이루어진다. 또한 하나의 본문에 여러 다른 독해 내용이 가점되어 있는 경우에는 훈독문을 작성할 때 훈점을 선택해야 하며, 그 결과 선택되지 않은 훈점은 훈독문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훈독문 형식은 고전 일본어로 기술되므로 고전 일본어를 습득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제약은 있지만, 일본어 스타일이므로 가나 문헌과 같은 문자 텍스트로 작성하기 쉽고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이에 비해 석문(釋文) 형식은 요시자와 요시노리(吉澤義則)의 「고 다케조에 세이세이 씨 소장 당초 한서 양웅전 가점에 대하여(上)」(『藝文』 16(2), 1925년)이나 『신한집 해설』(1927년)에 게재된 「우다천황 신한 주역초」에서 사용된 것으로, 한문 본문을 그대로 제시하면서 해당 한자 아래에 해독한 오코토점이나 가나점을 작게 나열하는 형식이다. 이시즈카 하루미치(石塚晴通)에 의한 『일본서기』 훈점 자료의 일련의 연구⁶⁾나 약간의 한적 훈점 자료 해독문, 나아가 필자에 의한 돈항 가점본의 해독⁷⁾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훈독문 형식에 비해 공표된 것은 적다. 이 형식에서 한문 본문은 원본과 동일한 행과 글자 수로 제시되며, 훈점은 오코토점과 가나점의 해독 결과에 더해 과단(科段), 구두점, 파음·성점 및 한문 기입 주석 등도 표시되고, 훈독문 형식과 같은 연구자에 의한 보독을 포함하지 않는다(요시자와 요시노리의 방식은 보독을 포함함). 일본어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석문으로부터 다시 훈독문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해당 본문에 복잡한 훈점이 가점되어 있는 경우에는 훈독문 형식과 마찬가지로 표기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형식의 해독문은 한문 본문이나 한문 기입 주석 등을 일본어 연구자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용적이지만, 복잡한 표기가 남게 되어 문자 텍스트 작성은 훈독문 형식이나 가나 문헌에 비해 훨씬 어렵다.

이러한 훈독문 형식과 석문 형식의 특징을 바탕으로 문자 텍스트로서 다루기 쉽게 만든 것이 정밀 기술 형식이다. 이는 모든 본문 정보와 가점 정보를 심플한 문자 텍스트로 정밀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보독을 포함하지 않는 객관적인 해독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 형식의 선례는 한국의 점토구결 자료 해독문에 있다). 다만 이 형식은 복잡한 가점 내용을 표기하기 위해 부호류가 많아져 검색이나 계량 처리는 편리하지만, 보독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 자료로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최근 필자를 포함한 일부 연구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형식이며, 표준적인 기술 형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4.2.2. 저작권상의 문제

이에 비해 저작권상의 문제는 훈점 연구뿐만 아니라 문헌 자료를 다루는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훈점 자료의 복잡한 가점 상태는 텍스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연구 성과를 정리할 때 복제본이나 공개되어 있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도판을 가져와 이용하곤 한다. 투고 원고가 출판사에 의한 조판으로 작성되던 시대와 달리, 최근에는 투고 원고를 전자 파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도판을 삽입하는 것이 매우 간편해졌다. 특히 훈점어학회의 기관지 『훈점어와 훈점 자료』처럼 투고 원고가 저자에 의한 완전 완성 판본(판하)인 경우에는 더욱 도판 이용이 용이하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쇼와 45년(1970) 법률

제48호, 최신 개정은 레이와 5년(2023) 법률 제33호) 제32조 제1항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며, 보도, 비평, 연구 및 그 밖의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제48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규정된 저작물의 출처를 그 복제 또는 이용 형태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및 정도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다음 각 호’에는 제32조의 규정이 포함됨)라고 되어 있어 ‘인용’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복제본에는 ‘복제 불허’나 ‘소장자 및 출판사의 허가 없이 이차 사용을 금함’, ‘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전재·복사하는 것을 금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연구자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만약을 위해 출판사나 소장자에게 문의하면, 출판사에서는 허가가 나오지만 소장자 측에서는 도판 이용이 유료라는 점과 연구 성과(저작물)의 기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해독문 공표에도 과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전문의 번자·번각(활자화)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조차 있다). 즉, 용례를 도판으로 제시하거나 해독문을 공개하는 것은 자금이 없는 연구자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일이 된다. 일부 소장 기관을 제외하고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정신이 고전적으로는 침투해 있지 않음을 통감한다.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려는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은 자료적 가치나 분석의 의의보다 무상 및 무허가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대체 무엇을 위한 연구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 해외의 문화재 소장 기관에 비해 일본의 문화재 정신의 빈곤함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연구 성과 공표의 문제는 훈점 자료의 성격이라는 내재적 요인과 연구 성과를 공표하는 마지막 출구에 존재하는 외재적 요인이 얹힌 것이며, 훈점 연구가 쇠퇴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5.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까지 서술해 온 여러 문제 중 ‘일본 열람 환경의 문제’는 현재 일본에서 당분간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으나, ‘훈점 연구에 요구되는 기초 지식과 기술’이나 ‘훈점 자료에 내재하는 문제’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복제본 환경의 문제’와 같은 기술적 문제는 최근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의해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연구 체제의 문제’는 연구자나 학회 조직이 직면한 절박한 불안 요소이며, 조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훈점 연구는 ‘멸종 위기 연구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구 체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훈점 연구를 대학 교육에서 개방하기]

대학 교육 안에서 훈점 연구에 특화된 수업을 하는 것은 훈점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가 적은 만큼 현실적이지 않으며, 친숙한 고전 문학 작품과는 달라 수강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훈독 기술은 중·고등학교에서 익혀온 능력이며 대학 입시에서도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 기술을 확대·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훈독 기술은 한문 문헌을 다루는 일본어학, 일본문학, 중국어학, 중국문학, 중국철학, 일본사학, 동양사학, 불교학 등에서도 필수적이며, 이러한 전문 분야의 공통 기초 과목(예를 들어 ‘한문한적학’)으로서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절한(내용·가격) 교재도 모델이 될 만한 수업 보고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과거의 국립대학처럼 훈점 연구를 테마로 하는 수업을 이수하면 갑자기 훈점 자료의 정리·해독 작업에 단체 작업으로서 투입되어, 그 작업 속에서 학생 스

스로가 훈점 연구의 기초를 배워 나가는 식의 ‘흉내내기’와 ‘깨닫기’에 기대하는 수업 방법(이른바 도제 제도)은 강의계획서가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현재의 대학 교육에서는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일견 무모해 보이는 도제 제도에 의한 수업 방법은 당시에는 충분히 기능하여 많은 우수한 연구자를 배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대신할 수업 방법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지만, 최근에는 훈점 자료를 포함한 고전적의 정밀 이미지, 기초 데이터, 코퍼스 등이 공개되어 있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랙티브한 연구회나 공부 모임도 수없이 열리고 있다. 또한 저명한 연구자나 기관에 의한 동영상 공개도 진행되고 있다. 이것들을 조합하면서(수업 협력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나의 수업으로서 전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 진행해 온 온라인 훈점 자료 강습회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훈점 연구를 개방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시민에게도 훈점 연구를 개방하기]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해외 일본인 학교 포함)에서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준 차이는 있을지언정 독서 기술로서의 한문 훈독을 익히고 있다. 훈점 연구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려면 대학 교육에서의 대치는 물론 효과적이지만, 훈독 기술을 가진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더욱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훈점어학회 연구발표회나 훈점 자료 강습회는 비회원도 참가할 수 있으므로 훈점 연구를 접할 좋은 기회가 된다. 다만 훈점어학회 연구발표회는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참가하기에는 문턱이 높다. 이에 반해 훈점 자료 강습회는 학부·대학원생이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초급·중급 수준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훈점 자료를 다루는 경우도 많아 특히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더욱 참가하기 쉬워진다. 다만 앞 항의 대학 교육에서는 비교적 한정된 선택지(수업 시간표) 중에서 선택하게 되지만, 훈점어학회 연구발표회나 훈점 자료 강습회는 애초에 훈점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일반 시민을 끌어들이려면 예를 들어 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쇼윈도의 상품과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한 대발견이나 수상 기사에 기대하거나 혹은 대규모 상업 광고를 제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 SNS나 동영상 사이트를 통한 정보 발신은 보다 현실적이다. 다만 상업 광고는 15초에서 30초 정도, 유튜브 쇼츠도 최대 60초 이내에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데 반해, 훈점 연구의 재미나 에센스를 이 짧은 시간에 요약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지나가는 길의 훈점 연구’는 사도(邪道)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려고 마음먹어도 60초 이내에 요약하지 못하는 지점이야말로 훈점 연구가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아탑’이 되어 버린 함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훈점 연구나 훈독 현상의 의의를 세계의 추세 속에서 재평가·재발견하기]

훈점어학회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어 이외의 한자문화권 제언어에 의한 한문 훈독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⁸⁾ 또한 최근에는 훈독과 유사한 현상이 유럽의 중세 라틴어 문헌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⁹⁾ 나아가 유럽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한자문화권에서의 훈독 현상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여 세계의 언어문화권에서의 주석·독해 현상에 관한 워크숍 개최나 그 성과로서의 간행물도 출판되고 있다.¹⁰⁾

그런데 각각의 발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거나 혹은 이러한 연구를 계승하는 것은 일부 회원에 한정되며, 대다수 회원은 관심이 극히 낮다. 일본의 훈점 연구는 한자문화권 제언어 중에

서도 전통이 길고 연구 성과도 다른 언어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훈점 연구를 한자문화권 제언어나 세계의 언어문화권 제언어 속에 위치시키려는 시점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의 훈점 연구 체제가 쇠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훈점 연구가 시작된 당초부터 카스가 마사지의 「국어 자료로서의 훈점의 위치」(『국어·국문』 5(2), 1935년)로 대표되는 것과 같이 훈점 연구의 의의를 일본어사 연구로 한정하려 해 온 것이 큰 요인으로서 있었다고 생각된다. 구결학회와는 2017년부터 정기적인 학술 교류를 계속하고 있으나 일본 측 연구자의 관심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도 전적으로 같은 이유이다.

애초에 어떤 지역에 언어나 국가를 초월하는 고전적 문헌이 널리 보급될 때, 그 지역 내에서는 자연어에 의해 고전적 문헌을 독해하려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현존하는 문헌을 보면 독해 과정에서 다양한 부호나 문자를 문헌 위에 직접 써넣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부호나 문자에는 규칙성이 있고 지역 내에서 혹은 지역을 넘어 공통되는 것도 있다. 일본의 훈독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훈점은 세계의 언어문화권에 존재하는 고전적 문헌을 독해하기 위한 부호·문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서면 훈점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즉 고전적 문헌이 어느 언어(cosmopolitan language)로 기록되어 있는가, 독해하려 하는 자연어(vernacular language)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된다. 현재 세계의 연구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한문 문헌(한적, 불전)에 대한 일본어·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 그리고 중세 라틴어 문헌(교전)에 대한 고대 아일랜드어·고대 독일어·고대 영어 등에 의한 기입(가점)이다(그 밖의 언어문화권에도 유사한 현상이 있다). 일본에서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준 차이는 있어도 독서 기술로서의 한문 훈독을 익혀버렸기 때문에, 일본의 훈점은 유일하며 훈점과 훈독의 발명도 일본 독자적인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정착되어 있다. 연구자는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는 더더욱 훈독이란 애초에 어떤 언어 활동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할 계기가 거의 없다. 세계의 추세는 이미 일본의 훈독이나 훈점 연구도 시야에 넣고 진전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훈점 연구나 훈독 현상의 의의를 세계의 언어문화권 속에서 상대적으로 위치시켜 봄으로써 재평가·재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수 있다고 생각한다.

[논저를 독자와 공동으로 만들어 가기]

저작권상의 문제는 원본 열람과 같은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훈점의 용례를 이미지에 의해 제시한다는 방법은 최근에 와서의 일이며(디지털 이미지와 Windows 보급 이후), 과거의 훈점 연구에서는 해당 용례를 해독문(문자 텍스트)으로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었기에 이러한 고민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지 않았다. 현재 이미지를 논저에 이용하려 하면 원본 소장자와 복제본으로부터의 이용이라면 출판사로부터도 허락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경우 원본 소장자로부터는 어떠한 과금(이미지 한 점당 수천 엔에서 수만 엔)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공법으로 회피하려면 무상 이미지 이용의 필요성을 소장자에게 끈기 있게 설명하여 납득시키거나, 혹은 저작권법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일으켜 승소하는 수밖에 없다(소장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외 잡지나 출판물에 논저를 몰래 게재한다거나 이미지 게재 허락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척’을 하는 식의 빠져나갈 길은 쓰지 말아야 한다). 정공법과 같은 수고를 들이지 않고 허락과 과금을 회피하려면 이하의 두 가지 방법이 현실적이다. [1] 디지털 아카이브나 정밀한 복제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 용례는 종래처럼 필요한 사항을 문자 텍스트로만 제시하고 여기에 이미지의 소재 정보를 부가하여 이미지가 부착된 완전한 논저는 독자의 재생에 맡긴다. [2] 디지털 아카이브도 정밀한 복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비공개 이미지나

이점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용례는 종래처럼 필요한 사항을 문자 텍스트로만 제시하고 이미지나 이점 자료는 독자의 리퀘스트에 응해 퍼뜨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개별적으로 대여한다. 완전한 논저를 독자의 재생에 맡긴다는 점은 [1]과 같으나 이미지나 이점 자료는 실질적인 비공개·공유가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지금까지의 문자 텍스트만의 논저에 비해 용례의 신빙성은 대단히 향상되는 것이며, 심사가 있는 투고 논문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면 심사의 정밀도도 틀림없이 향상된다.

6. 맺음말

훈점 연구의 어려움만을 지적해 왔으나, 어떤 분야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가 처음으로 훈점 연구를 엿보았던 반세기 전은 훈점 연구에 몰두하는 연구자·학생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있어서 기세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훈점 연구의 제반 과제는 거의 완성되어 현재는 난숙기를 지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연구 상황을 알게 됨에 따라 고전적 문헌의 독해 현상에는 언어문화권 내부에서의 혹은 언어문화권을 넘는 공통성·보편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일본의 훈점 자료·훈점 연구와 한국의 구결 자료·구결 연구와의 관계는 바로 그 일례이다. 훈점 연구에는 본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장대한 스케일을 가진 매력적인 연구 과제가 잠들어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견딜 수 없다.

附記·謝辭

본고는 훈점어학회에서 기획 편집 중인 『훈점 연구 핸드북』의 원고로서 집필한 것을 구결학회 발표용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발표 기회를 주신 구결학회 이용 회장을 비롯한 관계 각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고는 JSPS 科研費 24K03918의 조성을 받은 것입니다.

- 1) 본고는 필자 자신의 다음 논고들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 많으나, 필자 이외의 문헌에서 인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논고에서 인용한 사실에 대한 명시는 생략한다.
 - 일본에서의 한적 훈점 자료 연구의 현황과 과제(『구결연구』 18, 2007년)
 - 한문 훈독사 개설의 구상(『도야마대학 인문학부 기요』 56, 2012년)
 - 영인본 환경에서의 훈점 연구의 문제점(『도야마대학 인문학부 기요』 64, 2016년)
 - 훈점의 신빙성에 대하여(『국어와 국문학』 96(5), 2019년)
 - 훈점 연구 ‘초’입문(『일본어 문자론의 도전』 벤세이 출판, 2021년)
 - 일본에서의 훈점 자료 접근 환경의 변화와 연구 성과와의 관련성(『2022년도 고잔지 전적 문서 종합 조사단 연구 보고 논집』, 2023년)
 - 훈점과 구결(일본한자학회 편 『한자문화사전』 마루젠 출판, 2023년)
 - 일본어학에서의 훈점 연구의 의의와 과제(국제 심포지엄 「일본어 연구와 교육 - 응용언어학적 접근을 통하여」 하노이 국가대학교 외국어대학교, 2025년)
- 2) 한적 및 불전 전반에 관한 입문서로서, 한적 분야에서는 카노 나오키의 『한문연구법』(미쓰즈 쇼보, 1979년→『동양문고 890』 헤이본샤, 2018년), 다케우치 요시오의 『지나학연구법』(이와나미 쇼텐, 1949년→『다케우치 요시오 전집 제9권』 카도카와 쇼텐, 1979년), 시미즈 시게루의 『중국목록학』(치쿠마 쇼보, 1991년), 불전 분야에서는 에타니 요시미치의 「불교 전적(한문 자료)을 찾는 법」(헤이세이 23년도 아시아 정보 연수 자료, 2012년), 요리토미 모토히로·아카오 에이케이의 『사경 감상의 기초 지식』(시분도, 1994년) 등이 참고가 된다.
- 3) 한어의 어휘·어법·문체 등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로서 토도 아키야스 『한문 입문』(가쿠토 문고, 1962

년), 우시지마 토쿠지 『한어문법론(고대편)』(다이슈칸 쇼텐, 1967년), 우시지마 토쿠지 『한어문법론(중고편)』(다이슈칸 쇼텐, 1971년), 코가치 류이치 『중국 주조 강의 - 경서의 권』(호조칸, 2022년), 카나오카 쇼코 『불교 한문 읽는 법』(순주사, 1978년), 이토 조 『불교 한문 입문』(다이조 출판, 1995년), 우시지마 토쿠지·코사카 준이치·토도 아키야스 편 『중국문화총서 1 (언어)』(다이슈칸 쇼텐, 1967년) 등이 참고가 된다. 또한 중국의 근대 이전 언어학사에 대해서는 오시마 쇼지 『중국 언어학사』(큐코 쇼인, 1997년→증정판, 2003년)가 훌륭한 입문서이다.

- 4) 훈점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정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는 e국보(국립문화재기구), 국내청 서릉부 소장 한적 집람, 국립공문서관 소장 내각문고, 국립국어연구소 일본어사 연구 자료, 교토대학 귀중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와세다대학 고전적 종합 데이터베이스 등이 유용하다. 또한 원본 크기·원색[原寸原色]의 정밀한 복제 자료는 벤세이 출판의 『동양문고 선본 총서』(2014년~), 동 출판사의 『한서 양웅전』(2019년), 『서대사본 금광명최승왕경』(2013년), 야기 쇼텐의 『신 천리도서관 선본 총서』(2015년~2021년), 『존경각 선본 영인 집성』(1993년~) 등이 있다.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 의한 복제 자료 공개는 『고전 보존회 복제서』(1924년~1941년), 『마에다 육덕회 존경각 총간』(1926년~1952년), 『교토 제국대학 문학부 영인 구초본』(1922년~1942년) 등이 있다.
- 5) 연구 발표회에서의 발표 수와 기관지 게재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
 - ‘연구발표회’ 발표 수: 최초(1954년 6월) ~ 제130회(2024년 5월) (공동 발표는 각각 1로 카운트)
 - 발표 편수: 966편(중지된 제122회도 포함. 실제 수는 924편)
 - 발표자 수: 275명
 - 발표 횟수별 분류
 - 10회 이상: 14명(/275=0.051) → 총수 388회(/966=0.401)
 - 5회 이상: 43명(/275=0.156) → 총수 585회(/966=0.601)
 - 2회 이하: 189명(/275=0.687) → 총수 239회(/966=0.247)
 - 1회: 139명(/275=0.505) → 총수 139회(/966=0.144)
 - 『훈점어와 훈점 자료(訓点語と訓点資料)』 게재 논문 수: 창간호(1954년 4월)~제152집(2024년 3월) (논고 이외의 인사말, 기사 등도 포함. 공저는 각각 1회로 계산)
 - 논문 수: 861편 (실제 편수는 802편)
 - 저자 수: 235명
 - 게재 횟수별 분류
 - 10편 이상: 23명 (/235=0.098) → 총수 384편 (/861=0.446)
 - 5편 이상: 47명 (/235=0.2) → 총수 525편 (/861=0.610)
 - 2편 이하: 151명 (/235=0.643) → 총수 207편 (/861=0.240)
 - 1편: 95명 (/235=0.404) → 총수 95편 (/861=0.110)
 - 6) 『동양문고 소장 이와사키본 일본서기 본문과 색인』(일본고전문학회, 1978년), 「마에다본 일본서기 원정기점(院政期點) - 본문편」(『훗카이도대학 문학부 기요』 25(2), 1977년→『존경각문고본 일본서기 본문·훈점 총색인』 야기 쇼텐, 2007년), 「도서관본 일본서기 에이지 2년경 점(본문편)」(『훗카이도대학 문학부 기요』 27(1), 1979년→『도서관본 일본서기 본문편』 미키 출판, 1980).
 - 7) 「돈황본 춘추경전집해(S.85)에 대하여」(『훈점어와 훈점 자료』 142, 2019년), 「돈황본 한적 서지 목록(스타인본·서류)」(『도야마대학 인문학부 기요』 73, 2020년), 「돈황본 한적 서지 목록(펠리오본·서류 1)」(『도야마대학 인문학부 기요』 74, 2021년).
 - 8) 돈황 가점본에 대해서는 이시즈카 하루미치 「중국 중고의 가점본에 대하여」(제17회 훈점어학회, 1967년→『보쿠비』 201, 1970년, 「돈황의 가점본」 『돈황 한문 문헌』, 1992년), 같은 이 「중국 주변 제민족에서의 한문 훈독」(『훈점어와 훈점 자료』 90, 1993년), 고바야시 요시노리 「돈황의 각필 문헌 - 대영도서관 소장 『관음경』(S.5556)의 가점 -」(『훈점어와 훈점 자료』 96, 1995년), 같은 이 「돈황 문헌에 가점된 각필의 부호와 주기 및 본방의 고훈점과의 관계」(『훈점어와 훈점 자료』 100, 1997년), 고스케가와 데이지 「돈황본 모시정전(S.10)의 가점 방법에 대하여」(제90회 훈점어학회, 2004년→과학연구비 보고서 『대영도서관 소장 조선본 및 일본 고서의 문헌학적·어학적 연구』, 2007년), 같은 이 「돈황 가점본을 둘러싼 연구 과제」(제97회 훈점어학회, 2007년→『도야마대학 인문학부 기요』 49, 2008년), 같은 이 「돈황본 한적에서의 가점 문제에 대하여」(『훈점어와 훈점 자료』 143, 2019년), 같은 이 「돈황본 춘추경전집해(S.85)에 대하여」(『훈점어와 훈점 자료』 142, 2019년), 같은 이 「돈황본 논어의 자료적 성격에 대하여」(『훈점어와 훈점 자료』 153, 2024년) 등. 한국 구결 자료에 대해서는 남풍현 「한국의 구역인왕경의 구결에 대하여」(제50회 훈점어학회, 1984년), 같은 이 「한국에서의 구결 연구의 회고와 전망」(『훈점어와 훈점 자료』 100, 1997년), 남풍현·이승재·윤희순 「한국의 점토 구결에 대하여」

- (『훈점어와 훈점 자료』 107, 2001년), 고바야시 요시노리·니시무라 히로코 「한국 유존 각필 문헌 조사 보고」(『훈점어와 훈점 자료』 107, 2001년), 남풍현 「한국 고대 구결의 종류와 그 변천에 대하여」(『훈점어와 훈점 자료』 118, 2007년), 존 휘트먼 「구결 자료와 훈점 자료의 접점 - 사토본 『화엄문의 요결』의 오코토점/점토를 중심으로 -」(제100회 훈점어학회, 2009년), 남풍현 「〈제100회 기념 강연 기록〉 한국어사 연구에서의 구결 자료의 기여에 대하여」(『훈점어와 훈점 자료』 123, 2009년) 등. 베트남 한문 문헌(한문 독해·가점본)에 대해서는 응우옌 티 오와인 「베트남의 한문 훈독에 대하여」(제109회 훈점어학회, 2013년→『훈점어와 훈점 자료』 133, 2014년), 고스케가와 데이지 「베트남의 가점 자료에 대하여」(『훈점어와 훈점 자료』 133, 2014년), 응우옌 티 투 후옌 「베트남 가점 자료의 구독점에서 본 훈독의 가능성」(『훈점어와 훈점 자료』 145, 2020년), 같은 이 「베트남어에 의한 한문 독해에 대하여 - 한놈연구원 소장 『논어약해』 위령공편을 중심으로 -」(『훈점어와 훈점 자료』 151, 2023년) 등.
- 9) 존 휘트먼 「「훈독」은 한자문화권만의 것인가 - 대중 종교의 보급과 vernacular reading의 성립 -」(『일본어학』 32(13), 2013년), 같은 이 「라틴어 교전의 독법과 불전의 독법」(신가와 토키오 편 『불교 문명의 전회와 표현』 벤세이 출판, 2015년), 같은 이 「중세 유럽에서의 「자연어 읽기」의 주석 체계에 대하여 - 일본의 훈점과 비교하여 -」(제125회 훈점어학회 강연, 2021년).
- 10) [1] Workshop on Comparative Glossing Practices (ICHOLS 14), Aug 28-Sep 1, 2017, Paris → Glossing Practice: Comparative Perspectives, Lexington Books, Feb 2023; [2] Comparative Perspectives on Manuscript Annotation, c. 600-1200 CE, June 21-22, 2018,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3] Handbook of Glossing Workshop, Sep 28-29, 2023,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訓点研究の課題

小助川貞次（訓点語学会会長）

はじめに

課題にはオリジナルな研究テーマとしての課題と、現状分析によって見えてくる解決すべき課題との二種類があって、しかもそれらは密接に関わる。訓点研究に関して言えば、「漢文訓読・訓点資料とは何か」「訓点研究の目的は何か」という基本的な認識がどこにあるかによって、それぞれの課題も異なる。極論すれば課題は個々の研究者のアイデンティティやオリジナリティそのものであり、研究者の数だけ課題が存在するとも言える（もちろん共有できる課題もある）。本稿ではこのような認識のもとに、訓点研究に求められる基礎知識とスキル、訓点資料に内在する問題、訓点資料が置かれる環境の問題、研究態勢の問題について指摘し、その上でこれらの課題をどのように克服するのかという点について稿者の考えを述べる¹。

1. 訓点研究に求められる基礎知識とスキル

1.1 広範な知識が必要

訓点資料は加點当時の大学寮関係者や学僧などが、漢文本文の内容（さらにその先にある世界）を理解するために学習研鑽を重ねた結果を記したものであり、本来は日本語学とは無縁な資料である。我々が訓点資料を深く理解しようとするれば、当時の学習者（加點者）と同じ道を辿る「追体験」が求められるはずである。その際に必要となる知識は、哲学・史学・文学、漢籍学・仏教学・動植物学・医学、注釈史・典籍史など日本語学とは異なる広範な領域に及ぶ。したがって、たとえ仮名字体表・ヲコト点図、解説文、データベースなどが公表されていても、このような訓点資料の背景に対する理解がなければ、訓点資料・訓点語を十分に利用することは難しい。訓点研究に多くの時間と忍耐力が必要であるのは、訓点の解説が難しいからではなく、漢文本文の背景の理解と後に述べる漢文本文の理解に多くの時間を要するからである²。

1.2 漢文訓読の高いスキルが必要

日本の義務教育では中学一年の国語で「訓読のきまり」を学習し、義務教育を終えた後も高等学校の国語で漢文を学び続け、大学入試センターが実施する大学入学共通テストの国語の中でも漢文が出題される（200点中45点分）。このプロセスは学習指導要領が大きく改訂されない限り今後も続く。したがって日本（海外の日本人学校も含む）で中等教育を受けた人は、読書スキルとしての漢文訓読を身に付けていることになる。この読書スキルとしての訓読は、訓点研究の初歩的な力として不可欠なものであるが、実際の訓点資料の漢文本文は学校教育では扱われない内容が多く、漢語の語彙・語法・文体などの理解には初歩的な訓読スキルでは歯が立たない。特に六朝・唐代の口語を含む漢籍（遊仙窟、世説新書など）や仏教漢文（漢訳仏典）は、学校教育で習う古典漢文とは異なり、それぞれのテキストに合った訓読スキルを習得する必要がある³。

さらに訓点資料の漢文本文は現在の常用漢字体ではなく、古体字・異体字・仮借字・略字に加

え、誤写（誤脱・誤記・衍字）や諸本の違いによる本文異同を含む写本・刊本であり、訓点の解読以前に漢文本文を認識する段階で大きな壁がある。それでは漢文本文を認識できれば訓点は簡単に読めるのかというと、それほど単純ではない。訓点は現代語表記とは異なる仮名点とヲコト点の複雑な組み合わせからなっていて、これを解読する研究者の心的プロセスは、加点された訓点そのものを個別に解読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漢文本文に対して自らの訓読スキルによって脳内に作成される訓読文（心的訓読文）と、実際に加点されている訓点を一つ一つ比較照合し、一見ばらばらに見える仮名点とヲコト点を整然と並べ直してマッチングさせる作業を半ば無意識にかつ瞬時の内に行っていると経験的に言える（この作業は職人技とも言える）。しかも実際の訓点資料では完全な形で加点される例は少なく、部分的な加点やまったく加点のない本文も多く、それらを研究者が自らの力で補わなければならない。訓点だけを個別に見ていても解読することはできず、必ず我々自身の「漢文本文を読む」という高度な読書活動が必要となる。

2. 訓点資料に内在する問題

2.1 漢語の本義と転義

漢文本文の難しさは漢語の語彙・語法・文体などの理解にあると述べたが、これを具体的な文脈の中で見ると、そこに使われる漢語は本義ではなく転義（転注・仮借）で使われていることが多いという点にも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武内義雄は「実際に使はれてゐる文字は本義よりは寧ろ仮借義転注義が多い。さうして転注義は常識で判断しても大体の見当はつくが仮借義に至つては全然あての付かない場合が多く、古典の意味が誤解される大部分は仮借字の本字に想到し得ないのに原因する。」（『支那学研究法』岩波書店、1949年、131頁）と述べている。漢籍の場合には割注として組み込まれる伝統的な古注が、この転義を「A、B也」（本文Aは注釈Bの意味である）のように示していることが多く、また漢籍経書では陸徳明（630没）の『經典釈文』が該当本文について転義（まれに本義）であることを讀書音（反切・直音等）で示している。漢籍訓点資料の訓点（和訓）を理解するためには、これらの古注や經典釈文を参照することが不可欠であり、漢文本文とそこに加点されている和訓との関係は常用的な関係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逆に本義が和訓として加点されている場合には何等かの加点意図があると考えべきである。この転義は日本の訓点資料（漢籍・国書）、敦煌加点本（漢籍・仏典）、ベトナム加点本（漢籍・仏典・国書）のいずれの資料でも、朱点の破音点で示されていることが多い。漢文本文は中国語自身を含めてどの言語話者にとっても、読解するには共通した難しさがあった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

2.2 解読文は自然な日本語ではない

訓点資料は仮名文献とは異なり、当時の学習者が漢文本文を理解する過程で発生した読解言語が記されたものであり、漢語と日本語との言語構造の違いを反映するだけでなく、学習者（加点者・移点者）の読解過程における誤読や誤点に加え、訓点資料を解読する研究者の誤認や誤読も存在する。したがって、出来上がった解読文は自然な日本語とは異なり、特に語彙と構文は漢文本文を思い浮かべなければ理解が難しい不自然な日本語であるという点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解読文から原漢文を復元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これは訓読という行為が、もとの言

語を表出させない「こなれた翻訳」とは異なり、漢文本文を目視しながら日本語で直接理解しようとする特殊なあるいは強引な読解方法であることに起因する。

3. 訓点資料が置かれる環境の問題

3.1 原本の閲覧環境の問題

訓点研究がどのような方向性をもっていたとしても、具体的な訓点の認定は原本、もしくは原本を精密に再現した複製資料に基づいて行なわれるべきである。ところが訓点資料の原本閲覧は決して容易ではない。これは原本所蔵者にとって原本を第三者に閲覧させることは、保存上(閲覧や経年による劣化の防止)、管理上(盗難に対するセキュリティ)、宗教・思想上(自らの拠り所としての文物を所有しているという意識)の諸問題に抵触する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原本閲覧の具体的な難しさは以下のような点である。

- ・現存する訓点資料は圧倒的多数が仏書訓点資料である。
- ・寺院経蔵の訓点資料(仏典でも漢籍でも)の閲覧は極めて難しい。
- ・漢籍訓点資料はほぼすべてが国宝・重要文化財の指定品か御物(皇室財産)である。
- ・国立機関が所蔵する資料も閲覧手続についての情報が不明なことが多い。
- ・個人が所蔵する資料はそもそも個人名が公開されないことが多い。

このことは誰でも閲覧できる訓点資料が少ないというだけでなく、閲覧したことのある研究者が少人数に限られ、原本閲覧の方法が研究者間で共有継承されないことを意味する。また閲覧できる訓点資料についても、特別な場合を除いてはグループで共同調査をすることは難しく、解読作業とその後の研究も個人によるものが多くなってしまう。その結果、第三者が検証できない解読文や調査報告が蓄積されることになる。

精密なコロタイプ印刷による古写本の複製は1910年代からあるが、公刊されたものは漢籍訓点資料に偏り、仏書訓点資料で利用できる精密な複製資料は近年になるまで少ない状態であった。また、加点は朱点、墨点、白点、角筆点など多様な色彩と加点点具によって複数回加えられるのが普通であり、モノクロの複製資料でこれらの訓点を識別するには限界がある。そのため、原本を閲覧できる研究者は、あらかじめ用意した複製資料や自身で作成した漢文本文に訓点を写し取る作業(移点作業)を行って、研究用の疑似原本を作成するのが通常である。これを他の研究者が写し取る(再移点)ということも起こる。このようにして作成された移点資料は、そのままの形で公開されることはなく、多くの場合は移点資料に基づいた解読文のみが公開されるに留まる。第三者にとっては訓点の認定の段階で原本とは異なる資料(解読文)に基づくことになってしまう。このような状況で発表された研究成果は、一般の研究者にもまた専門誌の査読者にも、論旨はともかくとして用例(訓点)を原本に当たって検証することは困難になってしまう。

3.2 複製本環境の問題

原本閲覧の困難な状況は将来も続くことが予想されるが、ここ30年ほどの間にデジタルアーカイブの整備が急速に進み、また出版社が競って原寸原色の精密な複製資料を公刊するようになって

たことは、訓点研究のみならず文献資料を扱う他分野にとっても、研究環境の大きな変革といえる。さらにこれまで入手困難であった複製資料も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で公開が進んでいることは、研究環境の一層の向上に繋がる。原本閲覧の難しさは従来と比べて変化があるとは言えないが、精密な複製資料やデジタルアーカイブの整備によって、これまで十分に検証できなかった用例について部分的にでも検証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とは大きな進展である⁴。

このようにデジタルアーカイブの整備と原寸原色の精密な複製資料の公刊が進展し、原本の閲覧環境が厳しい中でも研究環境は向上していることは事実である。しかし一方で、複製本環境だけに頼ることには大きな問題も潜んでいる。例えば角筆点や漢文本文の字画上に加点されたヲコト点は、精密な複製資料やデジタルデータでも再現は難しい。また原本の装訂が卷子本である場合には「まく」という読書行為が、冊子体の複製資料では「めくる」（デジタルデータでは次の画像に移動する）に変わり、原本にはなかった頁概念が加わることになる。その結果、冊子体の「頁跨ぎ」の部分ではテキストの連続性が失われ、書写・加点者の視覚領域に入っていた情報（先読み／後読み）を再現することが困難になる。毛詩のように対句が多い漢文本文では、「頁跨ぎ」が存在する冊子体の複製本では、対句に加点された訓点の把握が途切れることにもなる。

4. 研究態勢の問題

4.1 衰退する研究態勢

以上述べた問題は、訓点研究の態勢にも影響を与えている。訓点研究の態勢を測る指標はいくつかあり、例えば科研費の採択課題や大学のシラバスの中に「訓点資料」「訓点」「訓読」がどのくらい含まれるのかといった数値（近年のシラバスは授業実態を反映していない可能性があり信憑性に欠ける）、あるいはCiNii（NII国立情報学研究所）や日本語研究・日本語教育文献データベース（国立国語研究所）で検索できる研究業績の数値などでは、研究者数・研究業績数を具体的に確認できる。ただしこの方法では訓点研究に関心はあるが研究業績のない学部・大学院学生の動向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れに対して訓点語学会の活動動向（会員数の経年変化や研究発表会と機関誌に会員がどのように関わっているかという活動実績）からは、以下に示すように具体的な研究態勢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

〔訓点語学会会員数の経年変化〕

訓点語学会の会員数は、機関誌『訓点語と訓点資料』の彙報欄やかつては公開されていた会員名簿等で確認できる。発足時（1953年）に124名だった会員数は、漸増して1980年代には400名に達し、以後この状態が2014年まで続く（最も多かったのは2002年の446名である）。その後急速に減少し、2026年1月時点では339名である（20数年で100名以上減少）。背景に人口動態の変化（少子高齢化）があることは当然考えられ、他の学会でも同様の現象が起きていることが推測される。したがって会員数の減少がそのまま研究活動の縮小であるとは言えないが、会員の会費を主財源とする学会にとっては会員数の減少は間違い無く活動の縮小に繋がる。人口動態が変化してもなお会員数を維持するためには、経営状態を安定させるとともに学会活動の社会的認知度を上げる方策が必要である。

〔訓点語学会会員の活動実績〕

訓点語学会会員の活動実績を研究発表会における発表数と機関誌掲載論文数⁵で調べて見ると、研究発表数10回以上と掲載論文数10本以上の回数を持つ少数の会員（全会員数の1割未満）が、それぞれ全体の発表数と掲載論文数の4割以上を占め、逆に発表数1回と掲載論文数1本の会員（全会員数の4～5割）は、全体の発表数と掲載論文数の1割ほどしか占めていないことがわかる。このことは特定会員による学会活動の独占状態を示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が、そうなのではなく、研究を継続している会員が極めて少ないことを表わしていると考えるべきである。もちろん訓点研究の成果を訓点語学会以外の場所で公表するケースや、会員の世代や研究内容も含めて分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訓点資料」「訓点」「訓読」に関わる研究者の動向は動かないと思う。この動向こそが上に述べた研究環境の難しさを濃厚に反映する結果なのである。

以上のことを踏まえるならば、訓点研究が今後「絶滅危惧研究種」となら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は、「訓点研究や訓点語学会は衰退しつつある」という現状認識を持つことが重要であり、ここからの回復の道を探るべきである（具体的な方策は5節で述べる）。

4.2 研究成果公表の問題

研究態勢衰退の問題は、研究成果公表の難しさにもその要因がある。これには解読結果をどのようなフォーマットで記述するかという問題と、研究成果公表の際に発生する著作権上の問題とがある。

4.2.1 解読結果のフォーマット

これは技術的な問題なのでそれほど難しくはないようにも思われるが、訓点資料の解読結果の記述方法（論文中での引用も含む）には研究目的によっていくつかの種類があって、訓点研究の目的がどこにあるかによって以下のように異なる。

- ・ 訓点や訓点資料を日本語研究で利用する目的（訓読文形式）
- ・ 訓点や訓点資料を汎用的に利用する目的（釈文形式）
- ・ すべての本文情報と加點情報を精密に把握する目的（精密記述形式）

このほかに国際的な共同プロジェクトTEI（Text Encoding Initiative）のガイドライン（最新版はP5）による記述方法もあり、今後訓点研究でも取り入れていけるかどうか検討する必要があるが、稿者の理解が不十分なのでここでは取り上げない。

訓読文形式は、春日政治の『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経古点の国語学的研究』（『斯道文庫紀要第一』、1942年）以来、多くの訓点研究で採用されてきた方式で、現在でもほとんどの研究者が使っているものである。この形式では訓点資料を日本語資料として利用するために、複雑な加點内容を解読した日本語文（訓読文）を作成するが、部分加點や非加點の本文に対しては、研究者が読解内容を補って全体を復元する「補読」が行われる。また、ひとつの本文に複数の異なる読解内容が加點されている場合には、訓読文を作成する際に訓点の選択をしなければならず、その

結果、選択されなかった訓点は訓読文には現れないことにもなる。訓読文形式は古典日本語で記述されるので古典日本語を習得していないと利用できないという制約はあるが、日本語スタイルであるので仮名文献のような文字テキストとして作成しやすく、また利用もしやすい。

これに対して釈文形式は、吉澤義則「故竹添井井氏所蔵唐鈔漢書楊雄伝加点に就て（上）」（『藝文』16(2)、1925年）や『宸翰集解説』（1927年）掲載の「宇多天皇宸翰周易抄」で使われたもので、漢文本文をそのまま示しながら当該漢字の下に解説したヲコト点や仮名点を小さく並べる形式である。石塚晴通による日本書紀訓点資料の一連の研究⁶や若干の漢籍訓点資料の解説文（藤井有鄰館蔵春秋経伝集解巻第二、東洋文庫蔵論語集解巻第八、台湾国家図書館蔵史記夏本紀、金剛寺本遊仙窟など）、さらに稿者による敦煌加点本の解説⁷で使われているもので、訓読文形式に比べて公表されたものは少ない。この形式では漢文本文は原本通りの配行字詰で示され、訓点はヲコト点と仮名点の解説結果に加え、科段、句読点、破音・声点や漢文書込注等も示され、また訓読文形式のような研究者による補読を含まない（吉澤義則では補読を含む）。日本語資料として利用するには釈文からさらに訓読文を作る必要があり、当該本文に複雑な訓点が加点されている場合には訓読文形式と同様に表記の難しさが発生する。この形式の解説文は、漢文本文や漢文書込注等を日本語研究者以外も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点で汎用的であるが、複雑な表記が残ることになり、文字テキストの作成は訓読文形式や仮名文献に比べてはるかに難しい。

これらの訓読文形式と釈文形式の特徴を踏まえ、文字テキストとして扱いやすいようにしたのが精密記述形式である。これはすべての本文情報と加点情報をシンプルな文字テキストとして精密に記述するもので、補読を含まない客観的な解説文であると言える（この形式の先例は韓国の点吐口訣資料の解説文にある）。ただ、この形式では複雑な加点内容を表記するために符号類が多くなり、検索や計量処理には便利であるが、補読を含まないために日本語資料としてはそのままでは使えないところに難点がある。近年稿者を含む一部の研究者によって使われている形式であって、標準的な記述形式の確立が必要である。

4.2.2 著作権上の問題

これに対して著作権上の問題は、訓点研究だけではなく文献資料を扱う研究にとっても極めて深刻な問題である。訓点資料の複雑な加点状態はテキストだけでは説明できないことが多く、研究成果をまとめる際に複製本や公開されている画像データベースから図版を取り込んで利用することがある。入稿原稿が出版社による組版で作成されていた時代と異なり、近年は入稿原稿を電子ファイルで作成することが普通となり、図版を組み込むことは極めて簡単になった。特に訓点語学会の機関誌『訓点語と訓点資料』のように入稿原稿が著者による完全完成版下である場合には、さらに図版の利用がしやすい。ところが、現行の著作権法（昭和45年法律第48号、最新の改正は令和5年法律第33号）には、第32条1項「公表された著作物は、引用して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引用は、公正な慣行に合致するものであり、かつ、報道、批評、研究その他の引用の目的上正当な範囲内で行なわれ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あり、また第48条「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規定する著作物の出所を、その複製又は利用の態様に応じ合理的と認められる方法及び程度により、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次の各号」には第32条の規定が含まれる）とあり、「引用」が認められているようでありながら、多くの複

製本には「不許複製」や「所蔵者および出版社の許可なく二次使用を禁ずる」「本書の全部または一部を無断で複製・転載・複写することを禁ずる」という文言が加わり、研究者を悩ませる。念のために出版社・所蔵者に問い合わせると、出版社からは許諾は出るが、所蔵者からは図版利用は有料であることと研究成果（著作物）の寄付が求められるだけではなく、解読文の公表にも課金してくるケースもある（全文の翻字・翻刻が認められないケースさえある）。つまり用例を図版として示したり解読文を公開したりすることは、資金を持たない研究者にとってはかなり厳しいことになる。一部の所蔵機関を除き、クリエイティブ・コモンズの精神が古典籍には浸透していないことを痛感する。これから研究を始めようとする学部・大学院学生は、資料的価値やその分析における意義よりも、無償無許可で利用できる資料を優先的に選択することになり、一体なんのための研究なのか分からなくなってしまう。海外の文化財所蔵機関に比べて、日本の文化財精神の貧困さが強く感じられる。このような研究成果公表の問題は、訓点資料の性格という内在的要因と研究成果を公表する最後の出口に存在する外在的要因が絡み合ったものであり、訓点研究が衰退する大きな要因ともな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

5. どのように克服するのか

ここまで述べてきた諸問題のうち、「原本の閲覧環境の問題」は現在の日本では当面解決できないと諦めるしかないが、「訓点研究に求められる基礎知識とスキル」や「訓点資料に内在する問題」は努力によって克服することができるし、「複製本環境の問題」のような技術的な問題は近年の革新的技術開発によっていずれ解決されると考えられる。これに対して「研究態勢の問題」は、研究者や学会組織が直面する差し迫った不安材料であり、早急に対処しなければ訓点研究は「絶滅危惧研究種」になってしまう。そこで最後に研究態勢の問題を克服できるかもしれない方策のいくつかについて述べる。

〔訓点研究を大学教育で開く〕

大学教育の中で訓点研究に特化した授業を行うことは、訓点研究を専門とする研究者が少ないだけに現実的ではないし、親しみやすい古典的文学作品とは異なり受講学生の関心を引き起こすことは容易ではないと思う。しかし一方で訓読スキルは中学高校で身につけてきた能力であり、大学入試においても課されていることから、このスキルを拡大・深化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は可能であろう。また訓読スキルは漢文文献を扱う日本語学、日本文学、中国語学、中国文学、中国哲学、日本史学、東洋史学、仏教学等でも必須であり、これらの専門分野の共通基礎科目（例えば「漢文漢籍学」）として導入することも可能であろう。

このような方策に対してもっとも問題となるのは、適切（内容・価格）な教材もモデルとなるような授業報告もほとんど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かつての国立大学のように訓点研究をテーマとする授業を履修すれば、いきなり訓点資料の整理・解読作業に団体作業として組み込まれ、その作業の中で学生自らが訓点研究の基礎を学び取っていくというような「まねぶ」「きづく」に期待する授業方法（いわゆる徒弟制度）は、シラバスが金科玉条とされる現在の大学教育では無理であろう。しかし一見すると無謀とも言える徒弟制度による授業方法は、当時は十分に機能し、多くのすぐれた研究者を輩出してきたことは事実である。これに代る授業方法はなかなか思い

付かないが、近年は訓点資料を含む古典籍の精密画像、基礎データ、コーパスなどが公開されているし、ネットワークを使ったインタラクティブな研究会や勉強会も数多く行われている。また著名な研究者や機関による動画の公開も進んでいる。これらを組み合わせながら（授業協力者の支援を受けながら）一つの授業として展開することは十分に可能であろう。コロナ禍で行ってきたオンラインによる訓点資料講習会も一つのモデルになる。学生に対して訓点研究を開くきっかけ作りが、まずは重要な出発点になると思う。

〔一般市民にも訓点研究を開く〕

前述したように日本（海外の日本人学校も含む）で中等教育を受けた人は、レベルの差はあっても読書スキルとしての漢文訓読を身に付けている。訓点研究の社会的認知度を上げるには大学教育での取り組みはもちろん効果的であるが、訓読スキルを持つ一般市民を巻き込むことはさらに効果があると思う。訓点語学会研究発表会や訓点資料講習会は非会員も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訓点研究に触れるいい機会になる。ただ訓点語学会研究発表会は、オリジナルで専門的な内容であるために、一般市民が参加するには敷居が高い。これに対して訓点資料講習会は、学部・大学院学生や若手研究者を対象とした初級・中級レベルの内容で、具体的な訓点資料を取り上げることも多く、特にオンラインで開催する場合にはより参加しやすくなる。ただし、前項の大学教育では比較的限られた選択肢（授業コマ群）の中からの選択となるが、訓点語学会研究発表会や訓点資料講習会は、そもそも訓点研究に関心を持ち参加しようとする意思を持っていないと実現しない。一般市民を引き込むには、たとえば街角で通りすがりにたまたま見つけるショーウィンドウの商品のような「しかけ」が必要である。新聞の第一面を飾るような大発見や受賞記事に期待したり、あるいは大がかりな商業的CMを作成したりすることは非現実的である。この点、SNSや動画サイトでの情報発信はより現実的である。ただし、商業的CMは15秒から30秒程度、YouTubeショートでも最大60秒以内で多くの視聴者を引きつけるのに対して、訓点研究の面白さやエッセンスをこの短さで纏めることは、これまでだれも試みたことがない。「通りすがりの訓点研究」は邪道のように思われるかもしれないが、やろうと思っても60秒以内で纏められないところにこそ訓点研究が社会から隔絶された「象牙の塔」になっている陥穽があるように思われる。この陥穽から抜け出すことも重要な出発点になると思う。

〔訓点研究や訓読現象の意義を世界の趨勢の中で再評価・再発見する〕

訓点語学会においては1960年代後半から日本語以外の漢字文化圏諸言語による漢文訓読についての報告があり⁸、また近年は訓読と類似する現象がヨーロッパの中世ラテン語文献にも見られることが知られるようになり⁹、さらにヨーロッパの研究者の間でも漢字文化圏における訓読現象に関心が持たれ始め、世界の言語文化圏における注釈・読解現象に関するワークショップの開催やその成果としての刊行物も出版されている¹⁰。

ところが、それぞれの発表に積極的に言及したり、あるいはこれらの研究を継承したりすることは一部の会員に限られ、大多数の会員は関心が極めて低い。日本の訓点研究は漢字文化圏諸言語の中でも伝統が長く、研究成果も他の言語に比べて多いにも拘わらず、日本の訓点研究を漢字文化圏諸言語や世界の言語文化圏諸言語の中に位置づける視点が欠如していた／いることは隠し

ような事実である。これは日本の訓点研究の態勢が衰退したためにそうなったのではなく、その背景には訓点研究が始まった当初から春日政治「国語資料としての訓点の位置」（『国語・国文』5(2)、1935年）に代表されるような、訓点研究の意義を日本語史研究に限定しようとしてきたことが大きな要因としてあったと考えられる。口訣学会とは2017年から定期的な学術交流を続けているが、日本側研究者の関心が大きく変わらないのもまったく同じ理由である。

そもそもある地域に言語や国家を超える古典的文献が広く普及するとき、その地域内では言語によって古典的文献を読解しようとする現象が発生すると考えられる。実際に現存する文献を見ると、読解の過程で様々な符号や文字を文献上に直接書き込むことが多く、それらの符号や文字には規則性があり、地域内であるいは地域を越えて共通するものもある。日本の訓読で一般に理解されている訓点は、世界の言語文化圏に存在する古典的文献を読解するための符号・文字の一部に過ぎない。このような考え方に立てば、訓点の重要なポイントは二つ、すなわち古典的文献がどの言語（cosmopolitan language）で記されているか、読解しようとする自言語（vernacular language）は何かということになる。現在、世界の研究者に知られているのは、漢文文献（漢籍、仏典）に対する日本語・中国語・朝鮮語・ベトナム語、そして中世ラテン語文献（教典）に対する古アイルランド語・古ドイツ語・古英語等による書込（加點）である（その他の言語文化圏にも同様の現象がある）。日本で中等教育を受けた人は、レベルの差はあっても読書スキルとしての漢文訓読を身に付けてしまったために、日本の訓点は唯一であり、訓点と訓読の発明も日本独自のものであるという誤った認識が定着してしまっている。研究者はもちろんのこと一般人にとってはなおのこと、訓読とはそもそもどのような言語活動なのかということを改めて考えるきっかけがほとんどない。世界の趨勢は、すでに日本の訓読や訓点研究も視野に入れて進展しつつある。これまでの訓点研究や訓読現象の意義を世界の言語文化圏の中で相対的に位置付けてみることで、再評価・再発見できることがらは多数あると思う。

〔論著を読者と共同で作り上げる〕

著作権上の問題は原本閲覧と同程度に難しい問題であるが、訓点の用例を画像によって示すという方法は近年になってからのことで（デジタル画像とWindowsの普及以降）、かつての訓点研究では当該の用例を解説文（文字テキスト）によって示すのが普通であり、このような悩ましい問題を抱えることはなかった。現在は画像を論著に利用しようとするれば、原本所蔵者と複製本からの利用であれば出版社からも許諾を得ることが一般的であり、その場合、原本所蔵者からは何らかの課金（画像一点につき数千円から数万円）が掛けられることが多い。これを正攻法で回避するには、無償での画像利用の必要性を所蔵者に根気よく説明して納得してもらうか、もしくは著作権法を循に民事訴訟を起こして勝訴するしかない（所蔵者に知られないように海外の雑誌や出版物に論著をこっそり掲載してもらうとか、画像の掲載許諾が必要なことを認識していなかった「フリ」をするというような抜け道は使うべきではない）。正攻法のような手間暇をかけずに許諾と課金を回避するには以下の二つの方法が現実的である。[1]デジタルアーカイブや精密な複製資料が公開されている場合、用例は従来のように必要な事象を文字テキストだけで示し、これに画像の所在情報を付加し、画像付きの完全な論著は読者の再生に委ねる。[2]デジタルアーカイブも精密な複製資料も存在せず非公開の画像や移点資料を所持している場合、用例は従来の

ように必要な事象を文字テキストだけで示し、画像や移点資料は読者からのリクエストに応じて、拡散しないことを条件に個別に貸与する。完全な論著を読者の再生に委ねる点は[1]と同じであるが、画像や移点資料は実質的な非公開・共有となる。このような方法では、これまでの文字テキストだけの論著に比べて用例の信憑性は格段に向上するのであり、査読付きの投稿論文の場合にも同じ方法を用いることができれば、査読の精度も間違い無く向上する。

まとめ

訓点研究の難しさばかりを指摘してきたが、どの分野においても簡単にできることなどは存在しないのだと思う。ただ稿者が初めて訓点研究を垣間見た半世紀前は、訓点研究に取り組む研究者・学生が今よりもはるかに多くいて、勢いのようなものを感じていた。訓点研究の諸課題はほぼ完成されて、現在は爛熟期を過ぎた段階にあると考えればそうなのかもしれない。しかし海外での研究状況が分かるにつれ、古典的文献の読解現象には言語文化圏内部での、あるいは言語文化圏を超えた共通性・普遍性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が少しずつ見えてきている。日本の訓点資料・訓点研究と韓国の口訣資料・口訣研究との関係はまさにその一例である。訓点研究には本稿で指摘したように難しさがあるのは事実であるが、眼を海外に向けてみると解決できるかもしれない壮大なスケールを持つ魅力的な研究課題が眠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てならない。

注

1 本稿は稿者自身の以下の論考を踏まえたところが多いが、稿者以外の文献からの引用を除き、自身の論考からの引用明示は省略する。

- ・日本における漢籍訓点資料研究の現状と課題（『口訣研究』18、2007年）
- ・漢文訓読史概説の構想（『富山大学人文学部紀要』56、2012年）
- ・影印本環境における訓点研究の問題点（『富山大学人文学部紀要』64、2016年）
- ・訓点の信憑性について（『国語と国文学』96(5)、2019年）
- ・訓点研究「超」入門（『日本語文字論の挑戦』勉強出版、2021年）
- ・日本における訓点資料へのアクセス環境の変化と研究成果との関連（『令和四年度高山寺典籍文書総合調査団研究報告論集』、2023年）
- ・訓点と口訣（日本漢字学会編『漢字文化事典』丸善出版、2023年）
- ・日本語学における訓点研究の意義と課題（国際シンポジウム「日本語の研究と教育—応用言語学のアプローチから—」ハノイ国家大学外国語大学、2025年）

2 漢籍および仏典全般に関する入門書として、漢籍では狩野直喜『漢文研究法』（みすず書房、1979年→『東洋文庫890』平凡社、2018年）、武内義雄『支那学研究法』（岩波書店、1949年→『武内義雄全集第9巻』角川書店、1979年）、清水茂『中国目録学』（筑摩書房、1991年）、仏典では會谷佳光「仏教典籍（漢文資料）の調べ方」（平成23年度アジア情報研修資料、2012年）、頼富本宏・赤尾栄慶『写経の鑑賞基礎知識』（至文堂、1994年）などが参考になる。

3 漢語の語彙・語法・文体などを理解するための入門書として、藤堂明保『漢文入門』（学燈文庫、1962年）、牛島徳次『漢語文法論（古代編）』（大修館書店、1967年）、牛島徳次『漢語文法論（中古編）』（大修館書店、1971年）、古勝隆一『中国注疏講義—経書の巻』（法蔵館、

2022年)、金岡照光『仏教漢文の読み方』(春秋社、1978年)、伊藤丈『仏教漢文入門』(大蔵出版、1995年)、牛島徳次・香坂順一・藤堂明保編『中国文化叢書1(言語)』(大修館書店、1967年)などが参考になる。また中国の近代以前の言語学史については大島正二『中国言語学史』(汲古書院、1997年→増訂版、2003年)が良質な入門書である。

4 訓点研究に利用できる精密画像データベースは、e 国宝(国立文化財機構)、宮内庁書陵部収蔵漢籍集覧、国立公文書館所蔵内閣文庫、国立国語研究所日本語史研究資料、京都大学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早稲田大学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などが有用である。また原寸原色の精密な複製資料は、勉誠出版による『東洋文庫善本叢書』(2014年～)、同『漢書楊雄伝』(2019年)、『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経』(2013年)、八木書店による『新天理図書館善本叢書』(2015年～2021年)、『尊経閣善本影印集成』(1993年～)などがある。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による複製資料の公開は、『古典保存会複製書』(1924年～1941年)、『前田育徳会尊経閣叢刊』(1926年～1952年)、『京都帝国大学文学部景印旧鈔本』(1922年～1942年)などがある。

5 研究発表会における発表数と機関誌掲載論文数は以下の通り。

○「研究発表会」発表数：初回(1954年6月)～第130回(2024年5月)

(共同発表はそれぞれ1とカウント)

- ・発表本数：966本(中止した第122回も含む。実数は924本)
- ・発表者数：275名
- ・発表回数毎の分類
 - ・10回以上：14名($/275=0.051$) → 総数388回($/966=0.401$)
 - ・5回以上：43名($/275=0.156$) → 総数585回($/966=0.601$)
 - ・2回以下：189名($/275=0.687$) → 総数239回($/966=0.247$)
 - ・1回：139名($/275=0.505$) → 総数139回($/966=0.144$)

○『訓点語と訓点資料』掲載論文数：初輯(1954年4月)～第152輯(2024年3月)

(論考以外の挨拶・記事等も含む。共著はそれぞれ1とカウント)

- ・論文数：861本(実数は802本)
- ・著者数：235名
- ・掲載回数毎の分類
 - ・10本回以上：23名($/235=0.098$) → 総数384本($/861=0.446$)
 - ・5本以上：47名($/235=0.2$) → 総数525本($/861=0.610$)
 - ・2本以下：151名($/235=0.643$) → 総数207本($/861=0.240$)
 - ・1本：95名($/235=0.404$) → 総数95本($/861=0.110$)

6 『東洋文庫蔵岩崎本日本書紀本文と索引』(日本古典文学会、1978年)、「前田本日本書紀院政期点一本文篇」(『北海道大学文学部紀要』25(2)、1977年→『尊経閣文庫本日本書紀本文・訓点総索引』八木書店、2007年)、「図書寮本日本書紀永治二年頃点(本文篇)」(『北海道大学文学部紀要』27(1)、1979年→『図書寮本日本書紀本文篇』美季出版、1980)。

7 「敦煌本春秋経伝集解(S. 85)について」(『訓点語と訓点資料』142、2019年)、「敦煌本漢籍書誌目録(スタイン本・書類)」(『富山大学人文学部紀要』73、2020年)、「敦煌本漢籍書誌目録(ペリオ本・書類1)」(『富山大学人文学部紀要』74、2021年)。

8 敦煌加点本については、石塚晴通「中国中古の加点本につきて」（第17回訓点語学会、1967年→『墨美』201、1970年、「敦煌の加点本」『敦煌漢文文献』、1992年）、同「中国周辺諸民族に於ける漢文の訓読」（『訓点語と訓点資料』90、1993年）、小林芳規「敦煌の角筆文献—大英図書館蔵「観音経」(S. 5556)の加点—」（『訓点語と訓点資料96』、1995年）、同「敦煌文献に加点された角筆の符号と注記及び本邦の古訓点との関係」（『訓点語と訓点資料』100、1997年）、小助川貞次「敦煌本毛詩鄭箋(S. 10)の加点方法について」（第90回訓点語学会、2004年→科研費報告書『大英図書館所蔵朝鮮本及び日本古書の文献学的・語学的研究』、2007年）、同「敦煌加点本を巡る研究課題」（第97回訓点語学会、2007年→『富山大学人文学部紀要』49、2008年）、同「敦煌本漢籍における加点の問題について」（『訓点語と訓点資料』143、2019年）、同「敦煌本春秋経伝集解(S. 85)について」（『訓点語と訓点資料』142、2019年）、同「敦煌本論語の資料的性格について」（『訓点語と訓点資料』153、2024年）など。韓国口訣資料については、南豊鉉「韓国の旧訳仁王経の口訣について」（第50回訓点語学会、1984年）、同「韓国における口訣研究の回顧と展望」（『訓点語と訓点資料』100、1997年）、南豊鉉・李丞宰・尹幸舜「韓国の点吐口訣について」（『訓点語と訓点資料』107、2001年）、小林芳規・西村浩子「韓国遺存の角筆文献調査報告」（『訓点語と訓点資料』107、2001年）、南豊鉉「韓国古代口訣の種類とその変遷について」（『訓点語と訓点資料』118、2007年）、ジョン・ホイットマン「口訣資料と訓点資料の接点—佐藤本「華嚴文義要決」のヲコト点／点吐を中心に—」（第100回訓点語学会、2009年）、南豊鉉「〈第100回記念講演記録〉 韓国語史研究における口訣資料の寄与について」（『訓点語と訓点資料』123、2009年）なお。ベトナム漢文文献（漢文読解・加点本）については、グエン・ティ・オワイン「ベトナムの漢文訓読について」（第109回訓点語学会、2013年→『訓点語と訓点資料』133、2014年）、小助川貞次「ベトナムの加点資料について」（『訓点語と訓点資料』133、2014年）、グエン・ティー・トゥー・フエン「ベトナム加点資料の句読点から見た訓読の可能性」（『訓点語と訓点資料』145、2020年）、同「ベトナム語による漢文読解について—漢喃研究院蔵『論語約解』衛霊公篇を中心に—」（『訓点語と訓点資料』151、2023年）など。

9 ジョン・ホイットマン「「訓読」は漢字文化圏だけのものか—大衆宗教の普及とvernacular readingの成立—」（『日本語学』32(13)、2013年）、同「ラテン語教典の読法と仏典の読法」（新川登亀男編『仏教文明の転回と表現』勉誠出版、2015年）、同「中世欧州における「自言語読み」の注釈体系について—日本の訓点と比較して—」（第125回訓点語学会講演、2021年）。

10 [1]Workshop on Comparative Glossing Practices (ICHOLS 14) ,2017.8.28-9.1,Paris → Glossing Practice Comparative Perspectives, Lexington Books, 2023.2, [2]Comparative Perspectives on Manuscript Annotation, c.600–1200 CE, 2018.6.21-22,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3]Handbook of Glossing Workshop, 2023.9.28-29,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附記・謝辞

本稿は訓点語学会で企画編集集中の『訓点研究ハンドブック』の原稿として執筆したものを口訣学会での発表用に纏め直したものです。発表の機会をいただいた口訣学会李勇会長を始めとする関係各位に厚くお礼申し上げます。なお本稿はJSPS科研費24K03918の助成を受けたものです。

The Significance of the Glossed Manuscript in Japanese Linguistic Research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Kanbun Kundoku on the Japanese Language -

Matthew ZISK (Tohoku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glossed manuscripts in Japanese linguistics as a resource for researching the history of language contact with Literary Sinitic. In particular, it looks at the influence of kanbun kundoku—the practice of reading Literary Sinitic texts vernacularly in Japanese—on the native lexicon and grammar of Japanese. This is achieved through four case studies, each examining a different type of imitational borrowing in kundoku.

The study begins with a case study on the formation of loan translations (morpheme-by-morpheme renditions of complex words or compounds from a donor language) in kundoku using early Japanese words for ‘prisoner’. It shows how two nominal compounds, *toraebito* and *torawarebito*, both ‘captured person’, developed as calques for 囚 (MC *zjuw*) ‘capture, captive, prisoner’, 囚人 (MC *zjuwnyin*) ‘prisoner’ and 囚徒 (MC *zjuwdu*) ‘prisoners’ in kundoku starting in the ninth century, making their way into native literature from the 13th century.

This is followed by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an derivations (words derived from one part of speech to another following a donor language model) in kundoku using the example of *oyobi* ‘and, in addition to’. This adverb, derived from the verb *oyob-u* ‘reach’ first appears in kundoku as a gloss for 及 (MC *gip*) ‘(as a verb:) reach; (as a particle:) and, in addition to’, making its way into native literature from roughly the 11th century. Its development from lexical verb into conjunctive adverb closely mirrors that of 及 in Literary Sinitic, providing a crucial example of contact-induced grammaticalization via kundoku.

The third case study looks at loan constructions (donor language influence on the syntactic level) in kundoku through the example of the double negative necessitive *-(a)zar-u=o e-na-i*, lit. ‘do not attain not (doing)’, a type of modal construction that juxtaposes two negative verb forms to express strong obligation or high probability. While this construction is rarely found in native literature prior to Early Modern Japanese, we find examples of similar constructions used to gloss the parallel Literary Sinitic modal construction 不得不 (MC *pjuw tok pjuw*) + VERB, lit. ‘(do) not not attain (= must)’, in kundoku texts from the ninth century.

The final case study investigates loan meanings (senses borrowed from a donor-language word into a preexisting word in the recipient language) using the verb *arawas-u* as an example. Originally used in the sense of ‘reveal, express’, this verb acquired the meaning ‘author (a book)’ from the sinogram 著 (MC *trjoH*) through kundoku. Similar to *arawas-u*, 著 could also be used in the sense of ‘reveal’ in Literary Sinitic, which led to *arawas-u* being chosen as its *kun-yomi*

(vernacular reading). Over time, *arawas-u* was expanded to gloss 著 in the sense of 'author (a book)' as well, this usage making its way into native literature from roughly the 15th century.

Following the four case studies, this paper examines the motives behind such borrowings in kundoku, attributing them to the unique nature of the kundoku process and the practice of assigning *teikun*, or 'prescribed readings' to sinograms in Japan. In particular, it points out the following three properties of kundoku, all of which helped motivate a wide range of imitational borrowings: coexistence of the kundoku text with the source text, predictability of the outcome and faithfulness to the source text. The final section of the paper looks at similar borrowings in Korean kugyöl and medieval European vernacular glosses on Latin texts, showing that glossed manuscripts constitute an indispensable source for historical linguistics, providing a direct window into language contact through the medium of writing.

일본어학 연구에 있어 주석 사본의 의의

- 한문 훈독이 일본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매튜 지스크 (도호쿠 대학)

본고는 한문(Literary Sinitic)과의 언어 접촉사를 연구하는 자료로서 일본어학에서 주석 사본이 갖는 의의를 고찰한다. 특히, 한문 텍스트를 일본어 구어로 읽는 관습인 한문 훈독이 일본 고유어 어휘와 문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훈독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유형의 모방 차용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사례 연구는 '죄수'를 뜻하는 초기 일본어 단어들을 통해 훈독에서의 번역 차용 형성을 다룬다. '붙잡힌 사람'을 뜻하는 'toraebito'와 'torawarebito'라는 두 가지 명사 합성어가 어떻게 9세기부터 훈독에서 '囚(MC zjuw, 붙잡다, 포로, 죄수)', '囚人(MC zjuwnyin, 죄수)', '囚徒(MC zjuwdu, 죄수들)'의 번역 차용어로서 발달하여 13세기부터 고유 문학에 정착했는지 보여준다.

두 번째는 'oyobi(밧, ~와 더불어)'를 예로 들어 훈독에서의 파생 차용(기여 언어 모델에 따라 한 품사에서 다른 품사로 파생된 단어) 발달을 고찰한다. 동사 'oyob-u(미치다, 도달하다)'에서 파생된 이 부사는 한자 '及(MC gip, 동사로는 '도달하다', 개사로는 '밧, ~와 더불어')'의 훈으로 처음 등장했으며, 대략 11세기부터 고유 문학에 정착했다. 어휘적 동사에서 접속 부사로 발달한 과정은 한문의 '及'과 밀접하게 일치한다. 이는 훈독을 통한 접촉 유발 문법화의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이중 부정 당위 표현인 '-(a)zar-u=o e-na-i(~하지 않을 수 없다)'의 예를 통해 훈독에서의 구문 차용(기여 언어가 통사적 차원에서 영향을 끼치는)을 살펴본다. 이것은 강

한 의무나 높은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부정 동사를 병치(併置)하는 양태 구문의 일종이다. 이 구문은 근세 일본어 이전의 고유 문학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9세기 훈독 자료에서는 평행한 한문의 양태 구문인 ‘不得不(MC pjuw tok pjuw) + 동사(~하지 않을 수 없다)’를 훈독하기 위해 유사한 구문이 사용된 사례가 발견된다.

마지막 사례 연구는 동사 ‘arawas-u’를 예로 들어 의미 차용(기여 언어의 단어에서 수혜 언어의 기존 단어로 차용된 의미)을 조사한다. 원래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의미였던 이 동사는 훈독을 통해 한자 ‘著(MC trjoH)’로부터 ‘저술하다’라는 의미를 획득했다. 한문에서 ‘著’가 ‘드러내다’와 ‘저술하다’의 의미를 모두 가졌기에 ‘arawas-u’가 그 훈으로 선택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arawas-u’는 ‘저술하다’라는 의미의 ‘著’의 훈으로까지 확장되어 15세기경 고유 문학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어서 본고에서는 훈독 과정의 독특한 성격과 일본의 정훈(定訓) 관습에 주목하여 이러한 훈독에서의 차용의 동기를 분석한다. 특히 훈독문과 원문의 공존, 결과의 예측 가능성,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훈독의 세 가지 특성이 광범위한 모방 차용을 촉진했음을 지적한다. 본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의 구결 및 라틴어 텍스트에 대한 중세 유럽의 자연어 훈독 사례와 비교하며, 주석 사본이 문자 매체를 통한 언어 접촉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언어학의 필수적인 자료임을 밝힌다.

日本語学研究における注釈写本の意義

一漢文訓読が日本語に与えた影響を中心に一

マシュー・ジスク (東北大学)

本稿は、漢文 (Literary Sinitic) との言語接触史を研究するための資源として、日本語学における注釈写本の意義を検討するものである。特に、漢文のテキストを日本語の口語として読む慣習である漢文訓読が、日本語固有の語彙や文法に与えた影響を考察する。これは、訓読における四つの異なる類型的借用 (模倣借用) のケーススタディを通じて行われる。

第一のケーススタディは、「囚人」を意味する初期日本語の単語を用い、訓読における翻訳借用の形成を扱う。「とらえびと」および「とらわれびと」という二つの名詞複合語が、9世紀以降の訓読において「囚 (MC zjuw)」「囚人 (MC zjuwnyin)」「囚徒 (zjuwdu)」の翻訳借用としてどのように発達し、13世紀以降に和文文学へと流入したかを示す。

第二に、「および」を例に、訓読における派生借用 (供与言語のモデルによって一つの品詞から他の品詞に派生された語) の発達を考察する。動詞「及ぶ」から派生したこの副詞は、漢文における「及 (MC gip)」の訓として訓読資料に初めて現れ、およそ11世紀以降に和文文学へと流入した。語彙的な動詞から接続副詞への発達は、漢文における「及」の機能変化と密接に一致しており、訓読を媒介とした接触誘発的な文法化の重要な例を提供している。

第三に、二重否定の義務表現「ざるを得ない」を例に、訓読における構文借用 (供与言語がと統語的レベルで影響を与える) を検討する。これは強い義務や高い可能性を表すため、二つの否

定動詞を併置するモダリティ構文の一種である。この構文は近世以前の和文文学では稀であるが、9世紀の訓読資料には、パラレルな漢文のモダリティ構文「不得不 (MC pjuw tok pjuw) + 動詞」を訓読するための類似した構文が見出される。

最後のケーススタディでは、動詞「あらわす」を例に意味借用（供与言語の語から受容言語の既存語に借用された意味）を調査する。元来「現す・表す」の意味であったこの動詞は、訓読を通じて漢字「著 (MC trjoH)」から「著述する」という意味を獲得した。漢文において「著」が「現す・表す」と「著述する」の両義を有していたことが、「あらわす」が訓として選ばれた要因であり、時間とともに「あらわす」は「著述する」という意味の「著」の訓読みまで拡張され、15世紀頃には和文文学にもこの用法が定着した。

四つのケーススタディに続き、本稿は訓読過程の特殊性や日本における定訓の慣習に焦点を当て、こうした借用の動機を分析する。特に、訓読テキストと原文の共存、結果の予測可能性、原文への忠実性という訓読の三つの特性が、広範な模倣借用を促したことを指摘する。最後に、韓国の口訣やラテン語テキストに対する中世ヨーロッパの自言語訓読との比較を行い、注釈写本が文字を通じた言語接触を直接的に示す歴史言語学の不可欠な資料であることを提示する。

日本語學研究中注釋手稿的意義

—以漢文訓讀對日語的影響為中心—

馬修·齊斯克 (東北大學)

本文旨在探討注釋手稿在日本語言學中作為研究與古漢語 (Literary Sinitic) 語言接觸史資源的意義。特別是考察「漢文訓讀」(即將漢文文本視為日語口語閱讀的習俗)對日語原生詞彙與語法的影響。本研究透過四個關於訓讀中不同類型模仿借用的個案研究展開論述。

第一個個案研究涉及早期日語中表示「囚犯」的單詞，探討訓讀中翻譯借用的形成。展示了「toraebito」與「torawarebito」這兩個名詞複合詞，自9世紀起的訓讀中，如何作為「囚 (MC zjuw)」、「囚人 (MC zjuwnyin)」與「囚徒 (MC zjuwdu)」的翻譯借用而發展，並於13世紀後流入和文 (原生日文) 文學。

第二，以「oyobi (及)」為例，考察訓讀中派生借用 (即根據供予語言的模型，由一類詞派生為另一類詞的詞彙) 的發展。由動詞「oyo-bu (達到)」派生出的這個副詞，最初作為漢文「及 (MC gip)」的訓讀出現在訓讀資料中，約於11世紀後流入和文文學。從實義動詞到連接副詞的演變，與漢文中「及」的功能變化高度一致，為透過訓讀媒介產生的接觸誘發型語法化提供了重要實例。

第三，以雙重否定的義務表達「-(a)zar-u=o e-na-i (不得不)」為例，探討訓讀中的句法借用 (即供予語言在統語層面產生影響)。這是一種並列兩個否定動詞以表達強烈義務或高可能性的情態構文。雖然此構文在近世以前的和文文學中十分罕見，但在9世紀的訓讀資料中，可以發現用以訓讀對應漢文情態構文「不得不 (MC pjuw tok pjuw) + 動詞」的類似構文。

最後一個個案研究以動詞「arawas-u」為例，調查語義借用 (從供予語言的單詞向受容語言

既有單詞借用的語義)。該動詞原意為「現、表(顯露)」，透過訓讀從漢字「著(MC trjoH)」中獲得了「著述」之意。在漢文中，「著」兼具「顯露」與「著述」兩義，這是「arawas-u」被選作訓讀的主要原因。隨著時間推移，「arawas-u」的語義擴展至表示「著述」的「著」之訓讀，並於15世紀左右在和文文學中定型。

在四個個案研究之後，本文分析此類借用的動機，聚焦於訓讀過程的特殊性與日本「定訓」的習俗。特別指出訓讀的三個特性——訓讀文本與原文並存、結果的可預測性、對原文的忠實性——促成了廣泛的模仿借用。最後，透過與韓國口訣及中世紀歐洲對拉丁文本的自語言注釋進行比較，論證注釋手稿是直接展現文字媒介語言接觸的歷史語言學不可或缺的資料。

The Significance of the Glossed Manuscript in Japanese Linguistic Research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Kanbun Kundoku on the Japanese Language

Matthew ZISK (Associate Professor, Tohoku University)

1. Introduction: Kanbun kundoku as a form of vernacular reading

The practice of reading Literary Sinitic texts in Japanese, or *kanbun kundoku*, lit. ‘interpretative reading of Literary Sinitic’ (hereafter, simply “kundoku”), is one that has been carried out for well over 1,200 years. The earliest surviving glosses of Literary Sinitic texts in Japan date to the late eighth century, with the number of glossed texts increasing substantially from the ninth. It is likely that kundoku started even earlier, though, as influence from kundoku can already be observed in many Old Japanese works of literature, and glosses of the early ninth century show a level of sophistication that could not have been achieved in a mere couple of decades.

Historically, such reading practices were not limited to Japan but widely observed throughout the so-called Sinographic Cosmopolis—the region of East Asia, including present-day PRC, Taiwan, Vietnam, the Koreas and Japan, that was traditionally under the influence of Literary Sinitic and sinographic culture. In addition to Japanese, languages such as Korean (Lee, I. & Ramsey 2000: 51–53, King 2006, Lee, K. & Ramsey 2011: 83–85, Nam 2012: 46–48, Handel 2019: 78–87, Kin 2021: 85–141, Chung 2022), Vietnamese (Kosukegawa & Whitman 2018, Nguyễn 2021, 2023) and Old Uyghur (Shōgaito 2021) have all been used at some point in time as vernacular mediums for interpreting Literary Sinitic. Starting with Whitman (2011), such practices have been commonly referred to in English as “vernacular reading”, defined as the “reading [of] a text written in the script, orthography, lexicon and grammar of a more prestigious ‘cosmopolitan’ language out loud in the vernacular language” (Whitman 2011: 95) or, more specifically, “[a] subcase of transformative reading where the primary text has canonical or “cosmopolitan” status, and the language of reading designated by the glosses represents a local idiom” (Moran & Whitman 2022: 114–115 fn. 9).

Kundoku (and vernacular reading in general) could be considered a form of translation in the broad sense, since the end result is a fully coherent rendition of a Literary Sinitic text in the vernacular. Kundoku differs from translation in several key aspects, though. First, a kundoku interpretation coexists with the source text. That is, kundoku is achieved through a series of glosses added to the Literary Sinitic source; at no point is this source replaced or overwritten. Second, the outcome of kundoku is highly predictable. While translation allows for varying degrees and types of license, this is typically not the case with kundoku, where the interpretation of each character is governed by a set of predetermined rules. Finally, kundoku remains faithful to the source. With few exceptions, each sentence in the source is translated word-by-word (or character-by-character) into the target language.

The combination of these three characteristics means that the language of kundoku was markedly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literary registers throughout history. And, as has been pointed out by numerous studies, such as Yamada (1935), Tsukishima (1963) and Ōtsubo (1981), due to its heavy adherence to the source text, kundoku was responsible for giving birth to hundreds of novel expressions in the Japanese language, formed after Literary Sinitic models. Whil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kundoku is beyond the scope of this chapter, the four case studies presented will hopefully offer a representative picture of just how deep its influence run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influence that kundoku has had on the Japanese language, namely through what I will refer to as “imitational borrowing”: the replication of morphological, syntactic and semantic patterns from the donor language (in this case, Literary Sinitic) using preexisting words and morphemes in the recipient language (in this case, Japanese). This will be illustrated through four case studies, each representing a distinct type of borrowing influencing a different aspect of the Japanese language: word formation (through both compounding and derivation), syntax and semantics.

2. Classification of borrowings in kundoku

Before delving into each case study, I will give a brief overview of the various types of borrowings observed in kundoku, following the framework given in Zisk (forthcoming). When two or more languages come into contact, two strategies are commonly employed to supplement or enrich the forms and features of one language based on those of another. Here, I will refer to the language that provides forms and features as the “donor” and the language that adopts such forms and features as the “recipient”. The first of the two strategies, known as importation,

involves the direct transfer of linguistic material (words, morphemes, phones, writing systems, writing styles, etc.) from the donor to the recipient in its original or adapted form.

The second strategy, which I refer to as imitation, involves the reproduction of linguistic patterns (word formation principles, collocations, grammatical constructions, semantic domains, etc.) from the donor, using material native to the recipient. While kundoku served in no small way as a vessel for importation—the majority of Literary Sinitic loanwords are attested for the first time in kundoku texts—such borrowing through importation occur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context of kundoku, and thus it is the impact of borrowing through imitation that strikes us as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kundoku.

Imitational borrowings in kundoku—and in general—can be divided into four main categories based on which domain of the recipient (lexicon, morphology, syntax or semantics) they affect: loan translations, loan derivations, loan constructions and loan meanings. Loan translations and loan derivations affect the domains of lexicon and morphology, as each involves the coining of new words through word formation strategies modeled on the donor, while loan constructions affect the syntax, and loan meanings the semantics, of the recipient.

Loan translations occur when a novel complex or compound (i.e., non-simplex) word is coined in the recipient following a donor model. Examples include EMJ *kare+kore* ‘that (and) this’, modeled on 彼此 (MC *pjeX+tshjeX*) ‘id.’, while an example of the latter is EMJ *nak-i+sipotar-u* ‘cry and wet one’s sleeves with tears’, inspired by 啼泣 (MC *dej+khip*) ‘cry and shed tears’ (Zisk 2017a: 319–321, 2024b: 252–253)¹⁾.

Loan derivations occur when the root of a word in the recipient is used to derive a new word that mimics the morphology of a lexically flexible—i.e., capable of being used as multiple parts of speech—word in the donor. Examples include the Early Middle Japanese compound case marker *=wo mot-ite ~ =wo mo[t]-te* (instrumental), formed by combining the accusative particle *=wo* with the sequential form of the verb *mot-u* ‘hold, use’, modeled on 以 (MC *yiX*) ‘as verb: use, control; as particle: instrumental’ (Zisk 2017a: 324, 2024a: 19–22, 45–48, 2024b: 260–264) and the Early Middle Japanese conjunctive adverb *sore* ‘well, to begin with’, a conversion of the noun *sore* ‘that’, based on 夫 (MC *hju*) ‘that, well, to begin with’ (Zisk 2024a: 28).

Loan constructions, which include a wide range of grammar-related phenomena such as word order inversion, auxiliarization or complex predication, occur when the recipient is influenced by the donor on the syntactic level, giving rise to novel grammatical constructions. A commonly cited example is the movement of certain verbs expressing speech or thought from pre-complement position (Subject–Complement–Verb: SCV) to post-complement position (Subject–Verb–Complement: SVC) in kundoku, following Literary Sinitic word order, as in (1)a. and b. (Ōtsubo 1981: 845; Frellesvig 2010: 272–273).

(1) Word order inversion in kundoku:

- a. S C=*to* *ip-u* → S *ipak-u* C
 S C=CMP *say-CCL* → S *say-NML* C
 (after MC [S *hwot* 曰 ‘say’ C], [S *ngjon* 言 ‘speak’ C], [S *hjun* 云 ‘say’ C], etc.)
- b. S C=*to* *omop-u* S → *omop-aku ~ omop-er-aku* C
 S C=CMP *think-CCL* S → *think-NML ~ think-STA-NML* C
 (after MC [S *si* ‘think’ 思 C], [S *hwijH* 謂 ‘say, tell, think’ C], [S *yiXhjwe* 以為 ‘recognize, infer’ C], etc.)

Loan meanings occur when a preexisting word in the recipient acquires a novel meaning from a word in the donor. Examples include LMJ *asob-u* ‘play’ used in the sense of ‘pursue one’s studies away from home’, modeled on 遊 (MC *yuw*) ‘wander, play, pursue one’s studies away from home’ (Satō 1987: 18), or EMJ *akas-u* ‘brighten, spend the night doing something until morning’ attested in the sense of ‘clarify’, following 明 (MC *mjaeng*) ‘brightness, bright, brighten, become day, clear, clarify’ (Zisk 2012). The four types of imitational borrowings outlined in this section are summarized in Table 1.

1) Throughout this chapter, Japanese examples are transcribed according to Zisk (2025), which reflects major sound changes across linguistic periods. Middle Chinese examples follow Baxter & Sagart (2014), while Middle and Modern Korean follow Yale romanization. See the “List of linguistic periods” near the end of the paper for the dates of each period and the abbreviations used to refer to them.

Table 1: Imitational borrowings in kundoku

	loan translation	loan derivation	loan construction	loan meaning
subcategories	direct, approximate, word, phrase	concatenative derivation, conversion	word order inversion, auxiliarization, complex predication	homonym-driven, synonym-driven
main domain of influence	lexicon, morphology	lexicon, morphology	syntax	semantics
examples	<i>kare+kore</i> , <i>nak-i+sipotar-u</i>	= <i>wo mot-ite</i> , <i>sore</i>	SCV → SVC	<i>asob-u</i> , <i>akas-u</i>

3. Imitational borrowings in kundoku: Four case studies

3.1 Terms for prisoners: morphological borrowing through compounding

Having outlined the four main types of imitational borrowing in kundoku, I now turn to the four case studies. For the first case study, I will look at the loan translations *toraebito* and *torawarebito*, used to describe prisoners. The Early Middle Japanese nominal compound *torapebito* (/torape+pito// [capture.ser+person] → PdJ *toraebito*) first appears in the ninth century, used to denote a bound captive or prisoner. Prior to Late Middle Japanese, *torapebito* is only attested in glosses of Literary Sinitic texts and in sinogram dictionaries, where it serves as a reading for 囚 (MC *zjuw*) ‘capture, captive, prisoner’, 囚人 (MC *zjuwnyin*) ‘prisoner’ (lit. ‘captive, prisoner’ + ‘person’) and 囚徒 (MC *zjuwdu*) ‘prisoners’ (lit. ‘captive, prisoner’ + ‘chained laborer’). A variant form, *toraparebito* (/torapare+pito// [be.captured.ser+person] → PdJ *torawarebito*), is attested in sinogram dictionaries from the 12th century, after which it becomes dominant. Both words are identical in meaning.

Example (2) is taken from a ninth-century glosses of a Literary Sinitic Buddhist texts, while (3) is taken from a 12th century sinogram dictionary. Given their presence in early sinogram dictionaries, we can infer that *torapebito* and *toraparebito* served as common readings for 囚人 throughout the Early Middle Japanese period.

- (2) Original text:
有(2) 五百 死囚(1) [從] 獄 得(2) 出(1)
exist five.hundred condemned.prisoner [ABL] prison acquire exit
- Vernacular reading:
五百(の) 死(ぬ)べき トラヘン 囚 (1) 有(り)て(2) [從]獄(より)
(*gopyaku*)=*no* (*sin-u*)*be-ki* *torapebito* (*ar-i*)*te* (*pitoya=yori*)
five.hundred=GEN death-NEC-ADN prisoner exist-SEQ prison=ABL
- 出(づる) こと(1) 得タリ(2)
(*idu-ru*) *koto* (*e-*)*tar-i*
exit-ADN thing acquire-STA-CCL
‘There were five hundred prisoners condemned to death who were allowed to leave the prison.’
Gangyō shibunritsu ‘Four-part Vinaya’ of the Empress Kōmyō Tripitaka, vol. 38,
held by Shōgozō (glossed early 9th C) (Shōgozō Kyōkan)
- (3) 囚人 <トラヘヒト トラハレヒト>
(*syuuzin*) *torapebito* *toraparebito*
prisoner prisoner prisoner
‘囚人 (MC *zjuwnyin* / EMJ *syuuzin*): *torapebito* (prisoner), *torawarebito* (prisoner).’
Iroha jirui-shō ‘Dictionary of sinograms arranged in iroha order’,
Maeda MS, vol. 1 (Jō): 56r (c. mid-12th C; MS from early 13th C)
(Maeda Ikutokukai Sonkeikaku Bunko 1999–2000: vol. 1, p. 117)

Given that *torapebito* and *torapawarebito* are unattested outside glosses prior to Late Middle Japanese, it seems highly likely that these compounds were inspired by 囚 and compounds thereof. As for their exact inspiration, three possibilities may be considered. The first is that *torapebito* and *torapawarebito* are loan translations of 囚人. Given that the constituents of *torapebito* and *torapawarebito* [‘capture / be captured’ + ‘person’] form a mirror image of 囚人, this is the most plausible possibility. The second possibility is that these compounds are loan translations of 囚徒. According to *Dai kanwa jiten*, 2nd revised edn., 囚徒 is a synonymous compound in which the first character expresses a captive kept in a prison cell and the second a chained laborer, together denoting the sense of prisoner in general. While semantically speaking, *pito* is a mismatch for 徒 in this context, in addition to ‘chained laborer’, 徒 expresses a wide range of senses such as ‘foot soldier’, ‘comrade’ or ‘disciple’, and it is possible that *pito* ‘person’ was chosen as an approximate translation of 徒.

The third possibility is that the character 囚 was broken down into its individual components, 口 ‘surround, enclose’ and 人 ‘person’, and rendered together as *torapebito* ~ *toraparebito*: i.e., ‘surrounded, enclosed’ (= captured) + ‘person’. This type of “etymological” loan translation, which I have dubbed elsewhere a “grapho-etymological rendering” (Zisk forthcoming) was first proposed by Miyazaki (1903: 196–197), who gave the example of the reading EMJ *me+tor-u* ‘take as one’s wife’ (lit. ‘woman’ + ‘take’) for 娶 (MC *tshjuH*) ‘id.’, which he holds to derive from an analysis of the components 女 ‘woman’ and 取 ‘take’.

While *torapebito* and *toraparebito* are limited to glosses and dictionaries up until the 12th century, starting in the 13th century, we begin to find examples of *torawarebito* in the native literature, such as in (4), taken from the early 13th-century war chronicle *Heiji monogatari* ‘Tale of Heiji’ (1220).

(4)	越王 yetuwau king.of.Yue	軍に ikusa=ni war=DAT	うちまけて uti-make-te PPX+lose-SEQ	敵 kataki enemy	呉王 gowau king.of.Wu	夫差に busa=ni Fucha=DAT	囚人 <u>torawarebito</u> =to <u>prisoner</u> =COM

なつて naQ-te become-SEQ	土の tuti=no ground=GEN	ろうに rou=ni prison=DAT	こめられて kome-rare-te cram.in-PAS-SEQ	失なはむと usinaw-am-u=to lose-CJT-CCL=CMP

しけるに

si-ker-u=ni

do-RET-ADN=CSL

‘When the King of Yue had lost the war, was taken prisoner by his enemy, King Fucha of Wu, and placed in an underground prison to die [...]

Heiji monogatari ‘Tale of Heiji’, vol. 3 (1220), Kotohira MS (NKBT 31: 279)

Following its rise, *torawarebito* fell out of use in favor of *mesyuudo* (← EMJ *mesiudo*), a term first attested in the 10th century with the meaning ‘beckoned person’, but which acquired the sense of ‘prisoner’ from the 13th century. This was then replaced with *syuuzin* 囚人, the Sino-Japanese counterpart of *toraebito* ~ *torawarebito* in Modern Japanese. While largely obsolete in Present-day Japanese, *torawarebito* is still occasionally encountered in media, presumably for stylistic effect: e.g., in the film title *torawarebito: parawan-too kankookyaku 21-nin yuukai jiken* ‘Captive: The kidnapping incident of 21 tourists on Palawan Island’, a 2012 French-Filipino production, known outside of Japan simply as *Captive*.

3.2 Conjunctive adverbs: morphological borrowing through derivation

The second case study examines the loan derivation *oyobi*, which functions as conjunctive adverb. This word started its journey as a lexical verb, developing into a conjunctive adverb under the influence of Literary Sinitic 及 (MC *gip*) ‘reach, and, in addition to’. The verb *oyob-u*, from which *oyobi* is derived, is widely observed in Early Middle Japanese, used in the sense of ‘reach’ or ‘rival, match’ (i.e., be on par with). Example (5) from *Genji monogatari* ‘Tale of Genji’ (c. 1008) illustrates the typical context in which *oyob-u* was used in the native literature of the period.

- (5) 人人の かたりきこえし うみやまの ありさまを はるかに
hitobito=no katar-i+kikoye-si umiyama=no arisama=wo paruka=ni
 people=GEN tell-SER+HUM-PST.ADN sea.and.mountains=GEN condition=ACC far.away=SER
- おほしやりしを 御めに ちかくては けに をよはぬ
obosiyar-isi=wo opom-me=ni tika-kutepa geni oyob-an-u
 imagine.HUM-PST.ADN=ACC HPF-eyes=DAT close-FCD truly reach-NEG-ADN

いその たたすまひ になく かきあつめ給へり
iso=no tatazumapi nina-ku kak-i+atume+tamap-er-i
 rocky.shore=GEN appearance uncomparable-SER write-SER+collect.SER+RSP-STA-CCL
 ‘(While in the capital,) he (= Genji) could only imagine from afar the seas and mountains people described to him, but now, seeing them up close with his own eyes, he captured in his paintings the vista of the rocky shore—an image his previous conceptions had truly fallen short of (lit. had not reached).’
Genji monogatari ‘Tale of Genji’, Suma (c. 1008), Ōshima MS (Ikeda 1984–1985: 422)

Turning our attention to Japanese glosses of Literary Sinitic from the same period, in addition we find abundant examples of *oyob-u* used to gloss 及 in the sense of ‘reach’, we also observe the derived form *oyobi* being used to gloss 及 as a conjunctive particle, as in (6).

- (6) Original text:
 因 抱(IT.2) 子 IT.1 投 坑 々 變 為 2 池 1
 accordingly embrace child throw pit (pit) change become pond

蓮-華 捧(2) 體(1) 王 及 國人 始
lotus.flower lift.up body king and people.of.the.realm for.the.first.time

復 不(2) 疑(1)
also NEG doubt

Vernacular reading:

因テ 子ヲ 抱イテ 坑ニ 投クルニ 々々 變シテ
yo(t)te ko=wo udai-te ana=ni nagu-ru=ni ana (pen)+ji-te
 accordingly child=ACC embrace-SEQ hole=DAT throw=CSL hole change+do-SEQ

池ト 成テ 蓮-華 體ヲ 捧ケタリ
ike=to na(t)-te (renge) (karada)=wo sasage-tar-i
 pond=COM become-SEQ lotus.flower body=ACC lift.up-STA-CCL

王 及ヒ 國ノ 人ヨリ 始メテ 復 疑ハス
waū (o)yobi kuni=no pito=yori pajimete mata utagap-azu
 king and realm=GEN people=ABL for.the.first.time also doubt-NEG.CCL
 ‘Accordingly, she (= Princess Yaśodharā) took her child (= Rāhula) and threw him into the pit of fire, but upon doing so, the pit of fire was transformed into a pond, and their bodies were lifted up by a lotus flower. For the first time, the king (= King Śuddhodana) and the people of the realm no longer doubted (that Rāhula was her son).’

Hokke mongu ‘Prose and verse of the Lotus sutra’, vol. 2, part 1, Tōdaiji MS (glossed 11th C)
 (Nishizaki 1992: 163)

For much of the Early Middle Japanese period, *oyobi* was limited to glosses of Literary Sinitic texts and kundoku-inspired literature, such as *Sanpōe* ‘Illustrations of the three jewels’ (c.

984) and *Konjaku monogatari-shū* ‘Collections of tales of times now past’ (c. 1120). Towards the end of the period, however, we begin to find examples in a broader range of literary genres, such as (7), from the historical narrative *Eiga monogatari* ‘Tale of flowering fortunes’ (c. 1092).

(7)	三月 <i>samgwatu</i> third.month	八日の <i>yauka=no</i> eighth.day=GEN	せんしに <i>senzi=ni</i> edict=DAT	關白 <i>kwanbaku</i> kampaku	やまひの <i>yamapi=no</i> illness=GEN	あひた <i>apida</i> interval
	殿上 <i>tenzyaū</i> court.nobles	をよひ <i>oyobi</i> <u>and</u>	百官 <i>pyaQkwan</i> government.officials	施行と <i>segyaū=to</i> enforce=CMP	ある <i>ar-u</i> exist-ADN	よし <i>yosi</i> intention
	くたりぬれは <i>kudar-inu-reba</i> come.down-MNF-XCD		内大臣殿 <i>naidaizin-domo</i> naidaijin-TTL.RSP	よろつに <i>yorodu=ni</i> all.things=DAT	まつりこち給 <i>maturigot-i+tamap-u</i> run.the.government-SER+RES-CCL	宣旨 <i>senzi</i> edict

‘Among the edicts handed down on the eighth day of the third month was one which stated, “While the kampaku (regent of the emperor) is ill, the court nobles and government officials are to act in his behalf”.

Thus, the naidaijin (inner minister) assumed control of the state.’

Eiga monogatari ‘Tale of flowering fortunes’, Mihatenu yume (c. 1092),
Umezawa MS (NKBT 75: 144)

The usage of *oyobi* in (7) clearly mirrors that of 及 in Literary Sinitic.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oyobi* appears in a stylistically marked section of the text—namely, in an edict. Such edicts were typically written in morphographic Japanese (so-called *hentai kanbun*) and incorporated copious amounts of kundoku vocabulary. It is likely for this reason that *oyobi* made its way into the text (see, e.g., the discussion of *sumiyaka* in a similar edict from *Eiga monogatari* in Tsukishima 1963: 512–513). Thus, while *oyobi* eventually spread to native literature, it was strongly marked as *kuntengo* in Early Middle Japanese. In a sense, this nuance carries over into Present-day Japanese, in which *oyobi* is largely restricted to formal writing.

3.3. Double negative necessitives: syntactic borrowing

For the third case study, I will look at the origin of the double negative necessitive *-(a)zar-u=o e-na-i*, lit. ‘do not attain not (doing)’, a modal construction in Present-day Japanese, originating in kundoku, that juxtaposes two negative verb forms to express strong obligation or high probability. In early Japanese glosses of Literary Sinitic Buddhist texts, we find examples of what clearly appear to be predecessors of PdJ *-(a)zar-u=o e-na-i*. In (8), for example, we find the Literary Sinitic double negative construction 不得不視, lit. ‘does not attain not inspecting (= must inspect)’, read as *mi-zu ar-u koto=pa e-zu*, lit. ‘does not attain the act of not seeing’.

(8)	Original text:								
	莫(3)	觀(2)	左右(1)	[者]	人	散-心	行(2)	道(1)	故
	PRH	observe	left.and.right	[NML]	person	scattered.mind	go	way	therefore
	左右	顧-看	行者	无縁(3)	觀(2)	後(1)	當(2)前(1)	則	
	left.and.right	observe	sadhu	lacking.affinity	observe	behind	ahead	thus	
	不(4)	得(3)	不(2)	視(1)	故	但	言(3)	莫(2)	左右
	NEG	attain	NEG	inspect	therefore	only	say	PRH	left.and.right
									顧看(1)
									observe
	Vernacular reading:								
	左右を(1)	觀(る)	こと(2)	莫と(3)		いふは[者]	人		
	(sau)=wo	(mi-ru)	koto	(na-kar-e=to)		ip-u=pa	(pito)		
	left.and.right=ACC	look-ADN	thing	nonexistent-VBL-IMP=CMP		say=ADN=TOP	person		
	散-心を	もて	道を(1)	行くか(2)	故(に)	左右を			
	(sanmin)=wo	mo[t]-te	(miti)=wo	(yu)k-u=ga	(yuweni)	(sau)=wo			
	scattered.mind=ACC	use-SEQ	way=ACC	go-ADN=GEN	therefore	left.and.right=ACC			

顧-看す (<i>kukan</i>)+ <i>s-u</i> observe+do-CCL	行く (<i>yu</i>) <i>k-u</i> go-ADN	者 ^{ひと} <i>mono</i> person	後を(1) (<i>usiro</i>)= <i>wo</i> behind=ACC	観るに(2) (<i>mi</i>)- <i>ru=ni</i> look-ADN=CSL	縁無し(3) <i>yosi(na)</i> <i>si</i> without.reason
前に(1) (<i>mape</i>)= <i>ni</i> front=DAT	當(り)ては(2) (<i>atar-i</i>) <i>tepa</i> face-FCO	則(ち) (<i>sunapati</i>) thus	視(1)不 (<i>mi-zu</i>) look-NEG.SER	ある <i>ar-u</i> exist-ADN	ことは(2) <i>koto=pa</i> thing=TOP
得(3)不(4) (<i>e-zu</i>) attain-NEG.CCL	故(に) <i>yuweni</i> therefore	但(だ) <i>tada</i> only	左右を <i>sau=wo</i> left.and.right=ACC	顧看する <i>kukan</i>)+ <i>su-ru</i> observe+do-ADN	こと(1) <i>koto</i> thing

莫とのみ(2) 言(ふ)(3)
(*na-kar-e*)=*to=nomi* (*ip-u*)
nonexistent-VBL-IMP=CMP=ISO say-CCL

‘Do not look to the left and right. It is because one has lost his way on the path that one looks to the left and right. It is not good for a sadhu (Buddhist ascetic) to look behind. He must look ahead. Therefore, I simply say, do not look to the left and right.’

Daichido-ron ‘Treatise on the great virtue of wisdom’, vol. 97,
Ishiyamadera MS (glossed 858) (Ōtsubo 2017: 758)

The Literary Sinitic construction 不得不 (MC *pjuw tok pjuw*) + VERB expresses a strong need or desire, similar to double negative necessities in Present-day Japanese. The Japanese reading of this construction is more analytic than its Present-day Japanese counterpart, placing the verb *ar-i* ‘exist’ between the negated verbs. Such analytic renderings of Literary Sinitic complex predicates were common in early kuntengo, with a tendency to shift toward more synthetic renderings in later periods (see Saitō 2011 or Zisk 2024a for further examples).

Outside of glosses, the earliest example of *-(a)zar-u=o e-na-i* in the native literature is found in the *senmyō* ‘imperial edicts’ of *Shoku nihongi* ‘Continued chronicles of Japan’ (797), cited in (9), where it takes the form *oko₂nap-azu ar-u ko₂to₂ e-zu*, lit. ‘not attain the act of not performing’.

(9) 然 (<i>sikaruni</i>) now.then	朕<方> (<i>are</i>)= <i>pa</i> 1SG=TOP	髮<乎> (<i>kami₁</i>)= <i>wo</i> hair=ACC	曾利天> <i>so₂r-ite</i> shave-SEQ	仏<乃> (<i>poto₂ke₂</i>)= <i>no₂</i> Buddha=GEN	御袈裟<乎> (<i>mi-ke₁sa</i>)= <i>wo</i> RSP-kasaya=ACC
服<天> (<i>ki₁</i>)= <i>te</i> wear-SEQ	在<止毛> (<i>ar-e</i>) <i>do₂mo₂</i> exist-XCC	國家<乃> (<i>ame₂no₂sita</i>)= <i>no₂</i> nation=GEN	政<乎> (<i>maturigo₂to₂</i>)= <i>wo</i> government=ACC	不行 (<i>oko₂nap-azu</i>) <u>perform-NEG.SER</u>	
<阿流 <i>ar-u</i> exist-ADN	己止> <i>ko₂to₂</i> thing	不得 (<i>e-zu</i>) attain-NEG.CCL			

‘Thus, even though I shave my head and don my kasaya (ordained robes) of the Buddha, I still must carry out my duty of governing the nation.’

Shoku nihongi ‘Continued chronicles of Japan’, *Senmyō* 28 (764.09.20),
Kanezawa Bunko MS (SNKBT 15: 33)

The construction in (9) is strikingly similar to the kundoku rendering of 不得不 + VERB cited in (8), even going so far as to place the verb *ar-i* between the negated verbs. The fact that such a construction is found in the *Shoku nihongi* imperial edicts should not come as a surprise, given that the language of such edicts is known to be heavily influenced by kundoku (Motoori 1803, Kasuga 1956: 308–310, Tsukishima 1963: 61, Nakada 1979: 61–86, Yamaguchi 1974, etc.). While noticeably absent in the Early and Late Middle Japanese native literature, this expression makes a resurgence in Early Modern Japanese in the form of *-(a)zar-u=wo ye-zu* (→ PdJ *-(a)zar-u=o e-na-i*).

3.4 Expressions of writing: semantic borrowing

The final case study will examine the process of semantic borrowing, taking the verb *arapas-u* (→ PdJ *arawas-u*) as an example, which acquired a novel usage as an expression of writing through kundoku (for a more in-depth version of this case study, see Zisk 2010). In Present-day Japanese, *arawas-u* has four main senses, each distinguished in writing through the use of different sinograms—a practice referred to by Irwin & Zisk (2019: 154) as “forced polysemy”, i.e., polysemy which is only apparent in morphographic writing. The Present-day Japanese definition of *arawas-u*, along with the standard sinogram notation for each meaning, is given in (10).

- (10) *arawas-u* (← EMJ *arapas-u*)
- reveal, show: written as 現 (MC *henH* → EMJ *gen* → PdJ *geN*)
 - express (feelings, thoughts, etc.): written as 表 (MC *pjewX* → EMJ *peu* → PdJ *hyoo*)
 - author (a book): written as 著 (MC *trjoH* → EMJ *tyo* → PdJ *čo*)
 - make widely known, proclaim: written as 顯 (traditional form: 顯) (MC *xenX* → EMJ *ken* → PdJ *keN*)
- *(10)c. is largely restricted to written language, while (10)d. is rare in Present-day Japanese.

Tracing the history of *arapas-u* back to Old and Early Middle Japanese, we find that in native genres of literature such as waka poetry and courtly prose (so-called *wabun*), which are held to have taken relatively little influence from kundoku (Tsukishima 1963: 23–29), there are no examples of *arapas-u* being used to express the act of writing. Example (11) illustrates the typical usage of *arapas-u* in the native literature of the time.

- (11)
- | | | | | | | |
|---------------|----------------|------------|--------------------|----------------|--------------------|--------------|
| いぬ(る) | としの | あき | な(か)よりが | (はべ)る | 所にて | この |
| <i>inu-ru</i> | <i>tosi=no</i> | <i>aki</i> | <i>nakayori=ga</i> | <i>paber-u</i> | <i>tokoro=nite</i> | <i>ko=no</i> |
| go.away-ADN | year=GEN | autumn | Nakayori=GEN | exist.HUM-ADN | place=LOC | this=GEN |
-
ぞう	まかりて	人も	きかぬ	ところにて	をのがどち
<i>zou</i>	<i>makar-ite</i>	<i>pito=mo</i>	<i>kik-an-u</i>	<i>tokoro=nite</i>	<i>wonogadoti</i>
group	come.HUM-SEQ	people=IFO	hear-NEG-ADN	place=CSL	each.other
-
かくしたる	てども	あらはして	けう	さかし侍りけるこそ
<i>kakus-itar-u</i>	<i>te-domo</i>	<u><i>arapas-ite</i></u>	<i>keū</i>	<i>sakas-i+paber-iker-u=koso</i>
hide-STA-ADN	talent-PLU	<u>reveal-SEQ</u>	entertainment	promote-SER+HUM-RET-ADN=FOC
-
いとに	なく	はべりけれ
<i>ito=ni</i>	<i>nak-u</i>	<i>paber-iker-e</i>
very=SER	nonexistent-SER	exist.HUM-RET-INC
- “‘Last autumn, this group of companions came to visit Nakayori at his residence, and in a place where no one else could hear, they revealed their hidden talents, making for an entertaining performance, the likes of none other.’”

Utsuho monogatari ‘Tale of Utsuho’, Kuniyuzuri ka (c. 986),
Maeda MS (Muroki et al. 1999: 905)

Turning our attention to glosses of Literary Sinitic, we find a very different picture. In kundoku, *arapas-u* appears as a gloss for a large range of sinograms, including 現, 表, 著 and 顯. Among these examples, the use of *arapas-u* as a gloss for 著 is particularly noteworthy. In Literary Sinitic, 著 is most commonly used as a verb with the meaning ‘reveal, be revealed’ or as an adjective with the meaning ‘remarkable’, but it can also denote the act of writing, in particular the authoring of a book. Examples (12) and (13) illustrate the typical usage of 著 as a verb.

- (12) 樂 著 大始 而 禮 居 成物
 music reveal Great.Beginning and.then rituals reside all.things
- 著 不 息 者 天 也
reveal NEG rest TOP heaven AFF
- 著 不 動 者 地 也
reveal NEG move TOP earth AFF
- ‘Music reveals the Great Beginning, while rituals reside among all creation. That which manifests without rest is the heavens; that which manifests without movement is the earth.’
Lǐjì ‘Book of rites’, Yuèjì (4th–1st C BCE) (Scripta Sinica)

- (13) 或 曰 老萊子 亦 楚人 也 著 書 十五 篇
 a.certain say Lǎo.Láizi also Chǔ-person AFF write book 15 part
- 言 道家 之 用 與 孔子 同時 云
 say Daoist ADN application with Confucius same.time say
- ‘According to one source, Lǎo Láizi (= Laozi) was a native of Chǔ. He is said to have written a book of 15 parts on the applications of the Daoist school and to have been a contemporary of Confucius.’
Shǐjì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Lǎozǐ Hǎn Fēi lièzhuàn (c. 91 BCE) (Scripta Sinica)

In (12), 著 is used in the sense of revealing or manifesting the true nature of something—in this case, the Great Beginning—while in (13), it conveys the sense of authoring of a book.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that 著 in the sense of ‘reveal’ or ‘manifest’ is commonly read as *arapas-u* in kundoku. What is most noteworthy, however, is that 著 in the sense of ‘write’ or ‘author’ is also commonly glossed as *arapas-u*. Example (14), from an early-12th-century glossed text, illustrates this usage (with *arawas-u* as the Late Middle Japanese reflex of *arapas-u*). The example recalls the famous account of Laozi at Hangu Pass, where Yin Xi urged him to commit his teachings to writing, thereby producing the *Dàodéjīng*.

- (14) Original text:
 喜 曰 子 將 隱 矣 強 爲(2) 我(1) 著(2) 書(1)
 Xi say master CJT hide XCL urge sake 1SG write book
- 於是 老子 著(2) 上下 二 篇 八十一 章
 at.this.time Laozi author upper.and.lower 2 part 81 chapter
- 五千 餘 言(1) 故 號 曰(2) 老子經(1)
 5,000 over word therefore name say Lǎozijīng
- Vernacular reading:
 喜力 曰(く) 子 將ニ 隱レナムト (す)[矣]
ki=ga ip-aku si masani kakure-n-am-u=to s-u
 Xi=GEN say=NML master certainly hide-MNF-CJT-CCL=CMP do-CCL
- 強(ひて) 我(が)(1) 爲(に)(2) 書ヲ(1) 著^{アラハ}セト イフ(2)
sipite wa=ga tame=ni syo=wo arapas-e=to ip-u
 forcefully 1SG=GEN sake=DAT book=ACC write-IMP=CMP say-CCL
- 是(に)於(て) 老子 上下 二篇 八十一章 五千餘言(を)(1)
kokonioite rausi zyaūge ni-pen patizipuiti-syaū gosen-yo-gen=wo
 at.this.time Laozi upper.and.lower 2-part 81-chapter 5,000-over-word=ACC

著(す)(2)	故(に)	號(けて)	老子經(と)(1)	曰(ふ)(2)
<i>arapas-u</i>	<i>yuweni</i>	<i>naduke-te</i>	<i>rausikyau=to</i>	<i>ip-u</i>
author-CCL	therefore	name-SEQ	Lǎozijīng=CMP	say-CCL

‘Yin Xi said, “Master, as you are about to withdraw into seclusion, I urge you to write me a book.” Upon hearing this, Laozi wrote a book composed of two parts, 81 chapters and over 5,000 words. He called this book the *Lǎozijīng* “Laozi’s classic” (= *Dàodéjīng* “Classic of the way and virtue”).’

Sangō shiki chūshū ‘Collected commentaries on Indications of the goals of the three teachings’, Otani University MS (glossed 1133) (Satō 1992: 10)

Initially, *arawas-u* in the sense of ‘write, author’ was limited to kundoku, but from around the 15th century we begin to find this usage in native texts as well. At first, it only appears in texts influenced by kundoku, such as in (15), from *Tōzen yawa* ‘Nighttime tales by lamplight’ (15th C), a medieval commentary (*shōmono*) on Huáng Jishàn’s *Shìxué Tíyào* ‘Essentials of historical studies’ (late 13th C). Over time, however, it spreads to works aimed at a broader readership, such as in (16), from Jippensha Ikku’s *Tōkaidōchū hizakurige* ‘Travels on the Eastern Seaboard Highway by shank’s mare’ (1802–1814).

(15)	關ノ	史 ²	尹喜ト	云	者	老子ノ	來ルヘキ
	<i>seki=no</i>	<i>fubito</i>	<i>inxi=to</i>	<i>i-u</i>	<i>mono</i>	<i>rāsi=no</i>	<i>kitar-ube-ki</i>
	border=GEN	historian	Yinxi=CMP	say-ADN	person	Laozi=GEN	come-NEC-ADN

瑞氣ヲ	知テ	老子ヲ	トメテ	道德經ヲ	アラハサシメタソ
<i>zuiki=wo</i>	<i>sir-ite</i>	<i>rāsi=wo</i>	<i>tome-te</i>	<i>dātokukyā=wo</i>	<i>arawas-asime-ta=zo</i>
omen=ACC	know-SEQ	Laozi=ACC	stop-SEQ	Dàodéjīng=ACC	author-CAU-PST=XCL

‘A man by the name of Yinxi, who was a historian (or, an official: see fn. 2) at the border, saw an omen foretelling Laozi’s coming. He stopped Laozi on his journey and made him write the *Dàodéjīng* “Classic of the way and virtue”.’

Tōzen yawa ‘Nighttime tales by lamplight’, Laozi (15th C), Tsukuba University Library MS, p. 55v (Union Catalogue Database of Japanese Texts)

(15) retells the account of Laozi’s encounter with Yin Xi, while (16) explains Ippen’s inspiration for writing *Tōkaidōchū hizakurige*. Taken together, these examples show that *arawas-u* in the sense of ‘write, author’ entered Japanese first through kundoku glosses of 著, gradually spreading to the native literature via kundoku-influenced texts such as *shōmono*. This sense is thus best understood not as the result of spontaneous semantic broadening, but rather as a loan meaning arising through contact with Literary Sinitic via the medium of kundoku.

4. Motives for imitational borrowings in kundoku

Having presented four case studies of imitational borrowing in kundoku, this section will now briefly address some of the motives behind such borrowings. The first of these lies in the very nature of the kundoku process itself. In the introduction, I posited three core aspects of kundoku that distinguish the practice from translation in the traditional sense. Here, I would like to reiterate and expand upon each of these points.

- Coexistence with the source text:** A kundoku text exists as a series of glosses added to a Literary Sinitic text. That is, the source text is never overwritten or replaced by its Japanese reading, but is simply supplemented with glosses, allowing the reader to input the source text and output its Japanese reading simultaneously. While a translation typically exists as an entity independent of the source text (with the exception of interlinear or bilingual editions), a kundoku text, in its essence, can be viewed as an extension or supplementation of the source text.²⁾
- Predictability of the outcome:** Kundoku is highly systematic. While differences in

2) This is not to say that the kundoku text rendered through the glosses is never separated from its source text. Kana editions of (the kundoku rendering of) *Myōhō renga-kyō* ‘Lotus sutra’ survive from as far back as the 12th century and of *Lúnyǔ* ‘Analects’ from around the 15th century.

(16)	この kono this	ほん hoN book	ふたりが futari=ga 2.people=NOM	えど edo Edo	かんだの kaNda=no Kanda=GEN	八丁堀に haQtyoobori=ni Hacchōbori=DAT
	たながり tanagari+si rent.a.house+do.SER		あ i-tar-isi be-STA-PST.ADN	うち uti=no within=GEN	ことを koto=o thing=ACC	著し arawas-i write-SER
	ついに tuini ultimately	りょかう ryokoo=no journey=GEN	ほつぎ hoQki=to initiative=CMP	する su-ru do-CCL	所以の yueN=no reason=GEN	
	ばか bakarasi-ki ridiculous-ADN	ことを koto=o thing=ACC	さくしや sakusya=ga author=GEN	ねざけ nezake=no nightcap=GEN	のみしろ nomisiro=ni drink.money=DAT	
	よけいの yokei=no extra=GEN	著述を sigoto=o work=ACC	なす nas-u conduct-ADN	ものならし mono=narasi thing=COP.EVD.CCL		

‘This book records the events that took place while two men rented a house at Hatchōbori in Kanda, Edo, describing the ridiculous incident that ultimately prompted their journey. The author took on the task of writing it as extra work to pay for his nightcaps.’

Tōkaidōchū hizakurige ‘Travels on the Eastern Seaboard Highway by shank’s mare’,
Ruikai (1802–1814) (NKBT 62: 23)

reading practices exist between the secular and Buddhist traditions, as well as between various Buddhist sects, each system prescribes set rules for how to render the text in Japanese. These include where to alter the word order, which Japanese particles and verbal suffixes to supplement and when to “skip over” certain characters. As long as one knows the rules, one can read a Literary Sinitic text using the kundoku method, even without the addition of glosses.

- c. **Faithfulness to the source text:** Kundoku provides a direct, character-by-character translation of the Literary Sinitic source text, with little room for translational license. While early glossing practice allowed for a higher degree of flexibility (see, e.g., Bundschuh 2021’s study on the supplementation of tense, aspect and modality suffixes in early ninth century kundoku renderings of Buddhist narratives), such context-based supplementation became increasingly rare as reading traditions began to formalize in the late ninth century. Apart from this early period, supplementation is largely restricted to functional morphemes such as particles and verbal suffixes required for grammaticality.

While all of these characteristics helped shape the language of kundoku, or kuntengo, it is the second and third points that were the strongest motives for imitational borrowing: predictability and faithfulness were favored over naturalness and context-based translations.

Most of the imitations given in this paper express concepts or grammatical constructions that could have been expressed through preexisting words or morphemes. Native *ikedori* ‘live captive (human or animal)’ or *toriko* ‘captive (human)’ would have been natural choices for translating the Literary Sinitic terms for ‘prisoner’. Likewise, the conjunctive particle *=to* would have been the most logical choice for translating the Literary Sinitic conjunctive particles. Necessity could have been expressed simply through the verb suffix *-(r)yube-si*, which expresses a wide range of modal meanings including necessity, obligation, probability and potential.

While Old and Early Middle Japanese lacked specialized vocabulary for expressing subcategories of the act of writing, such as authoring a book,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were no expressions of writing in Japanese at the time. Two verbs expressing the act of writing, *kak-u* ‘draw, write’ and *sirus-u* ‘inscribe, record, note’, are attested from Old Japanese and are common in the Early Middle Japanese literature. The original meaning of *kak-u* is ‘scratch, carve’, while that of *sirus-u* is ‘leave a sign, mark’, and it is from these senses that they developed metaphorically into expressions of writing. While broader in scope than 著, examples of *kak-u* being used to express specialized meanings such as authoring or transcribing a book or sutra are relatively common in Early Middle Japanese (Zisk 2017b: 44–46). Thus, the attribution of the reading *arapas-u* to 著 was a conscious choice, stemming from an attempt to faithfully render

the underlying Literary Sinitic.

The second motive, which is closely connected to the first, lies in the manner in which native readings, or *kun* (also *kun-yomi*, *wakun*, *jikun*), were assigned to sinograms. Context-based translation generally requires a substantial degree of variation in the target language to accurately capture each sense of a word. When translating Literary Sinitic, one might expect a large variety of readings to be chosen not only on the basis of context but also on register or overall style. As discussed above,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the outcome of a kundoku rendering is highly predictable, including the readings assigned to individual characters. Most sinograms in Japan have relatively few native readings, despite the wide range of meanings they carry in Literary Sinitic.

Historically, sinograms in Japan—particularly high-frequency characters—were often assigned what is known as a *teikun* ‘prescribed reading’, a term used in Japanese linguistics to refer to a native reading of a sinogram that is widely accepted among the literate as its default rendering. Such prescribed readings are believed to have existed from as early as the eighth century and were a crucial component of early Japanese writing. Old Japanese was written entirely in sinograms used both phonographically and morphographically, though overwhelmingly morphographically outside poetry. As Minegishi (1986) observes:

What made the writing of *Kojiki* ‘Record of Ancient Matters’ and other such Old Japanese documents written exclusively in sinograms possible was the existence of an established system in the background for reading Literary Sinitic texts in the vernacular along with prescribed readings (*teikun*) for each character.

(Minegishi 1986: 125–26; translation by author)

In the absence of any phonographic aids, transcribing Japanese solely through sinograms would have been a daunting task. Limiting the number of native readings can therefore be seen as a necessary step to preserve the morphographic nature of sinograms. Without such limits, the link between graph and morpheme would be blurred, rendering sinograms unwieldy as a script for transcribing Japanese.

A second piece of evidence that prescribed readings were already well established in Old Japanese comes from the use of man’yōgana—sinograms employed phonographically to represent Japanese. While most man’yōgana can be classified as phonographic rebuses, borrowing the sounds of sinograms (e.g., 加 [MC *kae*] for *ka* or 久 [MC *kjuwX*] for *ku*) there was also a subclass of semantic rebuses, or *shakkun*, lit. ‘borrowed *kun*’, in which a sinogram’s native reading was used to express a homonymous word in Japanese. Examples include 夏櫚, lit. ‘summer’ (*natu*) + ‘oak’ (*kasi*), used to write *natukasi* ‘nostalgic’ or 鴨, lit. ‘duck’ (*kamo*₂), used to transcribe the exclamative particle *kamo*₂. As Kamei (1957) explains:

One further clue confirming the stabilization of native readings is the type of man’yōgana commonly classified as semantic rebuses (*shakkun*). The emergence of such semantic rebuses was possible only on the prior assumption that *seikun* (lit. ‘proper readings’)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Kamei 1957: 127; translation by author)

In short, the very possibility of semantic rebuses presupposes an established system of prescribed readings—that is, readings that literate members of society could readily supply simply by looking at the character.

The development of a highly systematic kundoku method starting in the ninth century further increased the prevalence of prescribed readings. By the 11th century, entire dictionaries were being compiled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such readings. Dictionaries such as *Ruiju myōgi-shō* ‘Dictionary of terms and their meanings arranged by topic’ (late 11th to early 12th century) or *Iroha jirui-shō* ‘Dictionary of sinograms arranged in iroha order’ (mid-12th century), for example, include thousands of examples of native readings, and among the many readings recorded, both dictionaries use various methods to highlight well-established readings (Minegishi 1986: 219–220, 287). Such dictionaries show that a comprehensive system of sinogram readings existed during the Heian period, and that the vernacular reading of Literary Sinitic was largely prescriptive rather than organic.

As glossators tended to favor a character’s prescribed reading over more natural-sounding or context-driven translations, prescribed readings came to have a profound impact on kundoku. Once a sinogram was assigned a prescribed reading, that reading was then often extended to contexts beyond the scope of its original meaning. In the case of loan meanings and loan translations, this process of semantic broadening was relatively straightforward—the former entailing the use of a word in new contexts, the latter involving the combination of two or more morphemes to form a novel expression. With loan derivations and loan constructions, however, the situation was slightly more complex.

As a prototypical isolating language, Literary Sinitic exhibits a high degree of lexical flexibility—that is, the same word can often function as a noun, verb, adjective, adverb or even particle, depending on context and its position in the sentence (Kennedy 1964, Bisang 2008a, 2008b, Zádrapa 2011, Sun 2020). Japanese, by contrast, is an agglutinative language with morphologically distinct word classes, which are typically modified through the use of derivational (or in some cases inflectional) suffixes and particles (Kiyose 1995, Rickmeyer 1995, Irwin and Zisk 2019: 33–98). For example, when translating 及 used as a conjunctive particle, a glossator could not simply take its prescribed reading *oyob-u* and use it as a conjunction. In order for the sentence to be grammatical, at least some degree of morphological modification was required. In this case, the typological barrier was overcome by converting *oyob-u* into its serial form (*renyōkei*), *oyob-i*, which functions morphologically as an adverb. A similar process is observed with the formation of the double negative necessitive. Since Japanese does not allow for two negative suffixes after a verb stem, again, some sort of modification—in this case, syntactic rather than morphological—was necessary to accurately translate the Literary Sinitic double negative construction.

Taken together, these motives suggest that imitational borrowing in kundoku was fueled not by lexical gaps in Japanese, but rather by a strict adherence to the source text and a preference for prescribed readings over context-based translation. In short, it was the high prestige accorded to Literary Sinitic, manifested through the kundoku method, that underpinned the creation of so many borrowings.

5. Final thoughts: The legacy of kundoku

In this chapter, through a summary of four case studies, I provided an overview of the influence of kundoku on the Japanese language via imitational borrowing. The first three case studies illustrated how new words and grammatical constructions were formed in kundoku, while the final case study demonstrated how preexisting words adopted novel senses in kundoku, following Literary Sinitic models in each case. The final section of the chapter discussed the motives behind such borrowings, focusing on the kundoku method and prescribed readings.

As we can see from the examples presented, Japanese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Literary Sinitic not only on the lexical level but also at the morphological (loan translations and loan derivations), syntactic (loan constructions) and semantic (loan meanings) levels. Typically, such a large amount of influence from a foreign language would suggest intimate contact accompanied by bilingualism; however, in the case of Japanese, nearly all contact with Sinitic languages occurred via the written word and, more specifically, through the vessel of kundoku.

Contact via written language is by no means a phenomenon limited to Literary Sinitic and Japanese. What makes this scenario noteworthy is the presence of a vernacular reading practice as the core medium of contact. This raises the question, given a similar situation—i.e., contact between the written variety of a central, cosmopolitan language and a more peripheral, vernacular language via glossing and/or vernacular reading—could a similar pattern of borrowing occur?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we need to look no further than the Korean peninsula.

As discussed in the introduction, Korean is one of several other sinographic languages with documented vernacular reading traditions. Known as *kugyōl*, lit. ‘markers for chanting’, the Korean practice of vernacular reading is believed to have begun as early as the seventh century, although most surviving glossed texts date to the 10th century or later (Nam 2012: 46–47; Chung 2022). The parallels between kundoku and *kugyōl* are striking. Both make use of sinogram-based phonogram glosses (*kana-ten* in the Japanese tradition, *chat’o* ‘sinogram gloss’ in the Korean tradition), dot glosses (*wokoto-ten* in the Japanese tradition, *chōmt’o* ‘dot gloss’ in the Korean tradition) and word order inversion glosses (*kaeri-ten* in the Japanese tradition, *yōktokchōm* ‘reverse reading mark’ in the Korean tradition) to render Literary Sinitic texts in the vernacular using a mix of Sinoxenic and native readings together with functional morphemes such as verbal suffixes and particles supplemented for grammaticality. Given these striking parallels, it is not surprising that imitational borrowings similar to those observed in kundoku have also been reported in *kugyōl*.

Some of the *kugyōl* examples provide mirror images of loan derivations from kundoku. Yáng (2016) gives the examples of the Middle Korean compound case marker $=(\dot{u})lw\acute{o} pse$ (instrumental) ($\rightarrow$ NK $=(\dot{u})lo sse$), a combination of the instrumental particle $=(\dot{u})lw\acute{o}$ and the sequential form of the verb *psu-tá* ‘use’ ($\rightarrow$ NK *ssu-ta*), and the conjunctive adverb *mìs* ($\rightarrow$ NK *mich*) ‘and, in addition to’, derived from the stem of the verb *mìs-tá* ‘reach’. The former is held to have arisen from a direct translation of 以, and the latter from 及, both essentially following the same pattern of word formation as EMJ $=wo mot-ite \sim =wo moq-te$ and *oyobi*.

Other examples seem to be unique to Korean. Two often-cited examples are the Middle Korean compound case marker $=kwá tam\acute{o}s \sim =(\dot{u})lw\acute{o} tam\acute{o}s$ (comitative) and conjunctive adverb *tam\acute{o}s* ‘and, in addition to’, both held to be modeled on 與 (MC *yjoX*) ‘do together, together, with’ (Yi 1947: 192–193, Lee, K. & Ramsey 2011: 234–235, Joho 2014: 57–59, Yáng 2016: 52–53). Here $=kwá$ is the Middle Korean comitative/connective case marker particle ($\rightarrow$ NK

=(*k*)*wa*), while =(ú)*hwó* is the same instrumental particle used in =(ú)*hwó pse*. While the etymology of *tamós* is unclear, Yáng postulates that it may derive from a verb stem in a similar fashion to *mís* (Yáng 2016: 53). Such examples from Korean show us that the imitational borrowings observed in kundoku are not unique to Japanese but rather a shared pattern of contact-induced language change triggered by vernacular reading.

Finally, I would like to take a brief look outside the Sinographic Cosmopolis for similar examples of imitational borrowing via vernacular reading. While there does not seem to be any practice quite on par with vernacular reading outside East Asia (although, see King 2021 for a discussion of potential parallels in the ancient Middle East), the practice of glossing cosmopolitan language texts in the local vernacular has been observed throughout history in various cultural spheres from Western Europe to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Whitman 2011, Blom 2017, Moran & Whitman 2022, Cinato et al. 2023). While the majority of research on language contact since the late 20th century has focused on contact via spoken language, in the mid-20th century there was a surge of research on language contact through glossing,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Latin and Greek on the medieval European vernaculars.

In his seminal dissertation on Latin borrowings in the Old High German glossary, *Abrogans*, Betz (1936) laid out a comprehensive classification of Latin borrowings in Old High German, including not only loanwords proper but also loan meanings and loan translations. For example, according to Betz, Old High German *samanchumi*, lit. ‘coming together’, used as a gloss for Latin *conventus* ‘assembly, gathering’, lit. ‘coming together’, is an exact loan translation (Betz 1936: 33), while Old High German *koat poto*, lit. ‘good messenger’, used as a gloss for Latin *bona adnuntiatio* ‘gospel’, lit. ‘good announcement’—itself a loan translation of Greek *εὐαγγέλιον*—is an approximate loan translation (Betz 1936: 36). Betz went on to publish an expanded version of his classification (Betz 1949), this time focusing on the Old High German translation of *Regula Sancti Benedicti* ‘Rule of Saint Benedict’. Betz’s work inspired a generation of scholars to follow in his footsteps who, taken together, presented hundreds of examples of imitational borrowings via glosses on Latin and Greek in the European vernaculars (Old English: Gneuss 1955; Old High German: Höpfel 1970, Lauffer 1976, Bean 1974; Gallo Romance: Schütz 1958, etc.).

Given the lack of vernacular reading practices such as those observed in Japan and Korea, it remains to be seen what parallels can be drawn between the imitational borrowings arising from glosses on Latin and those in kundoku and kugyōl. This is an area of research with enormous potential that will hopefully be pursued in the future. One particular strength of the Japanese scenario is that a massive corpus of both kundoku texts and native works of literature from the same period have been handed down to us, allowing us to compare the language of kundoku with that of native literature and effectively determine what is and is not a borrowing. It is for this very reason that the concept of kuntengo can exist in the first place: without a comprehensive body of native literature to compare against, we would be left to speculate whether conjunctive *oyobi* is truly modeled on 及 or if *arawas-u* truly borrowed its usage as an expression of writing from 著. This differs vastly from the Korean situation, in which very few sources—whether native literature or glosses of Literary Sinitic—from before the 10th century survive, or the European situation, in which glosses tend to predate the emergence of a substantial body of native literature.

In a way, kundoku texts provide us with a real-time window into language contact via the written word and glossing that linguists are rarely privileged to. It is perhaps this chance to bring us new, unmediated insights into the history of language contact in which the true significance of the Japanese glossed manuscript lies.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JSPS KAKENHI Grant Numbers 19H01265 and 24K03860. I would like to thank Mark Irwin for his insightful comments on an early draft of this paper.

List of linguistic periods

OJ	Old Japanese (7th–8th century)
EMJ	Early Middle Japanese (9th–11th century)
LMJ	Late Middle Japanese (12th–16th century)
ENJ	Early Modern Japanese (17th–mid-19th century)
LNJ	Late Modern Japanese (late-19th–mid-20th century)
PdJ	Present-day Japanese (late-20th century–present)
MC	Middle Chinese (4th–12th century)
MK	Middle Korean (10th–16th century)
NK	Modern Korean (17th century–present)

List of grammatical category labels

ABL	ablative	ISO	isolative
ACC	accusative	LOC	locative
ADN	adnominal	MNF	manifestive
AFF	affirmative	NEC	necessitive
CAU	causative	NEG	negative
CCL	conclusive	NML	nominalizer
CJT	conjunctural	NOM	nominative
CMP	complementizer	PAS	passive
CNF	confirmative	PLU	plural
COM	comitative	PRH	prohibitive
COP	copula	PST	past
CSL	causal	RET	retrospective
DAT	dative	RSP	respectful
EMP	emphatic	SEQ	sequential
EVD	evidential	SER	serial
FCD	focused conditional	STA	stative
FOC	focus	TOP	topic
GEN	genitive	TTL	title
HPF	honorific prefix	VBL	verbalizer
HUM	humble	XCC	fixed concessive
IFO	inclusive focus	XCD	fixed conditional
IMP	imperative	XCL	exclamatory
INC	inconclusive		

Sources

- Ikeda, Kikan. 1984–85. *Genji monogatari tasei (fukyū-ban)* [*Genji monogatari* compendium (general edition)]. 14 vols. Tokyo: Chūō Kōronsha.
- Muroki, Hideyuki & Nishihashi, Yukio & Edo, Hideo & Inakazu, Naoko & Shiho, Yukie & Nakamura, Kazuo (eds.). 1999. *Utsuho monogatari no sōgō ken'yū 1: honbun-hen* [Collected studies on *Utsuho monogatari* 1: Main text]. 2 vols. Tokyo: Bensei shuppan.
- NKBT = Takagi, Ichinosuke & Nishio, Minoru & Hisamatsu, Sen'ichi & Asō Isoji & Tokieda Motoki (eds.). 1957–1967. *Nihon koten bungaku taikei* [Anthology of Classical Japanese literature]. 100 vols. Tokyo: Iwanami Shoten.
- Ōtsubo, Heiji. 2017. *Ishiyamadera-bon Daichirondo koten no kokugogakuteki kenkyū* [A Japanese linguistic study of *Daichirondo*, Ishiyamadera MS]. Tokyo: Kazama Shobō.
- Satō, Yoshihiro. 1992. *Ōtani daigaku toshokan-zō Sangō shiki chūshū no kenkyū* [A Study of *Sangō shiki chūshū*, held by the Otani University Library]. Kyoto: Ōtani Daigaku.
- Scripta Sinica (Online database). Academia Sinica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https://hanchi.ihp.sinica.edu.tw/ihp/hanji.htm>) (accessed 24 August 2025)
- Shōgozō Kyōkan [Sutras of the Shōgozō repository] (Online database). Kunaichō Shōsōin Jimusho. (<https://bird.bukkyo-u.ac.jp/collections/titles/shogozokyokan/>) (accessed 24 August 2025)
- SNKBT = Satake, Akihiro & Ōsone, Shōsuke & Kubota, Jun & Nakano Mitsutoshi (eds.). 1989–2005. *Shin Nihon koten bungaku taikei* [New anthology of Classical Japanese literature]. 100 vols. Tokyo: Iwanami Shoten.
- Union Catalogue Database of Japanese Texts (Online Database). National Institute of Japanese Literature. (<https://kokusho.nijl.ac.jp/biblio/100217160/>) (accessed 24 August 2025)

References

- Bean, Edda Petri. 1974. *Die Lehnbildungen der althochdeutschen Vergilglossen*. Augsburg: Werner Blasaditsch.
- Betz, Werner. 1936. *Der Einfluss des Lateinischen auf den Althochdeutschen Sprachschatz: I. Der Abrogans*. Heidelberg: Carl Winters Universitätsbuchhandlung.
- Betz, Werner. 1949. *Deutsch und Lateinisch: Die Lehnbildungen der Althochdeutschen Benediktinerregel*. H. Bouvier u. Co. Verlag.
- Bisang, Walter. 2008a. Precategoriality and argument structure in Late Archaic Chinese. In: Leino, Jaakko (ed.), *Constructional reorganization*, 55–88. Amsterdam: John Benjamins.
- Bisang, Walter. 2008b. Precategoriality and syntax-based parts of speech: The case of Late Archaic Chinese. *Studies in Language* 32(3): 568–589.
- Blom, Alderik H. 2017. *Glossing the Psalms: The emergence of the written vernaculars in Western Europe from the seventh to the twelfth centuries*. Berlin: De Gruyter.

- Bundschuh, John. 2021.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creation of narrative structure: Early Heian Japanese translations of Sinitic Buddhist texts*.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Cinato, Franck & Lahaussais, Aimée & Whitman, John (eds.). 2023. *Glossing practice: Comparative perspectives*. Lanham: Lexington Books.
- Chung, Jae-Young (trans. by Whitman, John). 2022. Korean *kugyōl*. In: Cho, Sungdai & Whitman, John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133–17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llesvig, Bjarke. 2010. *A history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neuss, Helmut. 1955. *Lehnbildungen und Lehnbedeutungen im Altenglischen*. Berlin: Erich Schmidt Verlag.
- Handel, Zev. 2019. *Sinography: The borrowing and adaptation of the Chinese script*. Leiden: Brill.
- Höpfel, Peter. 1970. *Die Lehnprägungen im Glossar Heinrici Summarium*. Munich: LMU Munich (PhD dissertation).
- Irwin, Mark & Zisk, Matthew. 2019. *Japanese linguistics*. Tokyo: Asakura Publishing.
- Joho, Satoshi. 2014. Reading *sōktoku kugyōl* materials based on *ōnhae* materials. *Acta Linguistica Asiatica* 4(1): 43–68.
- Kasuga, Masaji. 1956. *Kokuten no kenkyū* [Studies on early glossed texts]. Tokyo: Kazama Shobō.
- Kennedy, George A. 1956. Word-classes in Classical Chinese. *Wenii* 9. (Rpr. in: Tien-yi, Li (ed.). 1964. *Selected Works of George A. Kennedy*, 323–433. New Haven: Far East Publications, Yale University.
- Kin, Bunkyō (trans. by King, Ross & Burge, Marjorie & Park, Si Nae & Lushchenko, Alexey & Hattori, Mina). 2021. *Literary Sinitic and East Asia: A cultural sphere of vernacular reading*. Leiden: Brill.
- King, Ross. 2006. Connecting dialects and kwukyel. In: Kugyōl Hakhoe (eds.), *Hanmun tokpōp kwa tong-asia ūi muncha*, 291–320. Seoul: T'aehaksa.
- King, Ross. 2021. Editor's preface: Vernacular reading in the Sinographic cosmopolis and beyond. In: Kin, Bunkyō (trans. by King, Ross & Burge, Marjorie & Park, Si Nae & Lushchenko, Alexey & Hattori, Mina). *Literary Sinitic and East Asia: A cultural sphere of vernacular reading*, ix–xl. Leiden: Brill.
- Kiyose, Gisaburo N. 1995. *Japanese grammar: A new approach*. Kyoto: Kyoto University Press.
- Kosukegawa, Teiji & Whitman, John. 2018. On the significance of the glosses in Vietnamese Classical Chinese texts.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13(3): 29–50.
- Lauffer, Hartmut. 1976. *Der Lehnwortschatz der althochdeutschen und altsächsischen Prudentiusglossen*. Munich: Wilhelm Fink Verlag.
- Lee, Iksop & Ramsey, Robert S. 2000. *The Korean languag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Lee, Ki-Moon & Ramsey, Robert S. 2011.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negishi, Akira. 1986. *Heian jidai kokiroku no kokugogaku-teki kenkyū* [A Japanese linguistic study of early chronicles from the Heian period]. Tokyo: Tōkyō Daigaku Shuppankai.
- Miyazaki, Michisaburō. 1903. *Tsukasa meigi-kō* [Thoughts on the origin of the word *tsukasa* (officer)]. *Hōgaku kyōkai zasshi* 21(4): 483–505. (Repr. in Tanaka, Kaoru (ed.). 1929. *Miyazaki-sensei hōseishi ronshū*, 183–203. Tokyo: Iwanami Shoten.)
- Moran, Pádraic & John Whitman. 2022. Glossing and reading in Western Europe and East Asia: A comparative case study. *Speculum* 97(1): 112–139.
- Motoori, Norinaga. 1803. *Shokki rekichō shōshi-kai* [Collected exegeses of the language of the imperial edicts in *Shoku nihongi*]. Nagoya: Eirakuya Tōshirō. (Rpr. in: Ōno, Susumu (ed.). 1971. *Motoori Norinaga zenshū*, vol. 7, 185–482. Tokyo: Chikuma Shobō.)
- Nakada, Norio. 1979. *Kotenbon no kokugogakuteki kenkyū: Sōron-hen* [A Japanese linguistic study of early glossed texts: General discussion], revised edn. Tokyo: Benseisha.
- Nam, Pung-hyun. 2012. Old Korean. In: Tranter, Nicolas (ed.), *The languages of Japan and Korea*, 41–72. London: Routledge.
- Nguyễn, Thị Thu Huyền. 2021. Betonamu katen shiryō no kutōten kara mita kundoku no kanōsei [Punctuation marks in Vietnamese glossed texts as a possible indicator of *kundoku*]. *Kanji bunka kenkyū* 15: 33–50.
- Nguyễn, Thị Thu Huyền. 2023. Betonamugo ni yoru kanbun dokkai ni tsuite: Kannan kenkyūin-zō *Rongo yakkai*, Eireikō-hen o chūshin ni [The reading of Literary Sinitic in Vietnamese: Focusing on *Luận ngữ ước giải* (Concise commentary on the *Analects*), Wèi Líng gong, held by the Institute of Hán-Nôm Studies. *Kuntengo to Kuntēn shiryō* 151: 74–53.
- Ōtsubo, Heiji. 1981. *Heian jidai ni okeru kuntengo no bunpō* [The grammar of kuntengo in the Heian period]. Tokyo: Kazama Shobō.

- Rickmeyer, Jens. 1995. *Japanische Morphosyntax*. Heidelberg: Julius Groos Verlag.
- Saitō, Fumitoshi. 2011. *Kanbun kundoku to kindai Nihongo no keisei* [Kanbun kundoku and the formation of Modern Japanese]. Tokyo: Bensei Shuppan.
- Satō, Kiyoji. 1987. Kanji to Nihongo [Sinograms and Japanese]. In: Satō, Kiyoji (ed.), *Kanji kōza 3: Kanji to Nihongo*, 1–24. Tokyo: Meiji Shoin.
- Schütz, Karl. 1958. *Die Lehnprägungen der Reichenauer Glossare, Rb, Rc, Rd, Re und Rf*. Bonn: University of Bonn (PhD dissertation).
- Shōgaito, Masahiro (trans. by Ohsaki, Noriko & Sugahara, Mutsumi & Fijishiro, Setsu). 2021. Philology and linguistics: Ondoku and kundoku in Old Uighur. *Gengo Kenkyu*, Supplement 1: 155–185.
- Sun, Linlin. 2020. *Flexibility in the parts-of-speech system of Classical Chinese*. Berlin: De Gruyter Mouton.
- Tsukishima, Hiroshi. 1963. *Heian jidai no kanbun kundokugo ni tsukite no kenkyū* [A study of the language of kanbun kundoku in the Heian period]. Tokyo: Tōkyō Daigaku Shuppankai.
- Whitman, John. 2011. The ubiquity of the gloss. *SCRIPTA* 3: 95–121.
- Yamada, Yoshio. 1935. *Kanbun no kundoku ni yorite tsutaeraretaru gohō* [Words and expressions preserved in kanbun kundoku]. Tokyo: Hōbunkan.
- Yamaguchi, Yoshinori. 1974. Shoku nihongi senmyō no buntaiteki seikaku ni tsuit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Shoku nihongi* imperial edicts]. *Kokugo to kokubungaku* 51(4): 1–13.
- Yáng, Yàn. 2016. “Ro ssō” ūi mupōphwa e taehan chaeron [Rethinking the grammaticalization of (u)lo sse]. *Hanminjogō Munhak* 74: 33–58.
- Yi, Hüisüng. 1947. *Chosōnōhak non’go*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Seoul: Ŭryu Munhwasa.
- Zádrapa, Lukáš. 2011. *Word-class flexibility in Classical Chinese: Verbal and adverbial uses of nouns*. Leiden: Brill.
- Zisk, Matthew. 2010. Imi no ue no kanbun kundokugo: Wago arawasu ni taisuru kanji cho no imi-teki eikyō [Semantic borrowing in kanbun kundoku: The semantic influence of zhù 著 on arawasu-u. *Kunten-go to kunten-shiryō* 125: 53–78.
- Zisk, Matthew. 2017a. Middle Chinese loan translations and loan derivations in Japanese. *Japanese/Korean Linguistics* 24: 315–329.
- Zisk, Matthew. 2017b. Wago no shoki kōi hyōgen *noru*, *nosu* no seiritsu o megutte: Kanji o baikai to shita imishakuyō no kanten kara [The origin of the Japanese writing expressions *nor-u* and *nos-u*: From the perspective of semantic borrowing through the medium of sinograms]. *Kuntengo to kunten shiryō* 139: 28–52.
- Zisk, Matthew. 2024a. Kuntengo no bunpōka: Kanji kango ni yoru mohōshakuyō to no kanren kara [Grammaticalization in kuntengo: Focusing on imitational borrowing from Literary Sinitic]. *Kanji bunka kenkyū* 14: 7–57.
- Zisk, Matthew. 2024b. Heian shoki no kuntenshiryō ni okeru chokuyaku hyōgen no gokeisei: Saidaiji-bon *Konkōmyō saishōō-kyō* koten o chūshin ni [The Word formation of directly translated expressions in kundoku texts of the early Heian period: Focusing on *Konkōmyō saishōō-kyō* (Golden light sutra), Saidaiji MS]. In: Saitō, Michiaki & Xiu, Dejian (eds.), *Riyū cǐhuì yánjiū*, 244–275. Beijing: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Press.
- Zisk, Matthew. 2025. Classical and Modern Japanese glossing rules (2025.03.31) (Online publication). (<https://researchmap.jp/mzisk/misc/50877536>) (accessed 24 August 2025)
- Zisk, Matthew. Forthcoming. An analysis of Literary Sinitic borrowings and contact-induced innovations in Japanese (Parts I & II). In: Irwin, Mark & Zisk, Matthew (eds.), *Japanese sociohistorical linguistics*. Berlin: De Gruyter Mouton.

일본어학 연구에서의 훈점 자료의 의의 - 한문 훈독이 일본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매튜 지스크 (도호쿠대학교)

1. 서론: 자연어 읽기의 일종으로서의 한문 훈독

한문 텍스트를 일본어로 읽는 관습인 한문 훈독(漢文訓読, 이하 ‘훈독’)은 1,200년 이상 수행되어 왔다. 일본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한문 훈독의 흔적은 8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9세기부터 훈점본의 수가 실질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훈독의 영향이 이미 많은 상대(上代) 일본어 문학 작품에서 관찰되고, 9세기 초의 훈점이 단 몇십 년 만에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정교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훈독은 그보다 더 일찍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독서 관습은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으로 한문 및 한자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던 현재의 중국, 대만, 베트남, 남북한 및 일본을 포함하는 이른바 ‘한자 문화권(Sinographic Cosmopolis)’ 전역에서 널리 관찰되었다. 일본어 외에도 한국어(Lee, I. & Ramsey 2000: 51-53, King 2006, Lee, K. & Ramsey 2011: 83-85, Nam 2012: 46-48, Handel 2019: 78-87, Kin 2021: 85-141, Chung 2022), 베트남어(Kosukegawa & Whitman 2018, Nguyễn 2021, 2023), 고대 위구르어(Shōgaito 2021) 등이 한문을 해석하기 위한 구어적 매체로 사용된 바 있다. Whitman(2011)을 시작으로 이러한 관습은 영어로 흔히 ‘자연어 읽기(vernacular reading)’라고 불리며, 이는 “더 권위 있는 ‘세계 시민적(cosmopolitan)’ 언어의 문자, 표기법, 어휘 및 문법으로 작성된 텍스트를 구어로 소리 내어 읽는 것”(Whitman 2011: 95)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표층적인] 텍스트가 정전(正典)적이거나 ‘세계 시민적’ 지위를 가지며, 주석에 의해 지정된 읽기 언어가 지역 방언(local idiom)을 나타내는 변형적 독서의 하위 사례”(Moran & Whitman 2022: 114-115 fn. 9)로 정의된다.

훈독(및 일반적인 자연어 읽기)은 최종 결과물이 자연어로 된 완전히 일관된 한문 해석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번역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훈독은 몇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 번역과 다르다. 첫째, 훈독 해석은 원문과 공존한다. 즉, 훈독은 한문 원문에 추가된 일련의 훈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어떤 시점에서든 원문이 대체되거나 덮어쓰여지지 않는다. 둘째, 훈독의 결과는 매우 예측 가능하다. 번역은 다양한 정도와 유형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각 글자의 해석이 미리 정해진 규칙 체계에 의해 지배되는 훈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훈독은 원문에 충실하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원문의 각 문장은 대상 언어로 축자적(단어 대 단어 또는 글자 대 글자)으로 번역된다.

이 세 가지 특성의 결합은 훈독의 언어가 역사 전반에 걸쳐 다른 문어체 양식(literary registers)과 현저히 달랐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Yamada(1935), Tsukishima(1963), Ōtsubo(1981) 등의 수많은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원문에 대한 강한 고착성으로 인해 훈독은 한문 모델을 본뜬 수백 개의 새로운 일본어 표현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했다. 본고에서 훈독의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나지만, 제시된 네 가지 사례 연구가 그 영향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훈독이 일본어에 미친 영향, 즉 필자가 ‘모방적 차용(imitational

borrowing)’이라 부르는 현상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는 수용 언어(이 경우 일본어)에 이미 존재하는 단어와 형태소를 사용하여 제공 언어(이 경우 한문)의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패턴을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어의 서로 다른 측면, 즉 단어 형성(합성 및 파생 모두), 통사 및 의미론에 영향을 미치는 각기 다른 유형의 차용을 대표하는 네 가지 사례 연구를 통해 설명될 것이다.

2. 혼독에서의 차용 분류

각 사례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Zisk(출간 예정)에서 제시된 틀에 따라 혼독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차용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두 개 이상의 언어가 접촉할 때, 한 언어의 형태와 특징을 다른 언어에 기반하여 보충하거나 풍부하게 하기 위해 흔히 두 가지 전략이 사용된다. 여기서는 형태와 특징을 제공하는 언어를 ‘제공어(donor)’, 그러한 형태와 특징을 채택하는 언어를 ‘수용어(recipient)’라고 지칭한다. 첫 번째 전략은 수입(importation)으로, 제공어의 언어적 재료(단어, 형태소, 음, 문자 체계, 문체 등)를 원래 형태나 변형된 형태로 수용어에 직접 전이하는 것을 포함한다.

두 번째 전략인 **모방(imitation)**은 수용어 고유의 자료를 사용하여 제공어의 언어적 패턴(단어 형성 원리, 언어 관계, 문법적 구문, 의미 영역 등)을 재현하는 것이다. 혼독은 수입의 통로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으며—한문 차용어의 대다수가 혼독 텍스트에서 처음 확인된다—이러한 수입을 통한 차용은 혼독의 문맥 안팎에서 모두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혼독의 결정적인 특징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모방을 통한 차용의 영향이다.

혼독에서의(그리고 일반적인) 모방적 차용은 수용어의 어느 영역(어휘, 형태, 통사, 의미)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번역 차용(loan translation), 파생 차용(loan derivation), 구문 차용(loan construction), 의미 차용(loan meaning)의 네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번역 차용과 파생 차용은 제공어를 모델로 한 단어 형성 전략을 통해 새 단어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므로 어휘와 형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구문 차용은 통사에, 의미 차용은 수용어의 의미론에 영향을 미친다.

번역 차용: 제공어 모델을 따라 수용어에서 새로운 복합어 또는 합성어(비단순어)가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예로는 중고(中古) 일본어의 kare+kore(이것저것)가 있으며, 이는 한자어 彼此(MC pjeX+tshjeX)를 모델로 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啼泣(MC dej+khip, 울며 눈물을 흘리다)에서 영감을 얻은 중고 일본어 nak-i+sipotar-u(울어서 소매를 적시다)가 있다(Zisk 2017a: 319-321, 2024b: 252-253).¹⁾

파생 차용: 제공어에서 어휘적으로 유연한(즉, 여러 품사로 사용 가능한) 단어의 형태론을 모방하기 위해 수용어의 어근을 사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경우이다. 예로는 대격 조사 =wo와 동사 mot-u(가지다, 사용하다)의 연용형을 결합하여 만든 중고 일본어의 복합 격 조사 =wo mot-ite ~ = wo mo[t]-te(도구격)가 있으며, 이는 以(MC yiX, 동사로서 ‘사용하다, 제어하다’; 조사로서 ‘도구격’)를 모델로 한 것이다(Zisk 2017a: 324, 2024a: 19-22, 45-48, 2024b: 260-264). 또한 중고 일본어의 접속 부사 sore(대저, 처음에)는 명사 sore(그것)가 夫

1) 본고 전반에 걸쳐 일본어 예시는 언어 시기별 주요 음운 변화를 반영하는 Zisk(2025)에 따라 전사되었다. 중고 중국어 예시는 Baxter & Sagart(2014)를 따르며, 중세 및 현대 한국어는 예일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각 시기의 연대와 이에 사용된 약어는 논문 말미의 ‘언어 시기 목록’을 참조하라.

(MC bju, 저것, 대저, 처음에)에 기초하여 전성(conversion)된 사례이다(Zisk 2024a: 28).

구문 차용: 어순 도치, 조동사화, 복합 술어화 등 광범위한 문법 관련 현상을 포함하며, 수용어가 통사적 수준에서 제공어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문법적 구문이 생겨나는 경우이다. 흔히 인용되는 예는 훈독에서 발화나 사고를 표현하는 특정 동사들이 한문의 어순을 따라 ‘보절 앞 위치(주어-보절-동사: SCV)’에서 ‘보절 뒤 위치(주어-동사-보절: SVC)’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다음의 (1)a와 b가 그 예이다(Ōtsubo 1981: 845; Frellesvig 2010: 272-273).

(1) 훈독에서의 어순 도치:

- a. S C=to ip-u → S ipak-u C
 S C=CMP say-CCL → S say-NML C
 (after MC [S *hjwt* 曰 ‘say’ C], [S *ngjon* 言 ‘speak’ C], [S *hjun* 云 ‘say’ C], etc.)
- b. S C=to omop-u S → omop-aku ~ omop-er-aku C
 S C=CMP think-CCL S → think-NML ~ think-STA-NML C
 (after MC [S *si* ‘think’ 思 C], [S *hjiwjiH* 謂 ‘say, tell, think’ C], [S *yiXhjiwe* 以為 ‘recognize, infer’ C], etc.)

의미 차용: 수용어에 이미 존재하는 단어가 제공어의 단어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습득하는 경우이다. 예로는 근세 일본어의 asob-u(놀다)가 遊(MC yuw, 유람하다, 놀다, 타향에서 공부하다)를 모델로 하여 ‘타향에서 공부하다(유학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Satō 1987: 18), 또는 중고 일본어 akas-u(밝히다, 밤을 새우다)가 明(MC mjaeng, 밝음, 밝다, 밝히다, 날이 새다, 분명하다, 규명하다)을 따라 ‘규명하다(분명히 하다)’라는 의미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 있다(Zisk 2012). 이 절에서 설명한 네 가지 유형의 모방적 차용을 [표 1]에 요약하였다.

[표 1] 훈독에서의 모방적 차용

	번역 차용	파생 차용	구문 차용	의미 차용
하위 범주	직접, 근사, 단어, 구	연결적 파생, 전성	어순 도치, 조동 사화, 복합 술어화	동음이의어 기 반, 유의어 기반
주요 영향 영 역	어휘, 형태	어휘, 형태	통사	의미
예시	kare+kore, nak-i+sipotar -u	= w o mot-ite, sore	SCV → SVC	asob-u, akas-u

3. 훈독에서의 모방적 차용: 네 가지 사례 연구

3.1. 죄수를 뜻하는 용어: 합성을 통한 형태론적 차용

훈독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주요 모방적 차용 유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이제 네 가지 사례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 연구에서는 죄수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번역 차용어인 toraebito와 torawarebito를 다룬다. 중고 일본어 명사 합성어인 torapebito (/torape+pito/ [capture.SER+person] → 현대 일본어 toraebito)는 9세기에 처음 등장하며, 포박된 포로나 죄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중세 일본어 이전까지 torapebito는 한문

텍스트의 훈점이나 한자 사전에서만 확인되는데, 여기서는 囚(MC zjuw, 사로잡다, 포로, 죄수), 囚人(MC zjuwnyin, 죄수, 직역하면 ‘포로/죄수+사람’), 그리고 囚徒(MC zjuwdu, 죄수들, 직역하면 ‘포로/죄수+사슬에 묶인 노동자’)의 훈으로 기능한다. 변이형인 toraparebito (/torapare+pito/ [be.captured.SER+person] → 현대 일본어 torawarebito)는 12세기부터 한자 사전에서 확인되며, 그 이후 주도적인 형태가 된다. 두 단어는 의미상 동일하다.

예시 (2)는 9세기의 한문 불전 훈점본에서 가져온 것이며, (3)은 12세기의 한자 사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초기 한자 사전에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torapebito와 toraparebito가 중고 일본어 시기 전반에 걸쳐 囚人의 일반적인 훈으로 사용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 원문:

有(2)	五百	死囚(1)	[從]	獄	得(2)	出(1)
exist	five.hundred	condemned.prisoner	[ABL]	prison	acquire	exit

자연어 읽기:

五百(の)	死(ぬ)べき	囚 ^{トラヘ} (1)	有(り)て(2)	[從]獄(より)
(gopyaku)=no	(sin-u)be-ki	<u>torapebito</u>	(ar-i)te	(pitoya=yori)
five.hundred=GEN	death-NEC-ADN	<u>prisoner</u>	exist-SEQ	prison=ABL

出(づる)	こと(1)	得タリ(2)
(idu-ru)	koto	(e-)tar-i
exit-ADN	thing	acquire-STA-CCL

“사형에 처해야 할 죄수(囚人) 오백 명이 있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허가받았다.”

－ 『願經四分律』, 光明皇后 발원 일체경 제38권, 聖語藏 소장 (9세기 초 훈점)

囚人	<トラヘヒト	トラハレヒト>
(syuuzin)	torapebito	toraparebito
(3) prisoner	prisoner	prisoner

‘囚人 (MC zjuwnyin / EMJ syuuzin): torapebito (prisoner), torawarebito (prisoner).’

－ 『色葉字類抄』, 前田家 소장본, 제1권(상): 56r (12세기 중반 성립; 13세기 초 필사본)

torapebito와 toraparebito가 중세 일본어 이전까지 훈점과 사전 이외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합성어들은 囚 및 그 합성어에서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구체적인 영감의 원천으로 세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torapebito와 toraparebito가 囚人의 번역 차용일 가능성이다. 두 단어의 구성 요소인 [‘포획하다/포획되다+사람’]이 囚人의 거울상 형태를 이룬다는 점에서 이것이 가장 그럴듯한 가능성이다. 둘째, 이 합성어들이 囚徒의 번역 차용일 가능성이다. 『大漢和辭典』 개정 2판에 따르면, 囚徒는 첫 번째 글자가 감옥에 갇힌 포로를, 두 번째 글자가 사슬에 묶인 노동자를 나타내어 함께 일반적인 죄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의 합성어이다. 비록 의미론적으로 이 맥락에서 pito(사람)가 徒(무리 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徒는 ‘사슬에 묶인 노동자’ 외에도 ‘보병’, ‘동료’, ‘제자’ 등 광범위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pito(사람)가 徒의 근사적 번역으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가능성은 囚라는 글자를 개별 구성 요소인 口(‘에워싸다, 가두다’)와 人(‘사람’)으로 분해하여, 이를 합쳐서 torapebito~toraparebito, 즉 ‘에워싸인/갇힌(=포획된)+사람’으로 렌더

링했을 가능성이다. 필자가 다른 곳에서 “자형-어원적 렌더링(grapho-etymological rendering)”(Zisk 출간 예정)이라 명명한 이러한 유형의 ‘어원적’ 번역 차용은 Miyazaki (1903: 196-197)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그는 娶(MC tshjuH, 장가들다)의 훈인 중고 일본어 me+tor-u(아내를 맞이하다, 직역하면 ‘여자+취하다’)가 女(‘여자’)와 取(‘취하다’)라는 구성 요소 분석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하며 예로 들었다.

torapebito와 toraparebito는 12세기까지 훈점과 사전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13세기부터는 13세기 초의 군기(軍記) 모노가타리인 『平治物語』(1220)와 같은 고유 문학에서도 torawarebito의 예가 발견되기 시작한다.

- (4)

越王	軍に	うちまして	敵	呉王	夫差に	囚人
yetuwau	ikusa=ni	uti-make-te	kataki	gowau	busa=ni	<u>torawarebito</u> =to
king.of.Yue	war=DAT	PPX+lose-SEQ	enemy	king.of.Wu	Fucha=DAT	<u>prisoner</u> =COM
なつて	土の	ろうに	こめられて	矢なはむと
naQ-te	tuti=no	rou=ni	kome-rare-te	usinaw-am-u=to
become-SEQ	ground=GEN	prison=DAT	cram.in-PAS-SEQ	lose-CJT-CCL=COMP
- しけるに
si-ker-u=ni
do-RET-ADN=CSL

“월왕이 전쟁에서 패하여 적인 오왕 부차에게 죄수(포로)가 되어 지하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는데 [...]”

— 『平治物語』, 제3권 (1220), 琴平本

이후 torawarebito의 사용은 줄어들고, 10세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처음 확인되었으나 13세기부터 ‘죄수’의 의미를 얻게 된 mesyuudo(← 중고 일본어 mesiudo)가 선호되었다. 이는 다시 현대 일본어에서 toraebito~torawarebito의 한자어 대응어인 syuuzin(囚人, 슈진)으로 대체되었다. 현대 일본어에서 torawarebito는 거의 사어가 되었으나, 문체적 효과를 위해 매체에서 가끔 발견된다. 예를 들어, 2012년 프랑스-필리핀 합작 영화의 일본 제목인 『囚われ人(torawarebito): バラワン島観光客21人誘拐事件(팔라완 섬 관광객 21인 유괴사건)』(영어 제목은 단순히 Captive) 등이 그 예이다.

3.2. 접속 부사: 파생을 통한 형태론적 차용

두 번째 사례 연구는 접속 부사로 기능하는 파생 차용어 oyobi를 검토한다. 이 단어는 본래 어휘적 동사로 시작했으나, 한문 及(MC gip, 이르다, 및, 게다가)의 영향으로 접속 부사로 발달했다. oyobi의 파생 기원이 되는 동사 oyob-u는 중고 일본어에서 ‘이르다(도달하다)’ 또는 ‘필적하다, 대등하다’라는 의미로 널리 관찰된다. 『源氏物語』(1008년경)에서 발췌한 예시(5)는 당시 고유 문학에서 oyob-u가 사용된 전형적인 문맥을 보여준다.

- (5) 人人の hitobito=no people=GEN かたりきこえし katar-i+kikoye-si tell-SER+HUM-PST.ADN うみやまの umiyama=no sea.and.mountains=GEN ありさまを arisama=wo condition=ACC はるかに paruka=ni far.away=SEF
- おほしやりしを obosiyar-isi=wo imagine.HUM-PST.ADN=ACC 御めに opom-me=ni HPF-eyes=DAT ちかくては tika-kutepa close-FCD けに geni truly をよはぬ oyob-an-u reach-NEG-ADN

いその iso=no rocky.shore=GEN たたすまひ tatazumapi appearance になく nina-ku uncomparable-SER かきあつめ給へり kak-i+atume+tamap-er-i write-SER+collect.SER+RSP-STA-CCL

“(수도에 있을 때) 그(=젠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막연히 상상만 하던 바다와 산의 모습을 이제 눈앞에서 직접 대하니, (이전의) 짐작으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했던 (oyob-an-u) 기막힌 바닷가 풍경을 그림에 담으셨다.”

— 『源氏物語』, <須磨> (1008년경), 大島本

동시대의 한문 훈점 자료로 눈을 돌려보면, 及을 ‘이르다’라는 의미로 혼독하기 위해 oyob-u를 사용한 수많은 사례뿐만 아니라, 예시 (6)에서와 같이 及이 접속사로 쓰인 경우 이를 혼독하기 위해 파생형인 oyobi를 사용한 사례가 관찰된다.

- (6) 원문:
- | | | | | | | | | |
|-------------|---------|--------|-------|-----|-------|--------|--------|-----|
| 因 | 抱(IT.2) | 子 IT.1 | 投 | 坑 | 々 | 變 | 為 2 | 池 1 |
| accordingly | embrace | child | throw | pit | (pit) | change | become | pon |
-
蓮-華	捧(2)	體(1)	王	及	國人	始
lotus.flower	lift.up	body	king	and	people.of.the.realm	for.the.first.time
-
復	不(2)	疑(1)
also	NEG	doubt

자언어 읽기:

因テ	子ヲ	抱イテ	坑ニ	投クルニ	穴ヲ	變シテ
yo(i)te	ko=wo	udai-te	ana=ni	nagu-ru=ni	ana	(pen)+ji-te
accordingly	child=ACC	embrace-SEQ	hole=DAT	throw=CSL	hole	change+do-SEQ

池ト	成テ	蓮-華	體ヲ	捧ケタリ
ike=to	na(t)-te	(reng)	(karada)=wo	sasage-tar-i
pond=COM	become-SEQ	lotus.flower	body=ACC	lift.up-STA-CCL

王	及ヒ	國ノ	人ヨリ	始メテ	復	疑ハ不
waū	(o)yobi	kuni=no	pito=yori	pajimete	mata	utagap-azu
king	and	realm=GEN	people=ABL	for.the.first.time	also	doubt-NEG.CCL

“따라서 그녀(=야쇼다라 공주)는 아이(=라홀라)를 데려와 불길치 치솟는 구덩이 속으로 던졌으나, 그렇게 하자마자 불구덩이는 연못으로 변했고 그들의 몸은 연꽃에 의해 위로 들어 올려졌다. 이 모습을 보고 비로소 왕(=정반왕)과 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라

홀라가 왕의 손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法華文句』, 제2권 상, 東大寺本 (11세기 훈점)

중고 일본어 시기 대부분 동안 oyobi는 한문 텍스트의 훈점이나 『三寶繪』(984년경), 『今昔物語集』(1120년경)와 같이 훈독의 영향을 받은 문학에 국한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 시기 말엽에 이르면 역사 이야기인 『榮花物語』(1092년경)의 예시 (7)과 같이 더 넓은 문학 장르에서도 사례가 발견되기 시작한다.

(7) 三月	八日の	せんしに	關白	やまひの	あひた
<i>samgwatu</i>	<i>yauka=no</i>	<i>senzi=ni</i>	<i>kwanbaku</i>	<i>yamapi=no</i>	<i>apida</i>
third.month	eighth.day=GEN	edict=DAT	kampaku	illness=GEN	interval

殿上	をよひ	百官	施行と	ある	よし	宣旨
<i>tenzyau</i>	<i>oyobi</i>	<i>pyaQkwan</i>	<i>segyaiu=to</i>	<i>ar-u</i>	<i>yosi</i>	<i>senzi</i>
court.nobles	and	government.officials	enforce=CMP	exist-ADN	intention	edict

くたりぬれは	内大臣殿	よろつに	まつりこち給
<i>kudar-inu-reba</i>	<i>naidaizin-domo</i>	<i>yorodu=ni</i>	<i>maturigot-i+tamap-u</i>
come.down-MNF-XCD	naidaijin-TTL.RSP	all.things=DAT	run.the.government-SER+RES-CCL

“3월 8일에 내려진 선지(宣旨) 중에는 ‘관백(關白)이 와병 중인 동안, 전상(殿上) 및 (oyobi) 백관(百官)은 그의 직무를 대행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대신(内大臣)이 국정의 통제권을 인수하였다.”

－『榮花物語』, <見果てぬ夢> (1092년경), 梅沢本

예시 (7)의 oyobi 사용은 한문의 及과 명확히 일치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oyobi가 텍스트 내에서도 문체적으로 특징적인 부분, 즉 선지(宣旨) 내에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지는 일반적으로 형태소표기적(morphographic) 일본어, 이른바 변체(變體) 한문으로 작성되었으며 방대한 훈독 어휘를 포함하고 있었다. oyobi가 텍스트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Tsukishima 1963: 512-513의 『榮花物語』 내 sumiyaka에 관한 논의 참조). 따라서 oyobi는 결국 고유 문학으로 퍼져나갔으나, 중고 일본어 시기에는 강력한 훈점어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뉘앙스는 현대 일본어까지 이어져, oyobi는 주로 격식 있는 문어체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3.3. 이중 부정 당위 표현: 통사적 차용

세 번째 사례 연구에서는 현대 일본어의 양태 구문인 -(a)zar-u=o e-na-i(~하지 않을 수 없다, 직역하면 ‘안 함을 얻지 못하다’)의 기원을 살펴본다. 이는 훈독에서 유래한 구조로, 두 개의 부정 동사 형태를 나란히 배치하여 강한 의무나 높은 가능성을 표현한다. 초기 한문 불전 훈점 자료에서 현대 일본어 -(a)zar-u=o e-na-i의 전신임이 분명한 사례들이 발견된다. 예시 (8)에서 한문의 이중 부정 구조인 不得不視(직역: 보지 아니함을 얻지 못함 = 보아야만 함)가 mi-zu ar-u koto=pa e-zu(직역: 보지 않음을 얻지 못함)로 읽히고 있다.

(8) 원문:

莫(3)	觀(2)	左右(1)	[者]	人	散-心	行(2)	道(1)	故
PRH	observe	left.and.right	[NML]	person	scattered.mind	go	way	therefore
左右	顧-看	行者	无緣(3)	觀(2)	後(1)	當(2)前(1)	則	
left.and.right	observe	sadhu	lacking.affinity	observe	behind	ahead	thus	
不(4)	得(3)	不(2)	視(1)	故	但	言(3)	莫(2)	左右
NEG	attain	NEG	inspect	therefore	only	say	PRH	left.and.right
								顧看(1)
								observe

자언어 읽기:

左右を(1)	觀(る)	こと(2)	莫と(3)	いふは[者]	人
(sau)=wo	(mi-ru)	koto	(na-kar-e=to)	ip-u=pa	(pito)
left.and.right=ACC	look-ADN	thing	nonexistent-VBL-IMP=CMP	say=ADN=TOP	person

散-心を	もて	道を(1)	行くが(2)	故(に)	左右を
(sanmin)=wo	mo[t]-te	(miti)=wo	(yu)k-u=ga	(yuweni)	(sau)=wo
scattered.mind=ACC	use-SEQ	way=ACC	go-ADN=GEN	therefore	left.and.right=ACC

顧-看す	行く	者	後を(1)	觀るに(2)	緣無し(3)
(kukan)+s-u	(yu)k-u	mono	(usiro)=wo	(mi)-ru=ni	yosi(na)si
observe+do-CCL	go-ADN	person	behind=ACC	look-ADN=CSL	without.reason

前に(1)	當(り)ては(2)	則(ち)	視(1)不	ある	ことは(2)
(mape)=ni	(atar-i)tepa	(sunapati)	mi-zu	ar-u	koto=pa
front=DAT	face-FCO	thus	look-NEG.SER	exist-ADN	thing=TOP

得(3)不(4)	故(に)	但(だ)	左右を	顧看する	こと(1)
(e-zu)	yuweni	tada	sau=wo	kukan)+su-ru	koto
attain-NEG.CCL	therefore	only	left.and.right=ACC	observe+do-ADN	thing

莫とのみ(2)	言(ふ)(3)
(na-kar-e)=to=nomi	(ip-u)
nonexistent-VBL-IMP=CMP=ISO	say-CCL

“좌우를 돌아보지 마라. 길에서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좌우를 돌아보는 것이다. 수행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좋지 않다. 마땅히 앞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단지 좌우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大智度論』, 제97권, 石山寺本 (858년 훈점)

한문의 ‘不得不(MC pjuw tok pjuw)+동사’ 구문은 현대 일본어의 이중 부정 당위 표현과 유사하게 강한 필요나 욕구를 나타낸다. 이 구문에 대한 일본어 훈독은 현대어보다 더 분석적이어서, 부정된 동사들 사이에 ar-i(있다) 동사를 배치한다. 한문의 복합 술어에 대한 이러한 분석적 렌더링은 초기 훈점어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며, 후기 시대로 갈수록 더 종합적인 렌더링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더 많은 예는 Saitō 2011나 Zisk 2024a를 참조).

훈점 이외의 고유 문헌 중 -(a)zar-u=o e-na-i의 가장 오래된 사례는 『続日本紀』(797)의

센묘(宣命, 천황의 칙령)에서 발견되는 예시 (9)이다. 여기서 해당 표현은 $oko_2nap-azu\ ar-u\ ko_2to_2\ e-zu$ (직역: 행하지 않음을 얻지 못함)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9)	然 (<i>sikaruni</i> now.then	朕<方> (<i>are</i>)= <i>pa</i> 1SG=TOP	髮<乎> (<i>kami_1</i>)= <i>wo</i> hair=ACC	曾利天> <i>so_2r-ite</i> shave-SEQ	仏<乃> (<i>poto_2ke_2</i>)= <i>no_2</i> Buddha=GEN	御袈裟<乎> (<i>mi-ke_1sa</i>)= <i>wo</i> RSP-kasaya=ACC
	服<天> (<i>ki_1</i>)- <i>te</i> wear-SEQ	在<止毛> (<i>ar-e</i>) <i>do_2mo_2</i> exist-XCC	國家<乃> (<i>ame_2no_2sita</i>)= <i>no_2</i> nation=GEN	政<乎> (<i>maturigo_2to_2</i>)= <i>wo</i> government=ACC	不行 (<i>oko_2nap-azu</i>) perform-NEG.SER	
	<阿流 <i>ar-u</i> exist-ADN	已止> <i>ko_2to_2</i> thing	不得 (<i>e-zu</i>) attain-NEG.CCL			

“따라서 내가 머리를 깎고 부처의 가사(袈裟)를 입었을지라도, 여전히 국가를 통치하는 정무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

— 『続日本紀』, 센묘 28 (764.09.20), 金沢文庫本

예시 (9)의 구조는 (8)에서 인용한 ‘不得不+동사’의 혼독 렌더링과 놀라운 정도로 유사하며, 부정어 사이에 $ar-i$ 를 배치한 점까지 일치한다. 이러한 센묘의 언어가 혼독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는 사실(Motoori 1803, Kasuga 1956, Tsukishima 1963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구조가 『続日本紀』 센묘에서 발견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표현은 중고 및 중세 일본어 고유 문학에서는 눈에 띄게 사라졌다가, 근세 일본어에서 $-(a)zar-u=wo\ ye-zu$ 의 형태로 다시 나타나 현대 일본어의 $-(a)zar-u=o\ e-na-i$ 로 이어지게 되었다.

3.4. 저술의 표현: 의미 차용

마지막 사례 연구는 의미 차용 과정을 살펴본다. 그 예시로 동사 $arapas-u$ (→ 현대 일본어 $arawas-u$)를 다룰 것인데, 이 단어는 혼독을 통해 ‘저술’을 나타내는 새로운 용법을 획득했다(본 사례 연구의 심화 버전은 Zisk 2010 참조). 현대 일본어에서 $arawas-u$ 는 크게 네 가지 의미를 지니며, 각 의미는 서로 다른 한자 표기로 구별된다. 이러한 관습을 Irwin & Zisk(2019: 154)는 “강제된 다의성(forced polysemy)”, 즉 형태소표기적 표기에서만 겹으로 드러나는 다의성이라 칭한 바 있다. 현대 일본어 $arawas-u$ 의 정의와 각 의미에 따른 표준 한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 (10) $arawas-u$ (← 중고 일본어 $arapas-u$)
- 드러내다, 보이다: 現 (MC $henH \rightarrow EMJ\ gen \rightarrow PdJ\ gen$)으로 표기
 - (감정, 생각 등을) 표현하다: 表 (MC $pjewX \rightarrow EMJ\ peu \rightarrow PdJ\ hyoo$)로 표기
 - (책을) 저술하다: 著 (MC $trjoH \rightarrow EMJ\ tyo \rightarrow PdJ\ čo$)로 표기
 - 널리 알리다, 선포하다: 顯 (번체자: 顯) (MC $xenX \rightarrow EMJ\ ken \rightarrow PdJ\ ken$)로 표기
- * (10)c는 주로 문어체에 국한되며, (10)d는 현대어에서 드물게 쓰인다.

$arapas-u$ 의 역사를 상대 및 중고 일본어로 거슬러 올라가면, 혼독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와카(和歌)나 궁중 산문(이른바 와분(和文)) 등의 고유 문학 장르 (Tsukishima 1963: 23-29)에서는 이 단어가 ‘쓰는 행위’를 나타내는 예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예시 (11)은 당시 고유 문학에서 나타나는 arapas-u의 전형적인 용법을 보여준다.

(11)	いぬ(る) <i>inu-ru</i> go.away-ADN	としの <i>tosi=no</i> year=GEN	あき <i>aki</i> autumn	な(か)よりが <i>nakayori=ga</i> Nakayori=GEN	(はべ)る <i>paber-u</i> exist.HUM-ADN	所にて <i>tokoro=nite</i> place=LOC	この <i>ko=no</i> this=GEN
	ぞう <i>zou</i> group	まかりて <i>makar-ite</i> come.HUM-SEQ	人も <i>pito=mo</i> people=IFO	きかぬ <i>kik-an-u</i> hear-NEG-ADN	ところにて <i>tokoro=nite</i> place=CSL	をのがどち <i>wonogadoti</i> each.other	
	かくしたる <i>kakus-itar-u</i> hide-STA-ADN	てども <i>te-domo</i> talent-PLU	あらはして <i>arapas-ite</i> <u>reveal-SEQ</u>	けう <i>keū</i> entertainment	さかし侍りけるこそ <i>sakas-i+paber-iker-u=koso</i> promote-SER+HUM-RET-ADN=FOC		
	いとに <i>ito=ni</i> very=SER	なく <i>nak-u</i> nonexistent-SER	はべりけれ <i>paber-iker-e</i> exist.HUM-RET-INC				

“지난 가을, 이 동행들이 나카요리의 거처를 방문하였고, 다른 이들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재능을 드러내어(arapas-ite)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즐거운 공연을 펼쳤다.”

— 『宇津保物語』, <国譲 下> (986년경), 前田本

반면 한문 훈점 자료로 주의를 돌리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훈독에서 arapas-u는 現, 表, 著, 顯을 포함한 광범위한 한자의 훈으로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著의 훈으로 쓰인 경우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한문에서 著는 주로 ‘드러나다, 드러내다’라는 의미의 동사나 ‘현저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이지만, 글을 쓰는 행위, 특히 책을 저술하는 행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시 (12)와 (13)은 동사로서의 著가 지닌 전형적인 용법을 보여준다.

(12)	樂 <i>music</i>	著 <u>reveal</u>	大始 Great.Beginning	而 and.then	禮 rituals	居 reside	成物 all.things
	著 <u>reveal</u>	不 NEG	息 rest	者 TOP	天 heaven	也 AFF	
	著 <u>reveal</u>	不 NEG	動 move	者 TOP	地 earth	也 AFF	

“음악은 대시(大始)를 드러내고(著), 예(禮)는 만물 속에 거한다. 쉬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하늘이며, 움직임 없이 나타나는 것이 땅이다.”

— 『禮記』, <樂記> (기원전 4~1세기)

- (13) 或 a.certain 曰 say 老萊子 Lǎo.Láizi 亦 also 楚人 Chǔ-person 也 AFF 著 write 書 book 十五 15 篇 part
- 言 say 道家 Daoist 之 ADN 用 application 與 with 孔子 Confucius 同時 same.time 云 say

“누군가 말하기를, 노래자(老萊子, =노자)는 초나라 사람이었다. 그는 도가에 관한 15 편의 책을 저술했으며(著), 공자(孔子)와 동시대 인물이었다고 전해진다.”

－『史記』, <老子韓非列傳> (기원전 91년경)

(12)에서 著는 사물의 본성－이 경우 대시(大始)－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반면, (13)에서는 책을 저술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드러내다’ 혹은 ‘나타내다’라는 의미의 著가 훈독에서 arapas-u로 읽히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쓰다’ 혹은 ‘저술하다’라는 의미의 著 역시 흔히 arapas-u로 훈독되었다는 사실이다. 12세기 초의 훈점 텍스트인 예시 (14)가 이러한 용법을 잘 보여준다. 이 예시는 노자가 함곡관(函谷關)을 지날 때 윤희가 그의 가르침을 글로 남겨달라고 간청하여 『道德經』이 탄생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담고 있다.

원문:

- (14) 喜 Xi 曰 say 子 master 將 CJT 隱 hide 矣 XCL 強 urge 爲(2) sake 我(1) 1SG 著(2) write 書(1) book
- 於是 at.this.time 老子 Laozi 著(2) author 上下 upper.and.lower 二 2 篇 part 八十一 81 章 chapter
- 五千 5,000 餘 over 言(1) word 故 therefore 號 name 曰(2) say 老子經(1) Lǎozijīng

자언어 읽기:

- 喜力 *ki=ga* 曰(く) *ip-aku* 子 *si* 將ニ *masani* 隱レナムト *kakure-n-am-u=to* (す)[矣] *s-u*
Xi=GEN say=NML master certainly hide-MNF-CJT-CCL=CMP do-CCL
- 強(ひて) *sipite* 我(か)(1) *wa=ga* 爲(に)(2) *tame=ni* 書ヲ(1) *syo=wo* 著^{アラハ}セト *arapas-e=to* イフ(2) *ip-u*
forcefully 1SG=GEN sake=DAT book=ACC write-IMP=CMP say-CCL
- 是(に)於(て) *kokonioite* 老子 *rausi* 上下 *zyaūge* 二篇 *ni-pen* 八十一章 *patizipuiti-syaū* 五千餘言(を)(1) *gosen-yo-gen=wo*
at.this.time Laozi upper.and.lower 2-part 81-chapter 5,000-over-word=ACC
- 著(す)(2) *arapas-u* 故(に) *yuweni* 號(けて) *naduke-te* 老子經(と)(1) *rausikyaū=to* 曰(ふ)(2) *ip-u*
author-CCL therefore name-SEQ Lǎozijīng=CMP say-CCL

“윤희(尹喜)가 말하기를, ‘스승님, 이제 은거하시려 하니 부디 저를 위해 책을 한 권 써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노자는 상하 2편, 81장, 5,000여 자로 구성

된 책을 저술하였다(著). 그는 이 책을 『老子經』(즉, 『道德經』)이라 불렀다.”

－ 『三教指歸注集』, 大谷大学本 (1133년 훈점)

초기에 ‘쓰다, 저술하다’라는 의미의 arawas-u는 훈독에 국한되었으나, 15세기경부터 고유 문헌에서도 이 용법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예시 (15)와 같이 훈독의 영향을 받은 중세의 주석서(쇼모노(抄物))인 『燈前夜話』(15세기) 등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시 (16)인 짓펜사 이쿠(十返舎一九)의 『東海道中膝栗毛』(1802~1814)처럼 더 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확산되었다.

(15)	關ノ seki=no border=GEN	史 ² fubito historian	尹喜ト iNki=to Yinxi=CMP	云 i-u say-ADN	者 mono person	老子ノ rããsi=no Laozi=GEN	來ルヘキ kitar-ube-ki come-NEC-ADN
	瑞氣ヲ zuiki=wo omen=ACC	知テ sir-ite know-SEQ	老子ヲ rããsi=wo Laozi=ACC	トメテ tome-te stop-SEQ	道德經ヲ dããtokukyãã=wo Dãodéjīng=ACC	アラハサシメタソ arawas-asime-ta=zo author-CAU-PST=XCL	

“윤희라는 이름의 남자는 국경의 사관(또는 관리²⁾)이었는데, 노자가 올 것을 예견하는 상서로운 기운을 보았다. 그는 여행 중이던 노자를 멈춰 세우고 그로 하여금 『道德經』을 저술하게 하였다.”

－ 『燈前夜話』, <老子> 筑波大学本 (15세기)

(16)	この kono this	ほん hoN book	ふたり futari=ga 2.people=NOM	ゑど edo Edo	かんだ kaNda=no Kanda=GEN	八丁堀に haQtyoobori=ni Hacchōbori=DAT
	店借し tanagari+si rent.a.house+do.SER	居たりし i-tar-isi be-STA-PST.ADN	中の uti=no within=GEN	ことを koto=o thing=ACC	著し arawas-i write-SER	
	ついに tuini ultimately	りょかう ryokoo=no journey=GEN	ほつぎ hoQki=to initiative=CMP	する su-ru do-CCL	ゆえん yuen=no reason=GEN	
	ばか bakarasi-ki ridiculous-ADN	ことを koto=o thing=ACC	さくしや sakusya=ga author=GEN	寐酒の nezake=no nightcap=GEN	のみに nomisiro=ni drink.money=DAT	
	よけい yokei=no extra=GEN	著述を sigoto=o work=ACC	なす nas-u conduct-ADN	ものならし mono=narasi thing=COP.EVD.CCL		

“이 책은 에도(江戸) 간다(神田)의 핫초보리(八丁堀)에서 두 남자가 집을 빌려 머무는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였으며(著), 결과적으로 그들이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

2) 간에이(寛永) 2년(1625) 목판본에는 史(LMJ si / fubito, 사관) 대신 吏(LMJ ri / tukasa, 관리)로 되어 있다.

가 된 우스꽝스러운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밤술값을 벌기 위한 부업으로 이 책을 저술하는 작업을 맡았다.”

－『東海道中膝栗毛』, <類解> (1802~1814)

예시 (15)는 노자와 윤희의 일화를 다시 들려주고 있으며, 예시 (16)은 저자가 『東海道中膝栗毛』를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한다. 이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쓰다, 저술하다’라는 의미의 arawas-u는 먼저 著의 훈독을 통해 일본어에 진입했으며, 쇼모노와 같은 훈독 영향하의 문헌을 거쳐 점차 고유 문학으로 퍼져나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의미는 자생적인 의미 확장의 결과라기보다는, 훈독이라는 매체를 통해 한문과 접촉하면서 발생한 의미 차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4. 훈독에서의 모방적 차용의 동기

훈독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모방적 차용의 사례 연구를 제시하였으므로, 이제 이러한 차용의 배경이 된 동기들을 간략히 다루어 보겠다. 첫 번째 동기는 훈독 과정 자체의 본질적 성격에 있다. 서론에서 필자는 훈독을 전통적 의미의 번역과 구별 짓는 세 가지 핵심 측면을 상정한 바 있다. 여기서는 각 지점을 다시 강조하며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a. **원문과의 공존**: 훈독 텍스트는 한문 원문에 추가된 일련의 훈점으로서 존재한다. 즉, 원문이 일본어 해독문으로 덮어쓰이거나 대체되지 않고 단순히 훈점이 보충될 뿐이며, 이를 통해 독자는 원문을 입력함과 동시에 일본어 해독을 출력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번역이 원문과는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것과 달리(대역판 제외), 훈독 텍스트는 본질적으로 원문의 확장 또는 보완으로 간주될 수 있다.³⁾
- b. **결과의 예측 가능성**: 훈독은 고도로 체계적이다. 세속적 전통과 불교적 전통 사이, 혹은 다양한 불교 종파 사이에 독법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각 체계는 텍스트를 일본어로 렌더링하는 고정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순을 변경해야 할 위치, 보충해야 할 일본어 조사 및 동사 어미, 그리고 특정 글자를 ‘건너뛰어야’ 하는 시점 등이 포함된다. 규칙만 안다면 훈점이 없어도 훈독 방식으로 한문을 읽을 수 있다.
- c. **원문에 대한 충실성**: 훈독은 한문 원문에 대해 직접적인 축자적(글자 대 글자) 번역을 제공하며, 번역상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초기 훈점 관행에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허용되었으나(예: 9세기 초 불교 설화 훈독에서의 시제·상·양태 어미 보충에 관한 Bundschuh 2021의 연구), 9세기 후반에 독서 전통이 형식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맥 기반 보충은 점차 드물어졌다. 이 초기 시기를 제외하면 보충은 주로 문법성을 위해 요구되는 조사나 동사 어미와 같은 기능 형태소에 국한된다.

이러한 특성들이 훈독의 언어, 즉 훈점어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으나, 모방적 차용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지점이다. 즉, 자연스러움이나 문맥 기반 번역보다 예측 가능성과 충실성이 우선시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모방 사례는 이미 존재하는 단어나 형태소로도 충분히 표현

3) 이것이 훈점을 통해 렌더링된 훈독 텍스트가 원문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妙法蓮華經』의 가나 판본은 12세기까지, 『論語』는 15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물이 남아 있다.

할 수 있었던 개념이나 문법적 구문들이다. ‘죄수’를 번역할 때 고유어인 ikedori(생포한 것(사람이나 동물))나 toriko(포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접속 조사 =to는 한문의 접속사를 번역하는 데 가장 논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며, 당위는 필요, 의무, 확률, 가능성 등 넓은 양태적 의미를 지니는 동사 어미 -(r)ube-si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었다.

상대 및 중고 일본어에 책을 저술하는 것과 같은 ‘쓰기’ 행위의 하위 범주를 표현하는 전문 어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일본어에 쓰기에 관한 표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쓰기 행위를 나타내는 두 동사 kak-u(쓰다, 그리다)와 sirus-u(기록하다, 적다)는 상대 일본어부터 확인되며 중고 일본어 문학에서도 흔히 쓰인다. kak-u의 원래 의미는 ‘긋다, 새기다’이며, sirus-u는 ‘표식을 남기다’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은유적으로 쓰기 표현으로 발달했다. 비록 著보다 범위는 넓지만, 중고 일본어에서 책이나 경전을 저술하거나 필사하는 전문적인 의미로 kak-u가 사용된 사례는 비교적 흔하다(Zisk 2017b: 44-46). 따라서 著에 arapas-u라는 독법을 부여한 것은 기저에 깔린 한문을 충실하게 렌더링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첫 번째 동기와 밀접하게 연결된 두 번째 동기는 한자에 자연어 독법, 즉 훈(訓読み(訓読み), 화훈(和訓), 자훈(字訓)도)이 할당되는 방식에 있다. 문맥 기반 번역은 단어의 각 의미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대상 언어에서 상당한 정도의 변이를 요구한다. 한문을 번역할 때 문맥뿐만 아니라 문체나 전반적인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독법이 선택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훈독은 그렇지 않다. 개별 글자에 할당되는 독법을 포함하여 훈독 렌더링의 결과는 고도로 예측 가능하다. 일본의 대부분 한자는 한문에서 지니는 넓은 의미 범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연어 독법만을 지닌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한자-특히 고빈도 글자-에는 종종 정훈(定訓)이라 불리는 것이 할당되었다. 이는 일본어학에서 문식층 사이에서 기본 렌더링으로 널리 수용된 한자의 고유어 독법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러한 정훈은 이르면 8세기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믿어지며, 초기 일본어 표기의 핵심 요소였다. 상대 일본어는 표음적으로 또 형태소표기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만으로 기록되었는데, 시가(詩歌)를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형태소표기적으로 기록되었다. Minegishi(1986)는 다음과 같이 관찰한다.

『古事記』를 비롯하여 한자만으로 기록된 상대 일본어 문헌의 작성이 가능했던 것은, 그 배경에 한문을 자연어로 읽는 확립된 체계와 각 글자에 대한 정훈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Minegishi 1986: 125-26; 필자 번역)

어떠한 표음적 보조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한자만으로 일본어를 전사하는 것은 매우 벅찬 작업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유어 독법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한자의 형태소표기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글자와 형태소 사이의 연결이 흐려져, 일본어를 전사하기 위한 문자로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다루기 힘들어졌을 것이다.

정훈이 상대 일본어에 이미 잘 확립되어 있었다는 두 번째 증거는 일본어를 표음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한자인 만요가나(萬葉假名)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만요가나는 한자의 음을 빌린 표음적 가차(phonographic rebus, 예: ka를 위한 加 [MC kae]나 ku를 위한 久 [MC kjuwX])로 분류되지만, 한자의 고유어 독법을 사용하여 일본어의 동음이의어를 표현하는 의미적 가차, 즉 차훈(借訓)이라는 하위 범주도 존재했다. 예로는 ‘여름’(natu) + ‘떡갈

나무'(kasi)를 뜻하는 夏櫟을 써서 natukasi(그립다)를 표기하거나, '오리'(kamo₂)를 뜻하는 鴨을 써서 영탄의 조사 kamo₂를 전사한 것 등이 있다. Kamei(1957)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유어 독법의 정착을 확인해 주는 또 다른 단서는 흔히 의미적 가차(차훈)로 분류되는 만요가나의 유형이다. 이러한 의미적 가차의 출현은 정훈(正訓)이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는 선행적 가정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Kamei 1957: 127; 필자 번역)

요컨대, 의미적 가차의 존재 가능성 자체가 정훈 체계의 확립—즉, 문식층이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독법—을 전제로 한다.

9세기에 시작된 고도로 체계적인 훈독법의 발달은 정훈의 유행을 더욱 심화시켰다. 11세기에 이르면 이러한 독법들을 수집하기 위한 사전들이 편찬되기에 이른다. 예를 들어 『類聚名義抄』(11세기 후반~12세기 초)나 『色葉字類抄』(12세기 중반)와 같은 사전들은 수천 개의 고유어 독법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록된 많은 독법 중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립된 독법들을 강조하고 있다(Minegishi 1986: 219-220, 287). 이러한 사전들은 헤이안 시대에 한자 독법에 대한 포괄적인 체계가 존재했음을, 그리고 한문의 자연어 읽기가 유기적이라기보다는 대체로 규범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훈점 작성자들이 자연스러운 소리나 문맥 중심의 번역보다 글자의 정훈을 선호함에 따라, 정훈은 훈점어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단 한자에 정훈이 할당되면, 그 독법은 원래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문맥으로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의미 차용과 번역 차용의 경우, 이러한 의미 확장 과정은 비교적 단순했다. 전자는 단어를 새로운 문맥에서 사용하는 것을 수반하고, 후자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표현을 형성하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생 차용과 구문 차용의 상황은 약간 더 복잡했다.

전형적인 고립어인 한문은 고도의 어휘적 유연성을 보여준다. 즉, 문맥과 문장 내 위치에 따라 동일한 단어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심지어 조사로도 기능할 수 있다(Kennedy 1964, Bisang 2008a, 2008b, Zádrapa 2011, Sun 2020). 반면 일본어는 형태론적으로 구별되는 품사를 가진 교착어이며, 일반적으로 파생(또는 일부 경우 굴절) 접미사와 조사를 통해 수식된다(Kiyose 1995, Rickmeyer 1995, Irwin and Zisk 2019: 33-98). 예를 들어, 접속 조사로 쓰인 及을 번역할 때, 훈점 작성자는 단순히 그 정훈인 oyob-u를 가져와 접속사로 사용할 수 없었다. 문장이 문법적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형태론적 수정이 요구되었다. 이 경우, oyob-u를 형태론적으로 부사 기능을 하는 연용형인 oyob-i로 전성시킴으로써 유형론적 장벽을 극복했다. 이중 부정 당위 표현의 형성에서도 유사한 과정이 관찰된다. 일본어는 동사 어간 뒤에 두 개의 부정 접미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한문의 이중 부정 구조를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 다시 한번—이번에는 형태론적이 아닌 통사적인—수정이 필요했다.

이러한 동기들을 종합해 볼 때, 훈독에서의 모방적 차용은 일본어의 어휘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원문에 대한 엄격한 고착과 문맥 기반 번역보다 정훈을 선호하는 경향에 의해 촉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훈독법을 통해 발현된 한문에 부여된 고도의 권위가 이토록 많은 차용어를 생성해 낸 토대가 되었다.

5. 결론: 혼독의 유산

본고에서는 네 가지 사례 연구를 요약하며 모방적 차용을 통해 한문 혼독이 일본어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개괄하였다. 처음 세 가지 사례 연구는 혼독에서 새로운 단어와 문법적 구문이 형성된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마지막 사례 연구는 기존의 단어들이 한문의 모델을 따라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는지를 증명하였다.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혼독법과 정훈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차용의 이면에 있는 동기들을 논의하였다.

제시된 예시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어는 어휘 차원뿐만 아니라 형태(번역 차용 및 파생 차용), 통사(구조 차용), 의미(의미 차용) 수준에서도 한문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외국어로부터 이 정도의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중 언어 사용을 동반한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 중국어와의 거의 모든 접촉은 문자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는 ‘혼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어(文語)를 통한 접촉은 결코 한문과 일본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자연어 읽기’ 관습이 접촉의 핵심 매개체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즉, 중심적인 세계 시민적 언어의 문어체와 주변적인 자연어가 혼점 그리고, 또는 자연어 읽기를 통해 접촉하는 유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차용 패턴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한반도를 주목하면 된다.

서론에서 논의했듯이, 한국어는 자연어 읽기 전통이 기록된 여러 한자 문화권 언어 중 하나이다. ‘읽기 위한 표식’이라는 뜻의 구결(口訣)로 알려진 한국의 자연어 읽기 관습은 이르면 7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존하는 구결 문헌의 대부분은 10세기 혹은 그 이후의 것이다(Nam 2012: 46-47; Chung 2022). 혼독과 구결 사이의 유사성은 놀라울 정도다. 양자 모두 한자에 기반한 표음자 주석(일본 전통의 가나점, 한국 전통의 자토(字吐)), 점 주석(일본의 오코토점, 한국의 점토(點吐)), 그리고 어순 도치 주석(일본의 가에리텐, 한국의 역독점(逆讀點))을 사용하여 한문을 구어로 렌더링한다. 이때 한자음과 고유어 독법을 혼용하며, 문법성을 위해 동사 어미나 조사와 같은 기능 형태소를 보충한다. 이러한 놀라운 유사성을 고려할 때, 혼독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한 모방적 차용이 구결에서도 보고되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구결의 일부 사례는 혼독의 파생 차용과 거울상을 이룬다. Yáng(2016)은 중세 한국어의 복합 격조사인 ‘=(으)로 써’(도구격, → 현대 한국어 ‘=(으)로 써’)를 예로 드는데, 이는 도구격 조사 ‘=(으)로’와 동사 ‘·쓰·다’(→ 현대 한국어 ‘쓰다’)의 부사형이 결합된 것이다. 또한 접속 부사 ‘및’ 동사 ‘및다’(→ 현대 한국어 ‘미치다’)의 어간에서 파생되었다. 전자는 以의 직역에서, 후자는 及의 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두 사례 모두 본질적으로 중고 일본어의 =wo mot-ite ~ =wo moq-te 및 oyobi와 동일한 단어 형성 패턴을 따른다.

다른 사례들은 한국어에만 고유한 것으로 보인다. 자주 인용되는 두 가지 예는 중세 한국어의 복합 격조사 ‘=과 다·못 ~ =(으)로 다·못’(공동격)과 접속 부사 ‘다·못’(및, 더하여)인데, 두 가지 모두 與(MC yjoX, 함께하다, 함께, ~와 함께)를 모델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Yi 1947: 192-193, Lee, K. & Ramsey 2011: 234-235, Joho 2014: 57-59, Yáng 2016: 52-53 등). 여기서 ‘=과’는 중세 한국어의 공동격/접속 격조사(→ 현대 한국어 ‘=(ㄱ)와’)이며, ‘=(으)로’는 앞서 언급한 도구격 조사이다. ‘다·못’의 어원은 불분명하지만, Yáng은 이것이 ‘및’과 유사하게 동사 어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상정한다. 이러한 한국의 사례들은 혼독에서 관찰되는 모방적 차용이 일본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연어 읽기에 의해 유발된 언어 접촉 및 변

화의 공통된 패턴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자연어 읽기를 통한 유사한 모방적 차용 사례를 찾기 위해 한자 문화권 밖을 간략히 살펴보자.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자연어 읽기와 완전히 대등한 관습은 보이지 않으나(비록 고대 중동에서의 잠재적 유사성에 관한 King 2021의 논의가 있긴 하지만), 세계 시민적 언어의 텍스트에 지역 자연어로 주석을 다는 관습은 서유럽에서 중동,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다양한 문화권에서 관찰되어 왔다(Whitman 2011, Blom 2017, Moran & Whitman 2022, Cinato et al. 2023). 20세기 후반 이후 언어 접촉 연구의 대다수가 구어(口語)를 통한 접촉에 집중해 온 반면, 20세기 중반에는 주석을 통한 언어 접촉 연구가 활발했으며 특히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중세 유럽 구어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대 고지 독일어(Old High German) 어휘집인 『아브로간스(Abrogans)』에 나타난 라틴어 차용어에 관한 기념비적인 학위 논문에서, Betz(1936)는 고대 고지 독일어 내의 라틴어 차용을 단순히 차용어뿐만 아니라 의미 차용과 번역 차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Betz에 따르면, 라틴어 conventus(집회, 모임, 직역하면 ‘함께 옴’)의 주석으로 쓰인 고대 고지 독일어 samanchumi(직역하면 ‘함께 옴’)는 정확한 번역 차용이며(Betz 1936: 33), 라틴어 bona adnuntiatio(복음, 직역하면 ‘좋은 알림’)이 자체도 그리스어 εὐαγγέλιον의 번역 차용임)의 주석으로 쓰인 고대 고지 독일어 koat poto(직역하면 ‘좋은 전령’)는 근사 번역 차용이다(Betz 1936: 36). Betz는 이후 『베네딕토 규칙서(Regula Sancti Benedicti)』의 고대 고지 독일어 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이 분류를 확장하여 발표하였다(Betz 1949). Betz의 연구는 다음 세대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이들은 유럽 자연어들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 주석을 통한 수백 개의 모방적 차용 사례를 제시하였다(고대 영어: Gneuss 1955; 고대 고지 독일어: Höpfel 1970, Lauffer 1976, Bean 1974; 갈로-로망스어: Schütz 1958 등).

일본이나 한국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 자연어 읽기 관습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라틴어 주석에서 비롯된 모방적 차용과 혼독 및 구결에서의 차용 사이에 어떤 평행선이 그려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지켜보아야 할 과제이다. 이는 향후 연구될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이다. 특히 일본 사례의 강점은 동일한 시기의 혼독 텍스트와 고유 문학 작품이라는 거대한 코퍼스가 우리에게 전승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혼독의 언어와 고유 문학의 언어를 비교하고, 무엇이 차용어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효과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 혼점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비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고유 문학 체계가 없다면, 접속사 oyobi가 정말로 及을 모델로 한 것인지, 혹은 arawas-u가 정말로 箸로부터 저술의 의미를 차용했는지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10세기 이전의 자료(고유 문학이든 한문 주석이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이나, 주석이 실질적인 고유 문학의 출현보다 앞서는 경향이 있는 유럽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 혼독 텍스트는 언어학자들이 좀처럼 누리기 힘든, 문자와 혼점을 통한 언어 접촉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 아마도 언어 접촉의 역사에 대한 이처럼 새롭고 직접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가져다준다는 점에 일본어 혼점 자료의 진정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사사(謝辭)

본 연구는 JSPS KAKENHI 보조금(과제 번호 19H01265 및 24K03860)의 지원을 받았다. 본 논문의 초기 초안에 대해 통찰력 있는 논평을 해준 Mark Irwin에게 감사를 표한다.

언어 시기 목록

OJ	상대 일본어(7~8세기)
EMJ	중고 일본어(9~11세기)
LMJ	중세 일본어(12~16세기)
ENJ	근세 일본어(17세기~19세기 중반)
LNJ	근대 일본어(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PdJ	현대 일본어(20세기 후반~현재)
MC	중고 중국어(4~12세기)
MK	중세 한국어(10~16세기)
NK	근대 한국어(17세기~현재)

문법 범주 약어 목록

ABL	탈격	LOC	처격
ACC	대격	MNF	확정/발현
ADN	연체형	NEC	당위
AFF	평서형	NEG	부정
CAU	사동	NML	명사화소
CCL	종지형	NOM	주격
CJT	추측	PAS	피동
CMP	보문자	PLU	복수
CNF	확인	PRH	금지
COM	공동격	PST	과거
COP	계사	RET	회상
CSL	원인	RSP	존경
DAT	여격	SEQ	계기
EMP	강조	SER	연용형
EVD	증거	STA	상태
FCD	강조 조건	TOP	주제
FOC	초점	TTL	경칭
GEN	속격	VBL	동사화소
HPF	존경 접두사	XCC	확정 양보
HUM	겸양	XCD	확정 조건
IFO	포함 초점	XCL	감탄
IMP	명령		
INC	미정형		
ISO	분리		

(참고문헌은 영어 원문을 참조)

Part II

The linear and composite adaptation methods of Chinese script in Asia

Zev HANDEL (University of Washington)

Logographic script adaptation, for example the adaptation of the Chinese-character script to the writing of non-Chinese languages, depends on the two basic mechanisms of semantic adaptation and phonetic adaptation. These mechanisms correspond to the Korean/Japanese traditional terms hundok 훈독 /kundoku 訓讀 and ūmdok 음독/ondoku 音讀, respectively. These two mechanisms of adaptation, alongside the borrowing of Sinoxenic vocabulary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e.g. Korean hancha'ŏ 한자어), result in the potential for a high degree of ambiguity in the adapted script. Users of borrowed scripts therefore make use of a number of disambiguating mechanisms that reduce ambiguity to tolerable levels for effective written communication.

In this talk I will present the “logographic script contact matrix” as a model for the knowledge base that underlies script adaptation, and then elaborate on two distinct methods of adaptation: “linear adaptation” and “composite adaptation”. Linear adaptation involves sequencing of borrowed graphs, while composite adaptation involves constructing new graphs from borrowed components. Both methods afford opportunities for disambiguation.

I argue that the contact matrix model applies to all occurrences of logographic script adaptation, but the choice of linear or composite adaptation is determined by the typologies of the spoken languages involved. In the case of Chinese as the donor script, agglutinating languages like Korean and Japanese will tend toward linear adaptation, while analytic languages like Vietnamese and Zhuang will tend toward composite adaptation.

Keywords: script adaptation, semantic adaptation, phonetic adaptation, disambiguation, contact matrix, linear adaptation, composite adaptation, Chinese characters

아시아 내 중국 문자의 선형 및 복합 변용 방식

제브 핸델 (워싱턴 대학교)

표어문자(logographic script)의 변용, 예를 들어 중국 문자(한자)를 비(非)중국어 표기에 변용시키는 과정은 의미적 변용과 음성적 변용이라는 두 가지 기본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각각 한국/일본의 전통적 용어인 훈독/군도쿠(訓讀)와 음독/온도쿠(音讀)에 대응한다. 한자로 표기된 한자 어휘(예: 한국어의 한자어)의 차용과 더불어 이 두 가지 변용

메커니즘은 변용된 문자 체계 내에서 높은 수준의 모호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차용 문자의 사용자들은 효과적인 서면 의사소통을 위해 중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여러 중의성 해소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본 강연에서는 문자 변용의 기초가 되는 지식 기반 모델로서 ‘표어문자 접촉 매트릭스(logographic script contact matrix)’를 제시하고, ‘선형 변용(linear adaptation)’과 ‘복합 변용(composite adaptation)’이라는 두 가지 구별되는 변용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선형 변용은 차용된 글자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반면, 복합 변용은 차용된 구성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두 방식 모두 중의성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한다.

필자는 접촉 매트릭스 모델이 모든 표어문자 변용 사례에 적용되지만, 선형 변용과 복합 변용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관련된 구어(口語)의 유형론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중국 문자가 기여 문자인 경우,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교착어는 선형 변용 경향을 보이는 반면, 베트남어나 좡어와 같은 고립어는 복합 변용 경향을 보인다.

주제어: 문자 변용, 의미적 변용, 음성적 변용, 중의성 해소, 접촉 매트릭스, 선형 변용, 복합 변용, 한자

アジアにおける中国文字の線形および複合変容方式

ゼヴ・ハンデル (ワシントン大学)

表語文字(logographic script)の変容、例えば漢字を非中国語の表記に変容させるプロセスは、意味的変容と音声的変容という二つの基本メカニズムに依存している。これらのメカニズムは、それぞれ韓国・日本の伝統的用語である「フンドク・クンドク(訓読)」と「ウムドク・オンドク(音読)」に対応する。これら二つの変容メカニズムは、漢字で表記された漢語(例: 韓国語の漢語)の借用とともに、変容された文字体系において高度な曖昧さを生じさせる可能性がある。そのため、借用文字の利用者は、効果的な書き言葉に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実現するために、曖昧さを許容可能なレベルまで低減させるいくつかの判別メカニズムを利用する。

本講演では、文字変容の基礎となる知識ベースのモデルとして「表語文字接触マトリックス(logographic script contact matrix)」を提示し、さらに「線形変容(linear adaptation)」と「複合変容(composite adaptation)」という二つの異なる変容方式について詳述する。線形変容は借用された字を順に配列することに関わり、複合変容は借用された構成要素から新しい字を作ることに関わる。どちらの方式も曖昧さを解消する機会を提供する。

筆者は、接触マトリックスモデルがあらゆる表語文字変容の事例に適用されるが、線形変容と複合変容のどちらを選択するかは、関与する言語の類型論的特徴によって決定されると主張する。中国語を供与文字とする場合、韓国語や日本語のような膠着語は線形変容の傾向を示し、ベトナム語やチワン語のような孤立語は複合変容の傾向を示す。

キーワード：文字変容、意味の変容、音声の変容、曖昧さ回避、接触マトリックス、線形変容、複合変容、漢字

亞洲漢字的線性與復合適配模式

韓哲夫 (華盛頓大學)

語素文字 (logographic script) 的適配，例如將漢字系統用於書寫非漢語語言，主要依賴於語義適配和語音適配這兩個基本機制。這些機制分別對應於韓日傳統的術語「訓讀 (hundok/kundoku)」和「音讀 (ūmdok/ondoku)」。這兩個適配機制，連同漢字詞 (如韓語中的 hancha'ŏ) 的借用，導致適配後的文字系統具有高度歧義的潛能。因此，借用文字的使用者會利用多種消歧機制，將歧義降低到有效書面交流的可容忍水平。

在本講座中，我將提出「語素文字接觸矩陣 (logographic script contact matrix)」作為文字適配基礎知識庫的模型，並詳述兩種不同的適配方法：「線性適配 (linear adaptation)」和「復合適配 (composite adaptation)」。線性適配涉及借用字符的序列化，而復合適配涉及利用借用的部件構造新字符。這兩種方法都提供了消歧的機會。

我認為接觸矩陣模型適用於所有語素文字適配的情況，但線性或復合適配的選擇取決於所涉及口語的語言類型學特徵。在以漢字為源文字的情況下，像韓語和日語這樣的黏著語傾向於線性適配，而像越南語和壯語這樣的孤立語則傾向於復合適配。

關鍵詞：文字適配、語義適配、語音適配、消歧、接觸矩陣、線性適配、復合適配、漢字

The linear and composite adaptation methods of Chinese script in Asia

Zev HANDEL (University of Washington)

1. Preamble

There is a great deal of published scholarship on the history of writing in Korea, most of it produced by Korean scholars writing in Korean. Korean scholars have carried out extensive research on the history of Chinese-character pronunciations (*hancha'um* 한자음 漢字音) and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to represent Old Korean (*hyangch'al* 향찰 鄉札, as seen in the corpus of Silla poems known as *hyangga* 향가 鄉歌). There remain many unknowns, but the basic outlines of how Chinese characters were adapted to represent Korean words is clear. In recent decades there has been tremendous progress uncovering the history of *kugyŏl* 구결 口訣, thanks to the discovery of early manuscripts that have transformed our understanding of how Chinese-language texts were read in ancient Korea and the relationship of those reading practices to *kanbun kundoku* 漢文訓讀 practices in Japan.¹

I am not an expert in Korean language, Korean language history, or Korean writing. Most of you attending this conference know considerably more about these topics than I do. What I intend to do in this talk is to provide a comparative perspective and a theoretical framework within which the Korean borrowing of Chinese script can be analyzed. I hope that this perspective will be a valuable addition to the expert scholarship that has been done, and continues to be done, on the history of Korean writing. A comparative approach can help illuminate which aspects of that history are unique to Korea, and which result from universal principles and tendencies. I have already presented some of the ideas in this talk in my 2019 book *Sinography*. But I will present two new ideas here, the **contact matrix** and the **linear and composite adaptation** methods, and reframe other ideas in a way that I hope will be useful.²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the scholars who have engaged in the translation of *Sinography* into Korean, which must have been a very difficult and time-consuming effort. I am grateful that my ideas have been made more accessible to Korean scholars and look forward to receiving thoughtful feedback and engagement from the Korean scholarly community.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my knowledge, I would also appreciate any feedback on this paper and presentation, especially corrections of errors and misunderstandings.

2. Introduction

In the history of human writing, script adaptation has been the most common way of creating a new writing system. The invention of writing, which implies the invention of a script, has only happened a handful of times as far as we can tell from the archeological record.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writing has been invented as few as four times by our species.³ Aside from those **primordial** (or *ex nihilo*) inventions, the invention of entirely new scripts is a rarity. Han'gŭl 한글 is probably the most famous example, and others can be cited (such as Adlam, now used by millions of people in north Africa to write Fulani). But of the hundreds of writing systems now

¹ In this preliminary version of the paper, I am not supplying citations or bibliographic references for general statements like these.

² In my 2025 book *Chinese Characters across Asia*, intended for a general rather than scholarly readership, I discuss the concepts linear adaptation and composite adaptation.

³ Namely: Sumerian cuneiform, Egyptian hieroglyphs, Chinese characters, and Mesoamerican hieroglyphs.

in use, and the many writing systems used historically that are extinct today, the overwhelming majority made use of adapted scripts. The Latin alphabet (adapted from the Etruscan alphabet, in turn adapted from the Greek alphabet) and Japanese *hiragana* 平仮名 (adapted from Chinese characters) are just two well-known examples of the many that could be raised.

In the pre-modern era, script adaptation usually happened through an organic process of trial and error within a speech community, rather than through a deliberate process of analysis and design. Regularization and standardization are usually later developments, after the usage patterns of the adapted script have stabilized. In the modern era, this regularization typically involves lexicographic codification, often overseen by official organizations or governments.

The techniques employed in script adaptation tend toward bifurcation based on whether the source script is primarily phonographic or logographic. The adaptation of phonographic scripts is almost always sound based.⁴ The adaptation of logographic scripts is usually based on both sound and meaning, with individual graphs adapted one way or the other in a particular context.⁵ This is true not just of Chinese characters when they were adapted in Asia, but also (for example) of Sumerian cuneiform when it was adapted to write Akkadian.

In this paper I will describe the **logographic script contact matrix**, which represents the communal knowledge that underlies phonetic and semantic script adaptation, and I will show how linguistic typology pushes logographic script adaptation in the direction of either **linear adaptation** or **composite adaptation**. I contend that these concepts can help to explain some of the patterns seen in the Korean use of Chinese script to represent Old Korean language in writing, and also to explain some of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script mechanics of early Korean writing and early Japanese writing. At the same time, I do not mean to imply that these concepts explain the full history or all the details of script adaptation or writing-systems development, which are affected by many factors.

3. The contact matrix

The role of Classical Chinese aka Literary Sinitic (Chinese *Wényán* 文言 or *Wényánwén* 文言文; Korean *Hanmun* 韓文; Japanese *Kanbun* 漢文; Vietnamese *Hán văn*) in pre-20th century East Asia has been long recognized and widely discussed. It is treated comprehensively in studies of each country's linguistic, textual, and writing history. Recent decades have seen the rise of a scholarly enterprise to place the regional role of Classical Chinese in a comparative theoretical framework, inspired by Sheldon Pollock's concept of the "Sanskrit Cosmopolis".⁶ We need not go into depth here beyond pointing out that for many centuries all highly educated people in Korea, Japan, and Vietnam learned to read Classical Chinese and used it for formal, prestige writing.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highly skilled readers who could read Classical Chinese unaided, or they made use of assisted/translated reading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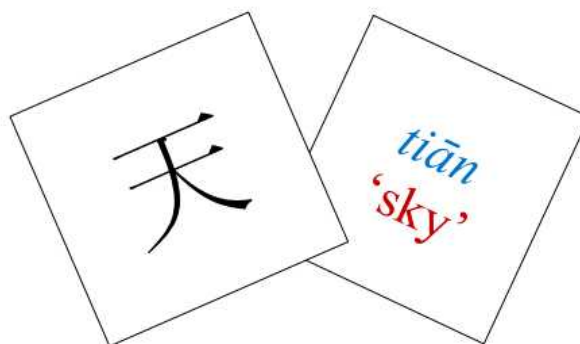
⁴ There are notable exceptions, and they are quite interesting. Sometimes, words written in a phonographic script like an alphabet are treated as logographic wholes, ignoring the function of the individual graphs within them, which permits **semantic adaptation** of the whole word. An example is the Aramaic **heterograms** found in Middle Iranian scripts.

⁵ Here I use "logographic" as a cover term for both **logographic** (word-based) and **morphographic** (morpheme-based) scripts. In the case of Chinese writing over the past 2,000 years, morphographic is a more precise description.

⁶ By analogy, a Latin Cosmopolis and a Sinographic Cosmopolis have been proposed. The "cosmopolis" is a large regional area occupied by peoples of distinct cultures and languages who share a certain set of cultural beliefs and practices that are expressed, disseminated, and discussed through a common, high-prestige written language. For more on this see Kornicki 2019, the Brill series *Language, Writing and Literary Culture in the Sinographic Cosmopolis* (edited by Ross King, David Lurie, and Marion Eggert and now comprising eight volumes), and recent scholarship on "brush talk" (筆談).

kugyŏl 구결; Japanese *kanbun kundoku* 漢文訓読), reading ability required the memorization of large numbers of Chinese characters together with their sound and meaning values.

How was this memorization accomplished? Because Chinese characters as employed to write Classical Chinese are logograms, in the learning context each was understood to have a sound and meaning. To read or write in Classical Chinese, these values had to be learned and associated with each character with the aid of a teacher. The way this was done was by memorizing a pronunciation (derived from Chinese) and a meaning (by means of a vernacular translation) for each character. These are reflected in the *ŭm* 음 and *hun* 훈 values associated with Chinese characters in Korea today and the *onyomi* 音読み and *kunyomi* 訓読み values associated with Chinese characters in Japan today. This was, in practice, no different from the way a modern student of Mandarin as a second language memorizes characters. For example, I made flashcards when I was studying Chinese in college. On one side I put the Chinese character, and on the other I put its sound and meaning values, expressed with Pinyin and a brief English translation. In this way, I associated each character with a pronunciation and a meaning. (Of course, in ancient Korea this was done entirely orally, not with written notes.)



The result of acquiring literacy through a regularized education system is that you become part of a community that can not only read and write Classical Chinese, but has a shared knowledge of a set of sound and meaning attributes associated with each of thousands of Chinese characters. I refer to this conventionalized shared data set as a “contact matrix.” It is the structured knowledge base that makes borrowing and adaptation of the sinographic script possible.⁷

The **logographic script contact matrix** is defined as a set of graphs associated with sound and meaning pairs. It is initially formed when a **borrowing filter** is applied by speakers of Language B to a **base matrix** inherited from Language A. The matrix is large, consisting of thousands of entries.

a *logographic base matrix* inherited from written Language A
 <graph> : {pronunciation, meaning}_A
 a *borrowing filter* applied by speakers of Language B
 → <graph> : {accommodated pronunciation, translated meaning}_B

We can illustrate this with four real examples. The first is the entry for 吃 in the contact matrix formed by English-speaking students in America who are learning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today. Language A is Modern Standard Mandarin.

⁷ I first described the contact matrix in a presentation at Columbia on April 9, 2021 titled “Chinese writing *is* logographic: evidence from East Asian script borrowing”. I have refined the concept in a series of talks since then but have not yet published on it.

Language B is Modern American English. The data for one graph in this contact matrix is shown below. The base matrix is on the left. The arrow represents application of the borrowing filter, yielding the contact matrix on the right.

吃 : $\{ch\bar{i} [t\check{s}^{h_1}], 'eat'\}_A \rightarrow \{chirr [t^{h_1}], "eat"\}_B$

Please note the careful use of quotation marks in the example above. The single quotation marks in 'eat' indicate that this is the meaning of the Mandarin word. The double quotation marks in "eat" indicate that this is a spoken English word that translates the meaning of the Mandarin word.

The second is the entry for 吃 in the contact matrix formed by Korean-speaking students in South Korea who are learning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today. Language A is Modern Standard Mandarin. Language B is Modern Korean.⁸

吃 : $\{ch\bar{i} [t\check{s}^{h_1}], 'eat'\}_A \rightarrow \{/t^{h_1}/ \text{즈}, mekta \text{ 먹다 } 'eat'\}_B$

The third is the entry for 食 in the contact matrix formed by speakers of Old Korean based on Middle Chinese. For example:

食 : $\{/zik/, 'eat'\}_A \rightarrow \{/sik/ \text{식}, mek- \text{먹- } 'eat'\}_B$ (cf. “먹을 식”)

The fourth is the entry for 多 in the contact matrix formed by speakers of Old Japanese based on Middle Chinese. For example:

多 : $\{/ta/, 'many'\}_A \rightarrow \{/ta/, ofo- 'many'\}_B$

Bilingualism is crucial to the creation of the contact matrix. Two languages are always involved. A speaker of spoken language B learns to be literate in written language A. When acquiring literacy, the speaker not only memoriz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written graphs and the linguistic units of language A. Through the process of learning how to use Chinese characters, the speaker makes connections between those same graphs and the phonology and lexicon of language B. Those connections are specific, they become codified, and they are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within the community. It is this bilingual underpinning of the contact matrix that sets the stage for script adaptation to represent spoken language B in writing using the script of written language A.

4. Semantic and phonetic adaptation

Script adaptation for vernacular writing stems from the realization that the meaning and sound attributes in the contact matrix can be representational values. Old Japanese speakers have this conventional association to sounds and meanings in Old Japanese:

多 : $\{/ta/, ofo- 'many'\}.$

This conventional association enables them to adapt the Chinese character either semantically (to write the stem *of*o- > *ō*- 'many') or phonetically (to write the syllable /ta/ or the near-homophonous syllable /da/).

In other words, each graph's entry in the contact matrix yields two ways of employing that graph to represent units of language B. This is done by ignoring one attribute and focusing on the other.

⁸ In this paper, Korean terminology and names are given in McCune-Reischauer. Korean language data, like the verb stem *mek*-, is given in Yale romanization.

多 : {/ta/, *ofo*- ‘many’} enables 多 to write *ofo*- > *ō*- ‘many’ (as in modern Japanese *ōi* 多い ‘many’)

多 : {/ta/, *ofo*- ‘many’} enables 多 to write /ta/ (as in modern Japanese *ta* 夕)

Because a reader of the newly invented vernacular writing shares knowledge of the contact matrix with the writer, the possible uses of 多 can be evaluated in context to figure out which one the writer intended.

Another important point is that grammatical components of language B, such as case-marking particles and inflectional suffixes on verbs, will not occur as meaning attributes in the contact matrix because they are not equivalent in meaning to any Chinese characters. This is because Chinese is not agglutinating and has invariant word forms. As a result, grammatical components of language B will almost always be represented by phonetically adapted characters that indicate syllabic or phonemic pronunciations. Logographic characters adapted semantically will typically be restricted to the representation of noun, verb, and adjective stems, and some adverbs. There is a rough correlation between adaptation type of individual characters (semantic or phonetic) and morpheme type (lexical or functional). A further implication is that when language B has an agglutinating typology like Korean or Japanese, there will be a strong tendency for alternation of semantically adapted characters and phonetically adapted characters in written sentences, matching the alternation of lexical stems with grammatical clitics and affixes.⁹

5. Disambiguation

Even with native speaker knowledge, conventionalization of usage, linguistic context, and real-world context, ambiguous uses of adapted characters will occur in a newly developed vernacular writing system. Ambiguity arises from many sources. One is, as we have just seen, the possibility that a character is being adapted in one of two ways: semantically or phonetically. Another is related to Sinoxenic vocabulary. The community of speakers that can read Chinese will begin borrowing Chinese vocabulary into the vernacular. They will use Chinese words in vernacular writing and in vernacular speech. In this way Sino-Korean vocabulary gradually spread into written and spoken Korean, becoming lexical items even in the speech of people who were illiterate and had no knowledge of Chinese language.

The Sinoxenic morpheme is simply a borrowing; it has a sound and meaning closely related to the sound and meaning of the source word in Chinese. In writing, Sinoxenic morphemes are represented by the same character that writes the source word in Chinese. In other words, a morpheme and the character that writes it are borrowed together.

For example, the Chinese morpheme ‘many’ written with the character 多 was borrowed into Japanese as *ta* ‘many’ (as seen in the modern Sino-Japanese word *tabun* 多分). The Chinese morpheme ‘eat, food’ written with the character 食 was borrowed into Korean as *sik* ‘eat, food’ (as seen in the modern Sino-Korean word *ŭmsik* 음식).

This phenomenon meant that each Chinese character could in principle represent three different things in vernacular writing: (1) a vernacular word with the same meaning as the word originally written by the Chinese character; (2) a vernacular sound with a similar pronunciation to the word originally written by the Chinese character; (3) the borrowed Sinoxenic morpheme originally written by the Chinese character.

⁹ This alternation is visible in modern Japanese writing, in which *kanji* logograms represent lexical stems, and *kana* phonograms represent grammatical particles and suffixes.

This ambiguity was further increased on the phonetic-adaptation side by **layering**: multiple sound values for one graph can occur in the contact matrix arising from contact at different time periods or with different dialects. And it was increased on the semantic-adaptation side by **synonymity**: multiple vernacular words for one graph can occur in the contact matrix because more than one word in the native language is seen as a valid translation of the Chinese character's meaning. The former kind of ambiguity is especially prominent in Japanese, where we find large distinct borrowing layers like *go'on* 語音 and *kan'on* 漢音. The latter kind of ambiguity is reflected in the multiple Korean *hun* 훈 readings found in any modern *okp'yŏn* 옥편.

Thus the very processes that make logographic script borrowing possible also lead to a level of ambiguity that makes reading in the borrowed script burdensome. Methods of disambiguation are therefore seen in all historical examples of logographic script borrowing. One such method is abbreviation. In both Japan and Korea, Chinese characters that were phonetically adapted to write syllables or single consonant sounds were abbreviated in form (like the example of 多 > 夕 for Japanese *ta* seen earlier). This creates a set of new graphs that are visually distinct from those that are adapted semantically. This is the origin of the *kana* scripts in Japanese, and of the graphs for grammatical elements seen in Korean *kugyŏl* 구결 and *idu* 이두.¹⁰ But while this method specifies when a graph is being used phonetically, it does not help to distinguish all the different logographic functions that a graph might have that result from Sinoxenic vocabulary, layering, and synonymity. For example, in Japanese writing 食 could be used for

Sino-Japanese *jiki* 'eat, food' (*go'on*)
 Sino-Japanese *shoku* 'eat, food' (*kan'on*)
 Vernacular Japanese *taberu* 'eat'
 Vernacular Japanese *kuu* 'eat'
 Vernacular Japanese *kurau* 'eat'

among other possibilities.

The disambiguation method I want to focus on here is not related to abbreviation or other changes in character form. Rather, it is the use of the sound value of one character to disambiguate the representational value of an ambiguous logogram through the process of **phonetic complementation**. This method is well understood by scholars of the history of Korean writing. It is seen for example in the written form 夜音 for Korean *pam* 밤 'night'. 夜 is ambiguous, as it could write the Sino-Korean morpheme *ya* 야 'night' or the vernacular Korean word *pam* 밤 'night'. Linguistic context and real-world context will not necessarily distinguish these two possibilities. The function of 音, phonetically adapted to represent the sound *m* ㅁ, is to reiterate the final consonant sound of the word represented by 夜, forcing it to be read *pam* and not *ya*.

What I want to focus on here is the physical arrangement of the two characters involved: the potentially ambiguous logographic character (e.g. 夜) and the disambiguating phonetic complement character (e.g. 音). In early Korean writing, these are arranged sequentially: 夜音.¹¹

We see the same sequential arrangement in Japanese writing, where the phonetic complement is sometimes represented by a syllabic phonogram that also represents the first sound of a following suffix. For example, consider the two modern Japanese verbs *de-* 'to go out' and its causative counterpart *das-* 'to put out'. Their non-past

¹⁰ For example, the use of 古 > 口 for Korean *ko* 고.

¹¹ This method of disambiguation has been called *hunju ūmjong* 訓主音從 in Korean-language scholarship about early Korean writing.

inflected forms are *deru* and *dasu*, respectively. Both verb stems are written with the logogram 出 (a semantic adaptation of the Chinese character that has an equivalent meaning). As can be seen in the table below, the verbal endings *-u*, *-ita*, and *-anai* on the stem *das-* are written with graphs representing the syllables *su* す, *shi* し, and *sa* さ respectively. Because the /s/ of *das-* is redundantly indicated by the following *kana* graph, the two verbs are disambiguated even though the roots are both written with the same logogram.

	<i>de-</i> ‘to go out’	<i>das-</i> ‘to put out’
plain non-past	<i>deru</i> 出る	<i>dasu</i> 出す
plain past	<i>deta</i> 出た	<i>dashita</i> 出した
negative	<i>denai</i> 出ない	<i>dasanai</i> 出さない

This too is a linear arrangement. The phonetic disambiguators す, し, さ follow the logogram 出 representing the verb stem.

I refer to this linear arrangement of adapted Chinese characters in early Korean and Japanese (as well as modern Japanese) writing as **linear adaptation**.

We see a very different method of disambiguation by phonetic complementation in Vietnamese sinographic writing, called **Chữ Nôm**. Rather than arranging the two Chinese characters in linear sequence, a semantically adapted logogram and a phonetically adapted syllabogram are composed into a single new character. For example, the Vietnamese word for ‘grass’ is *cỏ*. The Chinese character 草, which writes the Chinese word ‘grass’, is semantically adapted to write this word. It is disambiguated by the phonetically adapted character 古, which has the Sino-Vietnamese sound value *cổ*. Based on the syllabic similarity of *cổ* and *cỏ*, 古 is employed to indicate that 草 is to be read *cỏ*. But rather than arrange these two characters as a linear sequence 草古 to represent the Vietnamese word *cỏ* ‘grass’, the two components are combined into a single graph, the same size and shape as one Chinese character: 𦵏. Other “composed” Vietnamese Chữ Nôm characters of this type are 𦵑, 𦵒, 𦵓, 𦵔, representing the Vietnamese words *nhieu* ‘many’, *ít* ‘few’, *ba* ‘three’, *bốn* ‘four’, respectively.

It is my contention that language typology is a major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a logographic script will be adapted in a linear fashion or a composite fashion. Languages like Korean and Japanese, in which nouns are followed by case-marking particles and verbs and adjectives have inflectional suffixes on stems, afford opportunities for disambiguation through sequential arrangement of adapted characters. We have already seen a Japanese example of this above. An early Korean example is the use of 期 following 明 in the first line of Song of Ch’öyong 처용가.

東京明期月良

The characters 明期 write the Old Korean word that was the precursor to Middle Korean /pʌlki/ ‘bright’, an adjective with stem /pʌlk-/ and adnominal suffix /-i/. The character 期 is adapted phonetically to represent the syllable /ki/. It is thus simultaneously writing the suffix /-i/ and acting as a phonetic complement, reiterating the stem-final consonant sound /k/ of /pʌlk-/ and thus disambiguating the possible representations of the logogram 明.

Vietnamese is an analytic language like Chinese, lacking inflection. Words are almost entirely invariant in form. This means that grammatical elements like case-marking particles and inflectional affixes do not occur in the language and are not available as carriers for graphs that act as phonetic complements. There is no sequential alternation in the language between stems with relatively concrete meaning (and thus amenable to logographic representation through semantic adaptation) and functional

components like affixes and clitics. Without these signposts to help a reader disambiguate, the sequential adaptation model is inadequate. As Chữ Nôm developed, writers seem to have recognized the value of composite adaptation. Graphs composed of a meaning part (a semantically adapted Chinese character) and a syllabic sound part (a phonetically adapted Chinese character) unambiguously target a vernacular Vietnamese word, and visually distinguish it from characters used to write Sino-Vietnamese borrowed morphemes.

6. Conclusion

The adaptation of the Chinese script to write Old Korean can be profitably analyzed within a comparative theoretical framework that describes mechanisms of logographic script adaptation. This framework applies not just to historical instances of Chinese script borrowing, but also of other logographic scripts just as Sumerian cuneiform.

Semantic and phonetic adaptation are shaped by the contact matrix, a mental database of relationships between script and language that is shared knowledge within a community of script users. The matrix determines what Chinese character(s) can be used to represent a spoken vernacular word (encoding) and guides a reader in determining what words might be represented by those characters (decoding). Linguistic typology, along with a general need for disambiguation of representation, then determines whether the adapted characters are structured linearly or in composite form to unambiguously represent words in linguistic context.

While these factors cannot account for all the details of script adaptation, which are influenced by many other factors as well including cultural diffusion and historical accident, they are an important basis for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writing in East Asia.

아시아에서의 한자의 선형 및 복합 변용 방식

제브 핸델 (워싱턴대학교)

1. 들어가기 전에

한국의 문자 역사에 관한 출판된 연구는 매우 방대하며, 그 대부분은 한국 학자들이 한국어로 작성한 것이다. 한국 학자들은 한자음(漢字音)의 역사와 향찰(鄉札, 신라 시가인 향가에 서 볼 수 있듯이 고대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를 사용한 방식)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나, 한자가 한국어 단어를 표기하기 위해 어떻게 변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은 명확하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구결(口訣)의 역사를 밝히는 데 엄청난 진전이 있었는데, 이는 고대 한국에서 중국어 텍스트가 어떻게 읽혔는지, 그리고 그러한 독법이 일본의 한문 훈독(漢文訓讀) 관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킨 초기 필사본들의 발견 덕분이다.¹⁾

나는 한국어, 한국어사, 또는 한국 문자의 전문가가 아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 주제들에 대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이번 발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한자 차용을 분석할 수 있는 비교 관점과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관점이 한국 문자사에 대해 수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문적인 연구에 가치 있는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비교 접근법은 그 역사의 어떤 측면이 한국에만 고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측면이 보편적인 원리와 경향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는 이미 2019년 저서 『Sinography』(역자 주: 2025년 『동아시아의 한자』라는 제목으로 번역됨)에서 이 발표의 아이디어 중 일부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접촉 매트릭스**와 **선형 및 복합 변용** 방식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다른 아이디어들을 유용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²⁾

이 자리를 빌려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을 『Sinography』의 한국어 번역에 참여해 주신 학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나의 아이디어가 한국 학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 학계로부터 사려 깊은 피드백과 참여를 기대한다. 지식의 한계로 인해, 이 논문과 발표에 대한 모든 피드백, 특히 오류나 오해에 대한 수정을 환영한다.

2. 도입

인류 문자의 역사에서 문자(script) 변용은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고고학적 기록으로 볼 때, 문자(writing)의 발명(이는 곧 문자(script)의 발명을 의미함)은 우리 종의 역사에서 단 몇 차례만 일어났다. 문자가 발명된 횟수는 단 네 차례에 불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³⁾ 이러한 **근원적(또는 무에서 유로의)** 발명을 제외하고, 완전히 새로

1) 이 글은 논문의 예비 버전이므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진술들에 대해 인용이나 참고문헌을 제공하지 않는다.

2) 학술적 독자보다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집필한 나의 2025년 저서 『Chinese Characters across Asia』에서, 나는 선형 변용과 복합 변용의 개념에 대해 논하였다.

운 문자를 발명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한글은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일 것이며, (현재 북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이 풀라니어(Fulani)를 쓰기 위해 사용하는 아들람(Adlam) 문자처럼) 다른 사례들도 인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수백 개의 문자 체계와 오늘날 멸종된 역사적으로 사용된 많은 문자 체계 중 압도적 다수는 변용된 문자를 사용했다. 라틴 알파벳(에트루리아 알파벳에서 변용되었고, 이는 다시 그리스 알파벳에서 변용됨)과 일본의 히라가나(平假名, 한자에서 변용됨)는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사례 중 잘 알려진 두 가지 예에 불과하다.

전근대 시대에 문자 변용은 의도적인 분석과 설계 과정보다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 대개 일어났다. 규칙화와 표준화는 대개 변용된 문자의 사용 패턴이 안정화된 이후의 발전 단계이다. 현대 시대에 이러한 규칙화는 일반적으로 공식 기관이나 정부가 감독하는 사전적 편찬을 수반한다.

문자 변용에 사용된 기법들은 근원 문자가 주로 표음 문자(phonographic)인지 또는 표어 문자(logographic)인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 표음 문자의 변용은 거의 항상 소리에 기반한다.⁴⁾ 표어 문자의 변용은 대개 소리와 의미 모두에 기반하며, 개별 글자들은 특정 문맥에 따라 한 방식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변용된다.⁵⁾ 이는 아시아에서 한자가 변용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수메르 췌기 문자가 아카드어를 쓰기 위해 변용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본 논문에서 나는 음성적 및 의미적 문자 변용의 기초가 되는 공통 지식을 나타내는 **표어 문자 접촉 매트릭스**를 설명하고, 언어 유형론이 표어 문자 변용을 어떻게 **선형 변용** 또는 **복합 변용**의 방향으로 밀어내는지 보여줄 것이다. 나는 이러한 개념들이 한국에서 고대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를 사용한 패턴의 일부를 설명하고, 초기 한국 문자와 초기 일본 문자의 문자 메커니즘 사이의 몇 가지 유사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나는 이러한 개념들이 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 문자 변용이나 문자 체계 발전의 전체 역사나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접촉 매트릭스

20세기 이전 동아시아에서 고전 중국어, 즉 한문(중국어 Wényán 文言; 한국어 Hanmun 한문; 일본어 Kanbun 漢文; 베트남어 Hán văn)의 역할은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널리 논의되어 왔다. 이는 각 국가의 언어, 텍스트 및 문자 역사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진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셸던 폴록(Sheldon Pollock)의 ‘산스크리트 코스모폴리스(Sanskrit Cosmopolis)’ 개념에서 영감을 얻어 고전 중국어의 지역적 역할을 비교 이론적 틀 안에 배치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일어났다.⁶⁾ 우리는 수 세기 동안 한국, 일본, 베트남의 모든 고등 교육

3) 즉, 수메르 췌기 문자, 이집트 상형 문자, 한자, 그리고 메소아메리카 상형 문자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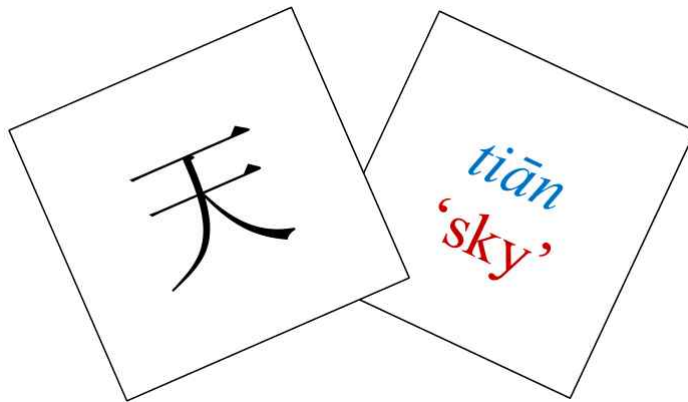
4) 주목할 만한 예외들이 존재하며,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이다. 때로는 알파벳과 같은 표음 문자로 작성된 단어들이 그 내부의 개별 글자가 갖는 기능을 무시한 채 하나의 표어적 전체(logographic wholes)로 취급되기도 하는데, 이는 단어 전체의 **의미적 변용**을 가능하게 한다. 중세이란 문자에서 발견되는 아람 **이질자**(Aramaic heterograms)가 한 가지 예이다.

5) 여기서 나는 ‘표어적(logographic)’이라는 용어를 **logographic**(단어 기반) 문자와 **morphographic**(형태소 기반) 문자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한다. 지난 2,000년간의 중국어 표기 사례를 볼 때, morphographic이 더 정확한 기술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6) 유추를 통해 라틴 코스모폴리스(Latin Cosmopolis)와 한자 코스모폴리스(Sinographic Cosmopolis)가 제안된 바 있다. 여기서 ‘코스모폴리스’란 공통의 고위신(high-prestige) 문어(文語)를 통해 표현, 전파, 논의되는 일련의 문화적 신념과 관습을 공유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민족들

을 받은 사람들이 한문을 읽는 법을 배웠고 이를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글쓰기에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들이 도움 없이 한문을 읽을 수 있는 고도의 숙련된 독자였던, 보조된/번역된 독법(한국의 구결, 일본의 한문 훈독)을 사용했든 상관없이, 읽기 능력은 수많은 한자를 그 소리 및 의미 값과 함께 암기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

이 암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한문을 쓰는 데 사용된 한자는 표어자이기 때문에, 학습 맥락에서 각 글자는 소리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문을 읽거나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값들을 학습하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각 글자와 연관시켜야 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진 방식은 각 글자에 대해 (중국에서 유래한) 발음과 (자연어 번역을 통한) 의미를 암기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오늘날 한국에서 한자와 연관된 음과 훈, 그리고 오늘날 일본에서 한자와 연관된 온요미(音讀)와 군요미(訓讀)에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대의 표준 중국어 학습자가 글자를 암기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나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할 때 플래시카드를 만들었다. 한쪽에는 한자를 적고, 다른 쪽에는 병음과 간단한 영어 번역으로 표현된 소리와 의미 값을 적었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각 글자를 발음 및 의미와 연관시켰다. (물론 고대 한국에서는 이것이 서면 필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구두로 이루어졌다.)



정규화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 문해력을 습득한 결과로, 한문을 읽고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한자와 연관된 일련의 소리 및 의미 속성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나는 이 관례화되고 공유된 데이터 세트를 ‘접촉 매트릭스(contact matrix)’라고 부른다. 이것은 한자의 차용과 변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화된 지식 기반이다.⁷⁾

표어 문자 접촉 매트릭스는 소리와 의미 쌍과 연관된 일련의 글자들로 정의된다. 이는 언어 B의 화자들이 언어 A에서 상속된 **기본 매트릭스(base matrix)**에 **차용 필터(borrowing filter)**를 적용할 때 처음 형성된다. 이 매트릭스는 수천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대규모이다.

언어 A로부터 상속된 로그그래픽 기본 매트릭스

이 점유하고 있는 광대한 지역 범위를 의미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Kornicki 2019, 브릴(Brill) 출판사의 ‘한자 코스모폴리스의 언어, 문자 및 문학 문화’ 시리즈(Language, Writing and Literary Culture in the Sinographic Cosmopolis, Ross King, David Lurie, Marion Eggert 공동 편집, 현재 총 8권으로 구성), 그리고 최근의 ‘필담(筆談)’ 관련 연구를 참조하라.

7) 나는 2021년 4월 9일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발표한 ‘중국어 표기는 표어적(logographic)이다: 동아시아 문자 차용의 증거’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접촉 매트릭스를 처음으로 설명하였다. 그 이후 일련의 강연을 통해 이 개념을 다듬어 왔으나, 아직 관련 내용을 출판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글자> : {발음, 의미}_A

언어 B의 화자들에 의해 적용된 *차용 필터*

→ <글자> : {수용된 발음, 번역된 의미}_B

우리는 이를 네 가지 실제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미국의 영어 사용 학생들에 의해 형성된 접촉 매트릭스 내 ‘吃’ 항목이다. 언어 A는 현대 표준 중국어이다. 언어 B는 현대 미국 영어이다. 이 접촉 매트릭스 내 한 글자에 대한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기본 매트릭스는 왼쪽에 있다. 화살표는 차용 필터의 적용을 나타내며, 오른쪽에 접촉 매트릭스를 생성한다.

吃 : {chī [tʂʰɿ⁵⁵], ‘eat’}_A → {chirr [tʃʰɪ], “eat”}_B

위 예시에서 따옴표의 신중한 사용에 주목하라. ‘eat’의 작은따옴표는 이것이 중국어 단어의 의미임을 나타낸다. “eat”의 큰따옴표는 중국어 단어의 의미를 번역하는 구어 영어 단어임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오늘날 한국에서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어 사용 학생들에 의해 형성된 접촉 매트릭스 내 ‘吃’ 항목이다. 언어 A는 현대 표준 중국어, 언어 B는 현대 한국어이다.⁸⁾

吃 : {chī [tʂʰɿ⁵⁵], ‘eat’}_A → {/tʃʰi/ 츠, mekta 먹다 ‘eat’}_B

세 번째는 중고 중국어를 기반으로 고대 한국어 화자들에 의해 형성된 접촉 매트릭스 내 ‘食’ 항목이다. 예를 들면:

食 : {/ʒik/, ‘eat’}_A → {/sik/ 식, mek- 먹- ‘eat’}_B (cf. “먹을 식”)

네 번째는 중고 중국어를 기반으로 고대 일본어 화자들에 의해 형성된 접촉 매트릭스 내 ‘多’ 항목이다. 예를 들면:

多 : {/ta/, ‘many’}_A → {/ta/, ofo- ‘many’}_B

접촉 매트릭스의 생성에는 이중 언어 사용(Bilingualism)이 필수적이다. 항상 두 개의 언어가 관여한다. 구어 B의 화자는 문어 A로 문해력을 갖추게 된다. 문해력을 습득할 때, 화자는 쓰여진 글자와 언어 A의 언어 단위 사이의 연결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한자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화자는 동일한 글자와 언어 B의 음운 및 어휘 사이에 연결을 만든다. 이러한 연결은 구체적이고, 규칙화되며, 공동체 내에서 세대를 거쳐 전해진다. 접촉 매트릭스의 이러한 이중 언어적 토대는 문어 A의 문자를 사용하여 구어 B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 변용의 무대를 마련한다.

8) 본 논문에서 한국어 용어와 인명은 매쿰-라이샤워(McCune-Reischauer) 표기법을 따른다. 동사 어간 ‘mek-’과 같은 한국어 언어 데이터는 예일(Yale) 로마자 표기법으로 제시한다.

4. 의미적 및 음성적 변용

자연어 표기를 위한 문자 변용은 접촉 매트릭스 내의 의미 및 소리 속성이 표현적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고대 일본어 화자들은 고대 일본어의 소리 및 의미와 다음과 같은 관습적 연결을 지닌다:

多 : {/ta/, ofo- ‘many’}

이 관습적 연결은 그들이 한자를 의미적으로(어간 ofo- > ō- ‘many’를 적기 위해) 또는 음성적으로(/ta/나 거의 동음인 /da/라는 음절을 적기 위해) 변용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접촉 매트릭스 내의 각 글자 항목은 한 속성을 무시하고 다른 속성에 집중함으로써 해당 글자를 언어 B의 단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多 : {/ta/, ofo- ‘many’}는 多로 ofo- > ō- ‘many’를 적는 것을 가능하게 함 (현대 일본어 ōi 多い ‘many’에서처럼)

多 : {/ta/, ofo- ‘many’}는 多로 /ta/를 적는 것을 가능하게 함 (현대 일본어 ta 타에서처럼)

새롭게 발명된 자연어 표기법의 독자는 필자와 접촉 매트릭스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필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문맥 속에서 多의 가능한 용법들을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격조사나 동사의 굴절 접사와 같은 언어 B의 문법적 구성 요소들은 어떤 한자와도 의미적으로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접촉 매트릭스에서 의미 속성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중국어가 교착어가 아니며 불변의 단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언어 B의 문법적 구성 요소들은 거의 항상 음절 또는 음소 발음을 나타내는 음성적으로 변용된 글자들에 의해 표현될 것이다. 의미적으로 변용된 표어자들은 일반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의 어간과 일부 부사의 표현으로 제한될 것이다. 개별 글자의 변용 유형(의미적 또는 음성적)과 형태소 유형(어휘적 또는 기능적) 사이에는 대략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더 나아가, 언어 B가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이 교착어적 유형을 가질 때, 쓰여진 문장에서 의미적으로 변용된 글자와 음성적으로 변용된 글자가 교대로 나타나는 강한 경향이 있을 것이며, 이는 어휘적 어간과 문법적 접어 및 접사가 교대로 나타나는 것과 일치한다.⁹⁾

5. 중의성 해소

모어 화자의 지식, 용법의 관습화, 언어적 문맥 및 실제 상황 맥락이 있더라도, 새롭게 개발된 자연어 표기 시스템에서 변용된 글자의 중의적인 용법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중의성은 여러 근원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방금 보았듯이 글자가 의미적 또는 음성적 중 하나의 방식으로 변용될 가능성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자 어휘와 관련이 있다. 중국어를 읽을 수 있는 공동체는 중국어 어휘를 자연어로 차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자연어 쓰기와 말하기에서

9) 이러한 교체 현상은 현대 일본어 표기에서도 확인되는데, 여기서는 한자 표어자가 어휘적 어간을 나타내고 가나 표음자가 문법적 조사와 접미사를 나타낸다.

중국어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한자 어휘는 점차 문어 및 구어 한국어로 퍼져 나갔고, 문맹이거나 중국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서도 어휘 항목이 되었다.

한자 형태소는 단순히 차용된 것이다. 그것은 중국어 근원 단어의 소리 및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된 소리와 의미를 가진다. 쓰기에서 한자 형태소는 중국어에서 근원 단어를 쓰는 것과 동일한 글자로 표현된다. 즉, 형태소와 그것을 쓰는 글자가 함께 차용된다.

예를 들어, 글자 多로 표기되는 중국어 형태소 ‘many’는 일본어에 ta ‘many’로 차용되었다(현대 한자어인 tabun 多分 ‘아마도’에서 볼 수 있듯이). 글자 食으로 표기되는 중국어 형태소 ‘eat, food’는 한국어에 sik ‘eat, food’로 차용되었다(현대 한자어인 ‘음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현상은 각 한자가 원칙적으로 자연어 표기에서 세 가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했다. (1) 원래 그 한자에 의해 표기된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자연어 단어; (2) 원래 그 한자에 의해 표기된 단어와 유사한 발음을 가진 자연어 소리; (3) 원래 그 한자에 의해 표기된 차용된 한자 형태소.

이러한 중의성은 음성 변용 측면에서 층위(layering)에 의해 더욱 증가했다. 서로 다른 시기나 방언과의 접촉으로 인해 한 글자에 대해 여러 소리 값이 접촉 매트릭스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미 변용 측면에서는 유의성(synonymity)에 의해 증가했다. 자연어의 하나 이상의 단어가 한자의 의미에 대한 유효한 번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 글자에 대해 여러 자연어 단어가 접촉 매트릭스에 나타날 수 있다. 전자의 중의성은 일본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오음(吳音)과 한음(漢音) 같은 크고 뚜렷한 차용 층위를 발견한다. 후자의 중의성은 현대 옥편에서 발견되는 여러 개의 한국어 훈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표어 문자 차용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과정들이, 차용된 문자로 읽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수준의 중의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표어 문자 차용의 모든 역사적 사례에서는 판별 방법들이 관찰된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는 약자화(abbreviation)이다.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음절이나 단일 자음 소리를 쓰기 위해 음성적으로 변용된 한자들은 형태가 축약되었다(앞서 본 일본어 ta를 위한 多 > タ의 예처럼). 이는 의미적으로 변용된 글자들과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글자 세트를 생성한다. 이것이 일본어 가나 문자와 한국어 구결 및 이두에서 보이는 문법 요소용 글자들의 기원이다.¹⁰⁾ 그러나 이 방법은 글자가 언제 음성적으로 사용되는지는 명시해주지만, 한자어, 층위, 유의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글자의 모든 다양한 표어적 기능을 구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어 쓰기에서 食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다.

한자어 jiki ‘eat, food’ (오음)
 한자어 shoku ‘eat, food’ (한음)
 자국어 taberu ‘eat’
 자국어 kuu ‘eat’
 자국어 kurau ‘eat’

내가 여기서 집중하고자 하는 판별 방법은 약자화나 다른 글자 형태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음성 보충(phonetic complementation) 과정을 통해 중의적인 표어자의 표현 가치를 판별하기 위해 다른 글자의 소리 값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한국

10) 예를 들면, 한국어 ‘고’를 위한 ‘古 > 口’의 사용.

문자사 학자들에게 잘 이해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밤’을 위한 표기인 夜音에서 볼 수 있다. 夜는 중의적이다. 그것이 한자 형태소 ‘야’를 적은 것인지, 아니면 자연어 단어 ‘밤’을 적은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언어적 문맥과 실제 상황 맥락이 반드시 이 두 가능성을 구별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소리 ‘ㅁ’을 나타내도록 음성적으로 변용된 ㅁ의 기능은 夜에 의해 표현된 단어의 발음 자음을 반복하여, 그것이 ‘야’가 아닌 ‘밤’으로 읽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련된 두 글자, 즉 잠재적으로 중의적인 표어자(예: 夜)와 중의성을 해소하는 음성 보충자(예: 音)의 물리적 배치이다. 초기 한국어 쓰기에서 이들은 순차적으로 배열된다: 夜音.¹¹⁾

우리는 일본어 쓰기에서도 동일한 순차적 배열을 본다. 여기서 음성 보충은 때때로 뒤따르는 접미사의 첫 소리를 나타내기도 하는 음절 표음 문자에 의해 표현된다. 예를 들어, 현대 일본어의 두 동사 de- ‘나가다’와 그 사동형인 das- ‘내보내다’를 생각해 보자. 이들의 비과거 굴절 형태는 각각 deru와 dasu이다. 두 동사의 어간은 모두 표어자 出(동등한 의미를 가진 한자의 의미적 변용)로 표기된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어간 das-에 붙는 동사 어미 -u, -ita, -anai는 각각 음절 su す, shi し, sa さ를 나타내는 글자들로 표기된다. das-/s/가 뒤따르는 가나자에 의해 중복해서 표시되기 때문에, 어근이 모두 동일한 표어자로 표기됨에도 불구하고 두 동사는 구별된다.

	de- ‘나가다’	das- ‘내보내다’
평칭 비과거	deru 出る	dasu 出す
평칭 과거	deta 出た	dashita 出した
부정	denai 出ない	dasanai 出さない

이 또한 선형적 배열이다. 음성 판별자 す, し, さ는 동사 어간을 나타내는 표어자 出 뒤에 온다.

나는 초기 한국어와 일본어(그리고 현대 일본어) 쓰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용된 한자들의 선형적 배열을 **선형 변용(linear adaptation)**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쯔놈(Chữ Nôm)**이라고 불리는 베트남의 한자 쓰기에서 음성 보충에 의한 아주 다른 중의성 해소 방법을 본다. 두 한자를 선형적으로 배열하는 대신, 의미적으로 변용된 표어자와 음성적으로 변용된 음절 문자가 하나의 새로운 글자로 합성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로 ‘풀’을 뜻하는 단어는 cỏ이다. 중국어 단어 ‘풀’을 나타내는 한자 草가 이 단어를 쓰기 위해 의미적으로 변용되었다. 이것은 한자 음가 cỏ를 가진 음성적 변용자 古에 의해 중의성이 해소된다. cỏ와 cỏ의 음절 유사성에 기반하여, 古는 草가 cỏ로 읽혀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 두 글자를 베트남어 단어 cỏ ‘풀’을 나타내기 위해 草古라는 선형 서열로 배열하는 대신, 두 구성 요소는 하나의 중국어 글자와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진 단일 글자 鞣로 결합된다. 이 유형의 다른 ‘합성된’ 베트남 쯔놈 글자로는 𡗗 nhiều ‘많다’, 𡗗 ít ‘적다’, 𡗗 ba ‘셋’, 𡗗 bốn ‘넷’ 등이 있다.

표어 문자가 선형 방식으로 변용될지 아니면 복합 방식으로 변용될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

11) 이러한 판별 방식은 초기 한국어 표기에 관한 한국 학계의 연구에서 ‘훈주음종(訓主音從)’이라 불려 왔다.

인은 언어 유형론이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명사 뒤에 격조사가 붙고 동사와 형용사가 어간에 굴절 접미사를 가지는 언어는 변용된 글자들의 순차적 배열을 통한 중의성 해소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위에서 일본어의 사례를 보았다. 초기 한국어의 사례는 『처용가』의 첫 줄에서 明 뒤에 期를 사용한 것이다.

東京明期月良

明期라는 글자들은 중세 한국어 /pɒlki/ ‘밝은’의 전신인 고대 한국어 단어를 표기하는 데, 이는 어간 /pɒlk-/와 관형사형 접미사 /-i/를 가진 형용사이다. 글자 期는 음절 /ki/를 나타내기 위해 음성적으로 변용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접미사 /-i/를 적는 동시에 음성 보충으로서 작용하며, /pɒlk-/의 어간 말음 자음 /k/를 반복함으로써 표어자 明의 가능한 표현들을 판별해 준다.

베트남어는 중국어와 같은 고립어로서 굴절이 부족하다. 단어들은 형태상 거의 완전히 불변이다. 이는 격조사나 굴절 접사와 같은 문법적 요소들이 언어에 존재하지 않으며, 음성 보충 역할을 하는 글자들의 매개체로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언어 내에서 (의미적 변용을 통한 표어적 표현에 적합한) 비교적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어간과 접사나 접어 같은 기능적 구성 요소 사이의 순차적 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자가 중의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이러한 이정표가 없다면, 순차적 변용 모델은 부적절하다. 쓰놈이 발전하면서 필자들은 복합 변용의 가치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의미부(의미적으로 변용된 한자)과 음절 음성부(음성적으로 변용된 한자)로 구성된 글자들은 자연어 베트남어 단어를 명확하게 겨냥하며, 이를 한자어 차용 형태소를 쓰는 데 사용되는 글자들과 시각적으로 구별해 준다.

6. 결론

고대 한국어를 적기 위한 한자의 변용은 표어 문자 변용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비교 이론적 틀 내에서 유익하게 분석될 수 있다. 이 틀은 한자 차용의 역사적 사례뿐만 아니라 수메르 썩기 문자와 같은 다른 표어 문자에도 적용된다.

의미적 변용과 음성적 변용은 문자 사용자 공동체 내에서 공유된 지식인 문자와 언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신적 데이터베이스인 접촉 매트릭스에 의해 형성된다. 매트릭스는 구어 자연어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 어떤 한자가 사용될 수 있는지(인코딩)를 결정하고, 독자가 그 글자들에 의해 어떤 단어들이 표현될 수 있는지(디코딩)를 판단하는 데 가이드를 제공한다. 언어 유형론은 표현의 중의성 해소에 대한 일반적인 필요성과 함께, 변용된 글자들이 언어적 문맥 속에서 단어들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선형적으로 구조화될지 아니면 복합적인 형태로 구조화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문화적 확산과 역사적 우연을 포함한 다른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자 변용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동아시아 문자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Part III

Changes in the Meaning and Creation of Character Types of Kanji in Ancient Japan

SASAHARA Hiroyuki (Waseda University)

The Japanization of Kanji began during the ancient period, specifically the Asuka and Nara periods (592-794). Various specific examples of these changes have been discovered, rooted in diverse underlying causes. Multiple policies implemented during the Japanization of the open system of Kanji also played a partial role.

This Japanization progressed from the level of meaning and usage—the generation of so-called *Kokkun* (Japanese-specific meanings)—to the level of character form and type. At the character-type level, *Kokuji* (Japanese-made Kanji) emerged. While the modification of Kanji occurred across various regions of the Sinosphere, these changes often reflect the specific views of characters held by different ethnic group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Japanese-made Kanji and lost characters.

In the Nara period (710-794), the combination of excavated and transmitted documents reveals biases in the character types used across different writing materials and communication media. This was primarily due to the subjects of literacy and the content of the texts. Aristocrats, government officials, and monks formed the primary social strata,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production of Japanese-specific meanings and characters.

These ancient Japanese-made characters were linked to native Japanese words (*Wago*), possessed *Kun* (Japanese) readings, were almost exclusively nouns, and were heavily concentrated in specific semantic fields. Additionally, talismans lacking specific readings, while lacking linguistic character, began to be integrated into character strings.

The Middle Antiquity (Heian period, c. 794-1185), beginning with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from Nara, spanned approximately four centuries. Major changes occurred not only in pronunciation, vocabulary, and grammar but also in characters and orthography. Although extant textual materials are scarce for the early period, they increased rapidly during the *Sekkan* and *Insei* periods, surpassing the ancient period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As a case study, this paper provides a lexicographical description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character "匂" (*nioi*) and points out differences in character usage between Buddhist and aristocratic societies. In Heian aristocratic society, beyond the emergence of *Kokkun*, new characters were created by adding radicals, using ideographic composition, and even phono-semantic methods. In

female-authored Kana literature, an emotional orientation toward ideographic Kanji can be observed within the context of gender-based norms and social constraints regarding character types. *Warigaki*, similar to ligatures, became a formal style and etiquette unique to aristocratic society. Among the court nobility, *Nanori* (name) readings for Kanji increased, and traditional *Yūsoku/Kōjitsu* readings became established. These were eventually recorded in dictionaries via books and diaries.

The seeds of character creation also appeared in Shintō and Onmyōdō societies. In particular, Buddhist society served as a major source of Japanese-made Kanji and variant characters, influencing other sectors. The emergence of idiomatic readings and Japanese-made Kanji in Eastern Japan and samurai society may be seen as the prelude to the rapid expansion of Kanji Japanization under subsequent warrior governments. Amidst these diverse conditions, some Japanese-made characters of obscure origin remain.

These Japanized Kanji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ras and regions (administrative divisions) in which they appeared, as well as emotional orientations and secondary processing. Discontinuities in character types can be found between characters used in the Nara period and those not passed down to the Heian period. With the ongoing digitalization of abundant literature, further empirical research using specific examples from texts is required to enrich historical descriptions of user consciousness regarding the Japanization of Kanji.

고대 일본에서의 한자 자의(字義) 변화와 자종(字種)의 창조

사사하라 히로유키 (와세다대학)

상대(上代) 즉, 아스카 시대·나라 시대(592-794년)에 한자의 일본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한자의 변화로서 다양한 구체적 사례가 발견되며, 그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개방계를 이루는 한자를 일본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복수의 정책도 여기에 부분적으로 관여하였다.

이러한 일본화는 자의·용법 차원인 이른바 국훈(國訓)의 생성이라는 단계를 거쳐, 자체(字體)·자종(字種) 차원에 이른다. 자종 차원에서는 국자(國字), 즉 일본제 한자가 출현한다. 한자를 개량하는 일은 한자권 각지에서 행해졌으나, 그 과정에서 민족 등에 따른 문자관이 읽히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도 일본제 한자와 일존문자(倭存文字) 등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나라 시대(710-794년)에는 출토 문헌에 전세(傳世) 문헌이 더해져, 서기(書記) 소재와 전달 매체별로 사용되는 자종에 편중이 보인다. 이는 주로 문자 생활의 주체와 문장 내용에 기인한다. 귀족, 관인, 승려가 주요 계층을 이루었으며, 일본제 자의 및 한자의 생산이 증가했다.

상대의 일본제 자의·한자는 고유어[和語]와 결합하여 혼독을 가졌으며, 그 품사는 거의 명사에 한정되었으며 아직 의미 분야의 편중이 심했다. 한편, 특정한 읽기 방법이 없는 부적[呪符]은 문자성은 결여되어 있으나 점차 문자열에 참여하게 된다.

남도(나라)에서 천도하며 시작된 중고(中古) 즉, 헤이안 시대(794-1185년경)는 약 4세기에 걸친다. 발음, 어휘, 문법뿐만 아니라 문자 및 표기에도 큰 변화가 발생한다. 연구 대상인 현존 문자 자료는 초기에는 부족하지만, 섭관기(攝関期)와 원정기(院政期)를 거치며 급증하여 양과 질 모두 상대(上代)를 능가한다.

사례 연구로서 ‘匂(니오이)’라는 글자의 사적 전개에 대해 자지(字誌)적으로 기술하고, 불교 사회와 귀족 사회에서의 문자 차이를 지적한다. 헤이안 조의 귀족 사회에서는 국훈의 발생 외에도 변(偏) 등 부수의 부가나 회의(會意)에 의한 조자, 나아가 형성(形聲) 식의 조자까지 생겨난다. 여류 가나 문학에서는 문자종에 대한 젠더 면에서의 규범 의식과 사회적 제약 속에서, 회의적인 한자를 갈구하는 정의(情意)적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합자(合字)와 유사한 와리가키(割書)는 귀족 사회 특유의 형식에 즉하여 생겨난 쓰기 방식이자 작법이 되었다. 구계(公家)의 이름 짓기에서는 한자의 나노리(名乗り)훈이 증가하고, 한자에 대한 유식(有職) 읽기·고실(故實) 읽기도 정착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적과 일기를 거쳐 사전에 수록되어 간다.

신도(神道) 및 음양도(陰陽道) 사회에서도 조자 등이 싹트었으며, 특히 불교 사회는 일본제 한자와 일본제 이체자의 주요 원천이 되어 타 사회로 파급되었다. 아즈마노쿠니(東國, 간토+도호쿠) 사회와 무가 사회에서도 한자의 관용 읽기나 일본제 한자가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차세대 무가 정권 하에서의 급격한 한자 일본화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일본제 한자류도 남아 있다.

이러한 일본화된 한자에는 출현한 시대나 지역(행정구역) 등에 따른 시대상, 정의 지향 및 이차적 가공이 반영되어 있다. 나라 시대에 사용되었으나 헤이안 시대에 계승되지 않은 한자에서는 자종 등의 면에서 단층이 발견된다. 풍부한 문헌에 대한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현재, 한자의 일본화에 관한 사용자의 의식을 추구하는 사적 기술을 충실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문헌 용례를 다루는 실증 연구를 더욱 추진해야 한다.

古代日本における漢字の字義の変化と字種の創造

笹原宏之(早稲田大学)

上代すなわち飛鳥時代・奈良時代(592-794年)に、漢字の日本化が始まった。その漢字の変化として種々の具体例が見つかり、背景に様々な原因が見出せる。開放系を成す漢字を日本化していく際に発出された複数の政策もそれらに部分的に関与した。

その日本化は字義・用法レベルつまりいわゆる国訓の生成という段階を経て、字体・字種レベルに至る。字種レベルとして国字すなわち日本製漢字が出現する。漢字を改良することは漢字圏各地で行われたが、そこに民族などによる文字観が読み取れることがあり、そのためにも日本製漢字と佚存文字などとは識別が必要となる。

奈良時代(710-794年)においては、出土文献に伝世文献が加わり、書記素材・伝達媒体ごとに使用される字種に偏りが見られる。それは主に文字生活の主体と文章の内容による。それらにおいて貴族、官人、僧侶が主な位相を成し、日本製字義・漢字の産出が増加した。

上代の日本製字義・漢字は、和語と結びついたため訓読みを持ち、その品詞はほぼ名詞のみであり、まだ意味分野に偏りが強かった。なお、特定の読み方を有しない呪符は、文字性を欠くが、文字列に参入するようになっていく。

南都からの遷都に始まる中古すなわち平安時代(794-1185年頃)は約4世紀にわたる。発音、語彙、文法のみならず、文字、表記も大きな変化が生じる。研究対象となる現存する文字資料は初期には乏しいものの摂関期、院政期と急増し、量質ともに上代を凌駕する。

ケーススタディーとして「匂」という字の史的展開について字誌的な記述を行い、仏教社会と貴族社会における文字の差異を指摘する。その平安朝の貴族社会において、国訓の発生を見るほか、偏などの部首の付加や会意による造字のほか、形声(訓)式の造字まで生みだされていく。女流仮名文学において、文字種に対するジェンダー一面での規範意識と社会的制約のなかで、会意的な漢字を求める情意的な指向性が看取される。合字に類する割書は、貴族社会らしい形式に則して生じた書き方の流儀であり作法となった。公家には名付けにおいて漢字に名乗り訓が増し、漢字に対する有職読み・故実読みも定着する。それらが書籍や日記を経て辞書に収められていく。

神道社会や陰陽道社会においても造字などが萌芽し、ことに仏教社会は日本製漢字や日本製異体字の一大源泉となって他の社会へと及ぶ。東国社会・武家社会においても漢字の慣用読みや日本製漢字が出現した可能性があり、次代の武家政権下での漢字の日本化の急激な展開の幕開けとも見られる。こうした多様な状況の中、出自が不明確な日本製漢字の類も残されている。

こうした日本化した漢字には、出現した時代や地域(行政区画)などに時代相、また情意志向や二次的加工がうかがえる。奈良時代に使われていたものの平安時代に受け継がれなかった漢字には、使用字種などの面で断層が見出せる。豊富な文献に対するデジタル化が進む現在、漢字の日本化に関する使用者の意識を追究する史的記述を充実させるため、具体的文献の用例を扱う方法による実証研究を一層推進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

古代日本漢字字義的變化與字種的創造

笹原宏之(早稻田大學)

在古代即飛鳥時代和奈良時代(592-794年),漢字的日本化拉開了序幕。作為漢字的變化,研究發現了多種具體例證,其背後存在著各種原因。在對作為開放體系的漢字進行日本化的過程中,所出台的多項政策也起到了部分作用。

這種日本化經歷了字義、用法層面,即所謂「國訓」生成的階段,進而發展到字體、字種層面。在字種層面,出現了「國字」,即日本產漢字。改良漢字的行為在漢字文化圈各地均有發生,其中往往能體現出不同民族的文字觀,因此有必要將日本產漢字與佚存文字等進行識別與區分。

在奈良時代（710-794年），出土文獻與傳世文獻並存，在不同的書寫材料和傳播媒介中，所使用的字種存在偏差。這主要取決於文字生活的主體和文章的內容。貴族、官人、僧侶構成了主要的階層，日本產字義和漢字的產出隨之增加。

古代的日本產字義與漢字因與和語結合而具有訓讀，其詞性幾乎僅限名詞，且在意義領域的分布上存在強烈偏差。此外，不具有特定讀法的咒符雖然缺乏文字性，但也逐漸進入了文字序列之中。

從遷都平安京開始的中古即平安時代（約794-1185年）跨越了約四個世紀。不僅是發音、詞彙、語法，文字和表記也發生了巨大變化。作為研究對象的現存文字資料在初期雖然匱乏，但在攝關期、院政期急劇增加，無論在量還是質上都超越了古代。

作為個案研究，本文對「匂」字的史實演變進行了字誌學的記述，並指出佛教社會與貴族社會在文字使用上的差異。在平安朝的貴族社會中，除了國訓的產生外，還出現了添加偏旁部首、會意造字，甚至產生了形聲式的造字。在女性假名文學中，在針對文字種類的性別規範意識和社會制約下，可以觀察到一種追求會意性漢字的情意傾向。類似於合字的「割書」，是符合貴族社會形式的特定書寫流派與禮法。公家在取名時，漢字的「名乘」訓讀增多，對漢字的「有職讀」、「故實讀」也固定下來。這些內容經過書籍和日記的記錄，最終被收錄進辭書。

神道社會和陰陽道社會也萌發了造字等現象，特別是佛教社會成為了日本產漢字和日本產異體字的一大源泉，並波及其他社會。東國社會和武家社會也可能出現了漢字的慣用讀法和日本產漢字，這可以看作是下一代武家政權下漢字日本化劇烈演變的序幕。在這些多樣化的情況下，也留下了一些出身不明的日本產漢字。

這些日本化的漢字反映了其出現時代和地域（行政區劃）的時代特徵，以及情意傾向和二次加工。通過對奈良時代使用但未被平安時代繼承的漢字的研究，可以發現字種等方面的斷層。在文獻數位化不斷推進的今天，為了充實探究使用者關於漢字日本化意識的史學記述，需要進一步推進處理具體文獻用例的實證研究。

Changes in the Meaning and Creation of Character Types of Kanji in Ancient Japan

SASAHARA Hiroyuki (Waseda University).

0. Introduc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iest congratulations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your society.

I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 on the Japanization of Chinese characters and have also closely observed the recep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se characters in Korea that preceded it. On February 1, 2017, having been fortunate enough to receive a recommendation from the then president Lee Geonsik (Dankook University), I had the opportunity to give a special presentation at your society's meeting held at the Tongyeong Campus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t that time, I delivered an oral presentation titled *The Production and Use of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in Antiquity*. I felt deep gratitude for the warm guidance I received from everyone at the venue. Subsequently, after revisions, my work was publish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in *Kugyol Studies* Issue 39, pp. 43-86, and in translation on pp. 87-128, under the title *The Production and Use of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in Antiquity: Its Prehistory and Development*. I am profoundly grateful for this academic favor.

Regarding the situation in ancient Japan that I will discuss hereafter, there are, in fact, many phenomena in which the influence of Korea is presumed to have played a role. I would be most grateful for your guidance.

Today, I will proceed with a somewhat broad theme: the discontinuity between the Nara period and the Heian period in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as well as the character types, forms, and meanings that appeared in the Middle Ages.

1. Introduction

As we move from Antiquity (before the Nara period) into the Middle Ages (Heian period), various changes occurred in the language. In addition to the vocabulary used, the so-called *Jodai Tokushu Kanazukai* (special kana orthography of antiquity) moved toward extinction, the pronunciation of the initial p-sound changed to a bilabial fricative, and in grammar, the particle *yu* was absorbed into *yori* while the auxiliary verb *rayu* was absorbed into *raru*. Factors such as geographical, historical, and social-stratification differences have been cited as causes for these changes.

In the fields of letters and orthography, the establishment of Katakana and Hiragana has been deeply discussed within Japanese linguistics, but the fact that fluctuations occurred in the Chinese characters used at each level of character type, form, sound, and meaning has not been mentioned much, except for issues such as Go-on and Kan-on.

Taking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to Heian-kyo as a turning point, the phenomenon where the reading *shiro* (from *Yamashiro*) was added to the reading *ki* (a word of Baekje system) for the character 城 is relatively well-known. The author takes the Japaniza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a broad sense as a personal research theme and will state thoughts while presenting as many actual examples as possible regarding phenomena around the Heian period related to this.

Here, I particularly want to focus on the creation of new meanings and readings (Japanese-made meanings or *kokkun*), the creation of new character forms (Japanese-made variant characters), and the creation of new character types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or *kokujī*), explaining their situations and considering the background.

In the world, there are cases where theories are set from a small number of modern examples and inferences are layered without emphasizing inductive research methods that accumulate individual facts from literature, but I intend to avoid the superficiality that tends to occur as a result. It would be fine to approach linguistic phenomena through different methods and cross-check the results, but in reality, discrepancies easily arise. Regarding the themes of letters and orthography handled in this paper, there have not been many people who discuss them based on a large number of actual examples regardless of the era.

The author aims to pursue rational factual descriptions based on positivism rooted in literature, and to approach the background that generates phenomena, theories such as register theory, scribal theory, and orthography theory are also applied. Also, for the organization and analysis of phenomena, concepts such as assimilation, inversion, and collision have been introduced from different fields for character forms.

Recently, I have also held interest in the operation of modern Chinese characters, the social situation in the background, and human behavior and psychology. However, I believe that for history, literature research is of paramount importance.

Furthermore, regarding literature surveys, hitting upon the original manuscripts is more important than transcriptions, facsimiles, or images for the sake of seeking precision. The author has also confirmed differences that occurred in printed materials or images through various original manuscript surveys, but here, in order to show a large amount of literature, I will dare to cite many types of images published on websites.

2. Antiquity: Asuka and Nara Periods (592-794).

2.1. Author's previous discussions on the Japaniza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Antiquity.

The author has compiled several writings regarding the Japaniza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Antiquity so far, so only the outline will be recorded in this paper. However, regarding the Heian period, although I wrote about general history in my master's thesis, it has been a re-examination since then. In the meantime, I have learned various things, but since this is a good opportunity to examine them together after a long interval, I certainly wish to hear your opinions.

2.2. Cases of Change and Their Factors

First, if viewed macroscopically, while Chinese characters form a system, they generally constitute an open and complex system, making it difficult to grasp the whole. To begin with, one does not know how many elements there are, and it is permissible to increase them at any time. The functions of individual elements are also subject to expansion or contraction, and it is acceptable to change the way they are used or to create new ones. It is even possible to combine various elements at different levels or occasionally to separate them.

Based on these properties, in order to capture Chinese characters broadly at first, I will present a classification framework while considering existing theories and show typical examples.

When Chinese characters spread from one individual or society to another, various types of reception occur. Changes can occur at the moment of contact or over time after reception.

China	Japan	Element of Change	Terminology	Starting Period
輸 <i>shu</i>	<i>yu</i>	Sound	Wa-on "Bakusho-yomi" (popular reading) / Kanyo-on (customary reading)	Antiquity
圓	円	Form	Japanese-made variant character	Middle Ages
餅 (wheat-based)	(glutinous rice-based)	Meaning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 <i>Kokkun</i>	Antiquity
鷗 <i>shigi</i>	鷗	Type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 <i>Kokuji</i>	Antiquity

Chinese characters have a long history of use and are highly ideographic, thus they can form various layers. For example, the character 輸 (transport) should originally have been read as *shu* based on the Chinese character sound, but the reading changed to *yu*, a so-called *Bakusho-yomi* (an informal reading inferred from the radical or phonetic component, a type of Wa-on), and it has come to be positioned as a Kanyo-on.

Furthermore, for characters like 圓 (round) and 傳 (transmit), changes occurred at the level of character form, such as the emergence of Japanese-made variant characters 円 and 伝, which simplified the so-called orthodox forms and were eventually adopted into the Toyo Kanji (daily use characters).

The character 餅 is read as *mochi*, but in China, it is read like *bin* and refers to a food made from wheat, not glutinous rice. Such changes in character meaning can be confirmed from before the Nara period and have been called *kokkun* since the Edo period.

Regarding the bird called *shigi* (snipe), the character 鷗 is used in China, but since the Nara period, Japanese people have created the character 鷗, which is classified as a logical aggregate (會意) character. The elements of Chinese characters are said to be form, sound, and meaning, and the transmission and transformation have been carried out since early times, even reaching the level of character types.

2.3. Improving Chinese Characters: Usage and Character Form Levels

For the character 椿, we can quickly read it as *tsubaki* (camellia), but some may recall the on-reading *chin* as in *Chinzanso* (椿山莊). In China, it appears as a

character representing the name of a tall tree or a sacred tree called *xiangchun* (香椿), but in Japan, it is recorded as 椿 with the reading *tsubaki* (written phonetically as 川(tsu)婆木) underneath on a wooden slip from the *Kannonji* site dating to the 7th century; thus, it is known that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s already existed at that time. The clarification of what these were derived from is awaited.

Among earlier examples, the Inariyama sword inscription contains the character 首 (*obito*), which is a Japanese-style modification of the character's meaning in China and was granted as a title (*kabane*) after the Yamato regime. In texts written in a style called modified Chinese (*hentai kanbun*), the application of Chinese characters to Japanese honorifics such as 賜 (*tamahu*), 坐 (*imasu*), and 奉 (*tatematsuru*) and placing them in the word order of the Japanese language can be seen in the Horyuji Kondo Yakushi Nyorai statue halo inscription (after 623).

As for things more 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it has been clarified through various fields of research that during the Sui and Tang dynasties in China, the character 櫻 (*sakura*) referred to the downy cherry or Chinese bush cherry; this is a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 that came to represent the cherry blossoms indigenous to Japan during the Nara period. It is known from wooden slips used in places like Heijokyo that the characters 鮓 and 鮓 were in use. While these characters referred to pickled foods or salted fish in China, they seem to have represented types of *narezushi* in Japan. Various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s of this kind can be seen in food names, such as 餅. Some of these products were incorporated into the Ritsuryo system and became part of official notation.

2.4. The Appearance of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As this Japanization of Chinese characters gradually progressed, the actual creation of new characters can finally be confirmed around the end of the 7th century.

The character 鶇 (*ikaru/ikaruga*) appears in the Horyuji Kannon Bosatsu Zozo-ki Bronze Plate (694). If one looks at the bird called *ikaruga*, its beak indeed looks like a horn.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is a lost character (a character produced in China but preserved only in Japan), or it is possible that the character 鶇, which corresponds to *ikaruga* in China, had its 且 portion changed to 角. If we assume a phono-semantic character was transformed into a logical aggregate character, it can be inferred that from around this time, people in Japan began to desire certain Chinese characters to represent meaning rather than sound. The pattern of using a Chinese character as a base and replacing the phonetic component with a semantic one will be discussed later regarding the character 櫻.

According to Volume 44 of the *Nihon Shoki*, a policy regarding Chinese characters was implemented in 683, where Emperor *Tenmu* ordered *Sakaibe no Muraji Iwatsumi* to compile a book titled *Niina* (New Characters). Since the *Niina* has been lost, details such as its content are unknown, and there is room for verification regarding whether it actually existed; however, archeologically and bibliographically,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s and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have been appearing since that time.

Regarding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s, in addition to 鮎 (*ayu*) and 孀 (*tsuma*), the character 倭 (*shinofu/shinobu*), as clarified by *Yoshihiko Inui*, appeared as a character to denote a verb—which was still rare at the time—due to a collision of character forms (absorption into a single form) with a Chinese-made character through the addition of a radical. Note that while 若 is used for the name of a deity representing the adjective *wakashi*, it is known to be an lost meaning utilized because it was interchangeable with 弱 in China.

The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 霞 (*kasumi*), said to have been created by *Kakinomoto no Hitomaro*, is also thought to be a diversion of a character that represented meteorological phenomena like sunset clouds or a red evening sky in China to the springtime *kasumi* (mist/haze).

Furthermore,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鰯, *Wamyō Ruijushō* (4-30) describes the character 軀 (*tomo*) by stating that "『蔣鮐切韻』云鮐<音早 和名止毛 『楊氏漢語抄』『日本紀』等用軀字 俗亦用之 本文未詳)." It is pointed out that it appears in the *Yoshi kan-go sho*, a bilingual dictionary compiled in the Nara period, and the *Nihon Shoki*. Also, the character 柰 (*kase*) appears in Norito (Shinto prayers), and the character 厩 (*sarake*) might be a variation of a Chinese character, though it can also be interpreted as a logical aggregate character.

The character 旱 (*kusaka*) is recorded in the preface of the *Kojiki* by Ono no Yasumaro as being read as *kusaka* using the two characters 日下, and it is clear that from the Asuka period, it became a ligature written as a single condensed character. Since *kusaka* is a single word, the desire to write it with a single character likely gave rise to it. Among the surnames (*kabane*) of powerful families, Japanese-made *jukujikun* (special readings for character compounds) appeared early on. The term 海老 (*ebi*) 'shrimp' also appears on wooden slips, proving its existence since before the Nara period.

2.5. Nara Period (710-794)

2.5.1. Character Policies

In the Nara period, several actions that could be termed character policies were already being carried out. To summarize existing knowledge on this matter, first, the practice of conferring surnames and names (賜姓名) took place. For instance, there is a record of Wake no Kiyomaro (和氣清麻呂)'s name being

changed to Wakebe no Kitanamaro (別部磯麻呂) by Empress Shotoku out of hatred. However, this could be seen as a personal judgment by the Emperor as a person in power rather than a formal policy.

Additionally, the *Taiho Code* was completed in 701 by Fujiwara no Fuhito and others, and it was revised as the *Yoro Code* in 757; these were partially adapted into Japanese-style content while following the Chinese system. For example, terms like 大輔, 少輔, 助, 介, and 弼 are all read as *suke* (this has influenced personal names to the present day). Visually, one can understand what kind of occupation or department someone belongs to. Also, while the *jo* in *daijo* (大丞) and *shojo* (少丞) comes from the on-reading, it is made to be read as *jo* even when written as 尉 or 允. This marks the appearance of so-called kanyo-on, where a character is read with the on-reading of a different character. This suggests that Japanese use of Chinese characters had a higher degree of freedom than in China since before the Nara period. This extended not only to kun-readings but also to on-readings.

Furthermore, in 713, Empress Genmei issued the so-called *Order for Two Auspicious Characters* (好字二字令) for province and place names to officials. For the name *Yamato* (大和), originally only the character 和 could be read as *Yamato*, but since a single character was not considered Chinese-style, an unread character 大 was added to decorate the appearance and add meaning. The same applied to *Izumi* (和泉); 和 was added as a decorative, unread character to 泉, which alone could be read as *izumi*. Here, the character 和 functioned as both a central reading and a decoration. The place where I live was Musashi Province, and the name *Musashi* was established and became fixed around this time. Regarding character sounds, the *Order to Encourage Kan-on* (漢音奨励令) was repeatedly issued to monks by Emperor Kanmu starting from 792. In this way, Emperors themselves exercised authority to change the state of Chinese characters.

2.5.2.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I will introduce what kind of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existed in the Nara period.

The aforementioned 鞆 *tomo*, although the *Nihon Shoki* notes it was also read as *homuta*, appears as the name of a piece of military equipment in many written materials such as the *Tax Ledger of Suruga Province* (駿河国正税帳) (part of the *Tenpyo Shokoku Shozeicho* (天平諸国正税帳)) and is among the oldest layer of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along with 虺 *sarake* and 鰐 *ikaruga*. However, because it is so old, the etymology of why the phonetic component is 丙 is unknown. Theories have been proposed that it might be a pictographic representation (character metaphor) of a *tomo* or that it represents the "pin" sound made when shooting an arrow.

The Yako no Fumito Mashimi has already been identified by many researchers as the *Yashi* mentioned in the *Yoshi kan-go sho* (cited in *Wamyō Ruijushō*), which is said to have been established during the Yoro era (717-724). Yako no Fumito Mashimi participated in the compilation of the *Yoro Code*, and in the 2nd year of Tenpyō (730), Emperor Shomu ordered him to teach Chinese to two disciples.

In the Nihon Shoki, fragments of manuscripts from the early Heian period remain. Because paper was precious, these were the backs of sheets used for Kukai (空海)'s *Shōryūshū* (性靈集). When I was organizing the late Mr. Tsutomu Sugimoto's remains, I saw the *Teihon Shōdo Zenshu* Volume 9 and learned that the character *tomo* could be found in such places.

The Shosoin documents are also a miraculous group of historical materials. The character 檜 *kashi*, which we are familiar with, appeared in the Nara period. While collecting various examples, a person named Tanabe no Kashizane (田邊樺實) frequently appears. Arranging these examples chronologically, from 739 to 748, the character used was 樺, which is a Chinese character read as *kyō* in China and *kashi* in Japan. Strictly speaking, the meaning may be a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 From 750 onwards, this name switched to a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 I consider this an expression of the fact that the Japanization of Chinese characters progressed gradually. However, this name was not always written by the person themselves, and since the signature was subject to various conditions, more evidence is needed to say something more certain.

The Shosoin documents are precious because they are handwritten, and thus the character forms of that time are preserved down to the details of the brushstrokes. It is said that the 麻呂 *maro* in names like 人麻呂 *Hitomaro* shares the same origin as 丸 *maru*. Looking at the *Taiho Household Registers* of 702, household registers were clearly written in regular script (楷書) according to regulations. In those, *maro* is clearly written with two man'yōgana characters. By the 740s, these began to fuse and look like 1.5 characters. There are cases where they look close to two characters, making judgment difficult.

Next to it, the characters for *maro* written as 万呂 also began to merge slightly. In this way, we can see the progress of the "writing style" as they began to join. Looking at sutra copies from 748, character forms that appear to be a single character emerge, and the 万呂 next to them has also become a single character. These can be called ligatures. This shows that such things can be captured as chronological transition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人麻呂 *Hitomaro*, who lived in an earlier era, still wrote 麻呂 *maro* with two characters. However, factors such as the purpose of the document, the writer, the calligraphic style, the writing situation, the position, and the string of characters in the name can all cause fluctuations.

Regarding the wooden slips excavated from the sites of Heijō Palace and Heijōkyō, I am currently conducting surveys with members of the Nar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Places like the *Mokkanko* (wooden slip storehouse) show a rich world of characters. Although the word *iwashi* (sardine) does not appear in paper documents of Antiquity like the *Kojiki*, *Nihon Shoki*, *Man'yoshu*, or *Fudoki*, it appears on wooden slips used as luggage tags or in documents as items offered to the capital as tax. It is written as 鰯 (fish radical with "weak"), and it is thought to have been created based on its etymology after passing through man'yogana notation. 鴨 *shigi* and 杣 *soma* are logical aggregate characters. There was a Chinese word 白田 *hakuden* meaning a white field, and by combining white and field, it became 畠 *hatake*. Also, something that looks like the character 匂 *nioi* appeared, which I will handle in detail later.

In Japan, epigraphs (inscriptions cast or engraved in metal) also existed. While objects like manhole covers today could be called epigraphs, their value as characters is being lost amidst the abundance of other vivid character materials.

In the Aburada-dera Roban-mei in Nara (around 715, owned by Yamato Tanzan Jinja), the character 櫛 is seen in the place name 櫛村谷 *Kashimuraya*. This 櫛 appears to be based on the character 櫛, and the lines are certainly not those of a brush.

2.5.3. Scribal Materials, Transmission Media, and Character Types

I will summa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types and scribal materials or transmission media, which can be called media in a broad sense. Antiquity (the ancient period) has constraints on materials in that few objects remain. While most documents are items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wooden slips, conversely, are rarely passed down and mostly consist of excavated items. In both cases, the handwriting of the time can be observed.

Furthermore, books passed down from antiquity are only manuscripts from the Heian period or later:

Kojiki - Manuscripts from the Northern and Southern Courts period or later

Nihon Shoki - Manuscripts from the Heian period or later

Man'yoshu - Same as above

Fudoki - Same as above

While this situation is regrettabl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extract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since the manuscripts still exist. There is a bias in the vocabulary used in each; for example, the aforementioned 櫛 remains in relatively diverse media. On the other hand, 鰯 'sardine' and 鉋 *kasugai* 'clamp' are extremely rare.

Additionally, fragments of the antiquity works *Ben'shiki ritsei* and *Yoshi kan-go sho*, cited in the *Wamyō Ruijushō* (931-938), can also serve as materials.

Characters appearing only on pottery also emerge. These have significance in character history; for instance, pottery from the Middle Ages shows a glimpse of

character learning—such as practicing hiragana—and the character life of the time, possessing irreplaceable value. Modern characters cast in manhole covers mentioned earlier could be called epigraphs in terms of material, but they are often thought to have no value as character materials (though they actually do).

2.5.4. The Kanji Sphere and the Preliminary Stage of *Kokuji*

I will also outline the occurrence of *kokuji* (Japanese-made characters) within the macroscopic Sinosphere. In Japan, *hatake* (field) and *ta(nbo)* (rice paddy) are distinguished as words. In Nara-period Japan, agricultural land for harvesting crops other than rice was called *hatake* (the character 畑 appears after the Heian period, but it was read as *hata*). Even now, distinctions like the 北畠 *Kitabatake* and 田畑 *Tabata* surnames remain. In China, such a distinction was not made, and both were called *den*. However, when distinction was required, they were called 水田 (water field), 白田 (white field), or 火田 (fire field); when this was transmitted to Korea, 水田 was combined vertically to become a single character. Although it is said that 畠 (field) was recently excavated from Baekje wooden slips, the gap between 白 and 田 is wide, so it is safer not to be certain yet. Examination through the arrangement of other characters, the context, and other transmitted or excavated materials is awaited. This type is seen in the Bone Rank (骨品) titles like 奈末 *nama* or in era names, and the interpretation viewing it as a matter of "writing style" by Takashi Inukai is persuasive. For example, in the Xia Jinhui Epitaph of the Jin Dynasty, grid lines create cells, but not only is one character written in a cell, but sometimes two characters (words with relatively few strokes like 夫人 'Lady,' 廿二 '22,' or the era name 太元) are written, or they protrude from the cell. In titles like 少府卿, a writing style of about 1.5 characters per cell is also seen.

Of course, although not adopted in dictionaries, characters used in China, Korea, and Japan such as 𪛗, 𪛘, and 𪛙 糸夾頁 exist.

火田 remained as two characters in Korea but became one character in Japan. Note that "China" in this paper primarily refers to the Central Plains, the political and cultural center of China.

2.5.5.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s

In the Nara period, within a writing environment where Chinese characters were the only materials available for representing the Japanese language,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practice of applying further adaptations to the method of kun-reading, as Man'yōgana notation alone was insufficient. Kun-readings, which arose from the kundoku (reading by gloss) of Literary Sinitic texts, served as the foundation and a major source for the creation of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s. For example, the meaning of the word and character 畳 *tatami* became Japanized, and later, the object itself underwent chang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hinden-zukuri architecture. Similarly, for 袴 *hakama*, usage representing clothing unique to Japan—different from that in China—appeared in the Nara period, and as the actual object transformed, the character's meaning shifted accordingly.

In the field of Japanese linguistics, the "word history" (語誌) style, which describes the history of a single word alongside its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 has been actively developed. The author has proposed the genre of "character history" (字誌), arguing that similar descriptions are necessary for characters. It must still be pointed out that Kanji-Japanese dictionaries currently lack sufficient descriptions reflecting character history, and there remains a discrepancy between the world depicted in "character history" and the entries in these dictionaries. Modern Kanji-Japanese dictionaries are essentially books created by Sinologists after the Meiji era for the purpose of reading Chinese classics.

2.5.6. Lost Characters

While certain books are known as "佚存書 *issonsho* 'lost books preserved in Japan'", such as the *Yusenkutsu*, there also exist many "佚存文字 *isson moji*"—characters that were originally produced in China but have only survived in Japanese usage. For example, the character 霰 *bi*, once thought to be a creation of *Hitomaro*, has recently become known to the academic community as having existed in tomb epitaphs of the Six Dynasties period. The character 鏤 *ei* in the *Nihon Shoki*, 欄 *tana* in the *Harima no Kuni Fudoki*, and 屎 *tsubi/kubo* found in *Shinsen Jikyo* were characters used in a 賦 *fu* 'rhyme prose' by 白行簡 *Bai Xingjian*, the younger brother of the Tang dynasty poet 白居易 *Bai Juyi*.

Furthermore, in the so-called *gisho* 'playful writing' found in poem number 2991 of Volume 12 of the *Man'yoshu*, which reads 馬声蜂音石花蜘蛛荒鹿 *ibuseku mo aru ka*, the character 蜘蛛 is used instead of 蜘蛛. This 蜘蛛 *kumo* is included in some Kanji-Japanese dictionaries, but it is sometimes marked as a *kokuji*. Although it has been claimed elsewhere to be a Japanese-made character, this was a misunderstanding due to insufficient confirmation of examples; in China, it frequently appeared in Chinese classics and Buddhist scriptures. For instance,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was used in the *Liang Zhaoming Taizi Wenji*, and it is established that this was also nothing other than a lost character. Such errors and omissions occur occasionally in Kan-Wa dictionaries.

Additionally, a grass radical was sometimes added to the character 匏 *hisago* 'gourd' or its synonym 瓠.

匏: Heijokyo wooden slips (from 710 onwards):

Shosoin documents (Tenpyo Shokoku Shozeicho, etc.) in 752.

蕪: Shosoin documents in 734;

Heijo Palace wooden slips in 745.

The forms 蕪 and 蕪 are variant characters created through the addition of radicals seen in use during Antiquity, and they are also found in documents in China and on wooden slips in Korea. Although they were not recorded in dictionaries, they are lost characters (forms) used respectively in China, Korea, and Japan.

The *Tenrei Bansho Meigi* is a significant dictionary, but it was impossible to include every character that existed at the time.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ccomplish such a compilation, and even now it remains undone. Chinese characters and Kanji-Japanese dictionaries are simply like that.

An example of a Japanized variant form, where a radical was added and the arrangement of elements changed to become 𠂔 (with 𠂔 written as 𠂔), can be seen in the Shosoin documents of 762.

Regarding terms such as *isson moji* (lost characters),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origin of characters and distinguish between them when researching their history, as this allows for the description of the intent behind their creation and differences in language or consciousness. I previously proposed the term "isson moji" because it is difficult for researchers to share or be conscious of a concept unless a technical term is established.

As for the origin of characters, since there is no academically absolute method for clarification, it is wise to avoid hasty speculation, much like the study of word etymologies.

The issue of character forms and shapes is different from the issue of origins, as they are often discussed based on the premise that distinctions exist within people's consciousness. I continue to consider how to consistently capture situations where distinctions are made in consciousness despite users being largely unaware of them, such as in the case of 令 *rei* 'orders' where a standardized form possesses various character shapes, compelling a change for the sake of healthy consciousness.

2.5.7. Parts of Speech (Nouns) and Semantic Fields of Kun-readings for Japanese-made Characters and Meanings in Antiquity

A key point regarding the grammatical parts of speech (nouns) and semantic fields of the kun-readings for Japanese-made characters and meanings in the Nara period is that they are almost entirely nouns, such as tools and clothing. This shows that Japanese-made characters and meanings of that era were intended for naming objects.

Examples include 裨 *chihaya* and 縹 *kazura*, the latter being a character created from 𦵏, 蔓, or 縵. Others include 椽 *hanzafu*, which became a

kun-reading for the Sino-Japanese word 半挿 *hanshou*, and 鋙 *kasugahi*, which is said to have had different registers among multiple vocational groups. Additionally, 鑑 *fuki* may have arisen in the Heian period during games like 偏継 *hen-tsugi*. The character 坏 *tsuki* is a variant where the radical of 杯 was replaced; this is likely a Chinese-made meaning rather than a Japanese one. Other examples include the following:

樋: hi, tohi

枅: afuko

梶: kadi

樽: kure (with 樽 as its simplified form)

畳: tatami

袴: hakama

Furthermore, the character 畠 *hatake* appears in *Shinsen Jikyo* (898-901) by the monk Shōju under the sections "Miscellaneous Necessary Characters" and "Fields and Crops". Along with 杣 *soma*, which likely originated from the terminology of vocational groups, these represent topography and products, while characters like 妹 *se* for human relationships have been examined in multiple prior studies regarding their usage and background.

Regarding country names, the character 和 for Yamato in Nara (or Japan) was originally represented by the character 倭 by the Chinese. During the Nara period, it was substituted with 和 because they shared the same Japanese kanji sound "wa" but 和 offered a more positive meaning—an instance of phonetic borrowing. In the native Japanese reading (kun-yomi), it is also read as Yamato.

The character 磨 *maro*, used in personal names, appears in manuscripts such as the *Shoku Nihonki*. As mentioned earlier, the Man'yōgana notation 麻呂 *maro* was gradually written more compactly until it eventually became a single-character ligature. Following the reasoning of Yoshio Yamada, this likely arose from the desire to write a single word with a single character.

Regarding the names of deities, the character 蜃 *kisa* in the name 蜃貝比売 *Kisagai-hime* (with variants using 刻 for the upper part) appears to be a Japanese-made character. Additionally, characters such as 霸 *okami* and 靈 *me* were taken from the 玉篇 *Yupian* and applied to Japanese proper nouns by scribes (fuhito) or people of immigrant descent living in Japan during Antiquity. This was likely a pursuit of expressiveness based on the ideographic nature of the characters.

Japanese-made characters and meanings also appear in the names of foods and animals. Note that the usual reading for 餅 in Antiquity was *mochihi*.

For plant names, 茛 *tokoro* means 'a type of yam', and its orthography forms a pair with 海老 *ebi* as a jukujikun compound reading. The character 櫛 *tsuki* is a form based on a cursive simplification of the character 櫛, resulting from an hypercorrection or a shift toward a logical aggregate structure. Depending on

whether one views it as a Japanized character form or a proper-noun-specific character that has lost its on-reading, it can be considered a Japanese-made character. While it was used in Buddhist scriptures as a variant of 罐 *kan*, the Japanese variant is seen as belonging to a different lineage.

The character 俣 *mata* is similarly thought to have originated from the deformation of the character 俟. This specific character form actually exists in China as a different character (俣).

Tools and Clothing	Character	椶 hanzafu · 鍬 kasugahi · 鑷 fuki · 裊 chihaya · 蓐 kazura/katsura
	Meanings	坏 tsuki · 樽 kure · 樋 hi/tohi · 杓 afuko · 梶 kad i · 畳 tatami · 袴 hakama
Topography and Products	Character	畠 hatake · 杣 soma
Human Relationship	Meanings	妹 se 'an intimate male, counterpart to "imo"
Country Name	Meanings	和 wa/yamato
Personal Name	Character	磨 maro
Deity Names	Character	蛭 kisa
	Meanings	龍 okami · 雲 me
Food and Animals	Character	鰯 shigi · 鰻 toki · 鰯 iwashi · 鰯 haraka
	Meanings	餅 mochihi · 鮓 sushi · 鮓 sushi
Plants	Character	榎 kashi · 櫨 tsuki · 苧 tokoro
	Meanings	萩 hagi · 櫻/桜 sakura

Note that the character 鰻 *toki* was occasionally absorbed into the similar-looking Chinese character form 鵠.

As mentioned, the character 鰯 *iwashi* is known to have shifted from Man'yogana notation to this logical aggregate character (which might also function as a phono-semantic character). This was a notation used by officials and may have been the result of being recorded in the Ritsuryo legal codes.

2.5.8. Register of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Regarding these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there may have been a register where their use changed depending on the social group or situation. For example, the character 鍬 *kasugahi* has appeared in documents and wooden slips since the Nara period, but it is known that it was written as 糟鉈 in the Toshodaiji documents. However, whether these represent different objects or differences in

the character types used by the author or user group remains a matter for further consideration.

Minamoto no Shitagō's *Wamyō Ruijushō* (Kozanji edition, Volume 10) cites the term 拳鋌 *agekasugahi* from the 功程式 (early Heian period), showing it was a Japanese-made character adopted into the Ritsuryō codes. The character 鰯 likely followed a similar path.

Furthermore, characters that may have been personal characters in the *Man'yōshū* or regional characters in the *Fudoki* and other documents were used. Although extant materials from Antiquity are few, they show a degree of plurality and locality that suggests great potential in the history of writing systems. In the multilayered Japanese society, various levels of phenomena became factors that promoted various changes. By assuming a consciousness where the scribe or transcriber believes a meta-reader could make analogies within the character system, one can understand the attitude toward notation that uses created characters lacking phonetic glosses.

Regarding the literate class that produced Japanese-made characters and meanings, the role of the writing specialists known as 史 *fuhito* was significant. Even if characters for military equipment like 鞆 *tomo* were created by the *fuhito*, they were likely soon used by the warrior groups, nobles, and monks who actually used such tools. Furthermore, the general use of these as notations for specific words progressed, as seen in their application to phonetic borrowings for particles or their use in proper nouns, such as several place names in the *Wamyō Ruijushō*.

Regarding the character 蜃 *kisa* in the divine name 蜃貝比売 *Kisagai-hime*, there are multiple textual variants, and it may have been created by a *fuhito* or a Shinto priest. However, since only manuscripts remain, the character form used in the society of that time is not entirely clear. The Japanese-made character 葎 *kazura/katsura*, which appears frequently in the *Man'yōshū*, was likely used by the nobility who were poets.

In the case of 袴 *hakama*, the character meaning changed according to qualitative changes in the object, becoming a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 It is conceivable that this was a character or meaning created by craftsmen of certain vocational groups, who may have been low-ranking officials.

2.5.9 Charms: Lack of Connection to Specific Words (Lack of Character Nature)

The character culture of Antiquity was also colored by charms (呪符) inscribed with phrases like "我念君・君念我 'I think of you, you think of me'". In the Edo period, it was a settled theory that these were charms used when one wished to part with someone, but it has since been clarified that they were auspicious talismans introduced by immigrants or envoys to the Tang dynasty. From the Tang

and Nara periods until around the Muromachi period, they were expected to have such effects. In 2009, an ink-inscribed pottery shard featuring a ligature of "我念君" was discovered at the residence of the court noble Fujiwara no Yoshimi (813-867).

While the definition of "character" in Western linguistics arises from phonocentrism, Chinese characters actually exist even when dissociated from spoken language—such as in the reading of Literary Sinitic, the transcription of unreadable characters, or the practice of calligraphy—and are capable of conveying meaning.

Summary of Section 2

It has become clear that the agents behind the Japanization of character types, forms, and meanings were the nobility (including scribes, Shinto priests, scholars, and poets), officials (including craftsmen), and Buddhist monks.

Furthermore, as for the substance of this Japanization, Japanese-made characters were primarily produced to denote nouns (excluding cases of phonetic borrowing), and almost all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s were also produced to denote nouns.

3. The Middle Ages: Heian Period (Approximately 794-1185)

The Nara period ended and the Heian period began with Emperor Kanmu's relocation of the capital to Heian-kyo in 794. The early part of these approximately four centuries was once called the "Dark Age of National Style (国風暗黒時代)" by Kojima Noriyuki, but this was due to a lack of extant materials reflecting the actual situation. The Japanization of various cultures strengthened around 894, when the abolition of envoys to the Tang dynasty was suggested by Sugawara no Michizane,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so-called National Style culture.

Hereafter, the situation in which certain characters appeared and were used, along with their usage, will be described with a focus on social groups such as aristocratic society, Shinto society, Buddhist society, Onmyodo (divination) society, and Eastern Japan society.

3.1 Research Materials

Materials that can be studied for this period include books, dictionaries such as the *Kan-gosho* and *Shogakuhen*, documents, wooden slips (though their quantity decreases), pottery, ceramics, and epigraphs.

3.2. Character History (字誌)

The analysis focuses on specific characters and their usage, categorized by the social groups where their appearance in literature can be confirmed: aristocratic society, Shinto society, Buddhist society, Onmyodo society, and Eastern/warrior society.

During this era, distinctions between the nobility (kugyo) and religious institutions were sometimes unclear. While the syncretism of Shinto and Buddhism began in Antiquity, the position of sorcery within it was not always distinct. Regional societies began to sprout local characters (dialect characters, specific types, and meanings) which, after questionable examples in the Middle Ages, would be mass-produced in the medieval period. Additionally, artisan society was partially subsumed under the nobility, and swordsmiths, who used register-specific characters from the Kamakura period, had deep ties with temples.

3.2.1.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勻"

As a case study,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character 勻 is examined. Furthermore, it is possible that the shift and stabilization of the glyph from 勻 to 勻 did not materialize in hard-point writing.

Although 勻 was added to the Joyo Kanji list 16 years ago and is now a common Japanese character, most Chinese people would not recognize it. However, it actually appears in Chinese Buddhist scriptures like the 法苑珠林 and 一切経音義. In these texts, the inner part of the character (resembling 乚) usually does not hook at the end, and it frequently appeared as a variant of 丐 *kai*. Other characters like 掲 and 葛 also have variants where parts are written with the 勻 component.

In the 10th-century Buddhist dictionary *Shinshu Zokyo On'gi Zuikanroku*, the 勻 form (without the hook) appears as a variant for both 丐 *kai* and 勻 *in*. The variant for 丐 has a bent lower-left portion, while the one for 勻 is curved; this is likely a "collision of identical forms".

The Liao dynasty dictionary *Ryokan Shukyo* (Koryo edition) lists 勻 (without the hook) as 丐, and the *Koryo Daizokyo* also contains the term 勻乞.

Furthermore, research by 何 (2004) points out that in the Dunhuang manuscript 励忠節鈔, the phonetic side of 均 is written like 均 by using 勻. This is also seen in the Nara-period *Shinyaku Kegonkyo On'gi Shiki*.

In Japan, 勻 still appears in characters like 葛 and 掲; for instance, Katsuragi City (葛城市) in Nara Prefecture adopted a simplified character form for its name to match the representative JIS kanji.

In the Excitement-興福寺 manuscript of the *Nihon Ryoiki* (a mid-Heian copy from 904), the character 勻 (without the hook) is seen as a variant of 乞.

It can be considered a further transformation of the character 匂, which itself is a variant of 丐 (meaning to beg or request) written with 亡 inside. Within Buddhist society, 匂 was a character used to mean "to beg".

It is possible that Kukai also recognized it this way. In his *Tenrei Bansho Meigi*, both 匂 *kai* (as 匂) and 匂 *in* are listed. This was not a mistake by the calligrapher, but rather a reflection of the register-specific characters used in Chinese Buddhist scriptures. Similarly, Volume 5 of the Tenji manuscript of the *Shinsen Jikyo* reflects this Buddhist character situation, listing 匂 *kai* (without the hook).

So, when did 匂 begin to be used for *nio(h)i* or *nio(f)u* (to smell/fragrance)?. According to research by 大野 (1977) and 三木 (1982), the *Man'yoshu* used characters like 染, 薰, 丹, 艶, 黄, 丹穂, 丹覆, 尼保波, 丹穂葉 or phonetic man'yogana for *niohi*, as there was no single appropriate character for the word. Although some of these characters reflected etymological awareness or specific meanings, previous research has labeled them "defective characters" (欠陥用字). In short, there was no single appropriate character for the word *niohi*. Over time, the term gradually came to represent the sense of smell, and its meaning continued to expand.

Looking for examples from the Nara period, characters like 芳 *hou* or 艶 *en* appear in the *Kaifuso*, which later generations read as *niou*.

Furthermore, while questionable examples were mentioned in wooden slips, the Shosoin documents contain cases where 匂一匂 was written as 匂 (without a hook and with straight lines), revealing it also existed as a variant form of 匂.

It is said that 匂 was born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haracter 匂 to the word *nihohi* (which changed from meaning "to glow" to a sense of smell in the Heian period) by the court noble and poet Sugawara no Michizane and his circle.

While the famous poem by Michizane, "こちふかは にはひ(nihohi)おこせよ 梅の花 あるしなしとて 春をわするな" is written in hiragana as *nihohi* in the *Shūi Wakashū*, the character 匂 *in* is used in Volume 12 of the *Kanka Bunso* with the gloss *totonofu* 'to be in order.' In the *Shinsen Man'yoshu*, which is attributed to his circle, the character form has completely become 匂 (without the hook) with the gloss *nihohi*. Michizane selected his notation based on genre and style; while he chose hiragana for waka, he used characters in other contexts.

As such, there appears to be a semantic leap in the transition from 花匂 (meaning "flowers in alignment") to the usage favored by Sugawara no Michizane and his circle, where it came to mean "flowers scent". However, previous research (三木 1982) has examined the emergence of such Japanese-specific semantic shifts. This is evidenced by the character's association with the Sugawara family (Kanke), as well as its presence in the *Ruiju Kudai-sho* and Heian-period manuscripts of the *Wakan Roei-shu*.

In 867, the *Sanuki no Kuni no Tsukasa no Ge* (Annen Moushibumi) contains a

character と for 止 *to* that is considered a unique Japanese creation or an unconventional cursive style based on ancient sounds.

In the famous calligraphic work *Byobu Dodai* (928) by Ono no Michifu, which is based on a poem by Oe no Asatsuna (924), a character resembling 勾 is used, likely representing the meaning of 勾.

The *Nihon Meiseki Daijiten* (p. 162) identifies the character 勾 in the *Byobu Dodai* as 勾. It also lists various examples of 勾 appearing in works attributed to Fujiwara no Yukinari, such as the Sekido-bon *Wakan Roeishu*, the Horinji-gire, and the Konoe-bon, suggesting that 勾 appeared frequently in writings attributed to him.

The *Wayo Jiten* (p. 70) also includes instances of 勾 used by calligraphers like Jakuren and Fujiwara no Yuki Yoshi, indicating that the character was nurtured within the community of Wayo (Japanese style) calligraphers.

Furthermore, the *Wayo Jiten* includes cursive forms like writing 均 with 勾 as the right component (p. 107) and writing 鉤 with 勾 as the right component (p. 486).

Looking at specific literature, the Sekido-bon manuscript of the *Kokin Wakashu* (presented in 905)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Heian calligraphy once attributed to Fujiwara no Yukinari, though it is now thought to be an 11th-century transcription. In this manuscript, the character 勾 appears in a poem by Ki no Tsurayuki in Volume 1.

While the composition of this 勾 might look unbalanced, it was likely a form that emerged naturally through the act of writing. Since the Karoku ninen bon (1226) by Teika and the Jo ninen bon (1223) by Tameie use the hiragana *nihohu*, it is assumed that Ki no Tsurayuki himself originally wrote it in hiragana.

The character 勾 is also used in a Chinese poem by Sugawara no Fumitoki (971) found in the Horinji-gire *Wakan Roeishu*, attributed to Fujiwara no Kintane (died 1099). This suggests that by the 11th century, it was becoming common to use Japanese-made characters and meanings.

Such calligraphic materials must be fully utilized in character research in the future.

Regarding the Wayo calligraphic style that nurtured this Japanese-made character,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at the character 勾 may have developed within the context of National Style (国風) culture. While Chinese calligraphy emphasizes structure, weight, and logic, Wayo calligraphy is valued for its lyricism, being light, witty, and intuitive. Although Wayo is sometimes judged as weak compared to Chinese styles, this can also be interpreted as flexibility, reflecting the refined aesthetic preferences of the Japanese people.

Additionally, the Kamakura-period treatise *Jubokusho* notes that in Wayo calligraphy, the brush gradually tends to slant as it moves.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termine if this slanting made the 乚 component (as in 勾) easier to

write than two horizontal strokes.

In the Shinfukuji manuscript of the *Shomonki* (copied in 1099), which is known as a Japanese linguistic resource, the character 匂 (without a hook) also appears in a poem.

In dictionaries, the *Domo Shoin* (1109) lists 眞 and 匂 (reading: *niohi*), and the Maeda manuscript of the *Iroha Jiruisho* (before 1181) includes 匂 (readings: *nihohu*, *nihohi*) and 匂 (without a hook; reading: *kawori*).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匂 (without a hook)—originally a variant for 丐 *kai* or 匂 *in* in the Tang dynasty—during the Middle Ag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ihon Ryoiki</i>	c. 822	Keikai (904 manuscript) 匂 used as a variant of 丐 <i>kai</i>
<i>Tenrei Bansho Meigi</i>	c. 830	Kukai (1114 manuscript) 匂 <i>kai</i> (from 匂, 匂) 匂 <i>in</i>
<i>Shinsen Man'yoshu</i>	893	Disciple of Michizane (1274 manuscript) Followed Michizane's use of 匂 (in) diverted Tang poetry (meaning: "to be in order") to mean "to smell"
Abolition of Envoys to Tang	894	Suggested by Michizane Rise of National Style culture and Wayo calligraphy
<i>Kanka Bunso</i>	900	Michizane's Chinese poetry 匂 <i>nihohu</i> collided with the form for <i>kai</i> usage expanded from monks to nobles
<i>Kokin Wakashu</i>	905	Ki no Tsurayuki (Sekido-bon, 11th c.) 匂 <i>nihohu</i> collided with the form for <i>kai</i>
<i>Byobu Dodai</i>	924	Oe no Asatsuna (928 Michifu script) 匂
<i>Gonki</i>	1000	Fujiwara no Yukinari's diary 匂 <i>nihohu</i> collided with the form for <i>kai</i>
<i>Wakan Roeishu</i>	c. 1013	Sugawara family poetry 匂 <i>nihohu</i> collided with the form for <i>kai</i>
<i>Konjaku Monogatarishu</i>	c. 1120	Buddhist tales 匂 <i>nihohu</i> collided with the form for <i>kai</i>

Coinciding with the abolition of envoys to Tang, a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 was born, recorded with a variant form, lost its on-reading, and spread like a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 The use of these characters was encouraged and fixed by characters used in Chinese texts and meanings derived from Literary Sinitic.

There was a register difference between monks and nobles: for monks, the katakana 𪛗 may have influenced the form of 𪛗.

In modern Japan, since 𪛗 has almost no on-reading, it can be said that as the on-reading disappears, it gains the status of a Japanese-made character in our consciousness. The boundaries between standard Chinese characters, Japanese-made characters, and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s are not always clear.

More specifically, a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 (*kokkun*) was born through semantic shift, and around the Insei period, a Chinese-made variant was used for Japanese notation as the on-reading vanished. It then became a lost character form (佚存字体) and was recognized as a Japanese-made character. Character collisions did not cause practical problems because the social groups using them differed. The general outline is as follows:

China		Japan
Buddhist world:	𪛗 <i>kai</i> → 𪛗 =	
Buddhist world, etc.:	𪛗 <i>in</i> → 𪛗 =	Noble society: <i>nioi</i>
	(connected to 均)	

The theory by Komatsu (1976) that the character was derived by removing parts from 韻 or 韵 has been rejected.

As a separate lineage, 𪛗 (without a hook) was used in Antiquity as a form of 𪛗. It is a general tendency that simpler character forms are more prone to "glyph collision" or overlap.

Regarding this character, I shall further address the emergence of derivative glyphs that appeared in response to different sociolinguistic phases.

During the Heian period, a further derivation occurred at the level of character type and form, such as adding a grass radical to 𪛗 as 𪛗 (e.g., in the 1186 manuscript of the *Izumi Orai*). This appears to be a Japanese-made variant seen in the Buddhist community, showing a secondary processing of a Japanese-made character.

From the medieval period onward, the 𪛗 component within 𪛗 began to hook at the end.

In compound words, the name of the character 𪛗宮 *Niou no Miya* appears in manuscripts and commentaries of *The Tale of Genji*.

The meaning expanded from visual and olfactory to even auditory contexts.

For readings, 酒𪛗 *Sakawa* (for place names or surnames) involves a reading confused with 𪛗, and *Kaori* appeared as a personal name. New Japanese-made characters (register characters) were derived by adding radicals like the 弓 "bow" radical. The character form also influenced the right components of other characters like 倉・食, 忸(忸), 月(肉 胸). In notation,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use 臭 for unpleasant smells.

As mentioned above, the character 匂 reached a point where it was decisively recognized as a *kokuji* through changes in its character form, the disappearance of its sound, and shifts in its meaning.

At this point, let us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made character types and Hiragana/Katakana notation.

While there may be differences in how characters appear between cases where someone transcribes another person's speech and cases where a writer records their own language for the first time, I will not distinguish between the two here.

In the case of the verb *nihohu*, it appears that Michizane chose to write in Hiragana for waka poetry and used the character—functioning as a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for Chinese poetry (though the specific dates of composition require further investigation). The Middle Ages was an era where it became possible to write entire sentences using only Hiragana or Katakana, meaning it was a time when the options for notation expanded based on script types. Consequently, it is imaginable that Chinese characters, having been relativized as just one type of script, were inevitably subject to changes in their selection and usage.

In kanji-kana mixed prose, there is an observable demand to write inflected words and, depending on the orthographic style, many modifiers/adverbs using Chinese characters. It was rare to use Man'yōgana for these even in *mana-bon* (character-based texts) from the medieval period onward. In response to this demand, new character notations became necessary, and situations likely arose where existing meanings were distorted or new characters were created to represent specific words.

In the missing character notations of the *Konjaku Monogatari*, a wider variety of words can be seen. One can imagine that some transcribers or writers tried to prevent such omissions by creating characters. Furthermore, those who attempted such creation may have intentionally used character forms that differed as much as possible from existing ones.

What was the status of Japanese-made characters and meanings within a given orthographic style?

In Antiquity, it is estimated that Japanese-made characters and meanings accounted for less than 1% of the total usage compared to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s. While this small number makes specific tendencies or features easier to capture, the phenomena also tend to be dismissed as being dictated by individual circumstances.

For example, the aforementioned *shigi* 'snipe' of Antiquity could have been sufficiently represented by the Chinese character 鷗, yet some chose to create and use the character 鷗. It remains unknown whether the creator was ignorant of the existing character or if they were aware of it but sought a form that felt more

convincing. Conversely, someone who assigned the character 杜 to the word *mori* 'forest' was likely aware of its use in the name 杜甫 *Du Fu* or the word 杜絶 *tosetsu* 'cessation'.

In any case, from a linguistic and paleographic standpoint, these can be viewed not as attempts to fix inconsistencies or misalignments within the existing orthographic system, but as a pursuit of greater ideographic clarity for word representation. Furthermore, they were used without the premise of being included in Chinese poetry intended to be read with on-readings.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 匂 *noio* in the Middle Ages is thought to have functioned as a way to adjust or supplement the inconsistencies and misalignments within the existing system.

Because Japanese-made characters and meanings exhibit such individuality, one must remain cautious when attempting to grasp general trends.

In Antiquity, Japanese-made characters used to denote the names of physical objects (橋本 1949) appeared in books, documents, and wooden slips; here, I focus on the lexical system.

After the method of kun-reading—likely introduced by immigrants—became common, a stance emerged where one character was assigned to one concept (specifically names of objects), as 山田 (1937) suggested. This utilized the logographic nature inherent in characters originally created for the monosyllabic Chinese language.

In the Chinese spoken in the Central Plains of the continent, the vocabulary for fish was relatively poor, often limited to freshwater species. In contrast, the Japanese archipelago—especially its coastal regions—was rich in marine fish that had unique native names. Moreover, the narrowness of the land facilitated a system where processed items like dried fish were paid as taxes to the capital. Consequently, existing Chinese characters were simply insufficient to cover this variety.

Unlike the names of objects, which function like labels, inflected words are essentially "names of matters" that even conjugate. In primitive orthographic behavior that focuses on filling in labels, I believe there was still a wall that could not be overcome. Whether this was a barrier of skill/proficiency or merely one of consciousness is a matter that requires further investigation.

3.2.2. Aristocratic Society

As the Heian period began, the concepts of 言霊 *Kotodama* (the soul of language) and its written counterpart, 文字霊 *Mojidama* (the soul of characters), generally became less prominent and underwent a transformation from the Antiquity period. Progress in the Japanization of Chinese characters can be observed alongside changes in social systems centered on political regimes, such

as the Sekkan period, when the Ritsuryo system collapsed, and the subsequent Insei period.

A key point is the fact that the Heian court was fundamentally an aristocratic society. In terms of the overall character culture, for instance, the nobility increased the use of Yusoku-yomi (traditional readings based on court etiquette). A famous example found in the *Wamyō Ruijushō* (Genna edition, Volume 14) is the tool called 笏 *shaku* 'ceremonial tablet', which also appears in Volume 8 of the *Shoku Nihongi*. Its original on-reading was *kotsu*, but because this sounded identical to 骨 *kotsu* 'bone' and was considered unlucky—an idea rooted in imikotoba (taboo words)—it came to be read as *shaku*, derived from its unit of length (一尺), and this became a customary reading (*Gōdanshō*).

In kun-readings as well, numerous methods that did not match the original character glosses appeared, including tautological or Monzen-yomi-style approaches. Examples include 白馬節会 *Aouma no Sechie*, 靴 *ka* (*kwa*) *no kutsu* (written as 鞆 or 果乃沓 in the *Shinsen Jikyo*, c. 898-901), and 笙 *sho* (*siyau*) *no fue* (seen in the *Utsubo Monogatari*, c. 970-999; though manuscripts are mostly from the early modern period onwards and contain newer elements).

In personal names, Kuge-yomi (aristocratic readings) emerged and expanded in later generations, where specific pronunciations were permitted only for the nobility. For example, the character 公 in the name 公任 *Kinto* was read as *kin* instead of the usual *kimi*.

While Kotodama and Mojidama had transformed since Antiquity, courtier diaries (Kuge Nikki) that passed down traditions of court etiquette explicitly recorded instances of avoiding the number "four." For example, a host might specify three or five plates for a guest to avoid "four." While the avoidance of "four" as a taboo word has been known in China for about a century, it is known to have been transmitted from Japan. The same likely applies to Korea from around the same time, but in Japan, it has been a custom for a millennium.

Kunten (diacritical marks) and kundoku (glossed reading) were also inherited and developed by scholars such as aristocrats and monks.

Regarding writing styles, the so-called "record style" (記録体) found in the holograph of the *Midō Kanpakuki* and manuscripts of the *Shōyūki* contains various "erroneous characters" and "phonetic borrowings" (ateji). In the *Midō Kanpakuki* entry for July 25, the 5th year of Chowa, usage not found in orthodox classical Chinese can be seen, such as the character 及 in the phrase 及暁 (山本 2025, p. 141).

In the signatures of official documents, the practice of splitting lines (*warigaki*) began in the Heian period as a "writing style" that functioned like a ligature for terms such as 朝臣 *Ason* or 藤原 *Fujiwara*, in order to fit the official post, rank, and name into a single line.

3.2.2.1. Addition of Radicals or Phono-semantic (Kun) Style Character Creation

Here, I will introduce characters that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and daily lives of the court nobility (Kuge). The nobility consumed snacks between meals, one of which was an oil-fried wheat flour confection called *magari*. The character used for this is 飢, composed of the "food" radical (食) alongside 勾, as in 勾玉 *magatama*. The meaning differs from characters born in China; it is thought that craftsmen or officials serving in the Imperial Court created or repurposed this character and were involved in its use. An early example can be found in the Kujō-ke manuscript (via "e-National Treasures") of the *Engishiki* (927), Volume 26, where the side-gloss (furigana) "makari" is also visible.

Furthermore, the character 鱻 *haya*, cited in the *Wamyō Ruijushō*, is considered a phono-semantic character that uses a phonetic component with a similar sound, though older examples have not yet been found.

The character 鳩 *niho*, often seen in waka poetry, appears in the *Iroha Jiruishō* and other sources. While it is a logical aggregate character, it might also function as a phono-semantic character (using 入 *nihu*). While it is often said that a character has only one origin, I believe—without even needing to cite numerous examples of modern creative kanji—that characters were sometimes conceived with double meanings. Usage of this character is seen in the *Utsubo Monogatari*, but since the manuscripts date to the early modern period, the exact notation at the time of original recording remains unknown.

Looking at portraits of Ashikaga Yoshimitsu from later generations, one can see the colors on the edges of the tatami mats changing gradually. This is called 縹縹縁 *ungenberi*, a textile said to have existed in China as well. It is unclear whether a word with the form "ungen" existed in the Tang dynasty. In the Nara period, the term 雲間 *unkan* appears in the Shōsōin documents to describe a coloring method that shows gradations of color by arranging similar tones from light to dark.

By the Heian period, the term 暈縹, using the character 暈 'to blur', appears in the *Engishiki* (in other Japanese texts, it is written as *uken* or *ungen*). Whether nobles or lower-ranking artisan-officials sought to create more beautiful characters through logical or phonetic composition, or whether the characters for 暈縹 underwent regressive assimilation of their forms to align under the "silk" radical (糸), the Japanese-made characters 縹縹 were produced. This character string can be seen in works such as Fujiwara no Yōrinaga's diary, *Taiki* (1136–1155). The judgment that "writing this character will ensure the next person understands" in turn gave rise to the traditions of court etiquette (Yūsoku Kojitsu).

Incidentally, some may feel they have seen these characters elsewhere; in the modern era, 縹縹 appears frequently on the web as a result of character encoding errors (mojibake).

Additionally, the compound 𠂔糸夾頁纈 *kōketsu*, derived from 夾纈 *kyōketsu*, can be found in the *Taiki* and other texts. This character form, resulting from regressive assimilation, is a lost character form (isson jitai) that also exists in China and Korea. In Japan, this eventually became 纈纈, and the first character came to be recognized as a Japanese-made character.

While it is often said that Japanese-made characters consist mostly of logical aggregate characters or those with only kun-readings, there are in fact many such Japanese-made characters that possess on-readings as well.

3.2.2.2. Character Creation through Logical Aggregation

The character 辻 *tsuji*, which is still seen today in place names like 辻子 read as *zushi* in the Kinki region—particularly in Nara and Kyoto—is a Japanese-made character that appeared during the Heian period. The component 十 was utilized based on its pictographic usage (character metaphor) found in the Six Dynasties period Chinese term 十字街 ‘crossroads’.

An early example of this character can be found on a wooden slip (10th-11th century, Inaba Province) excavated from the Aoya Yokogi site, a local government office site in Tottori City, where it is used in the phrase 辻七十束 (perhaps a diverted meaning).

Regarding the character 井, which originally represented a well in Chinese (read as *sei*) or served as a vernacular character (read as *tan*) representing the sound of a stone being thrown into a well in Southern China during the Song dynasty, a variation emerged in the early 12th-century text *Gōdanshō* (recorded by Fujiwara no Sanekane based on the talks of Ōe no Masafusa). This version placed the character for 石 ‘stone’ inside instead of a dot to more clearly express its nature as a logical aggregate character. The text recounts a story involving two people from 渤海 *Balhae* named "紀どぶり丸 *Ki-doburi-maru*" and "紀ざぶり丸 *Ki-zaburi-maru*," where the character containing the symbol for wood was 𣏟 *za(n)buri* and the one containing stone was 𣏟 *do(n)buri*.

While these might not be considered Japanese-made characters if they truly originated from Balhae names, records suggest Balhae lacked its own script, though unusual characters have been found on tiles and stories exist of Balhae people exchanging Chinese poems with other nations. Regardless, it is unlikely Balhae people used the Japanese onomatopoeic names *donburi* or *zanburi*; thus, this is likely a legend created by Japanese people based on onomatopoeia or a misinterpretation.

The *Gōdanshō* also records contemporary knowledge and awareness of Japanese-made characters. For instance, in its manuscript *Suigenshō*, there is a query "杣字", "誠本朝作字歟".

In the *Wamyō Ruijushō*, a passage mentioning "杣", "功程式云 甲賀杣 田上杣", "

杣讀曾萬 所出未詳", "但 功程式者修理算師 山田福吉等 弘仁十四年所撰上也" has been misread by some to suggest that Yamada no Fukuyoshi (山田福吉) himself created the character.

Furthermore, the *Gōdanshō* claims the character 榊 *sakaki* exists in the *Nihon Shoki*, though it is not actually used there. Since it does appear in commentaries on the *Nihon Shoki*, this may have been a misunderstanding, illustrating the state of hearsay and superficial knowledge regarding Chinese characters in the world of the court nobility.

The logical aggregate method of character creation increased the productivity of Japanese-made characters during the Heian period. For example:

In Minamoto no Toshifusa's *Suisaki* (1063), the character 𣏟木惡樹 appears. Written with the "tree" radical and the character for "evil," it was read as *afuchi* and was likely created because it referred to a tree used for hanging severed heads.

The character 畑 *hata* was possibly created by powerful local clans, nobles, or manorial lords, rather than by farmers at that stage.

The character 鯰 *namazu* may have been created by officials or fishermen, though circumstantial evidence suggests it might be a phono-semantic Chinese character that became a lost character (*isson-moji*).

3.2.2.3 Split Writing (Warigaki) Functioning as Ligatures

In the Sonkeikaku Bunko manuscript of the *Hirota-sha Uta-awase* (1172), which is in the hand of Fujiwara no Shunzei, the characters for "Fujiwara Ason" are written in a fused manner.

As noted by 江守 (1986), because official titles and names had to be contained within a single line, long strings of characters were written in an extremely compressed style that functioned almost as ligatures, eventually becoming standardized in later eras. From this period onward, original holographs (manuscripts written by the authors themselves) gradually began to survive, such as the preface to the *Kokin Wakashu* and the *Korai Futaisho* penned by Shunzei.

As a counterpart to ligatures, "split characters" (分字) are also worth mentioning.

Regarding the waka poem by Fun'ya no Yasuhide ("吹くからに 秋の草木の しを るれば むべ山かせ (風) を あらし (arashi, 嵐) と云らん"), the Gen'ei manuscript (c. 1120)—the oldest extant complete version—shows *arashi* 'storm' written in hiragana, while only "山" is written in kanji. Despite this, among the nobility and monks, hearing or seeing this poem caused many to envision the single character "嵐". This indicates a tendency where the logical aggregate structure of the character—combining "mountain" (山) and "wind" (風)—felt intuitive to the Japanese people.

The character 嵐 came to mean *arashi* perhaps through the transliteration of

the Sanskrit term "毘嵐婆 Vairambha". According to the *Dai Kan-Wa Jiten* and other sources, Wang Wei (王維) used it to mean "mountain air," Xie Lingyun (謝靈運) used it for "mountain wind," and the Song edition of the *Yupian* recorded it as meaning "great wind".

3.2.2.4. Development of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s

As the native Japanese verb *saburafu* evolved into *saurafu* (soro) and underwent grammaticalization into an auxiliary verb, a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 emerged for the character 候 within the context of "候文 *sorobun*" (epistolary style). This occurred in conjunction with the shifts in the word's native meaning and usage. It is expected that the history of such phenomena will be further clarified through future research into writing styles and literary forms.

3.2.2.5. Nanori-kun (Readings for Personal Names)

In the reading of real names (given names), the character 朝 is sometimes read as *tomo* (Maeda manuscript of *Iroha Jiruishō* "名字" etc.). The reason for this had long remained unclarified, but it has come to light through ongoing research by scholars such as Kim Bunkyo (金文京). A usage where the compound 朝廷 represented "friend" appeared during the Tang dynasty, and after being transmitted to Japan, 朝 alone came to be read as *tomo*. Subsequently, it began to be used in the names of male Heian aristocrats—such as Minamoto no Yoshitomo (源義朝), Yoritomo (頼朝), and Sanetomo (実朝)—and spread even to surnames like Tomonaga (朝永).

There is a pattern of maintaining a reading by omitting the second character of a *jukujikun* compound. For example, there are scattered similar cases such as reading 蜘蛛 alone as *kumo* (originally 蜘蛛, a binomial) or reading 蛸 alone as *tako* (from 海蛸 (蛸) 子).

Also, writing 和 and reading it as *kazu* is performed frequently; there was even a period during the Showa era when the name Kazuko (和子) was said to be the most common in Japan, yet its origin is unknown. Motoori Norinaga argued it came from *katsu*, but this does not match the kana usage in the "Surnames" section of the *Iroha Jiruishō*. It might be thought to come from the *kazu* of addition, but the timing for this does not align either, suggesting it is not such a simple matter. In other words, rejecting a reading simply because one cannot understand its origin is a difficult stance to take in the context of naming.

Furthermore, since such nanori-kun existed as precedents in the Heian period, simply using terms like "kirakira name" (flashy names) to reject new creations in modern naming may leave a legacy of trouble for the future.

3.2.2.6. Yusoku-yomi / Kojitsu-yomi (Traditional/Customary Readings)

While 笏 was mentioned above, there were other examples in the world of the court nobility (Kuge) during the Heian period, such as a ceremony called 考定 *kojo* held on August 11 to evaluate and report the performance of senior officials of the Department of State for the preceding year. The character order was inverted and written as 定考 (*Engishiki* Volume 30, 927; *Nihon Kokugo Daijiten*), yet it was still sometimes read as *kōjō* (*Meimokusho*, c. 1457, in "Various Annual Public Affairs," it is noted "定考 (カウチャウ) 逆読之例也"). There is a theory that writing it as 定考 and reading it inversely became a custom to avoid homophony with 上皇 *jōkō* 'Retired Emperor', though there are alternative theories (倉本 2025 p65, etc.).

3.2.2.7. Female Kana Literature

Sei Shonagon's essay, *The Pillow Book* (Makura no Soshi), is primarily written in hiragana in older manuscripts, with okurigana (inflected endings) attached to a small number of kanji, mainly for inflected words. Furigana (phonetic glosses) were not yet in use during this period.

Section 147, titled "Things that are nothing special to look at but look impressive when written in characters," highlights terms that seem exaggerated in their written form. Examples include:

- Raspberry (ichigo): Written as 覆盆子
- Dayflower (tsuyukusa): Written as 鴨頭草
- Water chestnut (mizufubuki): Written as 水芡
- Spider (kumo): Written as 蜘蛛
- Walnut (kurumi): Written as 胡桃
- Doctor of Letters (monjau hakase): Written as 文章博士
- Advanced Student (tokugohu no sho): Written as 得業生
- Official of the Empress Dowager's Palace: Written as 皇太后宮権大夫
- Bayberry (yamamomo): Written as 楊梅

Shonagon specifically comments on the plant *itadori* (Japanese knotweed), noting it is written as 虎杖 *toranotsue* 'tiger cane' even though the plant's appearance does not necessitate a "cane". The author refers to this awareness as "orthographic sensibility" (表記感), noting that Shonagon expressed her feelings about word-meaning and orthography regarding kanji compounds and jukujikun over a millennium ago. This reveals an early discomfort with existing Chinese characters and a desire for better ideographic representation, which aligns with the mindset that sought logical aggregate style Japanese-made characters.

Various manuscripts of *The Pillow Book* show different orthographic choices: The Noin-bon (Tomioka-bon) manuscript, a survivor of fire, titles the section "文字にかきてことノしき物 (Things that look impressive when written in characters)"

using a mix of script.

The Sakai-bon manuscript titles the same section entirely in hiragana, "もじにかきてことノしきもの".

The Sankan-bon (Imperial Household Archives) includes comments on single characters like 衲(*akome*) and 泔 *yusuru*, noting they "do not make sense even if written that way". Not only was there a sense of word-feeling and orthographic sensibility toward compound words, but a distinct 'character-feeling' (文字感) was also held toward individual kanji. Since the Edo period, various scholars have postulated the specific kanji that would have been used at the time.

The characters 衲/衲 *akome*, which referred to an undergarment or hood in China, were adopted as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s in Japan. According to the dictionary *Kanjikai*:

【衲】 *jitsu* Originally meant underwear or a chemise. In Japanese usage as *akome*, it referred to a specific robe worn between other layers.

【衲】 *ha* Originally meant a hood or wrapping. Its Japanese usage as *akome* arose from its visual similarity to 衲.

However, Sei Shonagon was not satisfied with these kanji. Perhaps she had a sense that they did not correspond to "sun" (日) or were not truly "white" (白) (even though these were Japanese-derived meanings).

The word 泔 *yusuru* is a noun referring to the water used when washing one's hair; however, regarding the assignment of a character that means "rice-rinsing water" to this word, she likely expressed her dissatisfaction, feeling it was hardly suitable—especially since, contrary to the appearance of the character, it possesses no "sweetness" (甘).

As noted in the *Kanjikai* dictionary:

【泔】 *kan* Rice-rinsing water; to soak in rice-rinsing water.

Japanese usage: *yusuru*. Water used for washing hair. Or, the act of washing and combing hair.

This suggests that since *yusuru* is a Japanese-derived meaning, the liquid is undrinkable and does not taste sweet.

Furthermore, while Tang dynasty orthographic manuals (字樣(書)) contain descriptions stating that 吊 and 弔 should be written differently, these are merely prescriptions acting as norms related to matters such as religious faith.

In Volume 7 of the Kawachi-bon manuscript of Murasaki Shikibu's *The Tale of Genji* (Owari Tokugawa Reimeikai, 1934), the word *nihohi* is naturally written in hiragana, but in this same manuscript, I discovered a passage where the character 匂 is written small to the right of 宮.

One might also expect 櫛 to appear, yet it was written only in hiragana there as well. Similarly, in the Aohyoshi-bon manuscript (Teika lineage, Imperial Household Archives), *sakaki* is written in hiragana.

Regarding what her rival Murasaki Shikibu thought of Sei Shonagon, records

remain, so I will briefly introduce the *Murasaki Shikibu Nikki* (The Diary of Murasaki Shikibu). Her famous criticism of Sei Shonagon from the entry on January 1, 1009, mentions her "scattering Chinese characters (mana) about," to which Murasaki contrasts herself by stating, "I do not even go so far as to write the character for 'one' (一)." Additionally, the term 女手 *onnade* 'women's hand', which is noteworthy from a modern gender perspective, still lacks a settled interpretation. There are also parts where she criticizes her, saying, "Sei Shonagon, with such a self-satisfied face..."

References to women frequently writing in katakana or kanji can also be found in works such as *The Princess Who Loved Insects* and *A Tale of Flowering Fortunes*.

3.3. Shinto Society

The character 神 appears in the *Jingū Gishiki* (Ceremonies of the Grand Shrine, 804), recorded shortly after the capital moved to Heian-kyo. (According to Takashi Tanaka, the copy from the Sonkeikaku collection in the *Jingū Kōten Seki Ein Sōkan* dates from the late Heian, late Kamakura, or early Yoshino period). While one might assume this character existed in the Nara period, it is said that much of the content of the *Jingū Gishiki* is unique to the Heian court and reflects a break from Nara traditions. In the *Wamyō Ruijushō*, the preface and main text state that 神 appears in "the rest of the *Kangoshō*," yet it was not found in the Yōrō-era *Yōshi Kangoshō* circulating at the time.

Furthermore, the syncretism of Shinto and Buddhism (Shinbutsu-shūgō) had already begun in the Nara period and developed significantly during the late Heian period.

3.4. Buddhist Society

In Heian Buddhism, new faiths brought by envoys to Tang China, such as Shingon and Tendai, spread—differing from the Buddhism of the Southern Capital (Nara). In these Buddhist circles, while Go-on (呉音) remained the mainstream for kanji pronunciations, unique developments increased in Katakana, Shomotsu-gaki (writings transitioning from reading-oriented to writing-oriented scripts like *Nihon Ryōiki* or *Kōdanshō*), kunten, and kundoku.

In Buddhist society, terms derived from Sanskrit and Siddham script (梵字) were generally familiar. Particularly in mantras such as Dharani, one can find a religious or rationalist world centered on sound and secrecy—elements that seemed even mystical to the general Japanese populace of the time.

Kūkai (who entered Tang in 804 and returned in 806), spread Esoteric Buddhism and was regarded as one of the 三筆 *sanpitsu* 'Three Brushes' of the 9th

century alongside Emperor Saga and Tachibana no Hayanari. Legend attributes the creation of Hiragana and the Iroha poem to him. The On-yomi name *Kūkai* is mentioned in the *Kōdanshō*.

Assuming Kūkai composed the Iroha poem line "色は匂へど *iro wa nioedo*" (Though the colors are fragrant) as legend suggests, he would not have used the character 匂 there, as he was an early Heian Buddhist (as previously mentioned).

Regarding the *kai* in Kūkai's name, he himself wrote it using the variant character (dynamic character) "𪛗." This is used as a benchmark for determining the authenticity of documents. Similarly, Saichō wrote his name as 叡澄.

The 三蹟 *Sanseki* 'Three Traces' represent the Wayō (Japanese style) mentioned earlier, referring to Ono no Michikaze (Tōfū), Fujiwara no Sukemasa (Sari), and Fujiwara no Yukinari (Kōzei) around the 10th century.

While we commonly use the character 円 *en/yen* today, its first appearance is related to Kōbō Daishi (Kūkai). The character 圓 was used relatively frequently in Buddhist society, but because it had many strokes and was tedious to write, a variant of 圓 likely emerged as a simplified form. This was a phenomenon at the glyph level; including its origin, it is likely a Japanese-made variant.

The National Treasure *Sanjūjō Sakushi* (Thirty Notebooks) held at Ninna-ji was copied by Kūkai or under his direction during his stay in Tang China. Because he had it copied by Tachibana no Hayanari and over 20 Tang sutra scribes (宇都宮 2023), it contains many hands other than Kūkai's. Within this, the simplified form of 圓 appears twice, where the 員 inside the 口 is reduced to a single vertical stroke |. This is a bold simplification, rare even in cursive script (草書). While it is possible this form existed in the handwriting of Chinese people, it cannot be proven as it has not yet been found in extant Chinese materials. It remains possible that someone other than Kūkai copied this form, but there is no evidence of anyone else using it. It also deviates from the standard ways of collapsing 口 in cursive.

Regardless, the appearance of this form was a response to changes in Buddhist society. This specific character type (variant), frequently used in Buddhist texts, spread to aristocratic society during the Heian period. Simplifications such as writing 菩薩 *bosatsu* as 𪛗 or 國 as 𪛗 can be seen as lost characters (isson moji) that flowed from China and became popular in Japan.

The spread of the precursor to the character 円 into aristocratic society is clear from Kitagawa Hirokuni's *Wayō Jiten*. The simplified 円 (𪛗) also appears in the original manuscript of *Midō Kanpakuki* (January 2, 1018).

In Kūkai's *Tenrei Banshō Meigi*, sections 1-42, as mentioned, 【匂】 (read as *kai*, from 匂 or 匂) and 【勻】 (read as *in*) were listed. This was not a "slip of the brush" but reflected the customs of how characters were written in Chinese Buddhist texts; their usage was distinct.

Furthermore, the Katakana 𪛗 was usually written without a hook in the Heian

period (*Nihon Kokugo Daijiten*).

The 釈摩訶衍論 was a Buddhist text Kūkai prioritized. Although considered an apocryphal text created in Silla, Kūkai valued it as containing the essence of Esoteric Buddhism. Looking at Liao-dynasty stone inscriptions of it, characters with multiple rotating strokes appear. These are annotated with the 反切 *fanqie* reading *in*, and there are also regular-style versions heavily influenced by Chinese characters. Kūkai is known to have mastered various calligraphic styles, and having seen such exceptional mystical characters, it is possible he was capable of rationally processing and simplifying character forms. Sanskrit characters are also simple in construction and exist in a number of phonemes that are not difficult to memorize.

The *Konjaku Monogatari* (Volume 11, Story 9; the Kamakura-period Suzuka manuscript is no longer extant) contains the story that became the origin of the proverb "Even Kōbō makes a slip of the brush."

Kūkai noticed a dot was missing from the first character of the 應天門 *otemon* gate plaque he had inscribed; he threw his brush to add the dot and complete the plaque. This is also known as "Kōbō's Thrown Brush," though theories differ on whether it was the first stroke of 應 (changing 厂 to 𠂇) or a dot in 心. In any case, it was a scribal act that drastically deviated from the linear stroke order of the writing process.

In Shinkyo's *Kongōbuji Konryū Shugyō Engi* (968), the source of this tale, the "dot" is referred to as a "round dot". This idea likely originated from someone aware of the variants where 𠂇 and 厂 alternate in such characters. There are clerical script (隸書) examples of 應 made with 厂 (*Daishōgen*), which may have contributed to the birth of this legend.

According to this, one might doubt whether the one-time nature of brush calligraphy was considered so critical. Conversely, if a brush stroke was misplaced, there might be a scribal behavior of finishing it as is without erasing it. When asked how they handle mistakes, calligraphers have said they finish the work so the error is not noticed. Over-writing of strokes has also been seen since ancient times. There are likely ten causes for the emergence of dynamic characters (balance, analogy, the tendency for 山, ㄣ, or 雨 to be high and 水 or 土 to be low, etc.), but mistakes—such as accidentally starting to write 每 when intending to write 海—likely occurred in the actual reality of writing.

A similar story is found in the same volume of *Konjaku Monogatari*. When Kūkai added a "small dot" to the right of the cursive 龍 'dragon' written on a river by a boy (actually Manjusri Bodhisattva), it became a Dragon King and flew away. This is also depicted in the second volume of the *Kōya Daishi Gyōjō Emaki*. This story also has a source and shares commonalities with the legend of "画竜点睛" (Painting the Dragon and Dotting the Eyes) (from the Tang *Lidai Minghua Ji*: Zhang Sengyou's "点睛即飛去").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urrent plaque of the Otemon at Heian Jingu is said not to be Kūkai's calligraphy.

Variant characters simplified by using dots (provisionally called "用点略字 dot-simplified characters") include:

国 (kuni), 広 (hiro), 伝 (den)

as well as:

勻 (for 句 or 旬)

Reducing the 𠂔—口 part of 同 or 拾 to a dot (丶)

Reducing the 口丶 part of 觸, or the 玉/虫 parts, to a dot (丶)

The practice of making the final stroke of a character a dot (丶) appears to have been performed more prominently in Japan than in China.

Other legends about Kūkai persist, such as "Kōbō does not choose his brush" (though he actually did), and the name 五筆和尚 *Gohitsu Oshō* 'Five-Brush Monk', based on the legend that he wrote characters using five brushes held in both hands, both feet, and his mouth—a concept similar to the story of Prince Shōtoku listening to ten people's petitions at once.

The *Konjaku Monogatarishū*, which contains these, is theorized to have been compiled by a Hossō sect monk in the Southern Capital (Nara) during the 12th-century Insei period.

The theory attributing the Iroha poem and Hiragana to Kūkai also appears in the *Kōkaishō* (Vol. 12), quoting the *Kōdanshō* (conversations from 1109) (小松 1968, p. 148).

The moon was also called 月輪 *gwachirin* 'Moon Disk', and the shorthand of writing 輪 as ○ is well known. 吉沢 (1943, pp. 22-23) noted finding this not only in Edo-period documents but also in Heian-period ones. As for circular shapes in regular script strings, precedents are seen in Empress Wu's characters (Zetian characters), such as ○ for star and 𠂔○子 or 𠂔○𠂔 for moon. Furthermore, since writing ○ with a brush is difficul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is actually written in two strokes from the top, which led to a theory that this is the origin of the Katakana ワ. From the 9th century onward, similar shapes are seen in Katakana ワ and Hiragana わ, and from the Edo period, it came to be used as the second character of にわか *niwaka*, among others.

In the *Nihon Ryōiki*, the ideogram 𠂔 *moru* 'to heap up' appears. This evokes the imagery of Prince Arima's poem in *Man'yōshū* (Vol. 2, No. 142): "家有者 笥尔盛 飯乎 草枕 旅尔之有者 椎之葉尔盛." (When at home, rice is heaped in a bowl; but being on a journey with a grass pillow, it is heaped on a shi-leaf) Here, one can feel the lingering scent of the ancient era alongside the innovations of the medieval period. 飯 'rice' and 皿 'plate' are not found as components of ancient Japanese-made kanji; however, in the recording and copying of so-called "Hentai Kanbun" (variant Chinese) or "Waka Kanbun" (Japanized Chinese), the range of parts of speech, radicals, and components expanded. Since they were not intended

for On-yomi use, their regular use in "Hentai Kanbun" was possible.

In the Raigōin manuscript (Nihon Koten Bungaku Ein Sōkan, 1978), "𪛗" has the side-gloss *moro*. There is no explanatory note. It is unclear whether this was a character created with humorous intent, but it is used without distinction from other characters. The possibility of progressive assimilation in character form is also considered.

In the *Nihon Ryōiki* (preface to the lower volume of the Gunsho Ruijū manuscript), the character 喃 appears, read as *ahare* in "喃汎言惻、那免劫災." Since the entire text was written in kanji, the only options for writing *ahare* were likely Man'yōgana or a Japanese-made character meaning. Other manuscripts like the Raigōin or Maeda (Sonkeikaku Sōkan) use the kanji 噫 to be read as *ahare* or *aa*; regarding the former, it can be noted that Japanese-made meanings also appeared for interjections.

In the *Iroha Jiruishō*, a character "𪛗喃" is listed to be read as *aharefu*, and in the Kamakura period, its 𪛗 was dropped to become 適 *appare*, a history that can be traced in character records (西井 2022, pp. 129, 130, 132).

In the Kōfuku-ji manuscript of *Nihon Ryōiki* (only the upper volume, a National Treasure), copied in the mid-Heian period, a character consisting of two 愛 side-by-side appears. However, looking at the text, this can be considered an error where the form of the kanji 𪛗 underwent regressive assimilation (replacement type) within the character. Such a phenomenon in compound words is sometimes called "radical matching" (偏揃え), but since this is not a radical (偏), it is hard to call it that. Furthermore, since inversion phenomena occur in stroke and component structures, the author considers that these phenomena—from strokes to character types—can be understood by analogy with phonology, viewing them as phenomena parallel to phonology and calling them assimilation.

The *Tōdaiji Fujūmon Kō* (early 9th century), a memorandum by a Tōdai-ji monk, is famous as a Japanese language resource using a mix of kanji and Katakana.

Within it, a character written as 𪛗日卵 appears multiple times, read as *kahi*. This may be a Japanese variant of 𪛗 or 𪛗, which are variants of 卵 'egg'.

In the Kanchiin manuscript (copied in 1273) of Minamoto no Tamenori's *Sanbō-e* (984), a resource often treated as a linguistic record, the character 𪛗 is used in the phrase "山=𪛗メテ yama ni komete."

In the *Shinsen Jikyō* (9-23 recto, line 8), 𪛗 (with 入 or possibly 八) is included at the end of the "Road" radical (辵部) along with "適 𪛗梟" (with the right vertical line piercing through), but it is listed without notes or meanings, leaving the details unknown. Perhaps it was picked up from "private records" (私記).

In the *Iroha Jiruishō*, 𪛗 is recorded as *komoru/semaru*, and by the Kamakura period, it was used in the Shogunate's history *Azuma Kagami*. The kanji 籠 was used similarly. Today, 𪛗 is the most frequently used Japanese-made kanji in

Japan, and it appears to have been created during the Heian period.

Additionally, the character 働 'to work' is also a Japanese-made kanji, but it appears to have been born in the world of the samurai during and after the Kamakura period.

Also in *Sanbō-e*, the Japanese-made kanji 𪛗 is used to be read as *marobu* in "𪛗伏." "Marobu" means to fall over. The 一 part looks exactly like a person tumbling. It later came to be used widely for *suberu* 'to slide'.

Furthermore, there is a shomotsu-gaki recording ++埤, which appears to be a Japanese version of 薩埤.

The Japanese-made kanji 朽, read as *tochi*, is slightly similar in form to the 朽 in Tochigi Prefecture and was its precursor.

While it was mentioned that court nobles ate sweets, monks also enjoyed them; as Tsutomu Sugimoto noted, they ate sweets during breaks in their training. Records show everyone brought items like chestnuts and *tochi* (Japanese horse chestnuts) to such occasions.

The "Tōji Ekyōryō Ashidai Haibunjō" (1102, Tōji Monjo Shūei) records that one person brought 朽, thus providing an instance of the character 朽 (*Hōgen Kanji Jiten*). In political history, this character appeared after the Regency period, upon entering the Insei period (1086-).

Regarding 朽, as noted by Norio Nakada and many previous studies, the Kanchiin manuscript of *Ruiju Myōgishō* (14th century) lists the character 朽 separately from *kuchiru*. Under 朽, it says "トチ ナチ 義歟" (likely horse chestnut, nachi), and *nachi* is thought to have been written in Man'yōgana as 十千. Other manuscripts like the Hōbodai-ji manuscript retain this character in the same way.

This is a character created via a phonetic (kun-reading) method utilizing multiplication: 十 *to* 'ten' × 千 *chi* 'thousand' = 万 'ten thousand'. This suggests that monks or nobles engaged in such witty, pun-like character creation.

Regarding *tochi*, the *Iroha Jiruishō* contains Japanese-made kanji such as 朽.

The character 朽 also appeared as a Japanese-made kanji around this time. The character 𪛗【木都】 used by Myōe in the Kamakura period with the same meaning is, in terms of the Six Scripts (六書), an ideogram or a phono-semantic character where the right side represents the initial sound of *toga* or *tsuga*.

In the *Konjaku Monogatarishū* (Suzuka manuscript, Vol. 5, Story 4), the character 煙 'smoke' is written as a Japanese-made variant 𪛗火雲 in "雲、浪、𪛗火雲、浪". In addition to remote replacement assimilation in the form, the right side of 煙 and the cursive form of 雲 resemble each other, leading to a process of ideographization. The same form is seen in *Izumi Ōrai*, making it a characteristic form of the Heian period.

The *Konjaku Monogatarishū* is written in "Wakan Konkō-bun" (a mix of Japanese and Chinese), combining Japanese styles with Chinese reading styles and mixing native words with Sinitic ones. The Suzuka manuscript, the oldest copy, is

written using a mix of kanji and Katakana. Within it, alongside 榊 (mentioned above), 榊 *shikimi*—a Japanese-made kanji created based on 榊—is also used.

In the Suzuka manuscript of *Konjaku Monogatarishū* (Vol. 2 and Vol. 26), the character 囁 (mouth radical plus "love") is read as *nagusa*- 'to comfort' in phrases like "云囁 (イヒ ナグサメ) ツ."

In China, this was a phono-semantic character read as *ai*, meaning 'belch/burp,' but the Japanese used it as an ideogram or reassigned its reading.

In the medieval period, a new Japanese meaning, *atsukai* 'mediation/handling', emerged, and in Japan, this character has been used with beautified connotations.

While *nagusami* for 囁 was thought to be a Japanese-made meaning, the *Taishō Shinshū Daizōkyō* (SAT) has revealed examples in Tang-dynasty Buddhist texts where 囁 is used as a verb similar to 愛 'to love/cherish', close to 'to comfort.' This suggests it might be a lost-at-source usage. There is room for verification, such as checking whether these sutras appear in the Dunhuang manuscripts.

Konjaku Monogatarishū also uses characters likely to be Japanese-made ideograms such as 倂 *omokage* 'vestige', 覽 *nabiku* 'to bend', and 𠂔穴轉 *anautate* 'how regrettable', as well as Japanese-made kanji with inverted components and temporary compound characters including reborrows via kun-readings.

3.5 陰陽道社会

I will also touch upon the society of Onmyōdō (the Way of Yin and Yang) during the Heian period. Practitioners of magic, such as those in Shugendō and Onmyōdō, who were influenced by Shinto, Buddhism, and Taoism, sometimes created talismans (符) in forms resembling characters. This can also be seen as an emergence tailored to social changes. Regarding the use of talismans and spells in aristocratic society, there are both literary records and physical artifacts remaining, and I await further discoveries for a rigorous judgment regarding their social standing.

Earthenware has been excavated featuring 𠂔, two 見 characters, one of which is written upside down. While it could be considered a magical talisman from Onmyōdō or a character originating from China, it also appears in the entry for the 19th day of the 11th month of Eikyū 5 (1117) in *Denryaku*, the diary of the Grand Minister Fujiwara no Tadazane.

The *Shinsen Jikyō* contains characters such as 𠂔月 𠂔 and 𠂔月 𠂔, but these are likely corrupted forms of the kanji 𠂔 *ben*. (According to *Shinsen Jikyō Kōchū*, Vol. 1, p. 33, the glyph of this character is unstable in other components within the *Shinsen Jikyō* as well).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is merely a collision of character forms (笹原 2016a).

According to the web edition of the *Ibaraki Shimbun* dated February 20, 2014:

"The Prefectural Education Foundation announced on the 19th that during excavations at the Zuiryū ruins in Zuiryū-chō, Hitachiōta City, the bottom of a piece of earthenware was unearthed from the site of a Heian-period pit dwelling. It was inscribed with a spatula featuring the Japanese-made kanji '甕 *hirukunagahi*,' which signifies sexual intercourse between a man and a woman."

Furthermore, the transformation of kanji within Shinto society continues into the world of *Chusei Nihongi* and related domains.

Traditionally, the strength of the connection to speech has been the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characters from symbols. However, in reality, as Takeshi Shibata noted, the symbol ○ is so strongly linked to the word *maru* that it can be argued the form itself constitutes a way of reading.

In the talismans from the 釈摩訶衍論 cited above, forms that are indistinguishable as either kanji or Siddham script appear alongside kanji, accompanied by *fanqie* notations. While their individual meanings are not always clear, the author wishes to categorize these as a type of phase characters (位相文字).

For instance, in the shomotsu-gaki (exegetical writings) of the Esoteric Buddhist world, a variety of convenient character forms—such as ligatures, abbreviated ligatures, simplified characters, and kana orthography—have been handed down.

The term "personal characters" (個人文字) is one that the author previously presented along with a definition, and it has partially spread within academia. This concept lacks consistency with the traditional term "personal language" and potentially contradicts the general definition that characters must possess sociality. However, because these are created using kanji-like construction methods and components, they possess an immediacy where, the moment another person sees them, they are interpreted as ideograms or ligatures that evoke specific meanings. In this sense, they immediately acquire sociality and begin to take on the nature of characters. I believe that such terminology should undergo a process of selection within the academia, where inappropriate terms are eventually weeded out.

When talismans are viewed in relation to language, they also possess the potential to acquire character-like qualities because they carry sound or, in a broad sense, meaning. Diachronically, some have already achieved a clear status as functional characters.

3.6. Eastern Society and Samurai Society

There are characters that potentially emerged within Eastern Japan or Samurai society.

It has been argued that the author of *Shōmonki*—a work composed around 940

documenting the rebellion of Taira no Masakado—might have been a resident of the Eastern provinces, an aristocrat or warrior from Kyoto, or a member of the rising Eastern samurai class. This text is known for its frequent use of so-called "Farmer's readings" (*hyakushō-yomi*) (沼本 1973), and it is regarded as a document possessing linguistic characteristics aligned with a specific region or social expansion.

Within this work, a Japanese-made character written as 𪛗 appears, read as *ajikinashi* 'vain/futile', *suzuro-ni*, or *sozoro-ni* 'aimlessly/involuntarily'. This character may have been born from a process of intra-character assimilation—similar to how 静 became the variant 𪛗青青 in Dunhuang manuscripts, or how 顛 became 𪛗真真 in similar forms. As previously mentioned, the creator of a Japanese-made character did not necessarily rely on a single origin.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character was formed by condensing the phrase 無情 *mujo* 'heartless/ruthless'—found in works like *Yusenkutsu*—into a single character.

The pattern of writing a semantic component twice, in addition to a radical representing a higher concept or semantic category, can be considered a new development in Japanese-made kanji. (Existing Chinese characters included examples like 嚇 or 嚇).

From the medieval period onward, the 心 radical in 𪛗 sometimes moved to the top or transformed into shapes like 山 or 止.

In the Shinfukuji manuscript of *Shōmonki* (a 1099 copy, Benseisha Bunko), 𪛗 has no side-glosses (*furigana*) but includes *okurigana* (inflectional kana). From this, it is inferred to have been read as *adikinashi*, a form derived from the ancient Japanese *adukinashi*, a word form not clearly attested in the Nara period (*Jidai-betsu Kokugo Daijiten*: Jōdai-hen).

It is worth noting that this marked the emergence of Japanese-made kanji for expressive words like adjectives and adverbs—categories not seen in the Nara period.

As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ource materials changed, the barriers of parts-of-speech—long maintained by the precedent-based conservatism of writing and orthography—were broken. Detailed information on this character can be found in Harumura Kurokawa's *Sekiso Manpitsu* (1905, edited by Shindo Kurokawa). In that work, *Shōmonki* is cited following *Ruiju Myōgishō*, marking what can be seen as the early seeds of citing usage examples in character history. This work was even cited in the Taisho-era *Daijiten*.

Regarding the dynamics of phase differences: how did characters and orthography within a specific group pass down to later generations?

Transmission through the copying of documents is the most obvious path. While the consistency between *Nihon Ryōiki* and *Konjaku Monogatari* seems inevitable due to their content, it remains possible that the sharing of characters within the Buddhist world (a "character society") simply manifested as

commonalities between documents in later eras.

How, then, did historical transmission occur across social groups, as seen with characters like 円 or 懋? In the Middle Ages, the barriers between aristocratic and Buddhist societies were relatively low. It is likely that some individuals caught glimpses of the writing of other worlds; furthermore, personal movements such as entering the priesthood or returning to secular life occurred, making it easy to imagine individuals immersing themselves in different societies and adopting their scripts. Thus, phase-specific characters and orthography must have moved along with individuals.

To simplify, the nearly complementary distribution of the *kai* and *nioi* readings for 匂 can be positioned as a collision of character forms that existed in parallel during the same era (though direct mutual interference was rare). Such phenomena require classification and analysis across a broader range of character types and usage examples.

Changes in political systems often link to changes in social institutions, and if accompanied by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along with the Emperor and nobility, geographical transformation follows. In China, the unification of the state and script during the Qin dynasty, or the chaotic character forms during the Six Dynasties period, have often been explained as self-evident results of social conditions, sometimes bypassing a detailed causal explanation.

In Japanese writing and orthography, we must categorize and examine external stimuli (social changes), the intervention of external script into an individual's internal life (not just government policy, but personal choice), and the internal evolution of the script system itself (which may have multiple causes, such as filling gaps in the system).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phase differences: characters or spellings necessary within a specific group were created and spread because they were understood internally. Such cases increased in Japan compared to China in later years. It appears there were individuals among the literate class of the Middle Ages who recognized variations in other groups—a recognition of "regionalization" or "stratification."

However, as seen with Ōe no Masafusa, even those who attempted this could not do so accurately. This was likely due to a closed society and an underdeveloped information network reliant on personal experience and rumor. A bird's-eye view, such as we have today, was largely limited until the end of the medieval period due to constraints on information flow.

Finally, some scripts served as codes for maintaining secrecy—restricting the social and communicative nature of characters to the extreme. The 𪛗 character in the aforementioned aristocratic diaries might have been chosen due to an internal conflict: a desire to record suggestive content while wishing to keep it hidden. This type of writing would emerge more explicitly during the medieval and

early modern periods.

3.7. Unclear Origins

The character 畑 *hata* is an example of a character that appeared in response to changes in social and industrial structures. It is thought to have originated from the spread of slash-and-burn agriculture, though the specific social group that first produced it has yet to be identified. This Japanese-made kanji is derived from the Sinitic compound 火田 *kaden*; it is said to have arisen from the spread of slash-and-burn (*hata*) farming as distinct from *hatake* (upland fields). Judging from the appearance of usage examples, it seems to be an ideocoquetic compound (compound ideograph) rather than a ligature based on *jukujikun*. While a document held by Sumiyoshi Taisha (from the "Heian Ibun Full-Text Database") is cited as an example from the ancient period (*jōdai*), definitive examples appear in 11th-century shrine documents and courtier diaries (伊藤 1995, etc.).

畑 also appears in the Jingoji manuscript of the "Map of Kaseda-no-shō in Kii Province" (dated around 1184). Furthermore, the character 𪛗 used in this context was employed in *senmyō* (imperial edicts) and may have existed since the ancient period.

Additionally, while the word *tsuratsura* 'attentively/carefully' has been used since the ancient period, the Japanese-specific meaning assigned to 倩 is said to date from the middle period. Also, a character read as *hanikamu* 'to be shy/bashful', written as 𪛗女氣, is included in the Maeda manuscript of the *Iroha Jiruishō*. In the Heian period, *hanikamu* meant to get angry while showing one's teeth, suggesting this character may have been created within the human relations of the imperial court.

In contrast to ancient Japanese-made kanji and Japanese-specific meanings, which primarily denoted the names of concrete objects, the middle period saw a clear expansion in the semantic domains of such words.

In terms of parts of speech, this extended beyond substantives to include verbs, adjectives (such as emotive adjectives), and adverbs.

Japanese-made kanji / Japanese-specific meanings: > Nouns → Verbs → Adjectives → Adverbs → Interjections ...

In the following era, these expanded further to include "words unique to Japanese prose", such as *sate* 𪛗, 𪛗. During the middle period, character creation methods other than ligatures and ideocoquetic compounds were also mass-produced.

Note that the phonetic borrowing of Japanese-made kanji for use as adjectives or particles occurred as early as the ancient period with characters like 𪛗 and 𪛗, and continued into the medieval period and beyond with examples like 𪛗 and 𪛗.

Summary of Section 3

In the middle period (中古), the primary agents of the Japanization of kanji types, forms, readings, and meanings included aristocrats (including scholars), government officials, Buddhists (including scholars), and Shinto practitioners. The increase in Buddhists was particularly striking, and those involved in Heian Buddhism contributed greatly to the Japanization of kanji. The influence of the rising samurai class in the eastern provinces was also observable.

The linguistic substance of this Japanization included: The successive creation of Japanese-made kanji and Japanese-specific meanings for words representing parts of speech other than substantives. The emergence of Japanese-made variant characters, which were almost non-existent in the ancient period. In the Heian period, the prototype of 円 (for 圓) and the character 〇 (for 輪) appeared.

In Japanese society, almost all imported things undergo a layered process of Japanization over time. Generally, elements diversify in various aspects, taking on synchronic diversity. Even meanings become subdivided, tending to produce differences at a nuance level that include emotive qualities.

4. Historical Phases of Japanese-made Kanji

4.1. Eras (Political History) and Regions (Administrative Divisions) of Emergence

The repertoire of Japanese-made kanji has evolv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era of their emergence. The table below presents typical examples.

Interestingly, the character 柶 *tochi* was long rumored to have been coined by an official during the Meiji period, but it has since been discovered in Edo-period documents. By accumulating such verifications, we might establish "index characters" (similar to index fossils in geological stratigraphy). These could contribute to dating the transcription or copying of manuscripts, much like the traditional study of taboo characters (*hiki-ji*) has done.

Era	Character	Reading	Region	Remarks
Nara	檉	kashi	Nara	
Heian	柶	tochi	Kyoto	
Kamakura	楓	shide	Nara	
Muromachi	柳	nagi	Kyoto	
Edo	柶	tabu	Satsuma	
	柶	tochi	Kumamoto	Found in <i>Kinoshita Gison Nikki</i> , contrary to traditional theories.

Meiji	樗	bendo	Awaji	

Regarding the character 匂, こまつ (1976) proposed a novel "abbreviation of 韵" theory. While this theory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it was ultimately refuted upon verification. This highlights the necessity of prioritizing historical evidence found within philological reality. Rather, we should focus on describing the competition between the kanji 匂 *in* 'to be orderly' and its derivative form 匂.

While one might wish to view Japanese characters and orthography as a unified system, Japanese kanji are so tightly bound to native Japanese words (和語) that individual characters possess a higher degree of individuality compared to Chinese characters. Unexpected factors in various elements can trigger changes, further strengthening the uniqueness of specific characters. Within this system, the more sincerely one observes how elements attract, compete with, or repel one another, the more elusive the overall pattern seems to become. Furthermore, it is evident in both Japan and China that the expansion of the literate class leads to the creation of vulgar characters at both the character type and glyph levels.

Currently, the lack of uniformity in the dots of the shinnyō radical causes meaningless fluctuations within character types. The addition of Kangxi Dictionary forms to the Joyo Kanji list crossed a critical threshold for internal change within the script system, occasionally providing the catalyst for the birth of entirely new (and technically "incorrect") glyphs.

Cases where similar components or glyphs interfere with other characters should not simply be dismissed as "errors." To do so is to abandon the opportunity to analyze the actual dynamics of the script.

At the level of calligraphic style, it is already known that the orientation of the ruling class's handwriting styles—driven by changes in social structure, such as the transformation of aristocratic society giving birth to Wayō and the rise of the samurai society adapting and spreading it as Oie-ryū—prevailed over the characters used, at least within upper-class society.

It will be necessary to address and describe these matters more consciously within the history of writing and to analyze them with precision.

To add a comment regarding writing materials, the hair brush, for instance, likely contributed to the fixation of stroke order to some extent. It has been pointed out in the field of sociology that changes in writing implements gave rise to round characters.

4.2. Kanji That Were Not Carried Over into the Heian Period

Characters like 女感嬌 *wotome* and 霏霏 *tanabiku*, which appeared in the *Man'yōshū* and were attributed to creators such as Kakinomoto no Hitomaro, as well as the character 鏝 (a lost character from Buddhist scriptures used in the

Nihon Shoki), had already ceased to be newly used by the Heian period. Even when they were used, it was only to the extent of being adopted by a few individuals in contexts such as waka poetry.

On the other hand, some characters were carried over after the Heian period. 霞 *kasumi* is still considered to be Kakinomoto no Hitomaro's usage in the *Man'yōshū*, yet it remains today and has become a commonly used character. 𪛗, a variant of 氏 used in Northern China during the Six Dynasties period, is also a lost character found in epigraphs. Even today, it appears in Japanese history textbooks in the name of the Emishi leader 阿弖流為 *Aterui* and remains in the notation of particles in the main text of Shinto prayers (*norito*), having transformed into a phase character across various societies and settings.

4.3. Research Methodology Prioritizing Specific Textual Examples

I intend to continue using a research methodology that prioritizes specific examples from actual documents. Amid the progress of digitalization, it is easy to look up information in dictionaries or electronic texts, but searching meticulously and directly from paper remains the most reliable method. However, this requires energy, time, willpower, and keen eyesight.

One occasionally sees research that concludes by merely presenting the glyph of a kanji, but as a study of characters used to denote language, this feels regrettable. What lies behind that glyph? Why was that character form born? And which word is it connected to? In most cases, the word exists first, so it is necessary to delve into why it was expressed with that specific glyph and whether there was an attempt to represent differences in word forms through different glyphs. I once preferred capturing glyphs myself, but now my interest has turned toward the words themselves, and I strive to maintain a perspective that considers how characters and words are linked, as well as the psychology of the people involved and the surrounding social environment. I have come to feel this way even regarding character forms, glyphs, and calligraphic styles.

In the Kanchiin manuscript of the *Ruiju Myōgishō* (14th century), considered a transcription by a Shingon monk of the Kamakura period, the section on the "foot" radical in the first volume contains a character read as *fumoto* or *hagi* (this *hagi* likely meaning the shin), created by adding a "foot" radical to the Japanese-made kanji 辻. This is an example of what appears to be the secondary utilization of a Japanese-made kanji. However, since the character 趾, which is also glossed as *fumoto*, carries the meaning of 'foundation' or 'origin,' it is possible that ideographization through secondary interpretation occurred from there. Many examples can be found in the *Ruiju Myōgishō* where rare characters from the *Man'yōshū* (likely included from the *Shinsen Jikyō* or *Longkan Shoujing*), such as 𪛗足昆, are listed.

閑, inherited from the *Longkan Shoujing*, became a lost character and eventually transformed into a regional character. Such points drive home the importance of dictionary research. Furthermore, in works like the *Iroha Jiruishō* and *Ruiju Myōgishō*, a character appear with over 100 types of readings. Analogous readings such as the on-yomi *haku* for 畠 could be called Japanese-made Sinitic readings, but it remains necessary to continue investigating how terms like 田畠 found in medieval and middle-period documents were actually read.

5. Conclusion

In the above sections, I have discussed the Japanization of kanji during the ancient (上代) and middle (中古) period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eras identified through my research. While there are many continuous phenomena, distinct "fault lines" were confirmed in aspects such as the components and structure of characters, as well as the parts of speech of the words assigned as kun readings. At the same time, future challenges have been identified, including the elucidation of the reasons behind individual character creations and the actual state of their transmission.

Guided by the achievements of great predecessors, I have advanced my description and analysis based on the manual collection of examples, their organization into cards and papers, the memories of various paper materials as I saw them, and searches through the latest databases complemented by verification via web images. This re-examination of the Japanization of kanji in the Heian period following the Nara period has allowed me to advance my considerations through significant re-investigation, marking my first concentrated effort to summarize this history since my master's thesis on the general history of Japanese-made kanji.

It is anticipated that generative AI will eventually take over the foundational aspects of such work. However, for the time being, AI remains utterly powerless in this field, often presenting false authorities and fabricated texts. Just as humans—sometimes even those in research positions—disseminate fake news, AI is prone to similar errors. I believe that if researchers continue to sincerely investigate, work, and deliberate one by one and publish their results for a while longer, machines will learn from these accurately and eventually become capable of performing precise tasks without omission.

Truth leads people to happiness. For that very reason, we must continue the empirical pursuit of facts regarding phenomena and their backgrounds. Initially, I found kanji themselves to be fascinating (approaching the level of a collector's mania), but my interest has gradually expanded to include language, the humans who create, use, and read it, and the society they constitute. Regarding the

ancient world, I hope to uncover the truth about the depths of the human heart concerning characters and orthography, just as we do for the modern era. Naturally, however, introspection is largely ineffective, and both mentions in literature and records of the phenomena themselves are scarce. In this sense, descriptions such as those by Sei Shōnagon, which express internal character and orthographic sensibilities, seem precious. It should be possible to connect ancient and modern people through the minimal common ground of being humans who manipulate the same materials of language and characters. Nevertheless, since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ir environments and backgrounds, one must be cautious, as easy analogies regarding the positioning of things like "secret dots" (秘點) or "secret readings" (秘訓) can lead to assumptions and misunderstandings.

Connecting dots from the past allows one to draw a straight line, but as intermediate dots are found, the line approaches a curve. As dots increase, they become a surface, and then a three-dimensional object, making it appear as though history has been painted more exquisitely. In reality, however, there are surely things that should be drawn with broken lines rather than those that can be connected by straight ones. Regarding characters and orthography, even modern phenomena are overflowing with things we do not know or understand. There are things I have only recently noticed myself, and I am reminded of my own incompleteness every day. While I do not know to what extent it will benefit the world, there is a proverb that says "start with yourself" (kai yori hajimeyo); thus, I intend to continue questioning what I have been able to elucidate, as well as the things I have noticed as a way of raising issues, in various forms.

(Please refer to the original Japanese text for references.)

고대 일본에서 한자의 자의 변화와 자종의 창조

사사하라 히로유키 (와세다대학)

0. 머리말

귀 학회 설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한자의 일본화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그에 앞선 한국에서의 한자 수용과 변용에 대해서도 주목해 왔다. 2017년 2월 1일에 당시 이견식 회장(단국대)의 추천을 받아 귀 학회에서 특별 발표를 국립경상대학교 통영 캠퍼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상대(上代)에서의 일본제 한자의 제작과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구두 발표를 했습니다. 학술대회장에서는 여러분으로부터 따뜻한 가르침을 받아 감사하는 마음을 깊게 가졌습니다. 그 후 개고를 거쳐 같은 해 8월에 『구결연구』 39호 43-86쪽, 번역 87-128쪽에 「상대(上代)의 일본제(日本製) 한자(漢字)의 제작과 사용: 그 이전의 역사와 전개」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학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서술할 고대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한국의 영향이 있었다고 추측되는 사항이 다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신다면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오늘은 한자 사용에 있어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 사이의 단층, 중고(中古)에 나타난 자종·자체·자의라는 조금 큰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겠다.

1. 머리말

상대(나라 시대 이전)에서 중고(헤이안 시대)로 들어서면, 사용되는 어휘 외에 소위 상대 특수 가나 표기법이 소멸로 향하고, 발음도 어두 자음 p음이 양순 마찰음으로, 문법도 조사 ‘유(ゆ)’는 ‘요리(より)’로, 조동사 ‘라유(らゆ)’가 ‘라루(らる)’에 흡수되는 등 언어에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그 원인으로는 지리적, 역사적, 위상적인 차이 등이 꼽히고 있다.

문자·표기 면에서도 카타카나, 히라가나가 성립하는 것은 일본어학 분야에서 깊이 논의되어 왔으나, 사용되는 한자에 자종(字種)·자체(字體)·자음(字音)·자의(字意)의 각 레벨에서 변동이 일어난 것에 관해서는 오음·한음 등의 문제를 제외하면 그리 언급되지 않았다.

헤이안 천도를 계기로 ‘城’에 ‘키(き)’(백제계 어휘)에서 ‘시로(しろ)’(‘山背’에서 온)라는 훈독이 더해졌다고 하는 사실은 그나마 알려진 편이다. 필자는 한자의 넓은 의미에서의 일본화라는 것을 자신의 연구 테마로 삼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헤이안 시대 전후의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실례를 제시하면서 생각을 서술해 가겠다.

여기에서는 특히 자의·자훈의 신조 즉 일본제 자의(국훈), 자체의 신조 즉 일본제 이체자, 자종의 신조 즉 일본제 한자(국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상황을 설명하고 배경에 대해 고찰하

고 싶다. 세상에는 문헌으로부터 개별 사실을 쌓아가는 귀납적인 연구 방법을 중시하지 않고, 현대의 소수 예에서 이론을 설정하여 추론을 거듭하는 케이스가 있으나, 그 결과 일어나기 쉬운 겉도는 논의는 피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언어 사상에 접근하여 성과를 서로 대조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긋남이 생기기 쉽다. 본고에서 다루는 문자·표기에 관한 테마에 관해서는 시대를 불문하고 다수의 실례에 기초하여 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필자는 문헌에 기초한 실증주의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실태 기술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상을 낳는 배경에 접근하기 위해 위상론, 서기론, 표기체론 등도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현상의 정리나 분석을 위해 자체에도 동화, 전도, 충돌 등의 개념을 타 분야에서 도입해 왔다.

최근에는 현대 한자의 운용과 배경에 있는 사회 상황 그리고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도 관심을 품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역사에 대해서는 문헌 연구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헌 조사라고 하면 번역본보다 영인·이미지, 그것들보다 원본을 직접 대하는 것이 정확함을 구하는 데 중요해진다. 필자도 여러 원본 조사를 통해 인쇄물이나 화상에 생긴 차이를 확인해 왔으나, 여기에서는 대량의 문헌을 보여주기 위해 굳이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화상류도 많이 인용해 가겠다.

2. 상대: 아스카 시대·나라 시대(592-794년)

2.1. 상대 한자의 일본화에 관한 필자의 논고

필자는 지금까지 상대 한자의 일본화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글을 정리해 왔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 대략을 적는다. 그러나 헤이안 시대가 되면 석사 논문에서 통사적인 것을 썼지만 그 이후 처음 검토하는 것이 된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를 배워 왔으나 좋은 기회를 얻어 이번에 오랜만에 정리하여 검토를 하게 되므로 꼭 의견을 듣고 싶다.

2.2 변화의 사례와 그 요인

한자는 거시적으로 보면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개방계 및 복잡계를 이루고 있어 그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우선 요소가 몇 개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늘려도 무방하다. 개별 요소가 가진 기능 또한 확장·축소되며, 사용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도 있다. 요소끼리 다양한 수준에서 조합하거나 때로는 분리하는 것조차 가능하다.

이러한 성질을 바탕으로, 우선 한자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제설을 근거로 하나의 분류 틀을 제시하고 해당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나타낸다.

한자가 개인이나 사회로부터 타자에게 전파될 때 여러 유형의 수용이 일어난다. 변화는 접촉의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와 수용 후 시간이 경과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중국	일본	변화의 요소	용어	시작 시기
輸 슈	유	자음	화음(和音), 「하쿠쇼요미」, 관용음	상대
圓	円	자체	일본제 이체자	중고
餅 밀가루제	참쌀제	자의	일본제 자의: 국훈(國訓)	상대
鷗 시기	嶋	자종	일본제 한자: 국자(國字)	상대

한자는 사용된 역사가 길고 표의성이 높은 문자이기도 하므로 다양한 층위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輸’라는 글자는 본래 중국어의 한자음으로는 ‘슈’로 읽어야 했으나, 편(偏) 또는 방(旁)에서 유추하여 읽는 이른바 ‘하쿠쇼요미(百姓読み)’(‘화음(和音)’의 일종)인 ‘유’라는 읽기 방식으로 변화하여 ‘慣用音’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또한 ‘圓’, ‘傳’이라는 글자는 이른바 정자체를 약하여 ‘円’, ‘伝’으로 쓰는 일본제 이체자가 발생하여 마침내 당용(當用) 한자에 채용된 것처럼, 자체 수준에서의 변화가 일어났다.

‘餅’은 ‘모치’라고 읽지만, 중국에서는 ‘빈’처럼 읽으며 밀가루로 만든 식품이지 참쌀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의의 변화도 나라 시대 이전부터 확인되며, 에도 시기부터 ‘국훈(國訓)’이라 불리고 있다.

‘시기’(도요새)라는 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鷗’이라는 한자를 사용하지만, 일본인은 나라 시대부터 ‘嶋’이라는 회의문자로 분류되는 일본제 한자를 만들어냈다. 한자의 요소는 ‘형음의(形音義)’라고 일컬어지지만, 자종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전파와 변용은 일찍부터 이루어져 온 것이다.

2.3. 한자를 개량하다: 용법·자체 수준

‘椿’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츠바키’라고 금방 읽을 수 있지만, ‘椿山莊(친잔소, 역자 주: 도쿄에 있는 정원)’의 ‘친’이라는 음독을 떠올리는 이도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香椿(창춘·시안춘)’이라 불리는 키 큰 나무, 혹은 영험한 나무의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로 등장하지만, 일본에서는 7세기의 음의 목간이라 불리는 觀音寺遺跡 출토 목간에 ‘椿’ 아래에 ‘川(ツ)婆木’(츠바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무렵에 이미 일본제 자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가져왔는지 해명이 기다려진다.

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稻荷山古墳 출토 철검 명문에 ‘首(오비토)’가 있으며, 이는 중국에서의 자의를 일본식으로 바꾼 것이나 야마토 정권 이후 성(姓)으로서 부여되었다. 변체 한문 등으로 불리는 문체에 의한 문장에서 ‘賜(타마후)’, ‘坐(이마스)’, ‘奉(타테마츠루)’ 등의 고유어[和語] 경어에 대해 한자를 대입하여 일본어 어순으로 문자열에 배치하는 것이 7세기의 「法隆寺金堂藥師如来像光背銘」(623년 이후)에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보다 친숙한 것으로는 ‘櫻(사쿠라)’가 중국의 수당 시대에는 앵두나무 혹은 중국벚나무를 가리켰음이 각 방면의 연구에서 밝혀져 있으며, 이는 나라 시대에 일본에서 자생하는 벚나무를 나타내게 된 일본제 자의이다. ‘鮓’, ‘鮓’는 平城京 등에서 목간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 식초 절임이나 젓갈을 나타내는 글자였으나, 일본에서는 ‘나레즈시(역자 주: 어류를 발효시켜 만드는 일본의 보존 식품으로, 초밥의 조상)’ 종류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식품명에는 이와 같이 일본제 자의가 각종 발견된다(‘餅’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한다). 이러한 산물 중에는 율령제에 편입되어 공식적인 표기가 된 것도 있었다(飛鳥資料館 2010 등).

2.4. 일본제 한자의 출현

이러한 한자의 일본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가운데, 드디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현상을 7세기 말 무렵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法隆寺觀音菩薩造像記銅板』(694년)에 ‘鰯(이카루·이카루가)’라는 글자가 나타난다. 이카루가라는 새를 살펴보면 확실히 부리가 뿔(角)처럼 보인다. 다만, 중국산이지만 일본에만 용례가 남은 일존문자(佚存文字)일 가능성이 있는 외에, 중국에도 ‘이카루가’에 해당하는 ‘鴈’라는 글자가 있어 이 ‘冫’ 부분이 ‘角’으로 변화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형성문자를 회의화했다고 하면, 특정 한자에 음보다는 의미를 나타내길 바라는 의식이 이 무렵부터 일본인들에게 품어졌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한자를 토대로 방(旁)을 의부(意符)로 치환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櫻’라는 글자에 대해서도 서술하겠다.

『日本書紀』권44에 따르면, 683년 天武天皇의 명을 받아 境部連石積이 『新字(니이나)』라는 서적을 편찬하게 하는 한자 정책이 시행되었다. 『新字』는 산일되었기에 내용 등에 관한 상세는 불명이며,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의 여지가 있으나, 고고학적·문헌학적으로는 그 무렵부터 한자의 일본제 자의, 일본제 한자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제 자의에 대해서는 ‘鮎(아유)’나 ‘孺(츠마)’ 등 외에도, 乾善彦 씨가 밝혀낸 ‘僂(시노 후·시노부)’가 편(偏)의 부가에 의해 중국제 한자와의 자체 충돌(하나의 자체로 흡수되는 것)을 통해 이 시기에는 아직 드문 동사를 표기하는 한자로 나타난다. 한편, ‘若’은 ‘와카시’라는 형용사를 나타내는 신(神)의 이름에 사용되는데, 이는 중국에서 ‘弱’과 통용되었음을 이용한 일존의(佚存義)임이 알려져 있다.

柿本人麻呂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霞(카스미)’라는 일본제 자의도, 중국에서는 저녁노을 구름이나 저녁노을의 붉은 하늘이라는 기상 현상을 나타내는 글자였던 것을 봄의 ‘카스미(안개/무의)’로 전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제 한자도 앞서 서술한 ‘鰯’에 더해, 『和名類聚抄』 4-3才에서 ‘鰻(토모)’라는 글자에 대해 “『蔣鮐切韻』云鰻<音阜 和名止毛 『楊氏漢語抄』『日本紀』等用鰻字 俗亦用之 本文未詳>”(『蔣鮐切韻』에 이르기를 鰻<음은 阜(한), 화명은 止毛(토모), 『楊氏漢語抄』, 『日本紀』 등에서 鰻 자를 사용함, 속간에서도 이를 사용하나 본문은 미상임))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楊

氏漢語抄』라는 나라 시대에 편찬된 대역 사전이나 『日本書紀』에 출현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栳(카세)’라는 글자는 노리토(祝詞)에 출현하며, ‘厩’라는 글자도 중국의 한자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회의문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𪛗’는 太安万侶의 『古事記』 서문에는 ‘日下’라는 두 글자로 ‘쿠사카’라고 읽는다고 되어 있으며, 아스카 시대부터 명백히 한 글자로 줄여서 쓰이는 합자(合字)가 되었다. ‘쿠사카’라는 단어 하나이므로 한 글자로 쓰고 싶다는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리라. 호족의 성(姓, 카바네)에서 일본제의 속자훈(熟字訓)이 일찍부터 나타났던 셈이다. ‘海老’도 목간에 등장하고 있어, 나라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음이 판명되었다.

2.5. 나라 시대 (710-794년)

2.5.1. 한자 정책

나라 시대에는 이미 한자 정책이라 칭할 수 있는 행위가 복수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지견을 정리해 보면, 우선 ‘賜姓名’ 즉 이름을 부여하는 일이 행해졌다. 예를 들어 和氣清麻呂는 称徳天皇이 증오심으로 인해 ‘別部穢麻呂(와케베노키타나마로)’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기록이 있다.¹ 다만 이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권력자인 천황에 의한 개인적인 처단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藤原不比等 등에 의한 「大宝律令」이 701년에 완성되고, 757년 「養老律令」으로 개정되었는데, 이것들은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면서도 일본적인 내용으로 부분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예를 들어 ‘大輔’, ‘少輔’, ‘助’, ‘介’, ‘弼’ 등은 모두 ‘스케’라고 읽는다(이는 현재까지 인명에 영향을 주었다). 시각적으로는 어떤 직종인지 알 수 있고, 어디 소속인지 알 수 있다. 또한 ‘大丞’, ‘少丞’의 ‘쇼’라는 것은 음독에서 왔으나, ‘尉’나 ‘允’이라고 쓰기도 ‘쇼’라고 읽게 한다. 다른 글자의 음독으로 읽어버리는, 이른바 ‘관용음(慣用音)’이 등장한다. 이 점에서도 일본의 한자는 나라 시대 이전부터 중국 이상으로 자유도가 높았음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훈독에 그치지 않고 음독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713년, 元明天皇에 의해 관리들에 대하여 국명이나 지명에 관한 이른바 「好字二字令」이 내려졌다. ‘大和(야마토)’라는 글자는 본래 ‘和’만으로도 ‘야마토’라고 읽을 수 있었으나, 한 글자로는 중국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大’라는 읽지 않는 글자를 덧붙이고, 의미를 더해 글자를 장식하는 일이 행해졌다. ‘和泉’도 마찬가지로, ‘泉’만으로 ‘이즈미’라고 읽을 수 있는 것에 ‘和’라는 읽지 않는 글자를 장식으로 덧붙인 것이다. 여기서 ‘和’라는 글자가 읽기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장식이 되기도 한 것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곳은 옛날 武蔵国(무사시노쿠니)이었는데, 이 ‘武蔵(무사시)’도 이 무렵에 제정되어 정착된 것이다. 자음에 대해서도 792년부터 「漢音奨励令」이 桓武天皇에 의해 승려들에게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천황 스스

¹ 역자 주: ‘和氣清麻呂’는 ‘와케키요마로’라고 읽는데, ‘和’, ‘清’과 같은 한자의 좋은 의미를 없애기 위해 좋지 않은 의미를 지닌 ‘別’, ‘穢’와 같은 한자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로 권위를 휘둘러 한자의 존재 방식을 변경하는 일이 행해지고 있었다.

2.5.2. 일본제 한자

나라 시대에 어떤 일본제 한자가 있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靱’은 『日本書紀』에서 ‘호무타’라고 읽는 이름도 있었다고 하나, 무구의 이름으로서 『駿河国正税帳』(『天平諸国正税帳』) 등 많은 문자 자료에 등장하고 있으며, ‘厶(사라케)’나 ‘鰐’와 함께 최고층(最古層)의 일본제 한자이다. 그러나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방(旁)이 왜 ‘丙’인가 하는 자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토모’의 상형으로서의 문자(字喻)가 아닌가, 혹은 활을 쏘 때의 ‘핑’ 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설도 제기되어 왔다.

『和名類聚抄』(『和名類聚抄古写本・声点本本文および索引』 『古写本和名類聚抄集成』 등)에 인용된 養老(717-724) 연간에 성립되었다는 『楊氏漢語抄』의 ‘楊氏’는 이미 많은 연구자에 의해 楊胡史(야코노후미토)眞身임이 고증되어 있다(『尊經閣蔵三巻本 色葉字類抄』(1984) ‘新印의 辭’). 楊(陽)胡史眞身은 ‘養老律令’의 찬집에도 참여했으며, 天平 2년(730)에 聖武天皇은 그에게 제자 2명에게 한어를 익히게 하도록 명했다(『続日本紀』 등).

『日本書紀』에는 헤이안 초기 사본의 단간이 남아 있다.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空海 『性靈集』의 뒷면이 이용된 것이었다(杉本つとむ 씨의 유고를 정리하던 중 『定本書道全集』 9가 있어 살펴보고 있을 때, 이런 곳에도 ‘靱’가 있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正倉院 문서도 기적적인 사료·자료군이다. 우리가 눈에 익은 ‘檉(카시)’라는 글자도 나라 시대에 출현했다. 다양한 용례를 수집하다 보면 ‘田邊櫃實’이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한다. 용례를 시대순으로 나열해 보면 739년부터 748년까지는 ‘櫃’이며, 이것은 중국의 ‘교우’라는 한자로 일본에서 ‘카시’라고 읽는 글자이다. 의미는 엄밀하게는 일본제 자의일 가능성이 있다. 750년 이후 이 이름은 일본제 한자로 전환된다. ‘국풍화(國風化)’라고 하면 어폐가 있으나, 이처럼 한자에는 서서히 일본화가 진행되어 온 것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이름이 항상 자필되었던 것은 아니며, 여러 조건도 가미된 서명이기에 많은 증거가 있다면 보다 확실한 것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正倉院 문서(『正倉院古文書影印集成』 등)는 육필이므로 당시의 자형이 세부 필적까지 보존되어 있어 귀중하다. ‘人麻呂’ 등의 ‘麻呂’는 ‘丸’과 동원(同源)이 아닌가 일컬어진다. 702년의 『大宝戸籍帳』을 보면 호적은 해서로 명료하게 쓴다는 규정도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만(자체는 『干祿字書』에 따르면 속자여도 무방하다), 분명히 두 글자의 만요가나로 ‘麻呂’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740년대에 들어오면 유착이 시작되어 1.5글자 정도로 보인다. 두 글자에 가깝게 보이는 것 등 판단이 어려운 것도 있다.

그 옆에 쓰인 ‘万呂’도 조금 합체되려 하고 있다. 이처럼 달라붙기 시작했다는 ‘쓰는 법’의 도중 경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748년의 사경을 살펴보면 한 글자일 만한 자형도 등장하고, 옆의 ‘万呂’라는 것도 1글자화하고 있다. 이것들은 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시대적인 변천으로서 파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살았던 시대가 빨랐던 ‘人麻呂’

는 아직 ‘마로’를 두 글자로 쓰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다만 문헌의 용도, 필기자, 서체, 쓰는 법, 필기 장면, 위치, 이름의 문자열 등도 흔들림의 인자가 될 수 있다.

平城宮·平城京 터에서 출토된 목간에 대해서는 현재 나라문화재연구소 분들과도 과학연구비로 함께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목간고(木簡庫)’ 등에서도 풍부한 문자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와시’는 그 단어가 상대의 이른바 종이 문헌인 『古事記』, 『日本書紀』, 『万葉集』, 『風土記』 등에 등장하지 않지만, 짐표로 쓰인 목간이나 문서에는 세금으로 도성에 헌상된 물품 등으로 등장한다. 물고기 부수(魚)에 ‘弱’으로 ‘鰯’이며, 만요가나 표기를 거쳐 어원에 입각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鰯(시기)’, ‘杣(소마)’는 회의문자이다. ‘하얀 논’이라는 뜻의 ‘白田’이라는 한자어가 있으며, ‘白’과 ‘田’을 결합하여 ‘畠(하타케)’가 되었다. 또한 ‘匂’라는 글자로 보이는 것도 출토되고 있는데, 이 ‘匂’는 나중에 자세히 다룬다.

일본에도 금문(금속에 주조되거나 새겨진 명문)이 있었다. 현재에도 사실 맨홀 등 금문이라 부를 만한 것은 있으나, 다른 생생한 문자 자료가 풍부하게 있는 가운데 있어서 문자로의 가치는 잃어가고 있다.

나라의 「粟原寺 鑪盤銘」(715년경 大和談山神社 소장 『古京遺文』)에서 ‘檉村谷’을 볼 수 있다. 이 ‘檉’는 한자 ‘樺’을 토대로 한 것이리라. 그야말로 모필의 선이 아니다.

2.5.3. 서기 소재·전달 매체(미디어)와 자종

넓은 의미에서의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서기 소재, 전달 매체와 자종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본다. 상대(上代)는 물건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자료상의 제약이 있다. 문서는 전세품(伝世品)이 대부분인 반면, 목간은 반대로 전세품은 극히 드물고 출토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양쪽 모두 당시의 육필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세 서적은 헤이안 시대 이후의 사본들뿐이다.

『古事記』 남북조 시대 이후의 사본

『日本書紀』 헤이안 시대 이후의 사본

『万葉集』 동일

『風土記』 동일

이러한 상황이 아쉽지만, 사본일지라도 남아 있는 이상 정보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각 사용어에 치우침도 있어,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檉’는 비교적 다양한 미디어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鰯’나 ‘鰩(카스카이)’는 매우 적다.

그 밖에 『和名類聚抄』(承平 연간 931-938년)에 인용된 상대의 『弁色立成』 『楊氏漢語抄』(모두 逸文)도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토기에만 나타나는 문자라는 것도 등장한다(후술). 그러한 것에도 문자사적인 의의는 있으며, 예를 들어 중고의 토기에는 히라가나를 연습하는 문자 학습·문자 생활의 일단 등을 엿볼 수 있어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전술한 현대의 맨홀 종류에 주조된 글자도 소재 면에서 보면 금문이라 할 수 있으나, 문자의 자료적인 가치는 전무하다고 여

겨지고 있다(실제로는 존재한다).

2.5.4. 한자권과 국자의 전 단계

거시적으로 한자권 내에서의 국자의 발생에 대해서도 개요를 파악해 둔다. 일본에서는 ‘하타케’와 ‘타(土보)’는 단어로서 구별된다. 나라 시대의 일본에서 쌀 이외를 수확하는 농지는 ‘하타케’라 불리고 있었다(‘畑’는 헤이안 시대 이후에 나타나지만, ‘하타’라고 읽혔다). 지금도 ‘北畠(키타바타케)’ 씨와 ‘田畑(타바타)’ 씨 같은 구별이 남아 있다. 중국에서는 그러한 구별을 하지 않고 모두 ‘덴’이라고 했다. 다만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水田’, ‘白田’, ‘火田’이라 불렀고, 한국에 전해지자 ‘水田’은 세로로 합쳐져 한 글자가 된다(木村1996은 화북에 발달한 중국 문명의 영향을 시사한다). 최근 백제의 목간에서 ‘畠’이 출토되었다고도 하나, ‘畠’으로 보기에는 ‘白’과 ‘田’ 사이에 여백이 넓게 있어 아직 단정하지 않는 편이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글자의 배치 상태나 문 의(文意), 다른 전세·출토 자료를 통한 검토가 기다려진다. 이런 부류는 ‘奈末(나마)’ 등의 골품(계위)이나 연호 등에서 보이며, 犬飼隆에 의한 ‘쓰는 법’의 문제로 보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晉代の 「夏金虎墓誌」(李2023上 p39)는 가로세로 패선이 격자를 만들지만, 그 한 칸 안에 1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2자(‘夫人’, ‘廿二’, 연호인 ‘太元’ 등 한 단어 등 비교적 정리가 된 획수가 적은 문자열)도 쓰여 있으며, 또한 격자 밖으로 비어져 나가는 일도 일어나 관직명인 ‘少府卿’ 등에서는 한 칸에 1.5자 정도의 쓰기 방식도 보인다.

물론 사전에 실리지는 않았으나 중·한·일에서 사용된 글자는 ‘棕’, ‘瓠’(후술), ‘𦵑糸夾頁’(동일) 등 존재한다.

‘火田’은 한국에서는 두 글자 그대로, 일본에서는 한 글자가 되었다. 또한 본고에서 말하는 중국은 주로 중국의 정치적·문화적 중심지인 중원 지방을 가리킨다.

2.5.5. 일본제 자의

나라 시대에는 일본어의 표기 소재가 아직 한자밖에 없는 문자 환경에서 만요가나에 의한 표기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훈독이라는 방법에 더해 응용을 가하는 행위가 늘어난다. 한문의 훈독에서 생긴 훈[訓讀み]는 일본제 자의를 낳는 기반이자 그 커다란 원천이 된다. 예를 들어 ‘疊(타타미)’라는 단어와 글자의 의미가 일본화되어 가는데, 나중에 寢殿造(신덴즈쿠리, 역자 주: 헤이안 시대의 귀족 주택 양식)에 의해 물건으로서 개량되어 감에 따라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에도 변화가 진행된다. ‘袴(하카마)’도 중국과는 다른 일본 독특한 의복을 나타내는 용법이 나라 시대에 나타나 실물의 변용과 함께 자의도 옮겨간다.

일본어학계에서는 단어의 역사를 문화·사회적 배경과 함께 기술하는 ‘어지(語誌)’라는 스타일에 의한 묘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와 유사한 기술은 문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필자는 ‘자지(字誌)’라는 장르를 제창해 왔다. 한화사전(漢和辭典)에는 자지를 충분히

반영한 기술이 아직 적고, ‘자지’에서 묘사되는 세계와 한화사전의 기술이 괴리되어 있는 현상도 여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의 한화사전은 메이지 이후 기본적으로 한적(漢籍)을 읽기 위해 한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사전인 것이다.

2.5.6. 일존문자(佚存文字)

‘일존서(佚存書)’라 불리는 서적이 『遊仙窟』 등에 의해 알려져 있으나, 중국산이었지만 일본에만 용례가 남은 ‘일존문자’라는 것도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人麻呂의 조자(造字)라고도 일컬어진 ‘霰(비)’라는 글자도 육조 시대의 묘지명에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日本書紀』의 ‘鏤(에이)’나 『播磨国風土記』의 ‘欄(타나)’, 또한 『新撰字鏡』 등에 실린, 소고에서 검토한 ‘屎(츠비·쿠보)’라는 글자도 당대白居易의 동생인 白行簡이 부(賦)에 사용했던 글자였다.

또한 『万葉集』 권12(元暦校本 등)의 2991번 노래에 등장하는, 이른바 희서(戲書)로 알려진 ‘馬声蜂音石花蜘蛛荒鹿(이부세쿠모아루카)’에서는 ‘蜘蛛’가 아니라 ‘蜘蛛’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蜘蛛(쿠모)’는 한화사전 중에 실린 것이 있어 그것만으로도 감탄할 만한 부분이나 국자(國字) 마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다른 곳에서도 일본제 한자라고 일컬어져 왔으나 용례 확인 부족에 의한 오해이며, 중국 측에서는 사실 한적이나 불전에 종종 출현하던 글자였다. 예를 들어 『梁昭明太子文集』(「四部叢刊」 初編中 第595冊 景烏程許氏藏明刊本)에 사용되었음이 밝혀져 있어 이것도 일존문자나 다름없었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 한화사전에는 그러한 오류나 유루(遺漏)가 이따금 있는 것이다.

또한 명사 ‘히사고(호리병박)’를 의미하는 ‘匏’와 그와 동의어인 ‘瓠’에도 초두머리(++)가 붙는 경우가 있었다.

匏	710년 이후	平城京	목간
	752년	正倉院	문서(『天平諸国正税帳』 등)
瓠	734년	正倉院	문서
	745년	平城宮	목간

‘匏’, ‘瓠’는 상대에 사용이 보이는, 부수 부가 방식의 이체자이나 중국의 문서에서도, 한국의 목간에서도 보인다. 사전에는 실리지 않았으나 중국·한국·일본에서 각각 사용된 일존문자(자체)이다.

『篆隸万象名義』도 의의 있는 사전이기는 하나 당시 존재했던 모든 글자를 신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다. 그러한 편찬은 누구도 할 수 없었으며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자도 한화사전도 그런 것이다.

위의 편방 부가가 이루어진 자체가 더욱 구성 요소와 배치를 바꾸어 ‘𪛗++袴(츠는 츠)’라는 일본화 이체자가 된 사례도 762년의 正倉院 문서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일존문자 등의 용어에 대해 서술해 둔다.

한자를 연구할 때 글자의 출처를 밝혀내고 그것들을 준별하는 것은 글자의 역사와 조자의

의도 및 언어와 의식의 차이를 기술하는 데 필수적이다. 필요한 개념에는 술어를 마련하지 않으면 연구자들에게도 개념이 공유되거나 의식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일존문자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덧붙여 글자의 출처에 관해서는 자원(字源)까지 가면 해명을 위한 학문적으로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방책이 없기 때문에 어원과 마찬가지로 안이한 고찰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체·자형은 종종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구별이라는 것을 전제적인 근거로 이야기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출처의 문제와는 사정이 다르다. 의식에서의 구별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실제 사용자의 의식에는 거의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규범화된, 다양한 자형을 가진 ‘쑤’의 케이스 등 규범을 알고 의식의 건전화를 위해 변혁을 요구하는 상황을 어떻게 정합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2.5.7. 상대의 일본제 한자·일본제 자의의 혼독 품사(명사)와 의미 분야

상대의 일본제 한자·일본제 자의의 혼독의 문법상 품사(명사)와 의미 분야에 대해서는 도구·의복 등 명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이다. 나라 시대의 일본제 한자·일본제 자의라는 것은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禪(치하야)’나 한자 ‘蔓’, ‘蔓’, ‘縵’에서 온 ‘籬(카즈라)’, 한어 내지는 자음어 ‘半插’이 혼독이 된 ‘櫟(한자후)’, 복수의 직능 집단에 위상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鋸(카스카히)’, 헤이안 시대에 유희인 편계(偏繼) 같은 장면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鑑(후키)’ 등을 들 수 있다. ‘坏(츠키)’는 ‘杯’에서 편의 치환이 이루어진 이체자로 일본제 자의가 아니라 중국제의 자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樋 ひ とひ

枂 あふこ

梶 かぢ

構 くれ 【樽】는 그 약자

畳 たたみ

袴 はかま

또한 昌泰 연중(898~901년)의 승려 昌住의 『新撰字鏡』 『臨時雜要字』 『田畠作章』에 나타나는 ‘畠(하타케)’나 직능 집단의 용자(用字)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柚(소마)’ 등의 지세·산물, ‘姊(세)’ 등의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것에는 복수의 선행 연구에 의해 사용과 배경이 검토되어 있다.

국명에서는 일본 또한 나라현의 大和를 가리키는 ‘和’(전술)는 본래 중국인이 ‘倭’라는 글자를 대입해 온 것이다. 일본 한자음이 같은 ‘와’인 것에서 보다 좋은 의미를 구하여 나라 시대 중에 ‘和’로 대용하게 된 것이며 이른바 가차이다. 고유어로 ‘야마토’라고도 혼독한다.

인명에 사용되는 ‘麿’는 『続日本紀』 사본 등에 나타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만요가나에

의한 ‘麻呂’가 점차 좁혀 쓴 형태가 되어 마침내 1자화된 합자이다(笹原2006). ‘마로’는 다른 1자 표기도 많기 때문에 山田孝雄이 추측한 ‘한 단어는 한 글자로 쓰려 하는 의식’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명(神名)에 대해서는 蜺貝比壳의 ‘蜺(키사)’(상부를 ‘刻’ 등으로 하는 異文도 있다)는 일본제 한자인 듯하다. 또한 ‘靄(오카미)’이나 ‘靈(메)’라는 글자는 『玉篇』에 나타나는 한자를 상대의 史(후히토)나 도래계 인물 등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고유어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 대입하여 사용한 것이다. 자면의 표의성에 기초한 표현력을 추구한 결과일 것이다.

음식 이름이나 동물 이름에도 일본제 한자·일본제 자의가 나타나고 있다. 덧붙여 ‘餅’은 ‘모치히’라는 것이 상대의 통상적인 읽기 방식이다.

식물 이름인 ‘栲(토코로)’는 ‘도코로마(역자 주: 마의 일종)’라는 뜻으로 속자훈의 표기가 ‘海老’와 쌍을 이루고 있다. ‘櫛(츠키)’는 한자 ‘櫛’의 초서체에 기초한 잘못된 회귀 내지는 회 의화에 의한 자체이다. 자체의 일본화라고도, 고유명사 전용이 되어 음독을 잃었다고 보면 일본제 한자라고도 할 수 있다. 불전에서는 ‘罐’의 이체자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일본제 이체자로 보인다.

‘俣(마타)’도 마찬가지로 한자 ‘俣’가 변형되어 ‘俣’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자체는 중국에 별개의 글자(俣)로 존재하고 있다.

도구·의복	일본제 한자	櫛(한자후), 鋸(카스가히), 鑢(후키), 褌(치하야), 褌(카즈라·카츠라)
	일본제 자의	坏(츠키), 櫛(쿠레), 櫛(히 토히), 杓(아후코), 櫛(카지), 畳(타타미), 袴(하카마)
지세·산물	일본제 한자	畠(하타케), 杣(소마)
인간관계	일본제 자의	妹(세 친한 남성 여동생의 짝)
국명	일본제 자의	和(와, 야마토)
인명	일본제 한자	磨(마로)
신명(神名)	일본제 한자	蜺(키사)
	일본제 자의	靄(오카미), 靈(메)
음식·동물명	일본제 한자	鰯(시기), 鰯(토키), 鰯(이와시), 鰯(하라카)
	일본제 자의	餅(모치히), 鮓(스시), 鮓(스시)
식물명	일본제 한자	櫛(카시), 櫛(츠키), 栲(토코로)
	일본제 자의	萩(하기), 櫻(桜)(사쿠라)

덧붙여 ‘鵠(토키)’는 자형이 유사한 한자의 자체인 ‘鵠’ 등에 흡수되는 케이스도 발생한다.

전술한 ‘鰯(이와시)’는 만요가나에 의한 표기에서 이 회의문자(형성문자를 겸하는가)로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인이 사용한 표기이며 율령격식 종류에 실린 결과였을 가능성도 있다.

2.5.8. 일본제 한자의 위상

이와 같은 일본제 한자에 대해 사회 집단이나 장면에 따라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거나 하는 위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鰯(카스가히)’는 나라 시대부터 문서나 목간 등에 출현하지만 唐招提寺 문서에는 ‘糟釵’라고 쓰여 있음이 알려져 있다. 다만 별개의 물건인지, 작자·사용자 집단에 따른 사용 자종의 차이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源順『和名類聚抄』高山寺본 권10에는 ‘拳鰯(아게카스가히)’가 「功程式」(헤이안 초기)에서 인용되어 있으며, 율령격식에 채용된 일본제 한자였다. ‘鰯’ 등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또한 『万葉集』에도 개인 문자, 『風土記』나 문서에는 지역 문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글자가 사용되고 있어, 상대는 현존하는 자료가 적지만 문자사에서 많은 가능성을 느끼게 할 만큼 상대의 문자는 이미 다원성이나 국지성을 가지고 있다. 중층을 이루기 쉬운 일본 사회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현상이 요소가 되고 그것들이 각종 변화를 촉구하는 인자도 되어 간다. 필록자, 서사자가 메타적인 독자가 문자 체계 내에서 유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상정함으로써 요미가나가 없는 조자를 이용하는 표기 자세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일본제 한자·일본제 자의를 낳은 식자층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상대의 식자층에 대해서는 우선 史(후히토) 등 서기라는 집단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鰯(토모)’와 같은 무구에 대한 글자는 史(후히토)가 제작했다 하더라도 곧 그것을 실제로 도구로 사용하는 무인 등 직능 집단이나 귀족(귀족·승려 중에는 학자도 많았다)도 사용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나아가 조자의 가차에 응용되거나 『和名類聚抄』高山寺본 등에서 지명에도 복수 사용되고 있듯이 고유명사에도 정착하기까지 어떤 단어를 표기하기 위한 용자로서의 일반화가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신명(神名) ‘鰯貝比壳’의 ‘鰯(키사)’라는 글자에는 이문(異文)이 복수 있는데 史나 신도가가 만든 글자가 아닐까. 다만 사본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사용된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면이 있다. 『万葉集』에 빈출하는 ‘鰯(카즈라·카츠라)’라는 일본제 한자는 가인(歌人)인 귀족에 의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袴(하카마)’는 물건의 질적인 변화에 따라 글자의 의미도 변화하여 일본제 자의가 된 것이다. 어떤 종류의 직능 집단 장인이 만든 글자·의미일 것이며 그것은 하급 귀족인 관인이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2.5.9. 부적[呪符] 특정 단어와의 결합(독법)을 가지지 않음: 문자성의 결여

상대의 문자 문화를 채색하는 것으로서 ‘我念君·君念我’라고 쓰인 ‘부적’이 있다(『日本の美術』 6 등). 이것은 에도 시대 서적에서 상대와 헤어지고 싶을 때 쓴다는 의미를 가진 부적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정설이 되어 있었으나, 도래인이나 견당사 내지는 도래품에 의해 전해진 길상문적인 부(符)였다는 사실과 그 후의 경과가 밝혀져 있어 당대·나라 시대 무렵부터 무로마치 시대 무렵까지는 그러한 효과가 기대된 것이었다(笹原2016, 吳2022). 공경(公卿)인 藤原良相(요시미·요시아우·요시스케, 813-867년) 저택에서도 ‘我念君’의 ‘합자(合字)’가 기록된 묵서 토기가 2009년 조사에서 발견되었다(乾2013).

문자의 정의는 서양 언어학의 음성 중심주의에서 태어났으나 실제로는 한문의 독해나 읽지 못하는 글자의 전사(轉記) 등의 서기 행위나 임서(臨書) 등 음성 언어에서 유리되어도 한자는 존재하며 의미 전달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2의 요약

한자의 자종·자체·자의의 일본화의 주역은 史·신도가·학자·가인을 포함한 귀족이나 장인을 포함한 관인, 그 외에는 불교도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일본화의 내실로서 일본제 한자는 명사(가차 용법 제외), 일본제 자의도 대부분이 명사를 표기하기 위해 산출된 것이었다.

3. 중고: 헤이안 시대 (794-1185년경)

794년 桓武天皇에 의한 헤이안 천도로 나라 시대가 끝나고 헤이안 시대가 시작된다. 약 4세기간에 걸친 이 시대의 초기 부문에 대해 小島憲之는 ‘국풍 암흑시대’라 칭하기도 했으나, 이는 실태를 반영하는 현존 자료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다양한 문화의 ‘국풍’화는 상징적으로 菅原道真的 건의에 의한 894년 견당사 폐지 무렵에는 더욱 강해졌으며, 이른바 국풍 문화가 발전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귀족 사회, 신도 사회, 불교 사회, 음양도 사회, 동국 사회 등 사회 집단별로 어떤 문자가 출현하여 사용되는 상황과 그 용법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한다.

3.1. 연구 대상 자료

여기서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는 서적, 『漢語抄』나 『小学篇』 등을 비롯한 사전, 문서, 목간(수량이 감소함), 토기, 도기, 금석기 등이다.

3.2. 자지(字誌)

특정한 글자나 그 용법에 초점을 맞추어 귀족 사회, 신도 사회, 불교 사회, 음양도 사회,

동국·무가 사회 등 문헌 출현이 확인되는 사회별로 분류하여 검토해 나간다.

단, 당대에는 귀족(공경)과 사찰 등 각 사회 간의 구분이 불명확한 것도 있다. 또한 종교 사회에서는 신불습합이 상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안에서 주술 사회의 위치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지역 사회는 상대부터 지역적인 사용 문자(지역 문자·방언 문자, 자종, 자의, 용법)를 싹틔우고 있었으나, 중고에서의 의문 사례를 거쳐 중세에 이르러 양산되게 된다. 또한 장인 사회는 일부가 귀족 사회의 말단에 속해 있었다. 도검 제작자 사회는 가마쿠라 시대부터 위상 문자를 사용하지만 사찰과의 관련이 깊었다. 그 외 직종별 위상 문자는 중세에 문헌과 함께 여럿 노출되게 된다.

3.2.1. ‘勾’의 사적 전개

사례 연구로서 ‘勾’라는 글자의 사적 전개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소개한다. 단, ‘勾’에서 ‘勾’로의 자체 변화와 정착은 경필(硬筆)에서는 실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勾’는 16년 전 상용 한자표에 추가되어 현재는 일반적인 일본 한자가 되었으나, 일반적인 중국인은 이런 글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法苑珠林』 권56이나 『一切經音義』 권81(高麗藏, ‘SAT’ 등) 등 중국 불전에 나타나고 있다. ‘勾’ 안의 ‘ㄷ’ 부분은 마지막 획을 빠치지 않은 자형이 대부분이며, ‘ㄱ(카이)’ 즉 ‘勾’라는 글자의 이체자로 종종 등장했다. ‘揭’나 ‘葛’ 등도 마찬가지로 자체의 변이로서 부속 요소를 ‘勾’로 쓰는 이체자가 있다.

오대(五代) 불전의 음의서인 『新集藏經音義隨函錄』에는 ‘勾(ㄷ 빠치지 않음)’가 ‘ㄱ(카이)’의 이체자로서도, 또한 ‘勾(인)’의 이체자로서도 나타나고 있다(鄭2023 등). ‘ㄱ(카이)’의 이체자 쪽은 ‘ㄷ’의 왼쪽 아래 부분이 꺾여 쓰여 있고, ‘勾(인)’의 이체자 쪽은 왼쪽 아래 ‘ㄷ’ 부분이 곡선적으로 휘어져 있으나 이는 우연일 것이다. 자체의 ‘동형 충돌’(동자체 충돌)이다.

요대(遼代)의 불경 자서인 『龍龕手鏡』 고려판(이 판본이 요대의 고태(古態)를 가장 충실히 전한다고 여겨진다)에는 ‘勾(ㄷ 빠치지 않음)’가 ‘ㄱ(카이)’로서 게재되어 있다. ‘고려대장경’에도 ‘勾勾’이라 되어 있다(『高麗大藏經異體字典』).

나아가 何2004에서는 돈황본 『勵忠節鈔』에서 ‘均’의 방(旁)을 ‘均’처럼 쓰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출전은 스타인 장래 회화 자료 1441번이라 되어 있다(실제로는 1141번 『敦煌寶藏』 권10). 이는 나라 시대 『新訳華嚴經音義私記』에서도 보인다.

덧붙여 일본에서는 지금도 ‘葛’, ‘揭’ 등에 ‘勾’가 나타난다. 나라현의 葛城市는 당시 JIS 한자의 대표 자체에 맞추어 약자를 시 이름으로 채용했다.

일본에서도 『日本国現報善惡靈異記』, 통칭 『日本靈異記』(야마토 藥師寺에 살며 延暦 14년(795년) 伝灯住位를 얻은 법상종 승려 景戒가 弘仁 13년(822년)에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불교 설화집)의 興福寺本(헤이안 중기 사본, 904년)²에서 ‘勾’이라는 글자의 이체자로서 ‘勾(ㄷ

² <https://dl.ndl.go.jp/pid/1115790/1/6>

빠치지 않음)’를 볼 수 있다.

‘𪛗(카이)’(구하다, 빌다)라는 글자 안을 ‘亡’으로 쓰는 이체자 ‘𪛗’이 있고, 이것이 더욱 변화한 자형이라 할 수 있다. 불교 사회에서 ‘𪛗’는 ‘빌다(乞う)’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였다.

空海 역시 마찬가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空海 『篆隸万象名義』(『弘法大師空海全集』 제7권)³에는 ‘𪛗(카이)’(𪛗 등)와 ‘𪛗(인)’이 모두 게출되어 있다(空海의 찬술 부분이 아닐까). ‘홍법대사도 붓을 잘못 놀릴 때가 있다(弘法も筆の誤り)’가 아니라, 중국 불전 등에서의 위상 자체이다.

6첩 162才 𪛗 (𪛗 빠치지 않음)

161ウ 𪛗

단, 참조된 원본 계열 『玉篇』의 잔권은 一·二·三·四·五 모두 현존하지 않는다.

궁내청 서릉부 소장 『新撰字鏡』 天治本 권5에도 ‘𪛗(카이, 𪛗 빠치지 않음, 非作)’와 함께 당연히도 불교적인 문자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𪛗’가 ‘니오히(이)·니오후(우)’로 사용되는 것은 언제부터일까. 표기지(表記誌)는 어지나 자지의 표기 버전인데, 大野1977, 三木1982 등에 따르면 『万葉集』에서는 ‘染’, ‘薰’, ‘丹’, ‘艶’, ‘黄’, ‘丹穂’, ‘丹覆’, ‘尼保波’, ‘丹穂葉’ 등의 글자가 ‘니오히’에 대응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만요가나 사용이 많고 정훈자(正訓字)가 적었다고 한다. 어원 의식이나 어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하나, 선행 연구에서는 ‘결함 용자(缺陷用字)’라고 지적되었다. ‘니오히’라는 단어에는 그에 걸맞은 적절한 용자가 없었던 것이다. 점차 후각을 나타내게 되며 의미도 확장되어 간다.

나라 시대의 용례를 찾아보면 『懷風藻』(에도 시대 판본) 등에 ‘芳(호우)’나 ‘艶(엔)’이라는 글자가 있고, 후대 사람들이 ‘니오후’라고 읽고 있다(134에 ‘韵’은 (소리가) ‘울리다’).

또한 앞서 목간의 의문 사례를 들었으나, 正倉院 문서에는 ‘鋸一勾’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𪛗(𪛗 빠치지 않음, 직선적)’로 쓴 것도 있어, ‘勾’의 한 자체로서도 존재했음이 밝혀졌다.

공경이자 가인이기도 한 菅原道真과 그 주변에서 ‘니호히’(헤이안 시대에 ‘밝게 빛나다’는 뜻에서 후각으로 전이)에 대하여 한자 ‘勾’를 대입하여 사용한 것에서 ‘勾’라는 글자가 생겨났다고 한다.

道真라고 하면 ‘こちふかは にほひおこせよ 梅の花 あるしなしとて 春をわするな(동풍 불 거든 향기를 보내다오 매화꽃이여 주인이 없다 하여 봄을 잊지 말아라)’라는 와카가 떠오르지만, 『拾遺和歌集』 권16 잡춘(前田家 소장 浄弁本, 浄弁은 가마쿠라 시대 천태종 승려·가인)에서는 ‘니호히’라고 히라가나로 쓰여 있다.

그런데 『菅家文草』 권12(元禄 13[1700] 발문)에서는 ‘勾(인)’이라는 글자가 사용되었고, ‘花勾’ 등에 ‘トノフ’라는 방훈(요미가나, 후리가나)이 붙어 있다. 道真的 사찬집(私撰集)으로 여겨지는 『新撰万葉集』 京大本(寛文 7년 판)⁴에서는 완전히 자체표기가 ‘勾(𪛗 빠치지 않음)’

³ <https://dl.ndl.go.jp/pid/12268757/1/278?keyword=%E5%8B%B9>

⁴ <https://rmda.kulib.kyoto-u.ac.jp/item/rb00010700>

로 되어 있으며 방훈 역시 ‘ニホヒ’로 되어 있다. 道真 역시 장르와 문체에 따라 표기를 선택한 것이며, 표기체를 의식하여 와카에서는 ‘니호히’를 히라가나로 선택하게 된 셈이나, 각각을 표기한 시기 등 상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꽃이 정돈되다’로 사용된 ‘花匂’이 道真 주변에서 ‘꽃이 향기롭다’는 식으로 바뀐 점에는 의미상 비약이 있다고 보이지만, 그러한 일본제 자의화가 발생했음이 선행 연구에서 고찰되어 있다(三木1982, 菅家の 문자라는 점, 『類聚句題抄』(한시집, 헤이안 후기)에도 『和漢朗詠集』의 헤이안 시대 사본에도 ‘匂’가 있다는 점 등).

867년 ‘讚岐国司解’(有年申文)에 ‘止’의 ‘일본 독자’, ‘아류(我流)의 서법’, ‘위법한 초서체’에 의한 ‘と’가 보인다(小松1968 p84, 고음에 따름).

서도 자료 및 소재로 유명한 小野道風 「屏風土台」(928년, 大江朝綱 924년, 『江談抄』에 기사가 있음)⁵에는 ‘匂’라는, ‘匂’의 뜻을 나타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글자가 사용되고 있다.

『日本名跡大字典』(p162)에는 ‘匂’로서 이 「屏風土台」의 ‘匂’ 이하, 伝藤原行成筆 関戸本 『和漢朗詠集』, 伝藤原行成筆 法輪寺 절첩, 伝藤原行成筆 粘葉本, 伝藤原行成筆 近衛本, 伝源俊賴筆 安宅 절첩(이것은 ‘匂’), 伝藤原行成筆 久松 절첩, 伝藤原行能筆 墨流本 『和漢朗詠集』의 ‘匂’가 게재되어 있고 「屏風土台」의 ‘匂’는 ‘匂’라고 되어 있다. 또한 藤原行成이 썼다고 전해지는 글씨에 ‘匂’라는 글자가 많이 등장한다는 점도 간취할 수 있다.

또한 『和様字典』(p70)에는 伝藤原行成筆 関戸本 『和漢朗詠集』, 伝藤原行成 法輪寺 절첩, 伝藤原行成筆 粘葉本, 伝藤原行成筆 関戸本 『古今和歌集』, 伝源俊賴筆 安宅 절첩, 伝寂蓮筆 「賀茂社歌合」, 伝藤原行能筆 墨流本 『和漢朗詠集』의 ‘匂’가 게재되어 있어, 寂蓮이나 行能 등도 ‘匂’를 사용했다고 여겨지는 점에서도 화양(和様) 서도가들 사이에서 ‘匂’라는 글자가 길러져 온 상황이 시사된다.

그 외 『和様字典』 p107에는 ‘均’을 ‘土匂(ヒ 빠치지 않음)’로 쓰는 흘림글씨(佚名白詩), p486에 ‘鉤’을 ‘金匂’로 쓰는 자형도 수록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헌을 통해 살펴본다. 905년에 상주된 『古今和歌集』과 관련하여 헤이안 고필의 대표적 유품으로 꼽히는 세키도본은 오랫동안 藤原行成이 쓴 것이 아닌가 일컬어져 왔다. 실제로는 11세기 후반의 서사로 생각되지만, 이 권제1 춘가 상 39 紀貫之의 ‘むめの花 匂春邊はくらぶ山 やみにこゆれど しるくぞありける(매화꽃 향기로운 봄날에 쿠라부산 어둠 속을 넘지만 뚜렷이도 알겠구나)’ 노래에 ‘匂’라는 글자가 출현한다(세키도본 『古今集抄』, 일본습자학회, 1958).

이 ‘匂’ 자의 구성은 균형이 나빠 보이지만, 실제로 써 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자형이었을 것이다. 定家 자필의 嘉祿 2년본(1226)이나 為家 자필 발문을 가진 貞応 2년본(1223)에서는 ‘니호후’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에서도 紀貫之 자신은 히라가나로 표기했을 것으로 상정된다.

藤原公経(1099년 沒)이 썼다고 여겨지는 법륜사 절첩 『和漢朗詠集』에 기록된 “金谷酔花

⁵ <https://shozokan.nich.go.jp/collection/object/SZK003024>

之地、花毎春匂而主不歸。南樓嘲(翫)月之人、月与秋期而身何去。(금곡의 꽃에 취한 땅, 꽃은 해마다 봄이면 향기로우나(匂) 주인은 돌아오지 않네. 남루에서 달을 비웃는(완상하는) 사람, 달은 가을과 더불어 기약하나 몸은 어디로 갔는가.)”(菅原文時「為謙徳公報恩修善願文」, 天祿 2년(971년) 4월 29일)라는 한시 속에도 ‘匂’가 사용되고 있어, 11세기경에는 일본제 한자, 일본제 자의를 사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平安 関戸本和漢朗詠集 平安 法輪寺切和漢朗詠集 平安 安宅切和漢朗詠集』「日本名跡叢刊」(83) 二玄社, p55, 85, 匂(ㄷ 빠지지 않음), 권하 斷簡 ‘懷旧’).

앞으로는 이처럼 서도 방면에서 이용되어 온 자료들도 문자 연구에 충분히 활용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이 일본제 한자를 길러낸 화양 서풍에 대해 언급해 둔다.

위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국풍 문화 속에서 화양 서도가 태어났고, 그 안에서 ‘匂’이라는 글자가 자라났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島谷2021에 따르면 중국의 서예는 문자의 구축성이 있어 중후함, 논리성, 강인함 등을 중시하는 반면, 화양 서예는 서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경묘하고 세련되며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선호된다고 한다. 중국 서예에 비해 화양 서예는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유연함으로도 통하며 일본인이 자신의 기호나 미의식에 가장 잘 부합하도록 궁리하여 완성한 것이 화양 서도라고 한다.

또한 가마쿠라 시대 尊円親王의 서론서(書論書) 『入木抄』에 ‘붓은 점차 쓰러진 듯이 되는 법이다’라 되어 있어, 화양 서도는 운필 시 붓이 기울어진다는 점이 고증되어 있다(島谷2021). 붓이 기울어짐으로써 가로획 두 개보다 ‘ㄷ’를 쓰기 쉬운 면이 있는지 여부 등은 향후 더욱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어 자료로 알려진 眞福寺本 『将門記』(1099년 사본, 후술)에도 ‘花之匂ノ散来者(꽃의 향기가 흩날려 오면)’(와카)처럼 ‘匂’(ㄷ 빠지지 않음)라는 글자가 나타난다(『将門記』 勉誠社 영인본 p44, 화양이 아닌 서풍에서의 사용. 眞福寺本 『将門記』(勉誠社), 小林1974 p287, 浅野1983 p377).

사전류에서는 三善為康 『童蒙頌韻』(1109년, 가마쿠라 시대 사본, 1901년 영인) 상권에 ‘眞’, ‘匂(카) 니호히’, 橘忠兼 『色葉字類抄』 前田本 상권(1181년 이전 가마쿠라 시대 사본)에 ‘匂 니호후 니호히’, ‘匂(ㄷ 빠지지 않음) 카오리’라 되어 있다.

여기서 당대(唐代)의 ‘𠂔’(카이), ‘匂’(인)의 이체자로서의 ‘匂’(자형은 빠지지 않은 ‘ㄷ’)의 중고(中古) 전개 개략을 정리해 둔다.

『日本靈異記』	822년경	景戒, 904년 사본 匂 ‘𠂔’(카이)의 이체자로서
『篆隸万象名義』	830년경	空海, 1114년 사본 匂 카이 (匂, 匂 등에서) 匂 인

『新撰万葉集』	893년	菅原道真 문인 추정, 1274년 사본 勻(勻) 인, 道真的 사용(개인문자)을 답습 당시(唐詩)의 ‘정돈되다’를 ‘항기롭다’로 전용 어의(語義): 후각의 의미가 사용의 중심이 되어 간다
견당사 폐지	894년	菅原道真的 건의 이른바 국풍 문화·화양 서도가 융성해져 간다
『菅家文草』	900년	菅原道真的 한시, 에도기의 사본·판본 勻 니호후, ‘카이’와 자체가 충돌 불자로부터 귀족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 용법의 위상차가 발생
『古今和歌集』	905년	紀貫之의 와카, 세키도본 11세기 勻 니호후, ‘카이’와 자체가 충돌
『屏風土台』	924년	大江朝綱의 한시, 928년 小野道風 서 勻
『權記』	1000년	藤原行成의 일기, 가마쿠라 사본 勻 니호후, ‘카이’와 자체가 충돌
『和漢朗詠集』	1013년경	菅家の 한시, 11세기 사본 등 勻 니호후, ‘카이’와 자체가 충돌
『今昔物語集』	1120년경	불교 설화집, 가마쿠라 사본 勻 니호후, ‘카이’와 자체가 충돌

견당사 폐지 건의라는 상징적인 사건과 전후하여 하나의 일본제 자의가 태어나 이체자로 기록되고 자음을 잃으며 일본제 한자처럼 퍼져 나가는 현상에 대해 서술해 왔다. 한적에서 사용된 글자와 자체, 그리고 한문에서 파생된 자의가 이 글자의 사용을 촉진하고 정착으로 이끌었다는 중국의 영향과 일본에서의 응용을 발견할 수도 있다.

또한 불교도와 귀족 사이에서는 위상차가 보였다. 불교도에게는 카타카나 ‘ㄷ’가 ‘勻’에 준 영향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 일본에서 ‘勻’에 음독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점에서도 객관적으로 보는 음독이 사라지면 의식상에서 일본제 한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자와 일본제 한자, 일본제 자의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러한 개별적인 지표적 현상을 모아 나갈 수밖에 없다.

보다 자세히 총괄하자면, 일본에서 전의(轉義)에 의한 국훈(일본제 자의)이 생기고, 원정기(院政期) 무렵 일본어 표기에 중국제 이체자가 쓰이면서 음독이 소멸해 간다. 그렇게 일존자체(佚存字体)가 되어 자음도 사라짐으로써 일본제 한자로 인식되게 된다. 자체의 충돌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 집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중국		일본
불교계 𠂔 카이 → 勾 =		
불교계 등勻 인 → 勾 =		→ 귀족 사회 니오이
‘均’에 통합		

덧붙여 こまつ1976에 의한 ‘韻’, ‘韵’에서 유래했다는 삭의문자(削意文字)설은 이미 여러 학자에 의해 부정되었다.

그와는 별개의 계통으로서 【勾】(ㄷ 빠치지 않음)는 일본에서 상대에 ‘勾’로서 사용되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으며, 간이한 자체일수록 자체 충돌은 발생하기 쉬운 법이다.

이 글자에 대해서는 나아가 위상에 따른 파생적인 자체의 출현이라는 변화에 대해 언급해 둔다.

헤이안 시대 중에 ‘𠂔+勾’와 같이 ‘勾’에 초두머리를 부가하는 자종·자체 수준에서의 파생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西室의 『和泉往来』(1186년 사본, 高野山西南院 傳藏)에서 이 글자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초두머리 글자가 상하로 나열되어 있어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가 모두 겹쳤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불교계에서 보이는 일본제 이체자이지만 일본제 한자에 이차적인 가공이 이루어져 일본화가 진행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중세 이후 자형 수준에서는 ‘勾’의 ‘ㄷ’를 빠치는 일이 생긴다.

속어에서는 등장인물 이름인 고유명사 ‘勾宮’이 『源氏物語』의 사본이나 주석서에 나타난다.

어의는 시각, 후각에서 나아가 청각에까지 확장된다.

독법은 지명이나 성씨에서는 ‘酒勾’에서 ‘와’라는 ‘勾’와 혼동된 읽기, 인명에서도 ‘카오리’ 등이 파생한다. 자종에서는 ‘弓’ 변을 부가하는 등의 조자, 즉 일본제 한자(위상 문자)를 파생한다. 자체에서는 ‘食·食’, ‘忸’(恔), ‘月’(肉 胸) 등의 방(旁)에서 다른 자체의 방에 ‘勾’가 영향을 미쳐 간다. 표기에서는 좋지 않다고 느끼는 ‘니오이’에 대해서는 ‘臭’라고 구별하여 쓰는 경향이 강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勾’는 자체 변화, 자음 소멸, 자의 변화를 통해 ‘국자(國字)’로서의 인식이 결정적으로 굳어져 간다.

여기서 일본제 한자 부류와 히라가나·카타카나 표기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타자의 음성 언어가 먼저 있고 그것을 문자화하는 경우와, 필록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를 쓰는 경우에 문자의 나타남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동사 ‘니호후’의 경우 道真는 와카에서는 히라가나, 한시에서는 한자(일본제 자의)라는 구별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작시 연대 등 추가 검토 필요). 중고는 히라가나나 카타카나만으로

도 문장을 쓸 수 있게 된, 즉 문자종에 의한 표기의 선택지가 확대된 시대이다. 그렇다면 문자종 중 하나로서 상대화된 한자는 자종이나 용법 선택에 있어서도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면치 못했으리라 짐작된다.

한자 가나 혼용문에서는 용언, (표기체에 따라서는) 상언(相言, 역자 주: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의 상당수를 한자로 표기하려는 요구가 엿보일 때가 있다. 그것들에 만요가나를 사용하는 것은 중세 이후의 마나본(眞名本)에서도 드물다. 그 요구에 대해 신규 한자 표기가 필요해져 기존의 자의를 굽히거나 조자를 하여 단어를 표기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했을 것이다.

『今昔物語集』의 결자(欠字) 표기에는 보다 많은 종류의 단어가 보이는데, 이러한 결자 부류를 미연에 방지하려 한 필록자나 서사자도 있었을 것임이 짐작된다. 또한 그때 조자를 하려한 자는 기존 글자와 가급적 차이가 큰 자체로 해야겠다는 배려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표기체에서 일본제 한자·일본제 자의는 어떠한 존재였을까.

일본제 한자, 일본제 자의는 상대에 있어서 사용 빈도수로 치자면 중국적인 한자에 대해 1%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만큼 경향성이나 특징이 있다면 포착하기 쉬운 반면, 개별적인 사정에 좌우되기 쉬운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쉽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상대의 ‘시기’는 한자 ‘鰯’을 사용하면 충분했을 것이나 새롭게 ‘鰯’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조자한 이가 한자를 몰랐기 때문인지, 아니면 한자를 알았으나 굳이 보다 납득할 수 있는 글자를 구했던 것인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다. 한편 ‘모리’에 ‘杜’를 대입한 사람은 ‘杜甫’의 이름이나 ‘杜絶’ 등의 단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어쨌든 이것들은 최소한 언어·문자적 사실로서는 기존 표기 체계 내부에서 발생한 어긋남이나 부정합을 조정·보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어의 표기로서 (보다) 표의성을 추구하고 게다가 음독으로도 읽히는 한시문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고에서의 ‘匂’(니오이)는 위에 적었듯이 기존 표기 체계 내부에서 발생한 어긋남이나 부정합을 조정·보충하는 측면이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일본제 한자·일본제 자의에는 개별성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려면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대에서는 명사 중 물건의 이름을 표기하는 일본제 한자(橋本1949)가 서적 외에 문서와 목간에도 출현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어휘 체계에 주목한다.

도래인이 전했을 훈독이라는 방법이 일반화된 후, 山田1937이 말하듯 하나의 개념인 명사(특히 물건의 이름)에는 하나의 한자를 할당하려는 자세가 강해졌을 것이다. 단음절 언어였던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생겨난 한자가 원칙적으로 가지는 표어성(表語性)을 살린 결과이다.

중국 대륙 중원에서 쓰이는 한어에서는 예를 들어 어명(魚名)이라 하면 생활상 민물고기 등 담수에 서식하는 것밖에 없어 어휘량이 빈약했다. 그에 반해 일본 열도에서는 특히 임해부에서 잡히는 생선이 풍부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고유어 또한 독자적이었으며, 게다가 좁은 국

토라는 점도 일조하여 말린 생선 등으로 가공되어 도성에 세금으로 납부되는 제도가 있었다. 그 때문에 도래한 기존 한자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름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명(物名)과 달리 용언은 이른바 일의 이름 같은 것이 활용까지 하는 것이어서, 이름표를 채워 나가는 것과 같은 원시적인 표기 행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이 숙련상의 벽인지 의식상에 불과한 벽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

3.2.2. 귀족 사회

헤이안 시대에 들어서면 언령(言靈)이나 그 문자 버전인 문자령(文字靈)은 일반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며, 상대(上代)로부터 변질되어 간다. 율령제가 붕괴하는 섭관기, 나아가 원정기 등 정치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한자의 일본화에도 진전이 보인다.

헤이안조는 기본적으로 귀족 사회라는 사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 한자 문화 전체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 유쇼쿠요미(코지츠요미)를 귀족들이 즐겨 나간다. 『和名類聚抄』(元和본 권14)에 수록된 유명한 사례로는 ‘笏(샤쿠)’라 불리는 도구는 『続日本紀』 권8 등에서도 보이며 음독은 ‘코츠’였으나, 글자 소리가 ‘꺄(코츠)’와 겹쳐 상서롭지 못하다는 이미고토바(忌詞)적인 발상에서 일척(一尺) 등 그 길이 단위로부터 ‘샤쿠’라고 읽게 되었고, 이것이 관용적인 읽기 습관이 되었다(『江談抄』).

훈독에서도 ‘白馬節会(아오우마노세치에)’, ‘靴(카(쿠와)노쿠츠)’(‘韃’, ‘果乃沓’ 『新撰字鏡』(898-901년경)), ‘笙(쇼우(시아우)노부예)’(『宇津保物語』(970-999년경. 사본은 거의 근세 이후의 것밖에 없어 새로운 요소를 포함함) 國讓 中)와 같이 자훈(字訓)과 맞지 않는 읽기 방식이나 중언(重言)적, 문선(文選) 읽기적인 방식도 다수 보이게 된다.

인명에서도 ‘公’을 ‘키미’가 아니라 ‘킨’으로 하여 ‘公任(킨토)’라 하는 등, 공가(公家)에게만 허용되는 이름 부르기 방식인 ‘공가 읽기’가 등장하여 후대에 확대된다.

언령·문자령은 상대부터 변질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직고실을 전승하는 공가 일기에는 손님이 오기 때문에 접시의 수를 세 장이나 다섯 장으로 하고 ‘4’를 회피하도록 각별히 써 남기고 있다. 중국에서도 현대부터 1세기 정도 전부터 ‘4’를 이미고토바처럼 싫어하지만, 그것은 일본에서 전해진 것임이 알려져 있다. 한국도 아마 비슷한 시기부터이겠으나, 일본에서는 천 년 전부터의 풍습인 것이다.

훈점이나 훈독도 귀족이나 승려 등의 학자가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문체에서는 이른바 ‘기록체’에 의한 『御堂閔白記』 자필본, 『小右記』 사본 등에는 ‘오자(誤字)’, ‘가차자(当て字)’ 부류도 기록되어 있다. 『御堂閔白記』 長和 5년 7월 25일에는 ‘及暁’의 ‘及’과 같이 정격 한문에 없는 용법도 보인다(山本2025p141).

위서(位署)의 할주(割書, 가려 쓰기)에는 관직·위계와 성명을 한 행에 담기 위해 ‘朝臣’, ‘藤原’ 등에 합자적인 ‘쓰기 방식’이 역시 헤이안 시대부터 행해지게 되었다.

3.2.2.1. 편(부수)의 부가 내지 형성(훈)식의 조자

여기서 공가의 특징이나 생활을 나타내는 글자를 소개한다. 공가는 식사 외에 간식을 먹었는데, 그중 하나로 ‘餉(마가리)’라는 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과자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다. 식편(食偏)에 곡옥(勾玉)의 ‘勾’가 나란히 있다. 중국에서 태어난 글자와는 자의가 다르며, 궁중에 근무하는 관직에 있는 장인 주변에서 조자 내지 전용하고, 또한 사용에 관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延喜式』(927년) 九条家本(‘e국보’) 권26에 나타나는 사례가 오래되었으며, ‘마카리’라고 방훈(후리가나)도 보인다.

또한 『和名類聚抄』에 인용된 ‘鱻(하야)’라는 글자는 성부(聲符)에 유사한 음을 이용한 형성문자라고 생각되며, 더 오래된 용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와카 등에서 보이는 ‘鳩(니호)’라는 글자도 『色葉字類抄』 등에 등장하는데, 회의이기는 하나 형성(入 니후)을 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원(字源)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필자는 현대의 많은 창작 한자 사례를 들 필요도 없이 double meaning적인 착상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글자는 『宇津保物語』에서 사용된 것이 보이나, 근세 초기경의 사본이기에 필록 당시의 표기는 불명이다.

후대의 足利義滿 초상을 보면 다다미 테두리의 색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것을 ‘縵縵緣(운겐베리)’라 하며, 중국에도 있었던 직물이라고 한다. ‘운겐’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어형이 당나라에 존재했는지 미상이다. 나라 시대에는 正倉院 문서에 ‘雲間’이라는 동일 계통의 색을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병렬하여 색채의 농담 변화를 보여주는 채색법을 나타내는 단어가 출현한다.

헤이안 시대가 되면 『延喜式』에 ‘번지게 하다’는 뜻을 가진 ‘暈’을 이용한 ‘暈縵’이 나타난다(다른 화문에서는 ‘우겐’(운겐)). 귀족이나 하급 귀족인 장인 등이 더욱 미려한 문자로 만들고 싶어 하여 회의·형성화했는지, 혹은 ‘暈縵’이 자체의 역행 동화에 의해 사편(糸偏)으로 통일되었는지, ‘縵縵’이라는 일본제 한자가 산출되었다. 藤原賴長 『台記』(1136-1155년) 등에서 이 문자열을 볼 수 있다. 이 글자를 써 두면 다음 사람도 알 것이라는 판단이 또한 유직고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덧붙여 이 글자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현대에는 ‘縵縵’으로서 보다 웹에서 글자 깨짐 현상으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台記』 등에 ‘夾縵(코우케츠)’에서 변화한 ‘糸夾頁縵(코우케츠)’라는 속어도 보인다. 이 역행 동화에 의한 자체는 중국이나 한국에도 있는 일존자체(佚存字體)이다. 이것이 이윽고 일본에서 ‘縵縵’이 되어, 첫 글자가 일본제 한자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일본제 한자에는 회의문자, 훈독만 있는 글자가 많다고 일컬어지지만, 이러한 음독을 가진 일본제 한자도 실제로는 수없이 존재한다.

3.2.2.2. 회의에 의한 조자

나라나 교토 등 긴키 지방을 중심으로 ‘辻子’라고 쓰고 ‘즈시’라고 읽는 것이 지명에 지금도 남아 있는데(나라 시내에서 직접 보았다), 이 ‘辻(츠지)’라는 글자도 헤이안 시대에 나타난 일본제 한자이다. 상형적인 용법(자유, 字喩)에 의한 육조 시대의 한어인 ‘十字街’의 ‘十’이 구성 요소로 이용되었다.

오래전에는 예를 들어 돗토리시 靑谷横木(아오야요코기) 유적이라는 지방 관아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10-11세기, 인바바국, 森2025)에 ‘辻七十束’(전의인가)이라 사용되었다.

한자 ‘井’(우물의 상형에 의한 글자(세이)와, 송대 남방에서 우물에 돌을 던졌을 때의 소리를 나타내는 속자(탄))이라는 글자의 점 대신 ‘石’을 넣음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회의문자임을 표현한 글자가 헤이안 시대의 大江匡房 이야기, 藤原実兼 기록인 『江談抄』(12세기 초두)에 출현한다. 발해와의 교섭 중에 ‘紀どぶり丸(키도부리마루)’와 ‘紀ざぶり丸(키자부리마루)’라는 이름의 두 발해인이 등장하는데, 안에 나무(木)를 넣은 것이 ‘桼(자(ㄴ)부리)’이고, 돌(石)을 넣은 것이 ‘桼(돈부리)’였다고 한다(『江談抄』(고전보존회, 1930)에서는 이 ‘작자(作字)’를 ‘井’ 등으로 만든다).

현재의 ‘井(돈부리)’라는 글자의 바탕이 된 글자이다. 발해인의 이름에 있던 글자라고 한다면 일본제 한자라고 할 수 없으나, 발해에는 문자가 없었다는 기록 외에도 기와 등에서 이 형의 글자가 발견되고 있는 점, 과거 타국 사람들과 한시를 응수했다는 이야기 등이 알려져 있다. 어쨌든 발해인이 고유어로 ‘돈부리’, ‘잔부리’라고 자칭했을 리는 없으며, 일본인이 오노 마토펜(의성어)에 기초하여 창작한 전승이거나 무언가의 오전(誤傳)일 것이다.

또한 『江談抄』에는 일본제 한자에 대한 지식·의식도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 사본인 『水言鈔』(고전보존회, 1925)에는 ‘杣’자에 대해 ‘진실로 본조(일본)에서 만든 글자인가’라는 물음이 있다.

『和名類聚抄』에서 “杣”, “功程式云 甲賀杣 田上杣(功程式에 이르기를 甲賀杣, 田上杣)”, “杣讀曾萬 所出未詳(杣은 소마라고 읽으며 나온 곳은 미상임)”, “但 功程式者修理算師 山田福吉等 弘仁十四年所撰上也(단, 功程式은 修理算師 山田福吉 등이 弘仁 14년에 찬상한 것임)”(1-8才)이라 되어 있는 구절이 ‘杣’이라는 글자는 山田福吉이 만들었다고 오독되고 있다.

나아가 ‘櫛(사카키)’라는 글자가 『日本書紀』에 존재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日本書紀』의 주석서에는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착각이 일어난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른바 귀동냥이나 어설픈 지식과 같은 공가 세계의 한자에 대한 풍문 상황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회의에 의한 조자법은 헤이안 시대에 일본제 한자의 생산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藤原俊房 『水左記』(康平 6년 2월 16일 『史料通覽』 p2, 伴直方 『国字考』)에 ‘木惡樹’라 있다. 목변(木偏)에 ‘惡’을 써서 ‘아후치’라고 읽게 하는 글자는 참수된 머리를 거는 나무였다는 점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리라.

또한 위의 ‘畑(하타)’는 호족이나 귀족, 또는 장원 영주에 의한 조자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나, 아직 농민의 손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후술).

‘鯰(나마즈)’는 관인 혹은 어민의 조자일까. 다만 이것은 여러 정황 증거로 보아 형성(形

聲)에 의한 한자였던 것이 일존문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3.2.2.3. 합자와 유사한 할주(쓰기 방식)

藤原俊成의 친필인 「広田社歌合」 尊經閣文庫本(1172년 ‘정본서도전집’)에서는 ‘藤原朝臣’이라는 글자가 합체될 기미로 쓰여 있다.

江守1986이 지적한 것처럼 위서(位署)를 한 행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길어진 것을 극단적으로 좁혀 씬으로써 거의 합자처럼 되었으며 후대에 정형화된다. 俊成筆의 『古今和歌集』 서문이 덴리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는데, 『古來風躰抄』에도 俊成의 자필본이 전해진다. 이 무렵의 시대가 되면 서서히 친필 전적이 남게 된다.

합자의 대칭으로서 ‘분자(分字)’에 대해서도 언급해 둔다.

文屋康秀의 와가 ‘吹くからに 秋の草木の しをるれば むべ山かせ (風) を あらし (嵐) と云らん(불자마자 가을의 초목이 시드니 과연 산바람(山風)을 폭풍(嵐)이라 하겠구나)’에 대해, 현존 최고(最古)의 완본인 元永本(1120년경 ‘e국보’)을 보면 ‘아라시’는 히라가나로 표기되어 있고 ‘山’만이 한자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가나 승려의 세계에는 이 노래를 보고 들으면 ‘嵐’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에도 회의문자적인 구성이 일본인에게는 자연스럽게 다가왔다는 경향이 나타나 있을 것이다.

범어의 음역 ‘毘嵐婆(비람바)’로부터 ‘嵐’ 한 글자로도 ‘아라시’를 의미하기에 이른 듯하며, 『大漢和辞典』 등에 따르면 이를 王維는 산기(山氣)의 뜻으로 썼고, 謝靈運은 산풍(山風)의 뜻으로 썼으며, 송본 『玉篇』은 대풍(大風)의 뜻을 실었다.

3.2.2.4. 일본제 자의의 발생

고유어 동사인 ‘사부라후’가 ‘사우라후(소우로우)’가 되어감과 동시에 조동사화(이른바 문법화)가 일어난다. ‘소로분(候文)’에서 고유어의 어의·용법 변화에 따라 ‘候’에 일본제 자의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체 등의 연구에서 역사의 해명이 진전될 것이 기대된다.

3.2.2.5. 나노리 훈(名乗り訓)

실명(이름)의 읽기 방식에서 ‘朝’라고 쓰고 ‘토모’라고 읽는 경우가 있다(『色葉字類抄』 前田本 ‘名字’ 등). 이 이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으나 金文京 씨를 비롯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확해졌다. ‘朝廷’이라고 쓰고 친구(友)를 의미한다는 용법이 당대에 나타났고, 그것이 일본에 전래되어 ‘朝’만으로 ‘토모’라고 읽게 된 것이다. 그리고 源義朝·賴朝·実朝와 같이 헤이안 귀족 남성의 이름에 쓰이게 되었으며 성씨인 朝永 등에까지 파급되었다.

숙자훈의 한자 둘째 글자 등을 생략하고 독법은 유지하는 방법은 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 ‘蜘蛛(쌍성)’는 ‘蜘’만으로 ‘쿠모’, ‘海鰯(鲷)子’도 ‘鰯’만으로 ‘타코’라고 읽게 하는 등 유래가 산견된다.

또한 ‘和’라고 쓰고 ‘카즈’라고 읽게 하는 것도 ‘和子’라는 이름이 일본에서 가장 많다고 일컬어지던 시대가 쇼와기에 있었을 정도로 많이 행해지고 있으나 유래가 알려져 있지 않다. 本居宣長은 ‘카즈’에서 왔다고 설명했으나 『色葉字類抄』 ‘名字’의 가나 표기와는 맞지 않는다. 덧셈의 ‘카즈’라고도 생각되지만 이 또한 시대가 맞지 않아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다. 즉, 자신이 유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읽기 방식을 부정하는 것도 이름 짓기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덧붙여 헤이안 시대에 이러한 나노리 훈이 선례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현대의 명명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반짝반짝 이름(키라키라 네임)’ 등과 같은 단어를 쉽게 사용하여 신작을 부정하는 것은 미래에 화근을 남긴다.

3.2.2.6. 유쇼쿠요미·코지츠요미

‘笏’에 대해 상술했으나, 그 외에도 예를 들어 헤이안 시대 조정 즉 귀족인 공가의 세계에서는 ‘考定’이라는, 8월 11일에 전년 8월 이후 1년분의 태정관(太政寛) 장상관(長上官)의 근무 성적을 고사(考査)하여 상신하는 의식이 있었다. 그 글자 순서를 전도시켜 ‘定考’(『延喜式』 권30, 927년 『日本国語大辞典』)라고 쓰고, 그럼에도 ‘코우쥬우’라고 읽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名目鈔』 1457년경 恒例諸公事 ‘定考(코우쥬우) 逆読之例也’ 등). ‘上皇(쥬우코우)’와 소리가 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定考’라고 쓰고 거꾸로 읽는 것을 관례로 삼았다는 설도 있다(異說도 있다. 倉本2025p65 등).

3.2.2.7. 여류 가나 문학

清少納言의 수필 『枕草子』는 오래된 사본에서는 히라가나가 주체이며, 소수의 한자(주로 용언)에 오쿠리가나가 붙어 있다. 방훈(후리가나)은 아직 행해지지 않았다.

제147단은 “보는 데 별다른 점이 없으나 문자로 쓰면 거창한 것(見るにことなることなきものの文字にかきてこととしきもの)”, 즉 ‘문자로 쓰면 대단해 보이는 것’이라는 장단이다. 예를 들어 ‘覆盆子(이치고)’, ‘鴨頭草(츠유쿠사)’, ‘氷苺(미즈후부키)’, ‘蜘蛛(쿠모)’, ‘胡桃(쿠루미)’, ‘文章博士(문쵸 하카세)’, ‘得業生(토쿠고후노쥬우)’, ‘皇太后宮権大夫’, ‘楊梅(야마모모)’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타도리는 하물며 虎杖(범의 지팡이)이라 썼다던가. 지팡이 없어도 충분할 얼굴이거늘(いたどりは、まいて虎杖(とらのつえ)とかきたるとか。杖なくともありぬべき顔つきを。).”이라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것을 필자는 ‘표기감(表記感)’이라 부르고 있는데, 清少納言은 천 년 정도 전에 이미 한자 속어·숙자훈에 대해 어감과 표기감을 언명했던 것이다. 그 덕분에 기존

한자에 대한 위화감이 이미 나타나 있었다는 것, 또한 표의성을 추구하는 욕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회의식 일본제 한자를 구하는 의식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枕草子』의 사본인 能因本(富岡本)은 화재를 만나 타다 남은 것이다. 이 장단의 이름은 “문자로 적으면 거창한 것(文字にかきてことノしき物)”이라 되어 있다. 새삼 귀중한 고전이 잘도 남아주었다고 느끼는 동시에, 남지 못한 전적도 많이 있다는 것을 통감한다.

『枕草子』의 堺本(笠間影印叢刊) 상권에는 장단의 이름이 ‘もじにかきてことノしきもの’라고 히라가나로만 쓰여 있다.

또한 서릉부 소장 3권본에는 ‘裊(혹은 裊, 아코메)’나 ‘泔(유스루)’ 등에 대해서도 ‘문자로 써 두면 어떠할지 짐작이 가지 않는 것(もしにかきてあるやうあらめと心えぬ物)’으로 기록되어 있다. 속어에 대한 어감이나 표기감뿐만 아니라 단자(單字)에 대해서도 문자감이 품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도 시기부터 여러 학자가 해당하던 당시의 한자를 상정해 왔다.

‘裊’, ‘裊’(아코메)는 속옷 혹은 두건을 나타내는 중국의 한자로, 일본에서는 ‘아코메’로서 일본제 자의가 되어 있었다. 『漢辭海』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裊】 지츠

속옷·내의

일본어 용법: 아코메. 남자는 하습(下襲) 아래, 단의(單衣) 위에, 여자는 겹옷과 단의 사이에 입었다.

【裊】 하

두건, 싸다(포장하다)

일본어 용법: 아코메. 裊(지츠)과의 자형 유사성에 의한 용법.

그러나 이러한 한자에 대해 清少納言은 납득하지 못했다. (일본제 자의임에도) ‘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白’이 아니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泔(유스루)’는 명사로 머리 등을 감을 때의 물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쌀뜨물을 의미하는 글자를 할당하는 것에 대해 거의 적절하지 않으며, 더욱이 글자 모양과 달리 ‘달콤함(甘)’도 없다는 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마음을 표명한 것이리라.

『漢辭海』에는,

칸 쌀뜨물 쌀뜨물에 담그다.

일본어 용법: 유스루. 머리를 감는 용수. 또는 머리를 감고 빗질하는 것.

라 되어 있듯이 ‘유스루’가 일본제 자의이며, 마실 수 없고 맛도 달지 않다는 것일까.

덧붙여 당대(唐代)의 자양(字)에는 ‘吊’와 ‘弔’는 구별해 써야 한다는 기술은 있으나 역시 신앙 등과 관련된 규범으로서의 기술에 불과하다.

紫式部 『源氏物語』 河内本(尾張徳川黎明会, 1934) 권7에는 당연히 히라가나로 ‘니호히’라 되어 있으나, 河内本에는 ‘宮’의 우측에 작게 ‘勾’라고 쓰인 구절을 발견했다.

‘사카키’에서도 ‘櫛’가 등장할까 생각했으나 거기서는 역시 히라가나뿐이었다. 청표지본(定家筆 계통 궁내청 서릉부 소장)⁶ 역시 마찬가지로 ‘사카키’는 히라가나이다.

清少納言에 대해 라이벌이었던 紫式부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紫式

部日記』⁷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1009년 1월 1일의 ‘진명(한자)을 마구 써 갈기고 있는 모 양도(眞名書さちらして侍るほども)’라는 清少納言에 대한 비판이 유명한데, 그에 대해 자신은 ‘한 일(一)이라는 글자조차도 써 보내지 않습니다(一といふもしをたにかきわたり侍らす)’라고 서술하고 있다. 덧붙여 현대에는 젠더 관점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온나데(女手)’라는 말도 아직 해석이 정해지지 않았다. ‘清少納言이야말로 잘난 체하는 얼굴로…(清少納言こそしたりかほに…)’라고 비판을 하는 부분도 있다. 『虫めづる姫君』, 『栄華物語』 등에도 여성이 카타카나나 한자를 자주 쓰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다.

3.3. 신도(神道) 사회

헤이안 천도 직후에 기록된 『神宮儀式』(804년)에 ‘榊’이라는 글자가 있다(『神宮古典籍影印叢刊』 尊経閣 구장본. 田中卓에 따르면 헤이안 말기 혹은 가마쿠라 시대 말기에서 吉野朝 초기에 서사됨). 이 글자는 역시 나라 시대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이 『神宮儀式』은 내용이 헤이안조 독자적이며 나라 시대와 단절된 부분이 다수 있다고 여겨진다. 『和名類聚抄』 서문과 본문에서는 ‘그 외 『漢語抄』에 ‘榊’이라는 글자가 나온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 전해지던 양로(養老) 연간의 『楊氏漢語抄』에는 보이지 않았다. 덧붙여 신불습합은 나라 시대에 이미 일어났으며, 헤이안 시대 후기에 크게 발전한다.

3.4. 불교 사회

헤이안 불교에서는 남도(南都) 불교와는 다른, 건당사가 가져온 진언종·천태종이라는 새로운 신앙이 퍼져 나간다. 이들 불교계에서는 한자음에서 오음(吳音)이 계속해서 주류를 차지하지만, 카타카나(片仮名)나 읽기 위한 자체에서 쓰기 위한 자체로 향하는 쇼모노(抄物書)(『日本靈異記』나 『江談抄』(一山 室生寺)), 훈점, 훈독법 등에 독자적인 것이 늘어난다.

불자의 사회에서는 대체로 범어 유래어명이나 범자가 친숙하게 존재한다. 특히 다라니 등의 진언에는 범어·범자라는, 일반 일본인에게는 신비롭게까지 느껴지는 음성 중심, 비밀 유지와 같은 종교적 혹은 합리주의적인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밀교를 퍼뜨리고 서예가로서는 삼필(9세기경 嵯峨天皇·橘逸勢와 함께)의 한 사람으로 꼽힌 空海(804년 입당, 806년 귀국)는 히라가나나 이로하 노래의 저자로 의탁되는 전승이 있다. ‘쿠우카이’라는 음독 호칭에 대해서는 『江談抄』에서 언급된다.

空海가 전승처럼 이로하 노래의 ‘色は匂へど’를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匂’라는 글자를 이미 사용했는가 하면, 헤이안 시대 초기의 승려이므로 사용할 일은 없었다(전술).

空海는 자신의 이름 중 ‘海’를 ‘衆’라는 이체자(動用字)로 썼다. 이는 문서의 진위 판별 지

⁶ <https://kokusho.nijl.ac.jp/biblio/100130618/365?ln=ja>

⁷ <https://kokusho.nijl.ac.jp/biblio/100139486/25?ln=ja>

표로도 쓰인다. 또한 最澄도 ‘叡澄’라고 썼다.

참고로 삼적(三蹟)은 화양(前述)이며, 10세기경의 小野道風·藤原佐理·藤原行成을 가리킨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円’이라는 글자가 처음 나오는 데에는 弘法大師(=空海)가 관계되어 있다. ‘圓’이라는 글자는 불자의 사회에서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지만 획수도 많아 쓰는 데 시간이 걸렸으므로, 약자로서 ‘圓’의 이체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즉 자체 수준의 현상으로, 출처를 포함하면 일본제 이체자일 가능성이 있다.

仁和寺 소장 국보 「三十帖策子」는 空海가 입당 중에 서사하거나 서사시킨 것으로, 橘逸勢 외에 20명 이상의 당나라 사경생에게 쓰게 했기 때문에(宇都宮 2023), 空海 이외의 필적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 두 곳에서 ‘圓’의 약자체가 발견되는데, ‘口’ 안의 ‘員’ 부분이 세로획 한 줄인 ‘丨’로 처리되어 있다. 상당히 대담한 생략 방식이며 초서라 해도 이 정도의 약필은 드물다. 중국인의 필적에 이 자체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존하는 것 중에는 아직 보이지 않아 증명할 수 없다. 이 자체를 空海 이외의 사람이 썼을 가능성도 남지만, 당나라 사람이나 空海 외에 이 자체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 초서체에서 ‘口’를 흘려 쓰는 통상적인 관례에서도 벗어난다.

어쨌든 불교계라는 사회 변화에 대응한 자체의 출현이며, 특히 불전에서 다용되는 자종의 자체(이체자)는 헤이안 시대 내에 귀족 사회로도 퍼져 나간다. 중국에서 유입된 ‘菩薩’을 ‘并’로 쓰고 ‘國’을 ‘国’으로 쓰는 것과 같은 약자도 중국에서 유전되어 일본에서 유행한 일존문자적인 자체라 할 수 있다.

귀족 사회에도 ‘円’의 바탕이 되는 자체가 퍼져 나갔음은 北川博邦이 엮은 『和樣字典』을 보아도 명확하다. 『御堂閔白記』 자필본(寛仁 2년 1월 2일)⁸에도 ‘円(口口丨)’이 출현하고 있다.

空海의 『篆隸万象名義』(『崇文叢書』 崇文院 編·刊 1927-1935) 1-42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勻】(카이, 勻, 匀 등에서)와 【勻】(인)이 게출되어 있었다. 이는 ‘홍법대사도 붓을 잘못 놀릴 때가 있다’는 식이 아니라, 중국 불전에서 이와 같이 쓰이던 습관을 반영하는 것이며 위상이 명확했다.

참고로 카타가나 ‘ヒ’는 헤이안 시대에는 보통 빠치지 않는 형태로 쓰였다(『日本国語大辞典』 ‘히’ 등).

空海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불전에 『釈摩訶衍論』이 있다. 신라에서 작성된 위경(偽經)으로 여겨지나 空海는 밀교의 본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존중했다. 그 요대(遼代) 석각을 살펴보면 자획이 몇 겹으로 회전하는 문자가 등장한다. 여기에는 ‘인’이라 읽는다는 반절이 주석되어 있으며, 그 외에 한자의 영향이 짙은 해서풍의 것도 있다. 空海는 다양한 서풍을 습득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신비로운 문자도 보았을 것이며, 자체를 합리적으로 가공하여 생략하는 일도 가능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싶다. 범자 또한 심플한 구조로, 기억하기 어렵지 않은 수의 표음문자이다.

⁸ <https://dl.ndl.go.jp/pid/2591259/1/1>

『今昔物語集』 권11-9화(가마쿠라 시대 사본인 鈴鹿본은 현존하지 않음)에 속담 ‘홍법대사로 붓을 잘못 놀릴 때가 있다’의 바탕이 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空海는 휘호한 ‘應天門’의 첫 글자에 ‘점’이 빠져 있음을 깨닫고 붓을 던져 ‘점’을 보충하여 편액을 완성했다고 한다. 이는 ‘홍법의 던지기 붓’이라고도 불리는데, ‘應’의 첫 획(‘广’을 ‘广’으로 만든 것)이었는지 ‘心’의 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설이 갈리고 있다. 어쨌든 임시적으로 필순이라는 서자 과정에서의 선조성(線條性)을 심하게 일탈한 서기 행위였다.

이 이야기의 출전인 真教 『金剛峯寺建立修行緣起』(968년, 『弘法大師伝全集』 1 1977년)에서는 ‘점’을 ‘원점(円点)’이라 한다. 이 글자 등에서 ‘广’과 ‘广’이 교체되는 이체자의 사례를 알고 있던 자에 의한 발상이었을 것이다. 예서(隸書)에도 ‘广’ 부분을 ‘广’으로 만든 ‘應’이 있어(『大書源』), 이 이야기가 생겨난 한 요인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르면 모필에 의한 휘호의 일회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즉 반대로 먼저 붓을 떨어뜨려 버렸다면 지우지 않고 그대로 완성해 나가는 서사 행동도 있지 않겠는가. 서예가에게 글씨를 잘못 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묻자, 틀린 것을 깨닫지 못하게 완성한다고 말해 주었다. 점획을 겹쳐 쓰는 것도 고래로부터 발견된다. 동용자의 발생 원인은 아마 열 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으나(균형, 유추, ‘山’·‘宀’·‘雨’는 높은 곳에, ‘水’·‘土’는 낮은 곳에 있기 쉬운 점 등), ‘海’라고 쓸 때 먼저 ‘每’를 쓰려 했다는 식의 실수도 서자의 실제 현장에서는 일어났으리라.

그 외 비슷한 이야기가 『今昔物語集』의 같은 화에 수록되어 있다. 동자(사실은 문수보살)가 강 위에 쓴 초서 ‘龍’의 오른쪽에 空海가 ‘작은 점’을 찍자 용왕이 되어 날아갔다는 내용으로, 『高野大師行狀繪卷』 권2에도 묘사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 출전이 있으며, 나아가 ‘화룡점정’의 고사(唐 『歷代名畫記』 梁 張僧繇 ‘点睛即飛去’)와 공통점도 엿보인다.

참고로 현재 平安神宮 應天門의 편액은 空海의 필적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점을 이용하여 자획을 생략한 이체자(가칭 ‘용점약자(用点略字)’)에는,

国, 広, 伝

등의 외에,

勻 (句·旬)

同, 拾의 ‘—口’를 ‘丿’로

口丿, 觸 玉·虫을 ‘丿’로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글자의 최종 획을 ‘丿’로 삼는 약자는 중국보다 일본에서 현저하게 행해진 것이 아닐까.

그 외 空海에게는 자신은 실제로는 붓을 가려 썼다고 하지만 ‘홍법대사는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외에도, 좌우 손발과 입에 다섯 자루의 붓을 들고 글씨를 썼다는 전승에 의한 ‘오필화상(五筆和尚)’이라는 별칭도 있으나, 이는 동시에 열 명 정도의 민원을 들었다는 聖徳太子 이야기와 발상이 비슷하다.

이것들을 수록한 『今昔物語集』은 12세기 원정기에 남도(南都)에서 법상종 승려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로하 노래나 히라가나 저자설도 『河海抄』 권12에 인용된 『江談抄』(1109년의 담화)에 나온다(小松 1968 p148).

달을 ‘月輪(과치린)’이라고도 했는데, 이 ‘輪’을 ‘○’으로 쓴 약기(略記)도 알려진 바이다. 吉沢 1943 p22-23에서 에도 시대 문헌뿐만 아니라 헤이안 시대의 것에서도 발견했다고 한다. 해서체 문자열에서의 원형으로는 측천문자(則天文字)에서 별을 ‘○’, 달을 ‘○子’나 ‘○

’ 등으로 하는 전례가 보인다. 또한 붓으로 ‘○’을 그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에서부터 두 획으로 쓰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그것이 카타카나 ‘와(ワ)’의 유래가 되었다는 설도 있었다. 9세기 이후 카타카나 ‘와(ワ)’, 히라가나 ‘와(わ)’에서도 유사한 자형이 보이며, 에도 시기 이후에는 ‘니와카’의 두 번째 글자 등에도 사용되게 된다.

『日本靈異記』에는 ‘’라고 쓰고 ‘모루’라고 읽는 회의문자도 출현한다. 『万葉集』 권2 142번 有間皇子의 노래 ‘집에 있다면 그릇에 담았을 밥을 풀베개 여행 중이라 시나무 앞에 담네(家有者 筒尔盛飯乎 草枕 旅尔之有者 椎之葉尔盛)’라는 생활 상황을 연상시킨다. 여기에는 상대의 여향(餘香)과 중고에 들어서부터의 혁신이 느껴진다. ‘飯’이나 ‘’은 상대 일본제 한자의 구성 요소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이른바 ‘변체 한문’·‘화화(和化) 한문’의 필록·서사에서 품사, 부수, 구성 요소의 확장이 일어났다. 음독으로의 사용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체 한문’에서의 통상적인 사용은 가능했다.

來迎院本(『日本古典文学影印叢刊』 1978)에서 ‘’에는 ‘모로’라고 방훈이 붙어 있다. 훈주는 없다. 해학성을 포함시킨 조자인지 여부는 판연하지 않으나 다른 글자와 구별 없이 쓰이고 있다. 자체상의 순행 동화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日本靈異記』에서는 「群書類從」본 하권 서문에 “汎言惻，那免劫災。”라며 ‘’이라고 쓰고 ‘아하레’라고 읽는 글자가 등장한다. 전문이 한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아하레’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만요가나를 쓰거나 일본제 자의를 쓰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다. 다른 來迎院本이나 前田本에서는 ‘’라는 한자를 ‘아하레’나 ‘아아’라고 읽게 하고 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간투사(감탄사)에도 일본제 자의가 나타났다고 지적할 수 있다.

『色葉字類抄』에는 ‘’으로 ‘아하레후’라고 읽는 글자가 게출되어 있으며, 가마쿠라 시대에 그 ‘’가 탈락하여 ‘’(아파레)’가 되어 갔다는 점도 자지(字誌)상에서 서술할 수 있다(西井 2022 p129, 130, 132).

『日本靈異記』의 헤이안 중기 사본인 興福寺本(상권만 현존, 국보)에는 ‘愛’라는 글자를 두 개 나열한 글자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본문으로 보면 ‘’라는 한자의 자체가 글자 내에서 역행 동화(치환형)를 일으킨 오자라고 할 수 있다. 속어에서의 이런 종류의 현상을 ‘변(偏) 맞추기’라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은 변이 아니므로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나아가 자체에서는 자획이나 구성 요소에 전도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필자는 일련의 점획에서 자종에 이르는 현상을 음운에 비유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운과 병행하는 현상으로 보아 동화라고 부르고 있다.

東大寺 승려에 의한 메모인 『東大寺諷誦文稿』(9세기 전반)도 한자 카타카나 혼용문에 의한 국어 자료로서 유명한 것이다.

그중에는 ‘𠂔日卵’이라고 쓰고 ‘카히’라고 읽는 글자가 여럿 나타난다. 이는 ‘卵’의 이체자 ‘𠂔’ 내지 ‘𠂔’(『大乘三論大義鈔』⁹)의 일본제 이체자일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국어 자료로 자주 다루어져 온 源為憲 『三宝絵』(984년, 古典保存会 1929-1930)의 觀智院 소장 文永 10년(1273년) 사본 상권에는 ‘山=込_{メテ}’와 같이 ‘込’이라는 글자가 쓰이고 있다(『三宝絵詞』 『和様字典』).

『新撰字鏡』 9-23才 8행에도 착부(𠂔部) 말미에 ‘込(入은 八인가)’이 수록되어 있으나, ‘適_ニ梟(오른쪽 | 는 밑을 뚫는다)’와 함께 주석 없이 의미는 게재되지 않아 상세는 불명이다. ‘사기(私記)’류에서 채집된 것인가.

『色葉字類抄』에는 ‘込’이 ‘코모루 세마루’로서 수록되었고, 가마쿠라 시대가 되면 막부의 사서 『東鑑』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한자 ‘籠’ 등도 유사하게 쓰였다. ‘込’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본제 한자이나 헤이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働’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로 일본제 한자이나 가마쿠라 시대 이후 무가 사회에서 태어난 듯하다.

또한 『三宝絵』에는 ‘込_ニ伏’과 같이 ‘込’로 ‘마로부’라고 읽게 하는 일본제 한자가 쓰이고 있다. ‘마로부’란 ‘넘어지다(코로부)’라는 뜻이다. ‘一’ 부분이 그야말로 사람이 넘어지고 있는 모양처럼 보일 것이다. 나중에 ‘스베루(미끄러지다)’로서 다용된다.

또한 ‘++埴’라는 ‘薩埴’의 일본제로 보이는 쇼모츠쇼도 기록되어 있다.

‘토치’라고 읽는 ‘朽’라는 일본제 한자는 토치기현의 ‘朽’와 자체가 약간 닮았으나 그 바탕이 된 것이다.

귀족은 과자를 먹었다고 전술했으나 승려 또한 과자를 즐겼다고 하며, 杉本つとむ 씨도 서술했듯이 수행 중 휴식 시간에 과자를 먹었다. 그런 장면에서 밤이나 토치 등을 모두가 가져온 것이 기록되어 있다.

『東寺影供料足支配狀』(1102년, 『東寺文書聚英』)에는 그중 한 사람이 ‘朽’를 지참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 그 덕분에 ‘朽’라는 글자가 등장하고 있다(『方言漢字事典』). 정치사에서는 섭관기를 거쳐 원정기(1086-)에 들어서고 나서 출현한 문자가 된다.

‘朽’에 대해서는 中田祝夫 외 많은 선행 연구가 있듯이, 觀智院본 『類聚名義抄』(14세기) 불하(佛下)권에 ‘쿠치루’라는 글자와는 별도로 ‘朽’라는 글자가 입항되어 있다. ‘朽’ 자 아래에 ‘토치 나치 義歟’라 있고, ‘나치’란 ‘십천(十千)’이라고 만요가나로 쓰여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른 사본인 宝菩提寺본에도 이 글자가 남아 있는데 동일했다.

이처럼 ‘十(토) × 千(치) = 万’이라는 곱셈을 이용한 형성(훈) 방식에 의한 조자인데, 이러한 익살 같은 조자 행위까지 승려 내지 귀족이 행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토치’에 대해서는 『色葉字類抄』에 ‘朽’ 등의 일본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덧붙여 ‘梅’라는 글자도 이 무렵에 나타난 일본제 한자이다. 가마쿠라 시대에 明恵가 사용한 동의어 ‘【_木都】’는 육서로 치면 회의문자, 형성문자로, 방(旁)이 ‘토가츠가’의 두음 부

⁹ <https://ja.wiktionary.org/wiki/%F0%AD%A5%9E>

분을 나타낸 것인가.

불교 설화와 세속 설화를 수록한 『今昔物語集』 鈴鹿本 권5 제4화 ‘一角仙人被負女人從山來王城語 第四’에서, “구름의 파도 연기의 파도(雲ノ浪□火雲ノ浪)”와 같이 ‘煙’이라는 글자가 ‘□火雲’이라는 일본제 이체자로 쓰여 있다. 자체상의 원격 치환형 순행 동화 외에, ‘煙’ 자의 방과 ‘雲’ 자의 초서체는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회의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자체가 『和泉往来』에도 보이며 헤이안 시대의 특징적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今昔物語集』은 화문체와 한문 혼독체, 고유어와 한자어를 섞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화한 혼용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최고(最古) 사본인 鈴鹿본은 한자와 카타카나를 섞어 표기되어 있다. 그런 중에 ‘櫛’(上記) 외에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본제 한자인 ‘櫛(시키미)’가 사용되고 있다.

『今昔物語集』 鈴鹿本 권2, 권26에서는 입구변(口)에 愛를 쓴 ‘噯’라는 글자를 “云噯(이히나구사메)츠” 등 ‘나구사메’·‘나구사미’라고 읽게 하고 있다(岩波「新日本古典文学大系」의本文, 旧「大系」·新「大系」의 訓, 旧「日本古典文学全集」·新「全集」의 訓, 「日本古典文学集成」의 訓 安部·伊藤 2008).

중국에서는 ‘아이’라고 읽고 자의는 ‘오쿠비(트림)’이라는 형성문자로 만들어진 한자였으나, 일본인은 회의문자로 사용하거나 혹은 읽기를 바꾸어 행했다.

중세에는 나아가 ‘아츠카히(仲介)’라는 새로운 일본제 자의가 나타났으며, 일본에서 이 글자는 미화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噯’의 ‘나구사미’는 일본제 자의라고 생각되었으나, ‘大正新修大藏經(SAT)’에서는 당대 불전에서 ‘위로하다’에 가까운 ‘愛’와 유사한 동사로서 ‘噯’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어 일존용법(佚存庸法)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여기에는 당시의 경문이 돈황 문서에도 있는지 등 검증의 여지가 있다.

『今昔物語集』에는 ‘倂(오모카게)’나 ‘覽(나비쿠)’, ‘穴轉(아나우타테)’와 같은 회의로 보이는 일본제 한자, 구성 요소를 전도시킨 일본제 한자, 혼독에 의한 가차를 포함한 임시적인 합자 등도 사용되고 있다.

3.5. 음양도 사회

헤이안 시대의 음양도 사회에 대해서도 언급해 둔다. 신도, 불교나 도교의 영향을 받은 수험도(修驗道)나 음양도 등의 주술가가 문자 같은 형태의 부(符)를 만들어내는 일도 있었다. 이 또한 사회 변화에 입각한 출현이라 할 수 있다. 귀족 사회에서의 부적[符呪] 사용도 문헌상의 기록 외에 실물도 남아 있으며, 위상에 대한 엄밀한 판단을 위해 더 많은 발견을 기다리고자 한다.

‘𠂔’처럼 ‘見’이 두 개, 한쪽은 뒤집혀 쓰인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음양도의 부적으로 중국에서 온 문자인가 생각되기도 하지만, 태정대신 藤原忠実의 일기 『殿曆』 永久 5년(1117)

11월 19일에도 등장하고 있다.

『新撰字鏡』에는 ‘月 𪛗’, ‘月 𪛗’이라는 글자가 수록되어 있으나, ‘𪛗(벤)’이라는 한자가 뭉개진 것이며(『新撰字鏡校注』 상권 p.33, 이 글자는 『新撰字鏡』에서 다른 구성 요소에서도 자형이 불안정함), 자체상의 충돌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笹原2016a).

『이바라키 신문』 2014년 2월 20일 자(웹판)에는 “현 교육재단은 19일, 常陸太田市 瑞龍町の 瑞龍 유적 발굴 조사에서 헤이안 시대 竪穴 건물 터로부터 남녀의 성교를 의미하는 일본제 한자 ‘’ (히루쿠나가히)’가 주격으로 새겨진 토기 바닥면이 출토되었다고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다.¹⁰

덧붙여 신도 사회에서의 한자의 변용은 「中世日本紀」 등의 세계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음성과의 결합 강약이 문자와 기호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柴田武 씨도 서술했듯이 ‘○’은 ‘마루’라는 단어와의 결합이 매우 강하여 그 형태의 읽기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게 된다.

위에 인용한 『釈摩訶衍論』의 부적에서는 한자와 섞여서 범자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형태가 반절을 동반하여 기록되어 있다. 개별 의미는 명료하지 않으나 필자는 이러한 것도 위상 문자의 일종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밀교 세계의 초물서에는 합자, 약합자, 약자, 가나 표기 등 다채롭고 편리한 자체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개인 문자(個人文字)’도 필자가 과거 정의와 함께 제시하여 학계에 부분적으로 퍼진 용어로, 기존의 개인어라는 용어와는 부정합이 있는 외에 문자는 사회성을 가진다는 일반적인 정의와 모순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한자적인 구성법과 구성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고, 타자가 본 순간부터 회의문자나 합자 등으로 해석되어 자의가 연상되기 쉽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사회성이 생기고 문자성도 띠기 시작한다. 덧붙여 술어는 학계 내에서 선택을 거쳐 부적절한 것은 도태되어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부적 또한 언어와의 관련에서 파악하면 음 내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의(義)가 있기 때문에 문자성을 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시적으로는 이미 명확한 문자성을 획득하는 결과를 얻은 것도 있다.

3.6. 동국 사회·무가 사회

동국 사회나 무가 사회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을 가진 글자도 존재한다.

平将門의 난의 전말을 그려 940년경 성립된 『將門記』의 작자는 동국 거주자이거나 교토

¹⁰ https://ibarakinews.jp/news/newsdetail.php?f_jun=13928105607429

<https://www.youtube.com/watch?v=NQJXc0TZp1s>

의 귀족 혹은 무가, 또는 동국의 신흥 무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파된다. 본서에는 이른바 ‘하쿠쇼요미’가 많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으며(沼本 1973), 지역 내지는 사회적 확장에 입각한 언어적 특징을 가진 문헌으로 파악된다.

거기에는 ‘懃’라고 쓰고 ‘아지키나시’나 ‘스즈로니’·‘소조로니’라고 읽게 하는 일본제 한자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靜’이 ‘[靑靑]’으로 이체자가 되는 글자 내에서의 자체 동화가 중국에서도 돈황 문서 등에서 보였던 점, 또한 ‘顛’이 ‘[眞眞]’이 된 것처럼 유형자(類形字)에서 그것이 자주 일어났던 점 등을 토대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제 한자의 창작자에게 字源이 하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前述). ‘無情’(『遊仙窟』 등)이라는 문자열을 토대로 1자화를 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상위 개념 내지 의미 범주를 나타내는 부수에 더해 의부(意符)를 두 번 쓰는 패턴은 일본제 한자로서는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자에는 ‘嚇’, ‘嚇’ 등이 있었다.

중세 이후 ‘懃’의 ‘心’이 상부에 위치하게 되는 것, 또한 변형되어 ‘山’이나 ‘止’가 되는 일도 일어난다.

『將門記』眞福寺本(1099년 사본, 「勉誠社文庫」)에는 ‘懃’에 방훈은 없고 오쿠리가나가 붙어 있다. 거기에서 ‘아지키나시’라고 읽었다고 생각되며, 이는 상대 일본어 ‘아즈키나시’에서 변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나라 시대에는 확실한 용례를 볼 수 없었던 어형이다(『時代別国語大辞典 上代編』, 『上代語辞典』).

여기서 나라 시대에는 보이지 않았던 상언(相言), 이른바 형용사·부사 부류에 대한 일본제 한자의 출현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해 두고 싶다.

자료의 양이나 질의 변화에 수반하여 문자·표기의 보수성에 의한 선례주의에서의 단어 품사의 벽이 돌파된 것이다. 이 글자에 대해서는 黒川春村 『碩鼠漫筆(세키소만피츠)』(1905)에 상세하다. 거기에서는 『類聚名義抄』에 이어 『將門記』가 거론되고 있어, 字誌 기술의 용례 열거 부분의 맹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화사전에서는 大正期の 『大字典』에서도 이 『碩鼠漫筆』이 인용되어 있다.

위상차의 동태(動態)로서 집단 내의 문자·표기는 후대에 어떻게 전해지는 것일까.

문헌의 서사에 의한 전파는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日本靈異記』와 『今昔物語集』에서의 일치하는 내용 면에서도 필연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교 세계에서의 문자 공유(이른바 문자 사회를 상정)가 있어 그 안에서의 유통이 후대에 문헌 간의 공통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리고 ‘円’·‘懃’와 같은 사회 집단의 틀을 넘은 사적 전파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중고에서는 예를 들어 귀족 사회와 승려 사회의 장벽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다른 세계의 문자·표기를 엿보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출가나 환속 등 개인적인 왕래조차 행해졌으므로 이질적인 사회에 젖어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도 있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처럼 개인에 부속되어 위상 문자·표기가 이동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다.

약간 단순화하여 서술하면, ‘匂’의 ‘카이’와 ‘니오이’라는 거의 상보적인 분포 케이스는 동시대에 병행하여 존재한 자체의 충돌(직접적인 상호 간섭은 희귀함)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기술 대상으로 하는 자종과 용례를 늘려 유형별로 분류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치 체제의 변화는 사회 제도의 변화와 결부되기 쉽고, 거기에 천황과 귀족과 함께 수도 이동이 수반되면 지리적 변혁도 더해진다. 중국에서도 진대(秦代)의 국가 통일과 문자의 통일, 육조 동란기의 자체 혼란 등 사회 상황과 한자 상황의 관련성이 때때로 인과관계의 설명을 건너뛰고 자명하게 일어나는 일로서 막연히 설파되어 왔다.

일본어의 문자·표기에서도 사회 변화 등 외적 자극, 외부로부터의 문자·표기의 개인 내면으로의 개입(한자 정책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의한 것), 그리고 문자·표기의 내적인 태동(이는 체계의 빈틈 발생 등 원인이 여럿 있을 수 있음)으로 나누어 고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위상차의 인식에 대해 언급해 둔다. 특정 집단 내에서 필요한 글자나 표기가 만들어지고 내부에서는 통용되는, 내부 사람에게는 전달되기 쉽다는 점 때문에 그것이 퍼지는 일이 있었다. 그러한 사례는 후대에 중국보다 일본에서 늘어난다. 타 집단의 변이에 대한 인식까지 가진 사람은 중고의 식자층 중에 있기는 했던 듯하다. 이른바 역화(域化) 혹은 층화(層化)의 인식이다.

다만 중고에서는 전술한 大江匡房처럼 그것을 행하려 해도 정확하게는 해내지 못했다. 폐쇄적인 사회와 실체형 및 소문에 의존한 정보 네트워크의 미정비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현대와 같은 조감적인 파악은 정보 유통의 제약으로 인해 대체로 중세 말까지는 제한적이었다.

비밀 유지를 위한 암호로서, 즉 문자가 가진 사회성, 전달성을 극한까지 제약한 것도 있었다. 상술한 공가 일기의 ‘𪛗’도 음비(淫靡)한 내용을 기록은 하고 싶지만 너무 알려지고 싶지는 않다는 내면적인 갈등이 선택하게 한 문자·표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이런 부류는 역시 중세, 근세에 보다 명시적으로 출현한다.

3.7. 출처가 불명확

사회·산업 구조의 변화에 입각하여 출현한 글자로서는 ‘畑(하타)’라는 글자를 들 수 있다. 화전 농법의 보급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나 어떠한 사회에서 나온 글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일본제 한자는 한자어 ‘火田(카텐)’이라는 문자열에서 온 것으로, 畠(하타케)와 다른 화전(하타) 농업의 확산에서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용례의 출현 상황으로 보아 속자훈에 의한 합자가 아니라 회의문자인가. 상대의 용례로 여겨지는 것은 住吉神社 소장 문서가 있으나, 확실한 예는 11세기 신사 문서나 공가 일기에 나타난다(이토 1995 등).

‘畑’는 「紀伊国栲(카세)田莊絵図」 神護寺本(1184년경)¹¹에도 출현하고 있다. 참고로 이

¹¹ <https://www.hakubutu.wakayama-c.ed.jp/kaseda/sakuhin/sakuhin.htm>

<https://houraisan.com/?p=129>

【栳】’는 센묘(宣命)에 쓰이고 있어 상대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 ‘츠라츠라’는 상대부터 쓰여온 단어이나 ‘侑’에 의한 일본제 자의는 중고부터라고 한다. 또한 ‘[]女氣(하니카무)’라고 읽는 글자가 『色葉字類抄』前田본에 수록되어 있는데, ‘하니카무’는 헤이안 시대에는 이빨을 드러내고 화를 낸다는 의미가 있어 궁중 부근의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아닐까.

상대 일본제 한자·일본제 자의가 거의 구체적인 물건의 이름밖에 표기하지 않았던 것에 반해, 중고에서는 이러한 단어의 의미 영역에 확장이 확인된다.

품사에서 체언뿐만 아니라 용언에서는 동사, 형용사(정의 형용사 등), 상언에서는 부사 등에 미친다.

일본제 한자·일본제 자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이것들은 다음 시대에는 ‘화문 특유어’(‘사테’ 등 【扱】【扱】)에까지 확장을 보인다. 또한 중고에서는 합자·회의 이외의 조자도 양산되었다.

덧붙여 일본제 한자를 가차에 의해 형용사나 조사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상대부터 【靱】·【櫓】 등에 행해졌으며 중세 이후에도 【櫓々】·【迺】 등에서 볼 수 있다.

3의 요약

중고에서는 한자의 자종·자체·자음·자의의 일본화의 주요 주역으로서 귀족(학자 포함)이나 관인, 승려(학자 포함), 신도가(神道家) 등이 거론되었다. 특히 승려(학자 포함)의 증가가 현저하며 헤이안 불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자의 일본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동국 무가의 대두 영향도 엿보였다.

위의 일본화의 언어적 내실로서는 체언 이외의 품사를 나타내는 단어에 대해 일본제 한자·일본제 자의가 차례차례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일본제 이체자도 상대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헤이안 시대에는 ‘円(圓)’의 원형이나 ‘○(輪)’이라는 글자가 출현했다.

일본 사회에서는 외래 사물은 거의 모든 것이 시대와 더불어 일본화되면서 층을 이룬다. 대체로 여러 면에서 요소의 다양화가 진행되며 공식적으로는 다양성을 띤다. 의미조차도 세분화되어 각각에 정의성(情意性)을 포함한 뉘앙스 수준의 차이가 생기기 쉽다.

4. 일본제 한자의 시대상

4.1. 일본제 한자가 출현한 시대(정치사)·지역(행정구역)

일본제 한자의 시대상에 대하여, 일본제 한자가 출현한 시대에 따라 레퍼토리가 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에 전형적인 사례를 나타낸다.

덧붙여 ‘栴(토치)’라는 글자는 메이지기에 관리가 만들었다고 일컬어져 왔으나, 에도 시대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검증을 쌓아 올려 지층 연구에서의 시준 화석(지표 화석)과 같이 ‘시준 문자(지표 문자)’도 설정할 수 있다면, 기존의 피휘자(避諱字)처럼 문헌의 필록이나 서사 연대

측정 등에 공헌할 것이다.

시대	예시 글자	읽기 방식	지역	비고
나라 시대	櫨	카시	나라	
헤이안 시대	枳	토치	교토	
가마쿠라 시대	櫨	시데	나라	
무로마치 시대	櫨	나기	교토	
에도 시대	櫨	타부	사츠마	
	枳	토치	쿠마모토	기존 설과 달리 『木下韃村日記』 등에 있음.
메이지 시대	櫨	벤도	아와지	

こまつ1976은 ‘匂’에 대하여 ‘韵’ 삭의설(削意説)이라는 새로운 파악 방식과 신규 해석 자체를 수행했다. 대중의 주목을 받은 설이었으나 검증을 통해 부정되었듯이, 문헌상의 현실을 쫓아 그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한자 ‘匂’(인, 정돈되다)과 거기에서 분화된 ‘匂’ 사이의 경합 상황을 적절히 기술해야 한다.

필자 또한 일본의 문자·표기를 체계로서 파악하고 싶으나, 일본의 한자는 고유어와의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와 비교해 개별 글자의 개별성이 높다. 그리고 개별적인 각종 요소가 변화를 향한 예상치 못한 인자가 되기 때문에 개별 글자는 더욱 독자색이 강해진다. 체계 안에서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가 서로 끌어당기고, 버티고, 밀어내고 있는지 진지하게 관찰할수록 파악하기 어려워진다고 느껴진다. 더 나아가 생각하면, 식자층의 확대가 자종·자체 수준에서 속자를 낳는다는 현상은 일·중 양국에서 확인된다.

현대에는 예를 들어 책받침(シンニョウ) 점의 불통일(역자 주: 책받침을 부수로 갖는 글자에 1점(し)인 것과 2점(し)인 것이 공존하는 현상)이 자종 단위에서의 흔들림을 무의미하게 일으키고 있다. 상용 한자에 추가된 강희자전체는 마찬가지로 문자나 문자 체계의 내적 변화를 향한 임계점을 돌파하여, 새로운 자체(라벨로서는 오자(체))조차 낳는 계기가 되었다.

유사한 구성 요소나 자체가 다른 자체나 별개의 자종에 간섭하는 사례도 ‘오자’라고 치부해 버리기만 해서는, 동태에 대한 고찰의 기회를 고스란히 방기하는 것일 뿐이다.

서체 수준에서는 귀족 사회의 변질이 화양(和樣)을 낳고, 무가 사회의 대두가 그것을 御家流로 바꾸어 퍼뜨리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지배층 서풍의 지향성이 적어도 상층 사회의 사용 문자를 뒤덮었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을 문자사 안에서 더욱 자각적으로 다루어 기술하고 정밀하게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기 소재에 대해서도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 모필은 필순의 고정화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여했을 것이다. 필기구의 변화가 둥근 글씨(丸文字)를 낳았다는 점은 사회학 분야에서 지적되고 있다.

4.2. 헤이안 시대에 계승되지 않은 한자

‘女感孀(오토메)’나 ‘霏霏(타나비쿠)’ 등 『万葉集』에 등장하는 柿本人麻呂가 만든 것으로 여겨진 글자들이나, ‘鏝’(불전에 있던 일존문자로 『日本書紀』에서 사용)라는 글자 등은 헤이안 시대에는 이미 새로이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사용된다 하더라도 와카 등에서 일부 사람들이 답습하는 정도였다.

그에 반해 헤이안 시대 이후로 계승된 글자도 존재한다. ‘霞(카스미)’는 『万葉集』에서의 柿本人麻呂의 용자라고 지금도 여겨지지만, 현대까지 남아 상용화되어 있다. ‘氐’의 육조 시대 중국 북방 등에서 이용된 이체자 ‘ㄹ’도 금석문 등에 보이는 일존문자이지만, 현대에도 일본사 교과서 등에서 에미시의 이름인 ‘阿呂流為(아테루이)’로 등장하거나 축문 본문의 조사 표기 등에 남아 있어, 다양한 사회·장면에서의 위상 문자로 변화해 있다.

4.3. 구체적인 문헌의 용례를 우선하는 연구 방법

구체적인 문헌의 용례를 우선하는 연구 방법을 앞으로도 이용해 나가고자 한다. 디지털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자서(字書)나 전자 텍스트에서 찾는 것은 간단하지만, 종이에서 직접 정성껏 찾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다만 에너지와 시간과 기력, 그리고 안력이 필요하다.

한자의 자체만을 제시하고 완료하는 연구도 드물게 보이지만,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에 대한 연구로서는 아쉽게 느껴진다. 그 자체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 자형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와 결합되어 있는지. 대개의 경우 단어가 먼저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왜 이 자체로 나타냈는지, 어형의 차이를 서로 다른 자체로 나타내려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점까지 파고들 필요가 있다. 필자도 예전에는 자체의 포착을 즐겼으나, 현재는 언어 그 자체로 관심이 향하고, 나아가 그것과 문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때 관여하는 사람의 심리와 그것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어떠한가 하는 시야까지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형, 자체, 서풍에 대해서조차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

가마쿠라 시대 진언종 승려에 의한 사본(14세기)으로 여겨지는 觀智院本 『類聚名義抄』의 法 상권, 족부(足部)에는 일본제 한자인 ‘辻’라는 글자에 다시 족편(足偏)을 더해 ‘후모토’, ‘하기’(이 ‘하기’는 정강이의 뜻인가)라고 읽게 하는 글자가 게재되어 있다. 일본제 한자를 이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사례이다. 다만 똑같이 ‘후모토’라고 훈이 붙어 있는 ‘趾’라는 글자에도 토대·바탕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차적인 해석에 의한 회의화가 이루어졌

을 가능성이 있다.

‘足昆’ 등 『万葉集』에 있는 벽자(『新撰字鏡』 내지 『龍龕手鏡』에서 수록된 것인가)가 『類聚名義抄』에 게출되어 있는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

『龍龕手鏡』에서 계승한 ‘閑’은 일존문자가 되었다가 이윽고 지역 문자로 변해 간다. 이러한 점에서 사전 연구의 중요성도 절감하게 된다. 덧붙여 『色葉字類抄』나 『類聚名義抄』에는 자훈이 100종을 넘는 글자가 나타나고 있다. ‘畠’을 ‘하쿠’라고 음독하는 유추음 부류는 일본 한자어[和製漢語]라고도 부를 수 있으나, 중고·중세 문서에 보이는 ‘田畠’은 어떻게 읽히고 있었는가 하는 점도 계속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상대와 중고에서의 한자의 일본화에 대하여, 조사하여 판명된 양 시대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했다. 많은 연속되는 현상들이 있는 한편으로 글자의 구성 요소, 구성, 훈으로 여겨지는 단어의 품사 등에서 ‘단층’ 부분이 확인되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개별 조자의 이유나 전파 실태 해명 등 향후의 과제도 찾아내었다.

이번에 뛰어난 선학들의 인도를 받으며 수작업에 의한 용례 채집과 카드 및 논문화 등에 의한 정리, 다양한 종이 자료와 그것을 본 그대로 남아 있는 기억, 그리고 최신 각종 데이터 베이스류에서의 검색과 웹 이미지에서의 확인을 토대로 여기까지 기술과 고찰을 진행해 왔다. 나라 시대에 이어지는 헤이안 시대의 한자의 일본화에 대해서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일본제 한자의 통사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한 이래의 검토가 되었으며, 상당한 재조사를 거쳐 고찰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머지않아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성 AI가 분담해 줄 날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면에서 전혀 무력하여 허위 전거나 문장까지 제시해 올 것이다. 그리고 가짜 뉴스는 인간이, 때로는 연구직에 있는 사람조차 발신해 버린다. 조금 더 연구자가 진지하게 하나하나 조사와 작업과 고찰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개해 나간다면, 기계도 그것들을 제대로 학습함으로써 빈틈없이 정확한 작업을 수행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진실은 사람을 행복으로 이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실증적으로 현상과 그 배경에 관한 사실 추구를 계속해야 한다. 필자는 처음에는 한자 그 자체가 흥미롭게 느껴졌으나(수집 마니아에 가깝다), 점차 언어와 그것을 낳고 이용하며 읽는 등의 행위를 하는 인간, 나아가 그들이 구성하는 사회로 관심이 확장되어 왔다. 고대에 대해서도 현대 못지않게 문자·표기에 관한 인간 마음의 심층에 대해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내성(內省)도 거의 통하지 않으며 문헌상의 언급이나 현상 자체의 기록도 부족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술한 清少納言에 의한 개인의 문자감·표기감 등 내면을 표출한 기술은 귀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동일한 언어·문자라는 소재를 다루는 인간이라는 최소한의 공통점에 의해 고대인과 현대인을 연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터이다. 다만 그 환경이나 배경 상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

어 비점(秘点), 비훈(秘訓) 부류의 위상 설정 등을 포함하여 안이한 유추는 선입견과 오해의 근원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과거의 점과 점을 연결하면 직선을 그을 수 있지만, 사이의 점이 발견되면 선은 곡선에 가까워진다. 점이 늘어나면 면이 되고 다시 입체가 되어 더욱 정밀하게 역사를 묘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로서는 실은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결선으로 그려야 할 것들도 있을 것이다. 문자·표기에 관해서는 현대의 현상에 대해서조차 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넘쳐나고 있다. 최근에야 깨달은 것이 있을 정도여서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절감하는 나날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상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는 격언도 있으니, 해명된 것부터 혹은 문제 제기로서 깨달은 점들도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물어 나갈 생각이다.

(참고문헌은 일본어 원문 참조)

부기(付記)

본고를 이루는 데 있어 石井健 씨, 乾善彦 씨, 犬飼隆 씨, 井上幸 씨, 内山裕美 씨, 尾山慎 씨, 黃詩琴 씨, 蜂矢真郷 씨를 비롯한 많은 분으로부터 유익한 가르침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는 과연비기반연구(A) ‘동아시아를 부감한 일본 열도 가나 문자 확립에 관한 종합적 연구’(나라문화재연구소)에 힘입은 바가 있다. 본고는 ‘한자 사용에서의 나라·헤이안 시대의 단층 - 중고에 나타난 자종·자체·자의 -’(나라여자대학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2025년 8월 25일)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古代日本における漢字の字義の変化と字種の創造

笹原宏之（早稲田大学）

0 はじめに

貴学会設立30周年、心より祝意を申し上げます。

私は、漢字の日本化に関して研究しており、それに先立つ韓国での漢字の受容と変容についても注視してまいりました。2017年2月1日に、当時の李建植会長（壇国大）の推挙に恵まれ、貴学会において特別発表を国立慶尚大学校統営キャンパスにて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の時は、「上代における日本製漢字の作製と使用」という題目で口頭発表を致しました。会場では、皆様より温かい御教示を頂き、感謝の念を深めたものでした。その後、改稿を経て同年の8月に、『口訣研究』39 pp43-86、翻訳pp87-128において「上代の日本製漢字の製作と使用 ―その前史と展開―」「상대상대의 일본제日本製 한자漢字의 제작과 사용 -그 이전의 역사와 전개-」と題して掲載していただきました。御学恩に深く感謝しております。

これから述べる古代日本の状況につきましては、実際には韓国の影響があったと推測される事象が多々あります。御教示を賜れば幸甚に存じます。

本日は、漢字の使用における奈良時代と平安時代の間の断層、中古に現れた字種・字体・字義という少し大きめのテーマで話を進めていく。

2 上代：飛鳥時代・奈良時代（592-794年）

3 中古：平安時代（794-1185年頃）

4 日本製漢字の時代相

1 はじめに

上代（奈良時代以前）から中古（平安時代）に入ると、用いられる語のほか、いわゆる上代特殊仮名遣が消滅に向かい、発音も頭子音の p 音が両唇摩擦音に、文法も助詞の「ゆ」は「より」に、助動詞「らゆ」が「らる」に吸収されていくなど、言語に種々の変化が起こった。その原因としては、地理的、歴史的、位相的な差などが挙げられている。

文字・表記の面でも、カタカナ、ひらがなが成立することは日本語学の分野において深く議論されてきたが、使われる漢字に字種・字体・字音・字義の各レベルで変動が起きたことに関しては、呉音・漢音などの問題を除くとあまり言及されてこなかった。

平安遷都を契機として、「城」が「き」（百済系の語）に「しろ」（山背から）という訓

読みが加わったとされる事象は、まだ知られている方である。稿者は、漢字の広い意味での日本化ということ自身を自身の研究テーマとしているが、それに関する平安時代前後の事象について、できるだけ多くの事例を提示しながら考えを述べていく。

ここでは、とくに字義・字訓の新造つまり日本製字義（国訓）、字体の新造つまり日本製異体字、字種の新造つまり日本製漢字（国字）に焦点を当て、その状況を説明し、背景について考察したい。

世上には、文献から個々の事実を積み重ねていく帰納的な研究方法を重視せずに、現代の少数の例から理論を設定し、推論を重ねるケースがあるが、その結果起りがちな上滑りは避けたいと考えている。それぞれの異なる方法で言語事象に迫り、成果を互いに照合すればよいが、現実には齟齬が生じやすい。本稿で扱う文字・表記に関するテーマに関しては、時代を問わず、多数の実例に基づき論ずる人は多くはなかった。

稿者は、文献に基づく実証主義に基づき、合理的な実態記述を追究することを目指しており、現象を生む背景に迫るために位相論、書記論、表記体論なども適用させている。また事象の整理や分析のために、字体にも同化、転倒、衝突などの概念を異分野から導入してきた。

最近では、現代の漢字の運用と背景にある社会状況そして人間の行動と心理にも関心を抱いている。しかし、私は歴史については文献研究こそが重要だと考える。

なお、文献調査となると、翻刻より影印・画像、それらより原本に当たることが精確さを求める上で重要となる。稿者も諸々の原本調査により印刷物や画像に生じた差異を確認してきたが、ここでは大量の文献を示すために、あえてサイトで公開されている画像の類も多く引用していく。

2 上代：飛鳥時代・奈良時代（592-794年）

2.1 上代の漢字の日本化に関する稿者による論考

稿者はこれまで、上代の漢字の日本化に関しては、ある程度文章をまとめてきたため、本稿ではその大略を記す。しかし、平安時代となると、修士論文で通史的なことを書いたものの、それ以来の検討となる。その間に、さまざまなことを学んではきたが、よい機会をいただき、今回久しぶりにまとめて検討をすることになるため、ぜひご意見を伺いたい。

2.2 変化の事例とその要因

まず漢字は、巨視的に見れば体系を成すものの原則として開放系、複雑系を成すため全体を捉えることが難しい。まず要素がいくつあるか分からないうえに、随時増やしてもよい。個々の要素のもつ機能もまた拡張・縮小がなされ、使い方も変えてもよい、新しいも

のを生み出してもよいのである。要素同士を種々のレベルで組み合わせたり、ときに分離したりすることさえ可能である。

そうした性質をふまえたうえで、初めに漢字を大括りに捕捉するために、従来の諸説をふまえつつ1つの分類枠を示し、該当する典型例を示す。

漢字がある個人や社会から他へと伝播する際、種々のタイプの受容が起こる。変化は、接触の瞬間に起こるケースと受容後に時間を経て起こるケースがある。

中国	日本	変化の要素	用語	始まる時代
輸 シュ	ユ	字音	和音 「百姓読み」 慣用音	上代
圓	円	字体	日本製異体字	中古
餅 小麦製	糯米製	字義	日本製字義：国訓	上代
鶇 しぎ	鳴	字種	日本製漢字：国字	上代

漢字は使用された歴史が長く、表意性の高い文字でもあるため、種々の層をなしうる。例えば「輸」という字は、もともと中国語の漢字音からは「シュ」と読むべきものであったが、偏または旁から類推して読む、いわゆる「百姓読み」（「和音」の一種）である「ユ」という読み方に変化して「慣用音」と位置付けられるに至った。

また、「圓」「傳」という字は、このいわゆる正字体を略して「円」「伝」と書く日本製異体字が生じてついに当用漢字に採用されたように、字体レベルでの変化が起きた。

「餅」は、「もち」と読むが、中国では「ビン」のように読み、小麦製の食品であって、糯米製ではない。こうした字義の変化も奈良時代以前から確認でき、江戸期から「国訓」と呼ばれている。

「しぎ」という鳥については、中国では「鶇」という漢字を用いるが、日本人は奈良時代から「鳴」という会意文字に分類される日本製漢字を生み出している。漢字の要素は「形音義」と言われるが、字種のレベルまで含めて伝播と変容は早くから行われてきたのである。

2.3 漢字を改良する：用法・字体レベル

「椿」という字は、我々は「つばき」とさっと読むことができるが、椿山荘の「チン」という音読みが思い浮かぶ方もいるだろう。中国では「香椿（チャンチュン・シアンチュン）」と呼ばれる、背の高い木、あるいは霊木の名を表す字として登場するが、日本では7世紀の音義木簡と呼ばれる観音寺遺跡出土木簡に「椿」の下に「川（ツ）婆木」と記されており、この頃にすでに日本製字義があったことが分かっている。何からこういうものを持ってきたのか、解明が待たれる。

より早い時期のものでは、稲荷山古墳出土鉄剣銘に「首（おびと）」があり、中国での

字義を日本風に変えたものであるが、ヤマト政権以降、姓として与えられていた。変体漢文などと呼ばれる文体による文章において、「賜（たまふ）」「坐（います）」「奉（たてまつる）」などの和語の敬語に対して漢字を当てて日本語の語順で文字列に配置することが、7世紀の「法隆寺金堂薬師如来像光背銘」（623年以降）に見られる。

一般により親しみのある物としては、「櫻（さくら）」は、中国の隋唐の時代にはユスラウメあるいはシナミザクラを指していたことが各方面の研究で明らかにされており、これは奈良時代に日本において日本に自生するサクラを表すようになった日本製字義である。「鮓」「鮓」は平城京などにおいて木簡に使用されていたことが分かっている。中国では酢漬けや塩辛を表す字であったが、日本では「なれずし」の類を表していたようだ。食品名にはこのように日本製字義が各種見られる（「餅」などについては後で触れる）。こうした産物には、律令制に組み込まれ、公式な表記となるものもあった（飛鳥資料館2010ほか）。

2.4 日本製漢字の出現

このような漢字の日本化が徐々に進む中で、いよいよ新しい字を作るということが7世紀の末くらい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

「法隆寺観音菩薩造像記銅板」（694年）に「鴈（いかる・いかるが）」という字が現れる。イカルガという鳥を見てみると、確かにくちばしが角のように見える。ただ、中国産だが日本にだけ用例が残った佚存文字である可能性があるほか、中国にも「いかるが」に相当する「鴈」という字があり、この「且」の部分が「角」に変化したとも考えられる。形声文字を会意化したとすると、特定の漢字に音よりも意味を表してほしいという意識がこの頃から日本人に抱かれることがあったことが推測できる。漢字を土台・基盤（ベース）として旁を意符に置換するという類型については、後で「𪛗」という字についても述べる。

『日本書紀』巻44によると、683年、天武天皇の命を受け境部連石積（さかいべのむらじいわつみ）が『新字（にいな）』という書籍を編纂させるという漢字政策が行われた。『新字』は散逸しているため、内容などについての詳細は不明であり、実際に存在したか否かについても検証の余地があるが、考古学的、文献学的にはその頃から漢字の日本製字義、日本製漢字が現れている。

日本製字義については「鮎（アユ）」や「𪛗（つま）」などのほかに、乾善彦氏が明らかにされた「𪛗（しのふ・しのぶ）」が偏の付加によって中国製漢字との字体の衝突（一つの字体へと吸収されること）により、この時期にはまだ珍しい動詞を表記する漢字として現れる。なお、「若」は「わかし」という形容詞を表す神の名に用いられるが、これは中国で「弱」に通用したことを利用した佚存義であることが知られている。

柿本人麻呂が作ったと言われる「霞（かすみ）」という日本製字義も、中国では夕焼け

雲や夕焼けの赤い空という気象現象を表す字であったものを春の「かすみ」に転用したと考えられている。

そして、日本製漢字も先述の「鴈」に加え、『和名類聚抄』4-3オにおいて「𪛗（とも）」という字について「『蔣鮎切韻』云𪛗〈音早 和名止毛 、『楊氏漢語抄』『日本紀』等用𪛗字 俗亦用之 本文未詳〉」と記述されており、『楊氏漢語抄』という奈良時代に編まれた対訳辞書や、『日本書紀』に出現すると指摘されている。また、「𪛗（かせ）」という字は祝詞に出現し、また「𪛗（さらけ）」という字も中国の漢字が変化した可能性があるが会意文字とも解釈しうるものである。

「早（くさか）」は太安万侶の『古事記』序文には、「日下」という2文字で「くさか」と読むとあり、飛鳥時代から明らかに1文字に縮まって書かれる合字となっている。「くさか」という1語であるから1文字で書きたいという意識が生みだしたのであろう。豪族の姓（かばね）において、日本製の熟字訓が早くから現れていたわけである。「海老（えび）」も木簡に登場しており、奈良時代以前から存在したことが判明している。

2.5 奈良時代（710-794年）

2.5.1 漢字政策

奈良時代にはすでに漢字政策とも称しうる行為が複数行われていた。このことに関する従来の知見をまとめてみると、まず「賜姓名」いわゆる名前を与えるということが行われている。例えば、和氣清麻呂は、称徳天皇が憎しみから「別部磯麻呂（わけべのきたなまる）」に変えたという記録がある。ただしこれは政策というよりも権力者である天皇による個人的な処断であったともいえる。

また、藤原不比等らによる「大宝律令」が701年に完成し、757年「養老律令」で改訂されたが、これらは中国の制度に倣いながら日本的な内容に部分的に変えられていた。例えば、「大輔」「少輔」「助」「介」「弼」などは全て「すけ」と読む（これは現在まで人名に影響を与えた）。視覚的には、どのような職種なのか分かる、どこの所属なのか分かる。また「大丞」「少丞」の「ジョウ」というのは音読みからきているが、「尉」や「允」と書いても「ジョウ」と読ませる。別の字の音読みで読んでしまうという、いわば「慣用音」が登場する。このことから日本の漢字は奈良時代以前から中国以上に自由度が高かったことが伺える。それは訓読みに限らず、音読みにも及んでいた。

そして、713年、元明天皇により官吏に対して国名や地名に関するいわゆる「好字二字令」が出された。「大和（やまと）」という字は、もともとは「和」のみで「やまと」と読めたが、1文字では中国的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大」という読まない字を添え、意味を加えて字面を飾るということが行われた。「和泉」も同様で、「泉」のみで「いずみ」と読めるものに、「和」という読まない字を飾りとして添えたものである。ここに「和」という字が読みの中心になったり、飾りになったりしたのである。私が住んでいる

地は武蔵国であったが、この「武蔵」もこの頃に制定され定着したものである。字音についても、792年から「漢音奨励令」が桓武天皇によって僧侶に繰り返し示された。このように、天皇自らが権威を揮って漢字の在り方を変更することが行われていたのである。

2.5.2 日本製漢字

奈良時代にどのような日本製漢字があったかということを紹介していく。

先述した「𨔵（とも）」は、『日本書紀』では「ほむた」と読む名もあったとあるが、武具の名前として「駿河国正税帳」（『天平諸国正税帳』）など多くの文字資料に登場しており、「𨔵（さらけ）」や「𨔵」とともに最古層の日本製漢字である。しかし、古すぎるが故に旁がなぜ「丙」なのかという字源は分かっていない。「とも」の象形としての文字（字喩）ではないか、あるいは弓を射るときの「ピン」という音を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説も唱えられてきた。

『和名類聚抄』（『和名類聚抄古写本・声点本本文および索引』『古写本和名類聚抄集成』など）所引の養老（717-724）年間に成立したとある『楊氏漢語抄』の「楊氏」は、すでに多くの研究者によって楊胡史（やこのふみと）眞身であると考証されている（『尊経閣蔵三巻本 色葉字類抄』（1984）「新印の辭」）。楊（陽）胡史眞身は「養老律令」の撰集にも与り、天平2年（730）に聖武天皇は、彼に弟子2人に漢語を習わせるように命じた（『続日本紀』ほか）。

『日本書紀』には、平安初期の写本の断簡が残っている。紙が貴重だったため、空海『性霊集』の裏紙が利用されたものであった（杉本つとむ氏のご遺著を整理していた際に『定本書道全集』9があり、拝見していたときに、こういうところにも「𨔵（とも）」があったということを学ばせていただいた）。

正倉院文書も奇跡的な史料・資料群である。我々が見慣れた「𨔵（かし）」という字も奈良時代に出現した。さまざまな用例を集めていると、「田邊𨔵實」という人がたびたび登場する。用例を時代順に並べていくと、739年から748年までは「𨔵」であり、これは中国の「キョウ」という漢字で、日本で「かし」と読む字である。意味は厳密には日本製字義である可能性がある。750年以降、この名前は日本製漢字に切り替わる。「国風化」というと語弊があるが、このように漢字には徐々に日本化が進んできたことの現れであると考ええる。しかし、この名は常に自筆されていたわけではなく、種々の条件も加わった署名であるため、多くの証拠があるとより確かなことが言えるようになる。

正倉院文書（『正倉院古文書影印集成』ほか）は肉筆なので、当時の字形が細部の筆跡まで保存されているため貴重である。「人麻呂」などの「麻呂」は「丸」と同源ではないかと言われている。702年の「大宝戸籍帳」を見ると、戸籍は楷書で明瞭に書くという規定も関係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が（字体は『干祿字書』によるならば俗字でよい）、明らか

に2文字の万葉仮名で「麻呂」とある。これが740年代になってくると、癒合をし始め、1.5文字ぐらいに見える。2文字に近いように見えるものなど判断が難しいものもある。

その横に書かれた「万呂」も少し合体しかけている。このように、くつつき始めているという「書き方」の途中経過を見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748年の写経を見てみると、1文字であろう字形も登場し、横の「万呂」というものも1文字化している。これらは合字と呼びうる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ものが時代的な変遷として捉えうることを示してくれる。つまり、生きた時代が早かった「人麻呂」はまだ麻呂は2文字で書いていたということも言える。ただし、文献の用途、筆記者、書体、書き方、筆記場面、位置、名の文字列なども揺れの因子となり得る。

平城宮・平城京跡から出土した木簡については、現在、奈良文化財研究所の方々とも科研費で一緒に調査をしているが、「木簡庫」などでも豊かな文字の世界を示してくれる。

「イワシ」は、その語が上代のいわゆる紙の文献である『古事記』、『日本書紀』、『万葉集』、『風土記』などに登場しないものの、荷札にされた木簡や文書には税として都に献上された品などとして登場する。魚偏に「弱」で「鰯」であり、万葉仮名表記を経て、語源に即して作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嶋（しぎ）」、「柚（そま）」は会意文字である。「白い田」の意の「白田」という漢語があり、「白」と「田」を結合して「畠（はたけ）」になった。また、「匂」という字に見えるものも出土しているが、この「匂」は後ほど詳しく扱う。

日本にも金文(金属に鋳込まれたり彫り込まれたりした銘文)があった。現在でも、実はマンホールなど、金文と呼べそうなものはあるが、他に生き活きとした文字資料が豊富にあるなかにあって、文字としての価値は失ってきている。

奈良の「栗原寺（おおばらでら）鑪盤銘」（715年か 大和談山神社所蔵 『古京遺文』）に「檜村谷」が見られる。この「檜」は、漢字の「櫃」を土台としたものであろう。いかにも毛筆の線ではない。

2.5.3 書記素材・伝達媒体（メディア）と字種

広い意味でのメディアと言える書記素材、伝達媒体と字種の関係についてまとめてみる。上代は物がほとんど残っていないという資料上の制約がある。文書は伝世品がほとんどである一方、木簡は逆に伝世品は僅かしかなく、出土品がほとんどを占める。ともに当時の肉筆が見られる。

なお、伝世書籍は平安時代以降の写本ばかりである。

『古事記』 南北朝時代以降の写本

『日本書紀』 平安時代以降の写本

『万葉集』 同

『風土記』 同

このような状況が惜しまれるが、写本であっても残っているからには情報を最大限引き出そうとする努力が必要である。それぞれに使用語に偏りもあり、例えば、先ほどの「榎」は、割と様々なメディアに残っていることが分かる。一方で、「鰯」や「鋌（かすがい）」は僅かである。

ほかに、『和名類聚抄』（承平年間 931 - 938年）に引用された上代の『弁色立成』『楊氏漢語抄』（ともに逸文）も資料となりうる。

また、土器にだけ現れる文字というものも登場する（後述）。そうしたものにも文字史的な意義はあり、例えば中古の土器には、ひらがなを練習する文字学習・文字生活の一端などが伺え、他に代えがたい価値を有する。前述した現代のマンホールの類に鑄込まれた字も素材から見ると金文といえるが、文字の資料的な価値は皆無だと思われる（実際にはある）。

2.5.4 漢字圏と国字の前段階

巨視的に漢字圏の中における国字の発生についても、概要を押さえておく。日本では「はたけ」と「た（んぼ）」は語として区別される。奈良時代の日本において米以外を収穫する農地は「はたけ」と呼ばれていた（「畑」は平安時代以降に現れるが、「はた」と読まれていた）。今でも「北畠（きたばたけ）」氏と「田畑（たばた）」氏といった区別が残っている。中国ではそのような区別をせず、いずれも「デン」と言っていた。ただ区別を要する場合には「水田」「白田」「火田」と呼び、韓国に伝わると「水田」は縦に合わさって1文字となる（木村1996は華北に発達した中国文明の影響を示唆する）。近年、百済の木簡に「畠」が出土したともいわれるが、「畠」と見るには「白」と「田」との間に余白が広めにあり、まだ断定しない方が無難であると考えられる。他の字の配置の状態や文意、他の伝世・出土資料からの検討が待たれる。この類は「奈末（ナマ）」などの骨品（階位）や年号などに見られ、犬飼隆による「書き方」の問題と見る解釈が説得力を有する。例えば、晋代の「夏金虎墓誌」（李2023上p39）は、縦横の罫線が柁目を作るが、その1柁の中に1字を書くだけでなく、2字（「夫人」「廿二」、年号の「太元」など1語など比較的まとまりをもつ字画の少ない文字列）も書かれており、また柁目からのみ出しも起き、官職名の「少府卿」などでは1柁に1.5字程度の書き方も見られる。

もちろん、辞書に採られなかったが、中・韓・日において使用された字は「棕」「蓯」（後述）「𠂔糸夾頁」（同）など存在する。

「火田」は韓国では2文字のまま、日本では1文字になった。なお、本稿でいう中国は、主に中国の政治的・文化的な中心地である中原地方を指す。

2.5.5 日本製字義

奈良時代には、日本語の表記素材は、まだ漢字しかないという文字環境において、万葉仮名による表記ではあきたらず、訓読みという方法にさらに応用を加える行為が増える。漢文の訓読から生じた訓読みは、日本製字義を生む基盤であり、その一大源泉となる。例えば「疊（たたみ）」という語と字の意味が日本化していくのだが、後に寝殿造りによって物として改良されていくといったことで語の指す対象にも変化が進む。「袴（はかま）」も、中国とは違う日本独特の衣服を表す用法が奈良時代には現れ、実物の変容とともに字義も移っていく。

日本語学界においては、単語の歴史というものを文化・社会的な背景とともに記述する「語誌」というスタイルによる描出が盛んに展開されてきた。同様の記述は文字においても必要であると考えて稿者は「字誌」というジャンルを提唱してきた。漢和辞典には、字誌を十分に反映した記述がまだ少なく、「字誌」で描かれる世界と漢和辞典の記述とが乖離している現状もいまだに指摘せざるを得ない。近代の漢和辞典は、明治以降に基本的に漢籍を読むために漢学者によって作られた辞書なのである。

2.5.6 佚存文字

「佚存書」と呼ばれる書籍が『遊仙窟』などによって知られているが、中国産であったが日本にのみ用例が残った「佚存文字」というものも数多く存在している。

例えば、人麻呂の造字とも言われた「霰（び）」という字も、六朝時代の墓誌銘にあったことが近年、学会の知るところとなった。『日本書紀』の「鏝（えい）」や、『播磨国風土記』の「欄（たな）」、また、『新撰字鏡』などに載る、小稿で検討した「屎（つび・くぼ）」という字も、唐代の白居易の弟が詠んだ白行簡が賦に使われていた字であった。

また、『万葉集』巻12（元暦校本ほか）の2991番歌に登場する、いわゆる戯書として知られる「馬声蜂音石花蜘蛛荒鹿（いぶせくもあるか）」においては、「蜘蛛」ではなく「蜘蛛」が用いられており、この「蜘蛛（くも）」は、漢和辞典に載せたものがあり、それだけで感心するところではあるが、国字マークが付いていることがある。他でも日本製漢字であると言われてきたが、用例の確認不足による誤解であり、中国側では実は漢籍や仏典にしばしば出現していた字であって、例えば『梁昭明太子文集』（「四部叢刊」初編中第595冊 景烏程許氏藏明刊本）に用いられていたことが分かっており、これも佚存文字にほか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確定している。漢和辞典にはそういった誤りや遺漏が間々あるのである。

また、名詞「ひさご」を意味する「匏」やそれと同義の「瓠」にも、草冠が付されることがあった。

匏	710年以降	平城京木簡
	752年	正倉院文書（『天平諸国正税帳』ほか）

毓 7 3 4 年 正倉院文書
 7 4 5 年 平城宮木簡

「毓」「藹」は上代に使用が見られる、部首付加方式の異体字であるが、中国でも文書に、韓国においても木簡に見られる。字典には載らなかったが、中国・韓国・日本でそれぞれ使用された佚存文字（字体）である。

『篆隸万象名義』も意義のある辞典ではあるが、当時存在した全ての字を載せるということは全く不可能であった。そのような編纂は誰もできず、いまだにできてないのである。漢字も漢和辞典もそういうものなのである。

上記の偏旁付加がなされた字体が、さらに構成要素とその配置を換えて「𠂔𠂔𠂔（ネはネ）」という日本化異体字となった例も、762年の正倉院文書に見られる。

ここで、佚存文字などの用語について述べておく。

漢字を研究する際に、字の出自を突き止め、それらを峻別することは、字の歴史と造字の意図や言語や意識の差を記述する上で不可欠である。必要な概念には術語を設けなければ、研究者にも概念を共有されたり意識化されたりしにくいため、かつて佚存文字という用語を提案した。

なお、字の出自に関しては、字源までいくと、解明のための学問的に絶対といえる方策が無い場合、語源と同様に安易な考察は避けた方が賢明だと考える。

なお、字体・字形は、しばしば人々の意識裡にある区別なのだという点を前提的な根拠として語られる性質のものであるため、出自の問題とは事情が異なっている。意識における区別と言いつつ、それが実際の使用者の意識にはほぼのぼっていないという事実、「字体」が規範化された、種々の字形を有する「令」のケースなど、規範を知って意識の健全化のために変革を迫るという状況を、いかに整合的に捉えることができるかと考え続けている。

2.5.7 上代の日本製漢字・日本製字義の訓読みの品詞（名詞）と意味分野

上代の日本製漢字・日本製字義の訓読みの文法上の品詞（名詞）と意味分野については、道具・衣服など名詞がほとんどだというのが一つのポイントである。奈良時代の日本製漢字・日本製字義というのは物の名前を表すためのものだ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る。

例えば、「禪（ちはや）」や漢字「鬢」「蔓」「縵」から「藹（かづら）」、漢語ないし字音語「半挿」が訓読みになった「椶（はんざふ）」、複数の職能集団に位相があったとされる「鋌（かすがひ）」、平安時代に遊戯の偏継のような場面で生じた可能性のある「鑑（ふき）」などが挙げられる。「坏（つき）」は「杯」から偏の置換が行われた異体字で、日本製字義ではなく中国製の字義かと思われる。他にも、以下のようなものが挙げられる。

榼 ひ とひ

枋 あふこ
 梶 かぢ
 櫓 くれ 【櫓】はその略字。
 畳 たたみ
 袴 はかま

また、昌泰年中(898～901年)の僧昌住『新撰字鏡』『臨時雑要字』『田畠作章』に現れる「畠(はたけ)」や、職能集団の用字からと考えられる「杣(そま)」などの地勢・産物、「妹(せ)」などの人間関係を表すものには複数の先行研究により使用と背景が検討されている。

国名では、日本また奈良県の大和を指す「和」(前述)は、もともと中国人が「倭」という字を当ててきたものである。日本漢字音が同じ「ワ」であることから、よりよい意味を求め、奈良時代のうちに「和」で代用するようになったものであり、いわゆる仮借である。和語で「やまと」とも訓読みする。

人名に用いられる「麿」は、『続日本紀』写本などに現れる。先述のとおり万葉仮名による「麻呂」が次第に詰めた書き方をされるようになり、ついに1字化した合字である(笹原2006)。「まろ」は他の1字表記も多いため、山田孝雄が推測した1語は1字で書くとする意識によるものと考えられる。

神名については、蜃貝比売の「蜃(きさ)」(上部を「刻」などとする異文もある)は日本製漢字のようである。また「霨(おかみ)」や「雲(め)」という字は、『玉篇』に現れる漢字を、上代の史(ふひと)や渡来系の人物ら日本に住む人びとが和語の固有名詞を表記する際に当てて用いたものである。字面の表意性に基づく表現力を追求した結果であろう。

食物の名前や動物の名前にも、日本製漢字・日本製字義が現れている。なお「餅」は「もちひ」というのが上代の通常の読み方である。

植物の名前、「芎(ところ)」は「野老」の意で、熟字訓の表記が「海老」と対をなしている。「櫨(つき)」は、漢字「櫨」の崩し字にもとづく誤った回帰ないし会意化による字体である。字体の日本化とも、固有名詞専用となって音読みを失っているとみれば日本製漢字とも言える。仏典においては「罐」の異体字として使用されており、それとは系統を異にする日本製異体字であるとみられる。

「俣(また)」も同様に、漢字の「俟」が変形して「俣」となったと考えられる。この字体は、中国に別の字(俣)として存在している。

道具・衣服	日本製漢字	椶(はんざふ)・鋌(かすがひ)・鑑(ふき)・ 禪(ちはや)・蘊(かづら かつら)
	日本製字義	坏(つき)・櫓(くれ)・樋(ひとひ)・枋(あふこ) ・梶(かぢ)・畳(たたみ)・袴(はかま)

地勢・産物	日本製 漢字	畠（はたけ）・杣（そま）
人間関係	日本製 字義	妹（せ 親しい男性 妹の対）
国名	日本製 字義	和（ワ・やまと）
人名	日本製 漢字	磨（まろ）
神名	日本製 漢字	蜺（きさ）
	日本製 字義	靄（おかみ）・曇（め）
食物名・ 動物名	日本製 漢字	鳴（しぎ）・鶉（とき）・鰯（いわし）・鯰（はらか）
	日本製 字義	餅（もちひ）・鮓（すし）・鮓（すし）
植物名	日本製 漢字	櫨（かし）・櫨（つき）・芎（ところ）
	日本製 字義	萩（はぎ）・櫻（桜）（さくら）

なお、「鶉」（とき）は、字体が類似する漢字の字体「鶉」などに吸収されるケースも生じる。

前述した「鰯」（いわし）は、万葉仮名による表記からこの会意文字（形声文字を兼ねるか）へと変わったことが知られている。官人が使用した表記であり、律令格式の類に載せられた結果であった可能性もある。

2.5.8 日本製漢字の位相

これらのような日本製漢字について、社会集団や場面によって使われるか、使われないかが変わるという位相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例えば「鋙（かすがひ）」は奈良時代から文書や木簡等に出現するが、唐招提寺文書には「槽鋙」と書かれていることが知られている。ただし別の物なのか、作者・使用者集団による使用する字種の差異なのかは、検討の余地がある。

源順『和名類聚抄』高山寺本 卷10には「拳鋙」（あげかすがひ）が「功程式」（平安初

期)から引かれており、律令格式に採用された日本製漢字であった。「鰯」なども同様であろうか。

また、『万葉集』にも個人文字、『風土記』や文書には地域文字であった可能性のある字が用いられており、上代は現存する資料が少ないものの、文字史において多くの可能性を感じさせるほど、上代の文字はすでに多元性や局地性を有している。重層をなしがちな日本の社会においては、さまざまなレベルの事象が要素となり、それらが各種の変化を促す因子にもなっていく。筆録者、書写者が、メタ的な読者が文字体系の中で類推が可能であろうと考える意識を想定することによって、読み仮名を欠く造字を用いる表記姿勢について理解ができるようになる。

日本製漢字・日本製字義を生んだ識字層はいかなる状況にあったのだろうか。

上代の識字層については、まず史(ふひと)など書記という集団の役割が大きかったと考えられる。「靫」(とも)のような武具に対する字は、史(ふひと)が作製したとしても、間もなくそれを実際に道具として用いる武人など職能集団や貴族(貴族・僧侶には学者も多かった)も使用するに至ったのであろう。さらに助字の仮借に応用されたり、『和名類聚抄』高山寺本などで地名にも複数使用されたりしているように固有名詞にも定着するまでに、ある語を表記するための用字としての一般化が進んでいたことがうかがえる。

また、先述した神名の「蜺貝比売」の「蜺(きさ)」という字には異文が複数あるが、史か神道家が作った字ではなかろうか。ただし写本しかないため、当時の社会で用いられた字体がはっきりしないところがある。『万葉集』に頻出する「蘊(かづら・かつら)」という日本製漢字は、歌人である貴族によって使用されていたのであろう。

「袴(はかま)」は、物の質的な変化に応じて字の意味も変化し、日本製字義となったものである。ある種の職能集団の職人が作った字・意味であろうし、それは下級貴族である官人であったことも想定しうる。

2.5.9 呪符 特定の語との結びつき(読み方)を有しない：文字性の欠如

上代の文字文化を彩るものとして「我念君・君念我」などと書かれた「呪符」がある(『日本の美術』6ほか)。これは江戸時代の書籍において、相手と別れたい時に書くという意味を持った呪符であるということが語られ、定説になっていたが、渡来人か遣唐使ないし渡来品により伝えられた吉祥文的な符であったことやその後の経過が明らかとなっており、唐代・奈良時代の頃から室町時代頃までは、そのような効果が期待されたものであった(笹原2016、呉2022)。公卿の藤原良相(よしみ・よしあう・よしすけ 813-867年)邸からも「我念君」の「合字」が記された墨書土器が2009年の調査で発見されている(乾2013)。

文字の定義は西洋の言語学における音声中心主義から生まれているが、実際には漢文の読解や、読めない字の転記などの書紀行為や臨書など、音声言語から遊離しても漢字は存在し、意味の伝達を行いうるものである。

2 のまとめ

漢字の字種・字体・字義の日本化の担い手は、史・神道家・学者・歌人を含む貴族や、職人を含む官人、その他は仏者で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またこれらの日本化の内実として、日本製漢字は名詞（仮借用法を除く）、日本製字義もほとんどが名詞を表記するために産出されたものであった。

3 中古：平安時代（794-1185年頃）

794年の桓武天皇による平安遷都により、奈良時代が終わり、平安時代が始まる。その約4世紀間の初期については、小島憲之が「国風暗黒時代」と称したこともあるが、実態を映す現存資料が乏しいことによるものであった。様々な文化の「国風」化は、象徴的には菅原道真の建議による894年の遣唐使の廃止の頃には強まっており、いわゆる国風文化が発展する。

以下、貴族社会、神道社会、仏教社会、陰陽道社会、東国社会といった社会集団ごとに、ある文字が出現して使用される状況とその用法に照準を合わせて記述する。

3.1 研究対象となる資料

ここで研究対象としうる資料は、書籍、『漢語抄』や『小学篇』などをはじめとした辞書、文書、木簡（数量が減少する）、土器、陶器、金石器などである。

3.2 字誌

ある特定の字やその用法に焦点を当て、貴族社会、神道社会、仏教社会、陰陽道社会、東国・武家社会など、それが文献に出現したことが確かめられる社会ごとに分類して検討していく。

なお、当代においては、貴族（公卿）と寺社など各社会との区別が不明確なものもある。また宗教社会では、神仏習合は上代より始まっており、またその中で呪術社会の位置は必ずしも明確ではない。地域社会は、上代より地域的な使用文字（地域文字・方言文字、字種、字義、用法）を萌芽させていたが、中古における疑問例を経て、中世に至って量産さ

れるようになる。また職人社会は、一部が貴族社会の末端に属していた。刀剣家の社会は鎌倉時代より位相文字を用いるが、寺院との関わりが深かった。他にも職種ごとの位相文字は、中世に文献とともに複数が露出するようになる。

3.2.1 「勾」の史的展開

ケーススタディーとして「勾」という字の史的展開について検討した結果を紹介する。なお、「勾」から「𠂇」へという字体の変化と定着は、硬筆では実現しなかった可能性がある。

「勾」は16年前に常用漢字表に追加され、現在は一般的な日本の漢字となっているが、一般的な中国人はこのような字は見たことないと言うだろう。しかし、実際には『法苑珠林』巻56や『一切経音義』巻81（高麗蔵 「SAT」ほか）など中国の仏典に現れている。「勾」の中の「ヒ」の部分は、末画がはねていない字形がほとんどであり、「𠂇（カイ）」つまり「勾」という字の異体字としてしばしば登場した。「掲」や「葛」なども同様に、字体の揺れとしてパーツを「勾」で書く異体字がある。

五代の仏典の音義書『新集蔵経音義随函録』には、「勾（ヒ はねない）」が「𠂇（カイ）」の異体字としても、また「勾（イン）」の異体字としても現れている（鄭2023ほか）。「𠂇（カイ）」の異体字の方は「ヒ」の左下の部分が折れ曲がって書かれており、「勾（イン）」の異体字の方は、左下の「ヒ」の部分が曲線的に曲げられているがこれは偶然であろう。字体の「同形衝突」（同字体衝突）である。

遼代の仏経字書『龍龕手鏡』高麗版（この版本が遼代の古態を最も忠実に伝えたとされる）には、「勾（ヒ はねない）」が「𠂇（カイ）」として掲載されている。「高麗大蔵経」にも「勾𠂇」とある（『高麗大蔵経異体字典』）。

さらに、何2004では、敦煌本『励忠節鈔』において「均」の旁を「均」のように「勾」で書いてい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出典はスタイン将来繪畫資料1441番とある（実際には1141番 『敦煌宝蔵』巻10）。これは、奈良時代『新訳華嚴経音義私記』にも見られる。

なお、日本では今も「葛」「掲」などにも「勾」が現れる。奈良県の葛城市は当時のJIS漢字の代表字体に合わせて略字を市名として採用した。

日本でも、『日本国現報善悪霊異記』、通称『日本霊異記』という大和の薬師寺に住み、延暦14年（795年）伝灯住位を得た法相宗の僧である景戒によって弘仁13年（822年）に著されたとされる仏教説話集の興福寺本（平安中期写本 904年 <https://dl.ndl.go.jp/pid/1115790/1/6>）に、「𠂇」という字の異体字としての「勾（ヒ はねない）」が見られる。

「𠂇（カイ）」（もとめる こう）という字の中を「亡」で書く異体字「𠂇」があり、

これがさらに変化した字形と言える。仏教社会において「勾」は「乞う」という意を表す字であった。

空海も同様に認識していた可能性がある。空海『篆隸万象名義』
<https://dl.ndl.go.jp/pid/12268757/1/278?keyword=%E5%8B%B9> 『弘法大師空海全集』
第7巻)には、「勾(カイ)」「𠂇(フ)」「𠂇(イン)」の両方が掲出されている(空海の撰述部分ではないか)。「弘法も筆の誤り」ではなく、中国の仏典などでの位相字体である。

6帖 162オ 勾(ヒ はねない)

161ウ 𠂇

なお、参照された原本系『玉篇』の残巻は、一部・𠂇部ともに現存しない。

宮内庁書陵部所蔵の『新撰字鏡』天治本の巻5にも、「勾(カイ ヒ はねない 非作)」と、当然のことながら仏教的な文字の状況が反映されている。

それでは、「勾」が「におひ(い)・にほふ(う)」として用いられるのはいつからなのだろうか。表記誌というのは語誌や字誌の表記版であるが、大野1977、三木1982などによると、『万葉集』においては「染」「薰」「丹」「艶」「黄」「丹穂」「丹覆」「尼保波」「丹穂葉」などの字が「におひ」に当てられていたと考えられており、万葉仮名の使用が多く、正訓字が少なかったとされる。語源意識・語義を反映しているものもあるとはいえ、先行研究では「欠陥用字」だと指摘された。「におひ」という語には相応の適切な用字がなかったのである。次第に嗅覚を表すようになり、意味も広がっていく。

奈良時代の用例を求めると、『懷風藻』(江戸期の版本)などに「芳(ホウ)」や「艶(エン)」という字があり、後代の人々が「におう」と読んでいる(134に「韻」は(声)「ひびく」)。

また、先に木簡の疑問例を掲げたが、正倉院文書には「銚一勾」とあるところを「勾(ヒ はねない 直線的)」に作るものもあり、「勾」の一つの字体としてもあったことも明らかになった。

公卿であり歌人でもある菅原道真とその周辺で、「にほひ」(照り映える意から平安時代に嗅覚に)に対して漢字の「𠂇」を当てて用いたことから、「𠂇」という字が生まれたとされる。

道真といえば、「こちふかは にほひおこせよ 梅の花 あるしなして 春をわするな」という和歌が思い浮かぶが、『拾遺和歌集』巻十六雑春(前田家蔵浄弁本 浄弁は鎌倉時代の天台宗の僧・歌人 「尊経閣叢刊」)では、「にほひ」とひらがなで書かれている。

ところが、『菅家文草』巻12(元禄13[1700]跋)においては、「𠂇(イン)」という字が用いられ、「花𠂇(トノフ)」など「トノフ」という傍訓(読み仮名、振り仮名)が付けられている。道真の私撰集とされている『新撰万葉集』京大本(寛文7年版

<https://rmda.kulib.kyoto-u.ac.jp/item/rb00010700>) では、完全に字体が「句（ヒ はねない）」となっており、傍訓（振り仮名）も「ニホヒ」となっている。道真もジャンル、文体ごとに表記を選択したのであり、表記体を意識し、和歌では「にほひ」は、ひらがなを選んだことになるが、それぞれを表記した時期など詳細についてはなお検討を要する。

このように、「花がととのう」として用いられた「花句」が、道真周辺で「花がにおう」というように変わった点には意味のうえで飛躍があるように思われるが、そのような日本製字義化が生じたことが先行研究で考察されている（三木1982 菅家の文字であること、『類聚句題抄』（漢詩集 平安後期）にも、『和漢朗詠集』の平安時代の写本にも「句」があることなど）。

867年「讃岐国司解」（有年申文）に「止」の「日本独自」、「我流の書法」、「違法の草書体」による「と」が見られる（小松1968 p84 古音による）。

書道の資料や素材として有名な小野道風「屏風土台」（928年 <https://shozokan.nich.go.jp/collection/object/SZK003024> 大江朝綱 924年、『江談抄』に記事がある）には、「句」という「句」の意を表している可能性のある字が用いられている。

『日本名跡大字典』（p162）には、「句」としてこの「屏風土台」の「句」以下、伝藤原行成筆関戸本『和漢朗詠集』、伝藤原行成筆法輪寺切、伝藤原行成筆粘葉本、伝藤原行成筆近衛本、伝源俊賴筆安宅切（これは「句」）、伝藤原行成筆久松切、伝藤原行成筆墨流本『和漢朗詠集』の「句」が掲載されており、「屏風土台」の「句」は「句」であるとされている。また、藤原行成が書いたとされた書に「句」という字が多く登場するということも看取できる。

また、『和様字典』（p70）には、伝藤原行成筆関戸本『和漢朗詠集』、伝藤原行成筆法輪寺切、伝藤原行成筆粘葉本、伝藤原行成筆関戸本『古今和歌集』、伝源俊賴筆安宅切、伝寂蓮筆「賀茂社歌合」、伝藤原行成筆墨流本『和漢朗詠集』の「句」が掲載されており、寂蓮や行成なども「句」を使用していたとされたことから、和様書道家の中で「句」という字が育まれていった状況が示唆される。

ほかに『和様字典』には、p107に「均」を「土句（ヒ はねない）」と書く崩し字（「佚名白詩」）、p486に「鉤」を「金句」と書く字形も収める。

具体的な文献に当たって見ていく。905年に奏上された『古今和歌集』に関して、平安古筆の代表的遺品とされる関戸本は、藤原行成が書いたのではないかと長年言われてきた。実際には11世紀後半の書写であろうと考えられているが、この巻第一春歌上39 紀貫之「むめの花 句春邊は くらぶ山 やみにこゆれど しるくぞありける」の歌に「句」という字が出現する（関戸本『古今集抄』 日本習字学会 1958）。

この「句」という字の構成は、バランスが悪いように見えるが、実際に書いていくうちには生じる字形であったのだろう。定家自筆の嘉禄二年本（1226）や為家自筆奥書を持つ貞応二年本（1223）では、「にほふ」と表記されていることから、紀貫之自身は、ひら

がなで表記したことが想定される。

藤原公経（1099年没）が書いたとされる法輪寺切『和漢朗詠集』に記された「金谷酔花之地、花毎春句而主不帰。南楼嘲（翫）月之人、月与秋期而身何去。」（菅原文時「為謙徳公報恩修善願文」 天禄2年(971年)4月29日）という漢詩の中にも、「句」が使われており、11世紀頃には日本製漢字、日本製字義を使用することが起こっていたということがうかがえる（『平安 関戸本和漢朗詠集 平安 法輪寺切和漢朗詠集 平安 安宅切和漢朗詠集』『日本名跡叢刊』（83） 二玄社 P55, 85 句（ヒ はねない） 卷下断簡 「懐旧」）。

今後はこうした書道の方面で利用されてきた資料も、文字研究に十分に活用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こで、この日本製漢字を育んだ和様の書風について触れておく。

上記の諸点を踏まえると、国風文化の中で和様書道が生まれ、その中で「句」という字が育まれた可能性も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はなかろうか。島谷2021によると、中国の書は文字の構築性があり、重厚さ、論理性、強さを重視する一方、和様の書は抒情性があることが大切な要素とされ、軽妙で洒脱、直感的に表現することが好まれるという。中国の書に対して和様の書は弱いと判断されることがあるが、これは柔軟であることに通じるといい、日本人が自らの好みや美意識に最もよく合致するように工夫し、完成したのが和様書道であるとする。

また、鎌倉時代の尊円親王の書論書『入木抄』に「筆は次第にたふれたるやうに成なり」とあり、和様書道は運筆する際に筆が傾くということが考証されている（島谷2021）。筆が傾くことによって、横画二本よりも「ヒ」が書きやすいということがあるのか否かなど、今後さらに検討していくべきことであると考えている。

そして、国語資料として知られる真福寺本『将門記』（1099年写 後述）にも「花之句ノ散来者」（和歌）と「句」（ヒ はねない）という字が現れる（『将門記』勉誠社影印 p44 和様ではない書風での使用。真福寺本『将門記』（勉誠社）、小林1974p287、浅野1983p377）。

辞書の類では、三善為康『童蒙頌韻』（1109年 鎌倉時代の写本 1901年影印）上に「眞」「句（か） ニホヒ」、橘忠兼『色葉字類抄』前田本 上（1181年以前鎌倉時代の写本）に「句 ニホフ ニホヒ」、「句（ヒ はねない） カヲリ」とある。

ここで、唐代の「丐」カイ、「勻」インの異体字としての「句」（字形はヒ はねない）の中古の展開の概略をまとめておく。

『日本霊異記』	822年か	景戒 904年写本 句 「丐」カイの異体字として
『篆隸万象名義』	830年か	空海 1114年写本

		句 (カイ 句、勾などから) 勻 (イン)
『新撰万葉集』	893年	菅原道真の門人か 1274年写本 勻 (勻) イン 道真の使用 (個人文字) を踏襲 唐詩 (字義: ととのう) から「におう」に転用 語義: 嗅覚の意味が使用の中心になっていく
遣唐使の廃止	894年	菅原道真の建議 いわゆる国風文化・和様書道が隆盛になっていく
『菅家文草』	900年	菅原道真の漢詩 江戸期の写本・版本 勻 ニホフ カイと字体が衝突 仏者から貴族へ使用範囲が拡大 用法に位相差が発生
『古今和歌集』	905年	紀貫之の和歌 関戸本 11世紀 勻 ニホフ カイと字体が衝突
『屏風土台』	924年	大江朝綱の漢詩 928年 小野道風書 勾
『権記』	1000年	藤原行成の日記 鎌倉時代の写本 勻 ニホフ カイと字体が衝突
『和漢朗詠集』	1013年か	菅家の漢詩 11世紀写本 など 勻 ニホフ カイと字体が衝突
『今昔物語集』	1120年か	仏教説話集 鎌倉時代写本 勻 ニホフ カイと字体が衝突

遣唐使の廃止の建議という象徴的な出来事と相前後して、一つの日本製字義が生まれ異体字で記され字音を失い、日本製漢字のようになって広まっていくという現象について述べてきた。漢籍で使用された字と字体、そして漢文から派生した字義がこの字の使用を促し、定着に向かわせたという中国の影響と日本での応用を見いだすこともできる。

また、仏者と貴族の間では位相差が見られた。仏者においては、カタカナの「ヒ」が「勻」に与えた影響もあった可能性がある。

現代の日本においては「勻」に音読みはほぼなくなっていることから、客観的に見る音読みが消えていくと意識の上で日本製漢字としての位置を得るということがと言える。漢字と日本製漢字と日本製字義の境目は明確ではないところがあり、このような個別の指標的な現象を集めていくしかない。

より詳しく総括すると、日本で転義による国訓 (日本製字義) が生じ、院政期頃、日本語の表記に中国製の異体字が用いられ、音読みが消滅していく。そうして佚存字体となっ

て、字音も消えていくことで日本製漢字と認識されるようになる。字体の衝突は、それを用いる社会集団に違いがあるため、事実上問題は起こらなかった。概要は以下の通りである。

中国				日本	
仏教界	𠂔	カイ	→ 勾	=	
仏教界など	勾	イン	→ 勾	=	→ 貴族社会 ニオイ
「均」に通ずる					

なお、こまつ1976による「韻」「韵」に由来する削意文字説は、すでに各氏によって否定されている。

それとは別の系統として、【𠂔】(ヒ はねない)は、日本では上代に「勾」として使用されていたことは前述の通りであり、簡易な字体ほど字体の衝突は発生しやすいものである。

この字については、さらに位相に応じた派生的な字体の出現という変化について触れておく。

平安時代のうちに、「𠂔+勾」のように「勾」に草冠を付加する字種・字体レベルでの派生が起こる。例えば西室の『和泉往来』(1186年写 高野山西南院伝蔵 「京都大学国語国文資料叢書」209)にこの字が見られるが、これは草冠の字が上下に並んでおり、順行同化と逆行同化の両方が重なった可能性がある。ともあれ仏教界から見られる日本製異体字であるが、日本製漢字に二次的な加工がおこなわれ、日本化が進んだ状況が見て取れる。

また、中世以降、字形レベルでは「勾」の「ヒ」がはねることが生じる。

熟語では登場人物名である固有名詞「勾宮」が『源氏物語』の写本や注釈書に現れる。

語義は、視覚、嗅覚からさらに聴覚にまで拡張する。

読み方は、地名や氏では「酒勾」で「わ」という「勾」と混淆した読み方、人名でも「かおり」などが派生する。字種では、「弓」偏を付加するなどの造字つまり日本製漢字(位相文字)を派生する。字体では、「𠂔・𠂔」、「𠂔」(恻)、「月」(肉 胸)などの旁において、別の字体の旁に「勾」が影響を与えていく。表記では、良くないと感じる「におい」については「臭」と書き分ける傾向が強まっていく。

上述のように「勾」は字体変化、字音消滅、字義変化により「国字」としての認識が決定的となっていく。

ここで、日本製漢字の類とひらがな・カタカナ表記との関係について考えてみる。

他者の音声言語が先にあってそれを文字化する場合と、筆録者が初めてみずからの言語を書く場合とで、文字の現れ方には違いが生じうるだろうが、ここでは両者を区別せずにおく。

動詞「にほふ」の場合、道真は和歌ではひらがな、漢詩では漢字（日本製字義）という書き分けをしたと考えられる（作歌の年代など、さらに検討を要する）。中古においては、ひらがなやカタカナだけでも文章が書けるようになった、つまり文字種による表記の選択肢が拡大した時代である。そうすると、文字種の一つとして相対化された漢字は、字種や用法の選択に際しても何らかの変化が生じることを免れなかったことが想像される。

漢字カナ交じり文においては、用言、（表記体によっては）相言の多くは漢字で表記しようとする要求が伺えることがある。それらに万葉仮名を用いることは、中世以降の真名本においても少ない。その要求に対して、新規な漢字表記が必要となって、既存の字義を曲げたり造字をしたりして、語を表記する事態が生じることもあっただろう。

『今昔物語集』の欠字表記には、より多くの種類の語が見られるが、こうした欠字の類を未然に防ごうとした筆録者や書写者もいたことが想像できる。なお、その時に造字をしようとした者には、既存の字となるべく違いが大きい字体にしなくてはといった配慮をすることもあった可能性がある。

ある表記体における日本製漢字・日本製字義は、いかなる存在であったのだろうか。

日本製漢字、日本製字義は、上代においては使用頻度数としては、中国的な漢字に対して1%に満たなかったものと思われる。それだけに傾向性や特徴があれば捕捉しやすい一方、個々の事情に左右されやすい現象と見なさざるをえなくなりがちである。

例えば、前述した上代のシギは、漢字の「鵠」を用いれば十分であったはずだが、新たに「鳴」を作り使う人が現れた。造字者が漢字を知らないためなのか、それとも漢字を知っていたがあえてより納得が得られる字を求めたのか、それはまだ分かっていない。一方、モリに「杜」を当てた人は、「杜甫」の名や「杜絶」などの語くらいは知っていた可能性が高いだろう。

いずれにせよ、これらは少なくとも言語・文字的事実としては、既存の表記体系内部に生じた齟齬や不整合を調整・補填しようとしたものではなく、語の表記として、（より）表意性を追求し、しかも音読みでも読まれる漢詩文での使用を前提としなかったためと見ることができる。

一方、中古における「句」（におい）は、上に記したように既存の表記体系内部に生じた齟齬や不整合を調整・補填する面が存在したと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に日本製漢字・日本製字義には個別性が随所に見つかるため、一般的な傾向を把握するにはなお慎重な検討を要する。

上代においては、名詞の中の物の名を表記する日本製漢字（橋本1949）は、書籍のほか文書にも木簡にも出現しており、ここでは語彙体系に注目する。

渡来人が伝えたであろう訓読みという方法が一般化した後、山田1937の言うように一つ概念たる名詞（とくに物の名）には、一つの漢字を宛がおうとする姿勢が強まったのだろう。単音節言語であった中国語を表記するために生みだされた漢字が原則として有する表語性を活かした結果である。

中国大陸の中原で話される漢語においては、例えば魚名といえは生活上では川魚など淡水の棲むものしかなく、語彙量が乏しかった。それに対して日本列島では、とくに臨海部においては海洋で獲れる魚が豊富で、それを指す和語も独自のものであり、しかもそれが狭隘な国土であることも手伝って干し魚などに加工されて都に税として納められる制度があった。そのため、渡来した既存の漢字では到底間に合わなかったのである。

名札のような役目をもつ物名と異なり、用言はいわばコトの名の如きものが活用までするわけで、名札を埋めていくようなプリミティブな表記行動においては、なおも超えられない壁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それが、習熟上の壁なのか意識上にすぎない壁だったのかについては、さらに検討を要する。

3.2.2 貴族社会

平安時代に入ると、言霊やその文字版である文字霊は、一般には鳴りを潜めていくようになり、上代から変質していく。律令制が崩壊する摂関期、さらに院政期など政治体制を中心とする社会の変化に沿って漢字の日本化にも進展が見られる。

平安朝は基本的に貴族社会であるという事実が一つのポイントとなる。漢字文化全体で見ても、例えば有職読み（故実読み）を貴族たちが増やしていく。『和名類聚抄』（元和版巻14）に収められた有名な例では、「笏（シャク）」と呼ばれる道具は『続日本紀』巻8などにも見え、音読みは「コツ」であったが、字音「骨（コツ）」と重なり縁起が悪いという忌詞的な発想から、一尺などのその長さの単位から「シャク」と読むこととされ、読み癖となった（『江談抄』）。

訓読みでも「白馬節会（あをうまのせちゑ）」、「靴（カ（クワ）のくつ）」（「鞆」「果乃沓」『新撰字鏡』（898 - 901年頃））、「笙（ショウ（しやう）のふえ）」（『宇津保物語』（970 - 999年頃 写本はほぼ近世以降のものしかなく新しい要素を含む）国譲中）のように字訓と合わない読み方や重言的、文選読みの方式も多数見られるようになる。

人名でも「公」を「きみ」ではなく「きん」として「公任（きんとう）」とするなど、公家のみに許される名前の呼び方である「公家読み」が登場し、後代に拡大していく。

言霊・文字霊は上代から変質を経ているが、例えば、有職故実を伝承する公家日記には、客が来るため、皿の数を三枚か五枚にして、「四」を回避するようにことさらに書き残している。中国においても現代から1世紀ほど前から「四」を忌詞のように嫌うが、それは日本から伝わったものであることが知られている。韓国もおそらく同じ頃からだが、日本では千年も前からの風習なのである。

訓点や訓読み、貴族や僧侶などの学者が継承、発展させている。

文体では、いわゆる「記録体」による『御堂関白記』自筆本、『小右記』写本などには、「誤字」、「当て字」の類も書き記されている。『御堂関白記』長和5年7月25日に

は「及暁」の「及」のように正格漢文にない用法も見られる（山本2025p141）。

位署書の割書（破拆・分ち書き）には、官職・位階と姓名を1行に収めるために「朝臣」「藤原」などに合字的な「書き方」がやはり平安時代から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

3.2.2.1 偏（部首）の付加ないし形声（訓）式の造字

ここで、公家の特徴や生活を表す字を紹介する。公家は食事の他に間食（おやつ）を食べたのだが、その一つとして「餉（まがり）」という小麦粉をこねて油で揚げたお菓子を表す字がある。食偏に勾玉（まがたま）の「勾」が並んでいる。中国で生まれた字とは字義が異なり、宮中に勤める官職にある職人辺りが造字ないし転用し、また使用に関与したと考えられる。『延喜式』（927年）九条家本（「e国宝」）巻26に現れる例が古く、「マカリ」と傍訓（振り仮名）も見られる。

また、『和名類聚抄』に引かれる「鱸（はや）」という字は、声符に類似音を用いた形声文字であると考えられ、より古い用例は未見である。

和歌などに見られる「鳩（には）」という字も、『色葉字類抄』などに登場するが、会意であるものの、形声（入 ニフ）をも兼ねているのではないか。字源は一つしかないと語られることが多いが、稿者は現代の多くの創作漢字の例を出すまでもなく、ダブルミーニング的な着想によることもあったと考えている。この字は、『うつほ物語』に使用が見られるが、近世初期頃の写本であるため、筆録当時の表記は不明である。

後代の足利義満像を見ると、暈の縁の色が少しずつ変わっている。これを「縹縷縁（うんげんべり）」と言い、中国にもあった織物であるとされる。「ウンゲン」という語は、そのような語形が唐に存在していたのか未詳である。奈良時代には正倉院文書に「雲間」という同系統の色を淡色から濃色に並列にして色彩の濃淡の変化を見せる彩色法を表す語が出現する。

平安時代になると『延喜式』に「ぼやかす」意を持つ「暈」を用いた「暈縷」が現れる（他の和文では「うけん」（うんげん））。貴族か下級貴族である職人などがさらに美しい文字にしたいと考えて会意・形声化を行ったのか、もしくは「暈縷」が字体の逆行同化により糸偏で揃ったのか、「縹縷」という日本製漢字が産出された。藤原頼長『台記』（1136-1155年）などにこの文字列を見ることができる。この字を書いておけば次の人も分かるだろうという判断が、また有職故実を生みだしていくのである。

なお、この字をどこかで見たことあるという方がいるかもしれない。現代では、「縹縷」としてよりも、WEBで文字化けとして頻出している。

また、『台記』などに「夾縷（きょうけつ）」から変化した「𦉳糸夾頁縷（こうけつ）」という熟語も見られる。この逆行同化による字体は、中国や韓国にもある佚存字体である。これがやがて日本で「縹縷」となり、1字目が日本製漢字と認識されるに至る。

日本製漢字には会意文字、訓読みのみの字が多いと言われるが、このような音読みを持

つ日本製漢字も実際には数多く存在する。

3.2.2.2 会意による造字

奈良や京都など近畿地方を中心として、「辻子」と書いて「ずし」と読むことが地名に今でもあるが（奈良市内で実見した）、この「辻」という字も平安時代に現れた日本製漢字である。象形的な用法（字喩）による六朝時代の漢語である「十字街」の「十」が構成要素に用いられた。

古くは例えば鳥取市青谷横木（あおやよこぎ）遺跡という地方官衙遺跡から出土した木簡（10-11世紀 因幡国 森2025）に「辻七十束」（転義か）と用いられている。

漢字の「井」（井戸の象形による字（セイ）と、宋代の南方における井戸に石を投げたときの音を表す俗字（タン））という字の点の代わりに「石」を入れることで、より明確に会意文字であることを表現した字が平安時代の大江匡房 談、藤原実兼 記『江談抄』（12世紀初頭）に出現する。渤海との交渉の中で、「紀どぶり丸」と「紀ざぶり丸」という名の二人の渤海人が登場し、中に木を入れているのが「𣏟（ざ（ん）ぶり）」で、石を入れているのが「𣏟（ど（ん）ぶり）」であったという（『江談抄』（古典保存会 1930）では、これらの「作字」は「井」などと作る）。

現在の「井」（どんぶり）という字のもとになった字である。渤海人の名前にあった字だとすると日本製漢字とは言えないが、渤海には文字が無かったとの記録のほか、瓦などに異形の字が発見されていること、かつて他国の人びとと漢詩を応酬したといった話が知られている。ともあれ渤海人が和語で「どんぶり」「ざんぶり」と名乗るはずはなく、日本人がオノマトペ（擬音語）に基づき創作した伝承か、何かの誤伝ということだろう。

また、『江談抄』には日本製漢字についての知識・意識も記述されている。例えばその写本である『水言鈔』（古典保存会 1925）には、「𣏟字」「誠本朝作字歟」との問い掛けがある。

『和名類聚抄』において、「𣏟」「功程式云 甲賀𣏟 田上𣏟」「𣏟讀曾萬 所出未詳」「但 功程式者修理算師 山田福吉等 弘仁十四年所撰上也」（1-8才）とある箇所が「𣏟」という字は山田福吉が作ったと誤読されている。

さらに「𣏟」という字が『日本書紀』に存在すると記述されているが、実際には使用されていない。『日本書紀』の注釈書には出現していることから、勘違いが起こったものかもしれないが、いわゆる耳学問、生かじりといったような公家の世界の漢字についての伝聞の状況の一端がうかがえる。

会意による造字法は、平安時代において日本製漢字の生産性を高めた。

例えば、源俊房『水左記』（康平6年2月16日 『史料通覧』 p2 伴直方『国字考』）に「𣏟木悪樹」とある。木偏に悪と書いて「あふち」と読ませる字は、斬首された首を掛ける木だったということから作られたものであろう。

また、上記の「畑（はた）」は、豪族か貴族、または荘園領主による造字という可能性も考えられるが、まだ農民の手によるものではなかったであろう（後述）。

「鯰（なまづ）」は官人かあるいは漁民の造字であろうか。ただしこれは種々の状況証拠から、形声による漢字であったものが、佚存文字となったものという可能性が残されている。

3.2.2.3 合字に類する割書（書き方）

藤原俊成の直筆である「広田社歌合」尊経閣文庫本（1172年 「定本書道全集」）では「藤原朝臣」という字が合体気味に書かれている。

江守1986が指摘したように、位署を1行で書か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長くなったものを極端に詰めて書くことでほぼ合字のようになっており、後の時代に定型化する。俊成筆の『古今和歌集』の序文が天理大学の図書館で発見されたが、『古来風躰抄』にも俊成の自筆本が伝わっている。この辺りの時代になると、徐々に直筆の典籍が残るようになってくる。

合字の対として「分字」にも触れておく。

文屋康秀の和歌「吹くからに 秋の草木の しをるれば むべ山かせ（嵐）を あらし（嵐）と云らん」について、現存最古の完本である元永本（1120年頃 「e国宝」）を見ると、「あらし」はひらがなで表記され、「山」のみが漢字となっている。それにも関わらず公家や僧の世界には、この歌を見聞きすると、「嵐」という字が思い浮かぶ人々がいた。ここにも、会意文字的な構成が日本人にはしっくりきたという傾向が現れているだろう。

梵語の音訳「毘嵐婆」（ビランバ）から「嵐」1字でも「あらし」を意味するに至ったようであり、『大漢和辞典』ほかによると、これを王維は山気の意で用い、謝靈運は山風の意で用い、宋本『玉篇』は大風の意を載せた。

3.2.2.4 日本製字義の発生

和語の動詞の「さぶらふ」が「さうらふ（そうろう）」になっていくとともに、助動詞化（いわゆる文法化）が起こる。「候文」において、和語の語義・用法の変化に伴い、「候」に日本製字義が発生し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現象についても、この先、文体などの研究において歴史の解明が進んでいくことが期待される。

3.2.2.5 名乗り訓

実名（下の名前）の読み方で、「朝」と書いて「とも」と読むことがある（『色葉字類

抄』前田本「名字」ほか)。この理由については、長らく明らかにされてこなかったが、金文京氏をはじめとして調査が進む中で明らかになってきた。「朝廷」と書いて友を意味するという用法が唐代に現れ、それが日本に伝来して「朝」のみで「とも」と読む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そして、源義朝・頼朝・実朝のように平安貴族の男性の名に用いられるようになり、姓の朝永などにまで波及した。

熟字訓の漢字2字目などを省略して読み方は維持する方法は、類型がある。例えば「蜘蛛(双声)」は「蜘蛛」のみで「クモ」、「海鮑(蛸)子」も「蛸」のみで「タコ」と読ませるなど類例が散見される。

また、「和」と書いて「カズ」と読ませることも、「和子」という名が日本で最も多いと言われた時代も昭和期にあったほど多く行われているが、由来が分かっていない。本居宣長は「かつ」から来たと説いたが、『色葉字類抄』「名字」の仮名遣いとは合わない。足し算の「かず」とも思われるが、これも時代が合わず、そのように単純なことではない。つまり、自身が由来を理解できないためにその読み方を否定するということも、名づけにおいては難しいところがある。

なお、平安時代において、これらのような名乗り訓が先例として存在しており、現代の命名に対してよく言われる「キラキラネーム」などという語を簡単に用いて新作を否定することは、未来に禍根を残す。

3.2.2.6 有職読み・故実読み

「笏」について上述したが、他にも例えば、平安時代に朝廷すなわち貴族たる公家の世界においては、「考定」という、8月11日に、前年八月以降1年分の太政官の長上官の勤務成績を考査して上申する儀式があった。その字順を転倒させて「定考」(『延喜式』巻30 927年 『日本国語大辞典』)と書き、それでも「こうじょう」と読ませることがあった(『名目鈔』 1457年頃 恒例諸公事「定考(カウヂャウ) 逆読之例也」など)。「上皇(じょうこう)」と音の通じるのを避けるため、「定考」と書いて転倒して読むことを慣例としたという説もある(異説もある。倉本2025p65ほか)。

3.2.2.7 女流仮名文学

清少納言の随筆『枕草子』は、古い写本では、ひらがなが主体で、少数の漢字(主に用言)に送り仮名が付けられている。傍訓(振り仮名)はまだ行われなかった。

第百四十七段は、「見るにことなることなきものの文字にかきてことごとしきもの」すなわち「文字に書くと大げさなもの」という章段である。例えば「覆盆子(いちご)」「鴨頭草(つゆくさ)」「水苺(みづふぶき)」「蜘蛛(くも)」「胡桃(くるみ)」「文章博士(もんじやうはかせ)」「得業生(とくごふのしょう)」「皇太后宮権大夫」

「楊梅（やまもも）」などが挙げられている。

「いたどりは、まいて虎杖(とらのつえ)とかきたるとか。杖なくともありぬべき顔つきを。」ともある。このようなものを稿者は「表記感」と呼んでいるが、清少納言は千年ほど前にすでに漢字の熟語・熟字訓について語感と表記感を言明していたのである。そのおかげで既存の漢字への違和感がすでに現れていたこと、また、表意性を求める欲求が存在していた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る。これは、会意式の日本製漢字を求める意識と通底していると言えよう。

『枕草子』の写本である能因本（富岡本）は、火災に遭って焼け残ったものである。この章段の名は、「文字にかきてこと / \ しき物」とある。改めて貴重な古典がよくぞ残ってくれたと感じるとともに、残らなかった典籍も多くあるということを痛感する。

『枕草子』の堺本(笠間影印叢刊) 上には、章段の名が「もじにかきてこと / \ しきもの」と、ひらがなだけで書かれている。

また、書陵部蔵三卷本には、「栢（栢）（あこめ）」や「泔（ゆする）」などについても「もしにかきてあるやうあらめと心えぬ物」として記されている。熟語に対する語感や表記感のみならず、単字に対しても文字感が抱かれていたのである。江戸期から諸家が該当する当時の漢字を想定してきた。

「栢」「栢」（あこめ）は下着、あるいは頭巾を表す中国の漢字で、日本では「あこめ」として日本製字義となっていた。『漢辞海』には、以下のように説明されている。

【栢】 ジツ

下着・肌着

日本語用法 あこめ 男子は下襲の下、単衣の上に・女子は表着と単衣の間に着た。

【栢】 ハ

頭巾 包む

日本語用法 あこめ 栢（ジツ）との字形の類似による用法。

しかし、これらの漢字に対して清少納言は納得をしていなかった。（日本製字義であるのに）「日」に当たらない、「白」でないという意識があ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

「泔（ゆする）」は名詞で、髪などを洗う時の水を指すのだが、それに米のとぎ汁を意味する字を宛がうことに対して、ほとんど適していない、しかも字面と違って「甘」さもないといったことから納得がいかないという気持ちを表明したのだろう。

『漢辞海』には、

カン 米のとぎ汁 米のとぎ汁に浸す。

日本語用法 ゆする 髪を洗う用水。または、髪を洗い、くしけずること。

とあるように「ゆする」が日本製字義であり、飲めず味も甘くはないということだろうか。

なお、唐代の字様（書）には、「吊」と「弔」は書き分けるべきといった記述はあるものの、やはり信仰などに関わる規範としての記述にすぎない。

紫式部『源氏物語』河内本（尾張徳川黎明会 1934）巻第7には、当然ひらがなで「にほひ」とあるが、河内本には、「宮」の右脇に小さく「匂」と書かれている箇所を見つけた。

「さかき」でも「榊」が登場するかと思われたが、そこはやはりひらがなだけであった。青表紙本（定家筆系統<https://kokusho.nijl.ac.jp/biblio/100130618/365?ln=ja>宮内庁書陵部）も同様に「さかき」はひらがなである。

清少納言について、ライバルであった紫式部がどう思っていたか、記録が残っているのので、『紫式部日記』（<https://kokusho.nijl.ac.jp/biblio/100139486/25?ln=ja>）について簡単に紹介する。1009年1月1日の「真名書きちらして侍るほども」という清少納言に対する批判が有名であるが、それに対して自分自身は「一といふもしをたにかきわたり侍らす」（一といふ文字をだに書きわたり侍らず）と述べている。なお現代ではジェンダーの観点からも注目しうる「女手」ということばも、まだ解釈が定まっていない。「清少納言こそしたりかほに…」と批判をしているところもある。

『虫めづる姫君』『栄華物語』などにも、女性がカタカナや漢字をよく書くことについて言及がある。

3.3 神道社会

平安遷都の直後に記された『神宮儀式』（804年）に「榊」という字がある（「神宮古典籍影印叢刊」 尊経閣旧蔵 田中卓によると平安末あるいは鎌倉時代末期から吉野朝初期書写）。この字は、やはり奈良時代にもあったかと思いたくなるのだが、この『神宮儀式』は内容が平安朝独自の、奈良と断絶しているところが多々あるとされる。『和名類聚抄』では「其余『漢語抄』」に「榊」という字が出てくると序文でも本文でも述べられており、当時伝わっていた養老年間の『楊氏漢語抄』には見られなかった。

なお、神仏習合は奈良時代には起きており、平安時代後期に大いに発展する。

3.4 仏教社会

平安仏教においては、南都の仏教とは異なる、遣唐使がもたらした真言宗・天台宗という新しい信仰が広がっていく。それらの仏教界では、漢字音では呉音が続けて主流を占めるものの、片仮字（片仮名 カタカ (ン) ナ）や読むための字体から書くための字体に向かう抄物（しょうもつ）書（『日本霊異記』や『江談抄』（一山 室生寺）、訓点、訓読法などに、独自のものが増えていく。

仏者の社会では、概して梵語由来の語や梵字が身近に存在している。ことに陀羅尼などの真言には、梵語・梵字という一般の日本人にとっては神秘的にさえ感じられる音声中

心、秘密保持といった宗教的あるいは合理主義的な世界というものが見出せよう。

密教を広め、書家としては三筆（9世紀頃 嵯峨天皇・橘逸勢（はやなりとともに）の一人とされた空海（804年入唐、806年帰国）は、ひらがなやいろは歌の作者に擬される伝承がある。「くうかい」という音読みの呼称については『江談抄』に触れられている。

空海が伝承のようにいろは歌の「色は匂へど」を詠んだと仮定して、そこで「匂」という字をすでに使ったのかというと、平安時代初期の仏者であるので、使うことはなかった（前述）。

空海の「海」について、本人は「𣊂」という異体字（動用字）で書いていた。これは、文書についての真贋の示準にも使われる。なお最澄も「𣊂澄」と書いた。

なお、三蹟は和様（前述）であり、10世紀頃の小野道風（みちかぜ、通称とうふう）・藤原佐理（すけまさ、通称さり）・藤原行成（ゆきなり、通称こうぜい）を指す。

我々は普段「円」という字を用いるが、その初出には、弘法大師が関係している。「圓」という字は仏者の社会では使用頻度が比較的高いが画数も多く、書くのに手間を要したために、略字として「圓」の異体字が発生したのであろう。つまり字体レベルの現象で、出自を含めると日本製異体字である可能性がある。

仁和寺所蔵の国宝「三十帖策子」は、空海が入唐中に書写したり書写させたりしたもので、橘逸勢のほか20人以上の唐の写経生に写させたため（宇都宮2023）、空海以外の書跡も多く含まれている。この中に2か所、「圓」の略字体が見られ、「口」の中にある「員」の部分が縦画1本の「丨」で済まされている。かなり大胆な略し方をされていて、草書であってもここまでの略筆は珍しい。中国人による筆跡にこの字体が存した可能性もあるが、現存するものにはまだ見られないために証明できない。この字体を空海以外の人が写した可能性も残るが、唐人や空海の他にこの字体を用いた形跡がない。草書体にあって「口」の崩し方の通例からも外れるだろう。

ともあれ仏教界という社会の変化に応じた字体の出現であり、このとくに仏典で多用される字種の字体（異体字）は、平安時代の内に貴族社会にも広まっていく。中国から流入した「菩薩」を「并」と書き、「國」を「国」と書くような略字も、中国から流伝し日本で流行した佚存文字的な字体といえる。

貴族社会にも「円」のもととなる字体が広がっていくことは、北川博邦の編んだ『和様字典』を見ても明らかである。『御堂関白記』自筆本（寛仁2年1月2日 <https://dl.ndl.go.jp/pid/2591259/1/1>）にも「円（口丨）」が出現している。

空海の『篆隸万象名義』（「崇文叢書」崇文院 編・刊 1927-1935）1-42では、前述のとおり【匂】（カイ 匂、匂などから）と【勻】（イン）とが掲出されていた。これは、「弘法も筆の誤り」ではなく、中国の仏典ではこのように書かれていた習慣を反映するものであり、位相が明確であった。

なお、カタカナの「ヒ」は平安時代においては通常はねない形で書かれた（『日本国語

大辞典』「ひ」など）。

空海が最重要視した仏典に『釈摩訶衍論』がある。新羅で作成された偽經とされるが、空海は密教の本質が書かれているとして尊重した。その遼代の石刻を見てみると、字画が幾重にも回転する文字が登場する。これにはインと読むという反切が注記されており、他に漢字の影響が濃厚な楷書風のものもある。空海は多様な書風を修得したことも知られるが、このような異例の神秘的な文字も見ていたわけであり、字体を合理的に加工して略すということも行えた可能性を考えてみたい。梵字もシンプルな造作で、記憶に難しくない数の表音文字である。

『今昔物語集』巻11-9話（鎌倉時代の写本である鈴鹿本は現存しない）に、ことわざ「弘法も筆の誤り」のもとになった話が収められている。

空海は、揮毫した「應天門」の初めの字に「点」が抜けていることに気が付き、筆を投げて「点」を補い、扁額を完成させたという。これは「弘法の投げ筆」とも言われるが、「應」の最初の一画目（「厂」を「广」にした）であったのか、「心」の点であっ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説が分かれている。いずれにせよ、臨時的に筆順という書字過程における線条性を甚だしく逸脱した書記行為であった。

この話の出典である真教『金剛峯寺建立修行縁起』（968年 「弘法大師伝全集」1 1977年）においては「点」を「円点」とする。この字などにおける「广」と「厂」との交替する異体字の例を知っていた者による発想だ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隸書にも「广」の部分で「厂」に作る「應」があり（『大書源』）、この話を生んだ一因である可能性もある。

これによると毛筆による揮毫の一回性は、さほど重要ではなかったのかとも疑われる。つまり逆に先に筆を落としてしまったら、消さずにそれとして仕上げていくという書写行動もあるのではないか。書家に、書き損じたらどのようにするのか尋ねたら、間違いと気づかせないように仕上げると話してくれた。点画の重ね書きも古来見られる。動用字の発生原因はおそらく十種はありそうだが（バランス、類推、「山」「屮」「雨」は高いところ、「水」「土」は低いところにありがちなものなど）、「海」と書く際に先に「每」を書こうとしてしまった、といったミスも、書字の現実の場面においては起こっていたのではなかろうか。

他にも似た話が『今昔物語集』の同話に収められている。童子(実は文殊菩薩)が川の上に書いた草書の「龍」の右に、空海が「小点」を加えたところ、龍王となり飛び去ったというもので、『高野大師行状絵巻』巻2にも描かれている。この話にも出典があり、さらに「画竜点睛」の故事（唐『歴代名画記』 梁 張僧繇「点睛即飛去」）と共通点もうかがえる。

なお現在の平安神宮の應天門の扁額は、空海の手書ではないとされる。

点を用いて字画を略した異体字（仮に「用点略字」と呼んでおく）には、

国 広 伝

などのほか、

勺（句・旬）

同・拾の𠂔一口をゝに

𠂔𠂔ゝ・觸 玉・虫をゝに

などの例が挙げられる。字の最終画を「ゝ」とする略字は、中国よりも日本に顕著に行われたのではなかろうか。

他にも空海には、自身は実際には用いる筆を選んだというが、「弘法筆を選ばず」という逸話が伝わるほか、左右の手足と口に5本の筆を携えて文字を書いたという伝承による「五筆和尚」という呼び名もあるが、同時に10人ほどの訴えを聞いたという聖徳太子の話と発想が似ている。

これらを収めた『今昔物語集』は12世紀の院政期に、南都で法相宗の僧によって成立したとの説がある。

いろは歌やひらがな作者説も『河海抄』巻12所引『江談抄』（1109年の談話）に出てくる（小松1968p148）。

月のことを「月輪（ぐわちりん）」とも言ったが、この「輪」を「○」で書いた略記も知られるところである。吉沢1943p22-23において江戸時代の文献だけでなく平安時代のもので発見したとある。楷書体の文字列における円形としては、則天文字に星を「○」、月を「𠂔○子」「𠂔○𠂔」などとする前例が見られる。また、筆で「○」を書くのは難しいことから、実際には上から2筆で書いているということも指摘されており、それがカタカナ「ワ」の由来にもなっているという説があった。9世紀以降、カタカナの「ワ」、ひらがなの「わ」にも同様の字形が見られ、江戸期以降には「にわか」の2字目などにも使用されるようになる。

『日本霊異記』には、「𠂔」と書いて「もる」と読む会意文字も出現する。『万葉集』巻2 142番の有間皇子の歌「家有者 筭尔盛飯乎 草枕 旅尔之有者 椎之葉尔盛」という生活状況を想起させる。ここには、上代の余香と中古に入ってから革新が感じられる。「飯」や「皿」は上代の日本製漢字の構成要素には見られず、いわゆる「変体漢文」「和化漢文」の筆録・書写において、品詞、部首、構成要素に広がりがあった。音読みでの使用を想定しないという点で、「変体漢文」における通常の使用は可能であった。

来迎院本（『日本古典文学影印叢刊』 1978）において、「𠂔」には「モロ」と傍訓がついている。訓注はない。諧謔性を含ませた造字か否かは判然としないものの、他の字と区別なく用いられている。字体上の順行同化が関与した可能性も考えられる。

『日本霊異記』では、「群書類従」本の下巻序文に「喃汎言恻、那免劫災。」と「喃」と書いて「アハレ」と読む字が登場する。全文が漢字で書かれているため、アハレを表記するためには万葉仮名を使うか日本製字義を使うかといった選択肢しかなかったのだろう。他の来迎院本や前田本（『尊経閣叢刊』）では、「噫」という漢字を「アハレ」や「アゝ」と読ませており、前者についてはいわゆる間投詞（感動詞）にも日本製字義が現れたと指摘できる。

『色葉字類抄』には、「𠂔𠂔喃」で「アハレフ」と読む字が掲出されており、鎌倉時代にはその「口」が脱落して「連（あっぱれ）」にな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も字誌の上で述べることができる（西井2022 p129, 130, 132）。

『日本靈異記』の平安中期写の興福寺本（上巻のみ 国宝）には「愛」という字を二つ並べた字が現れる。しかしこれは、本文からみれば「𠂔」という漢字の字体が字内において逆行同化（置換型）を起こした誤字といえる。熟語におけるこの種の現象を「偏揃え」と呼ぶこともあるが、これは偏ではないためそのようには言い難い。さらに字体においては字画や構成要素に転倒現象も起こるため、稿者は一連の点画から字種に及ぶ現象を音韻になぞらえて捉え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音韻と並行する現象とみて同化と呼んでいる。

東大寺の僧侶による手控えである『東大寺諷誦文稿』（9世紀前半）も、漢字カタカナ交じり文による国語資料として有名なものである。

その中には、「𠂔日卵」と書いて「かひ」と読む字が複数現れる。これは「卵」の異体字「𠂔」ないし「𠂔」（『大乘三論大義鈔』<https://ja.wiktionary.org/wiki/%F0%AD%A5%9E>）の日本製異体字である可能性がある。

同じく国語資料としてよく扱われてきた源為憲『三宝絵』（984年 古典保存会1929-1930）の観智院蔵 文永10年（1273年）写本上には、「山ニ込メテ」と「込」という字が使われている（『三宝絵詞』『和様字典』）。

『新撰字鏡』9-23才8行にも足部の末尾に「込（入は八か）」が収められているが、「連 𠂔𠂔鼻（右の丨は下を貫く）」とともに無注で意味は掲載されておらず、詳細は不明である。「私記」の類から拾われたものか。

『色葉字類抄』には「込」が「コモル セマル」として収められ、鎌倉時代になると幕府の史書『東鑑』においても使用されている。漢字の「籠」なども同様に用いられた。「込」は現在、日本で最も多く用いられている日本製漢字であるが、平安期に作られたものであったようである。

なお、「働」という字も同様に日本製漢字であるが、鎌倉時代以降の武家の世界で生まれたもののようである。

また、『三宝絵』には、「𠂔ニ伏」と「𠂔」で「まろぶ」と読ませる日本製漢字が用いられている。「まろぶ」とは「ころぶ」意である。「一」の部分が、いかにも人が転んでいる様に見えるであろう。後に「すべる」として多用される。

また、「++埵」という「薩埵」の日本製とみられる抄物書も記されている。

「とち」と読む「朽」という日本製漢字は、栃木県の「朽」と字体がやや似ているが、そのもとになったものである。

公家は菓子を食べていたと先述したが、僧侶も菓子を好んだそうで、杉本つとむ氏も述べたように修行をしているときに休憩時に菓子を食した。そういう場面で、栗や朽などを皆が持ち寄ったことが記録されている。

「東寺影供料足支配状」（1102年 「東寺文書聚英」）には、その中で一人が「朽」を

持参したことが記されており、そのおかげで「朽」という字が登場している（『方言漢字事典』）。政治史においては摂関期を経て院政期（1086-）に入ってから出現した文字となる。

「朽」については、中田祝夫ほか多くの先行研究があるように、観智院本『類聚名義抄』（14世紀）仏下にクチルの字とは別に「朽」という字が立項されている。「朽」の字の下に「トチ ナチ 義敷」とあり、「ナチ」とは「十千」と万葉仮名で書いて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他の写本では宝菩提寺本にもこの字が残っているが、同様であった。

このように十（と）×千（ち）＝万という掛け算を利用した形声（訓）方式による造字であるが、このような洒落のような造字行為まで僧侶ないし貴族が行っ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る。

トチには『色葉字類抄』に、「朽」などの日本製漢字が収められている。

なお、「梅」という字もこの頃に現れた日本製漢字である。鎌倉時代に明恵が用いた同義の【𣏟木都】は六書でいうと会意文字、形声文字で、旁がトガ・ツガの頭音部分を表したもののか。

仏教説話と世俗説話を収める『今昔物語集』鈴鹿本巻5第4話「一角仙人被負女人従山来王城語 第四」において、「雲ノ浪𣏟火雲ノ浪」と「煙」という字が「𣏟火雲」という日本製異体字で書かれている。字体上の遠隔置換型の順行同化のほか、「煙」という字の旁と「雲」という字の草書体は互いに相似することから、会意化が起きたものと考えられる。同じ字体は、『和泉往来』（影印p6）にも見られ、平安時代の特徴的な字体といえる。

『今昔物語集』は、和文体と漢文訓読体、和語と漢語を交ぜた文章からなるいわゆる「和漢混淆文」で記されており、最古の写本である鈴鹿本は漢字とカタカナを交えて表記されている。そういう中に「榊」（上記）のほか、それを踏まえて作られた日本製漢字である「榊（しきみ）」が使用されている。

『今昔物語集』鈴鹿本巻2、巻26では、口偏に愛と書く「𣏟」という字を「云𣏟（イヒナグサメ）ツ」など「なぐさめ」「なぐさみ」と読ませている（岩波「新日本古典文学大系」の本文、旧「大系」・新「大系」の訓、旧「日本古典文学全集」・新「全集」の訓、「日本古典文学集成」の訓 安部・伊藤2008）。

中国では「アイ」と読み、字義は「おくび（げっぷ）」という形声文字として作られた漢字であったが、日本人は会意文字として使用したり、あるいは読み換えを行ったりした。

中世にはさらに「あつかひ（仲介）」という新たな日本製字義が現れており、日本においてはこの字は美化された意味合いで使用されてきた。

「𣏟」の「なぐさみ」は日本製字義だと考えられたが、「大正新修大蔵経（SAT）」においては唐代の仏典において「なぐさめる」に近い「愛」と同様な動詞として「𣏟」を用いている例が存在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佚存用法である可能性が出てきた。これには、当時の経文が敦煌文書にもあるかなど、検証の余地がある。

『今昔物語集』には、「倂（おもかげ）」や「覽（なびく）」、「𠄎穴轉（あなうたて）」といった会意とみられる日本製漢字、構成要素を転倒させた日本製漢字、訓読みによる仮借を含む臨時的な合字なども使用されている。

3.5 陰陽道社会

平安時代における陰陽道社会についても触れておく。神道、仏教や道教の影響を受けた修験道や陰陽道などの呪術家が文字のような形態の符を生み出すこともあった。これも社会の変化に即した出現といえる。貴族社会における符呪の使用も、文献上の記録のほか実物も残されており、位相についての厳密な判断のためにさらなら発見を俟ちたい。

「𠄎」 という「見」が二つ、一方は転倒して書かれた土器が出土している。陰陽道の呪符で中国からの文字かとも考えられるが、太政大臣藤原忠実の日記『殿暦』永久5年（1117）11月19日にも登場している。

『新撰字鏡』には「𠄎月 𠄎」 「𠄎月𠄎」という字が収められているが、「𠄎（ベン）」という漢字の崩れたものであり（『新撰字鏡校注』上p33 この字は『新撰字鏡』においては他の構成要素においても字形が不安定である）、字体上の衝突にすぎないという可能性がある（笹原2016a）。

「茨城新聞」2014年2月20日付（WEB版）には、「県教育財団は19日、常陸太田市瑞龍町の瑞龍遺跡の発掘調査で、平安時代の竪穴建物跡から、男女の交合を意味する日本製漢字「𠄎ひるくながひ）」がへうで刻まれた土器の底面が出土したと発表した。」とある（https://ibarakinews.jp/news/newsdetail.php?f_jun=13928105607429、<https://www.youtube.com/watch?v=NQJXc0TZp1s>）。

なお、神道社会における漢字の変容は、「中世日本紀」などの世界へと連なっていく。

従来、音声との結びつきの強弱が文字と記号とを分ける基準とされてきた。しかし実際には、柴田武氏も述べたように、「○」は「マル」という語との結びつきが非常に強く、その形態の読み方であるとも言えてしまう。

上に引いた『釈摩訶衍論』の呪符では、漢字と混じえて梵字なのか何なのか分からぬ形態が反切を伴って記されている。個々の意味は明瞭でないが、稿者はこうしたものも位相文字の一種として捉えたいと考える。

例えば密教世界の抄物書には、合字、略合字、略字、カナ表記など多彩で便利な字体が多数伝えられている。

「個人文字」も稿者がかつて定義とともに示し、学界に部分的に広まった用語で、従来の個人語という用語とは不整合があるほか、文字は社会性を有するという一般的な定義と矛盾しかねない概念である。しかし、漢字的な構成法と構成要素によって作られ、他者が見た瞬間から会意文字や合字などと解釈されて字義が想起されやすいという点で即座に社会性が生じ、文字性も帯び始める。なお、術語は学界内で選択を経て、不適切なものは淘

汰されていけば良いと考えている。

呪符も、言語との関わりで捉えると、音ないし広い意味での義があるため、文字性を帯びる可能性を有しており、通時的にはすでに明確な文字性を獲得する結果を得たものもある。

3.6 東国社会・武家社会

東国社会や武家社会において現れたという可能性をもつ字も存在する。

平将門の乱の顛末を描き、940年頃に成立した『将門記』の作者は、東国在住の人か、京都の貴族あるいは武家、または東国の新興の武家である可能性があると言われている。本書には、いわゆる「百姓読み」が多いことも知られており（沼本1973）、地域ないし社会の広がり即ち言語的な特徴を有する文献として捉えられる。

そこには、「𪛗」と書いて「あじきなし」や「すずろに」「そぞろに」と読ませる日本製漢字が登場したことが知られている。「静」が「𪛗青青」と異体字になる字内での字体同化が中国でも敦煌文書などに見られたこと、また、「顛」が「𪛗真真」となったように類形字においてそれがよく起きたことなどを踏まえて生まれた可能性がある。日本製漢字の創作者にとって字源は一つだったとは限らない（前述）。「無情」（『遊仙窟』など）という文字列をふまえて1字化を行ったという可能性もある。

上位概念ないし意味の範疇を表す部首に加えて、意符を2回書くパターンは、日本製漢字としては新しいものといえる。漢字には「嚇」「嚇」などがあつた。

中世以降、「𪛗」の「心」が上部に位置付けられること、また変形して「山」や「止」になることも起こる。

『将門記』真福寺本（1099年写「勉誠社文庫」）には、「𪛗」に傍訓（フリガナ）はなく、送り仮名がつけられている。そこから「あぢきなし」と読んだと考えられており、これは上代の日本語「あづきなし」から変化したものとされ、奈良時代には確かな用例が見られなかった語形である（『時代別国語大辞典 上代編』『上代語辞典』）。

ここで、奈良時代には見られなかった相言、いわゆる形容詞・副詞の類に対する日本製漢字の出現であったことについても指摘しておきたい。

資料の量や質の変化に伴い、文字・表記の保守性による先例主義における語の品詞の壁が突破されたのである。この字については、黒川春村『碩鼠漫筆（せきそまんびつ）』（吉川弘文館 黒川真道校訂 1905。『飛梅追松訴陳』『字訓』から）に詳しい。そこでは、『類聚名義抄』に次いで『将門記』が挙げられており、字誌記述の用例列举の部分の萌芽と位置付けうる。漢和辞典では大正期の『大字典』においても、この『碩鼠漫筆』が引用されている。

位相差の動態として、集団内の文字・表記は、後代にどのように伝わるかのだろうか。

文献の書写による伝播は分かりやすいものである。『日本霊異記』と『今昔物語集』と

での一致は内容からも必然のように思えるが、現実には、仏者世界での文字の共有（いわゆる文字社会を想定）があつて、その中での流通が後代に文献間の共通となって現れたに過ぎないという可能性も残されている。

そして「円」「𪛗」のような社会集団の枠を超えた史的伝播は、いかにして起きたのだろうか。中古においては、例えば貴族社会と仏者社会との垣根は比較的低いため、他の世界の文字・表記を垣間見る人がいた可能性はあり、さらに出家や還俗など個人的な往来さえも行われたわけで、異社会に浸かってそれらを我が物とした人もいたことは想像に難くない。このように個人に付属して位相文字・表記が移動することもあったはずである。

やや単純化して述べると、「句」のカイとニオイのほぼ相補的な分布のケースは、同時代に並行して存在した字体の衝突（直接的な相互の干渉は稀）と位置付けうる。このような現象に関しては、記述対象とする字種と用例を増やして、タイプごとに分類して考察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政治体制の変化は、社会制度の変化に結びつきやすく、そこに天皇と貴族とともに首都の移動が伴えば地理的な変革も加わる。中国でも、秦代の国家の統一と文字の統一、六朝動乱期の字体の混乱など、社会状況と漢字の状況との関連がときに因果関係の説明を飛ばして自明に起きることとして漠然と説かれてきた。

日本語の文字・表記においても、社会の変化など外的な刺激、外部からの文字・表記の個人の内面への介入（漢字政策だけでなく個々人による）、そして文字・表記の内的な胎動（これは体系の空き間の発生など原因が複数ありうる）と分けて考察していく必要がある。

位相差の認識について触れておく。特定の集団内において必要な字や表記が作られ、内部では通じる、内部の人には伝わりやすいということではそれが広まることがあった。そうした事例は、後代に中国より日本で増えていく。他集団の変異についての認識まで有する人は、中古の識字層の中にいるにはいたようであった。いわば域化あるいは層化の認識である。

ただ、中古においては、先述した大江匡房のようにそれを行おうとしても正確にはできていなかった。閉鎖的な社会と、実体験と噂に依存した情報ネットワークの未整備な状況がそうさせたのであろう。現代のような鳥瞰的な把握は、情報流通の制約からおおむね中世末までは限られていた。

秘密保持のための暗号として、つまり文字のもつ社会性、伝達性を極限まで制約したものもあった。上述した公家日記の「𪛗」も淫靡な内容を記録はしたい、でもあまり知られたくない、という内面的な葛藤が選ばせた文字・表記ではないかとも考えられる。この類は、やはり中世、近世に、より明示的に出現する。

3.7 出自が不明確

社会・産業構造の変化に即して出現した字としては、「畑（はた）」という字が挙げられる。焼き畑農法の普及からと考えられているが、いかなる社会から出た字であるのかはまだ突き止められていない。この日本製漢字は、漢語「火田」（カデン）という文字列からのもので、畠（はたけ）と異なる焼き畑（はた）農業の広がりから生じたものとされる。用例の出現状況からみて熟字訓による合字ではなく会意文字であるか。上代の用例とされるものは、住吉神社所蔵の文書（「平安遺文フル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があるが、確かな例は、11世紀の神社文書や公家日記に現れる（伊藤1995ほか）。

「畑」は「紀伊国栲（かせ）田莊絵図」神護寺本（1184年か <https://www.hakubutu.wakayama-c.ed.jp/kaseda/sakuhin/sakuhin.htm> <https://houraisan.com/?p=129>）にも出現している。なお、この【栲】は宣命に用いられており、上代から存在した可能性がある。

他にも「つらつら」は上代から用いられている語であるが、「傭」による日本製字義は中古からとされる。また、「𠂔女氣（はにかむ）」と読む字が『色葉字類抄』前田本に収められているが、「はにかむ」は平安時代においては歯を見せて怒るという意味があり、宮中近辺の人間関係から作られた字ではなかろうか。

上代の日本製漢字・日本製字義がほとんど具体的な物の名しか表記しなかったことに対して、中古においてはこのような語の意味領域に広がりが見られる。

品詞においても、体言だけでなく、用言では動詞、形容詞（情意形容詞など）、相言では副詞などに及ぶ。

日本製漢字・日本製字義 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間投詞 …

これらは、次代には「和文特有語」（「さて」など 【扱】【扱】）にまで広がりをもつ。また中古においては、合字・会意以外の造字も量産された。

なお、日本製漢字を仮借により形容詞や助詞などに転用することは、上代から【輶】【輶】などに行われており、中世以降も【輶々】【輶】などに見られる。

3のまとめ

中古においては、漢字の字種・字体・字音・字義の日本化の主な担い手として、貴族（学者を含む）や官人、仏者（学者を含む）、神道家などが挙げられた。とくに仏者（学者を含む）の増加が著しく、平安仏教に携わる人々が漢字の日本化に大いに寄与していた。また東国の武家の擡頭の影響もうかがえた。

上記の日本化の言語面での内実としては、体言以外の品詞を表す語に対して日本製漢字・日本製字義が次々と作られていったこと、また日本製異体字も上代にはほとんど見られなかったが、平安時代には「円（圓）」の原形や「〇（輪）」という字が出現した。

日本社会においては、外来の事物はほぼあらゆるものが時代とともに日本化しつつ層を成す。概して種々の面で要素に多様化が進み、共時的には多様性を帯びる。意味さえも細分化して各々に情意性を含むニュアンスレベルの差が生じがちである。

4 日本製漢字の時代相

4.1 日本製漢字が出現した時代(政治史)・地域(行政区画)

日本製漢字の時代相について、日本製漢字が出現した時代によってレパートリーが変わってきたことが分かる。下表に典型的な例を示す。

なお、「枳（とち）」という字は、明治期に役人が作ったと言われていたが、江戸時代に見つかる。こうした検証を積み重ね、地層研究における示準化石（指標化石）のように、示準文字（指標文字）も設定することができれば、従来の避諱字のように文献の筆録や書写の年代の測定などに貢献するであろう。

時代	例字	読み方	地域	備考
奈良時代	櫛	かし	奈良	
平安時代	枳	とち	京都	
鎌倉時代	枳	しで	奈良	
室町時代	枳	なぎ	京都	
江戸時代	枳	たぶ	薩摩	
	枳	とち	熊本	従来の説と異なり、『木下韓村日記』などにあり。
明治時代	標	べんど	淡路	

こまつ1976は、「匂」について「韵」削意説という新たな捉え方と新規な解釈自体を行った。衆目を集める説ではあったが、検証により否定されたように、文献上の現実を追い、その成果を最優先させて考察する必要がある。むしろ漢字「匂」（イン ととのう）と、そこから分化した「匂」との競合の状況のほうを適切に記述すべきである。

稿者も日本の文字・表記を体系として捉えたいが、日本の漢字は和語との結合が強いため、中国の漢字と比べ個々の字に個別性が高くなっている。そして個々の各種の要素が変化に向けた思わぬ因子となるため、個別の字はより独自色が強まる。体系の中であって、どの要素とどの要素が引き合い・張り合い・弾き合いをしているのか、真摯に観察を行うほど捉えにくくなると感じられる。さらに考えていくと、識字層の拡大が、字種・字体レベルで俗字を生み出すという現象は日中で確かめられる。

現代では、例えばシンニョウの点の不統一が、字種単位での揺れを無意味に引き起こしている。常用漢字に追加された康熙字典体は、同様に文字や文体系の内的変化に向かう臨界点を突破して、新たな字体（ラベルとしては誤字（体））すら生み出す契機となっ

た。

類似する構成要素や字体が他の字体や別の字種に干渉するケースも「誤字」と言って切り捨てるばかりでは、動態に対する考察の機会をみすみす放棄するだけである。

書体レベルでは、貴族社会の変質が和様を生みだす、武家社会の擡頭がそれを御家流に変えて広める、といった社会構造の変化による支配層の書風の指向性が、少なくとも上層社会の使用文字を覆ったことは既に知られている。

こうしたことを文字史の中で、より自覚的になるように取り上げて記述し、精緻に分析し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

筆記素材についても付言すれば、例えば毛筆は、筆順の固定化にある程度までは寄与しただろう。筆記具の変化が丸文字を生んだことは社会学の分野で指摘されている。

4.2 平安時代に受け継がれなかった漢字

「𪛗女感孀（をとめ）」や「霏霏（たなびく）」などの『万葉集』に登場する柿本人麻呂が作ったなどとされた字や、「鏝」（仏典にあった佚存文字で、『日本書紀』で使用）という字などは、平安時代にはすでに新たには使用されなくなっていた。使用されるとしても、和歌などで一部の人が襲用する程度であった。

それに対して、平安時代以降に受け継がれた字も存在する。「霞（かすみ）」は『万葉集』における柿本人麻呂の用字と今なお考えられているが、現代まで残り常用化している。「𪛗」の六朝時代の中国北方などで用いられた異体字「𪛗」も、金石文などに見られる佚存文字であるが、現代においても日本史の教科書などにおいて蝦夷の名の「阿𪛗流為」で登場したり、祝詞の本文の助詞の表記などに残ったりしており、種々の社会・場面における位相文字と化している。

4.3 具体的な文献の用例を優先させる研究方法

具体的な文献の用例を優先させる研究方法をこれからも用いていきたいと思う。デジタル化が進展する中であって、字書や電子テキストから引くのは簡単だが、紙から直接丹念に探していくことが最も確実である。ただし、エネルギーと時間と気力と眼力が必要になる。

漢字の字体だけを示して完了とする研究も稀に見かけるが、言語を表記する文字に対する研究としては惜しいと感じられる。その字体の裏側に何があるのか、その字形はなぜ生まれたのか、そしてどの語と結びついているのか。大抵の場合、語が先にあるわけで、それをなぜこの字体で表したのか、語形の違いを異なる字体で表そ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のか、といったことに踏み込んでいく必要がある。稿者もかつては字体の捕捉を好んでいたが、現在はことばそのものに関心が向き、そしてそれと文字がどのように結びついている

か、その際に関わる人の心理やそれを取りまく社会環境は、といった視野まで持つように努めている。字形、字体、書風についてですら、そのように感じるようになっている。

鎌倉時代の真言僧による写本（14世紀）とされている観智院本『類聚名義抄』の法上、足部には、日本製漢字の「辻」という字に、さらに足偏を加えて「ふもと」「はぎ」（この「ハギ」は脛の意か）と読ませる字が掲載されている。日本製漢字を二次利用していると思われる例である。ただし、同じくフモトと訓が付されている「趾」という字にも、土台・もとの意があるため、ここから二次的な解釈による会意化が行われた可能性がある。

「𨮞足昆」など、『万葉集』にある僻字（『新撰字鏡』ないし『龍龕手鏡』から収載か）が『類聚名義抄』に掲出されている例も多く見つかる。

『龍龕手鏡』から受け継いだ「閑」は佚存文字となり、やがて地域文字へと変わっていく。こういう点から、辞書研究の重要性も思い知らされる。なお、『色葉字類抄』や『類聚名義抄』には、字訓が100種を超える字が現れている。「畠」を「ハク」と音読みする類推音の類は、和製漢語とも呼びうるが、中古・中世の文書に見られる「田畠」はどのように読まれていたのかといったことも検討し続ける必要がある。

5 おわりに

以上、上代と中古における漢字の日本化について、調べて判明した両時代の差異に焦点を当てて述べた。多くの連続する事象がある一方で、字の構成要素、構成、訓とされる語の品詞などに「断層」の部分がかめられたであろう。それと同時に、個々の造字の理由や伝播の実態の解明など、今後の課題も見出された。

この度、優れた先人たちに導かれながら、手作業による用例の採集とカードや論文化などによる整理、様々な紙の資料とそれを見たままとなっている記憶、そして最新の各種データベースの類での検索とWEB画像での確認をもとに、ここまで記述と考察を進めてきた。奈良時代に続く平安時代の漢字の日本化については、修士論文において日本製漢字の通史を集中的にまとめて記述をして以来の検討となり、かなりの調べ直しを経て考察を進めることができた。

こうした作業は、やがては基礎的な部分については生成AIが分担してくれる日が訪れることが予想される。しかし、今のところこの方面には全く無力で、虚偽の典拠や文章まで提示してくることだろう。そしてフェイクニュースは人間が、ときには研究職にある人でさえも発信してしまう。もうしばらく、研究者が真摯に一つ一つ調査と作業と考察を行い、その成果を公開していけば、機械もそれらをしっかりと学習することで、きちんとした作業を漏れなく行ってくれるようになっていくとも考えられる。

真実は人を幸せに導く。そのためにも実証的に現象とその背景に関する事実の追究を続けなくてはならない。稿者は、最初は漢字そのものが面白く感じられたのだが（収集マニアに近い）、次第に言語とそれを生みだし用い、読むことなどを行う人間、さらに彼らが

構成する社会へと関心が拡張してきた。古代についても、現代並みに文字・表記に関する人間の心の深部について真相を知りたいと願っている。しかし当然のことながら内省もほぼ効かなければ文献上に言及も現象自体の記録も乏しい。そういう意味で、上記の清少納言による個人の文字感・表記感など内面を表出した記述は貴重に思われるのである。同じ言語・文字という素材を操る人間という最小限の共通点によって、古代人と現代人を結ぶこと自体はできるはずである。ただ、その環境や背景の状況には相当な差があるため、例えば秘点、秘訓の類の位置づけなどを含め、安易な類推は思い込みと誤解のもとになるため注意が必要であろう。

過去における点と点とを結ぶと直線が引けるが、間の点が見つかる線は曲線に近づく。点が増えれば面となり、さらに立体となって、より精緻に歴史を描けたように見える。しかし事実としては、実は直線でつなげられるものばかりではなく、破線で描くべきものなどもあるのである。文字・表記に関しては、現代の事象に関してさえも、実は知らないことや分からないことで溢れかえっている。最近気づいたことさえあるくらいで、自身の不完全さを思い知る毎日である。しかし、どの程度世のためになっていくかは分からないが、隗より始めよという格言もあるので、解明できたことから、あるいは問題提起として気付いたことも、様々な形で問い掛け続けていこうと考えている。

主要文献

- 浅野敏彦『真福寺本「将門記」漢字索引』『同志社国語学論集』 1983
- 浅野敏彦『平安時代識字層の漢字・漢語の受容についての研究』 和泉書院 2011
- 飛鳥資料館『木簡黎明』奈良文化財研究所 2010
- 安部清哉・伊藤真梨子「『今昔物語集』訓釈語彙考」『人文』6号pp. 155-212 2008
- 池上 尚「嗅覚表現名詞カ・ニホヒの史的変遷」『早稲田日本語研究』21 pp. 75-85 2012
- 伊藤寿和「平安・鎌倉時代の「山畑（焼畑）」に関する歴史地理学的研究」『日本女子大学紀要文学』45 pp. 79-95 1995
- 稲岡耕二「「嬬」の誕生とその周辺 ―人麻呂の創意―」『和漢比較文学叢書』9 1993
- 乾 善彦『漢字による日本語書記の史的研究』 塙書房 2003
- 乾 善彦「誰が主役か脇役か―日本語表記における漢字と仮名の機能分担―」『日本語学』32-5 2013
- 犬飼 隆「日本のことばと漢字との出会い」『文字とことば 文字文化の始まり』岩波書店 2020
- 犬飼 隆『漢字を飼い慣らす―日本語の文字の成立史』 人文書館 2008
- 井上 幸「日本古代の所用漢字についての一考察(2)木簡、『古事記』と平安時代漢字文献との比較から『Asia：社会・経済・文化：society, economy and culture』7 pp. 294-287 2020
- 内山裕美「古筆の鑑賞について ―その変遷と背景―」『早実研究紀要』56 pp. 117-141 2022
- 上野 理「「見るにことなることなきものの文字に書いてことごとしきもの」考

- 「一もの」型類聚章段の諸相 『古代研究』1 pp. 29-45 1971
- 江守賢治『解説字体辞典』三省堂 1986
- 大野 透「句 一漢字の変体としての和字一」『國學院雑誌』78-6 pp. 1-11 1977
- 岡井慎吾「辨色立成につきて」『藝文』19-8 pp. 68-84 1928
- 沖森卓也『日本漢字全史』筑摩書房 2024
- 尾山 慎『上代日本語表記論の構想』花鳥社 2021
- 何 華珍『日本漢字和漢字詞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 北川和秀「地名二字表記化をめぐって」『上代文学』111 2013
- 北川和秀「郡郷里名二字表記化の方法について」『古事記年報』54 2012
- 木村茂光『ハタケと日本人』中央公論社 1996
- 金築新蔵「『漢語鈔』並に『辨色立成』考」『国語と国文学』8-7 pp. 64-75 1931
- 藏中 進「『楊氏漢語抄』考一『河海抄』所引本文を通して一」『島田勇雄先生古稀記念
ことばの論文集』明治書院 1981
- 藏中 進「『新撰字鏡』と『楊氏漢語抄』・『漢語抄』・『弁色立成』」『国語と国文学』75-1
pp. 43-57 1998
- 倉本一宏『撰関期古記録の研究』思文閣出版 2024
- 倉本一宏『平安時代の日記を読む事典』吉川弘文館 2025
- 黒田日出男『日本中世開発史の研究』校倉書房 1984
- 桑原祐子『正倉院文書の国語学的研究』思文閣出版 2006
- 吴修喆「平城宮跡出土組み合わせ文字の水脈をたどる」漢検研究奨励賞論文 2022年度
- 小林芳規「将門記における漢字の用法 一和化漢文とその訓読との相関の問題」『日本漢文学史論考』
岩波書店 1974
- 小林芳規『小林芳規著作集』5 汲古書院 2024
- 小松茂美『かな 一その成立と変遷』岩波書店 1968
- こまつひでお「句字考」『佐伯梅友博士喜寿記念 国語学論集』表現社 1976
- 小松英雄『日本語書記史原論』笠間書院 1998 2000補訂版
- 笹原宏之『日本の漢字』岩波書店 2006
- 笹原宏之『国字の位相と展開』三省堂 2007
- 笹原宏之「あすか・飛鳥の由来について」『日本医事新報』4554 p62-63 2011
- 笹原宏之「男性名「〜お」（夫・男・雄・を等）の歴史」『日本医事新報』4613 pp. 62-65 2012
- 笹原宏之「“串”字探源一以“串”表扞子之意为中心」『中国文字研究』21 pp. 219-229 2015
- 笹原宏之「会意によらない一つの日本製漢字の消長 一「𠂔」を中心に」『国語文字史の研究』15
和泉書院 2016a pp. 65-83
- 笹原宏之「国字（日本製漢字）と誤認されてきた唐代の漢字
一佚存文字に関する考察一」『東アジア言語接触の研究』2016b
- 笹原宏之「上代の日本製漢字の製作と使用 一その前史と展開一」『口訣研究』39 p43-87 2017

- 笹原宏之「上代における国字の出現と表記の変化」沖森卓也編『歴史言語学の射程』三省堂 pp. 51-74
2018
- 笹原宏之「创于六朝、隋唐时期存迹于日本的“佚存文字”」『中国文字』3(3) pp. 153-173 2019
- 笹原宏之「日本化漢字・日本製漢字の使用の変動 —上代の使用字の時代環境における示準性—」
笹原宏之・澤崎文編「上代文献と漢字」『日本文学研究ジャーナル』24
古典ライブラリー pp. 9-24 2022
- 笹原宏之「六朝・隋・唐の時代に起源を有する「佚存文字」
—狩谷掖斎の考証に対する検証を兼ねて—」河野貴美子・杜曉勤編『中国古典学ワークショップ論集
—文献・文学・文化—』 pp. 637-658 汲古書院 2024
- 笹原宏之『氏名の史実・現実 —世界と日本の名前のはなし—』 恒春閣 2025
- 佐藤喜代治『『色葉字類抄』略注』 明治書院、1995
- ジスク・マシュー・ヨセフ「和語に対する漢字の影響—「写」字と「うつす」の関係を一例に—」『漢字
教育研究「漢検」研究助成報告書』10 pp. 6-45 2009
- ジスク・マシュー・ヨセフ「訓点語の文法化—漢字・漢語による模倣借用との関連から—」『漢字文化研
究』14 2024
- 島谷弘幸「書の楽しみ」『毎日新聞』 2021年11月21日東京朝刊
- 朱
捷「「句」という字の由来及びそこからみる日本人の嗅覚と中国人の聴覚」『同志社女子大学日本語日本
文学』10 pp. 42-74 1998
- 朱 捷「再び「句」という字の由来について」『同志社女子大学学術研究年報』49-4 pp. 366-383
1998
- 朱 捷『においとひびき—日本と中国の美意識をたずねて』 白水社 2001
- 助川幸逸郎ほか『新時代への源氏学7 複数化する源氏物語』 竹林舎 2025
- 杉本つとむ『異体字研究資料集成』 雄山閣 1973-1975 1995
- 総本山仁和寺監修／宇都宮啓吾編『国宝「三十帖冊子」修理から見えてきたもの』 勉誠社 2023
- 瀬間正之編『「上代のことばと文字」入門』花鳥社 2020
- 高橋忠彦「国訓の構造 漢字の日本語用法について（上）」『東京学芸大学紀要』第2部門 人文科学51
pp. 313-325 2000
- 高橋庸一郎「『万葉集』の「句い」と『懷風藻』の「句い」」『和漢比較文学叢書』9 汲古書院 1993
- 高橋庸一郎『句いの文化史的研究 日本と中国の文学に見る』『阪南大学叢書』65 和泉書院 2002
- 谷口孝介「「和習」の淵源—『新撰万葉集』巻上の漢詩を中心として—」『日本語と日本文学』49
pp. 1-6 2009
- 田中草大『平安時代における変体漢文の研究』 勉誠社 2019

- 築島 裕『訓点語彙集成』 汲古書院 2007-2009
- 鄭 賢章『《新集藏經音義隨函錄》研究』増訂本 上海教育出版社 2023
- 西井辰夫『「しんにょう」がついている国字 不思議な字「辻」不死身な字「込」』 幻冬舎 2018
- 西井辰夫『あっぱれから適まで』 幻冬舎 2022
- 沼本克明「変体漢文訓読に於ける字音語の性格」『信州大学人文科学論集』7 pp. 31-44 1973
- 橋本進吉『文字及び仮名遣の研究』 岩波書店 1949
- 三木雅博「「勾」字と「にほふ」―菅原道真と和語の漢字表記―」『文学史研究』23 pp. 14-31 1982
- 峰岸 明『平安時代古記録の国語学的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86
- 森 公章『古代木簡の世界』 勉誠社 2025
- 矢田 勉『国語文字・表記史の研究』 汲古書院 2012
- 山田孝雄『国語史 文字篇』 刀江書院 1937
- 山本真吾編著『平安時代の日本語』 朝倉書店 2025
- 吉沢義則『日本書道随攷』 白水社 1943
- 李 松『魏楷体系研究』 墨宝齋出版社 2023
- 梁 青「『新撰万葉集』の漢詩にみられる和歌的表現」 名古屋大学大学院国際言語文化研究科
日本言語文化専攻博士学位論文 2013
- 『漢字講座』5・6 古代の漢字とことば、中世の漢字とことば 明治書院 1988

付記

本稿を成すに当たり、石井健氏、乾善彦氏、犬飼隆氏、井上幸氏、内山裕美氏、尾山慎氏、黄詩琴氏、蜂矢真郷氏を始めとする多くの方々から有益な御教示を頂いた。ここに記して深く感謝申し上げる。

本研究は、科研費基盤研究（A）「東アジアを俯瞰した日本列島かな文字確立に関する総合的研究」（奈良文化財研究所）によるところがある。本稿は、「漢字の使用における奈良・平安時代の断層 ―中古に現れた字種・字体・字義―」（奈良女子大学 若手研究者支援プログラム 2025年8月25日）と重なる部分がある。

Methodology for Reconstructing Ancient Phonetic System of Chinese Characters

CHU Chia Ning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Historical Chinese phonology focuses on reconstructing the ancient sounds of Chinese characters using "ancillary sources" or "linguistic fossils". Unlike Indo-European languages, Chinese uses a logographic writing system, making reconstruction more challenging. The methodology primarily utilizes phonetic components of characters (xiéshēng series), rhyme dictionaries (such as Qièyùn), rhyme tables, and modern dialects. Significant tools include the fǎnqiè spelling system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Sanskrit-Chinese transliterations. Research indicates that Old Chinese featured complex consonant clusters (e.g., kl-, pl-) that simplified over time, and universal phonetic principles such as the evolution of [p] to [f]. Understanding these reconstruction methods is essential for mastering Classical Chinese and exploring the cultural evolution of the language.

한자 고음 재구의 방법론

축가녕 (국립정치대학)

중국어 음운학은 '언어의 화석'이라 불리는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고대 한자의 발음을 재구(Reconstruct)하는 학문이다. 한자는 표음 문자가 아닌 표어 문자이기 때문에 인도-유럽어 족과는 차별화된 방법론이 요구된다.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형성자(형성계열)의 성부 분석, 『절운(切韻)』과 같은 운서 및 운도 활용, 현대 방언과의 비교 등이 있다. 또한 반절(反切) 표기법과 범한대음(漢梵對音) 분석은 고음 재구의 핵심적인 도구이다. 연구 결과, 상고 중국어에는 현대 영어와 유사한 복합 자음군(예: kl-, pl-)이 존재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단일 자음으로 단순화되었으며, [p]음이 [f]음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인 음운 변화 법칙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재구 방법론은 한문의 깊은 이해와 한자 문화의 기원을 탐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漢字古音再構の方法論

竺家寧 (国立政治大学)

中国語音韻学は、「言語の化石」と呼ばれる補助資料を用いて古代の漢字音を再構する学問である。漢字は表音文字ではないため、その再構にはインド・ヨーロッパ語族とは異なる独自の方法論が用いられる。主な手法として、諧声系列(形声文字の音符)の分析、『切韻』などの韻書や韻図の活用、現代方言との比較などが挙げられる。特に「反切」法や「漢梵対音(サンスクリット語との対照)」は極めて重要な資料である。研究により、上古中国語には複声母(kl- や pl- などの子音結合)が存在し、後に単純化したことや、[p] から [f] への変化といった言語普遍的

な規則が明らかになった。これらの再構方法を理解することは、古典中国語の習得や漢字文化の変遷を解明するために不可欠である。

漢字古音擬構的方法論

竺家寧（國立政治大學）

漢語音韻學旨在利用「語言化石」等輔助來源，擬構古代漢字的讀音。由於漢字為表意文字而非拼音文字，其擬構方法與印歐語系顯著不同。核心方法論包括分析諧聲系列、利用《切韻》等韻書與韻圖，以及參考現代方言。其中，「反切」聯系法與「漢梵對音」是研究古音的重要工具。研究指出，上古漢語曾存在複雜的複聲母（如 $kl-$ 、 $pl-$ ），後演變為單聲母，並遵循如 $[p]$ 變 $[f]$ 的普遍語音演變規律。掌握這些擬構方法，對於有效學習文言文、探究漢字形音義關係及文化內涵具有重要意義。

韓國口訣學會創立30周年紀念 首爾大學2026年2月10日

Methodology for Reconstructing Ancient phonetic system of Chinese characters

abstract

漢字古音擬構的方法論 提要

竺家寧 CHU CHIANING, 國立政治大學退休教授,
professor, University of Wales, UK

1

Historical Chinese phonology deals with reconstructing the sounds of Chinese from the past.

As Chinese is written with logographic characters, not alphabetic or syllabary, the methods employed in historical Chinese phonology differ considerably from those employed in, for example, Indo-European linguistics; reconstruction is more difficult because, unlike Indo-European languages, no phonetic spellings were used.

2

**First of all, we must have some
understanding of “Chinese Historical
Phonology”**

- Chinese historical phonology deals with the reconstruction of sounds of ancient Chinese.
- The reconstruction depends mainly on “ancillary sources”.輔助來源
- -----Ancient “fossils of language”, just as the fossils of Dinosaur.

3

- Especially during the last one hundred years, great improvements have been achieved, not only in the field of **Old Chinese** and **Middle Chinese** phonology , but also in **dialectology** and the **technique of analysis** to the sound structure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4

They are Three Periods of Historical Chinese:

- Old Chinese: 11th century BC to 3rd century AD
- Middle Chinese: 3rd century ~ 12th century
- Modern Chinese: 13th century ~ present times

All these period remain lots of “fossils” of ancient Chinese. it include the phonetic components in Chinese character & the rhymes of early poetry and there are lots of rhyme dictionarys, rhyme tables and various modern dialects.

5

Let's start by talking about impact from abroad

1. **Just as we know it :** The influence of ancient Sino-Indian on Chinese historical phonology 漢梵對音 **launched the prelude to ancient phonetic research. e.g. The Chinese name of 佛陀 pronounced as “Buddha” in Sanskrit. (佛b->f- 陀 -a>-uo)**
2. **When we** Compare the linguistic studies by Chinese and the records of the western missionaries who came to China since the 17th century; we get much information of Chinese phonology from them.(傳教士利瑪竇)
3. **We can examine** how Chinese phonology was inspired by western languages after the 19th century. A lot of new phonetics knowledge was input at this stage. (高本漢)

6

Research materials by local scholars

7

How to reconstruct the old Chinese?

----The language of Confucius and
Book of Songs詩經

8

- The Chinese language has 3,000 years of documented records. We can trace the phonology, vocabulary, and grammar of ancient Chinese from **Many different** records.

9

- The scholars detect words in **Chinese dialects**, or to find rhyming patterns in the **Book of Odes** (/əʊd/詩經) for the purpose of the reconstruction of Old Chinese phonology.

10

Since Duàn Yùcái 段玉裁(1735-1815) detected the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phonetic part of *xiéshēng* characters and rhymes in the Book of Odes (Shījīng 詩經, ca. 1050–600 BC), described in his *Liùshū Yīnjùn Biǎo* 六書音均表, historical Chinese phonology is equipped with a powerful tool for the reconstruction of Old Chinese.

11

While the rhymes only provide information on the finals of Old Chinese, *xiéshēng* 諧聲 characters can help to shed light on **the initials** as well.

Since then, the reconstruction of Old Chinese phonology has greatly improved, culminating最終 in a series of very similar reconstruction systems, which have been proposed independently by different scholars in the recent decades.

12

The standard way of employing *xiéshēng* 諧聲 characters for the purpose of Old Chinese reconstruction is to assemble characters into so-called *xiéshēng series* 聲系 by which characters are clustered into groups that share the same phonetic characteristics.

13

GSR Subseries Examples (*xiéshēng series*)

- 可- 柯何河苛呵訶阿哥奇
- 奇 騎錡寄掎畸綺踦敺倚椅猗輶

- 我- 俄娥峨莪餓鵝蛾
- 義 儀議蟻義

- 也 匱池馳弛地施
- 它- 陀舵

- 女 如汝奴
- 如 帑洳茹恕絮拏
- 奴- 孥帑弩怒拏弩笱驚叡

14

different layers of Phonetic radical

簿 ^{b-}	溥 ^{ph-}	浦 ^{ph-}	甫 ^{f-}	父 ^{f-}
Book	Broad	shore	gentleman	father

15

“Sound fossils” in ancient dictionary 朱駿聲說文通訓定聲

Classifying and arranging the **phonetic components** of all Chinese characters is a very important clue for exploring ancient Chinese phonology.

16

Based on numerous clues and the ancient “fossil record”, we can reconstruct a system of ancient sounds.

17

What did the sound of old Chinese look like?

18

- **Confucius' language** is very similar to modern English?
- We can find many kinds of complex initial consonant clusters in Old Chinese.

19

We can take a look of this case Old Chinese

- **klak** 角 (horn)
- **pljuəm** 風

- It is known that the initial consonants kl- and pl- also exist in English.
- Klara (克拉拉)、Klaus (克勞斯)、plane (飛機)、play (玩)、plus (加) in English.

20

- **Just as we know it** , The Chinese language is a member of the Sino-Tibetan Language family, which shares a common etymological origin.
- Although modern Chinese dialects have no **consonant clusters** at all, other languages in this family, such as Tibetan, Burmese, and Miao-Yao, have preserved consonant clusters to varying degrees. This is the strongest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consonant clusters in Old Chinese.

21

- China has a very long history, and more importantly, it has preserved a large number of documents that record the actual language of the times.

22

- We can also find many “fossils” from lots of ancient documents that reflect the ancient pronunciation of Chinese words.
- This type of initial consonant clusters gradually disappeared after the Han Dynasty and became single consonants, just like the evolution of English.

23

- For example, in English we can find the words like “**knee**” and “**psychology**”.
- The **kn-**, **ps-** only need to be pronounced as **n-**, **s-**, and the k-, p- at the beginning are missing.

24

- In Chinese, the same rules of evolution have been followed.
- The examples we have mentioned above:

角 OC **klak** > MC **kak**

風 OC **pljuəm** > MC **pjung**

- In this case, Consonant clusters **kl-**, **pl-** evolved into simple consonants **k-**, **p-**.

25

This is a compilation of recent 100 years research on consonant clusters of OC.

1998, 03 《古漢語複聲母論文集》，（合編：趙秉璇），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434頁，北京

26

story of p>f

- Now let's talk about the history of the **consonant [p-]**, how it changed to **[f-]** later.

27

- A scholar 錢大昕(1728–1804) from the Qing dynasty made a great discovery in the evolution of pronunciation.
- He believed that the current f- sound was originally the p- sound in ancient times.
- **The initial consonant [f-] of“父”father originated from the Old Chinese [p-].**
- **So, The pronunciation of the character “父father” in OC must pronounced similar to [pa].**

28

Another German philologist **Karl Grimm (1785 –1863)** also put forward the same theory that in English [f] is often came from [p], **the word “father” came from the OE “pater”.**

(Latin **p**ater)

The evolution of **[p>f]** is the universal principle of languages.

Let's check some cognate words in English

Please compare the following cognate words

foot : **p**edal

brother : **f**raternal /frə'tɜː.nəl/

break : **f**ragment

You can find the regulation [p-] changed to [f-] in English, Just as ancient Chinese.

- Another rule in the evolution of Chinese phonology is that the current vowel [u] was originally pronounced as [a].
- **Ex. 家(family) and 姑(aunt) /ɑːnt/ have the same pronunciation [ka] in OC. The sound of character 姑 changed to [ku] in modern Chinese. (曹大家=曹大姑 Famous female writer of the Eastern Han Dynasty)**
- **This kind of sound change also be found in the evolution of English.**

31

Let's take A look of the rules of The Great Vowel Shift (GVS)

32

Li Fang-kuei proposed many feasible 可行的 methods and practicable way in the study of ancient phonology.

李方桂在上古音方面的貢獻

1902–1987

33

2. 李方桂的擬音系統:

	ə	a	u	i
-g -k -ŋ	之蒸	魚陽	侯東	佳耕
-gʷ -kʷ -ŋʷ	幽中	宵		
-d -t -n	微文	祭元		脂真
-p -m	緝侵	葉談		
-r		歌		



34

歌部——從

虧它爲窩加多麻半吹叉沙禾亡那竊戈

凸受我罷才瓦果朵貨窓徒羸半匠也

霍七坐臥麗些戲

得聲的字都在本部，後來入廣韻以下諸韻：

歌哿箇（多、婆、何）

麻馬禡（差、加、蛇、蝸）

支紙寘（離、施、奇、糜、隋、吹）

戈果過（波、墮、坐、過）

廣韻歌戈兩韻的字全部來自本部，切韻歌戈不分韻。統名歌。

歌 何俄歌河 -a	哿 可我 -a	箇 箇佐賀个邏 -a
戈 1.禾戈波婆和 -ua	果 果火 -ua	過 臥過貨唾 -ua
2.伽迦 -ja		
3.靴駝肥-jua		

Old Chine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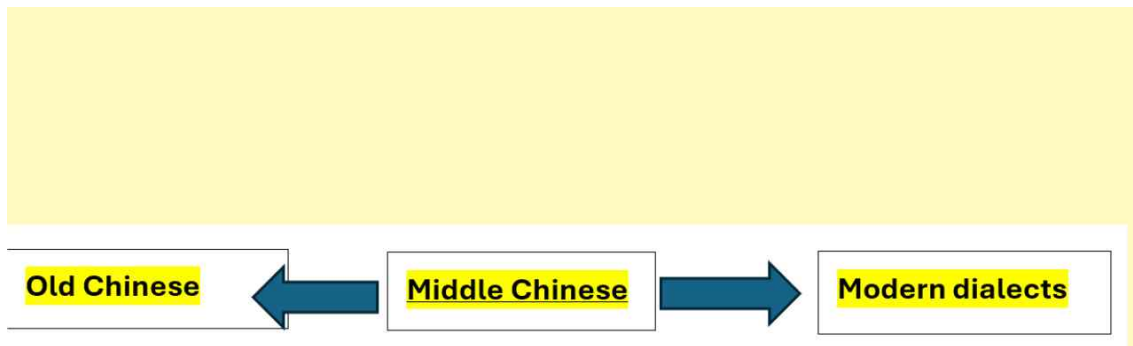
-ar>-a>-o

Middle Chinese

How to reconstruct the middle Chinese

----the age of Tang poems

36



37

- These kind of materials contain many interesting clues; if we pay attention to them, we can **find traces** of ancient sounds within them.

38

Karlgren himself had no direct access to the *Qieyun*, which was thought lost; however, fragments of the *Qieyun* were discovered in the *Dunhuang* 敦煌石窟Caves in the 1930s, and a nearly complete copy was discovered in 1947 in the *Palace Museum*.

故宫博物院 故宮本全王《刊謬补缺切韵》，唐吴彩鸾写本，唐王仁煦撰，长孙讷言注，裴务齐正字

39

- From the divergent character readings that can be found in Middle Chinese as reflected originally in the **rhyme book *Qìèyùn* 切韻(601 AD)**, scholars carry out an internal reconstruction of Old Chinese character readings which explain differences in Middle Chinese based on general ideas about **sound change tendencies**. (The rules of speech evolution)

40

說文讀若

- In his *Shuōwén Jiězì*, Xǔ Shèn occasionally uses the formula “read [this character] as X” (*dúruò* 讀若) in addition to his explanations of the meanings and the structure of the characters.
- It is not clear whether the formula consistently pointed to strictly identical pronunciations or whether certain deviations 偏差 were allowed.

41

The so-called *fǎnqiè* spellings provided a much more precise way of glossing character pronunciations.

This spelling method, which seems to go back to at least the third century, is based on breaking the character pronunciation into two parts, **the initial and the final**, and selecting two different characters glossing, one with an identical initial sound and one with the identical final.

42

Given their straightforwardness直率 and simplicity, *fǎnqiè* pronunciation glosses became quite popular among Chinese scholars, and even today, people may occasionally use them in order to explain pronunciations without having to rely on foreign writing systems like the Latin alphabet.

As a result, there is an abundance of sources which use this pronunciation device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Chinese language.

43

Although the pronunciation is only given indirectly, with respect to the pronunciation traditions which were active at a given epoch, the *fǎnqiè spellings* offer great help to explore how the pronunciation of the Chinese language changed over time.

44

Most of this research on pronunciation changes investigated through the comparison of *fǎnqiè* spellings has been carried out manually. 手工進行的

Chinese scholars' systematic work on *fǎnqiè* spellings goes back to the early 19th century, when scholars like **Chén Lǐ** 陳澧(1818-1882) began to investigate in his *Qièyùn kǎo* 切韻考, which characters were used to denote certain initial sounds (*fǎnqiè shàngzì* 反切上字), and which characters were used to denote the finals (*fǎnqiè xiàzì* 反切下字).

45

As we can expect, instead of using the same character for the pronunciation of the initial sound all the time, scholars would often alternate the characters, but the alternations were more or less consistent, with some characters being used more frequently and some characters being used less frequently.

46

- **Chén Lǐ** figured out that the characters could be classified in a rather rigorous manner which would allow to reconstruct direct pronunciations of the *fǎnqiè* spellings.
- For example, we can say that the characters *gōng* 公, *gǔ* 古, *gàn* 干, etc. were regularly used in the *Qièyùn* to indicate initials which would be spelled as [k] in the IPA, while *kǒu* 口, *kě* 可, and *kǔ* 苦 were used to pronounce [k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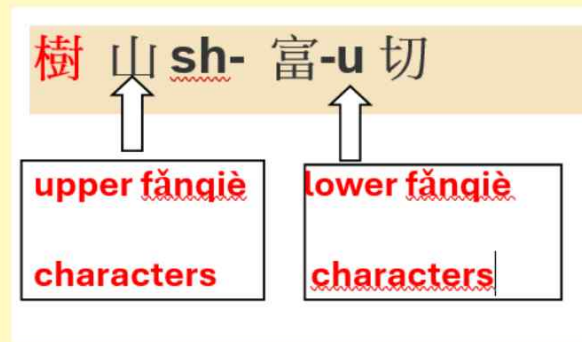
47

Chén lǐ summarized the 452 different characters that were used as initials in the *fǎnqiè* spellings of the *qièyùn* into 40 different initial groups (*shēnglèi* 聲類).

Later in 1915, Bernhard Karlgren (1889-1978) postulated a system with as many as 47 initials.

48

- Through the 'FANQIE connection' 通過反切系聯
- How to connect the FANQIE?
- To construct a 'Pronunciation networks'



49

Refer to the example below
We can infer that the initial consonants of these two characters have the same pronunciation.

當，都郎切
都，當孤切

冬，都宗切
都，當孤切

50

Using this method, we can obtain the following **group** of initial constants.

The pronunciation of [p] represented by the character “幫” in ancient phonology.

一、幫母——p

1. 北 (波墨) 波 (博何) 逋 (博孤) 補 (博古) 伯百 (博白) 博 (補各)
彼 (補靡) 兵 (補榮) 并 (補盈)

1. 必 (比蜜) 比 (卑履) 卑 (府移) 方 (府長) 分 (府文) 封 (府容) 甫府
(方主)
鄙 (方美) 筆 (鄙密)

3. 非 (匪肥) 匪 (非尾)

51

- Inside the brackets are the upper fǎnqiè characters and lower fǎnqiè characters. These words are connected into a string in this way.
- The glossed character 被注音的字 and glossing character 用來注音的字 are linked together.
- These group of characters are connected to form a “**NETWORK**”.

52

- In addition, because the upper fǎnqiè character represents the initial consonant.
- The character "彼" use the upper character「甫」 to construct its fanqie.
- (「甫」is the upper fǎnqiè characters of 「彼」).
- So, group 1 and group 2 can be combined as one same group.
- (《廣韻》「彼」以「甫」為其反切上字。所以第1、2組可以合併。)

53

- 「非，甫微切」 The character「非」use the upper character「甫」 to construct its FANQIE.
- (「甫」is the upper fǎnqiè characters of 「非」).
- So, groups 2 and 3 can be combined as one same group.
- (《康熙字典》引《唐韻》「非，甫微切」。所以第2、3組可以合併。)

54

- groups 1彼= groups 2甫 (A=B)
- groups 3非= groups 2甫 (B=C)
- Therefore, it can be deduced that the first group must be equal to the third group.
- groups 1彼= groups 3非 (A=C)
- A=B, B=C, so, A=C
- Then, A=B=C

55

The system underlying the **fǎnqiè spelling**, consisting of a glossed character and a glossing character can be easily translated into a system of directed networks in which we draw a link from the glossing character to the glossed character.

• 北 (波墨)	卑 (府移)	
• 波 (博何)	方 (府長)	
• 補 (博古)	分 (府文)	
• 伯 (博白)	封 (府容)	非 (匪肥)
• 博 (補各)	甫 (方主)	匪 (非尾)
• 彼 (補靡)	鄙 (方美)	

《廣韻》彼字以「甫」為其反切上字。 彼=甫
《康熙字典》引《唐韻》非字「甫微切」 非=甫

56

- They connected into a string字串, and all the characters form a “NETWORK”.
- The initial consonant system of Middle Chinese can then be deduced.

57

韻母的系聯
fanqie connection of finals.

56

先 1.前賢年堅田 先顛煙 -ien 2 玄涓 -iuən	銑 1.典殄繭峴 -ien 2.泫畎 -iuən	霰 1.甸練佃電麵 -ien 2.縣 -iuən	屑 1.結屑蔑 -iet 2.決穴 -iuət
仙 1.連延然仙 -jæn 2.乾焉 -jæn 3.緣專川宣全 -juən 4.員圓攀權 -juən	獮 1.善演免淺蹇 -jæn 輦展辨剪 2.兗轉緬篆 -jæn	線 1.戰扇膳 -jæn 2.箭線面賤碾膳 -jæn 3.戀眷捲卷囀彥 -juən 4.絹掾釧 -juən	薛 1.列薛熱滅別竭 -jæt 2.悅雪絕熱劣輟 -juæt

- Each grid is a category divided by rhyme book(每一格是rhyme book分好的 category)
- The grouping in each grid is the sub-category of the finals shown by the “fanqie connection”. (每一格裡面的分組，是反切系聯所顯示的韻母小類) ⁵⁹

- The results of “fanqie connection” are completely consistent with the classification of rhyme table.
- The analytical conclusions of the two materials are exactly the same, demonstrating the feasibility可行性 and certainty of Middle Chinese phonology reconstruction.

“rhyme tables” of the Middle Chinese

- The reconstruction of Middle Chinese draws its data (in approximate order of importance) from:
- **Rime dictionaries** and **rime tables** of the Middle Chinese era, such as the **Qieyun** (601 AD) and **Yunjing** (c. 1150 AD).

61

- **Traces of ancient pronunciation through rhyme tables.**
- 通過等韻圖尋找古音的痕跡
- **Rhyme table is an ancient ‘phonetic chart’.**

62

- Each table or chart represents the pronunciation of a class of vowels.

一.等韻圖的識讀(一)

1. 《韻鏡》大略

聲母

例字、韻等	開合

開合

[illegible]

齒音舌	音	喉	音	齒	音	牙	音	舌	音	唇
清濁	清濁	清濁	清濁	清濁	清濁	清濁	清濁	清濁	清濁	清濁
○龍	○洪	○烘	○翕	○越	○叢	○叢	○空	○同	○通	○東
○戎	○陸	○彤	○雄	○○	○充	○終	○軒	○窮	○弓	○蟲
○○	○融	○○	○○	○萬	○○	○○	○○	○○	○蟲	○仲
○○	○○	○○	○○	○○	○○	○○	○○	○○	○蟲	○中
○○	○○	○○	○○	○○	○○	○○	○○	○○	○蟲	○普
○○	○○	○○	○○	○○	○○	○○	○○	○○	○蟲	○馮
○○	○○	○○	○○	○○	○○	○○	○○	○○	○蟲	○豐
○○	○○	○○	○○	○○	○○	○○	○○	○○	○蟲	○風

《韻鏡》等位與聲母對應表

	齒音舌	音喉	音齒	音牙	音舌	音唇
	清濁	清濁	清濁	清濁	清濁	清濁
一等	來	匣	曉	影	心	從
二等	來	匣	曉	影	心	從
三等	日	來	匣	曉	影	心
四等	來	匣	曉	影	心	從

Each position in the chart represents a specific pronunciation of MC.

65

- Traces of ancient pronunciation through modern dialects.
- 通過現代方言尋找古音的痕跡

66

- For example, in modern Southern-Min dialect, many words with retroflex consonants in Mandarin are pronounced as [d-] or [t-], which is a trace痕跡 of preserved Old Chinese pronunciation. (豬、中、池、直)

方言	覃 (知二)	茶 (澄二)	晝 (知三)	趁 (徹三)	直 (澄三)
福州話	[tau]	[ta]	[tau]	[t ^h eiŋ]	[tiʔ]
建甌話	[tsau]	[ta]	[te]	[t ^h eiŋ]	[tɛ]
廈門話	[ta]	[te]	[tau]	[t ^h an]	[tit]
台北話	[ta]	[te]	[tau]	[t ^h an]	[tit]
潮州話	[ta]	[te]	[tau]	[t ^h aŋ]	[tik]

67

- Traces of ancient pronunciation through the translation of Buddhist scriptures.
- (通過[梵漢對音]尋找古音的痕跡)

66

Early cases of transliteration of foreign words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Sanskrit** and **Tibetan** into Chinese.

69

• The correspondence between Chinese characters and Sanskrit can reconstruct the original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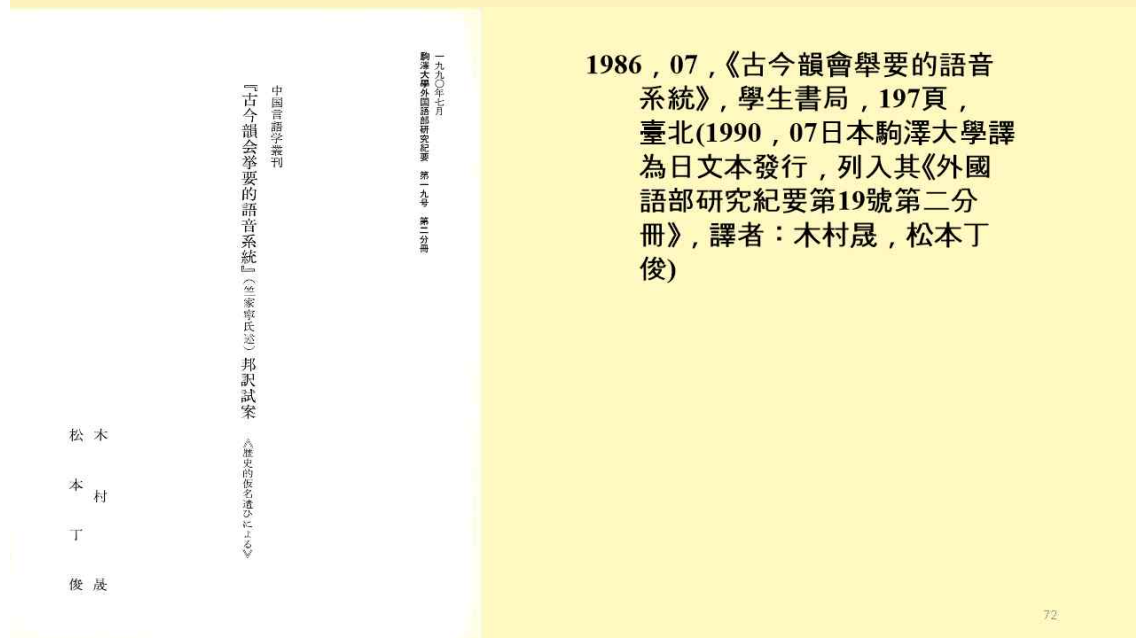
- 【Sub**hu**ti須菩提 須**扶**提】(人名)
- 【Pur**va**videha**弗**婆提】(地名)
- 【Pur**na**富樓那】(人名)
- 【Sari**pu**tra舍利**弗** 舍利弗多】(人名)
- 【Brah**ma**梵】(術語)

70

There are many other ancient “sound fossils”.

其他的古音化石

71



72

**九經直音 Pronunciation records from the Song
Dynasty**

**Sound records from the Min dynasty.
韻略易通(1442)**

韻略匯通(1642)

73

Sound records from the Qing dynasty.

**山門新語
(1893)**

五方元音(1654-1673)

**Using characters to indicate the
pronunciation of initials.**

等韻精要(1775)

74

Conclusion

75

Only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methods of structural reconstruction in the historical phonology of Chinese language, can we effectively master knowledge of Classical Chinese.

The reconstruction of ancient Chinese pronunciation can help us to understand the origin, evolution and principles of Chinese character construction and explore the structures of old Chinese and middle Chinese.

76

In addition, this knowledge also helps us to perceive the features of Chinese characters and further understand their cultural connotations and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 sound and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and develop the ability to identify primitive forms of ancient Chinese language.

77

bibliography

78

- **Chu, Chia Ning.** 2024. **“Chinese phonology and cross-cultural exchange in history”**,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ed. Liwei Jiao, Oxford and New York: Routledge, pp. 42-64.(1st Edition, The Routledge Handbook of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Edited By Liwei Jiao, Copyright 2024)

79

竺家寧 2019 , 01 , 《佛經語言之旅》, 新學林出版社 , 臺北

竺家寧 2015 , 09 , 《聲韻之旅》, 共**442**頁 , 五南圖書公司 , 臺北。2016.10修訂第二版 , **436**頁。

This is the most widely used phonetics textbook in Taiwan.

80

- 竺家寧 2012.04 , 從語言風格學看李白詩的賞析 ,《亞非文集》
Volume XVI, Issue 1 , 頁111-130 , University of Ljubljana, Faculty of
Arts , Slovenia。
- 竺家寧 2016.08 論漢語14 至17 世紀的語音發展與特色 – 臺灣
的研究成果述評 ,《中國語言學報》「語言演化與漢語變化」專
號 , JCL ,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Monograph Series Number
26 , Language Evolution and Changes in Chinese, p55-77 ,

81

竺家寧 2005 , 07 , 10 中古漢語的「兒」後綴 ,《中國語文》
2005年第四期(總第三0七期) , 346- 354 , 北京

竺家寧 1995 , 07 , 試論重紐的語音 ,《中國語文》1995年第
四期(總第二四七期) , 298- 305 , 北京

竺家寧 1993 , 01 , 台灣四十年來的音韻學研究 ,《中國語
文》第232期 , 23-32 , 北京

82

竺家寧 1987, 12, 《韻會》重紐現象研究, 《漢學研究》第5卷2期, 311-327, 臺北

竺家寧 1981, 01, 《九經直音》知照系聲母的演變, 《東方雜誌》第14卷7期(商務印書館), 25-28, 臺北

竺家寧 1973, 05, 《顏氏家訓·音辭篇》的幾個語音現象, 《德明學報》第一期, 161-169, 臺北

83

Materials for learning phonology on Internet

Phonology Videos 65 Episodes

竺家寧[聲韻學] (1.臺南極樂寺 2.哔哩哔哩_bilibili)

關鍵詞: 聲韻學之旅



84

The End
竺家寧 CHU CHIANING
zjn@nccu.edu.tw

85

한자 고음 재구의 방법론

축가녕 (국립정치대학교)

(아래 숫자는 원문 슬라이드의 장수(1-85)임)

2. 중국어 역사 음운론은 과거 중국어의 소리를 재구하는 것을 다룬다. 중국어는 알파벳이나 음절 문자가 아닌 표의 문자인 한자로 표기되기 때문에, 중국어 역사 음운론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인도-유럽 언어학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상당히 다르다. 인도-유럽 언어와 달리 표음 철자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구가 더 어렵다.

3. 우선, '중국어 역사 음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어 역사 음운론은 고대 중국어의 소리를 재구하는 것을 다룬다. 이 재구는 주로 '보조 자료'에 의존한다. 이는 공룡 화석과 같은 고대 '언어의 화석'이다.

4. 특히 지난 100년 동안 상고음(Old Chinese)과 중고음(Middle Chinese) 음운론 분야뿐만 아니라, 방언학 및 한자 표기 시스템의 소리 구조 분석 기술에서도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5. 중국어 역사는 세 시기로 나뉜다:

상고음(Old Chinese): 기원전 11세기 ~ 서기 3세기

중고음(Middle Chinese): 3세기 ~ 12세기

근대 중국어(Modern Chinese): 13세기 ~ 현재

이 모든 시기에는 고대 중국어의 많은 '화석'이 남아 있다. 여기에는 한자의 형성 성분(형성자의 성부(聲符)), 초기 시가(시경(詩經) 등)의 압운, 그리고 수많은 운서(韻書), 운도(韻圖), 다양한 현대 방언 등이 포함된다.

6. 해외로부터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①이미 알고 있듯이, 고대 한-범 대음(漢梵對音)의 영향은 고대 음성 연구의 서막을 열었다. 예: '佛陀'라는 한자 이름은 산스크리트어에서 "Buddha"로 발음됨. (佛 b->f-, 陀 -a>-uo)

②중국 학자들의 언어 연구와 17세기 이후 중국에 온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을 비교하면, 그들로부터 중국어 음운론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선교사 마테오 리치)

③19세기 이후 중국어 음운론이 서양 언어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조사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새로운 음성학 지식이 유입되었다. (베른하르트 칼그렌)

7. 현지 학자들의 연구 자료

8. 상고 중국어를 어떻게 재구할 것인가? -- 공자의 언어와 《시경(詩經)》의 언어

9. 중국어는 3,000년의 문헌 기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많은 다양한 기록으로부터 고대 중국어의 음운, 어휘, 문법을 추적할 수 있다.

10. 학자들은 상고 중국어 음운 재구를 목적으로 중국 방언에서 단어를 탐색하거나 《시경(詩經)》에서 압운 패턴을 찾아낸다.

11. 단옥재(段玉裁, 1735-1815)가 그의 저서 《육서음균표(六書音均表)》에서 형성자의 성부와 《시경(詩經)》 압운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를 발견한 이래로, 중국어 역사 음운론은 상고음 재구를 위한 강력한 도구를 갖추게 되었다.

12. 압운은 상고 중국어의 운미(韻尾)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지만, 형성자(諧聲字)는 성모(聲母)를 밝히는 데도 도움을 준다. 그 이후 상고 중국어 음운론의 재구는 크게 발전했으며, 최근

수십 년 동안 여러 학자가 독립적으로 제안한 매우 유사한 재구 시스템들로 귀결되었다.

13. 상고음 재구를 위해 형성자를 사용하는 표준적인 방법은 글자들을 소위 ‘해성(諧聲)’ 계열로 모으는 것인데, 이를 통해 동일한 음성적 특징을 공유하는 글자들을 그룹으로 묶는다.

14. GSR(Grammata Serica Recensa) 소개 예시 (해성 계열):

可(가): 柯(가), 何(하), 河(하), 苛(가), 呵(가), 訶(가), 阿(아), 哥(가), 奇(기)

奇(기): 騎(기), 錡(기), 寄(기), 掎(기), 畸(기), 綺(기), 踦(기), 𪚩(기), 倚(의), 椅(의), 猗(의), 鞮(의), 隄(의)

我(아): 俄(아), 娥(아), 峨(아), 莪(아), 誡(아), 餓(아), 鵝(아), 蛾(아)

義(의): 儀(의), 議(의), 蟻(의), 義(의)

也(야): 匱(이), 池(지), 馳(치), 弛(이), 地(지), 施(시)

它(타): 陀(타), 舵(타)

女(녀): 如(여), 汝(여), 奴(노)

如(여): 帀(여), 洳(여), 茹(여), 恕(서), 絮(서), 拏(나)

奴(노): 拏(노), 帀(탕), 弩(노), 怒(노), 拏(나), 弩(노), 笏(노), 駑(노), 呶(노), 恹(노)

15. 성부(聲符)의 서로 다른 층위들

簿(부) b- 溥(부) ph- 浦(포) ph- 甫(보) f- 父(부) f-

Book Broad shore gentleman father

16. 고대 자전 속의 ‘소리 화석’: 주준성(朱駿聲) 《說文通訓定聲》

모든 한자의 성부(형성 성분)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은 고대 중국어 음운론을 탐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다.

17. 수많은 단서와 고대 ‘화석 기록’을 바탕으로 고대 음운 체계를 재구할 수 있다.

18. 상고 중국어의 소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19. 공자의 언어는 현대 영어와 매우 유사했다? 상고 중국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어두 자음군을 발견할 수 있다.

20. 상고 중국어의 이 사례를 살펴보자.

角(뿔): klak, 風(바람): pljuəm

어두 자음 kl-과 pl-은 영어에도 존재한다. 영어의 Klara, Klaus, plane, play, plus 등.

21.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어는 공통된 어원을 공유하는 한장어족(Sino-Tibetan Language family)의 일원이다. 현대 중국어 방언에는 자음군이 전혀 없지만, 티베트어, 버마어, 묘요어(Miao-Yao)와 같은 이 어족의 다른 언어들은 다양한 정도로 자음군을 보존하고 있다. 이것은 상고 중국어에 자음군이 존재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22. 중국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더 중요한 점은 당시의 실제 언어를 기록한 방대한 양의 문헌을 보존해 왔다는 것이다.

23. 한자의 고대 발음을 반영하는 많은 고대 문헌에서도 수많은 ‘화석’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어두 자음군은 한나라 이후 점차 사라져 단일 자음이 되었으며, 이는 영어의 진화 과정과도 유사하다.

24. 예를 들어, 영어에서 ‘knee’나 ‘psychology’ 같은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kn-, ps-는 각각 n-, s-로만 발음되며, 어두에 있던 k-, p-는 사라졌다.

25. 중국어에서도 동일한 진화 규칙이 뒤따랐다. 위에서 언급한 예시:

角 (뿔): 상고음(OC) klak > 중고음(MC) kak

風 (바람): 상고음(OC) pljuəm > 중고음(MC) pjung

이 경우, 자음군 kl-, pl-은 단순 자음 k-, p-로 진화했다.

26. 이것은 상고음의 자음군에 관한 최근 100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다.

1998.03 《고한어복성모논문집(古漢語複聲母論文集)》, (공편: 조병선), 북경언어문화대학교 출판사, 434쪽, 북경

27. p가 f로 변한 이야기

이제 자음 [p-]가 나중에 어떻게 [f-]로 변했는지 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28. 청나라의 학자 전대흔(錢大昕, 1728-1804)은 발음의 진화 과정에서 위대한 발견을 했다. 그는 현재의 f- 소리가 고대에는 원래 p- 소리였다고 믿었다. ‘父(부)’의 어두 자음 [f-]는 상고 중국어의 [p-]에서 기원했다. 따라서 상고 중국어에서 ‘父(부)’의 발음은 [pa]와 비슷하게 발음되었음이 틀림없다.

29. 또 다른 독일 언어학자 야코프 그림(Jacob Grimm, 1785-1863) 역시 영어에서 [f]가 종종 [p]에서 왔으며, ‘father’라는 단어가 고대 영어의 ‘pater’에서 왔다는 동일한 이론을 제시했다. (라틴어 pater) [p > f]의 진화는 언어의 보편적인 원리다.

30. 영어의 몇 가지 동원어(어원을 공유하는 단어들)를 확인해 보자. 다음의 동원어들을 비교해 보라:

foot(발) : pedal(페달의)

brother(형제) : fraternal(형제의, 우애의) /frə'tɜːnəl/

break(깨뜨리다) : fragment(파편)

고대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p-]가 [f-]로 변하는 규칙을 찾을 수 있다.

31. 중국어 음운 진화의 또 다른 규칙은 현재의 모음 [u]가 원래 [a]로 발음되었다는 것이다. 예: 家(집 가)와 姑(시아머니 고)는 상고 중국어에서 동일한 발음 [ka]를 가졌다. 姑(고)의 소리는 현대 중국어에서 [ku]로 변했다. (曹大家=曹大姑, 동한 시대의 유명한 여성 작가) 이러한 종류의 음운 변화는 영어의 진화에서도 발견된다.

32. 대모음 추이(Great Vowel Shift, GVS)의 규칙을 살펴보자.

33. 이방계(李方桂, 1902-1987)는 고대 음운론 연구에서 많은 실행 가능한 방법과 실질적인 방식을 제안했다.

35. 상고 중국어 발음 변화: -ar > -a > -o

36. 중고 중국어를 어떻게 재구할 것인가? -- 당시(唐詩)의 시대

37. 상고 중국어 ← 중고 중국어 → 현대 방언

38. 이러한 종류의 자료들은 흥미로운 단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안에서 고대 소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39. 칼그렌 자신은 소실된 것으로 여겨졌던 《절운(切韻)》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30년대 돈황 석굴에서 《절운》의 파편이 발견되었고, 1947년 고궁박물관에 거의 완전한 복사본이 있음이 밝혀졌다. 고궁본 전왕(全王) 《간류보결절운(刊謬補缺切韻)》: 당나라 오채란(吳彩鸞) 사본, 당나라 왕인후(王仁煦) 찬, 장손눌(長孫訥) 言注, 배무제(裴務齊) 정자.

40. 운서인 《절운》(서기 601년)에 원래 반영된 중고 중국어의 다양한 한자 독음으로부터 학자들은 상고 중국어 한자 독음의 내부 재구를 수행한다. 이는 음성 변화 경향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에 근거하여 중고 중국어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언어 진화의 규칙) .

41. 설문독약(說文讀若): 허신(許慎)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글자의 의미와 구조에 대한 설명 외에도 가끔 “[이 글자를] X로 읽는다(dúruò 讀若)”라는 공식을 사용한다. 이 공식이 일관되게 엄격히 동일한 발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편차가 허용되었는지는 명확하

지 않다.

42. 이른바 반절(fǎnqiè, 反切) 표기법은 한자 발음을 주석하는 훨씬 더 정밀한 방법을 제공했다. 적어도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표기 방법은 한자의 발음을 성모와 운모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에 기초한다. 동일한 초성 소리를 가진 글자 하나와 동일한 종성 소리를 가진 다른 글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다른 글자를 선택하여 발음을 나타낸다.

43. 반절 발음 주석은 그 직관성과 단순함 덕분에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꽤 인기를 얻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라틴 알파벳과 같은 외래 문자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발음을 설명하기 위해 가끔 반절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결과, 중국어 역사 전반에 걸쳐 이 발음 표기 장치를 사용한 풍부한 자료들이 존재한다.

44. 비록 발음이 간접적으로만 주어지지만, 특정 시대에 통용되던 발음 전통과 관련하여 반절 표기는 시대에 따른 중국어 발음의 변화를 탐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45. 반절 표기의 비교를 통해 조사된 발음 변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다. 반절 표기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체계적인 연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례(陳澧, 1818-1882) 같은 학자는 그의 저서 《절운고(切韻考)》에서 어떤 글자들이 특정 성모(반절 상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고, 어떤 글자들이 운모(반절 하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46. 예상할 수 있듯이, 학자들은 성모 발음을 위해 항상 같은 글자를 사용하는 대신 자주 글자를 바꾸어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체는 다소 일관성이 있었으며, 일부 글자는 더 자주 사용되고 일부는 덜 사용되었다.

47. 진례는 글자들을 상당히 엄격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이는 반절 표기의 직접적인 발음을 재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예를 들어, 《절운》에서 ‘公(공)’, ‘古(고)’, ‘干(간)’ 등의 글자는 국제음표(IPA) [k]로 표기되는 성모를 나타내는 데 규칙적으로 사용된 반면, ‘口(구)’, ‘可(가)’, ‘苦(고)’는 [kʰ]를 발음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48. 진례는 《절운》의 반절 표기에서 성모로 사용된 452개의 서로 다른 글자들을 40개의 서로 다른 성류(聲類)로 요약했다. 나중에 1915년, 베른하르트 칼그렌(Bernhard Karlgren, 1889-1978)은 47개에 달하는 성모 체계를 상정했다.

49. ‘반절계련(反切系聯)’을 통하여 반절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발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50.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라. 우리는 이 두 글자의 성모(초성 자음)가 동일한 발음을 가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當(당): 都(도) + 郎(랑)의 절

都(도): 當(당) + 孤(고)의 절

冬(동): 都(도) + 宗(종)의 절

都(도): 當(당) + 孤(고)의 절

51. 이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성모 그룹을 얻을 수 있다. 고대 음운론에서 ‘幫(방)’이라는 글자로 대표되는 [p]의 발음이다.

一, 방모(幫母) — p

① 北(북) (波墨), 波(파) (博何), 逋(포) (博孤), 補(보) (博古), 伯(백)·百(백) (博白), 博(박) (補各), 彼(피) (補靡), 兵(병) (補榮), 并(병) (補盈)

② 必(필) (比蜜), 比(비) (卑履), 卑(비) (府移), 方(방) (府長), 分(분) (府文), 封(봉) (府容), 甫(보)·府(부) (方主), 鄙(비) (方美), 筆(필) (鄙密)

③ 非(비) (匪肥), 匪(비) (非尾)

52. 괄호 안의 글자들은 반절 상자와 반절 하자다. 이 단어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줄로 연결된다. 피주음자(소리를 입힐 글자)와 주음자(소리를 나타내는 데 쓰인 글자)가 서로 연결된다. 이러한 글자 그룹이 연결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53. 또한, 반절 상자가 성모를 나타내기 때문에, '彼(피)'라는 글자는 반절을 구성할 때 상자로 '甫(보)'라는 글자를 사용한다. ('甫'는 '彼'의 반절 상자다) 따라서, 1그룹과 2그룹은 동일한 하나의 그룹으로 합쳐질 수 있다. (《광운》에서 '彼'는 '甫'를 반절 상자로 삼으므로 1, 2그룹은 합칠 수 있다)

54. '非(비), 보미절(甫微切)': '非'라는 글자는 반절을 구성할 때 상자로 '甫'라는 글자를 사용한다. ('甫'는 '非'의 반절 상자다) 따라서, 2그룹과 3그룹은 동일한 하나의 그룹으로 합쳐질 수 있다. (《강희자전》에 인용된 《당운》에서 '非'는 '甫微切'이므로 2, 3그룹은 합칠 수 있다)

55. 1그룹 彼 = 2그룹 甫 (A=B)

3그룹 非 = 2그룹 甫 (B=C)

그러므로, 첫 번째 그룹은 세 번째 그룹과 같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1그룹 彼 = 3그룹 非 (A=C)

A=B, B=C 이므로 A=C이다. 결과적으로 A=B=C가 된다.

56. 피주음자와 주음자로 구성된 반절 체계는 주음자에서 피주음자로 링크를 그리는 유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쉽게 변환될 수 있다.

《광운》에서 '彼'자는 '甫'를 반절 상자로 삼는다(彼=甫). 《강희자전》에 인용된 《당운》에서 '非'자는 '甫微切'이다(非=甫).

57. 이들은 하나의 줄로 연결되며, 모든 글자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중고 중국어의 성모 체계를 추론해낼 수 있다.

58. 운모의 계련

59. 각 칸은 운서에 의해 나누어진 범주이다. 각 칸 내부의 그룹화는 '반절 계련'에 의해 나타나는 운모의 소분류다.

60. '반절 계련'의 결과는 운도의 분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두 자료의 분석 결론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중고 중국어 음운 재구의 실행 가능성과 확실성을 입증한다.

61. 중고 중국어의 '운도'

중고 중국어 재구는 (중요도 순서에 따라 대략적으로) 다음의 데이터에서 추출한다: 《절운》(서기 601년) 및 《운경》(서기 1150년경)과 같은 중고 중국어 시대의 운서 및 운도.

62. 운도를 통한 고음의 흔적 찾기. 운도는 고대의 '음성 차트'이다.

63. 각 표나 차트는 모음 부류의 발음을 나타낸다.

65. 차트의 각 위치는 중고 중국어(MC)의 특정한 발음을 나타낸다.

66. 현대 방언을 통한 고음의 흔적 찾기.

67. 예를 들어, 현대 민남어(閩南語)에서 표준 중국어의 권설음 단어들이 [d-]나 [t-]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존된 상고 중국어 발음의 흔적이다(예: 豬, 中, 池, 直).

68. 불교 경전의 번역을 통한 고음의 흔적 찾기.

69. 산스크리트어(범어)나 티베트어와 같은 외국어 단어를 한자로 음차한 초기 사례들.

70. 한자와 산스크리트어 사이의 대응 관계는 한자의 본래 발음을 재구할 수 있게 한다.

수보리(須菩提, Subhuti) / 수부제(須扶提) (인명).

불파제(弗婆提, Purvavideha) (지명).

부루나(富樓那, Purna) (인명).

사리불(舍利弗, Sariputra) / 사리불다(舍利弗多) (인명).

범(梵, Brahma) (술어).

71. 다른 많은 고대 ‘소리 화석’들.

72. 1986.07 《고금운회거요의 어음계통(古今韻會舉要的語音系統)》, 학생서국, 197쪽, 타이베이. (1990.07 일본 고마자와 대학교에서 일어 번역본 발행, 木村晟, 松本丁俊 번역)

73. 구경직음(九經直音): 송나라 시대의 발음 기록.

명나라 시대의 소리 기록: 운락이통(韻略易通, 1442), 운락회통(韻略匯通, 1642)

74. 청나라 시대의 소리 기록: 산문신어(山門新語, 1893), 오방원음(五方元音, 1654-1673): 한자를 사용하여 성모의 발음을 나타냄. 등운정요(等韻精要, 1775).

75. 결론

76. 중국어 역사 음운론의 구조적 재구 방법론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고전 중국어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고대 중국어 발음의 재구는 한자 구성의 기원, 진화 및 원리를 이해하고 상고음과 중고음의 구조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77. 또한, 이 지식은 한자의 특징을 인식하고 그 문화적 함의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자의 자형, 소리, 의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고대 중국어의 원형을 식별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참고문헌은 중국어 원문 슬라이드를 참조)

Part IV

Patterns and Evolution of Sinographic Adaptation in *Chajaphyogi*

LEE Yong (University of Seoul)

This study analyzes how Chinese characters were adapted and employed in the Korean *Chajaphyogi*, specifically within *Hyangchal*, *Idu*, and *Kugyol*, and investigates the diachronic changes in adaptation patterns along with strategies for resolving uncertainty. By segmenting word units into lexical and grammatical parts, the study examines the adaptation and evolu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each component. Through systematic coding of *Hyangchal*, *Idu*, and *Kugyol* data, the frequency and distribution of adaptation types—semantic eum (音讀), semantic hun (訓讀), phonetic eum (音假), and phonetic hun (訓假)—were statistically analyzed under the framework of linguistic and orthographic uncertainty.

The findings reveal a general historical shift toward semantic eum in lexical elements, while grammatical morphemes tend to undergo conventionalization and chunking. Among the three systems, *Hyangchal* exhibited high uncertainty due to the coexistence of multiple adaptation strategies, *Idu* reduced uncertainty through semantic eum dominance and conventionalized grammar marking, and *Kugyol* developed a stable decoding structure through morpheme-aligned use of phonetic eum. The use of phonetic determinatives (音聲指示素) also varied by system, reflecting distinct strategies for managing interpretive ambiguity.

This study proposes a unified analytical framework of character adaptation and cognitive processing cost, contributing a theoretical expansion to the fields of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 and the history of writing systems.

차자표기의 한자 변용 양상과 그 변천

이용(서울시립대)

이 연구는 향찰, 이두, 구결이라는 한국어 차자표기 체계에서 한자가 어떻게 변용되어 사용되는지를 분석하고, 그 변용 양상의 통시적 변화와 불확실성 해소 전략을 고찰하였다. 어절을 단위로 하여 어휘 표기부와 문법부를 구분하여 차자표기에서 한자 변용 양상과 그 변천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향찰, 이두, 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한자 변용 양상을 코딩하고, 불확실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변용 방식의 빈도와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차자표기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휘의 표기는 음독의 경향이 강해졌으며, 문법형태소는 점차 관습화하여 청크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개별적으로 볼 때, 향찰은 다양한 표기 방식이 공존하여 불확실성이 높고, 이두는 음독 중심 표기와 문법 형태소의 관습화·투식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낮추었으며, 구결은 형태소 대응 중심의 음가 사용으로 안정된

해독 구조를 형성하였다. 또한, 음성 지시소의 사용도 세 체계 간 불확실성 해소 전략의 차이를 반영한다. 본 연구는 차자표기 체계를 문자 변용과 인지적 처리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자사 및 국어사 연구에 이론적 확장을 제안한다.

借字表記における漢字の変容様相とその変遷

李勇 (ソウル市立大学)

本研究は、郷札・吏読・口訣という韓国語の借字表記体系において、漢字がどのように変容して使用されているかを分析し、その変容様相の通時的変化と不確実性の解消戦略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文節を単位として、語彙表記部と文法部を区分し、借字表記における漢字の変容様相とその変遷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このため、郷札・吏読・口訣の資料を対象に漢字の変容様相をコーディングし、不確実性の概念に基づき、変容方式の頻度と分布を統計的に分析した。分析の結果、借字表記全体としては、時間の経過とともに語彙の表記は音読の傾向が強まり、文法形態素は次第に慣習化してチャンクを成す傾向が見られた。個別的に見ると、郷札は多様な表記方式が共存するため不確実性が高く、吏読は音読中心の表記と文法形態素の慣習化・定型化を通じて不確実性を低減させていた。また、口訣は形態素対応を中心とした音価の使用により、安定した解読構造を形成していた。さらに、音声指示素の使用も、これら三つの体系間における不確実性解消戦略の差異を反映している。本研究は、借字表記体系を文字の変容と認知的処理コストという側面から統合的に分析することにより、文字史および国語史研究に理論的な拡張を提案するものである。

借字表記中漢字的變容樣態及其變遷

李勇 (首爾市立大學)

本研究分析了在郷札、吏讀、口訣等韓國語借字表記體系中，漢字是如何被變容使用的，並考察了其變容樣態的歷時變化與消除不確定性的策略。研究以語節為單位，區分詞彙標記部與語法部，旨在探究借字表記中漢字變容的樣態及其演變。為此，本研究針對郷札、吏讀、口訣資料中的漢字變容樣態進行編碼，並基於不確定性的概念，對變容方式的頻率與分布進行了統計分析。研究結果顯示，從借字表記的整體趨勢來看，隨著時間推移，詞彙標記愈發傾向於音讀，而語法形態素則逐漸慣習化並呈現塊狀化 (chunking) 的傾向。就個別體系而言，郷札因多種表記方式並存而具有較高的不確定性；吏讀則通過以音讀為中心的表記以及語法形態素的慣習化與套式化，降低了不確定性；口訣則通過以形態素對應為中心的音值使用，形成了穩定的解讀結構。此外，語音提示符的使用也反映了這三種體系在消除不確定性策略上的差異。本研究從文字變容與認知處理成本的角度，對借字表記體系進行了綜合分析，為文字史及韓國語史研究提供了理論上的擴展。

Patterns and Evolution of Sinographic Adaptation in *Chajaphyogi*

Lee Yong (University of Seoul)

1. Introduction

1.1 Opening Remarks

Previous studies have understood the adapta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Chajaphyogi* (借字表記, logographic transcription using borrowed Chinese characters) primarily through four categories: semantic hun (訓讀), semantic eum (音讀), phonetic hun (訓假), and phonetic eum (音假). These distinctions have provided a useful framework for interpreting and deciphering *Chajaphyogi* texts. Notions such as *Hunju eumjong* (訓主音從, a practice where a semantically read character leads and a phonetically read character follows) and *Tokju gajong* (讀主假從, a semantic hun or semantic eum character leads, and a phonetic hun or phonetic eum character follows) have also been proposed as interpretive principles and applied in decipherment processes.

However, these prior discussions have not sufficiently addressed where and how these adaptations occur within the internal structure of *Chajaphyogi*.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a lack of statistical examination—based on actual data—regarding how such adaptations are distributed between characters representing lexical items and grammatical morphemes, or how the patterns differ across types of *Chajaphyogi*, such as *Hyangchal* (鄉札), *Idu* (吏讀), and *Kugyol* (口訣).

This study aims to fill that gap by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sinographic adaptation patterns in *Chajaphyogi*, distinguishing between lexical markers at the beginning of word-units and grammatical suffixes. It seeks to identify common characteristics while also comparing the differences across the three systems. Furthermore, by examining these patterns through the lens of linguistic uncertainty (i.e., the degree of ambiguity in reconstructing the intended language form from the character), this study explores how each system manages and mitigates uncertainty through its own internal strategies.

1.2 Research Method and Analytical Framework

1.2.1 Definition of Key Concepts

1) Linguistic Uncertainty

Linguistic uncertainty refers to the degree of ambiguity that arises when attempting to reconstruct the intended linguistic form (e.g., phoneme, syllable, morpheme, word) from a written character in *Chajaphyogi*.¹⁾ That is, the more

1) The concepts of *linguistics uncertainty* and *scriptural Uncertainty* as used in this paper are

potential interpretations a given character form allows, the higher the linguistic uncertainty. For example, although *Hyangchal* (鄉札) employs Chinese characters to represent native Korean vocabulary, it often exhibits high ambiguity because: (1) it is not immediately clear from context whether a given character is to be read phonetically (semantic eum, 音讀) or semantically (semantic hun, 訓讀); and (2) even if a semantic reading is determined, it may remain unclear which specific Korean word the character refers to. As a result, the process of decoding becomes cognitively demanding and time-consuming. In contrast, *Idu* (吏讀) demonstrates relatively lower linguistic uncertainty, as it tends to rely more heavily on semantic eum for word-initial positions, allowing for quicker identification of lexical and syntactic categories at the sentence level. In short, higher linguistic uncertainty entails a greater cognitive load and longer time in reconstructing the intended meaning from the written form.

2) Scriptual Uncertainty

Scriptual Uncertainty arises when a single character exhibits a wide range of adaptation in its use—whether through semantic eum (音讀), semantic hun (訓讀), phonetic eum (音假), or phonetic hun (訓假)—resulting in multiple potential phonetic or semantic values. This also refers to cases in which a particular sound or meaning may be represented by multiple different characters. In such cases, the se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written characters become less predictable, introducing greater uncertainty into both the production and reception of the text.

3) Strategies for Reducing Uncertainty

Within *Chajaphyogi* systems, various strategies are employed to mitigate linguistic and scriptual Uncertainty. First, the original semantic function of a logograph may be preserved through semantic eum, thereby stabilizing its interpretation. Second, in the case of semantic hun, where semantic interpretation depends on native vocabulary knowledge, phonetic determinatives (音聲 指示素, graphic components whose associated pronunciation clarified which word a graph was intended to write) may be attached to suggest likely interpretations.

Third, gradual convention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character use contributes to reduced uncertainty. Over time, specific characters become fixed in their use for particular lexical or grammatical functions. The formalization seen in later stages of *Idu*, known as formulaic stabilization (*tushikhwa*, 套式化), exemplifies this process. Similarly, lexical expressions that combine root characters and phonetic indicators can be understood as part of this same trend.

1.2.2 Methodology

inspired by the discussion in Chris Westbury and Michelle Yang (2024). These terms are not directly adopted, but rather adapted from the conceptual framework proposed in their study.

1) Data and Scope of Analysis

To compare sinographic adaptation patterns across *Hyangchal*, *Idu*, and *Kugyol*, this study selects representative texts from each system. Given the limitations in processing large volumes of material, the analysis is based on a targeted set of six texts: two from *Hyangchal*, two from *Idu*, and two from *Kugyol*. Rather than attempting exhaustive coding, the study aims to provide a general overview of each system's tendencies.

Table 1. Source Texts for Coding

System	Text Title	Date
<i>Idu</i>	<i>Hwaeomgyeong Sagyeong Joseonggi</i> (華嚴經寫經 造成記)	755
<i>Idu</i>	<i>SangseoTokwancheop</i> (尙書都官貼)	1262
<i>Kugyol</i>	<i>Hwaeomgyeong</i> (華嚴經)	Early 12th century
<i>Kugyol</i>	<i>Yugasajiron</i> (瑜伽師地論)	Mid-13th century
<i>Hyangchal</i>	<i>Wŏnwangsaengga</i> (願往生歌, in <i>Samguk Yusa</i>)	1281 (reflects 8-10th c.)
<i>Hyangchal</i>	<i>Hangsunjungaengga</i> (恒順衆生歌, in <i>Gyunyoejeon</i>)	1075 / 1251

2) Word Segmentation and Notation System

Each text was segmented at the word level (*eojeol*, 語節), and characters were annotated based on their functional roles. In the notation system used:

| indicates an *eojeol* boundary

/+ / marks the division between the lexical section and the grammatical section within each *eojeol*

This division allows us to distinguish between sinographic elements used to represent core vocabulary and those used for grammatical morphemes such as particles or endings.

Table 1. Example of Text Encoding

成賜乎	훈독+음가+훈가 ↓
經之	음독/+/훈독 ↓
成內	훈독/+/훈가 ↓
法者	음독/+/훈독 ↓
楮根中	훈독+훈독/+/훈독 ↓
香水	음독+음독 ↓
散尔	훈독/+/음가 ↓

3) Coding and Statistical Treatment

Each *eojeol* was coded according to the adaptation pattern observed. For example, a phrase annotated as “成內之 || semantic hun /+/ phonetic hun + semantic hun” indicates that the lexical section consists of a semantic hun character, while the grammatical section includes a phonetic hun and a semantic hun character.²⁾ Frequencies of each adaptation type were then tallied across all positions—both lexical and grammatical. Ratios were calculated as percentages of total *eojeol* counts, with all values represented as decimals to allow fine-grained comparison.

4) Analytical Perspective

By examining the distribution of character adaptation types, this study compares the degree of selectivity and diversity in each *Chajaphyogi* system. Through this, the research assesses the relative stability of written representation and linguistic decoding processes. Point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among *Hyangchal*, *Idu*, and *Kugyol* are then discussed in light of these findings.

2. Patterns of Sinographic Adaptation in *Chajaphyogi*

2.1 adaptation Patterns in Lexical Initial Characters

This section explores how differences among *Chajaphyogi* systems—namely

2) The division between the lexical segment and the grammatical segment is adopted from Jioh Kim and Yong Lee (2024: 23). In their analysis, each *eojeol* (word segment) in Hyangga is structured as follows:

<i>eojeol</i> (word segment)		
Lexical Segment		Grammatical Segment
Lexical Core	Supplementary Segment	
logogram(訓讀字, 音讀字)	phonogram	phonogram
phonogram(訓假字, 音假字)		

Hyangchal, *Idu*, and *Kugyol*—are manifested at the level of character use, especially in the initial position of lexical phrase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addressed stylistic or genre-based distinctions among these systems,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ir morphographic behavior, i.e., how characters are actually varied and applied within *eojeol*-initial positions.

A widely accepted criterion in *Hyangchal* interpretation has been the principle of *Hunju eumjong* (訓主音從), as originally proposed by Kim Wan-jin (1985). However, the question remains as to whether this principle is valid across *Chajaphyogi* systems more broadly and whether it accurately reflects real data. Nam Pung-hyun (2000) introduced an alternative typology, *Tokju gajong* (讀主假從), which may provide a more gener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inographic behavior in these systems.

In this study, both frameworks are reexamined in light of empirical data, including the claim from Zev Handel (2019: 91) that semantically rich nominal and verbal roots are often represented using the SAL (semantically adapted logograph) strategy. By assessing the overall tendencies of *Hunju eumjong* and *Tokju gajong* across systems, the study aims to clarify the distinctive patterns of sinographic adaptation that characterize each *Chajaphyogi* system.

Furthermore, Jioh Kim and Yong Lee (2024: 13–14) previously questioned the universal applicability of *Hunju eumjong* by presenting 52 exceptions found in *Hyangchal*. These include 32 cases from *Samguk Yusa* and 20 from *Gyunyeojeon*, involving 10 nominal roots (e.g., 伊 for ‘i’, 夫作 for ‘bu-jil’), 22 verbal roots (e.g., 古召 for go-cho, 鳥乙反 for o-eul-ban), and 20 adverbials or other forms (e.g., 於內 for eoneu, 居得 for gadeuk).³⁾

To assess these exceptions, the study investigates how initial characters in *eojeol* function in lexical encoding. This analysis provides insight into whether the principles of *Hunju* reading first (訓主) or *Tokju* reading first (讀主) are descriptively useful or not.

3) In Jioh Kim and Yong Lee (2024), several exceptional cases were considered explainable. First is the avoidance of complex or difficult Chinese characters. For example, the verb gocho- (고초-), which describes a praying posture, could technically be written with 翹 through semantic hun (訓讀), based on eonhae glosses. However, it appears instead as 古召 in Doch'eonsudaebiga and 花乎 in Wŏnwŏngsaengga. This suggests that simpler characters with fewer strokes may have been intentionally selected to avoid complex graphs. Second involves cases where a suitable Chinese character is difficult to locate. This commonly applies to onomatopoeic or mimetic expressions, where neither semantic hun nor phonetic eum can effectively convey the intended nuance. An example is 丘物叱丘物叱 / 구물구물 / 꾸물꾸물 in Hangsun Jungsaengga. Third, there are cases where a character with semantic hun needs to convey a meaning other than its prototypical glos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verb sam- (“to do”). While 爲 could have been used, it i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typical gloss hæ- (ᄃᆞ-), and might thus lead to misreading. To avoid this ambiguity, sam- appears instead as 沙音 in Yegyŏng, Hangsun, and Cheongjeon, forming a phonetic chain to directly reflect the sound.

Table 2. Patterns of Adaptation in the First Character of *eojeol* (Overall)

system	semantic hun 訓讀	semantic eum 音讀	phonetic eum 音假	phonetic hun 訓假	full semantic hun 全訓讀/不讀	合計
鄉札	56.90% 集刀/ <i>modo</i>	31.03% 西方/ <i>sŏ-pang</i>	10.34% 沙音/ <i>sam</i>	1.72% 花乎/ <i>kojo</i>	–	58
吏讀	32.74% 同亦/ <i>kət'-i</i>	67.26% 生長/ <i>saeng-chang</i>	0.00%	0.00%	–	113
口訣	33.96% 無/ <i>ŏps</i>	46.23% 世間/ <i>segan</i>	0.00%	0.00%	19.81% {爲} 〃 / <i>hə</i>	106

Based on the table above, we may examine whether the notions of *hunju* in *Hunju eumjong* (訓主音從) and *tokju* in *Tokju gajong* (讀主假從) are in fact meaningful concepts for describing the patterns of sinographic adaptation in *Chajaphyogi*. Several notable findings emerge. First, it is difficult to fully accept the *hunju* principle as a general explanation across systems. This is because all three systems—*Hyangchal*, *Idu*, and *Kugyol*—display a generally high proportion of phonetic eum, and even in *Hyangchal*, where semantic hun occurs most frequently, the ratio does not exceed 60%. That said, the context in which *Hunju eumjong* was originally proposed by Kim Wan-jin (1985) was limited to the interpretation of Hyangga texts. From that perspective, it may be regarded as an insightful observation capturing a particular tendency. However, caution is needed when attempting to generalize this model as a decoding principle applicable to the *Chajaphyogi* system as a whole.⁴⁾

In contrast, Nam's (2000) proposal of *Tokju* (讀主) seems better supported by the data: the initial character in *eojeol* is almost always a Tokja character (讀字), regardless of the system. This confirms that initial character selection tends to prioritize readability (either eum or hun), followed by auxiliary adaptation.

Second, in *Hyangchal*, the use of Gaja (假字) is observed in the first character of the lexical segment of the *eojeol*. In contrast, such examples do not appear in *Idu* or *Kugyol*. In both *Idu* and *Kugyol*, only Tokja (讀字) appear at the beginning of the *eojeol*, meaning that the reader's task is limited to distinguishing between semantic eum (音讀) and semantic hun (訓讀). Of course, even in the case of semantic hun, one must still identify the corresponding native Korean lexical item, which presents its own challenges. However, the range of interpretive possibilities remains relatively narrow. By contrast, *Hyangchal* permits both phonetic eum (音假) and phonetic hun (訓假) to appear as Gaja in the initial position of the *eojeol*. This means that all four types—semantic hun, semantic eum, phonetic eum, and

4) While many studies have treated *Hunju eumjong* (訓主音從) as a guiding principle for decoding, Wan-jin Kim (1985) presents it more as a general reference point than as a fixed rule.

phonetic hun—can potentially occur in that position. Consequently, the number of decoding options that must be considered increases significantly, and with it, the degree of linguistic representational uncertainty.⁵⁾

The diverse patterns of sinographic adaptation observed in *Hyangchal* can be understood in light of its primary goal: to represent the Korean language in its entirety. Nam Pung-hyun (2000: 13) describes *Hyangchal* as a system that “aims at the full representation of native Korean sentences.” In situations where semantic eum and semantic hun alone were insufficient to capture both the phonological and semantic dimensions of Korean, phonetic eum and phonetic hun appear to have been introduced as compensatory strateg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riter, *Hyangchal* can be characterized as a system in which character adaptation was actively employed to maximize linguistic represen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ader, however, such flexible character usage expands the range of interpretive candidates, thereby increasing both the time and cognitive burden required for decoding. In this context, as will be examined later, phonetic determinatives serve as a crucial mechanism for mitigating this uncertainty.⁶⁾

2.2 adaptation Patterns in Grammatical Morpheme Representation

Since grammatical morphemes are likely to be uniquely Korean elements that do not overlap with Classical Chinese,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grammatical segment is primarily represented using Gaja (假字), rather than Tokja (讀字).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patterns of sinographic adaptation observed in the

5) As a reference, if the distribution of adaptation types shown in Table 1 is treated as a probability variable and Shannon's (1948) concept of information entropy is applied to measure dispersion, *Hyangchal* yields the highest entropy at 1.43 bits, followed by *Kugyol* at 1.04 bits, and *Idu* at 0.91 bi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uncertainty increases in the order of *Hyangchal* > *Kugyol* > *Idu*. However, such entropy values quantify only the degree of dispersion in the selection of adaptation types. They do not account for cognitive load during decoding or the directionality of interpretation—such as processing differences between semantic hun and semantic eum. Accordingly, this study does not use entropy calculations as a direct analytical tool. Rather, the discussion is centered on the distributional patterns of sinographic adaptation and the qualitative differences in the decoding process.

6) When viewed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adaptation types, a clear directional trend in the degree of uncertainty can be observed. Specifically, as the system becomes more simplified, phonetic eum and phonetic hun tend to disappear from the initial position of the *eojeol*, and there is a shift from semantic hun-centered usage toward semantic eum-centered usage. If these distributions are treated as probability variables and Shannon's (1948) concept of information entropy is applied, the degree of dispersion across systems can be roughly compared. However, entropy quantifies only the distributional variance in adaptation choices; it does not capture qualitative aspects of the decoding process, such as the differential processing time or cognitive cost associated with semantic eum versus semantic hun. For this reason, this paper does not employ entropy as a direct analytical tool, but instead focuses on the cognitive burden involved in decoding and the function of phonetic determinatives as a device for alleviating that burden.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segments.

Table 3. adaptation Types in Grammatical Morphemes

System	semantic hun (訓讀)	semantic eum (音讀)	Phonetic eum (音假)	phonetic hun (訓假)	Non-reader types
<i>Hyangchal</i>	7.69% (e.g., 中/kŭi)	0.00%	84.62% (e.g., 賜/si)	7.69% (e.g., 有如/ta)	—
<i>Idu</i>	30.53% (e.g., 在/kyŏ)	0.00%	49.47% (e.g., 齊/chyŏ)	20.00% (e.g., 如/tŏ)	—
<i>Kugyol</i>	15.71% (e.g., ㄹ/ro)	0.00%	63.57% (e.g., ㄴ/n)	20.71% (e.g., ㄹ/i)	

Two key patterns emerge from these data:

First, as expected, all three systems—*Hyangchal*, *Idu*, and *Kugyol*—generally show a high proportion of Gaja (假字) in grammatical segments. This supports the observation made by Pung-hyun Nam (2000) that *Chajaphyogi* tends toward the pattern of *Tokju gajong* (讀主假從).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proportion of phonetic eum in *Hyangchal* is noticeably higher than in *Idu* and *Kugyol*.

Second, while Gaja characters dominate, instances of semantic hun (訓讀) are also present—especially in *Idu*, where the proportion of semantic hun is higher than in the other two systems. This likely reflects the influence of Classical Chinese on the origins of *Chajaphyogi*. As shown in early *Idu* texts, grammatical morphemes such as the topic particle 者, locative 中, instrumental 以, and sentence-final 之 were borrowed directly from Classical Chinese constructions.⁷⁾

In this regard, the actual evidence does not support the assumption that grammatical morphemes in *Chajaphyogi* were initially written simply by transcribing Korean grammatical forms phonetically using Chinese characters.⁸⁾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more plausible explanation is that *Chajaphyogi* emerged under strong influence from Classical Chinese.

Third, a comparison across systems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semantic hun follows the order *Idu* > *Kugyol* > *Hyangchal*, while that of phonetic hun follows *Idu* ≈ *Kugyol* > *Hyangchal*. This suggests that, in terms of grammatical segments, *Idu* exhibits the highest degree of linguistic representational uncertainty. This, in turn, helps explain why the grammatical morpheme notation in *Idu* became increasingly conventionalized and fossilized over time.

2.3 Phonetic Determinatives

As noted earlier, the first character of an *eojeol*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the lexical segment and is typically written using either semantic eum or semantic hun. These two types differ significantly in their ability to represent language.

7) For further discussion, see Lee Gi-mun (1981: 68).

8) This issue is also addressed in Lee Gi-mun (1981) and Yong Lee (2017a).

Characters read with semantic eum are directly connected to Sino-Korean vocabulary, making the target lexical item immediately recognizable. In contrast, semantic hun characters may activate multiple candidates at once, thereby increasing linguistic representational uncertainty. The mechanism that helps resolve this uncertainty in the case of semantic hun is what this study refers to as a phonetic determinative.⁹⁾ Thus, observing phonetic determinatives as a device for resolving uncertainty offers valuable insight into the strategies of sinographic adaptation in *Chajaphyogi*. By supplying a specific phonetic cue, phonetic determinatives narrow the set of possible lexical candidates triggered by a semantic hun character, thereby significantly reducing the interpretive burden on the reader.

Among the various *Chajaphyogi* systems, *Hyangchal* offers the clearest examples of phonetic determinatives.¹⁰⁾ The following summarizes instances in *Hyangchal* where consonantal additive markings were used as phonetic determinatives.¹¹⁾

Table 4. Phonetic Determinatives Appearing in Final Syllables in *Hyangchal*¹²⁾

Period	Final Character	Type	Examples
Silla	音 (/m/)	Noun (체언)	憂音 “sorrow” (sireum) <Mojukjirangga>, 夜音 “night” (bam) <Mojukjirangga>, 雲音 “cloud” (gurum) <Changiparangga>, 掌音 “palm” (sonbaram), 心音 “mind” (maeum) <Dosolga, Suhuihongdeokga> ¹³⁾ , 誓音 “vow” (dajim) <Wönwöngsaengga>, 岳音 “mountain” (oreum) <Hyesongga>.
		Verb (용언)	餘音 “remain” (nam-) <Chonggyeol Mujinga, Chamhoe Öpjangga>
	尸 (/l/)	Noun (체언)	道尸 “road” (gil) <Mojukjirangga, Hyesongga>, 二尸 “two” (twoseul) <Doch’önsugwanümga>, 秋察尸 “autumn” (ga-eul) <Wönga>
		Verb (용언)	慚盼 “be ashamed” (busgeul-) <Heonhwaga>, 狂尸 “be wild” (cojül-) <Anminga>
	叱 (/s/)	Noun (체언)	城叱 “fortress” (jas) <Hyesongga>, 物叱 “object” (gas) <Wönga>, 際叱 “boundary” (gas) <Changiparangga>
		Verb (용언)	有叱 “exist” (is-) <Mojukjirangga, Hyesongga>, 奪叱 “take away” (as-) <Ch’öyongga>, 居叱 “stay” (gis-)

9) In prior scholarship, these have often been described under the term final consonant markers (mareum-cheomgi). For a detailed discussion on why the term phonetic determinative may be more appropriate than final consonant marker, see Yong Lee (2025). The term mareum-cheomgi was first introduced by Ju-dong Yang (1942) and later expanded upon in the works of Pung-hyun Nam (1981) and Wan-jin Kim (1985). Pung-hyun Nam (1993: 137–138) notes that mareum-cheomgi appears principally in morphemes read with semantic hun, and although it is not entirely absent in semantic eum contexts, its occurrence there is extremely rare.

10) According to Jung-jin Shin (1998, p. 91), final consonant markers (mareum-cheomgi) originated with *Hyangchal*.

11) This study limits its discussion to cases involving consonantal additive markings. Although phonetic determinatives are not exclusively realized through consonant addition, restricting the scope to such examples is deemed sufficient for illustrating the broader structural tendencies.

12) This analysis refers to Geon-sik Lee (1995), Jung-jin Shin (1998), and related studies.

			<Mojukjirangga>, 修叱 “mend” (dask-) <Pungyo>
	隱 (/n/)	Noun (체언)	千隱 “thousand” (jeumeun) <Doch’önsugwanŭmga>
	只 (/k/)	Adverb (부사)	密只 “stealthily” (geugeuk) <Seodongyo>, 唯只 “only” (ojik) <Ujcokga>
Gunyö	音 (/m/)	Noun (체언)	心音 “mind” (maeum) <Cheongbuljusega, Chonggyeol Mujinga>, 人音 “person” (saram) <Suhuigongdeokga>
		Verb (용언)	-
	尸 (/l/)	Noun (체언)	道尸 “road” (gil) <Cheongbuljusega>, 日尸 “day” (nal) <Bogaehwochyangga>
		Verb (용언)	-
	叱 (/s/)	Noun (체언)	物叱 “object” (gas) <gwangsugongyangga>
		Verb (용언)	無叱 “not exist” (eops-), 修叱 (dask--) <Suhuigongdeokga>
	隱 (/n/)	Noun (체언)	-
	只 (/k/)	Adverb (부사)	必只 “surely” (bandeok) <Chingchan Yöraega>

Examples of phonetic determinatives marked by consonantal additive notation such as 音 (/m/), 尸 (/l/), and 叱 (/s/) are frequently found in *Hyangchal*, appearing across both nouns and verbs. In contrast, cases involving 隱 (/n/) and 只 (/k/) are relatively rare: 隱 appears only with nouns, while 只 is limited to adverbs. When comparing the *Hyangchal* texts in the *Samguk Yusa* and the *Gunyöjeon*, the *Samguk Yusa* texts show greater variety and frequency in the use of phonetic determinatives. In contrast, such examples are fewer in the *Gunyöjeon* texts. If this phenomenon is interpreted in relation to semantic hun, it suggests that the proportion of semantic hun readings was likely higher in the Silla period texts. This will be examined further in Chapter 3. If the use of phonetic determinatives is closely tied to the frequency of semantic hun, then their reduction in the *Gunyöjeon* texts may imply a relative decline in the use of semantic hun in those materials.

Table 5. Phonetic Determinatives in Final Syllables of *Idu* Transcriptions¹⁴⁾

音 (/m/)	Noun	倂音 (dadim) <1480 Document on Kim Hyo-ji’s Wife, Hwang Clan (1)4:2; 1783 Compiled Legal Statutes of the Ministry of Rites>, 私音 (aram) <1395 Ming Statutes 06:02>, 持音 (dinim) <1387 Jang Jeom’s Record; 1415 Household Register of the Uljin Jang Clan>, 逢音 (majöm) <1387 Jang Jeom’s Record; 1395 Ming Statutes 01:16>
叱 (/s/)	Verb	進叱 (nalh-) <1395 Ming Statutes 28:05-06; 1489 Yi Hun’s Appointment Certificate, Ministry of War>, 元叱 (birüs) <1378 Changseong Administrative Document; 1390-91 oryeo Period Household Registers>, 始叱 (birüs) <1395 Ming Statutes 01:44; 1758 Nongpo Collection>
只 (/k/)	Adverb	并只 (damak) <1262 Sangseo Tokwancheop; 1892 Investigation and

13) Underlined items indicate phonetic determinatives that appear in both the *Samguk Yusa* Hyangga and the *Gunyöjeon* Hyangga.

14) This summary refers to Pung-hyeon Nam et al. (2020).

		Interrogation Records>, 唯只 (ojik) <1262 Sangseo Tokwancheop; 1758 Nongpo Collection>, 最只 (anjik) <1262 Sangseo Tokwancheop>, 須只 (moromjik) <1395 Ming Statutes 01:10; 1517 Nongseo Jibyo>, 故只 (jimjeuk) <1395 Ming Statutes 01:14; 1640-42 Simyang Reports>, 曾只 <1395 Ming Statutes 01:14; 1415 Sericultural Techniques Manual>

The pattern of phonetic determinatives in *Idu* differs somewhat from that observed in *Hyangchal*. Determinatives based on 音 (/m/), 叱 (/s/), and 只 (/k/) appear with relative frequency, whereas there are no attested examples of determinatives based on 尸 (/l/) or 隱 (/n/). Moreover, the earliest known use of phonetic determinatives in *Idu* appears significantly later than in *Hyangchal*. The earliest instance is found in the Sangseo Tokwancheop (1262), whereas *Hyangchal* examples date back much earlier. Notably, the 音 series first appears in the Ming Statutes with Korean Commentary (Daemyeongnyul jikhae, 1395) in the form 私音 (aram). If phonetic determinatives are related to semantic hun readings, one may reasonably predict that the greater the prevalence of semantic eum, the fewer the determinatives. From this perspective, the relatively late appearance of phonetic determinatives in *Idu*, a system characterized by a higher proportion of semantic eum, can be understood as a natural outcome.

Table 6. Phonetic Determinatives in Final Syllables of *Kugyo*¹⁵⁾

		HwaǾm	Yuga
音 (/m/)	Noun	心 忛 (mazǾm, “mind”) <HwaǾm> ¹⁶⁾ , 者 忛 (nom, “person”) <HwaǾm>, 壽 忛 (moksǔm, “life”) <HwaǾm>	眞 忛 (cham) <Guin>, 心 忛 (mazǾm) <Yuga>, 私 立 (aram) <Yuga>
尸/乙 (/l/)	Noun	邊 尸 (*eon-jeol) <HwaǾm>, 十 尸 (yeol) <HwaǾm>	眞 忛 (cham, “true”) <Guin>, 心 忛 (maeum) <Yuga>, 私 立 (aram) <Yuga>
	Verb	立 乙 乚 立 (deulnaseo, “to rise”) <HwaǾm>	
叱 (入)	Noun	物 乚 (gat, “object”) <HwaǾm>	一 乚 乚 (cheotja-hae, “first letter”) <Geumgwang>
	Verb	無 乚 (eops-, “not exist”) <HwaǾm>, 莫 乚 (eops-) <HwaǾm>	無 乚 (eops-, “not exist”) <HwaǾm>, 莫 乚 (eops-) <HwaǾm>, 無 乚 (eops-) <Geumgwang, Guin>, 有 乚 (is-) <Geumgwang, Yuga>, 俱 乚 乚 (damas-ha-, “to all do”) <Guin>
	Adverb	及 乚 (mis, “and then”) <HwaǾm>, 正 乚 (baras/mas, “right”), <HwaǾm>, 共 乚 (damas, “together”) <HwaǾm>, 從 乚 (jot/jos, “to follow”) <HwaǾm>, 周 乚 (ongas, “all around”) <HwaǾm>, 與 乚 (damas) <HwaǾm>, 順 乚 (jot/jos) <HwaǾm>	從 乚 (jos/jos) <Geumgwang, Guin>, 與 乚 (damat) <Geumgwang, Guin, Yuga>, 皆 乚 (das, “all”) <Guin>, 初 乚 (birūs, “first”) <Guin>, 方 乚 (birūs/gas, “first/just”) <Guin>

15) This summary was prepared with reference to Geon-sik Lee (1995), Jung-jin Shin (1998), and Kyung-joon Jang et al. (2015).

隱(n)	Attributive Adjective	諸 1 (modan, “all”) <HwaǾm>	諸 1 (modan) <Guin>
只 (/k/)	Adverb	當 ㄸ (bandeok, “surely”) <HwaǾm>, 必 ㄸ (bandeok, “surely”) <HwaǾm>, 但 ㄸ (ojik, “only”) <HwaǾm>	必 ㄸ (bandeok) <Yuga>, 當 ㄸ (bandeok) <Yuga>, 但 ㄸ (ojik) <Yuga>, 唯 ㄸ (ojik) <Yuga>

Phonetic determinatives appear in a wide range of forms in *Kugyol*. Based on the patterns observed in the initial position of *eojeol* (word segments), one might expect *Kugyol* to fall somewhere between *Hyangchal* and *Idu*, yet in actual usage, it exhibits striking similarities to *Hyangchal*. This can likely be attributed to the gloss-like nature of *Kugyol*.

For a discussion of the concepts of gloss and glossing, see %%Handel & Lee et al. (2025). A gloss refers to an explanatory annotation added to a text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source text itself. Glossing, on the other hand, refers to a reading convention used primarily in the interpretation of Classical Chinese texts. It includes both the method of dependent annotation and the use of glossing marks, which are physically inscribed symbols or notations used to support comprehension.

This perspective also helps explain the presence of full semantic kunpre-semantic readings (jeon-hundok, 全訓讀)—a feature unique to *Kugyol*. Pre-semantic readings preserve the original Chinese characters while appending interpretive cues, thus functioning similarly to *Kugyol*’s phonetic determinatives. Both can be understood as part of a gloss-based reading convention that overlays interpretive information onto the original text without replacing it.

3. System-wise Patterns and Historical Change in Sinographic Adaptation

3.1 *Idu*

As previously discussed, *Idu* is characterized by a relatively low degree of linguistic uncertainty in lexical elements, owing to its heavy reliance on semantic eum (音讀) in initial positions. The interpretive scope is limited, as semantic hun (訓讀) is used far less frequently, and phonetic determinatives are rare and appear only in later periods. This indicates that *Idu* employed a strategy of uncertainty reduction not through phonetic aids but through the conventionalization and chunking of grammatical expressions.

However, this general description of *Idu* must be nuanced by a more diachronic perspective. The present study subdivides the *Idu* data into two time periods—8th century and 13th century—and compares sinographic adaptation patterns across them.

Table 7. Adaptation Patterns in Lexical Initial Characters (*Idu*)

16) Underlined items appear in both the HwaǾmkyǽng and Yugagajiron *Kugyol* gloss.

Period	semantic hun (訓讀)	semantic eum (音讀)	Phonetic eum (音假)	phonetic hun (訓假)	Total <i>eojeol</i>
Hwaeomgyeongsagyeong joseonggi (755)	56.60%	43.40%	0.00%	0.00%	53
SangseoTokwancheop (1262)	11.67%	88.33%	0.00%	0.00%	60
Total	32.74%	67.26%	0.00%	0.00%	113

The table clearly shows a shift from semantic hun to semantic eum in lexical items over time. In the 8th-century text (Hwaeomgyeongsagyeong joseonggi), semantic hun was slightly more common, whereas in the 13th-century text (SangseoTokwancheop), semantic eum overwhelmingly dominated. This shift likely reflects a structural move toward minimizing ambiguity and improving processing speed in decoding.

Such a trend may be attributed to the functional context of *Idu* as a tool for bureaucratic writing and administrative communication. In such contexts, reducing the interpretive burden on readers—and ensuring unambiguous comprehension—would have been essential. Hence, the preference for semantic eum, which tends to yield quicker lexical recognition and lower semantic uncertainty.¹⁷⁾

Table 8. Adaptation Patterns in Grammatical Morphemes (*Idu*)

Period	semantic hun	semantic eum	phonetic eum	phonetic hun	Total grammatical elements
Hwaeomgyeongsagyeong Joseonggi (755)	32.35%	0.00%	50.00%	17.65%	34
SangseoTokwancheop (1262)	29.51%	0.00%	49.18%	21.31%	61
Total	30.53%	0.00%	49.47%	20.00%	95

Interestingly, grammatical morpheme representation remains relatively stable across the two periods. Even in the earlier text, semantic hun was used significantly, alongside phonetic eum and phonetic hun. This suggests that the conventionalization of grammatical expressions—or what later becomes known as formulaic stabilization (투식화)—had its roots in early *Idu* usage. Pung-hyun Nam (2000: 239) notes that in Hwaeomgyeongsagyeong Joseonggi, semantic hun characters outnumber *gaja* (假字), a rare case among *Chajaphyogi* texts. For example, 10 grammatical morphemes are rendered via semantic hun, while 9 are

17) A relevant articulation can be found in Park Jun-ho (2009: 33), who stated, “For a national system to be properly maintained, the policy decisions and intentions of upper-level authorities must be transmitted to the lower levels without distortion, and the transmitted content must be properly implemented... The process must proceed smoothly” (emphasis added by the author).

gaja.¹⁸⁾

Meanwhile, one important aspect of *Idu*'s grammatical representation is the repetitive use of specific characters observed from an early stage. Although the Compilation Record of the Hwaŏmgyŏng Sageong Joseonggi—a text dated to the 8th century—belongs chronologically to the early phase of *Idu*, it already shows repeated use of the same Chinese characters for grammatical morphemes. For instance, the connective ending 弥 appears frequently, and structural patterns such as 若 A 哉 若 B 哉 recur. More notably, there are cases where a specific character is consistently used to represent a particular grammatical morpheme—for example, 賜 is used exclusively as a subject honorific prefinal ending, and 爲 is used solely to represent the verb ha- (“to do”).

However, in the Sangseo Tokwancheop, such formulaic expressions appear more prominently and are combined and reused across a broader range of contexts. For example, fixed patterns such as 教是-, 教事-, and 令是- occur repeatedly in combination with expressions like 在等以, 良於爲教矣, 齊, and 遣. These cases suggest that the scope of conventionalization and graph fixation (tusik-hwa) in the grammatical section was expanding.¹⁹⁾ Such patterns imply that *Idu* was not primarily a medium for composing sentences through spontaneous semantic assembly, but rather functioned as a formalized register—one that often invoked fixed administrative or epistolary templates.

While it may be difficult to directly equate such repetition with full conventionalization or graph fixation (tusik-hwa),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is repetitive patterning may have contributed in part to the conventionalization and graph stabilization observed in later *Idu* texts.

This transition suggests that *Idu* morphemes were likely transmitted in prefabricated educational units, a hypothesis supported by the presence of instructional documents in the Joseon dynasty, which present these chunks explicitly: “是置是亦: *Idu*-i-yeo”, “是置有等以: *Idu*-i-sindeul-lo”, “是置有是亦: *Idu*-i-si-yeo”. These examples illustrate that *Idu* had moved from a flexible transcription method to a semi-formalized logogram-based register, tailored for official communication.

3.2 *Kugyol*

In contrast to *Idu*, which developed primarily as a tool for composing

18) The ten semantic hun characters (hundokja) identified are: 但 (i), 等 (dal), 令 (sigi or haki), 欲 (gwa), 者 ((eun) as a modifier), 在 (gyeo), 中 (gi), 之 (da), 爲 (ha), and 以 (ro). The five phonetic eum characters (eumgaja) are: 那 (na), 跡 (myeo), 賜 (sa), 哉 (jae), and 只 (gi). The three phonetic hun characters (hungaja) include: 尔 (geum), 如 (da), and 乎 (on).

19) Nevertheless, to generalize this observation, further work is required—includ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entire Sangseo Tokwancheop and comparison with contemporary texts. This remains a subject for future research.

independent sentences in official documents, *Kugyol* functioned mainly as a glossing system—a set of supplementary notations designed to aid in the interpretation of Classical Chinese texts. This difference in purpose led to significantly distinct sinographic adaptation strategies, particularly in the grammatical morpheme section.

In *Kugyol*, the most distinctive features emerge not in the lexical section but in the grammatical portion. While phonetic eum (音假) appears frequently, it is not employed arbitrarily for sound representation. Rather, individual phonetic eum characters tend to be exclusively assigned to specific Korean grammatical morphemes, effectively functioning as morpheme-specific markers. This one-to-one correspondence contributes to a stable decoding process, even though the theoretical system might seem open-ended or ambiguous. That is, although the system allows a variety of expressions, the actual usage becomes increasingly regular and standardized over time.

Table 9. Adaptation in Lexical Initial Characters (*Kugyol*)

Text	semantic hun	semantic eum	Phonetic eum	phonetic hun	full semantic hun	Total <i>eojeol</i>
Hwaomgyeong (12th c.)	36.92%	35.38%	0.00%	0.00%	27.69%	65
Yugasajiron (13th c.)	29.27%	63.41%	0.00%	0.00%	7.32%	41
Total	33.96%	46.23%	0.00%	0.00%	19.81%	106

As seen in Table 9, the Avatamsaka Sūtra (Hwaomgyōng) exhibits a roughly balanced distribution between semantic hun and semantic eum, with the proportion of semantic hun being slightly higher. However, if we include full semantic hun (全訓讀) readings—on the grounds that they also provide semantic glosses—the percentage of semantic hun increases significantly. This predominance of semantic hun readings is likely related to the gloss-like nature of *Kugyol*.

In contrast, the Yogācārabhūmi Śāstra displays a much higher proportion of semantic eum. This shift toward semantic eum resembles the pattern seen in *Idu*, suggesting a possible historical transition from semantic hun to semantic eum as a way to reduce interpretive uncertainty in lexical representation.²⁰⁾ Historically, this pattern may be associated with the broader shift from seokdok *Kugyol* to eumdok *Kugyol*, reflecting a major directional change in the evolution of *Kugyol*.

20) However, since the number of samples analyzed is relatively small, these findings must be interpreted with caution. Further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confirm these trends.

Table 10. Adaptation in Grammatical Morphemes (*Kugyol*)

Text	semantic hun	semantic eum	Phonetic eum	phonetic hun	Total grammatical elements
Hwacomgyeong	16.67%	0.00%	63.89%	19.44%	56
Yugasajiron	14.29%	0.00%	63.27%	22.45%	49
Total	15.71%	0.00%	63.57%	20.71%	105

In *Kugyol*, phonetic eum characters are predominant in the grammatical section. However, these characters are not merely used for phonetic representation; rather, each is often exclusively tied to a single grammatical morpheme, thereby functioning as a morphemic marker. Hyunsoo Moon (2024: 173) notes that when one constructs a syllabic chart based on the *Kugyol* characters found in the Hwaŏmgyŏng and Hwaŏmgyŏngso, many cells remain empty. He attributes this to the fact that the *Kugyol* characters used in seokdok *Kugyol* were not originally created solely for phonetic transcription but were designed specifically to represent certain grammatical morphemes.²¹⁾ This shift appears to reflect a strategy for reducing interpretive uncertainty.²²⁾

In relation to the to-units (morpheme glosses) in *Kugyol*, it is worth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at these grammatical markers were transmitted and taught as pre-formed chunks. This hypothesis is supported by the observation that in jŏmto seokdok *Kugyol* (glossing with dots and lines), the corresponding units in jato seokdok *Kugyol* (glossing with letters) do not merely represent phonemes, syllables, or even individual grammatical morphemes.²³⁾ These finding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to-units in seokdok *Kugyol* had become chunked expressions.²⁴⁾

21) According to the syllabic chart presented in Moon (2024: 173), the number of syllables or phonemes represented by *Kugyol* characters in the Avatamsaka Sūtra and Hwaŏmgyŏngso does not exceed 69. This is far from sufficient to account for the full range of syllables in the Korean language. Thus, Moon concludes that the high number of unrepresented syllables stems from the fact that *Kugyol* characters were originally created not for generalized phonetic use but for the purpose of denoting specific morphemes.

22) As one example, this paper notes that although characters such as ㅅ or ㅈ, which contain the phonetic value [u], could theoretically be used to represent the allomorph -u- of the prefinal ending -o-, they are never actually employed for this function. Instead, the prefinal ending -u-, like -o-, is always represented by ‘ㅁ’.

23) In the Yugasajiron tradition, there are cases where a single glossing symbol corresponds to as many as seven *Kugyol* characters. In the Hwaŏmgyŏn lineage, the longest glossed unit typically spans six *Kugyol* characters—for example, glosses like 15(·/) [ㅅㅈㅅㅅㅅㅅ] and 34(\) (ㅅㅅㅅㅅㅅㅅ) appear in four instances (see Hyunsoo Moon, 2017: 8). In the Yogācārabhūmi Śāstra, glosses spanning seven characters appear in examples such as 51-52 (|) [ㅅㅅㅅㅅㅅㅅㅅ] and 54-55 (|) [ㅅㅅㅅㅅㅅㅅㅅ], as documented by Jang Kyungjoon (2025: 22-23).

24) Furthermore, the historical transition from seokdok *Kugyol* to eumdok *Kugyol* may be

3.3 *Hyangchal*

Unlike *Idu* and *Kugyol*, which were developed for administrative writing and Classical Chinese interpretation respectively, *Hyangchal* was primarily designed to fully represent the Korean language using Chinese characters. This fundamental difference in purpose is directly reflected in its sinographic adaptation strategies. Among the three systems, *Hyangchal* exhibits the widest range of character adaptation, particularly in *eojeol*-initial positions. Multiple adaptation types—semantic hun (訓讀), semantic eum (音讀), phonetic eum (音假), and phonetic hun (訓假)—coexist within the same phrase structure. This leads to a greater breadth of orthographic choices and, consequently, higher linguistic and scriptural Uncertainty in the decoding process.

Table 11. Adaptation in Lexical Initial Characters (*Hyangchal*)

Text	semantic hun	semantic eum	phonetic eum	phonetic hun	Total <i>eojeol</i>
Wŏnwangsaengga (<i>Samguk Yusa</i>)	64.52%	12.90%	9.68%	3.23%	31
Hangsunjungaengga (<i>Gyunyeojeon</i>)	48.15%	40.74%	11.11%	0.00%	27
Total	56.90%	31.03%	10.34%	1.72%	58

The data reveal two important tendencies. First, there is a noticeable shift in the balance between semantic hun and semantic eum. In Wŏnwangsaengga, semantic hun dominates significantly. However, in Hangsunjungaengga, the difference narrows, and semantic eum increases sharply. This confirms the earlier hypothesis (Section 2.3) based on the reduced frequency of phonetic determinatives in *Gyunyeojeon*, suggesting that semantic hun became less prominent in later stages of *Hyangchal* usage. Additionally, phonetic hun (訓假) disappears entirely in *Gyunyeojeon*, indicating a potential simplification of adaptation strategies over time.

Second, the increase in semantic eum suggests a general trend toward reducing decoding uncertainty, even within a system as rich and expressive as *Hyangchal*. This mirrors a broader movement found across *Chajaphyogi* systems, where structural adaptation tends to decrease over time.

Table 12. Adaptation in Grammatical Morphemes (*Hyangchal*)

Text	semantic	semantic	Phonetic	phonetic	Total

connected to this process of chunking. As glosses were increasingly transmitted in fixed chunks, users may have lost awareness of the individual components within each chunk. This loss of analytic understanding may have contributed to the rise of eumdok *Kugyol* as a simplified reading practice.

	hun	eum	eum	hun	grammatical elements
Wŏnwangsaengga	0.00%	0.00%	85.71%	14.29%	14
Hangsunjungaengga	10.53%	0.00%	84.21%	5.26%	38
Total	7.69%	0.00%	84.62%	7.69%	52

Grammatical morphemes in *Hyangchal* are overwhelmingly represented using phonetic eum, with only minor shifts in semantic hun over time. Although the quantitative pattern remains relatively stable, a closer examination reveals qualitative changes in the characters used.

Table 13. Variation in character usage for identical forms or phonetic values (Sun-yeop Hwang, 2008: 308)

Target Sound	Character Used	<i>Samguk Yusa</i>	Gunyŏjeon
eul	脛	14	1
	乙	3	14
ui	矣	17	1
	衣	4	12
ri	理	13	2
	呂	0	8
in	因	2	0
	仁	0	5
ok	屋	4	1
	玉	0	2

Table 13 presents examples in which different characters were used to represent the same morphological form or phonetic value in Hyangga from the *Samguk Yusa* and the Gunyŏjeon. These instances clearly indicate that there were notable changes in writing practices between the *Samguk Yusa* and Gunyŏjeon Hyangga texts.

Table 14. Divergent grammatical usages of identical characters (Sun-yeop Hwang, 2008: 308)

Character	Grammatical Usage	<i>Samguk Yusa</i>	Gunyŏjeon
白	Full verb (lexical verb)	4	2
	Function word (prefinal ending)	2	10

去	Full verb (main verb)	10	1(?)
	Function word (prefinal/final ending)	1	6
遣	Conjunctive ending	9	1
	Prefinal ending	3	1
恨	Inflected form of the verbal stem ‘ha- (恨 -)’	3	0
	Inflected form of noun ending in ‘h’	0	1

Table 14 presents cases in which the same Chinese character exhibits different grammatical usages between the *Samguk Yusa* and the Gunyŏjeon. This also suggests that there were changes in the way Hyangga were written between these two texts. The shifts observed in Tables 13 and 14—apart from changes in frequency of usage—indicate that even within the *Hyangchal* system, there was an ongoing internal process of standardization and reorganization regarding which Chinese characters were used to represent identical morphological forms or phonetic values.

In Chapter 3, the study briefly examined how patterns of sinographic adaptation in the initial position of *eojeol* and in grammatical segments evolved over time in *Idu*, *Kugyol*, and *Hyangchal*, from the perspective of linguistic uncertainty.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although the three *Chajaphyogi* systems all employed Chinese characters, the methods by which they managed uncertainty varied according to their transcriptional purposes and usage contexts.

In *Idu*, the initial position of *eojeol* shows a transition from semantic hun to semantic eum usage, while the grammatical segment exhibits increasing regularization and formulaic stabilization (套式化), where fixed forms are repeatedly used, thereby narrowing interpretive possibilities. In *Kugyol*, a similar shift from semantic hun to semantic eum is observed in the initial position, and in the grammatical segment, phonetic eum characters evolved to correspond exclusively with particular morphemes, contributing to greater stability in interpretation. In *Hyangchal*, when comparing the versions in *Samguk Yusa* and Gunyŏjeon, little change is found in the grammatical segment, but in the initial position, the Gunyŏjeon texts show an increased use of semantic eum, reflecting a trend toward using eum-readings for lexical representation.

Across all three systems—*Idu*, *Kugyol*, and *Hyangchal*—lexical notation in the first character of *eojeol* shifts from semantic hun to semantic eum. In the grammatical segment, patterns of customization and formulaic stabilization are observed. These findings recall the statement from Zev Handel (2019: 120):

“The system is most stable, i.e. involves the least potential ambiguity, when writing passages in which nearly all noun and verb roots are Chinese

borrowings (i.e. Sino-Korean), the content and style are circumscribed by genre, and the language is formalized to involve a limited, conventionalized set of inflections, markers, and “helping words” (adverbs, conjunctions, etc.).”

4.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d how Chinese characters were variably adapted in the *Chajaphyogi* (借字表記, logographic transcription) systems of *Hyangchal*, *Idu*, and *Kugyol*, with a focus on the distribution and evolution of sinographic adaptation. By dividing *eojeol* into lexical and grammatical components, the analysis identified both system-specific and shared patterns of character usage. These patterns were then interpreted through the conceptual framework of linguistic and scriptual Uncertainty.

Across the three systems, a historical trend was observed: over time, semantic eum (音讀) became increasingly dominant in lexical positions, while grammatical morphemes showed a tendency toward conventionalization and chunking. Despite sharing this overall direction, each system employed a distinct strategy to manage uncertainty, shaped by its function and intended use.

When examining *Hyangchal*, *Idu*, and *Kugyol* according to each *Chajaphyogi* (logographic transcription system),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become clear. *Idu*, used primarily in administrative documents and other practical texts, developed toward a system in which semantic eum became dominant in the initial position of *eojeol*, while the grammatical segment moved toward reduced interpretive ambiguity through the repeated use of customized and formulaic stabilization forms.

Kugyol, a glossing system designed to assist in the reading of Classical Chinese, shows relatively balanced proportions of semantic hun and semantic eum in its early data, such as the Avatamsaka Sūtra (Hwaeomgyeong). However, in later materials like the Yugāsajiron, semantic eum becomes more prevalent. In the grammatical segment, the system stabiliz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phonetic eum characters that corresponded exclusively to specific grammatical morphemes.

Hyangchal, by contrast, was a system designed to fully represent the Korean language using Chinese characters. It employed a wide range of character types in the initial position of *eojeol*, including semantic hun, semantic eum, phonetic hun, and phonetic eum, thereby offering a broader set of notational options—yet also introducing relatively greater uncertainty in the interpretation process. However, even in *Hyangchal*, a trend toward increased use of semantic eum can be observed in later texts such as the Hyangga of the Gunyōjeon.

The use of phonetic determinatives as a means of resolving uncertainty is observed across *Hyangchal*, *Idu*, and *Kugyol*. In *Hyangchal* and *Kugyol*, such usage appears with relatively high frequency, which can be attributed to, respectively, the diverse patterns of sinographic adaptation found in the initial position of *eojeol*,

and the gloss-like nature of *Kugyol*. In *Idu*, by contrast, the appearance of phonetic determinatives is both later and less frequent. This likely reflects the greater proportion of semantic eum in lexical representation, which would have resulted in relatively lower interpretive uncertainty.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traditional interpretive frameworks such as *Hunju eumjong* (訓主音從) and *Tokju gajong* (讀主假從), this study proposed a more empirically grounded typology of sinographic adaptation. By analyzing character usage in context and quantifying adaptation types, the study provides a more precise and nuanced understanding of how *Chajaphyogi* systems functioned. It argues that differences in adaptation patterns were not random, but the result of strategic management of interpretive uncertainty based on each system's purpose, structure, and historical development.

This study is limited by the relatively small set of source texts analyzed. Future research should expand the dataset to include more *Chajaphyogi* examples across different periods and genres, enabling a more detailed diachronic and sociolinguistic analysis. In addition, more focused studies on the process of conventionalization, the role of phonetic determinatives, or cognitive processing load during decoding could further enrich our understanding of early Korean writing systems.

Reference

- Ahn, Byeong-hui (1992). A Study of Korean Historical Linguistic Materials (국어사자료 연구). Munhakgwa Jiseongsa. [in Korean]
- Bae, Bo-eun (2013). A Study on Terminology of Graphemics and Classifying Devices of Writing Systems (문자론 용어와 문자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PhD dissertation, Kyungnam University. [in Korean]
- Chang, Kyong-jun (2025). Overview of Seokdok Kugyol in Volume 3 of the Hapbugwangmyeonggyeong (합부금광명경 권3의 석독구결 개괄). In Hapbugwangmyeonggyeong Vol. 3 Studies,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in Korean]
- Chang, Kyong-jun (et al.) (2015). Annotated Translation of Seokdok Kugyol in Volume 20 of Yugasajiron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Yeokrak. [in Korean]
- Handel, Zev (2019). Sinography: The Borrowing and Adaptation of the Chinese Script. , Leiden: Brill.
- Heok, Ryeon-jeong (annotated by Choi, Cheol & Ahn, Dae-hoe) (1986). The Life of Gyunyeo (均如傳). Saemunsa. [in Korean]
- Hwang, Seon-yeop (2007). A Comparative Study of Hyangchal Characters in Samguk Yusa and Gyunyojun (삼국유사와 균여전 향찰의 표기자 비교). Korean Linguistics, 51, 280-311. [in Korean]
- Kim, Ha-su & Lee, Jeon-gyeong (2015). Scripts of Korea (한국의 문자들). Communication Books. [in Korean]
- Kim, Jioh & Yong, Lee (2024). A writing-systemical understanding on Hyangchal (향찰의 문자론적 이해). Kugyol Studies, 53, 5-41. [in Korean]
- Kim, Jioh (2012). A Study on the Decoding and Grammar of Hyangga in Gyunyeo-jeon (균여전 소재 향가의 해독과 문법). PhD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in Korean]
- Kim, Wan-jin (1980).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Methods of Hyangga (향가 해독법 연구).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in Korean]
- Lee, Geon-sik (1995). On Final Consonant Annotation in Hyangchal and Seokdok Kugyol (향찰과 석독구결의 훈독말음 첨기에 대하여). In History of Korean Language and Chajaphyogi, Taehaksa. [in Korean]
- Lee, Gi-mun (1981). A Brief Study on the Origin of Idu (이두의 기원에 대한 일고찰). Jindan Hakbo, 52, 65-78. [in Korean]
- Lee, Ik-seop (1992). A Study on Korean Orthography (국어표기법 연구).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in Korean]
- Lee, Seung-jae (1997). The Change of Chajaphyogi (차자표기의 변화).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 Taehaksa. [in Korean]
- Lee, Sung-nyeong (1955). An Essay on the Orthographic System of the Silla Period (新羅時代의表記法體系에 관한試論). Collected Papers 2, Seoul National University, 62-166. [in Korean]

- Lee, Yong (2007). Interpretation of Hangsunjungaengga (<恒順衆生歌>의 解讀에 對하여). Kugyol Studies, 18, 173-204. [in Korean]
- Lee, Yong (2013). On determinatives in Chaja Pyogi (loan-character writing system) (지정사의 개념과 차자표기 지정문자설의 문제에 대하여). Kugyol Studies, 30, 107-138. [in Korean]
- Lee, Yong (2016). Preliminary Study on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Korean as written language (문자언어로서 한국어의 발생과 발달에 관한 시론적 접근). Kugyol Studies, 37, 133-163. [in Korean]
- Lee, Yong (2017a). A study on the change of characters which represent postposition particles and the development of Idu (조사표기자로 본 이두의 변천). Kugyol Studies, 38, 109-149. [in Korean]
- Lee, Yong (2017b).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borrowing writing system and Akkadian writing system (한국 차자표기와 아카드문자 체계의 비교론적 고찰). Eomun Nonjip, 80, 141-164. [in Korean]
- Lee, Yong (2023a). Characters Used for Both Initial and Final Consonants in Idu and Gugyeol Writing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나는 초성종성 통용자). Kugyol Studies, 50, 205-228. [in Korean]
- Lee, Yong (2023b). A study on the change of characters which represent sentence final ending and the development of Idu (어말어미 표기자로 본 이두의 변천). Kugyol Studies, 51, 155-185. [in Korean]
- Lee, Yong (2024a). A Grammatological Approach to Chajaphyogi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접근). Joint Conference of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and the Korean Kugyol Society, 187-206. [in Korean]
- Lee, Yong (2024b). The World's Writing Systems and Korea's Writing Systems Tradition (세계의 문자와 한국의 문자 전통).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Academic Series 1, 78-151. [in Korean]
- Min, Hyeon-sik (1995). On Grammatology and the Borrowing Script System (文字論과 借字法). In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and Chajaphyogi, Taehaksa. [in Korean]
- Nam, Pung-hyun (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Hunminjeongeum and Chajaphyogi (훈민정음과 차자표기법과의 관계).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9, Dankook University. [in Korean]
- Nam, Pung-hyun (1981). A Study on Chajaphyogi (借字表記法研究). Dankook University Press. [in Korean]
- Nam, Pung-hyun (2000). A Study on Idu (吏讀研究). Taehaksa. [in Korean]
- Nam, Pung-hyun (2007). A Study on the Importing and Reception of Chinese Books and Buddhist Books in Ancient Korea (古代韓國에 있어서 漢籍佛典의 傳來와 受容에 대하여). Journal of Bibliography, 31, 5-35. [in Korean]
- Nam, Pung-hyun (2008). On the form and function of 支/ti in Seokdok-kugyol (釋讀口訣에 쓰인 “支”의 形態와 機能에 대하여). Kugyol Studies, 20, 93-121. [in Korean]
- Ogura, Shinpei (1929). A Study on Hyangga and Idu (鄉歌及び吏讀の研究). Keijo

- Imperial University [1974, reprinted by Asia Culture Press]. [in Korean]
- Rogers, Henry (trans. Lee, Yong et al.) (2018). Writing Systems: A Linguistic Approach (언어학으로 풀어본 문자의 세계). Yeokrak. [in Korean]
- Shin, Jung-jin (1998). A Study on the Genesis and Development of Mareum-cheomgi (Terminal Sound Addition) - Focusing on the Addition of Syllable-Final Consonants (말음첨기(末音添記)의 생성과 발달에 대하여). Kugyol Studies, 4, 85-114. [in Korean]
- Song, Gi-jung (1997). The Grammatological Nature of Chajaphyogi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성격). New Korean Life, 7(4), 5-29,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in Korean]
- Yang, Ju-dong (1942/1965). A Revised Study on Ancient Songs (增訂古歌研究). Ilchogak. [in Korean]
- Yang, Ju-dong (1965). An Expanded Study on Ancient Songs (증정고가연구). Iljogak. [in Korean]
- Yu, Chang-gyun (1994). Critical Interpretation of Hyangga (鄉歌批解). Hyeongseol. [in Korean]

차자표기의 한자 변용 양상과 그 변천

이용 (서울시립대)

1. 서론

1.1. 들어가는 말

차자표기에서 한자가 어떻게 변용되어 사용되는가는 그동안 훈독·음독·훈가·음가라는 네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러한 구분은 차자표기 체계를 설명하고 해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왔다. ‘訓主音從’이나 ‘讀主假從’과 같은 설명 역시 이와 같은 한자 변용 범주를 전제로 하여 제시된 것으로, 차자표기 해독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기존 논의에서는 이러한 한자 변용 양상이 차자표기 내부의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특히 어휘와 문법형태소를 표기하는 글자 각각에서 한자 변용이 어떻게 분포하고, 차자표기 체계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향찰·이두·구결을 대상으로, 어절 초의 어휘 표기와 문법부 표기를 구분하여 한자 변용 양상의 분포를 살펴보고, 공통적인 특성을 찾으려 하면서 동시에 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포와 변화를 언어 불확실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검토함으로써, 차자표기 체계별로 한자 변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조정해 왔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과 분석 틀

1.2.1. 주요 개념 정리

(1) 언어 불확실성:

언어 불확실성은 한자 표기를 단서로 하여 그 표기가 의도한 언어형(음소/음절, 형태소, 단어)을 역으로 복원할 때 생기는 해석 후보의 불확실성을 가리킨다.¹⁾ 즉, 어떤 표기 형식이 주어졌을 때 표기하고자 한 언어형이 여러 후보로 갈라질수록 언어 불확실성은 높다. 예컨대 향찰은 고유어 표기를 목적으로 한자를 차용하지만, 첫째, 개별 한자의 운용이 음독인지 훈독인지가 문맥상 단번에 결정되지 않거나, 둘째, 둘 중 훈독으로 판정되더라도 그 한자가 고유어 어휘 가운데 어느 항목을 지시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표기에서 목표 언어형으로의 복원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 언어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이두는 어절 초(실사부)에서 음독 사용 비중이 높아, 문장 단위의 의미·어휘 범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에서 향찰에 비해 언어 불확실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표기로부터 언어형을 복원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과 인지적 부담은 증가한다.

(2) 문자 불확실성:

1) 이 글에서 사용하는 ‘언어 불확실성’과 ‘문자 불확실성’의 개념은 Chris Westbury and Michelle Yang(2024)의 논의에서 착안한 것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 해당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변용한 것이다.

문자 불확실성은 하나의 글자가 텍스트 내에서 변용되는 방식(음독, 훈독, 음가, 훈가)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대응되는 표기 값(소릿값 또는 의밋값)의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을 가리킨다. 문자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글자(또는 동일한 표기 단위)가 여러 소리·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거나, 반대로 동일한 소리·의미가 여러 글자로 표기될 수 있어, 표기 선택과 해석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큰 상태를 의미한다.

(3) 불확실성 해소 전략

차자표기 체계에서는 언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전략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어자의 원래 용도를 이용하는 전략이다. 음독을 사용하게 되면 표어자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의미 대응을 안정시킬 수 있다. 둘째, 훈독을 사용하여 표어자의 의미만을 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는 음성 지시소를 덧붙여 해석 후보를 제안하기도 한다. 셋째, 관습화·표준화의 축적이다.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면 특정 어휘나 문법형태소에 대응되는 표기가 점차 제약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후대에 투식화가 진행된 이두토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특정 어휘와 음성 지시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어휘 표기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2.2. 방법론

(1) 자료와 분석 대상

향찰, 이두, 구결의 표기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헌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많은 양의 자료에 대해 전면적인 코딩을 수행하기는 어려워 향가 2수, 이두 자료 2편, 구결 자료 2편을 골라서 차자표기의 전체적인 경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코딩 자료

	텍스트	시기	비고
이두	「華嚴經寫經 造成記」	755년	
이두	「尙書都官貼」	1262년	
구결	『華嚴經』	12세기 전반기	
구결	『瑜伽師地論』	13세기 중반기	
향찰	「願往生歌」, 『三國遺事』	1281년/편찬 연대	8-10세기 표기 반영으로 추정
향찰	「恒順衆生歌」, 『均如傳』	1075/1251년	

(2) 어절 분절과 표기 구분

각 자료는 어절 단위로 분절하였고,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기 기호를 사용하였다.

| : 어절 경계

/+/: 어휘 표시부와 문법부의 경계

이 구분은 차자표기에서 어휘 표기 기능을 수행하는 한자와 조사·어미 등 문법 형태 표기 기능을 수행하는 한자를 구별하여 살피기 위한 것이다.

<표 1> 텍스트 코딩 사례

成賜乎	훈독+음가+훈가 ↓
經之	음독/+ 훈독 ↓
成內	훈독/+ 훈가 ↓
法者	음독/+ 훈독 ↓
楮根中	훈독+훈독/+ 훈독 ↓
香水	음독+음독 ↓
散尔	훈독/+ 음가 ↓

(3) 코딩과 통계 처리

각 어절은 변용 방식에 따라 기록하여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成內之| |훈독/+|훈가+훈독”은 해당 어절에서 어휘 표시부가 훈독, 문법부가 각각 훈가와 훈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코딩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절 표시부와 문법부 전체에서 나타나는 변용 방식의 빈도를 집계하였다.²⁾ 각 방식의 비율은 전체 어절 수 대비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모든 수치는 소수점 계산을 사용하였다.

(4) 분석의 관점

한자 변용 방식의 분포를 통해, 차자표기 체계별로 표기 선택의 집중도와 분산 정도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자 표기 및 언어 재현의 상대적 안정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런 다음에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2. 차자표기의 한자 변용 양상

2.1. 어절 초 어휘 표기의 한자 변용 양상

이 절에서는 차자표기 체계 간의 차이가 문자 운용 차원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향찰, 이두, 구결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용되는 장르나 형식적인 차이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 차자표기의 하위 부류들이 문자적으로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어절 단위에서 실제로 한자가 어떻게 변용되어 사용되는지를 검토하고, 향찰, 이두, 구결의 문자적 차이를 비교

2) 어휘 표시부와 문법부는 김지오·이용(2024: 23)에서 사용했던 것을 가져온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향가의 1어절을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어절		
어휘 표시부		문법부
어휘부	보충부(첨기부)	
표어자(訓讀字, 音讀字)	표음자	표음자
표음자(訓假字, 音假字)		

하고자 한다.

그동안 향찰 해독의 기준으로 김완진(1985)에서 제안한 ‘訓主音從’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이 기준이 차자표기 전체에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자료에 비추어 적절한 관찰인지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남풍현(2000)에서는 ‘讀主假從’을 향찰을 비롯한 차자표기에서의 한자 변용 특징으로 들었다. 이에 김완진(1985: 17-23), 남풍현(2000: 26)의 논의를 실제 자료를 통해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더불어 제브 핸델/이용 외(역)(2025: 161)에서 제시된, 상당히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체언 어근과 용언 어근은 SAL을 통해 표기된다는 주장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될 만하다. 이번 연구에서 ‘훈주음종’, ‘독주가종’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실제 자료에서 이들 경향이 차자표기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차자표기 체계 간 문자 변용 양상의 차이를 일부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향찰의 ‘훈주음종’과 관련하여 김지오·이용(2024: 13-14)에서는 예외 사례를 근거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예외는 모두 52개로, 삼국유사 향가에는 32개, 균여전 향가에는 20개가 있었다. 품사별로 보면 체언 10개(예. 伊/이, 夫作/부질), 용언 22개(예. 古召/고초-, 烏乙反/오옴-), 수식언·기타 20개(예. 於內/어누어느, 居得/거득|가득)였다.³⁾ 이러한 예외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도, 어절 첫 글자의 한자 변용 양상과 관련지어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각 어절의 첫 글자들이 어떻게 변용되어 쓰이는지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 작업은 어휘 표기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표 2> 어절 첫 글자의 변용 양상(전체)

체계	훈독	음독	음가	훈가	부독/전훈독	합계
향찰	56.90% 集刀/모도	31.03% 西方	10.34% 沙音/삼	1.72% 花乎/꽃오	-	58
이두	32.74% 同亦/글이	67.26% 生長	0.00%	0.00%	-	113
구결	33.96% 無々/없	46.23% 世間	0.00%	0.00%	19.81% {爲} 々/ ㅎ	106
합계	38.27%	51.62%	2.17%	0.36%	7.58%	277

위의 표를 통해, ‘훈주음종’의 ‘훈주’나 ‘독주가종’의 ‘독주’가 차자표기의 한자 변용 양상을 설명하는 데 실제로 유용한 개념인지 검토해 보면,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 첫째, 향찰·이두·구결의 전체적 양상을 보았을 때, 훈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

3) 김지오·이용(2024)에서는 예외적인 것 중 몇 가지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첫째,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의 회피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묘사하는 데 쓰인 동사 ‘고초-’는 언해를 참고하면, ‘翹’로 훈독하여 표기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古召’<도천수대비가>, ‘花乎’<원왕생가>로 표기하였다. 이는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로 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확인 간단한 한자들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한자로는 적합한 글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이다. 훈독이나 음독으로는 어감까지 살리기 어려운 의성어나 의태어 계열이 이에 속한다. 예로는 ‘丘物叱丘物叱/구물구물|꾸물꾸물’<향순중생가>을 들 수 있다. 셋째, 훈독자의 대표 훈이 아닌 의미를 표시해야 할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동사 ‘삼-’의 표기를 들 수 있는데, ‘爲’를 쓰게 되면 대표 훈인 ‘ㅎ-’로 오인하여 읽을 여지가 있으므로 모호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음가의 연쇄인 ‘沙音’<예경, 향순, 청전>으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는 것이다. 세 체계 모두에서 음독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훈독의 비율이 가장 높은 향찰의 경우에도 60%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김완진(1985)에서 ‘훈주음중’이 제기된 맥락은 향가 해독에 국한된 것이었으므로, 일정한 경향을 포착한 관찰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차자표기 일반에 적용되는 해독 원리로 이해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⁴⁾

이에 비해 남풍현(2000)에서 제기한 ‘독주’는 비교적 적절한 관찰로 평가할 수 있다. 향찰·이두·구결 모두에서 어절 첫 글자에는 거의 독자(讀字)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즉, 어절 초의 글자 선택은 우선적으로 독자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그다음으로 음에 의한 독인지 훈에 의한 독인지를 판별하는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향찰에서는 어휘 표기의 첫 번째 글자에서 가자(假字)의 사용이 확인되는 반면, 이두와 구결에서는 그러한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두와 구결의 경우 어절 초에는 독자(讀字) 밖에 없으므로, 해독자는 음독과 훈독의 구별만을 수행하면 된다. 물론 훈독의 경우 대응되는 고유어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남지만, 선택지의 범위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반면 향찰에서는 가자인 음가(音假)와 훈가(訓假)가 함께 사용되는 만큼, 어절을 표기하는 첫 글자에 훈독, 음독, 음가, 훈가가 모두 올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독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해독의 선택지가 크게 늘어나며, 그만큼 언어 재현의 불확실성도 증가한다.⁵⁾

향찰에 이처럼 다양한 한자 변용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향찰의 목적이 한국어를 전면적으로 표기하는 데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풍현(2000: 13)은 향찰을 ‘순수 국어 문장 표기를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음독과 훈독만으로는 한국어를 음상과 의미를 충분히 재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가와 훈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표기 전략으로 도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찰은 표기자의 입장에서는 언어를 최대한 재현하기 위해 글자 변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체계라 할 수 있다. 해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자 운용이 해석 후보를 확대함으로써 해독에 요구되는 시간과 인지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서, 뒤에서 살펴볼 음성 지시소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⁶⁾

2.2. 문법부 표기의 한자 변용 양상

문법형태소는 한문과 겹치지 않는 한국어의 고유한 요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법부 표

-
- 4) 적잖은 논저에서 훈주음중을 해독의 원리로 제시한 것으로 다루고 있으나 김완진(1985)에서는 기준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 5) 참고로, <표 1>의 변용 방식 분포를 확률 변수로 간주하고 Shannon(1948)의 정보 엔트로피 개념을 적용하여 분산 정도를 산출하면, 향찰(1.43 bit)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그다음이 구결(1.04 bit), 이두(0.91 bit)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향찰 > 구결 > 이두’ 순으로 불확실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엔트로피 값은 변용 방식 선택의 분산 정도만을 수치화할 뿐, 해독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지적 비용이나 해석의 방향성(예컨대 훈독과 음독 간의 처리 차이)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엔트로피 계산을 직접적인 분석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한자 변용의 분포와 해독 과정의 질적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 6) 변용 방식의 분포를 기준으로 보면 불확실성의 증감에는 일정한 방향성이 관찰된다. 즉, 체계가 단순화될수록 어절 초 위치에서 음가·훈가가 소멸하고, 훈독 중심의 운용에서 음독 중심의 운용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분포를 확률 변수로 간주하여 Shannon(1948)의 정보 엔트로피 개념을 적용할 경우, 체계 간 분산 정도를 대략적으로 비교할 수는 있다. 다만 엔트로피는 변용 방식 선택의 분산만을 수치화할 뿐, 음독과 훈독이 해독 과정에서 요구하는 처리 시간이나 인지적 비용의 차이와 같은 질적 요소는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이러한 계산을 직접적인 분석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해독 과정의 부담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음성 지시소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기는 대체로 독자와 가자 중 가자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은 문법부 표기에 드러난 한자 변용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문법부 표기의 한자 변용 양상(전체)

체계	훈독	음독	음가	훈가	부독
향찰	7.69% 中/그	0.00%	84.62% 賜/시	7.69% 有如/다	-
이두	30.53% 在/겨	0.00%	49.47% 齊/저	20.00% 如/더	-
구결	15.71% ㄴ/로	0.00%	63.57% 1/ㄴ	20.71% ㄴ/이	
합계	19.44% %	0.00%	62.70% %	17.86% %	

<표 3>에 나타난 특성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향찰·이두·구결 모두 전반적으로 예상대로 가자의 비율이 높음이 관찰된다. 이를 통해 남풍현(2000)의 설명처럼 차자표기에는 독주가종의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향찰에서는 음가의 비율이 이두·구결보다 높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자 표기가 주가 되지만 훈독도 보인다. 특히 이두는 훈독의 비율이 다른 차자표기보다 더 높다. 이는 차자표기의 출발이 한문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이두 표기에 나타난 문법형태소의 예를 보면, 주제의 ‘者’, 처격의 ‘中’, 도구격의 ‘以’, 종결어미 ‘之’처럼 한문의 용법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⁷⁾ 실제 자료가 드러내는 양상은 문법형태소 표기가 한자를 이용해 한국어 문법형태소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에 호응하지 않는다.⁸⁾ 이러한 결과는 차자표기가 한문의 영향으로부터 시작한 데 기인한다고 보아야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셋째, 차자표기별로 비교해서 보면, 훈독의 경우는 ‘이두 > 구결 > 향찰’의 순으로 나타나고 훈가의 경우는 ‘이두 ≒ 구결 > 향찰’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문법부의 경우에는 이두의 언어 불확실성이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두의 문법형태소 표기가 관습화·투식화된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2.3. 음성 지시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절의 첫 글자는 어휘 표기와 연결되어 있고 음독 또는 훈독으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독과 훈독은 언어 재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음독자는 한자어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응 어휘가 금방 떠오른다. 그러나 훈독자는 대응되는 후보가 동시에 여럿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불확실성이 높다. 이러한 훈독자의 언어 불확실성을 해결해 주는 존재가 음성 지시소이다.⁹⁾ 따라서 불확실성 해소 장치로서 음성 지시소를 관찰하

7) 이에 대해서는 이기문(1981: 68)을 참고할 수 있다.

8)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이기문(1981), 이용(2017가) 등이 있다.

9) 이 글에서 음성 지시소로 보는 것은 기존 논저에서 말음첨기라고 부른 것이다. 말음첨기보다는 음성 지시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2025)를 참고할 수 있다. ‘말음첨기’라는 용어는 양주동(1942)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남풍현(1981), 김완진(1985) 등에서 쓰이면서 확대되었다. 남풍현(1993: 137-138)에서는 말음첨기는 원칙적으로 훈독되는 구성소에 나타나고 음독되는 구성소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드문 일임을 밝힌 바가 있다.

는 것은 차자표기의 한자 변용 전략을 이해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된다. 음성 지시소는 특정 음상을 제시함으로써 혼독 과정에서 떠오를 수 있는 어휘 후보를 여럿 가운데 하나로 제한하여, 해독자가 고려해야 할 해석 범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음성 지시소가 뚜렷한 차자표기로는 향찰을 들 수 있다.¹⁰⁾ 향찰에서 자음 첨기자가 음성 지시소로 사용된 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

<표 4> 향찰의 음절말에 나타난 음성 지시소¹²⁾

		신라	균여
音(口)	체언	憂音(시름)<모죽지랑가>, 夜音(밤)<모죽지랑가>, 雲音(구름)<찬기파랑가>, 掌音(*숟가락)<모죽지랑가>, 心音(모심)<도솔가>, 수희공덕가 ¹³⁾ , 靑音(다짐)<원왕생가>, 岳音(오름)<혜성가>	心音(모심)<청불주세가>, 총결무진가>, 人音(사람)<수희공덕가>
	용언		餘音(남-)<총결무진가>, 참회업장가>
尸(ㄹ)	체언	道尸(길)<모죽지랑가>, 혜성가>, 二尸(두불)<도천수관음가>, 秋察尸(가을)<원가>	道尸(길)<청불주세가>, 日尸(날)<보개회향가>
	용언	慚盼(붓글-)<헌화가>, 狂尸(어즐-)<안민가>	
叱(ㅈ)	체언	城叱(갯)<혜성가>, 物叱(갯)<원가>, 際叱(갯)<찬기파랑가>	物叱(갯)<광수공양가>
	용언	有叱(잇-)<모죽지랑가>, 혜성가>, 奪叱(앗-)<처용가>, 居叱(깃-)<모죽지랑가>, 修叱(닷-)<풍요>	無叱(없-)<수희공덕가>, 修叱(닷-)<수희공덕가>
隱(ㄴ)	체언	千隱(즈믄)<도천수관음가>	
只(ㄱ)	부사	密只(그속)<서동요>, 唯只(오직)<우적가>	必只(반독)<칭찬여래가>

향찰에서 자음 ‘音(口)’, ‘尸(ㄹ)’, ‘叱(ㅈ)’을 첨기해 음성 지시소를 표기한 용례는 체언에서 용언에 이르기까지에 활발하게 보인다. 반면에, ‘隱(ㄴ)’, ‘只(ㄱ)’을 첨기한 용례는 많지 않고 ‘隱(ㄴ)’ 계열은 체언에, ‘只(ㄱ)’ 계열은 부사에 한정되어 쓰였다. 『삼국유사』 향찰과 『균여전』 향찰을 비교하면, 『삼국유사』 향찰이 그 종류나 빈도에서 우세하고 『균여전』 향찰에서는 그 예가 줄어든다. 이 현상이 혼독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신라 향찰에서 혼독의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제3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음성 지시소의 사용이 혼독 빈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이러한 감소는 균여전 향찰에서 혼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5> 이두의 음절말에 나타난 음성 지시소¹⁴⁾

10) 신중진(1998: 91)에서는 말음첨기가 향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11) 본고의 논의는 자음 첨기만으로 제한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음성 지시소가 자음을 첨기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음을 첨기한 경우만으로 논의의 영역을 제한해도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2) 이견식(1995), 신중진(1998) 등을 참고하였다.

13) 밑줄을 그은 것은 『삼국유사』 향가와 『균여전』 향가에 모두 나오는 음성 지시소이다.

音(口)	체언	侑音(다듬)<1480 金孝之妻黃氏粘連文記(1)4:2, 1783 字恤典則>, 私音(아름)<1395 명률06:02>, 持音(디님)<1387 張戡所志, 1415 蔚珍張氏 戶口單子>, 逢音(마 ^ㅈ ㅅ)<1387 張戡所志, 1395 대명률01:16>
叱(入)	용언	進叱(낱-)<1395 대명률28:05-06, 1489 李勳兵曹爲差定牒>, 元叱(비릇)<1378 長城監務官貼, 1390-91 高麗末國寶戶籍文書>, 始叱(비릇)<1395 대명률01:44, 1758 農圃集>
只(ㄱ)	부사	并只(*다목)<1262 상서도관첩, 1892 推案及鞠案>, 唯只(오직)<1262 상서도관첩, 1758 農圃集>, 最只(안직)<1262 상서도관첩>, 須只(모롬직)<1395 대명률01:10, 1517 農書輯要>, 故只(짐죽)<1395 대명률01:14, 1640-42 審陽狀啓>, 曾只(일직)<1395 대명률01:14, 1415 養蠶經驗撮要>

이두의 음성 지시소는 향찰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音(口)’ 계열, ‘叱(入)’ 계열, ‘只(ㄱ)’ 계열은 그 예가 활발히 보이지만, ‘尸(ㄹ)’ 계열과 ‘隱(ㄴ)’ 계열은 그 예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이른 시기의 음성 지시소는 1262년 자료로 추정되는 『상서도관첩』에 사용된 것일 정도로, 향찰과 비교하면 많이 늦은 시기에 나타난다. 특히 ‘音(口)’ 계열의 음성 지시소는 『대명률직해』(1395)에 나타나는 ‘私音’(아름)에 처음 보인다. 음성 지시소가 훈독과 관련이 있다면 음독이 많을수록 음성 지시소가 적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음독의 비율이 높은 이두에서 음성 지시소가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이해 가능한 측면이 있다.

<표 6> 구결의 음절말에 나타난 음성 지시소¹⁵⁾

		화엄	유가
音(口)	체언	心 ^ㅅ (^ㅁ 숨)<화엄> ¹⁶⁾ , 者 ^ㅅ (^ㅂ 놈)<화엄>, 壽 ^ㅅ (^ㅁ 목숨)<화엄>	眞 ^ㅅ (^ㅅ 춤)<구인>, 心 ^ㅅ (^ㅁ 숨)<유가>, 私 ^ㅅ (아름)<유가>
尸/乙 (ㄹ)	체언	邊尸(*언절)<화엄>, 十尸(열)<화엄>	
	용언	立乙 ^ㅅ 호(*들 ^ㅂ 셔)<화엄>	
叱(入)	체언	物 ^ㅅ (^ㅈ 갓)<화엄>	一 ^ㅅ +(첫자히)<금광>
	용언	修 ^ㅅ (^ㄷ 닭-)<화엄>, 無 ^ㅅ (^ㅇ 없-)<화엄>, 莫 ^ㅅ (^ㅇ 없-)<화엄>	無 ^ㅅ (^ㅇ 없-)<금광, 구인>, 有 ^ㅅ (^ㅇ 잇-)<금광, 유가>, 俱 ^ㅅ (^ㅅ 다못 ^ㅅ ㅎ-)<구인>
	부사	及 ^ㅅ (^ㅁ 밋)<화엄>, 正 ^ㅅ (*바릿/밋)<화엄>, 共 ^ㅅ (^ㅅ 다못)<화엄>, 從 ^ㅅ (^ㅅ 져/져)<화엄>, 周 ^ㅅ (^ㅇ 온갓)<화엄>, 與 ^ㅅ (^ㅅ 다못)<화엄>, 順 ^ㅅ (^ㅅ 져/져)<화엄>	及 ^ㅅ (^ㅁ 밋)<유가>, 正 ^ㅅ (*바릿/밋)<화엄>, 共 ^ㅅ (^ㅅ 다못)<화엄>, 從 ^ㅅ (^ㅅ 져/져)<금광, 구인>, 與 ^ㅅ (^ㅅ 다못)<금광, 구인, 유가>, 皆 ^ㅅ (*닷)<구인>, 初 ^ㅅ (^ㅅ 비릇)<구인>, 方 ^ㅅ (^ㅅ 비릇/뿔)<구인>
隱(ㄴ)	관형사	諸 ^ㅅ (^ㅁ 모든)<화엄>	諸 ^ㅅ (^ㅁ 모든)<구인>

14)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풍현 외(2020)을 참고하였다.

15)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권식(1995), 신중진(1998), 장경준 외(2015)를 참고하였다.

只(ㄱ)	부사	當ハ(반독)<화엄>, 必ハ(반독)<화엄>, 但ハ(오직)<화엄>	必ハ(반독)<유가>, 當ハ(반독)<유가>, 但ハ(오직)<유가>, 唯ハ(오직)<유가>

구결에는 음성 지시소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절 첫 글자의 양상을 고려한다면 향찰과 이두의 중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실제 나타나는 모습은 향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이유는 구결이 글로스(gloss)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¹⁷⁾ 이는 전훈독과도 연결될 수 있다. 전훈독은 구결에만 보이는데, 이 역시 구결의 글로스적 성격을 이해할 때 설명이 가능해진다. 전훈독 역시 원문 한자를 보존한 채 해석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결의 음성 지시소와 마찬가지로 글로스적 독서 관습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차자표기별 한자 변용 양상과 변천

3.1. 이두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두의 경우는 어절 초에서 음독 사용 비율이 높고 훈독 사용 비율이 낮아, 표기로부터 대응 어휘를 비교적 빠르게 확정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닌다. 또한 훈독이 많아서 해독의 선택지가 많아지는 일도 덜 생긴다. 음성 지시소 역시 향찰에 비해 늦은 시기에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이두에서의 불확실성 해소 전략이 음성 지시소의 적극적 활용보다는 문법형태소 표기의 관습화와 투식화를 통해 표기와 해독의 대응 관계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이두 전체를 두고 본 것이고 여기서는 이두를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7> 어절 첫 글자의 변용 양상

시기	훈독	음독	음가	훈가	합계 (어절 수)
화엄경사경조성기 <755>	56.60% 成/일이	43.40% 生長	0.00%	0.00%	53
상서도관첩 <1262>	11.67% 同亦/글 이	88.33% 大臣	0.00%	0.00%	60
합계	32.74%	67.26%	0.00%	0.00%	113

이두의 어절 첫 글자의 변용 양상을 시대에 따라 나누어 보면, 8세기 자료에서는 훈독과 음독의 비율이 비슷하되 훈독의 비율이 다소 높다. 이러한 상황이 13세기 자료에서는 변화하여 음독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게 된다. 훈독 대 음독의 비율이 56.60% : 43.40%에서 11.67%:88.83%로 변화한 점은, 어휘 표기에서 해독의 선택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이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16) 밑줄을 그은 것은 『화엄경』 구결과 『유가사지론』 구결에 모두 나오는 음성 지시소이다.

17) 글로스와 글로싱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브 헨델/이용 외 옮김(2025)를 참고할 수 있다. 글로스(gloss)란 원 텍스트를 그 자체로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에 덧붙이는 주석을 가리킨다. 글로스는 글로싱과 묶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글로싱은 한문에 의존하며 한문을 위해 사용되는 독서 관습을 가리키는데, 글로싱 부호(glossing marks)를 사용하여 한문 텍스트에 물리적으로 남긴 주석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어휘 표기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두가 행정 문서 등 실무적 성격의 기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독 과정에서 모호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음독 중심의 표기 선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¹⁸⁾

<표 8> 문법부 표기자의 변용 양상

시기	훈독	음독	음가	훈가	문법 형태 표기 수
화엄경사경조성기 <755>	32.35% 中/괴	0.00%	50.00% 那/나	17.65% 成內/안	34
상서도관첩 <1266>	29.51% 在/겨	0.00%	49.18% 齊/저	21.31% 如/더	61
합계	30.53%	0.00%	49.47%	20.00%	95

문법부 표기자의 변용은 8세기 자료와 13세기 자료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른 시기부터 훈독자를 이용한 표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의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남풍현(2000: 239)에서는 「화엄경사경조성기」에서 토 표기 차자들을 분석하여, 훈독자가 假字보다 많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훈독자가 10자인데 가자는 모두 9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⁹⁾

한편 이두의 문법부 표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른 시기부터 반복적 사용이 관찰된다는 사실이다. 8세기 자료인 「화엄경사경조성기」는 연대상 초기 이두 단계에 해당하지만, 문법형태소 표기에서 동일한 한자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연결어미 ‘弥’가 자주 나타나거나 ‘若 A哉 若 B哉’ 같은 구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하나의 문법형태소에 특정 글자가 대응되는 현상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²⁰⁾ 이러한 반복을 관습화·투식화에 바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으나 후대의 관습화·투식화 경향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서도관첩』에 들어서면 이러한 정형화된 표현들이 더욱 다양한 문맥에서 반복적으로 결합·사용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敎是-’, ‘敎事-’, ‘승是-’와 같은 제한된 표현이 ‘在等以’, ‘良於爲敎矣’, ‘齊’, ‘遣’ 등과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문법부 표기에서 관습화·투식화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²¹⁾ 이러한 양상은 이두가 의미를 즉석에서 조합하는 문장이라기보다 행정·교서용으로 정형화된 틀을 불러다 쓰는 문장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이는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두토들이 청크화되어 교육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²²⁾

18) 이와 관련된 기술로 박준호(2009: 33)을 들 수 있는데, 그는 “하나의 국가 체제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부 위정자의 정책적 결정 사항과 그 의지가 하부 구조에까지 왜곡없이 전달되고, 그 전달된 내용이 제대로 실현되며 … 과정이 원활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방점은 필자).

19) 훈독자 10자로는 ‘但/이, 等/들, 令/시기(히기), 欲/과, 者/(으)ㄴ, 在/겨, 中/괴, 之/다, 爲/호, 以/로’를 들었고, 음가자 5자로는 ‘那/나, 那/며, 賜/스, 哉/직, 只/기’, 훈가자 3자로는 ‘尔/금, 如/다, 乎/온’을 들고 있다.

20) 하나의 문법형태소에 특정 글자가 대응되는 현상은, 예를 들어 주체존대의 선어말어미에는 ‘賜’만 사용한다든지, ‘호’의 표기에는 ‘爲’만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가리킨다.

21) 다만 이러한 판단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상서도관첩』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적 검토와 같은 시기 문헌과의 비교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시대에 보이는 이두 학습서를 들 수 있다. 이두 학습서에는 이두토들이 ‘是置是亦 : 이두이여’〈集成〉, ‘是置有等以 : 이두이신들로’〈朝鮮, 集成〉, ‘是置有是亦 : 이두이시여’〈語錄, 典律, 集成〉, ‘是置有亦 : 이두이시니여’〈物譜, 吏師, 吏祿〉처럼 묶음으로 제시되어 있다.

3.2. 구결

앞에서 살펴본 이두와 달리, 구결은 독립적인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표기라기보다는 한문 텍스트의 독해를 보조하기 위해 부가된 표기라는 점에서 그 운용 방식이 다르다. 이러한 성격에 대한 이해는 구결에서 나타나는 한자 변용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구결의 특징은 어휘부보다 문법부 표기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문법부에서는 음가자가 우세하게 사용되지만, 이는 단지 표음을 위한 것에 머물기보다는 특정 문법형태소에 전용적으로 대응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구결의 문법부 표기는 음가를 활용하면 서도 해독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반복적 사용과 결합을 통해 구결이 일정한 단위로 묶여 교육·전승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 9> 어절 첫 글자의 변용 양상

시기	훈독	음독	음가	훈가	전훈독/부독	합계 (어절 수)
화엄경 <12세기 전반기>	36.92% 無 ㄷ/없	35.38% 世間	0.00%	0.00%	27.69% {爲} ㅂ/ㅎ	65
유가사지론 <13세기 중반기>	29.27% 唯 ㅏ/오 직	63.41% 信解	0.00%	0.00%	7.32% {於} 聖處 ㅅ +/아 고	41
합계	33.96%	46.23%	0.00%	0.00%	19.81%	106

<표 9>에서 보면 『화엄경』에서는 훈독과 음독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훈독의 비율이 조금 높은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전훈독의 경우에도 훈을 제공해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훈독에 포함한다면 훈독의 비율이 많이 올라간다. 이처럼 훈독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구결의 글로소적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가사지론』에서는 음독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음독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이두와 유사한데, 어휘 표기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훈독 > 음독’의 이동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²³⁾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석독 구결에서 이 음독 구결로 바뀌는 구결의 변화 방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문법부 표기자의 변용 양상

시기	훈독	음독	음가	훈가	문법 표기 형태 수
화엄경 <12세기 전반기>	16.67% ㅁ/로	0.00%	63.89% 1/ㄴ	19.44% ㅈ/ㄷ	56

23) 다만, 조사한 샘플의 수가 적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유가사지론 <13세기 중반기>	14.29% 1 (←之))/다	0.00%	63.27% 2/을 을	22.45% 11/이	49
합계	15.71%	0.00%	63.57%	20.71%	105

구결의 문법부 표기자는 음가가 우세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의 음가자가 단지 표음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법 형태소에만 대응되어 쓰이면서 형태소 표시자로 기능하게 된다. 문현수(2024: 173)는 <화엄경>·<화엄경소> 출현 구결자의 음절표를 만들어 보면 음절표에 빈칸이 많은데, 그 이유를 석독구결의 구결자들이 처음부터 순수하게 표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형태소의 표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인 데서 찾고 있다.²⁴⁾ 이러한 변화는 불확실성 해소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²⁵⁾

구결의 토 연결체와 관련하여서 구결의 토 역시도 청크를 이루어서 교육·전송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정 배경에는 점토석독구결의 점과 선에 대응되는 자토석독구결의 단위가 음소·음절이나 문법형태소 정도에 그치지 않는 데 있다. 유가사지론 계열에서는 하나의 부호가 최대 7자까지 대응되는 경우가 보이는데,²⁶⁾ 이는 석독구결의 토가 청크화해를 가능성을 제시한다.²⁷⁾

3.3. 향찰

이두와 구결은 각각 행정 문서의 작성과 한문 텍스트의 독해를 보조하는 표기로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표기 체계가 운용되었다. 이에 비해 향찰은 한자를 사용하여 한국어를 전면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표기 의도에서부터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는 향찰에 나타나는 한자 변용 양상에 뚜렷하게 반영된다. 향찰에서는 어절 초를 비롯한 주요 위치에서 다양한 한자 변용 방식이 공존하며, 표기 선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난다. 이 점은 향찰이 이두·구결과 비교해 해독 과정에서 더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11> 어절 첫 글자의 변용 양상

시기	훈독	음독	음가	훈가	합계 (어절 수)
신라 향가 (원왕생가) 28)	64.52% 集刀/모도	12.90% 西方	9.68% 誓音/버김	3.23% 花乎/꽃오	31

24) 문현수(2024: 173)에 나타난 『화엄경』, 『화엄경소』의 음절표를 보면, 구결자가 나타낼 수 있는 음절이나 음소는 69개에 이르지 않는다. 이 정도로는 한국어의 음절을 표기하기에는 매우 많이 모자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음절 빈칸이 많은 것은 구결자들이 처음부터 순수하게 표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형태소의 표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25) 이 논문에서는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인 ‘-우-’를 표기하기 위해 [우]라는 음상을 지닌 ‘ㄹ’나 ‘ㅍ’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구결자는 선어말어미 ‘-우-’를 표기하는 데 이용되는 일이 전혀 없음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선어말어미 ‘-우-’는 선어말어미 ‘-오-’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ㅍ’로만 표기된다는 것이다.

26) 대응되는 자토의 길이를 보면, 화엄경 계통에서는 6자가 가장 긴데, 15(·/)[ヒセハフハ], 34(\)[ヒハセツ] 등 4개가 있고(문현수, 2017: 8을 참조), 『유가사지론』에는 7자가 가장 긴데 51~52(|) [ニロリハセ], 54~55(|) [ニロリハセ] 등 3개가 있다(장경준, 2025: 22~23).

27) 더 나아가 ‘석독구결 > 음독구결’의 변화도 청크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청크로 묶여서 전송되면서 점차 청크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지게 되고 이것이 음독구결화의 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균여 향가 (향순중생가) 29)	48.15% 根/불 회	40.74% 大悲	11.11% 沙音/삼	0.00%	27
합계	56.90%	31.03%	10.34%	1.72%	58

<표 11>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첫째, 훈독의 비율에서 변화가 보인다. 신라 향가에서는 훈독의 비율이 음독의 비율보다 많이 높았지만, 균여 향가에서는 두 비율의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2.3절에서는 음성 지시소의 사용으로부터 신라 향가에서의 훈독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표 11>의 결과는 이 추정과 일치한다. 동시에 균여 향가에서는 훈가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음독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훈독 > 음독’의 변화 방향은 이두에서도 발견되었던 것인데, 이를 통해 향찰에서도 해독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완화하려는 방향성이 작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문법부 표기자의 변용 양상

시기	훈독	음독	음가	훈가	문법 형태 표기 수
신라 향가 (원왕생가)	0.00%	0.00%	85.71% 賜/시	14.29% 有如/다	14
균여 향가 (향순중생가))	10.53% 中/괴	0.00%	84.21% 乙/을 을	5.26% 吾置/도	38
합계	7.69%	0.00%	84.62%	7.69%	52

문법부 표기자의 변용 양상에서는 음가의 비율에 큰 변화가 없고 훈독에서의 작은 변화가 눈에 띈다. 변용 양상의 전반적인 경향만을 볼 때는 변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변용되어 쓰인 글자들을 세밀히 살펴보면 변화가 보인다.

<표 13> 동일 형태 내지 동일 음상 표기에 다른 글자가 쓰인 것(황선엽, 2008: 308)

표기 음상	표기 글자	삼국유사	균여전
을/을	盼	14	1
	乙	3	14
의/이	矣	17	1
	衣	4	12
리	理	13	2
	呂	0	8
인	因	2	0
	仁	0	5
옥	屋	4	1

28) 「원왕생가」의 해독은 南豐鉉(2018)을 참고하였다.

29) 「향순중생가」의 해독은 이용(2007)을 참고하였다.

	玉	0	2

<표 13>은 『삼국유사』 향가와 『균여전』 향가에서 동일 형태 또는 동일 음상에 다른 글자가 쓰인 예들을 제시한다. 이는 『삼국유사』 향가의 표기와 『균여전』 향가의 표기 사이에는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표 14> 같은 글자가 현격한 용법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황선엽, 2008: 308)

글자	용법	삼국유사	균여전
白	실사(용언)	4	2
	허사(선어말어미)	2	10
去	실사(동사)	10	1(?)
	허사(선어말어미, 종결어미)	1	6
遣	연결어미	9	1
	선어말어미	3	1
恨	동사어간 ‘ㅎ-’의 활용형	3	0
	‘ㅎ’ 발음 체언의 곡용형	0	1

<표 14>는 같은 글자가 『삼국유사』와 『균여전』에서 용법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다. 이도 역시 『삼국유사』 향가의 표기와 『균여전』 향가의 표기 사이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표 13>과 <표 14>에 나타나는 변화는 표기 비율의 변화와는 별도로, 동일한 형태나 음상에 대응되는 한자가 점차 정리·재배치되는 과정이 향찰 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이두, 구결, 향찰 각각에 대하여 한자 변용 양상이 어절 초와 문법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세 차자 표기 체계는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면서도 표기 목적과 사용 맥락의 차이에 따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두는 어절 초에서는 훈독 중심에서 음독 중심으로 변화하고 문법부에서는 관습화·투식화된 표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해독의 선택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구결은 어절 초에서는 훈독 중심에서 음독 중심으로 변화하고 문법부에서는 특정 형태소에 전용적으로 대응되는 음가자가 발달하여 해독 과정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향찰은 『삼국유사』의 향찰과 『균여전』의 향찰을 비교할 때, 문법부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지만, 어절 초에서는 『균여전』 향가에서 음독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향찰 역시도 어휘 표기는 음독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이두, 구결, 향찰 각각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면, 어절 첫 글자의 변용 양상으로 드러나는 어휘 표기가 훈독에서 음독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문법부는 관습화·투식화하는 양상이 발견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브 핸델/이용 외(2025: 201)에 나온 “체계가 가장 안정적인, 즉 중의성이 가장 적은 것은 거의 모든 명사와 동사 어간이 중국어 차용어(즉 SK 단어)이고, 내용과 문체가 장르에 의해 제한되며, 그 언어가 격식화되어 제한되고 관습화된 활용어미, 격조사, 보조사(helping word)”(부사, 접속사 등)을 수반하는 경우이다.”라는 말을 상기시킨

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차자표기에서 한자가 어떻게 변용되어 사용되는지를 어절 초와 문법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분포와 변천을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향찰, 이두, 구결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동일한 문자를 활용하는 차자표기 체계이지만 사용 목적이나 사용 맥락의 차이에 따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전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절 첫 글자의 변용 양상을 보면 향찰은 훈독의 비율이 높지만, 이두, 구결은 음독의 비율이 높다. 문법부의 한자 변용 양상을 보면 향찰, 이두, 구결 모두 음가의 비율이 높지만 특히 향찰에서 음가의 비율이 높다. 문법부는 가자 표기가 주가 되지만 훈독도 보인다. 특히 이두는 훈독의 비율이 높다. 이는 훈독이 차자표기의 출발이 한문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찰, 이두, 구결을 차자표기별로 살펴보면 세 차자표기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두는 행정 문서와 같은 실무적 자료에 쓰인 차자표기 체계로서, 어절 초에서는 음독 중심의 어휘 표기가 우세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문법부에서는 관습화·투식화된 표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해독의 선택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구결은 한문 독해를 보조하는 글로스 체계로, 어휘부에서는 초기 자료인 『화엄경』에서 훈독과 음독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후대 자료인 『유가사지론』에서 음독의 비율이 높아졌다. 문법부에서는 특정 형태소에 전용적으로 대응되는 음가자가 발달하여 해독 과정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향찰은 한국어를 한자 체계를 통해 전면적으로 재현하려는 표기 체계로서, 어절 초에서 훈독·음독·음가·훈가가 함께 사용되며 표기 선택의 폭이 넓고, 그만큼 해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다만 향찰 역시 늦은 시기의 자료인 『균여전』 향가에서는 음독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음성 지시소의 사용은 향찰, 이두, 구결에서 모두 관찰된다. 향찰과 구결에서는 사용의 빈도가 높는데, 이는 각각 어절 초의 다양한 한자 변용 양상과 글로스적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두에서는 음성 지시소의 사용이 비교적 늦기도 하고 그 빈도도 높지 않는데, 이는 어휘 표기에서 음독의 비중이 높아 해독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차자표기의 한자 변용을 훈주음종이나 독주가종처럼 다소 피상적으로 이해한 관점을 넘어, 실제 사용 용례의 분포와 통계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차자표기별로 변용 양상이 다르게 실현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전략적으로 관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은 분석 대상 자료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 범위를 확대하여 통시적 변화 양상을 더 정밀하게 검토한다든지, 개별 표기 체계별로 관습화·투식화 과정을 살펴본다든지, 음성 지시소의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를 심화하든지 해서 논의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주필(2004), 「차자표기와 훈민정음 창제의 관련성 제고」, 『한국어의 역사』, 보고서.
- 김지오(2012), 「균여전 소재 향가의 해독과 문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오·이용(2024), 「향찰의 문자론적 이해」, 『구결연구』 53, 5-41.
- 김하수·이전경(2015), 『한국의 문자들』, 커뮤니케이션북스.
- 남풍현(1979), 「훈민정음과 차자표기법과의 관계」, 『국문학논집』 9,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남풍현(1981), 『借字表記法研究』, 단대출판부.
- 남풍현(2000), 『吏讀研究』, 태학사.
- 南豊鉉(2007), 「古代韓國에 있어서 漢籍佛典의 傳來와 受容에 대하여」, 『서지학보』 31, 5-35.
- 南豊鉉(2008), 「釋讀口訣에 쓰인 “支”의 形態와 機能에 대하여」, 『口訣研究』 20, 口訣學會, 93-121.
- 南豊鉉(2012), 「古代 韓國語의 如實法 動詞 ‘支/디’와 ‘多支/다디’에 대하여」, 『구결연구』 29, 247-280
- 南豊鉉(2014), 『古代韓國語 論攷』, 태학사.
- 南豊鉉(2017), 「鄉歌와 釋讀口訣에 나타난 동사 ‘ハ/기’의 意味와 機能에 대하여」,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南豊鉉(2018), 「<願往生歌>의 새로운 解讀」, 『구결연구』 41, 5-27.
- 李基文(1963), 『國語表記法の 歷史的研究(國語研究叢書18)』, 한국연구원.
- 문현수(2017), 「周本 『華嚴經』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현수(2018), 「/ㄱ/ 약화 표기를 통해 살펴본 구결자 ‘ㅍ’의 원자(原字) 및 음가(音價) 연구」, 『민족문화연구』 81, 107-135.
- 문현수(2019), 「제프 헨델의 저서 『Sinography』(2019)와 한국의 차자 표기」, 『한국학연구』 4, 145-148.
- 문현수(2020),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의 특성」, 『국어사연구』 30, 71-98.
- 문현수(2023), 「향가와 석독구결에서 쓰이는 ‘支’와 ‘只’의 통용성」, 『구결연구』 51, 5-35.
- 민현식(1995), 「文字論과 借字法」,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 박준호(2009), 『예의 패턴: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 소와당.
- 배보은(2013), 「문자론 용어와 문자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小倉進平(1929), 『鄉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1974, 아세아문화사 영인]
- 송기중(1997),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성격」, 『새국어생활』 7-4, 1997, 국립국어원, 5-29.
- 신중진(1998), 「말음첨기(末音添記)의 생성과 발달에 대하여-음절말 자음 첨기를 중심으로-」, 『口訣研究』 4, 85-114.
- 안병희(1992), 『國語史 資料 研究』, 문학과지성사
- 양주동(1965),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 梁柱東(1942/1965), 『增訂 古歌研究』, 一潮閣.
- 俞昌均(1994), 『鄉歌批解』,螢雪.
- 이용(2007), 「<恒願衆生歌>의 解讀에 對하여」, 『口訣研究』 18, 173-204.
- 이용(2013), 「지정사의 개념과 차자 표기 지정문자설의 문제에 대하여」, 『口訣研究』 30,

- 107-138.
- 이용(2016), 「문자언어로서 한국어의 발생과 발달에 관한 시론적 접근」, 『口訣研究』 37, 133-163.
- 이용(2017가), 「조사(助詞) 표기자(表記字)로 본 이두(吏讀)의 변천(變遷)」, 『口訣研究』 38, 109-149.
- 이용(2017나), 「한국 차자표기와 아카드문자 체계의 비교론적 고찰 -한국의 한자 차자표기와 아카드의 수메르문자 차자표기가 보이는 유사성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80, 141-164.
- 이용(2023가),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나는 초성종성 통용자」, 『구결연구』 50, 205-228.
- 이용(2023나), 「어말어미 표기자로 본 이두의 변천」, 『口訣研究』 51, 155-185.
- 이용(2024가),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접근」, 『국립세계문자박물관·구결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동아시아 한자 변용 문자』, 국립세계문자박물관·구결학회, 187-206.
- 이용(2024나), 「세계의 문자와 한국의 문자 전통」,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학술총서1 - 박물관, 문자를 이야기하다』, 세계문자박물관, 78-151.
- 이용(2024다), 「향찰의 문자론적 이해」, 『구결연구』 53, 5-41.
- 이건식(1995), 「鄉札과 釋讀口訣의 訓讀末音添記에 대하여」,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 이기문(1981), 「이두의 기원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52, 65-78.
- 이동석(2000), 「향가의 첨기 현상에 대한 연구」, 『구결연구』 6, 201-228.
- 李崇寧(1955), 「新羅時代의 表記法體系에 관한 試論」, 『論文集』 2, 서울대학교, 62-166.
- 이승재(1997), 「借字表記의 變化」, 『國語史研究』, 태학사.
- 이익섭(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임용기(1996), 「삼분법의 형성 배경과 훈민정음의 성격」, 『한글』 233, 한글학회.
- 임용기(1997), 「삼분법과 훈민정음의 체계」, 『國語史研究』, 태학사.
- 장경준 외(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 장경준(2025), 『『합부금광명경』 권3의 석독구결 개관』, 『합부금광명경 권3 연구』, 김성주 외, 청주고인쇄박물관.
- 제브 헨델/이용 외 옮김(2025), 『동아시아의 한자 -중국 문자의 차용과 변용-』, 역락.
- 헨리 로저스/이용 외 옮김(2018), 『언어학으로 풀어 본 문자의 세계』, 역락.
- 赫連挺/崔喆·安大會 譯注(1986), 『均如傳』, 새문사.
- 황선엽(2007), 「삼국유사와 균여전 향찰의 표기자 비교」, 『국어학』 51, 280-311.
- Geoffrey Sampson/신상순 譯, 『세계의 문자체계』, 한국문화사.
- Boltz, William G. (1994), *The origin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New Have, Conn.: American Oriental Society.
- Coulmas, Florian (2003), *Writing systems: An introduction to their linguistic analysis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iels, Peter T. & Bright. W. (1996), *The world's writing syste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elb, I., J. (1963), *A Study of Writing*, Chicago, Rev.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연구동(역), 『문자의 원리』,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 Handel, Zev (2019), *Sinography*, Leiden: Brill, 2019. [이용 외(역), 『동아시아의 한자 - 중국 문자의 차용과 변용-』, 역락, 2025.]
- Sampson, G., *Writing systems*, London: Hutchinson & Co., 1985. [신상순(역), 『세계의 문자 체계』, 한국문화사, 2000.]
- Shannon, Claude E. (1948).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Bell System Technical Journal* 27 (4): 623-656.
- Unger, J. M., DeFrancis, J., "Logographic and Semasiographic Writing Systems: A Critique of Sampson's Classification", Taylor, I., Olson, D.R., eds, *Scripts and Literacy. Neuropsychology and Cognition*, vol 7, 1995.
- Westbury, Chris & Michelle Yang (2024), "Orthographic uncertainty - An entropy-based measure of word form typicality," *The Mental Lexicon* 19, 439-495.

On the Adaptation of Sinograms
for Specific Morphemes in Korean Sinographic Writing

MOON Hyunsoo (Korea University)

East Asian countries within the Sinosphere have historically adapted the graph, pronunciation, and semantics of Chinese characters (Sinograms) in diverse ways to represent their own vernacular languages. Recently, Handel (2019) systematized these patterns into eight distinct categories. He argued that typological differences between agglutinative languages (Korean, Japanese) and isolating languages (Vietnamese, Zhuang) led to divergent adaptation methods: Korea and Japan primarily utilized sequences of semantic and phonetic elements to represent polysyllabic morphemes, while Vietnam and the Zhuang people created newly innovated logograms for their monosyllabic morphemes.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Handel's analysis is limited by its heavy focus on 14th-century *Eumdok-Kugyol* and modern adaptations, thereby failing to account for the precise morphographic systems found in *Seokdok-Kugyol* and *Idu* of the *Goryeo* Dynasty. Through a close examination of *Kugyol* characters and *Idu* orthograph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AL (Phonetically Adapted Logograms) and SPAL (Semantically-Phonetically Adapted Logograms)—which Handel identified as unique to isolating languages—also exist within the Korean sinographic writing system. Furthermore, this study refines Handel's classification by analyzing how Types 5 through 7, which were previously restricted to newly innovated sinograms, contribute to morphographic representation in Korea and Japan through the use of sequences. Ultimately, this research shows that Korean *Kugyol* characters were not merely pure phonograms but functioned as morphograms that established a tight relationship with specific morphemes before transitioning into phonographic representation over time.

Keywords: Sinogram Adaptation, Vernacular Korean Writing, *Seokdok-Kugyol*, *Idu*, Morphogram, PAL, SPAL

특정 형태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한국의 차자표기자에 대하여

문현수 (고려대학교)

한자문화권에 속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자연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형(形), 음(音), 의(義)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하고 수용해 왔다. 최근 Handel(2019)은 이러한 양상을 8가지의 뚜렷한 범주로 체계화하였다. 그는 교착어(한국어, 일본어)와 고립어(베트남어, 좡어) 사이의 유형론적 차이가 서로 다른 변용 방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과 일본은 다

음절 형태소를 표기하기 위해 주로 의미소와 음성소의 연쇄를 활용한 반면, 베트남과 좡은 단음절 형태소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개신 한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그의 분석이 14세기 음독구결과 근대적 변용 사례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으며, 그 결과 고려시대 석독구결과 이두에서 발견되는 정밀한 형태소 표기 체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구결자와 이두 표기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그가 고립어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규정했던 PAL(음성적으로 변용된 표어자)과 SPAL(의미적·음성적으로 변용된 표어자)이 한국의 한자 차용 표기 체계 내에서도 존재함을 입증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기존에 개신 한자에만 국한되었던 유형 5~7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떠한 방식의 연쇄를 통해 형태소 표기에 기여하는지 분석함으로써 Handel(2019)의 분류 체계를 정밀화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구결자가 단순히 순수한 표음 문자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표음적 표기로 이행하기 전까지 특정 형태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형태소 표기자로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핵심어: 한자 변용, 한국의 차자표기, 석독구결, 이두, 형태소 표기자, PAL, SPAL

特定の形態素と緊密な関係を持つ韓国の借字表記字について

文玄洙 (高麗大学校)

漢字文化圏に属する東アジア諸国は、歴史的に自言語を表記するために漢字の形・音・義を多様な方式で変容させ、受容してきた。最近、Handel(2019)はこのような様相を8つのカテゴリーに体系化した。彼は、膠着語(韓国語、日本語)と孤立語(ベトナム語、チワン語)の類型論的な差異が、異なる変容方式をもたらしたと主張した。つまり、韓国と日本は多音節形態素を表記するために主に意味素と音声素の連鎖を活用したのに対し、ベトナムとチワンは単音節形態素のために新しい形態の改新漢字を創出したということである。しかし、本論文は彼の分析が14世紀の音読口訣や近代的な変容事例に過度に偏っており、その結果、高麗時代の釈読口訣や吏読で見られる精緻な形態素表記体系を十分に説明できていない点を指摘する。口訣字と吏読の表記法に対する綿密な検討を通じ、本研究は彼が孤立語固有の特徴として規定したPAL(音声的に変容された表語字)とSPAL(意味的・音的に変容された表語字)が、韓国の借字表記体系内にも存在することを立証する。さらに、本研究は従来、改新漢字に限定されていた類型5~7が、韓国と日本においてどのような連鎖の方式を通じて形態素表記に寄与しているかを分析することにより、Handel(2019)の分類体系を精緻化する。結論として、本研究は韓国の口訣字が単なる純粋な表音文字ではなく、時を経て表音的表記に移行するまで、特定の形態素と密接な関係を結んでいた「形態素表記字」として機能していたことを明らかにする。

キーワード: 漢字の変容、韓国の借字表記、釈読口訣、吏読、形態素表記字、PAL、SPAL

關於與特定形態素具有緊密關係之韓國借字表記字研究

文玄洙 (高麗大學)

漢字文化圈的東亞各國，在歷史上為了標記自語言，以多種方式變容並吸收了漢字的形、音、義。近期，Handel(2019) 將此類樣態體系化為八個範疇。他主張黏著語（韓國語、日本語）與孤立語（越南語、壯語）之間的類型學差異，導致了不同的變容方式。具體而言，韓國與日本為了標記多音節形態素，主要利用了語義元素與語音元素的連鎖；而越南與壯則為了標記單音節形態素，創造了新形態的改新漢字。然而，本論文指出其分析過度側重於14世紀的音讀口訣及近代變容案例，導致其無法充分解釋高麗時代釋讀口訣與吏讀中所發現的精細形態素標記體系。透過對口訣字與吏讀標記法的嚴密考察，本研究證實了被其界定為孤立語固有特徵的 PAL（語音變容型表詞字）與 SPAL（語義·語音變容型表詞字），同樣存在於韓國的漢字借用語標記體系中。進而，本研究透過分析原先僅限於改新漢字的類型5至7，在韓國與日本如何透過連鎖方式貢獻於形態素標記，以此精細化 Handel(2019) 的分類體系。結果顯示，韓國的口訣字並非單純的表音文字，而在向表音標記過渡之前，長期作為與特定形態素密切相關的「形態素標記字」發揮作用。

關鍵詞：漢字變容、韓國借字表記、釋讀口訣、吏讀、形態素標記字、PAL、SPAL

On the Adaptation of Sinograms for Specific Morphemes in Korean Sinographic Writing¹⁾

MOON Hyunsoo (Korea University)

1. Introduction

East Asian countries within the Sinosphere have historically adapted the Graph(形), Pronunciation(音), and Semantics(義) of Chinese characters in diverse ways to represent their own vernacular languages. Recently, Handel(2019) systematized these patterns of adaptation into eight distinct categories, ranging from Type 1 to Type 8. He specifically argued that typological differences—between agglutinative languages like Korean and Japanese and isolating languages like Vietnamese and Zhuang—led to divergent methods of character adaptation. In other words, while Korea and Japan primarily utilized a sequence of semantic and phonetic elements to represent polysyllabic morphemes, Vietnam and the Zhuang people tended to create newly innovated logograms that corresponded to their monosyllabic morphemes.

However, Handel(2019)'s analysis is limited by its heavy focus on 14th-century *Eumdok-Kugyol* 音讀口訣 and modern adaptations of Chinese characters, thereby failing to fully account for the precise morphographic writing systems found in the Goryeo 高麗 Dynasty's *Seokdok-Kugyol* 釋讀口訣 and *Idu* 吏讀.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at PAL(Phonetically Adapted Logograms) and SPAL(Semantically-Phonetically Adapted Logograms)—which Handel identified as characteristics unique to Vietnamese and Zhuang—also exist within the Korean sinographic writing system. This will be achieved through a close examination of *Kugyol* characters and *Idu* orthography. Furthermore, this study seeks to refine and supplement Handel(2019)'s classification system by analyzing how Types 5 through 7, which Handel restricted solely to newly innovated sinograms, actually contribute to morphographic writing in Korea and Japan through the use of sequences.

2. A Review of Handel(2019): Analysis of Chinese Character Adaptation

Chinese characters consist of three fundamental elements: Graph(形), Pronunciation(音), and Semantics(義). Handel(2019) illustrates this relationship in the following formula:

1) Based primarily on 문현수(2024ㄱ) as well as 문현수(2023) and 문현수(2024ㄴ), this paper summarizes their core contents with some additional updates and revisions.

(1) G(P, S)=Graph(Pronunciation, Semantics) ex) 日(/rì/, 'day'), 三(/sān/, 'three')

Handel(2019) divided the adaptation of Chinese characters for Sinographic vernacular writing in East Asia into four major types.

類型 Type	韓國語譯 Korean	用例 Usage
第1類型 Type 1	DAL (Directly Adapted Logogram)	音讀字 [韓國] 日(/rì/, 'day') > 日(/il/, 'na[day]') [日本] 日(/rì/, 'day') > 日(/nichì/, 'hi[day]') [越南] 買(/mǎi/, 'mǎi[buy]') > 買(/mǎi/, 'mǎi[buy]') [壯] 三(/sān/, 'san[three]') > 三(/sān/, 'san[three]')
第2類型 Type 2	SAL (Semantically Adapted Logogram)	訓讀字 [韓國] 日(/il/, 'na[day]') > 日(/nal/, 'na[day]') [日本] 日(/nichì/, 'hi[day]') > 日(/hi/, 'hi[day]') [壯] 月(/yuè/, 'ndwen[moon]') > 月(/ndwen/, 'ndwen[moon]')
第3類型 Type 3	PAP (Phonetically Adapted Phonogram)	音假字 [韓國] 日(/il/, 'na[day]') > 日(/il/) [日本] 日(/nichì/, 'hi[day]') > 日(/nichì/)
	PAL (Phonetically Adapted Logogram)	音假字? [越南] 沒(/mò/, 'mò[sink]') > 沒(/mò/, 'mò[one]') [壯] 文(/wén/, 'wén[culture]') > 文(/vun/, 'vun[person]')
第4類型 Type 4	SAP (Semantically Adapted Phonogram)	訓假字 [韓國] 日(/il/, 'na[day]') > 日(/nal/) [日本] 日(/nichì/, 'hi[day]') > 日(/hi/)
	SPAL (Semantically Phonetically Adapted Logogram)	訓假字? [壯] 人(/rén/, 'hun[person]') > 人(/hun/, 'hun[person]') > 人(/hun/, 'hun[ascend]')

[Table 1] Handel(2019)'s Classification of Sinographic Adaptations(Types 1-4)

In Table 1, DAL and SAL correspond to Korea's *eumdokja* 音讀字 and *hundokja* 訓讀字, respectively. Meanwhile, the terms *eumgaja* 音假字 and *hungaja* 訓假字 have been used to correspond to PAP and SAP. In Handel(2019), PAL and SPAL are terms used to describe cases—such as in Vietnam and Zhuang—where the phonetic adaptation of Chinese characters results in logograms. While the terms *eumgaja* 音假字 and *hungaja* 訓假字 could potentially be used to refer to these, they were not originally defined to presuppose cases where the adaptation results specifically in logograms, as is the case with PAL and SPAL.

類型 Type	韓國語譯 Korean	用例 Usage
第5類型 Type 5	S+P 連鎖 sequence	訓主音從 [韓國] 夜(/ya/, 'pan[night]') + 音(/m/) > 夜音(/pam/, 'pan[night]') [日本] 夜(/ya/, 'yoru[night]') + 流(/ru/) > 夜流(/yoru/, 'yoru[night]')
	S+P 改新 innovated	韓國漢字 國字 字喃 [韓國] 石(/seok/, 'tol[stone]') + 乙(/N/) > 𪔐(/tol/, 'tol[stone]') [日本] 月(/niku[flesh]') + 泉(/seN/, 'izumi[spring]') > 腺(/seN/, 'seM[gland]') [越南] 四(/sì/, 'bôn[four]') + 本(/bôn/) > 𪔐(/bôn/, 'four') [壯] 六(/roek/) + 鳥(/roeg[bird]') > 𪔐(/roeg/, 'bird')
第6類型 Type 6	S+S 改新 innovated	韓國漢字 國字 字喃 [韓國] 水(/su/, 'mul[water]') + 田(/jeon/, 'pal[field]') > 畚(/tap/, 'nor[field(rise)]') [日本] 𪔐(/hito[person]') + 動(/dou/, 'ugoku[move]') > 働(/hataraku/, 'to work') [越南] 人('person') + 上('above') > 仝(/trùm/, 'village leader') [壯] 在('be at') + 于('be at') > 𪔐(/youq/, 'to be at')

第7類型 Type 7	P+P 改新 innovated	韓國漢字 國字 字喃	[韓國] 道(/to/) + 乙(/l/) > 遵(/tol/) [日本] 麻(/ma/) + 呂(/ro/) > 磨(/maro/) ※希有 rare [越南] 巴(/ba/) + 陵(/lǎng/) > 𪛗(/trǎng(<blǎng)/, 'moon') [壯] 巴(/ba/) + 恩(/en/) > 𪛗(/boenq/, 'busy')
第8類型 Type 8	略體化 simplification	口訣字 假名字 字喃	[韓國] 只(/ki/, 'tamar[only]') > 只(/ki/) > 𪛗(/ki/) [日本] 天(/teN/, 'ame[sky]') > 天(/te/) > テ(/te/) [越南] 區別記號 '◌' 追加 Addition of diacritics 買(/mǎi/, 'buy') > 買◌(/mói/, 'new') 尼(/ní/, 'Buddhist nun') > 尼◌(/này/, 'this')
	多様な手段 various means	女眞文字	[女眞] 劃 追加 Addition of strokes 日(/rì/, 'day') > 𪛗(/inəŋgi/, 'day') 合字 Ligature 十(/shí/, '10')+五(/wǔ/, '5') > 𪛗(/tobohon/, '15')

[Table 2] Handel(2019)'s Classification of Sinographic Adaptations(Types 5-8)

Handel(2019) suggests that types 5-8 of the adaptation are employed in the following three cases:

- ① When there is no Chinese character with a meaning that perfectly corresponds to the meaning of a vernacular language morpheme.
- ② When there is no Chinese character with a sound that perfectly corresponds to a syllable or phoneme of the vernacular language.
- ③ When ambiguity arises regarding the reading of a character.

In Table 2, the S+P sequence has traditionally been understood in Korea as *hunju-umjong* 訓主音從, and S+P innovations have been classified as *Gukja* 國字. Specifically, when these innovations occur in Japan, they are referred to as *Kokuji* 国字, and in Vietnam, they are called *Chữ Nôm* 字喃. The same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logic apply to S+S innovations and P+P innovations.

Handel(2019) separately classifies cases of Chinese character adaptation accompanied by changes in graph shape as Type 8. In Korea, the results of simplified or abbreviated graph are called *Kugyol* characters 口訣字, while in Japan, such simplified results are referred to as *Kana* 仮名. The results of graph changes in Vietnam are designated as *Chữ Nôm* 字喃, and those in Jurchen are referred to as Jurchen script 女眞文字.

類型 Type	韓國 Korean	日本 Japanese	越南 Vietnamese	壯 Zhuang	備考 Notes
第1類型 Type 1 DAL	○	○	○	○	중국어에서 비롯된 차용어를 표기함 Writes Sino-xenic loans
第2類型 Type 2 SAL	○	○	-	○	-
第3類型 Type 3① PAP	○	○	-	-	한국에서는 음절자로 쓰일 수도 있고 자음자로 쓰일 수도 있으나, 일본에서는 음절자로 쓰임.
第3類型 Type 3② PAL	-	-	○	○	Both syllabic and consonantal in Korean; only syllabic in Japanese
第4類型 Type 4① SAP	○	○	-	-	제2유형과 제3유형의 연쇄적 변용에 의한 결과물과 대등함.
第4類型 Type 4② SPAL	-	-	-	○	Equivalent to sequential adaptation of Types 2 and 3

[Table 3] Comparison of Sinographic Adaptation Methods in Handel(2019) (Types 1-4)

Handel(2019) explains that PAP(Type 3) and SAP(Type 4) occur in Korea and Japan, while PAL(Type 3) and SPAL(Type 4) occur in Vietnam and Zhuang, showing a complementary distribution. This is attributed to the typologic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which are polysyllabic agglutinative languages—and Vietnamese and Zhuang—which are monosyllabic isolating languages. In other words, in Vietnam and Zhuang, adapted characters form a tight relationship with specific monosyllabic morphemes, resulting in their development into logographs. In contrast, in Korea and Japan, adapted characters can only represent a portion of a polysyllabic morpheme,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function as logographs.

類型 Type	韓國 Korean	日本 Japanese	越南 Vietnamese	壯 Zhuang	備考 Notes
第5類型 Type 5 S+P	連鎖 sequence	連鎖 sequence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일본과 한국의 개신 한자는 몇 안 됨. Japanese and Korean have a handful of innovated graphs
第6類型 Type 6 S+S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베트남과 좡에서 훨씬 더 흔함 far more common in Vietnamese and Zhuang
第7類型 Type 7 P+P	(改新) (innovated)	-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한국에서는 대개 한문의 고유명에 나타남, 일본은 극히 드물. occurs in Korean mostly for proper names in Literary Sinitic texts; extremely rare in Japanese.
第8類型 Type 8 Mod.	略體化 simplification	略體化 simplification	多様な手段 various means	多様な手段 various means	

[Table 4] Comparison of Sinographic Adaptation Methods in Handel(2019) (Types 5-8)

Furthermore, Handel(2019) observes that while Korea and Japan developed methods to represent polysyllabic morphemes of their vernacular languages using S+P sequences(Type 5), Vietnam and Zhuang opted to create newly innovated sinograms to represent their monosyllabic morphemes instead. He further explains that in Korea and Japan, the phonetic components within S+P sequences underwent

simplification—resulting in scripts like *Kugyol* and *Kana*—to clearly distinguish phonetic complements from logographs. In contrast, such a necessity was minimal in Vietnam and Zhuang, and consequently, this type of simplification did not occur.

3. An Examination of sinograms for Representing Korean Morphemes

3.1. Are Korean *Kugyol* characters purely phonographic?

Kugyol characters have traditionally been known as phonograms, and Handel(2019) likewise classifies them as Type 8, regarding them as phonograms equivalent to Japanese *Kana*. This description is sufficient when focusing on the *Kugyol* characters used in *Eumdok-Kugyol* 音讀口訣 from the 14th century onwards. However, the *Kugyol* characters used in *Seokdok-Kugyol* 釋讀口訣 of the 12th and 13th centuries cannot be viewed entirely as pure phonograms. In *Seokdok-Kugyol*, there are numerous morphograms that exclusively represent specific morphemes, and these primarily denote monosyllabic lexical or grammatical morphemes.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ㅚ	ㅜ	ㅟ	ㅢ	ㅤ	ㅥ	ㅦ	ㅧ	ㅨ	ㅩ	終聲
	/a/	/ə/	/o/	/u/	/w/	/ɛ/	/i/	/yə/	/wa/	/wy/	/ay/	/am/	/un/	/ɛn/	/ul/	/ɛl/	/om/	/ɛp/	/ɛs/	/ik/	coda
ㄱ		ㅏ	ㅓ				ㅏ	ㅑ	ㅓ	ㅕ			ㅏ				ㅏ		ㅓ		ㅏ
ㄴ	ㅏ		ㅓ	ㅕ		ㅓ	ㅕ						ㅏ	ㅓ							ㅏ
ㄷ	ㅏ		ㅓ	ㅕ		ㅓ	ㅕ	ㅕ			ㅓ										
ㄹ			ㅓ	ㅕ		ㅓ	ㅕ	ㅕ			ㅓ										
ㅁ	ㅏ		ㅓ				ㅓ	ㅕ													ㅏ
ㅂ			ㅓ				ㅓ	ㅕ													ㅏ
ㅅ	ㅏ		ㅓ				ㅓ	ㅕ													ㅏ
ㅇ	ㅏ	ㅑ	ㅓ	ㅕ			ㅓ	ㅕ					ㅏ	ㅓ	ㅕ	ㅕ				ㅏ	
ㅈ			ㅓ				ㅓ	ㅕ													
ㅊ			ㅓ				ㅓ	ㅕ													
ㅋ			ㅓ				ㅓ	ㅕ													
ㆁ	ㅏ		ㅓ				ㅓ	ㅕ													ㅏ

[Table 5] Syllabary of *Kugyol* Characters in the Avatamsaka Sutra Lineage of *Seokdok-Kugyol*

(2) Evidence that *Kugyol* characters in *Seokdok-Kugyol* function as Morphograms

① Representing multiple allomorphs with a single morphogram

ex) ㅏ [ɛn/un/nɛn/nun/n], ㅓ [ɛl/wl/rɛl/rwl/l]

② Existence of *Kugyol* characters that represent only the *Hun* 訓 of specific Chinese characters

ex) {如} ㅓ [gɛs-], {吾} ㅓ [u]

③ Existence of *Kugyol* characters used solely for particular morphemes

ex) 𐄀[-sɘp-], 𐄁[-si-], 𐄂[hɘ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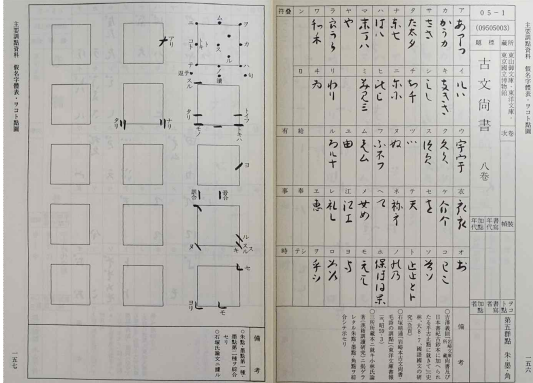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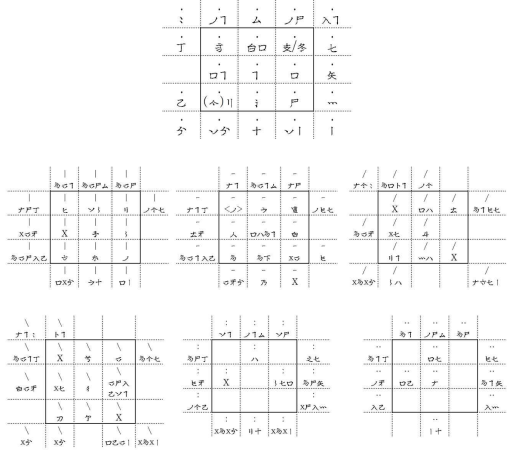
④ Distinctive representation of *Kugyol* characters among homophonous morphograms

ex) 𐄃[ri: -l + -i-], 𐄄[ri: -l + i]

For instance, 𐄀 is used to represent all allomorphs of the topic particle ‘-an/un/nan/nun/n’, and 𐄂 represents all allomorphs of the object particle ‘-al/ul/rɘl/rul/l’. 𐄀 is used exclusively to indicate that the Chinese character ‘如’ has been semantically adapted to represent the Korean morpheme ‘gɘs- [to be like]’; similarly, 𐄃 is used exclusively to show that ‘吾’ has been adapted to represent the native morpheme ‘u [we].’ 𐄀 is used solely for the grammatical morpheme ‘-sɘp- [object honorific]’, 𐄁 for ‘-si- [subject honorific]’, and 𐄂 for the lexical morpheme ‘hɘy- [to make/cause]’. While both 𐄃 and 𐄄 are read as *ri*, they are used distinctively: 𐄃 represents the combination of the gerundive -l and the copula -i-, whereas 𐄄 represents the gerundive -l followed by the bound noun *i*.

Each character in *Seokdok-Kugyol* appears to have been originally devised to represent a specific grammatical or lexical morpheme. While there are instances where these characters are used phonetically, even in such cases, one can easily infer which morpheme the character typically represents in general contexts. Furthermore, if they were purely phonemic, one would expect a variety of characters with the same phonetic value to be used interchangeably, as seen in Japan’s *Manyogana* 万葉仮名. However, considering that *Seokdok-Kugyol* rarely utilizes different characters for the same sound—and that even when characters share the same sound, they often serve to distinguish different morphemes—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se characters are not pure phonogr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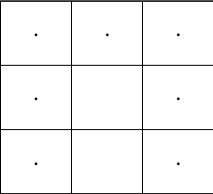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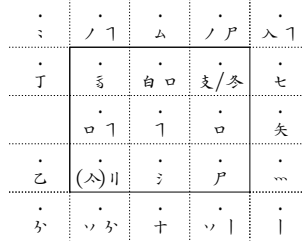
In this regard, it can be argued that *Seokdok-Kugyol* characters are similar in function to the *Okototen* ヲコト点 used in Japanese *Kunten* 訓点 materials. *Okototen* generally represent morphemes such as particles, inflectional endings, and auxiliary verbs; however, some marks are also used simply to represent sounds that are identical to those morphemes(築島 2001).

日本 訓點資料의 ヲクト点과 仮名点 <i>Okototen and Kanaten in Japanese Kunten</i> Materials  『古文尚書』第5群点 點圖·仮名点	韓國 點吐釋讀口訣의 口訣點 <i>Kugyol points in Korean Jeomto</i> <i>Seokdok-Kugyol</i>  周本『華嚴經』點吐釋讀口訣 點圖

[Table 6] Comparison between Japanese *Okototen* and Korean *Kugyol* points

In Japanese *Kanbun-Kundoku* 漢文訓読, a functional distinction is generally maintained: *Okototen* ヲクト点 are responsible for representing grammatical morphemes, while *Kanaten* 仮名点 are used for the phonetic representation of certain lexical morphemes. Consequently, while *Kanaten* are capable of representing the entire inventory of Japanese syllables, *Okototen* alone cannot.

In contrast, in *Jeomto Seokdok-Kugyol* 點吐釋讀口訣 of Korea's *Goryeo* 高麗 Dynasty, no such distinction exists, and only *Kugyol* points 口訣點—which are parallel to the Japanese *Okototen*—are utilized. *Kugyol* characters are rarely used; even when they do appear, they function only to specify the precise reading of the points. In other words, these points can perfectly substitute for all *Kugyol* characters.

 8C 佐藤本 『華嚴經文義要決問答』 點圖(Diacritic Diagram)	 오코토편으로서 해독 Decipherment as <i>Okototen</i>	 구결점으로 해독 Decipherment as <i>Kugyol</i> points	 12C 高麗時代 周本『華嚴經』 點圖(Diacritic Diagram)

한국어 형태소 Korean morpheme	일본어 형태소 Japanese morpheme	문법 기능 Grammatical function
ㅏ	ト	접속조사 Conjunctive Particle
ㅓ/ㅕ	ニ	처격 조사 Locative Case Marker
ㅖ/ㅗ	ノ	속격 조사 Genitive Case Marker
ㅜ	ヲ	목적격 조사 Accusative Case Marker
ㄷ	ハ	주제 보조사 Topic Particle
ㅛ	テ	연결어미 Conjunctive Ending
ㅣ	ナリ	종결어미 Sentence-Final Ending

[Table 7] Comparison of Grammatical Morphemes Represented by *Okoto-ten* and *Kugyol* points

in the *Sato-bon Hwaeomgyeong munui yogyeol mundap* 佐藤本『華嚴經文義要決問答』

The *Sato-bon* 佐藤本 manuscript of the *Hwaeomgyeong munui yogyeol mundap* 華嚴經文義要決問答 is considered to reflect the earliest forms of *Okototen* or *Kugyol* points. In this text, only seven *Okototen/Kugyol* points are employed, all of which represent major grammatical morphemes in both Korean and Japanese. It is presumed that the *Kugyol* points found in the *Jeomto Seokdok-Kugyol* of the *Avatamsaka Sutra* 華嚴經 from the *Goryeo* 高麗 Dynasty inherited and further developed this system. The fact that these points can replace all *Kugyol* characters suggests that the initial *Kugyol* characters used in early *Seokdok-Kugyol* may have originally been morphograms intended to represent specific grammatical elements.

	ㅏ/a/	ㅓ/ay/	ㅖ/ya/	ㅜ/o/	ㅛ/ay/	ㅜ/yo/	ㅛ/wa/	ㅜ/yo/	ㅛ/w/	ㅛ/uy/	ㅛ/uy/	ㅛ/i/	ㅛ/ㅏ/	ㅛ/ㅕ/
ㅏ /k/	可去力 力加何		去去 巨			口古 木人 曰果トホ					十			
ㅓ /n/	尹乃那					女又又		了				ヒ尼	ヒ行	
ㅖ /t/	ㅏ夕多 大ナ		可力 力如		了了	刀			斗斗			ㄱ矢土 知地	亦月入	ム矣 代
ㅜ /r/	ㅏ入四		入駢 汝女		女戶呂	又又 一		了				牙木里 リ		
ㅛ /m/	ㅏ入底				又分							木ッ	馬勿	
ㅛ /p/												非	火	
ㅛ /s/	ㅓ沙		入全		一西	戶所		小				二 時	士	
ㅛ /z/	ㅓ												旧 見	
ㅛ /ø/	ㄱㅏㅏ 阿ㅓ	ㅏ屋	ㅓㅏ 也ㅓ	ㅓㅏ ㅓㅏ		呂与ㅓ 五年ㅓ	ト	要		鳥	ㅓㅏ衣	ㅓㅏ 伊尹		ㅓ 衣
ㅓ /η/												刀應		
ㅓ /j/			ㅓㅏ 時時	齊										
ㅓ /kʰ/			ㅓ											
ㅓ /tʰ/	地					土吐								
ㅓ /g/	下					ノ戶						ㅓ	ㅓ	令

	ㄱ /an/	ㄴ /ən/	ㄷ /yən/	ㄹ /yəŋ/	ㅁ /ok/	ㅂ /uun/	ㅅ /uul/	ㅇ /uim/	ㅈ /in/	ㅊ /ɛl/	ㅋ /ɛp/	ㆁ /ɛs/	ㅇ /ɛy/	終聲 coda
ㄱ /k/														ハ
ㄴ /n/							ㄴ			ㄴ				ㄴ
ㄷ /t/				ㄷ		ㄷ	ㄷ			ㄷ				乙
ㄹ /r/					ㄹ					ㄹ				ㄹ
ㅁ /m/	ㅁ		ㅁ			ㅁ	ㅁ			ㅁ				ㅁ
ㅂ /p/										ㅂ				邑巴
ㅅ /s/								ㅅ			ㅅ	ㅅ	ㅅ	七
ㅇ /z/											ㅇ			
ㅇ /Ø/		ㅇ	ㅇ		ㅇ	ㅇ	ㅇ		ㅇ					

[Table 8] Syllabary of *Kugyol* Characters in *Eumdok-Kugyol*

On the other hand, unlike the characters in *Seokdok-Kugyol*, the *Kugyol* characters used in *Eumdok-Kugyol* 音讀口訣 from the 14th century onwards can be regarded as pure phonograms.

(3) Evidence that *Kugyol* characters in *Eumdok-Kugyol* function as Phonograms

① Representing allomorphs with various different *Kugyol* characters

ex) 白 (/sɛp/, 'object honorific'): 旧午 (/zɛo/), 士午 (/sɛo/), 旧巴 (/zɛp/), 白 (/sɛp/)

② Increase in the number of syllables that *Kugyol* characters can represent

③ Disappearance of *Kugyol* characters dedicated to specific morphemes

④ Representing the same sound with multiple different *Kugyol* characters

ex) /ʔka/: 可, 去, 力, 力, 加, 何

The number of syllables representable by *Eumdok-Kugyol* characters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ose of *Seokdok-Kugyol*. This shift is related to the fact that specific morphemes were no longer represented by a single, fixed character. In other words, various *Kugyol* characters were added to represent the diverse allomorphs of a morpheme based on their actual sounds. Unlike the characters in *Seokdok-Kugyol*, this indicat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umdok-Kugyol* characters and specific morphemes has been severed. Consequently, in *Eumdok-Kugyol*, different characters could be used interchangeably to represent the same syllable. This ultimately proves that they became pure phonograms, functioning in the same manner as Japan's *Kana*.

3.2. Were phonetically adapted logograms(PAL) not used in Korea?

If *Seokdok-Kugyol* characters function to represent monosyllabic lexical and grammatical morphemes, it is worth examining whether any logograms can be identified among the phonetically adapted sinograms.

(4) ① 三 (/sɛp/, '석') > 三 (/sɛp/, '삼[위하여]')

三 (/sɛp/, 'three') > 三 (/sɛp/, 'due to')

<화소20:01-02> 一切 衆生 爲 一切 佛 神力 現 在

- <화소24:18-19> 廣_リ 衆生ヲ {爲} 三 諸_一 法_乙 演說ノ_尸ム
 <화소25:14-15> 廣_リ 衆生ヲ {爲} 三 {於}法_乙 演說_ッ尸ム_ニリナ_一 |
- ② 一(/일/, ‘하나’) > 一(/일/, ‘일-[생기다]’)
 一(/il/, ‘one’) > 一(/il/, ‘occur’)
 <유가08:08-10> 此 尋思_ニ {之} 擾動ノ_一 所_乙 由_リ 障_導乙 {爲} 二 리尸ム_ニ 故_ノ
 <유가14:17-19> {於}生起ノ_尸 所_セ 三摩地_セ 中_リ + 堪能_チ 障_乙 {爲} 二 리ナ_ニセ_一 |
 <유가30:08-09> 能_カ 障_導乙 {爲} 二 리_ニセ_一 有_ッ一 所_セ 煩惱_リ一 此 諸 煩惱_一
- ③ 又(/우/, ‘또’) > 又(/우/, ‘우(리)’)
 又(/u/, ‘again’) > 又(/u/, ‘we’)
 <화소12:11-12> {我} 又 {等} | _ッ一_一 風_乙 欽_セ로_セノ_尸ム_ニ
 <화소12:12> {吾} 又 曹_一 今_ッ一 {者} 各_リ + 求_ノ尸 所_乙 {有} + 로_セノ_一 리_四
- ④ 賜(/시/, ‘주-’) > 賜(/시/, ‘-시-’) > 卬(/시/, ‘-시-’)
 賜(/si/, ‘Bestow’) > 賜(/si/, ‘Subject honorific’) > 卬(/si/, ‘Subject honorific’)
 <安民歌> 臣隱 愛_賜尸 母史也
 <화엄09:01> 爾_ッ一 時 + 賢首菩薩_一 偈_乙 以_リ 答_ッ _リ 曰_卬尸

For instance, the characters 三 and 一 are *Kugyol* characters used to indicate whether the Chinese character ‘爲’ (which carries various meanings) has been semantically adapted to represent the Korean lexical morpheme ‘sam[due to]’ or ‘il-[occur]’. Similarly, 又 is a *Kugyol* character used to represent the Korean lexical morpheme ‘u[we]’ through the semantic adaptation of ‘我’ and ‘吾’. Additionally, 卬 is a *Kugyol* character designed to represent the grammatical morpheme ‘-si-[Subject honorific]’. In *Seokdok-Kugyol*, these characters are used exclusively to denote these specific morphemes; thus, they can be defined as logograms functioning as morphograms. Given that they represent morphemes with meanings entirely different from their original Chinese characters, they can be regarded as Phonetically Adapted Logograms(PAL). As characters intended to represent monosyllabic lexical or grammatical morphemes, many of them have not undergone graphic simplification.

- (5) ① 藿(/곽/, ‘콩잎’) > 藿(/곽/, ‘미역’)
 藿(/kwak/, ‘bean leaves’) > 藿(/kwak/, ‘brown seaweed’)
 ② 太(/태/, ‘크-’) > 太(/태/, ‘콩’)
 太(/tae/, ‘big’) > 太(/tae/, ‘Soybean’)
 ③ 栖(/사/, ‘숟가락’) > 栖(/사/, ‘웃’)
 栖(/sa/, ‘Spoon’) > 栖(/sa/, ‘the Four-stick game yut’)

These PAL are also found outside of *Seok-dok Kugyol*. Since they share the same Chinese character form and sound but differ in meaning from the original Chinese character, they have been treated as either *Guguija* 國義字—a type of *Gukja* 國字 where a vernacular meaning is assigned to an existing character—or as *Idu* characters 吏讀字.

- (6) ① 米(/베이/, ‘こめ[쌀]’) > 米(/베이/, ‘アメリカ[미국]’)

- 米(/bei/, ‘rice’) > 米(/bei/, ‘America’)
- ② 獨(/どく/, ‘ひとり[혼자]’) > 獨(/どく/, ‘ドイツ[독일]’)
獨(/doku/, ‘alone’) > 獨(/doku/, ‘Germany’)
- ③ 仏(/ぶつ/, ‘ほとけ[부처]’) > 仏(/ぶつ/, ‘フランス[프랑스]’)
仏(/butsu/, ‘Buddha’) > 仏(/futsu/, ‘France’)

Similar PALs can also be found in Japan. These are treated as a type of *Ateji* 当て字 and are found in some instances when representing the names of nations.

3.3. Were Semantically-Phonetically Adapted logograms(SPAL) not used in Korea?

Just like PAL, SPAL can also be found in *Seok-dok Kugyol*, as shown below.

- (7) 這(/저/, ‘*ㄹ[이]’) > 這(/ㄹ/, ‘*ㄹ[이]’) > 𪛗(/ㄹ/, ‘ㄹ-[같다]’)
這(/jeo/, ‘*gas[this]’) > 這(/gas/, ‘*gas[this]’) > 𪛗(/gas/, ‘gas[to be like]’)
<화엄02:14-15> 諸 法 相 如 𪛗 悉 能 通 達
<화엄11:11> 能 法 如 𪛗 佛 供 養 白 𪛗
<화엄11:12> 若 能 法 如 𪛗 佛 供 養 白 𪛗

For instance, 𪛗 is a *Kugyol* character used to represent the Korean lexical morpheme ‘gas-[to be like]’, derived through the semantic adaptation of the character ‘如’. Because this character first undergoes a semantic adaptation and subsequently functions as a logogram to represent a morpheme with a meaning entirely distinct from the original Chinese character, it can be classified as a SPAL that has undergone secondary phonetic adaptation.

- (8) ① 火(/화/, ‘불[불]’) > 火(/ㅍ/, ‘불[불]’) > 火(/ㅍ/, ‘ㅍ[강세 보조사]’)
火(/hwa/, ‘peul[fire]’) > 火(/peul/, ‘fire’) > 火(/pas/, ‘Emphatic particle’)
<화엄17:19> {是} 如 三 昧 神 通 相 如 𪛗 一 切 天 人 能 測 莫 𪛗
<금광15:06-07> 是 說 法 師 𪛗 種 種 利 益 安 樂 無 障 身 心 泰 然 𪛗
<금광15:09-11> 是 說 法 處 𪛗 一 切 諸 天 人 非 人 等 𪛗 及 諸 衆 生 𪛗 得 𪛗
② SPAL+PAP: 火(/ㅍ/, ‘ㅍ[강세 보조사]’)+ ㅅ(/ㅅ/) = 火ㅅ(/ㅍ/, ‘ㅍ[강세 보조사]’)
SPAL+PAP: 火(/pas/, ‘Emphatic particle’)+ ㅅ(/ㅅ/) = 火ㅅ(/pas/, ‘Emphatic particle’)
<금광03:13> 二 者 福 德 火ㅅ 具 未 𪛗 𪛗 得 𪛗 安 樂 不 𪛗
<화엄20:05> 示 𪛗 所 苦 行 火ㅅ 𪛗 世 𪛗 堪 𪛗 𪛗 𪛗

火 is a *Kugyol* character that has undergone semantic adaptation. Its status as a logogram is further supported by the fact that it consistently represents the morpheme ‘pas[Emphatic particle]’ and is occasionally used alongside the phonetic complement ㅅ(/ㅅ/) to clarify its reading. Therefore, 火 can be classified as a SPAL, as it is a logogram that has undergone both semantic and subsequent phonetic adaptation.

- (9) ① 串(/관/, ‘곶-’) > 串(/곶/, ‘곶-’) > 串(/곶/, ‘곶[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내민 땅]’)
 串(/kwan/, ‘kot-[to stick]’) > 串(/kot/, ‘to stick’) > 串(/kot/, ‘headland’)
 ② 作(/작/, ‘짓-’) > 作(/짓/, ‘짓-’) > 作(/질/, ‘질[관아의 문서]’)
 作(/jak/, ‘jit-[make]’) > 作(/jit/, ‘make’) > 作(/jil/, ‘an official document’)
 ③ 衿(/금/, ‘깃[옷깃]’) > 衿(/깃/, ‘깃[옷깃]’) > 衿(/깃/, ‘깃[몹]’)
 衿(/keum/, ‘gi[Collar]’) > 衿(/git/, ‘Collar’) > 衿(/git/, ‘share/portion’)

These types of SPAL are more frequently found in *Idu* than in *Seok-dok Kugyol*, as *Idu* involves a higher frequency of lexical representation. Although these characters share the same graph as Chinese characters, their meanings and sounds differ from those of China; thus, they have been categorized as either *Gugeumja* 國音字—a type of *Gukja* 國字 where a vernacular meaning and reading are assigned to an existing character—or as *Idu* characters 吏讀字.

- (10) ① 垢(/こう/, ‘あか[때]’) > 垢(/あか/, ‘あか[때]’) > 垢(/あか/, ‘アカ[계정]’)
 垢(/kou/, ‘aka[grime]’) > 垢(/aka/, ‘grime’) > 垢(/aka/, ‘account’)
 ② 鯖(/qīng/, ‘청어’) > 鯖(/さば/, ‘さば[고등어]’) > 鯖(/さ-ば-, ‘サーバー[서버]’)
 鯖(/qīng/, ‘herring’) > 鯖(/saba/, ‘mackerel’) > 鯖(/sa-ba-, ‘server’)

Similar instances of SPAL can be found in Japan as well. These are regarded as a type of *Ateji* and continue to be newly created and actively used today.

3.4. Were the S+S sequences not used for representing morphemes in Korea?

Handel(2019) categorized the Type 6 S+S as consisting exclusively of innovated sinograms. However, in Korean *Idu*, there are numerous instances where a sequence of semantically adapted sinograms is used to represent multi-syllabic Korean morphemes.

- (11) ① 大(/대/, ‘하-[크다]’) + 父(/부/, ‘아비[아버지]’) > 大父(/한아비/, ‘한아비[할아버지]’)
 大(/tae/, ‘ha-[big]’) + 父(/pu/, ‘ab[father]’) > 大父(/hanabi/, ‘grand father’)
 ② 大(/대/, ‘하-’) + 母(/모/, ‘어미’) > 大母(/한어미/, ‘한어미[할머니]’)
 大(/tae/, ‘ha-[big]’) + 母(/mo/, ‘eom[mother]’) > 大母(/haneomi/, ‘grand mother’)
 ③ 山(/야/, ‘뫼[산]’) + 枝(/지/, ‘갓[가지]>변두리]’) > 山枝(/뫼갓/, ‘뫼갓[입산 및 채취 금지 땅]’)
 山(/ya/, ‘moe[mountain]’) + 枝(/ji/, ‘gas[branch>periphery]’) > 山枝(/moesgas/, ‘restricted mountain area’)

Most of these S+S sequences are either Sino-Korean words not found in China or Japan, or, if they do exist, they carry meanings entirely different from those used in Korea. Consequently, these have been treated as *Idu-eo* 吏讀語 or Korean-style Sino-Korean words 韓國式 漢字語.

- (12) ① 貴(/き/, ‘とうとぶ[귀하-]’) + 方(/ほう/, ‘かた[쪽]’) > 貴方(/あなた/, ‘당신’)
 貴(/ki/, ‘toutobu[to value]’) + 方(/ho-, ‘kata[direction/person]’) > 貴方(/anata/, ‘you’)

- ② 大(/だい/, ‘크-’), + 人(/じん/, ‘사람’) > 大人(/おとな/, ‘어른’)
 大(/dai/, ‘o-[big]’) + 人(/jin/, ‘hito[person]’) > 大人(/otona/, ‘adult’)
 ③ 大(/だい/, ‘크-’) + 和(/わ/, ‘わ[倭: 일본]’) > 大和(/やまと/, ‘야まと[일본]’)
 大(/dai/, ‘o-[big]’) + 和(/wa/, ‘wa[Japan]’) > 大和(/yamato/, ‘ancient Japan’)

Similar S+S sequences can be found in Japan as well. In the Japanese linguistic tradition, cases where a pre-existing multi-character Sino-Japanese word is read as a single native Japanese word are specifically referred to as *Jukujikun* 熟字訓.

- (13) 物(/ぶつ/, ‘もの[사물]’)+語(/ご/, ‘かたり[말하기]’) > 物語(/ものがたり/, ‘이야기’)
 物(/butsu/, ‘mond[thing]’)+語(/go/, ‘katar[Talking]’) > 物語(/monogatari/, ‘story’)

On the other hand, certain S+S sequences such as 物語 *Monogatari* are used in Japan; while these may outwardly appear to be Sino-Japanese words, they were actually coined according to Japanese word-formation rules and are read as vernacular Japanese. Since these characters represent vernacular Japanese words, they are not classified as *Kango* 漢語 within Japan. In Korea, however, because they are written in Sinograms, they are regarded as Japanese-style Sino-Japanese words 日本式 漢字語, viewed as a category of Sino-Japanese vocabulary unique to Japan.

3.5. Were the P+P sequences not used for representing morphemes in Korea?

Handel(2019) posited that for Type 7 (P+P), only a few innovated sinograms were used in Korea. However, in *Idu*, there are cases where P+P sequences are fixed to represent specific multi-syllabic lexical morphemes. Since these were used exclusively in Korea, they have been treated as Korean-style Sino-Korean words 韓國式 漢字語 or *Idu-eo* 吏讀語.

- (14) ① PAP+PAP 연쇄: 阿(/아/) + 只(/기/) > 阿只(/아기/, ‘아기’)
 召(/쵸/) + 史(/시/) > 召史(/쵸시/, ‘조시[양인의 아내나 과부]’)
 PAP+PAP sequence: 阿(/a/) + 只(/ki/) > 阿只(/agi/, ‘baby’)
 召(/jyo/) + 史(/zi/) > 召史(/jyozi/, ‘wife/widow’)
 ② SAP+SAP 연쇄: 次(/가슴/) + 知(/알/) > 次知(/가슴알-, ‘가슴알-[次知하-]’)
 外(/받/) + 上(/자/) > 外上(/받자/, ‘받자[外上]’)
 SAP+SAP sequence: 次(/kazɒm/) + 知(/al/) > 次知(/kazɒmal/, ‘kazɒmal-(>chaji(ha-))[possess]’)
 外(/pat/) + 上(/ja/) > 外上(/patja/, ‘patja(>oesang)[credit]’)
 ③ PAP+PAP 연쇄: 德(/덕/) + 應(/응/) > 德應(/뎡/, ‘뎡: 왕족이 타던 가마’)
 PAP+PAP sequence: 德(/teok/) + 應(/eung/) > 德應(/teong/, ‘Royal Palanquin’)

Among these, SAP+SAP sequences such as 次知 and 外上 have shifted into PAP+PAP sequences in modern Korean, unlike in the past. They remain in active use today and are classified as Korean-style Sino-Korean words.

- (15) ① PAP+PAP 연쇄: 兎(/と/) + 角(/かく/) > 兎角(/とかく/, ‘어쨌든’)
 PAP+PAP sequence: 兎(/to/) + 角(/kaku/) > 兎角(/tokaku/, ‘anyway’)
 ② PAP+PAP 연쇄: 沢(/たく/) + 山(/さん/) > 沢山(/たくさん/, ‘많이’)
 PAP+PAP sequence: 沢(/taku/) + 山(/saN/) > 沢山(/takusaN/, ‘many/much’)
 ③ SAP+SAP 연쇄: 面(/おも/) + 白(/しろい/) > 面白(/おもしろい/, ‘재밌-’)
 SAP+SAP sequence: 面(/omo/) + 白(/siroi/) > 面白(/omosiroi/, ‘fun’)

In Japan, numerous instances are found where P+P sequences function as fixed constructions to represent specific morphemes. These are treated as a type of *Ateji* 当て字 in Japan. While the Japanese may not classify these as Sino-Japanese words 漢語, in Korea, they are regarded as Japanese-style Sino-Japanese words 日本式 漢字語, as they are used in a manner unique to Japan.

4. Conclusion: Proposed Revisions to Handel(2019)

This study has re-examine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sinographic adaptations proposed by Handel(2019) based on Korean *Seokdok-Kugyol* and *Idu* materials. The key findings derived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Kugyol* characters did not function merely as phonograms(PAP) like the Japanese *Kana*. The *Kugyol* characters of 12th-13th century *Seokdok-Kugyol* possessed a strong character as morphograms, consistently representing specific grammatical or lexical morphemes. This is evidenced by the practice of using a single character to represent multiple allomorphs or, conversely, distinguishing between different characters for the same sound based on the morpheme being represented. Furthermore, among these were *Kugyol* characters that correspond to PAL(Type 3②) or SPAL(Type 4②) within Handel’s classification.

Second, the sinographic systems of Korea and Japan developed a unique method of representing polysyllabic vernacular morphemes through sequences of existing Chinese characters, in addition to the innovation theorized by Handel. In *Idu*, S+S sequences(e.g., 大父, 大母) and P+P sequences(e.g., 次知, 德應) functioned as units to represent new Korean morphemes that transcended the individual meanings and sounds of the constituent characters. This aligns with the same principles found in Japanese *Jukujikun* 熟字訓 and *Ateji* 当て字.

Third, the Korean *Kugyol* system underwent a transition into pure phonograms by the era of 14th-century *Eumdok-Kugyol*, as the tight relationship between morphemes and specific characters weakened over time. This demonstrates that *Kugyol* characters underwent a dynamic process of shifting from logographic to phonographic representation.

類型 Type	韓國 Korean	日本 Japanese	越南 Vietnamese	壯 Zhuang
第1類型 Type 1 DAL	○	○	○	○
第2類型 Type 2 SAL	○	○	-	○
第3類型 Type 3① PAP	○	○	-	-
第3類型 Type 3② PAL	●	(●)	○	○
第4類型 Type 4① SAP	○	○	-	-
第4類型 Type 4② SPAL	●	●	-	○
第5類型 Type 5 S+P	連鎖 sequence (改新 innovated)	連鎖 sequence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第6類型 Type 6 S+S	連鎖 sequence (改新 innovated)	連鎖 sequence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第7類型 Type 7 P+P	連鎖 sequence (改新 innovated)	連鎖 sequence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第8類型 Type 8 Mod.	略體化 simplification	略體化 simplification	多様な手段 various means	多様な手段 various means

[Table 9] Revised Classification of Sinographic Adaptation Methods (Types 1 - 8)

In conclusion, the logographic adaptations(PAL, SPAL) that Handel(2019) viewed as exclusive to monosyllabic isolating languages were, in fact, operating as core principles in the early sinographic writing systems of Korea and Japan. The revised classification model, as shown in [Table 9], will provide a more balanced explanation of both the universality of sinographic adaptations shared across East Asia and the particularity arising from th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language.

Bibliography

- 권인한(2023), 『東大寺圖書館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卷12~20 각필점 자료집』, 구결학회 2023년 4월 월례강독회 배포.
- 김병준(2011),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39-84.
- 김영옥(2003),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國語學的 研究」, 『口訣研究』 10, 口訣學會, 47-77.
- 南豊鉉(1981), 『차자표기법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 南豊鉉(2000), 『吏讀研究』, 태학사.
- 南豊鉉(2013), 「동대사 소장 신라화엄경사경과 그 석독구결에 대하여」, 『口訣研究』 30, 口訣學會, 53-79.
- 文玄洙(2017), 「周本 華嚴經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현수(2020ㄱ),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의 특성」, 『국어사연구』 30, 국어사학회, 71-98.
- 문현수(2020ㄴ), 「구결자 ‘ㅍ’와 ‘ㅅ’가 나타내는 형태적 구성에 대하여 -분포와 기능이 겹치는 ‘ㅍ’와 ‘ㅅ’를 중심으로-」, 『東洋學』 7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15.

- 문현수(2022ㄱ),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점도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國語學』 101, 國語學會, 151-179.
- 문현수(2022ㄴ), 「ㄹ과 ㅅ의 변별성 -점토석독구결의 현토 양상을 중심으로-」, 『口訣研究』 48, 口訣學會, 63-92.
- 문현수(2023), 「형태소 표기 중심의 석독구결과 음성 표기 중심의 음독구결」, 『어문논집』 98, 민족어문화회, 213-244.
- 문현수(2024ㄱ), 「제브 핸델의 저서 『Sinography』 (2019)와 한국의 차자 표기」, 『한국학연구』 74,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45-181.
- 문현수(2024ㄴ), 「구결자의 성립과 변천에 대하여」, 『口訣研究』 53, 口訣學會, 95-131.
- 朴盛種(2016), 『朝鮮時代 吏讀 研究』, 역락.
- 안대현(2013), 「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과 古代 韓國語의 ‘ㄴ/矣」, 『口訣研究』 31, 口訣學會, 71-95.
- 이건식(2021), 『한국 고유한자의 구성법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 이 용(2017), 「助詞 表記字로 본 吏讀의 變遷」, 『口訣研究』 38, 口訣學會, 109-149.
- 이 용(2021), 「베트남의 한자 전파와 쓰임의 발전」, 『口訣研究』 47, 口訣學會, 151-189.
- 이 용(2023), 「어말어미 표기자로 본 이두의 변천」, 『口訣研究』 51, 口訣學會, 155-185.
- 이 용(2024ㄱ), 「세계의 문자와 한국의 문자 전통」,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학술총서1: 박물관, 문자를 이야기하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78-151.
- 이 용(2024ㄴ),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접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구결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4, 185-206.
- 정재영(2014), 「신라 사경에 대한 연구」, 『口訣研究』 33, 口訣學會, 97-131.
- 小林芳規(2008), 「角筆による新羅語加點の華嚴經」, 『南都佛教』 91, 東大寺圖書館, 1-18.
- 小林芳規(2010), 「日本の 오코토포의 起源과 古代 韓國語의 點吐와의 關係」, 『口訣研究』 25, 口訣學會, 21-45.
- 築島 裕(2001), 「ヲコト点」, 『訓点語辞典』, 東京堂出版.
- ジョン·ホイット만(2009), 「口訣資料と訓点資料の接点-佐藤本『華嚴文義要決』のヲコト点/點吐を中心」, 100回訓点語学会研究発表会.
- Handel, zev(2019), *Sinography: The Borrowing and Adaptation of the Chinese Script*, Leiden: Brill. 이 용 외 역(2025), 『동아시아의 한자: 중국 문자의 차용과 변용』, 역락.

특정 형태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한국의 차자표기자에 대하여¹⁾

문현수 (고려대)

1. 머리말

한자 문화권인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자의 자연어(自然語)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형(形)·음(音)·의(義)를 다양하게 변용해 왔다. 최근 Handel(2019)은 이러한 한자 변용의 양상을 체계화하여 제1유형부터 제8유형까지 총 8가지의 범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는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와 같은 교착어와 베트남어나 좡어와 같은 고립어 사이의 유형론적 차이가 차자표기 방식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즉, 한국과 일본은 다음절 형태소를 표기하기 위해 주로 의미 요소와 음성 요소를 연쇄하는 방식을 취한 반면, 베트남과 좡은 단음절 형태소와 대응하는 새로운 개신 한자를 만드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Handel(2019)의 분석은 한국의 차자표기 중 14세기 이후의 음독구결(音讀口訣)이나 근대적 관점의 한자 변용에 치우쳐 있어, 고려시대의 석독구결(釋讀口訣)이나 이두(吏讀)에 나타나는 정밀한 형태소 표기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고는 석독구결의 구결자와 이두의 표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차자표기 체계 내에도 Handel이 베트남이나 좡어의 특징으로 보았던 PAL(음성적으로 변용된 표어자) 및 SPAL(의미적·음성적으로 변용된 표어자)이 존재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또한 Handel이 개신 한자로만 한정했던 제5~7유형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연쇄의 형태로 어떻게 형태소 표기에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Handel(2019)의 분류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수정·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Handel(2019)의 한자 변용 분석의 검토

한자는 형(形), 음(音), 의(義)의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Handel(2019)는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1) G(P, S)=Graph(Pronunciation, Semantics) ex) 日(/rì/, 'day'), 三(/sān/, 'three')

Handel(2019)은 자연어(自然語) 표기를 위한 동아시아의 한자 변용을 크게 4가지로 나눴다.

類型 Type		韓國語譯 Korean	用例 Usage
第1類型 Type 1	DAL (Directly Adapted Logogram)	音讀字	[韓國] 日(/rì/, 'day') > 日(/il/, 'na[day]') [日本] 日(/rì/, 'day') > 日(/nichì/, 'hi[day]') [越南] 買(/mǎi/, 'mǎi[buy]') > 買(/mǎi/, 'mǎi[buy]')

1) 이 발표문은 문현수(2024ㄱ)를 중심으로 문현수(2023)과 문현수(2024ㄴ)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추가되거나 수정된 내용도 있다.

第2類型 Type 2	SAL (Semantically Adapted Logogram)	訓讀字	[用] 三(/sān/, 'san[three]) > 三(/sān/, 'san[three])
			[韓國] 日(/il/, 'nal[day]) > 日(/nal/, 'nal[day]) [日本] 日(/nichi/, 'hi[day]) > 日(/hi/, 'hi[day]) [用] 月(/yuè/, 'ndwen[moon]) > 月(/ndwen/, 'ndwen[moon])
第3類型 Type 3	PAP (Phonetically Adapted Phonogram)	音假字	[韓國] 日(/il/, 'nal[day]) > 日(/il/)
	PAL (Phonetically Adapted Logogram)	音假字?	[日本] 日(/nichi/, 'hi[day]) > 日(/nichi/)
第4類型 Type 4	SAP (Semantically Adapted Phonogram)	訓假字	[韓國] 日(/il/, 'nal[day]) > 日(/nal/)
	SPAL (Semantically Phonetically Adapted Logogram)	訓假字?	[日本] 日(/nichi/, 'hi[day]) > 日(/hi/)
第5類型 Type 5	S+P 連鎖 sequence	訓主音從	[韓國] 夜(/ya/, 'pan[night]) + 音(/m/) > 夜音(/pam/, 'pan[night])
			[日本] 夜(/ya/, 'yoru[night]) + 流(/ru/) > 夜流(/yoru/, 'yoru[night])
第6類型 Type 6	S+P 改新 innovated	韓國漢字 國字 字喃	[韓國] 石(/seok/, 'tol[stone]) + 乙(/l/) > 𪛗(/tol/, 'tol[stone])
			[日本] 月(/naku/flesh]) + 泉(/seN/, 'izumi[spring]) > 腺(/seN/, 'seM[gland])
第7類型 Type 7	P+P 改新 innovated	韓國漢字 國字 字喃	[越南] 四(/si/, 'bôn[four]) + 本(/bôn/) > 罌(/bôn/, 'four')
			[用] 六(/roek/) + 鳥(/roeg[bird]) > 鷓(/roeg/, 'bird')
第8類型 Type 8	略體化 simplification	口訣字 假名字 字喃	[韓國] 水(/su/, 'mul[water]) + 田(/jeon/, 'pal[field]) > 畓(/tap/, 'nor[field(rise)])
			[日本] 𪛗(/hit[person]) + 動(/dou/, 'ugoku[move]) > 働(hataraku, 'to work')
第9類型 Type 9	多樣化 手段 various means	女眞文字	[越南] 人('person') + 上('above') > 仝(/trùm/, 'village leader')
			[用] 在 ('be at') + 于 ('be at') > 𪛗(/youq/, 'to be at')
第10類型 Type 10	P+P 改新 innovated	韓國漢字 國字 字喃	[韓國] 道(/to/) + 乙(/l/) > 𪛗(/tol/)
			[日本] 麻(/ma/) + 呂(/ro/) > 磨(/maro/) ※希有 rare
第11類型 Type 11	略體化 simplification	口訣字 假名字 字喃	[越南] 巴(/ba/) + 陵(/lǎng/) > 𪛗(/trǎng(<blǎng)/, 'moon')
			[用] 巴(/ba/) + 恩(/en/) > 𪛗(/boenq/, 'busy')
第12類型 Type 12	略體化 simplification	口訣字 假名字 字喃	[韓國] 只(/ki/, 'taman[only]) > 只(/ki/) > 𪛗(/ki/)
			[日本] 天(/teN/, 'ame[sky]) > 天(/te/) > 𪛗(/te/)
第13類型 Type 13	略體化 simplification	口訣字 假名字 字喃	[越南] 區別記號 '◁' 追加 Addition of diacritics
			買(/mǎi/, 'buy') > 買◁(/mói/, 'new')
第14類型 Type 14	略體化 simplification	口訣字 假名字 字喃	尼(/ní/, 'Buddhist nun') > 尼◁(/này/, 'this')
			[女眞] 劃 追加 Addition of strokes
第15類型 Type 15	略體化 simplification	口訣字 假名字 字喃	日(/rì/, 'day') > 𪛗(/inǎngi/, 'day')
			合字 Ligature
第16類型 Type 16	略體化 simplification	口訣字 假名字 字喃	十(/shí/, '10')+五(/wǔ/, '5') > 𪛗(/tobohon/, '15')

[표1] Handel(2019)의 한자 변용 분류(제1-4유형)

[표1]에서 DAL과 SAL은 각각 한국의 음독자(音讀字)와 훈독자(訓讀字)에 대응한다. PAP와 SAP에 대응하는 용어로는 음가자(音假字)와 훈가자(訓假字)가 각각 사용되어 왔다. PAL과 SPAL은 Handel(2019)에서 베트남과 좡처럼 한자의 음성적 변용 결과가 표어자인 경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들을 가리키기 위해 음가자와 훈가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PAL과 SPAL처럼 변용된 결과가 표어자가 되는 경우를 상정한 용어는 아니다.

類型 Type	韓國語譯 Korean	用例 Usage
第5類型 Type 5	S+P 連鎖 sequence	[韓國] 夜(/ya/, 'pan[night]) + 音(/m/) > 夜音(/pam/, 'pan[night]) [日本] 夜(/ya/, 'yoru[night]) + 流(/ru/) > 夜流(/yoru/, 'yoru[night])
	S+P 改新 innovated	[韓國] 石(/seok/, 'tol[stone]) + 乙(/l/) > 𪛗(/tol/, 'tol[stone]) [日本] 月(/naku/flesh]) + 泉(/seN/, 'izumi[spring]) > 腺(/seN/, 'seM[gland]) [越南] 四(/si/, 'bôn[four]) + 本(/bôn/) > 罌(/bôn/, 'four')
第6類型 Type 6	韓國漢字 國字 字喃	[用] 六(/roek/) + 鳥(/roeg[bird]) > 鷓(/roeg/, 'bird')
		[韓國] 水(/su/, 'mul[water]) + 田(/jeon/, 'pal[field]) > 畓(/tap/, 'nor[field(rise)]) [日本] 𪛗(/hit[person]) + 動(/dou/, 'ugoku[move]) > 働(hataraku, 'to work')
第7類型 Type 7	韓國漢字 國字 字喃	[越南] 人('person') + 上('above') > 仝(/trùm/, 'village leader')
		[用] 在 ('be at') + 于 ('be at') > 𪛗(/youq/, 'to be at')
第8類型 Type 8	略體化 simplification	[韓國] 道(/to/) + 乙(/l/) > 𪛗(/tol/)
		[日本] 麻(/ma/) + 呂(/ro/) > 磨(/maro/) ※希有 rare
第9類型 Type 9	略體化 simplification	[越南] 巴(/ba/) + 陵(/lǎng/) > 𪛗(/trǎng(<blǎng)/, 'moon')
		[用] 巴(/ba/) + 恩(/en/) > 𪛗(/boenq/, 'busy')
第10類型 Type 10	略體化 simplification	[韓國] 只(/ki/, 'taman[only]) > 只(/ki/) > 𪛗(/ki/)
		[日本] 天(/teN/, 'ame[sky]) > 天(/te/) > 𪛗(/te/)
第11類型 Type 11	略體化 simplification	[越南] 區別記號 '◁' 追加 Addition of diacritics
		買(/mǎi/, 'buy') > 買◁(/mói/, 'new')
第12類型 Type 12	略體化 simplification	尼(/ní/, 'Buddhist nun') > 尼◁(/này/, 'this')
		[女眞] 劃 追加 Addition of strokes
第13類型 Type 13	略體化 simplification	日(/rì/, 'day') > 𪛗(/inǎngi/, 'day')
		合字 Ligature
第14類型 Type 14	略體化 simplification	十(/shí/, '10')+五(/wǔ/, '5') > 𪛗(/tobohon/, '15')

[표2] Handel(2019)의 한자 변용 분류(제5-8유형)

Hadel(2019)에서는 아래의 3가지 경우 제5-8유형의 변용을 이용한다고 보고 있다.

- ① 자연어 형태소의 의미와 완벽히 대응되는 의미를 지닌 한자가 없을 때
- ② 자연어 음절·음소와 완벽히 대응되는 소리를 지닌 한자가 없을 때
- ③ 독법의 중의성 문제가 발생할 때

[표2]에서 S+P 연쇄는 한국에서 훈주음종(訓主音從)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S+P 개신은 국자(國字)로 취급되었다. 특히 S+P 개신은 일본에서 이루어진 경우 고쿠지[国字],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경우 쯔놈[字喃]이라고 구분하여 지칭한다. S+S 개신, P+P 개신도 이와 동일하다.

Handel(2019)에서는 자형 변화가 동반되는 한자 변용의 경우를 제8유형으로 따로 분류한다. 한국에서는 자형의 약체화가 이루어진 결과물을 구결자(口訣字)라고 부르고 있으며, 일본에서 이루어진 약체화 결과물은 가나[假名]로 부른다.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자형 변화의 결과물은 쯔놈[字喃], 여진에서 이루어진 자형 변화의 결과물은 여진문자(女眞文字)로 지칭한다.

類型 Type	韓國 Korean	日本 Japanese	越南 Vietnamese	壯 Zhuang	備考 Notes
第1類型 Type 1 DAL	○	○	○	○	중국어에서 비롯된 차용어를 표기함 Writes Sino-xenic loans
第2類型 Type 2 SAL	○	○	-	○	-
第3類型 Type 3① PAP	○	○	-	-	한국에서는 음절자로 쓰일 수도 있고 자음자로 쓰일 수도 있으나, 일본에서는 음절자로 쓰임.
第3類型 Type 3② PAL	-	-	○	○	Both syllabic and consonantal in Korean; only syllabic in Japanese
第4類型 Type 4① SAP	○	○	-	-	제2유형과 제3유형의 연쇄적 변용에 의한 결과물과 대등함.
第4類型 Type 4② SPAL	-	-	-	○	Equivalent to sequential adaptation of Types 2 and 3

[표3] Handel(2019)의 한자 변용 방식 비교(제1-4유형)

Handel(2019)에서는 제3유형의 PAP와 PAL, 제4유형의 SAP와 SPAL은 각각 한국·일본과 베트남·짱에서 상보적 분포를 보이며, 이는 다음절 형태소의 교착어인 한국어·일본어와 단음절 고립어인 베트남어·짱어의 유형론적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한다. 즉, 베트남과 짱은 변용된 글자가 특정 1음절 형태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 결과적으로 표어자가 되는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변용된 글자가 다음절 형태소의 일부만 나타낼 수 있어 표어자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類型 Type	韓國 Korean	日本 Japanese	越南 Vietnamese	壯 Zhuang	備考 Notes
第5類型 Type 5 S+P	連鎖 sequence	連鎖 sequence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일본과 한국의 개신 한자는 몇 안 됨. Japanese and Korean have a handful of innovated graphs
第6類型 Type 6 S+S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베트남과 좡에서 훨씬 더 흔함 far more common in Vietnamese and Zhuang
第7類型 Type 7 P+P	(改新) (innovated)	-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한국에서는 대개 한문의 고유명에 나타남, 일본은 극히 드뭄. occurs in Korean mostly for proper names in Literary Sinitic texts; extremely rare in Japanese.
第8類型 Type 8 Mod.	略體化 simplification	略體化 simplification	多様な 手段 various means	多様な 手段 various means	

[표4] Handel(2019)의 한자 변용 방식 비교(제5-8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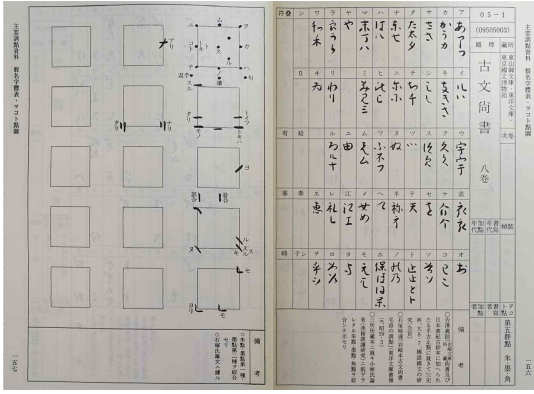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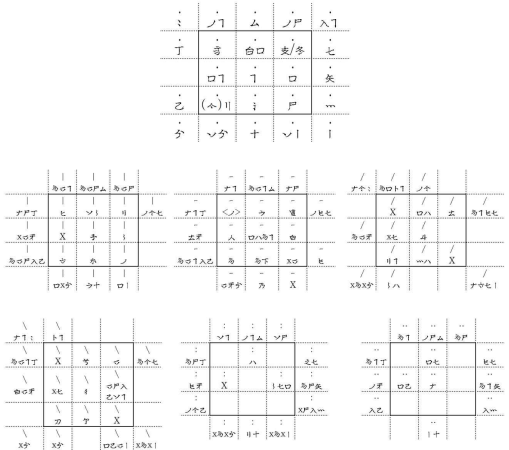
아울러 Handel(2019)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제5유형의 S+P 연쇄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어의 다음절 형태소를 표기하는 방식이 발전한 반면, 베트남과 좡에서는 이러한 방식보다는 1음절 형태소를 나타내는 새로운 개신한자를 만들어 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S+P 연쇄에서 표어자와 표음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음자에 해당하는 글자가 구결자나 가나자와 같이 약체화가 이루어진 반면, 베트남과 좡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이 떨어져 이러한 약체화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한다.

3. 형태소를 표기하는 한국의 차자표기자 검토

3.1. 한국의 구결자는 순수한 표음자인가?

한국의 구결자는 표음자로 알려져 왔으며, Handel(2019)에서도 제8유형으로 분류하여 일본의 가나자와 동일한 표음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14세기 이후의 음독구결에 사용된 구결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충분한 기술이다. 하지만 12-13C 석독구결의 구결자는 모든 구결자를 순수한 표음자로 볼 수만은 없다. 석독구결의 구결자에는 특정 형태소의 표기만을 하는 형태소 표기자가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주로 1음절 어휘·문법 형태소를 표기한다.

2001).

日本 訓點資料의 료트点과 仮名点 <i>Okototen and Kanaten in Japanese Kunten</i> Materials	韓國 點吐釋讀口訣의 口訣點 <i>Kugyol points in Korean Jeomto</i> <i>Seokdok-Kugyol</i>
 『古文尚書』第5群点 點圖·仮名点	 周本『華嚴經』點吐釋讀口訣 點圖

[표6] 일본의 오키토점과 한국의 구결점의 비교

일본의 한문훈독에서는 대체로 오키토점이 문법 형태소의 표기를 담당하고 가나점이 어휘 형태소 일부의 표음적 표기를 담당하여 그 쓰임이 구분된다. 따라서 가나점은 모든 일본어 음절을 나타낼 수 있지만, 오키토점만으로는 모든 일본어 음절을 나타낼 수 없다.

반면에, 한국의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일본의 오키토점에 대응되는 구결점만이 사용된다. 구결자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사용되더라도 구결점의 독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기능만을 한다. 즉, 구결점이 모든 구결자를 완벽히 대신할 수 있다.

<table><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able> 8C 佐藤本 『華嚴經文義要決問答』 點圖(Diacritic Diagram)	・	・	・	・		・	・		・	<table><tr><td>ト</td><td>ニ</td><td>ノ</td></tr><tr><td>ヲ</td><td></td><td>ハ</td></tr><tr><td>テ</td><td></td><td>ナリ</td></tr></table> 오키토편으로서 해독 Decipherment as <i>Okototen</i>	ト	ニ	ノ	ヲ		ハ	テ		ナリ	<table><tr><td>・</td><td>ゞ/ム</td><td>ヲ/セ</td></tr><tr><td>乙</td><td></td><td>1</td></tr><tr><td>か</td><td></td><td>1</td></tr></table> 구결點으로서 해독 Decipherment as <i>Kugyol</i> points	・	ゞ/ム	ヲ/セ	乙		1	か		1	<table><tr><td>・</td><td>ノ</td><td>ム</td><td>ノ</td><td>入</td></tr><tr><td>丁</td><td>・</td><td>白</td><td>支</td><td>七</td></tr><tr><td></td><td>口</td><td>1</td><td>口</td><td>失</td></tr><tr><td>乙</td><td>(入)</td><td>・</td><td>尸</td><td>・</td></tr><tr><td>か</td><td>ッ</td><td>十</td><td>ッ</td><td>1</td></tr></table> 12C 高麗時代 周本『華嚴經』 點圖(Diacritic Diagram)	・	ノ	ム	ノ	入	丁	・	白	支	七		口	1	口	失	乙	(入)	・	尸	・	か	ッ	十	ッ	1
・	・	・																																																					
・		・																																																					
・		・																																																					
ト	ニ	ノ																																																					
ヲ		ハ																																																					
テ		ナリ																																																					
・	ゞ/ム	ヲ/セ																																																					
乙		1																																																					
か		1																																																					
・	ノ	ム	ノ	入																																																			
丁	・	白	支	七																																																			
	口	1	口	失																																																			
乙	(入)	・	尸	・																																																			
か	ッ	十	ッ	1																																																			

한국어 형태소 Korean morpheme	일본어 형태소 Japanese morpheme	문법 기능 Grammatical function
ゝ	ト	접속조사 Conjunctive Particle
ゞ/ム	ニ	처격 조사 Locative Case Marker
ヲ/セ	ノ	속격 조사 Genitive Case Marker
乙	ヲ	목적격 조사 Accusative Case Marker
ㄱ	ハ	주제 보조사 Topic Particle
ㄴ	テ	연결어미 Conjunctive Ending
ㅣ	ナリ	종결어미 Sentence-Final Ending

[표7] 佐藤本 『華嚴經文義要決問答』의 오코토점/구결점이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 비교

가장 초기의 오코토점 내지 구결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佐藤本 『華嚴經文義要決問答』에서는 7개의 오코토점/구결점만이 쓰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어/일본어의 주요 문법 형태소를 표기하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의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구결점은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서 쓰인 구결점이 모든 구결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초기의 석독구결의 구결자도 기원적으로 문법 형태소를 표기하던 형태소 표기자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ト/a/	ハ/ay/	ヲ/ya/	乙/ə/	ゞ/ay/	ゞ/yə/	ㄱ/o/	ㄴ/wa/	ㅣ/yo/	ㄷ/u/	ㄱ/uy/	ㄴ/uy/	ㅣ/i/	ㄴ/	ㄴ/ay/
ㄱ /k/	可 カ			太 タ			口 コ	木 キ					十 ジ		
ㄴ /n/	尹 イ	乃 ノ		巨 キ		女 メ	古 コ	日 ヒ	了 リ				ヒ ニ	毛 モ	行 キ
ㄷ /t/	ㄷ ト	多 タ	大 ダイ	可 カ	力 リ	了 リ	刀 タ			斗 ト			才 サ	月 ツキ	矣 ヤ
ㄹ /r/	ㄹ ル	入 ニ		入 ニ	汝 ニ	女 メ	又 マ	又 マ	了 リ				才 サ	里 リ	
ㄴ /m/	个 コ	广 ハ	広 ハ				又 マ						来 キ	馬 バ	勿 フ
ㅁ /p/													非 ヒ	火 カ	
ㅂ /s/	ㄷ ト	沙 サ		入 ニ		一 イチ	面 メン	戸 コ	小 コ				二 ニ	时 ジ	士 シ
ㅅ /z/	ㄷ ト													旧 キウ	児 キ
ㅇ /Ø/	ㄴ ニ	阿 ア	厩 ウ	ㄴ ニ	ㄴ ニ	呂 ロ	与 ヨ	五 ゴ	午 ヌ	ト	要 ヨ		為 ニ	衣 イ	衣 イ
ㅇ /ŋ/													刀 タ	應 エイ	
ㅈ /j/				上 カ	時 ジ	齊 ジ									
ㅊ /kʰ/				太 タ											
ㅌ /tʰ/	地 チ						土 ツ	味 ミ							
ㅇ /g/	下 カ						ノ ノ	戸 コ					兮 キ	ッ ツ	令 キ

	ㄴ /an/	ㄴ /ən/	ㄴ /yən/	ㄴ /yəŋ/	ㄴ /ok/	ㄴ /un/	ㄴ /uŋ/	ㄴ /um/	ㄴ /in/	ㄴ /il/	ㄴ /ap/	ㄴ /as/	ㄴ /ay/	終聲 coda
ㄱ /k/													如 リ	ハ
ㄴ /n/							ㄴ ニ			ㄴ ニ				ㄱ
ㄷ /t/				ㄷ ト		入 ニ	亦 モ			亦 モ				乙
ㄹ /r/					衆 ジュウ					ㄴ ニ				ㄴ
ㄴ /m/	万 マン		ㄴ ニ				勿 フ	音 オン		馬 バ				邑 イ
ㅁ /p/										火 カ				邑 イ
ㅂ /s/								申 シン		日 ジ	白 ハク		生 セイ	七
ㅅ /z/										日 ジ				
ㅇ /Ø/		ㄴ ニ	月 ゲツ		玉 ジュウ	月 ゲツ	ㄴ ニ	印 イン						

[표8] 음독구결 출현 구결자의 음절표

반면에 14C 이후 쓰인 음독구결의 구결자는 석독구결의 구결자와 달리 순수한 표음자라고 볼 수 있다.

(3) 음독구결의 구결자가 표음자라는 증거

- ① 이형태를 다양한 구결자로 표기 ex) 白(/습/, '객체높임'): 旧年(/스오/), 去年(/스오/), 旧巴(/습/), 白(/습/)
- ② 구결자가 나타낼 수 있는 음절의 증가
- ③ 특정 형태소만을 표기하는 구결자의 소실
- ④ 동일한 음을 다양한 구결자가 표기 ex) /가ka/: 可, 去, 力, 力, 加, 何

음독구결의 구결자는 석독구결의 구결자에 비해 나타낼 수 있는 음절의 수가 대폭 늘었는데, 이는 특정 형태소를 더 이상 하나의 구결자로 표기하지 않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한 형태소의 다양한 이형태를 그 소리에 따라 표기하기 위해 다양한 구결자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석독구결의 구결자와 달리 음독구결의 구결자가 특정 형태소와의 긴밀한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음독구결에서는 석독구결과 달리 동일한 음절을 표기하기 위해 구결자가 수의적으로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가나자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표음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3.2. 한국에서 음성적으로 변용된 표어자인 PAL은 사용되지 않았는가?

석독구결의 구결자가 1음절 어휘·문법 형태소를 표기하는 것이라면, 음성적으로 변용된 글자 가운데 표어자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① 三(/삼/, '석') > 三(/삼/, '삼[위하여]')

三(/sam/, 'three') > 三(/sam/, 'due to')

<화소20:01-02> 一切 衆生ヲ {爲}三 一切 佛ニ 神力ニ 現ス

<화소24:18-19> 廣ニ 衆生ヲ {爲}三 諸ノ 法ニ 演說ノム

<화소25:14-15> 廣ニ 衆生ヲ {爲}三 {於}法ニ 演說ノムニナリ

② 一(/일/, '하나') > 一(/일/, '일-[생기다]')

一(/il/, 'one') > 一(/il/, 'occur')

<유가08:08-10> 此 尋思ニ{之} 擾動ノ 所ニ 由リ 障導ニ {爲}一ニ入ル 故ノ

<유가14:17-19> {於}生起ノ 所ニ 三摩地ニ 中リ 堪能キ 障ニ {爲}一ニナリ

<유가30:08-09> 能キ 障導ニ {爲}一ニ入ル 有リ 所ニ 煩惱ニ 此 諸 煩惱

③ 又(/우/, '또') > 又(/우/, '우(리)')

又(/u/, 'again') > 又(/u/, 'we')

<화소12:11-12> {我}又 {等}一 風ニ 欽セロセノ入ル

<화소12:12> {吾}又 曹一 今一{者} 各々 求ノ 所ニ {有}サロセノ一

④ 賜(/시/, '주-') > 賜(/시/, '-시-') > 𐄀(/시/, '-시-')

賜(/si/, 'Bestow') > 賜(/si/, 'Subject honorific') > 𐄀(/si/, 'Subject honorific')

<安民歌> 臣隱 愛賜尸 母史也

<화엄09:01> 爾一 時ニ 賢首菩薩一 偈ニ 以テ 答ツ 曰𐄀

예를 들어, 三과 一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 한자 '爲'가 의미적으로 변용되어 한국어 어휘 형태소 '삼'을 표기하는지 혹은 '일-'을 표기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구결자이며, 又는 '我'

와 ‘ㅍ’가 의미적으로 변용되어 한국어 어휘 형태소 ‘우’를 표기하기 위한 구결자이다. 그리고 ㄴ은 문법 형태소 ‘-시-’를 표기하기 위한 구결자이다. 이들은 석독구결에서 해당 형태소만을 표기하는 데만 쓰이는데, 그렇다면 이 글자들은 형태소 표시자로서 표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원래의 한자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형태소를 표기한다는 점에서 음성적으로 변용된 표어자인 PAL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1음절의 어휘·문법 형태소를 표기하기 위한 구결자로서 약체화를 겪지 않은 경우가 많다.

- (5) ① 藿(/괵/, ‘콩잎’) > 藿(/괵/, ‘미역’)
 藿(/kwak/, ‘bean leaves’) > 藿(/kwak/, ‘brown seaweed’)
 ② 太(/태/, ‘크-’) > 太(/태/, ‘콩’)
 太(/tae/, ‘big’) > 太(/tae/, ‘Soybean’)
 ③ 柶(/사/, ‘숟가락’) > 柶(/사/, ‘윷’)
 柶(/sa/, ‘Spoon’) > 柶(/sa/, ‘the Four-stick game yut’)

이러한 PAL은 석독구결 이외에서도 발견된다. 이들은 한자와 자형 및 소리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본래의 한자와 다르다는 점에서 국자의 일종인 국의자(國義字) 내지 이두자(吏讀字)로 취급되어 왔다.

- (6) ① 米(/베이/, ‘こめ[쌀]’) > 米(/베이/, ‘アメリカ[미국]’)
 米(/bei/, ‘rice’) > 米(/bei/, ‘America’)
 ② 獨(/도く/, ‘ひとり[혼자]’) > 獨(/도く/, ‘ドイツ[독일]’)
 獨(/doku/, ‘alone’) > 獨(/doku/, ‘Germany’)
 ③ 仏(/부つ/, ‘ほとけ[부처]’) > 仏(/부つ/, ‘フランス[프랑스]’)
 仏(/butsu/, ‘Buddha’) > 仏(/futsu/, ‘France’)

일본에서도 이러한 PAL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PAL은 아테지(当て字)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국명(國名)을 나타내는 데에서 일부 발견된다.

3.3. 한국에서 의미적·음성적으로 변용된 표어자인 SPAL은 사용되지 않았는가?

PAL과 마찬가지로 석독구결에서도 아래와 같이 SPAL을 찾아볼 수 있다.

- (7) 這(/저/, ‘*ㄹ[이]’) > 這(/ㄹ/, ‘*ㄹ[이]’) > 𪛗(/ㄹ/, ‘ㄹ-[같다]’)
 這(/jeo/, ‘*gas[this]’) > 這(/gas/, ‘*gas[this]’) > 𪛗(/gas/, ‘gas[to be like]’)
 <화엄02:14-15> 諸 1 法相 乙 {如} 𪛗 悉 3 能 支 通達 ヲ 가
 <화엄11:11> 能 法 3 + {如} 𪛗 佛 乙 供養 ヲ 白 乙 牙 分
 <화엄11:12> 若 能 法 3 + {如} 𪛗 佛 乙 供養 ヲ 白 乙 尸 入 1

예를 들어, 𪛗는 ‘如’가 의미적으로 변용되어 한국어 어휘 형태소 ‘글-’을 표기하기 위한 구결자이다. 이 글자는 의미적으로 변용된 후에 원래의 한자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형태소를 표기한다는 점에서 다시 음성적으로 변용된 표어자인 SPAL로 볼 수 있다.

- (8) ① 火(/화/, ‘불[불]’) > 火(/붓/, ‘불[불]’) > 𤇗(/붓/, ‘붓[강세 보조사]’)

- 火(/hwa/, 'peul[fire]') > 火(/peul/, 'fire') > 火(/pas/, 'Emphatic particle')
- <화엄17:19> {是} 如ッ 三昧神通セ 相乙火 一切 天人 能矢 測ッ 今 莫セナ 一
- <금광15:06-07> 是 說法師乙火 種種 利益ノ 安樂 無障ッ 身心 泰然ッ 今 莫セナ 一
- <금광15:09-11> 是 說法處乙火 一切 諸 天 人 非人 等ッ 及 諸 衆生 得ッ 今 莫セナ 一
- ② SPAL+PAP: 火(/뵓/, '뵓[강세 보조사]') + 세(/入/) = 火세(/뵓/, '뵓[강세 보조사]')
- SPAL+PAP: 火(/pas/, 'Emphatic particle') + 세(/s/) = 火세(/pas/, 'Emphatic particle')
- <금광03:13> 二者 福德火세 具 未ハッ 一 十 一 得ッ 今 安樂 不冬ッ 今
- <화엄20:05> 示リ 所セ 苦行火세ハ 入 一 世 堪リ 矢ッ 今 靡セリ 今 莫セナ 一

火는 의미적으로 변용된 구결자인데, 이 구결자가 표어자라는 것은 이 구결자가 언제나 형태소 '뵓'만을 표기하며 음정보충자 세와 함께 쓰여 火의 독법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데에서도 지지될 수 있다. 그렇다면 火는 의미적으로 변용되고 다시 음성적으로 변용된 표어자라는 점에서 SPAL이라고 할 수 있다.

- (9) ① 串(/관/, '곶') > 串(/곶/, '곶') > 串(/곶/, '곶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내민 땅')
- 串(/kwan/, 'kot-[to stick]') > 串(/kot/, 'to stick') > 串(/kot/, 'headland')
- ② 作(/작/, '짓-') > 作(/짓/, '짓-') > 作(/질/, '질관아의 문서')
- 作(/jak/, 'jit-[make]') > 作(/jit/, 'make') > 作(/jil/, 'an official document')
- ③ 衿(/금/, '깃[옷깃]') > 衿(/깃/, '깃[옷깃]') > 衿(/깃/, '깃[몹]')
- 衿(/keum/, 'gi[Collar]') > 衿(/git/, 'Collar') > 衿(/git/, 'share/portion')

이러한 SPAL은 석독구결보다 이두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이두는 석독구결보다 어휘 표기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자와 자형은 동일하지만 그 의미와 소리가 중국의 한자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국자(國字)의 일종인 국음자(國音字) 내지 이두자(吏讀字)로 취급되어 왔다.

- (10) ① 垢(/こう/, '아카[때]') > 垢(/あか/, '아카[때]') > 垢(/あか/, 'アカ[계정]')
- 垢(/kou/, 'aka[grime]') > 垢(/aka/, 'grime') > 垢(/aka/, 'account')
- ② 鯖(/qīng/, '청어') > 鯖(/さば/, 'さば[고등어]') > 鯖(/さ-ば-, 'サーバー[서버]')
- 鯖(/qīng/, 'herring') > 鯖(/saba/, 'mackerel') > 鯖(/sa-ba-, 'server')

일본에서도 이러한 SPAL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SPAL은 아테지(当て字)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현재도 새롭게 만들어져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3.4. 한국에서 S+S 연쇄는 형태소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는가?

Handel(2019)에는 제6유형 S+S에 개신 한자만이 있다고 보았으나, 한국의 이두에서는 의미적으로 변용된 한자의 연쇄로 사용되어 한국어의 다음절 형태소를 표기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 (11) ① 大(/대/, '하-[크다]') + 父(/부/, '아버지[아버지]') > 大父(/한아버지/, '한아버지[할아버지]')
- 大(/tae/, 'ha-[big]') + 父(/pu/, 'ab[father]') > 大父(/hanabi/, 'grand father')
- ② 大(/대/, '하-') + 母(/모/, '어미') > 大母(/한어미/, '한어미[할머니]')

- 大(/tae/, 'ha-[big]) + 母(/mo/, 'eom[mother]) > 大母(/haneomi/, 'grand mother')
 ③ 山(/야/, '뫼[산]) + 枝(/지/, '갓[가지>변두리]) > 山枝(/뫼갓/, '뫼갓[입산 및 채취 금지 땅])
 山(/ya/, 'moel[mountain]) + 枝(/ji/, 'gas[branch>periphery]) > 山枝(/moesgas/, 'restricted mountain area')

이러한 S+S 연쇄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이거나 사용되더라도 한국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들을 이두어 내지 한국식 한자어로 취급해 왔다.

- (12) ① 貴(/키/, 'とうとぶ[귀하-]) + 方(/ほう/, 'かた[쪽]) > 貴方(/あなた/, '당신')
 貴(/ki/, 'toutobu[to value]) + 方(/ho-, 'kata[direction/person]) > 貴方(/anata/, 'you')
 ② 大(/다이/, '크-'), + 人(/じん/, '사람') > 大人(/おとな/, '어른')
 大(/dai/, 'o-[big]) + 人(/jin/, 'hito[person]) > 大人(/otona/, 'adult')
 ③ 大(/다이/, '크-') + 和(/와/, 'わ[倭: 일본]) > 大和(/やまと/, '야まと[일본])
 大(/dai/, 'o-[big]) + 和(/wa/, 'wa[japan]) > 大和(/yamato/, 'ancient Japan')

일본에서도 이러한 S+S 연쇄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기존에 쓰이던 두 글자 이상의 한자어를 하나의 고유어로 읽는 경우를 한정하여 숙자훈(熟字訓)이라고 부르고 있다.

- (13) 物(/ぶつ/, 'もの[사물]) + 語(/ご/, 'かたり[말하기]) > 物語(/ものがたり/, '이야기')
 物(/butsu/, 'mond[thing]) + 語(/go/, 'katar[Talking]) > 物語(/monogatari/, 'story')

한편, 외형적으로는 한자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어의 조어 규칙에 따라 만들어져 일본어로 읽는 '物語'와 같은 S+S 연쇄도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들이 일본 고유어를 표기하고 있으므로 한자어로 취급하지 않겠지만 한국에서는 이들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한자어로 보아 일본식 한자어로 취급할 것이다.

3.5. 한국에서 P+P 연쇄는 형태소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는가?

Handel(2019)에서는 제7유형 P+P에 대해 한국에서 일부의 개신 한자만이 사용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두에서는 P+P 연쇄가 고정적으로 특정한 다음절 어휘 형태소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만 사용되었으므로 한국 한자어 내지 이두어로 취급되어 왔다.

- (14) ① PAP+PAP 연쇄: 阿(/아/) + 只(/기/) > 阿只(/아기/, '아기')
 召(/쥬/) + 史(/시/) > 召史(/쥬시/, '조시[양인의 아내나 과부])
 PAP+PAP sequence: 阿(/a/) + 只(/ki/) > 阿只(/agi/, 'baby')
 召(/jyo/) + 史(/zi/) > 召史(/jyozi/, 'wife/widow')
 ② SAP+SAP 연쇄: 次(/가슴/) + 知(/알/) > 次知(/가슴말-, '가슴말-[次知하-])
 外(/발/) + 上(/자/) > 外上(/발자/, '발자[外上])
 SAP+SAP sequence: 次(/kazam/) + 知(/al/) > 次知(/kazamal/, 'kazamal->chaji(ha-))[possess])
 外(/pat/) + 上(/ja/) > 外上(/patja/, 'patja(>oesang)[credit])
 ③ PAP+PAP 연쇄: 德(/덕/) + 應(/응/) > 德應(/뎡/, '뎡: 왕족이 타던 가마')
 PAP+PAP sequence: 德(/teok/) + 應(/eung/) > 德應(/teong/, 'Royal Palanquin')

이 가운데 次知와 外上와 같은 SAP+SAP 연쇄는 과거와 달리 현대 한국어에서 PAP+PAP 연쇄로 바뀌어 현재도 여전히 쓰이고 있으며, 한국 한자어로 취급되고 있다.

- (15) ① PAP+PAP 연쇄: 兎(/と/) + 角(/かく/) > 兎角(/とかく/, ‘어쨌든’)
 PAP+PAP sequence: 兎(/to/) + 角(/kaku/) > 兎角(/tokaku/, ‘anyway’)
 ② PAP+PAP 연쇄: 沢(/たく/) + 山(/さん/) > 沢山(/たくさん/, ‘많이’)
 PAP+PAP sequence: 沢(/taku/) + 山(/saN/) > 沢山(/takusaN/, ‘many/much’)
 ③ SAP+SAP 연쇄: 面(/おも/) + 白(/しろい/) > 面白(/おもしろい/, ‘재밌-’)
 SAP+SAP sequence: 面(/omo/) + 白(/siroi/) > 面白(/omosiroi/, ‘fun’)

일본에서도 P+P 연쇄가 고정된 구성으로 특정 형태소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일본에서는 이들을 아테지(当て字)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한자어로 취급하지 않겠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한자어로 보아 일본 한자어로 취급할 것이다.

4. 결론: Handel(2019)의 수정 제안

본고는 Handel(2019)이 제시한 한자 변용 분류 체계를 한국의 석독구결 및 이두 자료를 바탕으로 재검토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구결자는 단순히 일본의 가나와 같은 표음자(PAP)로만 기능하지 않았다. 12-13세기 석독구결의 구결자들은 특정 문법 형태소나 어휘 형태소를 고정적으로 표기하는 형태소 표기자(morphogram)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이는 이형태를 하나의 글자로 통합 표기하거나, 동일한 음임에도 형태소에 따라 글자를 변별하여 사용하는 양상을 통해 입증된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Handel의 분류상 PAL(제3유형②) 또는 SPAL(제4유형②)에 해당하는 구결자도 존재하였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차자표기 체계에는 Handel이 상정한 개신(innovation) 형태뿐만 아니라, 기존 한자의 연쇄(sequence)를 통해 자연어의 다음절 형태소를 표기하는 독특한 방식이 발달해 있었다. 이두에서의 S+S 연쇄(大父, 大母 등)나 P+P 연쇄(次知, 德應 등)는 개별 한자의 의미와 소리를 넘어서 새로운 한국어 형태소를 표기하는 단위로 기능해 왔으며, 이는 일본의 속자훈(熟字訓)이나 아테지(当て字)와도 궤를 같이한다.

셋째, 한국의 구결 체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형태소와 글자의 긴밀한 관계가 약화되면서 14세기 이후 음독구결에 이르러 순수한 표음자(phonogram)로 변모하였다. 이는 한국의 차자표기가 ‘형태소 표기’에서 ‘표음 표기’로 이행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類型 Type	韓國 Korean	日本 Japanese	越南 Vietnamese	壯 Zhuang
第1類型 Type 1 DAL	○	○	○	○
第2類型 Type 2 SAL	○	○	-	○
第3類型 Type 3① PAP	○	○	-	-
第3類型 Type 3② PAL	●	(●)	○	○
第4類型 Type 4① SAP	○	○	-	-

第4類型 Type 4② SPAL	●	●	-	○
第5類型 Type 5 S+P	連鎖 sequence (改新 innovated)	連鎖 sequence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第6類型 Type 6 S+S	連鎖 sequence (改新 innovated)	連鎖 sequence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第7類型 Type 7 P+P	連鎖 sequence (改新 innovated)	連鎖 sequence	改新 innovated	改新 innovated
第8類型 Type 8 Mod.	略體化 simplification	略體化 simplification	多様な手段 various means	多様な手段 various means

[표9] 수정된 한자 변용 방식(제1-8유형)

결론적으로, Handel(2019)이 단음절 고립어의 전유물로 보았던 표어자적 변용(PAL, SPAL)은 한국과 일본의 초기 차자표기 체계에서도 핵심적인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다. [표9]와 같이 수정된 분류 모델은 동아시아 각국이 공유했던 한자 변용의 보편성과 각 언어의 유형론적 특징에 따른 특수성을 보다 균형 있게 설명해 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인한(2023), 『東大寺圖書館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卷12~20 각필점 자료집』, 구결학회 2023년 4월 월례강독회 배포.
- 김병준(2011),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39-84.
- 김영옥(2003), 「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의 國語學的 研究」, 『口訣研究』 10, 口訣學會, 47-77.
- 南豐鉉(1981), 『차자표기법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 南豐鉉(2000), 『吏讀研究』, 태학사.
- 南豐鉉(2013), 「동대사 소장 신라화엄경사경과 그 석독구결에 대하여」, 『口訣研究』 30, 口訣學會, 53-79.
- 文玄洙(2017), 「周本 華嚴經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현수(2020ㄱ),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의 특성」, 『국어사연구』 30, 국어사학회, 71-98.
- 문현수(2020ㄴ), 「구결자 ‘ㅅ’와 ‘ㅆ’가 나타내는 형태적 구성에 대하여 -분포와 기능이 겹치는 ‘ㅅ’와 ‘ㅆ’를 중심으로-」, 『東洋學』 7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15.
- 문현수(2022ㄱ),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점도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國語學』 101, 國語學會, 151-179.
- 문현수(2022ㄴ), 「ㅅ와 ㅆ의 변별성 -점토석독구결의 현토 양상을 중심으로-」, 『口訣研究』 48, 口訣學會, 63-92.
- 문현수(2023), 「형태소 표기 중심의 석독구결과 음성 표기 중심의 음독구결」, 『어문논집』 98, 민족어문학회, 213-244.
- 문현수(2024ㄱ), 「제브 헨텔의 저서 『Sinography』 (2019)와 한국의 차자 표기」, 『한국학연구』 74,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45-181.
- 문현수(2024ㄴ), 「구결자의 성립과 변천에 대하여」, 『口訣研究』 53, 口訣學會, 95-131.
- 朴盛種(2016), 『朝鮮時代 吏讀 研究』, 역락.

- 안대현(2013), 「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과 古代 韓國語의 ‘ㄴ/矣」, 『口訣研究』 31, 口訣學會, 71-95.
- 이건식(2021), 『한국 고유한자의 구성법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 이 용(2017), 「助詞 表記字로 본 吏讀의 變遷」, 『口訣研究』 38, 口訣學會, 109-149.
- 이 용(2021), 「베트남의 한자 전파와 쓰임의 발전」, 『口訣研究』 47, 口訣學會, 151-189.
- 이 용(2023), 「어말어미 표기자로 본 이두의 변천」, 『口訣研究』 51, 口訣學會, 155-185.
- 이 용(2024ㄱ), 「세계의 문자와 한국의 문자 전통」,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학술총서1: 박물관, 문자를 이야기하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78-151.
- 이 용(2024ㄴ),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접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구결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4, 185-206.
- 정재영(2014), 「신라 사경에 대한 연구」, 『口訣研究』 33, 口訣學會, 97-131.
- 小林芳規(2008), 「角筆による新羅語加點の華嚴經」, 『南都佛教』 91, 東大寺図書館, 1-18.
- 小林芳規(2010), 「日本の 오코토點의 起源과 古代 韓國語의 點吐와의 關係」, 『口訣研究』 25, 口訣學會, 21-45.
- 築島 裕(2001), 「ヲコト點」, 『訓點語辭典』, 東京堂出版.
- ジョン·ホイットマン(2009), 「口訣資料と訓點資料の接点-佐藤本『華嚴文義要決』のヲコト點/點吐を中心」, 100回訓點語學會研究發表會.
- Handel, zev(2019), *Sinography: The Borrowing and Adaptation of the Chinese Script*, Leiden: Brill.
- 이 용 외 역(2025), 『동아시아의 한자: 중국 문자의 차용과 변용』, 역락.